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 호

평 양 근로자사 1972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 호(358)

차 례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

동지들!

우리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1971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1972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동지들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드립니다.

1971년은 우리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강령을 수행하는 첫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당 제5차대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중심을 두고 투쟁하였습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특히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중심과업인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당은 3대기술혁명수행의 중심고리를 공작기계생산에서 찾고 6개년계획의 첫해전투에서 공작기계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당에 끝없이 충실한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대담하게 달라붙어 설비를 개조하고 생산공정을 적극 자동화하여 년간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할수 있는 수준을 돌파함으로써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희천의 로동계급이 일으킨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구성공작기계공장과 만경대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모든 기계공장들이 공작기계생산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올해 5. 1절전으로 3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의 마지막돌격전을 벌리고있습니다. 우리가 한해에 3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게 되면 중요한 기계공장들을 더 늘일수 있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술적장비를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여러 부문의 수리기지를 보다 튼튼히 꾸릴수 있게 될것입니다.

지난해에 뜨락또르와 자동차 생산부문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뜨락또르, 자동차 공장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강화되였으며 그 생산량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공작기계와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이 대대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석탄공업을 비롯한 채취공업부문의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으며 농촌기술혁명도 많이 진척되였습니다. 또한 교통운수부문의 기술적장비가 강화되고 수송능력이 훨씬 높아졌으며 수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도 더욱 튼튼하여졌습니다.

1971년에 우리는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커다란 돌파구를 열어놓았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으며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한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기계공업을 비롯한 기간적중공업부문들이 발전하는데 따라 경공업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새로 일떠선 경공업공장들이 잘 꾸려지고 이미 있던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이 정상화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질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수 있는 토대가 닦아졌습니다.

1971년에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로동자, 사무원, 학생, 군인들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모내기를 5월 25일전으로 끝내고 모든 영농작업을 제때에 실속있게 함으로써 례년에 드문 대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민들에게 부식물을 더 넉넉히 공급할수 있도록 축산업의 토대도 튼튼히 닦아놓았습니다.

지난해에 국방공업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국방공업의 토대가 더 강화되고 모든 군수공장들에서 생산계획을 넘쳐완수함으로써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거둔 이러한 성과들은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강화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는데서 커다란 기여로 됩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첫해전투에서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은 1971년을 기쁜 마음으로 돌이켜보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린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원쑤들의 끊임없는 군사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물리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굳건히 보위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안전원들은 혁명적경각성을 높여 적들의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냈으며 로농적위대원들과 붉은 청년근위대원들은 전투정치훈련을 잘하여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고있는 우리의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그리고 사회안전원들과 로농적위대원들, 붉은 청년근위대원들에게 충심으로부터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1971년에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화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였습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악랄한 장기집권책동을 반대하여 완강히 싸웠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였습니다. 청년학생들은 원쑤들의 가혹한 탄압과 테로에도 굴하지 않고 강압적인 군사훈련과 학원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반대하여 대중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남조선의 광범한 민주세력은 《민주수호국민협의회》와 같은 통일전선조직을 형성하고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의 용감한 투쟁으로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지난날에는 평화통일이라는 말조차 할수 없던 남조선에서 이제는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였으며 조국의 통일과 남북간의 접촉을 그처럼 완고하게 반대하던 남조선당국자들로 하여금 늦게나마 남북조선 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에 응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남조선인민들이 쟁취한 커다란 승리입니다.

나는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남조선인민들이 쟁취한 승리를 열렬히 축하하며 남조선의 전체 로동자, 농민, 진보적인테리들과 청년학생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에 총련과 그 두리에 굳게 뭉친 재일조선동포들은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총련조직들은 민족교육의 권리를 수호하며 민족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재일조선동포들은 일본인민들과 단결하여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을 반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적대시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나는 1972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60만 재일조선동포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1971년에 국제정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고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을 비롯하여 중국인민과 인도지나인민, 일본인민 그리고 기타 아세아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아세아에서 《닉슨주의》가 실패의 운명에 빠져들어가게 하였으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해외침략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난해에 윁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은 반미구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인도지나인민들은 자기의 용감한 투쟁으로 미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평화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형제적린방인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더욱 높아진것은 지난해에 세계정치생활에서 일어난 커다란 사변의 하나입니다. 지난해에 세계 많은 나라

물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하여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권리가 회복되고 장개석도당이 유엔의 모든 기구들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중국인민의 승리일뿐 아니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승리입니다.

지난해에 일본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재생과 그의 해외침략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일본인민들과 일본의 광범한 민주세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적대시정책을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조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나는 아세아에 대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셔버리며 모험적인 《닉슨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국인민, 윁남인민, 라오스인민, 캄보쟈인민, 일본인민 그리고 기타 아세아나라 인민들이 쟁취한 빛나는 승리를 열렬히 축하하며 그들에게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지난해에 영웅적꾸바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도발 책동을 용감하게 물리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칠레인민은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으며 우루과이, 볼리비아, 아르헨띠나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인민들이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여 영웅적꾸바인민과 칠레인민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에 아랍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습니다. 나는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이 미제와 이스라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룩한 승리를 열렬히 축하하며 올해에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지난해에 앙골라, 모잠비끄, 기네(비싸우) 애국자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투쟁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인민들이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아프리카인민들이 거둔 빛나는 승리를 열렬히 축하하며 그들에게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 당의 옳바른 대외정책에 의하여 지난해에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 혁명에 대한 지지자와 동정자 대렬이 더욱 늘어났으며 세계의 더욱더 많은 혁명적인민들이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혁명위업을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의 진보적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올해에 우리는 이미 이룩한 승리와 성과들을 공고히 하면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세계진보적인민들 특히 아세아혁명적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

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며 온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더욱 앞당겨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무엇보다먼저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공작기계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공작기계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들은 희천과 구성, 만경대의 붉은 기계전사들의 모범을 따라 공작기계생산에서 또다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고 모든 공작기계공장들에서 공작기계의 품종을 늘이며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채취공업과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여러가지 질좋은 공작기계들을 더 많이 대주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뜨락또르와 자동차 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은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농촌에 보내주어야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고 농업생산을 빨리 높일수 있으며 농촌로력을 절약하여 공업부문에 돌릴수 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뜨락또르공장과 자동차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더 늘이고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2~3년안에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는 3~4대, 자동차는 0.5~1대씩 차례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당이 내놓은 방침대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대규모의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 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는것과 함께 군중적운동을 벌려 여러곳에 중소규모의 자동화계기기구분공장들을 건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의 하나는 강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금속자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는것입니다. 광업부문과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자기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들을 지표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함으로써 동, 연, 아연, 니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색금속자재들과 강재에 대한 인민경제 여러부문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공작기계생산과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강재를 어김없이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지난해에 대풍작을 이룩한 경험을 살려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또다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을 빨리 높이기 위한 기본고리는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입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농업생산의 기계화, 화학화 수준을 더욱 높이며 분수식관수체계를 널리 실시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분수식관수체계를 잘 리용하는 한편 분수식관수면적을 더 늘여 2모작을 널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종자개량사업을 잘하여 우리 나라

의 기후풍토에 맞는 좋은 종자들을 만들어내며 여러가지 선진영농방법을 널리 적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약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이 랑비현상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며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원료와 자재를 극력 절약하며 원단위소비기준을 결정적으로 낮춤으로써 적은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강령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과업입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혁명적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기초우에서 우리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며 특히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범한 생산자대중속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학습을 널리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적교육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교육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며 가까운 시일에 10년제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교육부문일군들은 이미 얻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 몇해안에 10년제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수 있도록 그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문학예술부문일군들앞에는 당의 문예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의 문학과 예술을 우리 시대의 참다운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만들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지난해에 당의 붉은 문예전사들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우수한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높이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올해에 작가, 예술인들은 근로자들속에서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 공산주의미래에 대한 굳은 신심을 북돋아주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 우수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더욱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전당, 전군, 전민, 전국이 학습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자기의 혁명초소를 믿음직하게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두다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며 조직성이 있고 혁명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킬줄 아는 혁명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간부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모든 사업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 제5차대회는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며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과업들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당이 내놓은 이 영예로운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주의공업국가의 위력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군을 잘 꾸리며 농촌의 빠스화, 수도화를 더욱 다그쳐 농촌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빨리 덜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에서 살림집을 많이 건설하여 살림집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며 인민보건사업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올해에 방직공업, 신발공업, 식료공업, 일용품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들과 화학공업에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전반적생활수준을 훨씬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이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로선입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한편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간부화, 현대화하며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할데 대한 당의 군사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원쑤들의 어떤 불의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걸쳐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전투정치훈련을 정력적으로 하여 부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이미 거둔 성과에 토대하여 새로운 군사장비들을 더 많이, 더잘 만들어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이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여야 할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속에서는 평화적조국통일의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습니다. 판문점에서는 해방후 26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조선 적십자단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남북으로 갈라진 동포들의 불행을 덜어줄데 대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고있습니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남북사이의 이러한 접촉이 늦게나마 실현된것을 매우 기뻐하고있으며 이 회담이 남북사이의 장벽을 허물며 평화적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의 반동들과 집권자들은 있지도 않는 그 무슨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을 구실로 이른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놈들은 요즘 매일같이 각종 파쑈적악법들을 조작해내고있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온갖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마저 여지없이 말살하고 남조선사회를 끝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있습니다. 며칠전에는 야당들과 사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파쑈적악법을 날조해냈습니다.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을 거역하고 시대

의 흐름에 역행하는 남조선반동들의 이러한 파쑈화책동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평화통일기운을 억누르며 남북사이의 접촉과 협상을 파탄시키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남조선의 현 괴뢰통치배들은 1960년 4. 19인민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급격히 높아가는 평화통일기운을 억누르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총칼로 《정권》을 가로챈 군사깡패들입니다. 그들은 괴뢰정권에 들어앉은 다음 《자주》요, 《부흥》이요, 《근대화》요하는 따위의 허울좋은 구호들을 내걸고 남조선인민들을 속이려 하였으나 그 본질은 이미 세상에 드러난지 오랩니다. 지난 10년동안 남조선은 《자주》의 길이 아니라 가장 철저한 예속의 길을 걸어왔으며 《부흥》과 《근대화》의 길이 아니라 여지없는 파산과 몰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더는 헤여날수 없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빠져들어갔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더큰 불안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폭압소동을 벌림으로써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와보려고 피하지만 그것은 림종에 다달은자들의 마지막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어대는것은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여론을 속이고 상전으로부터 몇자루의 무기와 몇푼의 딸라를 더 구걸하려는 극히 비렬한 행위입니다. 력사적흐름은 매국노들의 이러한 비렬한 행위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놈들의 기만술책은 그 누구도 속이지 못할것입니다.

요즘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가 이미 전쟁준비를 끝냈기때문에 오래지 않아 쳐나올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떠들어대고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국방력을 강화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결코 무력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보위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의 무장력은 어디까지나 자위를 위한것입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은 오직 제국주의자들과 반동계급들, 반혁명분자들이 혁명을 반대하여 폭력을 사용할 때에만 폭력으로 대항합니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이며 우리 공화국정부의 행동지침입니다. 그러므로 남조선괴뢰도당이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어대는것은 황당무계한 허위선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지금 남조선괴뢰도당의 허위선전에 속아넘어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의 허위선전과 파쑈적폭압소동은 오히려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분노와 항의를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일본의 일부 반동적지배계층과 어용출판물들까지도 남조선에서의 《비상사태》선포는 남침의 위협에서라기보다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구며낸 정치적술책이며 사회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서방의 한 출판물은 남조선위정자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한것은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때문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것과 관련되는바 그것은 급성적경제위기로

인하여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불만을 억누르며 청년학생들의 시위투쟁과 지성인들의 항의, 야당들의 반항을 탄압하기 위한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을 파멸에서 구출해주리라는 어리석은 기대를 더는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와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의 내부문제를 가지고 함부로 좌지우지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으며 그들은 자기의 운명도 건져낼수 없는 내리막길에 들어선지 오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국내적으로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를 겪고있으며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여가고있습니다. 일본의 사또도당도 지배층내부의 알륵과 광범한 인민대중의 강력한 반정부투쟁에 부딪쳐 허우적거리고있습니다. 결국 남조선괴뢰도당의 처지나 그 상전들의 처지나 별로 다를것이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 사또도당이 대만의 장개석도당이나 남부웰남의 티우도당을 파멸에서 구출하지 못한것처럼 남조선괴뢰도당도 결코 구출하지 못할것입니다.

형편이 이러한 오늘에 와서까지 남조선괴뢰도당은 계속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매여달려 자기들의 괴뢰통치를 유지하여보려고 시도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미제가 궁지에 빠져 남조선에 끌어들인 침략무력을 형식적으로나마 《감축》하려고 하는것을 《감축》하지 말아달라고 애걸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까지 남조선에 다시 끌어들이고있습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의 이러한 민족반역행위는 그들의 파멸을 촉진시킬따름입니다.

더우기 남조선괴뢰도당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승공통일》을 해보겠다고 망상한다는것은 실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력사는 이미 공산주의를 소멸할수 없다는것을 충분히 증명하였습니다. 공산주의운동은 빠리콤뮨으로부터 계산하여도 10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않은자들이 하나도 없었으나 그 누구도 공산주의를 소멸하지 못하였습니다.

남조선의 력대괴뢰통치배들도 례외없이 《반공》의 구호를 들고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였으나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는 소멸된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을 따라 장성강화되여왔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공산주의사상은 이미 오래전에 확고한 지배적사상으로 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위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되였습니다. 공산주의사상은 수많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도 깊이 자리잡고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남조선괴뢰도당이 꿈꾸고있는 《승공통일》이 전혀 실현될 가망이 없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오늘의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지금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 력사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비렬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들은 어떠한 출로도 찾아내지 못할것입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만일 그 어떤 출로를 찾으려 한다면 지금과 같은 비렬한 술책에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자기의 죄과를 솔직히 인정하고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하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조선사람끼리 협상하여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진지한 호소에 호응해나서야 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여러번 내놓았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해에만 하여도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8개 항목의 평화통일방안을 내놓았으며 특히 8월 6일에 우리가 한 연설에서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다시금 천명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모든 방안과 제안들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뿐아니라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과 각계층 인사들속에서도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도 마땅히 이 거족적인 추세에 반맞추어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들에 호응해나서는 용단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하는것만이 조선민족으로서 그들이 하여야 할 유일하게 옳바른 소행으로 될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할 때에만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이 늦게나마 조국과 인민 앞에 저지른 죄과를 다소라도 씻고 자신을 구원할 출로를 찾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남조선위정자들이 이제라도 외세의존과 민족반역의 길을 버리고 참다운 조선사람의 립장으로 돌아선다면 우리는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을것이며 그들과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주장할것이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인내성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도당이 여기에 응하지 않고 계속 민족반역의 길로 나간다면 그들은 영원히 매국노의 죄악을 씻지 못한채 멸망하고말것입니다.

오늘 미제국주의는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나 그 침략적본성은 의연히 변하지 않았으며 계속 발악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들고나오는 《평화》의 간판은 인민들을 속이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닉슨은 누구보다도 더 악랄하고 교활한 놈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영구히 분렬시켜 남조선을 자기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으며 남조선괴뢰도당을 부추겨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적도발책동을 계속하고있습니다. 또한 미제에 의하여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야욕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돌격대》로서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가담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있으며 침략의 기회만 노리고있습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결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노예로 될수 없으며 1910년의 수치스러운 망국의 력사를 되풀이할수 없습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조국수호와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꺾어버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난날 나라와 민족 앞에 죄과를 저지른 사람들도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섬으로써 이를 통하여 자기의 죄를 씻어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위정자들도 민족반역의 죄과를 씻으려 한다면 마땅히 이 투쟁에 합류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미제국주

의자들에게 남조선에서 나가지 말아달라고 애걸할것이 아니라 미제를 몰아내기 위하여 투쟁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애쓸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침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싸운다면 우리는 어떠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 능히 쳐물리칠수 있습니다. 만일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끝내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일치 단결하여 원쑤들과 판가리싸움을 할것이며 침략자들을 완전히 소탕해버리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할것입니다.

올해에 총련조직들과 전체 재일조선동포들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수호하며 민족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재일조선동포들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여야 하며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일본의 광범한 민주세력과 굳게 단결하여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적대시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특히 재일조선동포들은 미일반동들과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과 온갖 파괴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고 대오를 더욱 튼튼히 결속하며 모두다 총련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국제정세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세계반제혁명력량은 날로 확대강화되고있으며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중국인민, 인도지나인민, 일본인민 그리고 기타 아세아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힘차게 벌릴것입니다. 그리하여 미제의 악명높은 《닉슨주의》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며 우리 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에 더욱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여나갈것입니다.

동지들!

새해 1972년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해로 될것입니다. 올해에 우리는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또다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게 될것이며 평화적조국통일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될것입니다. 우리 당의 옳바른 령도가 있고 전체 인민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확고히 지지옹호하며 그 관철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이상 우리의 혁명위업은 언제나 필승불패입니다.

모두다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6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김 일 성

(일본《요미우리신붕》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신들은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대하여왔으며 일본에 있는 우리 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업과 귀국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또한 조선과 일본 두나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감사히 생각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현지지도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였는데 우리는 지도라기보다도 배우기 위하여 군중속에 들어갑니다.

지난날 혁명투쟁을 하여오던 우리가 건설사업을 하자고 하니 많은 문제들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자면 대중 특히는 직접 생산하는 로동자, 농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자주 공장과 농촌에 나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의논합니다.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맑스-레닌주의당도 집권당이 되면 주관주의에 빠지고 관료주의를 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을 면하자면 군중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모든것을 의논하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선생은 인민대중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들에게서 배웁니다.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에나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나 우리는 언제나 대중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부닥친 난관을 뚫을 방도를 찾았으며 그들에게서 신심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수많은 실례를 들수 있을것입니다.

혁명투쟁이나 건설사업이나 그 성과의 기본고리가 당과 대중의 통일에 있다고 하는것은 우리의 일관된 신조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공장과 농촌들에는 이름없는 영웅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당을 받들고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갑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에게 당의 의도를 알려주고 그들의 창발적의견을 종합하며 그에 기초하여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과 대중의 결합된 힘에 의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이 성과있게 관철되여나가고있

습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과 같이 호흡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까지 주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과오를 범하지 않은 비결은 여기에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주관주의적오유에 빠지지 않고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계속 강화할것입니다.

당신들이 제기한 질문을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당신들의 질문은 매우 넓은 분야에 걸쳐 많은 문제들을 포괄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이 묻고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편의상 내용에 따라 몇가지로 묶어서 대답하려고 합니다.

1. 주체사상에 대하여

당신들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간단히 대답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내가 주체사상에 대하여 쓴 일련의 책들을 읽게 된다면 더잘 리해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활동의 지도적지침입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있습니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주로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자주성과 창조성을 구현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없고 수입할수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혁명을 대신해줄수는 없습니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 자체의 힘입니다.

더우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혁명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종전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새롭게 수많이 나서게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 혁명에서는 무엇보다도 주인인 그 나라 인민자신이 노력하고 투쟁하여야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혁명과 건설을 성과있게 수행할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혁명실천에서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을것을 요구합니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것만큼 혁명에서 승리하자면 사람들이 옳은 혁명적세계관을 가져야 하며 여기에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상과 관점을 가지는것이 중요합니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이러한 요구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주체를 세우는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부 사람들의 머리속에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을 덮어놓고 숭배하며 큰 나라를 섬기는 비굴한 사대주의사상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사상

에 물젖은 사람들은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에도 자기 인민에 튼튼히 의거하여 자체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남만 쳐다보면서 제가끔 자기의 상전을 업고 당파싸움만 일삼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 나라는 남에게 먹히우게 되였습니다.

사대주의는 그 이후에도 가셔지지 않았으며 거기에 교조주의까지 겹쳐 우리 나라 혁명발전에 커다란 해독을 끼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주의운동이 좌절되고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실패한것도 그 주되는 원인은 사대주의와 그로부터 흘러나온 종파주의에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뿐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이러한 실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도 주체적립장을 지키지 못하고 남의 나라 사상조류들을 업고나선 파벌들이 생기여 혁명발전에 많은 지장을 준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을 망쳐먹는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았습니다.

사대주의에 빠져 남에게 맹종맹동하면 과오를 범하여도 어떻게 되여 과오를 범하였는지 그 원인을 알수 없으며 고칠 방도도 찾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간다면 혁명과 건설을 잘할수 있을뿐아니라 혹시 과오를 범한다 하여도 그 원인을 인차 찾을수 있고 고칠수 있습니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이 력사적경험을 살려 혁명투쟁에서 절대로 사대주의를 해서는 안되며 앞으로 새 조국을 창건할 때에는 반드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말 그대로 자주독립적인 국가를 건설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조선혁명가들의 한결같은 지향이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8.15해방후 미제국주의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혁명이 복잡성과 간고성을 띠게 되였으며 남조선에서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이 뿌리박고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환상까지 퍼지고있는 조건에서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을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보고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에 걸쳐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이 력사적인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오래동안 민족자주의식과 창조적지혜를 좀먹고있던 사대주의사상의 멍에로부터 우리 인민의 완전한 정신적해방을 이룩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이 철저히 구현되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원들과 간부들은 물론 인민들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며 그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사상은 매우 건전합니다.

당신들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의 정책의 문제점이 어데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대내외정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각 부문의 로선과 정책은 물론 구체적인 방

침들도 그 밑바닥에는 주체사상이 놓여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우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에 구현되고있습니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입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정치적자결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야만 나라의 완전독립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웠으며 또 세우고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것을 그대로 따오거나 모방하지도 않습니다.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이 규정하고 관철한 정책들은 모두 어디에서 베껴온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립장에서서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창조적으로 만들어낸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혁명운동과 그 경험을 전혀 참고하지 않은것이 아닙니다. 남의것을 참고하되 그것을 바로 참고하였으며 또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을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였기때문에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며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길로 이끌어올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체적립장에서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풀었습니다.

례를 들어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혹심하게 파괴된 조건에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쌓으며 령락된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 과업을 다같이 풀어나갈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내놓았습니다. 이 로선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요구를 옳게 반영하고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작성한 독창적인 로선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을 옳게 타산하고 기술을 개조하기에 앞서 경리형태를 개조할데 대한 농업협동화방침을 내놓았으며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침들은 어느 나라에서도 해본적이 없는 창조적인 방침들입니다. 우리 당이 이 로선과 방침들을 내놓았을 때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은 《어느 책에도 씌여있지 않은것이 없다.》느니, 《누구도 해본 일이 없다.》느니 하고 시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로선과 방침이 정당하다는것은 짧은 시일에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우리 나라의 현실이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인테리정책에 대하여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와는 다르게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오랜 인테리는 지난날 부유하게는 살았지만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민족적 압박과 차별대우를 받았기때문에 민족적혁명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낡은 교육을 받았고 부르조아사회나 봉건사회에서 일한 오랜 인테리들도 그들이 인민을 위하고 민족의 발전을 위해 복무한다면 다 함께 혁명을 해나가는 정책을 세우고 혁명실천과정에서 그들을 교양개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인테리로 개조되였으며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일을 잘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다같이 튼튼히 마련하기 위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그리고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로선과 방침들도 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은 우리 나라 실정과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으며 또한 우리는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의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는것입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남에게 매여있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남에게 매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벌써 해방직후에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고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그것을 관철하였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문을 닫아맨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유무상통하며 서로 협조하는 경제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자체의 투쟁이 훌륭한 열매를 맺은 결과 우리는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종합적으로 발전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가지게 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튼튼히 뒤받침하고있습니다.

국방에서 자위는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경제적자립의 군사적담보입니다. 세계가 민족국가들로 갈라져있고 더우기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외래침략으로부터 지킬수 있는 자위적인 국방력이 없이는 자주, 자립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위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침략자들의 어떠한 도발책동도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지난날 우리가 념원하던대로 떳떳하고 힘있고 믿음직한 사회주의적 새 조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바람부는대로 따라가며 남의 풍에 놀았다면 오늘과 같은 성과를 바랄수도 없을것입니다.

일부 자본주의나라 신문들은 자주성을 가진 사회주의나라를 《민족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체사상은 반동들이 떠드는 《민족공산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주체사상은 맑스가 내놓은 《전세계 프로레타리아트는 단결하라!》는 원칙에 기초하고있으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완전히 부합되는것입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견지하고 옹호하면서 동시에 국제주의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을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자주성은 결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동떨어진것이 아닙니다.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가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를 떠난 자주성도 있을수 없습니다. 자주성을 견지한다는 구실밑에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등을 돌려대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태도가 아니며 그것은 곧 민족리기주의로 굴러떨어지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 호상관계를 맺

고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의 리익을 침해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 누구든지 우리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짓밟는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큰 나라, 작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정치,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자주성은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에서도 단결과 협조의 전제로 되며 참다운 단결을 이룩하려면 서로 자주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나라들 사이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것, 둘째로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각국 로동운동을 지지하는것, 셋째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계속나가는것, 넷째로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것입니다. 다른 의견상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네가지 원칙에 복종시키고 단결을 도모해나가자는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혁명투쟁과 민주주의운동에 대한 우리의 립장에 대하여 말한다면 여기에서도 우리는 자주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있습니다.

매개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 당과 인민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의 혁명운동을 어떻게 벌리는가 하는것은 마땅히 그 나라의 당과 인민이 결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다른 나라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힘자라는데까지 지지하고 성원하여줄따름이지 거기에 간섭하거나 우리의 사상을 내려먹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뿐아니라 남에게 우리의것을 통채로 삼킬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지고있는 혁명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은 그 나라의 당과 인민들이 자주적립장에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옳은 지도리론과 과학적인 투쟁방법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나가야 성과있게 발전할수 있으며 승리를 거둘수 있습니다.

2.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6개년계획의 중심과업에 대하여

당신들도 아는바와 같이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는 7개년계획수행에서 달성한 성과를 총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목표인 6개년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원래 7개년계획은 1961년부터 시작하여 1967년에 끝내야 할것이였으나 우리 나라를 둘러싼 정세가 긴장하여졌기때문에 더 연장하여 끝냈습니다. 우리 인민이 7개년계획을 수행할 때 미제국주의자들은 까리브해위기를 조성하였고 윁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정세를 몹시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새 전쟁 준비를 다그치면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는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고 원쑤들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로선을 내놓았으며

이 로선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고 국방건설에 많은 자금을 돌리였습니다. 이리하여 7개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 더 많은 시일이 걸리게 된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 조국보위에 완벽을 기하였기때문에 미제국주의자들이 《푸에블로》호사건과 《이씨—121》사건을 일으키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공공연히 시도하였으나 감히 우리를 건드릴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7개년계획을 10년동안에 완수하였으나 우리의 인민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지난 10년동안에 우리의 공업생산은 해마다 평균 12.8%씩 장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보더라도 매우 빠른 장성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전망계획인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6개년계획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위력한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우리 당 제5차대회문헌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6개년계획에서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는것은 3대기술혁명입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3대기술혁명은 첫째로 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는것이며, 둘째로 농촌기술혁명을 계속 다그쳐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는것이며, 셋째로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3대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과업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이루어진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요구와 근로자들의 절실한 지향을 반영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3대기술혁명의 중심고리를 공작기계생산에서 찾았습니다.

기술혁명은 곧 기계혁명입니다. 기술혁명을 하려면 공작기계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개년계획의 첫해인 작년에 공작기계생산에 힘을 집중하였습니다. 희천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공작기계공장 로동자들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설비를 개조하고 생산공정을 적극 자동화하면서 공작기계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기계공업은 한해동안에 3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할수 있는 수준을 돌파하였습니다.

우리는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이미 커다란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내다보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작기계생산에 계속 힘을 넣어 생산량과 함께 품종을 늘이고 그 질을 개선하여나갈것입니다. 또한 뜨락또르와 자동차

생산을 계속 늘이며 각종 농기계를 더 많이 생산할것입니다. 그리고 기술혁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기 위하여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계공업과 전자 및 자동화 공업에 필요한 강재와 유색금속자재를 더 많이 생산하여 보장해주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와 우리의 근로자들의 투쟁기세를 미루어볼 때 3대기술혁명과업은 빠른 시일안에 잘 수행되리라고 믿어집니다.

6개년계획기간에 우리 인민들의 생활도 더욱 높아질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대하여 근심걱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골고루 괜찮게 살고있습니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세우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는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군을 잘 꾸리고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군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며 모든 농촌리들에 뻐스가 들어가게 하고 농촌수도화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에서 해마다 30만세대의 살림집을 지으며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임을 전반적으로 올리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근로자들의 전반적생활수준을 훨씬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해 잘 투쟁하면 인민들은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도 힘차게 밀고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기술자, 전문가의 수를 100만명이상으로 늘이고 근로자들의 일반지식과 기술수준을 전반적으로 한층 더 높이며 과학과 문학예술, 체육도 더욱 발전시킬것입니다.

10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것은 6개년계획기간에 문화혁명수행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7년부터 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여 8살부터 17살에 이르는 모든 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서 무료로 공부하고있습니다. 9년제기술의무교육의 실시는 우리 나라의 인민교육사업발전과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새세대들은 모두다 풍부한 일반지식과 현대적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습니다.

우리는 9년제기술의무교육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 10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적교육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교육사업을 더욱 개선하려고 합니다.

전반적10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학교교육의 수준을 더한층 높이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물론 10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많은 자금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할만한 힘이 있으며 우리는

후대들의 교육사업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일부 학교들에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경험을 쌓았으며 그 토대도 일정하게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우리는 올해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몇해안에 10년제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실시할것입니다.

인민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계급투쟁을 잘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언제나 이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습니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어지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습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의 호상관계는 서로 돕고 협조하는 동지적인 관계로 되였으며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회주의제도가 섰다고 하여 인민대중의 통일이 저절로 강화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비록 매우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적대분자들이 남아있게 되고 또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건설을 잘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과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로동계급과 농민, 인테리들의 동맹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잊어버리고 계급투쟁을 일면적으로 강조하고 그것을 과장한다면 좌경적오유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애매한 사람을 적대분자처럼 다루며 사회에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회주의하에서도 적대적요소가 있고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된다는것을 잊어버리고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만 보면서 그것을 절대화한다면 우경적오유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대적요소들에 대한 경각성이 무디여지고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이 약화되며 사회생활에서 자본주의적생활양식이 널리 퍼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우경적편향을 다 경계하고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근로자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능숙하게 결합함으로써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고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합니다.

사상혁명을 앞세워야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력사적인 과업을 잘 해결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요새는 물론 물질적요새도 더 빨리 점령할수 있습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온갖 낡은 사상, 비로동계급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계급투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래의 계급투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것이며 그 투쟁형식도 달라지게 되는것입니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잘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근로자들을 개조하는 문제로서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인것입니다. 그러

므로 우리 당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여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또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성분이나 환경,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이라 하여도 우리 당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대담하게 믿고 혁명의 편에 전취하는 원칙에서 각계각층 군중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옳게 진행한 결과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 사회의 내부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꾸려졌습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이 더욱 공고화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굳게 단합되여 서로 돕고 이끌어나가는 붉은 대가정을 이루고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생산력을 발전시켜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로동조건의 차이를 없애는것과 함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상과 도덕, 문화와 기술 수준에서의 차이를 점차 없애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농촌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국가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농촌의 락후성을 완전히 없애야만 밖으로부터 침습하여오는 반동적부르죠아독소와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근거지와 지반을 완전히 없앨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높여야만 농업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킬수 있으며 농민들속에 남아있는 리기주의적요소들을 뿌리빼고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높은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하게 하는 집단주의의 길로 확고히 이끌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밝혀진 방침에 따라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힘있게 내밀어 현대적공업에 비한 농촌경리의 기술적락후성, 선진적인 도시에 비한 농촌의 문화적락후성, 가장 혁명적인 로동계급에 비한 농민의 사상적락후성을 없애며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계속 강화하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끊임없이 접근시켜나가고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고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로 전환되면 온 사회는 꼭 같은 사회경제적토대우에서 공통된 사상밑에 완전한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할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3.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전반적정세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매우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나라의 북반부에서 이룩된 사회주의건설성과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정치경제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남녘인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있으며 그들을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고있습니다.

요즘 남조선에서는 평화통일기운이 빨리 높아지고있으며 파쑈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있은 괴뢰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계속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대중적진출과 사회계, 정계에서 활발히 벌어진 조국통일론의는 남조선에서 현통치제도를 반대하며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기운이 억누를수 없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평화통일방침이 조선인민은 물론 광범한 세계여론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 남조선에서 평화통일기운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사이의 어떠한 접촉도 거부하여온 남조선당국자들도 대세의 압력에 밀리워 남북적십자회담의 마당에 나오지 않을수 없게 되였습니다. 지금 판문점에서 열리고있는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예비회담은 때늦은 감도 있고 거기에서 토의되는 문제의 테두리도 제한된것이기는 하나 어쨌든 조선사람들끼리 모여앉아 민족의 내부문제를 토의하게 된만큼 매우 의의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갈라진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한걸음 전진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회담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성의를 다하여 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분렬로 말미암아 인민들이 겪고있는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며 그것을 디딤돌로 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길을 헤쳐나갈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의 립장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회담의 마당에 끌려나온 첫날부터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회담을 질질 끌어왔으며 《너무 흥분하지 말라.》느니, 《시기상조》라느니 하면서 들끓고있는 평화통일기운에 찬물을 퍼부었습니다. 더우기 그들은 우리가 이미 전쟁준비를 끝냈기때문에 곧 《남침》할것이라고 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것을 뒤받침하기 위한 여러가지 파쑈적악법들을 새로 꾸며내고있으며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고있습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이러한 소동은 남조선에서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는 평화통일기운을 억누르고 남북의 접촉과 협상을 파탄시키며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함으로써 자기들의 여명을 부지하자는것으로밖에 달리는 리해될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일부 반동지배층과 어용출판물들까지도 남조선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것은 《남침》의 위협에서라기보다 내부사정으로 말미암아 꾸며낸 정치적술책이라고 말하고있는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이러한 어리석은 술책으로써는 누구도 속일수 없으며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안팎의 정세가 저들에게 불리하게 급변하고있으므로 겁에 질려 발작을 일으키고있는 모양인데 머리를 식히고 랭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달라졌고 정세는 변하였습니다.

오늘의 정세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의 이름을 빌어 우리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던 지난 40년대와는 같지 않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의 나라 문제에 간섭하여 좌지우지하던 때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제코도 씻기 바쁜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위정자들이 동족을 등지고 미제침략자들의 옷소매에 매달리며 일본침략자들을 끌어들이는것으로 살구멍을 찾던 지금까지의 반민족적립장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참다운 출로를 찾으려고 한다면 민족적립장에 돌아서야 하며 지금이라도 외세를 등에 업고 《실력》을 《배양》하여 북조선을 힘으로 누르고 《승공통일》을 하겠다는 어리석은 주장을 걷어치우고 조선사람들끼리 힘을 합쳐 평화적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의를 받아들여야 할것입니다.

당신들은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방침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조국통일에 관한 우리의 방침은 이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내부문제인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가 외세의 간섭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조선사람들자신의 손에 의하여 그리고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일관하게 주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내놓은 8개 항목의 구국방안과 8월 6일 연설 그리고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방침들을 다시금 밝히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변함없이 이 방침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지금 전 민족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진행되고있는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회담을 성사시키는것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그 무슨 《단계》를 운운하면서 이것은 할수 있고 저것은 할수 없다느니, 어떤것만 먼저하고 다른것은 뒤로 미루어야 한다느니 하고있는데 이것은 지연전술이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이 좋게 끝나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 친우들이 서로 자유롭게 래왕할수 있게 된다면 그들이 겪고있는 고통을 덜어주게 될뿐아니라 그 과정에서 남북사이의 격페된 감정을 풀고 리해를 심화시키게 될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는것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서는 물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정전협정을 남북사이의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킨 조건에서 남북조선의 무력을 대폭 줄일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한두번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조선위정자들에게 《북진통일》을 할 의도가 없다면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는데 동의하지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을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적통일을 바란다면 있지도 않는 《남침의 위협》에 대하여 소동을 일으킬것이 아니라 남북사이의 평화협정을 맺는데 동의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남북사이에 접촉과 련계를 강화하며 조국통일문제를 풀기 위하여 남북정치협상을 진행할것을 주장합니다.

민족분렬의 비운을 쓸어버리고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데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서고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남북정치회담을 통하여서만 원만히 풀릴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 신민당, 국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과 아무때

나 합의되는 임의의 장소에서 회담할 용의를 가지고있습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만나도 보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하고있는데 말로만 《평화통일》을 운운하면서 협상을 거부하는것은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자면 남북조선의 여러 정당들사이에 조국통일에 관한 정견들을 교환하고 평화통일의 합리적인 방도들을 모색하기 위한 쌍무적인 또는 다무적인 협상들을 활발히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

남북의 협상과 접촉을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놓고있습니다. 비록 조국과 인민 앞에 죄과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진정으로 과거를 뉘우치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선다면 우리는 그의 죄과를 묻지 않을것이며 그와 함께 기꺼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협의할것입니다.

조선사람이 모두다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한길에서 싸워나간다면 우리는 능히 미일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남조선에 드리운 망국의 위기를 헤쳐나갈수 있을것이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반드시 이룩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문제가 아직 곡절을 겪고있기는 하나 조만간에 우리 인민의 의사에 따라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하여 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될 전망이 있다고 믿고있습니다.

4.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우리 시대에 와서 제국주의세력은 쇠퇴하여가고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력량은 장성강화되고있습니다.

조선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참혹한 패배를 당한 미제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련이어 얻어맞고 녹아나고있으며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있습니다.

지금 미제는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미국안에서 인민들의 반전운동이 세차게 일어나고있으며 지배층내부의 모순도 심하여지고있습니다. 경제는 만성적인 침체상태에 빠지고 국제수지는 끊임없이 악화되고있습니다. 미제는 인도지나를 비롯한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참패를 거듭하고있으며 제국주의동료들로부터는 물론 추종국가들로부터도 고립되여가고있습니다.

핵공갈과 딸라의 힘으로 남을 누르고 이끌던 미제의 힘이 이제는 약해졌습니다. 핵공갈도 통하지 않게 되고 호주머니에 딸라도 떨어지게 되니 이제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따라가는 나라들이 별로 없게 되였습니다. 미제는 궁지에 빠진 저들의 처지를 건져보기 위하여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중근동에서는 중근동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악명높은 《닉슨주의》를 들고나왔지만 사또와 같은 우둔한 사람을 내놓고는 받아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미제는 또다시 《평화》의 간판을 내들게 되였으며 닉슨은 머리를 숙이고 구걸외교를 하러 떠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미제국주의가 완전히 망했다거나 놈들의 본성이 변했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제는 의연히 제국주의원흉으로 남아있으며 그들의 침략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제국주의자들은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어가면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책동을 교활하게 감행하는 법입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도 량면정책을 쓰면서 보다 교활하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 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과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은 《평화》의 막뒤에서 꾸며지고있는 미제의 새로운 침략과 전쟁 책동에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려야 합니

다. 그렇게 하여야 평화를 지키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미제는 아세아에서 《닉슨주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일본군국주의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군국주의를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는 놀음을 벌렸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에 편승하여 제 안속을 채우려고 꾀하여왔습니다. 며칠전에 있은 미일수뇌자회담은 이전것보다 맥은 빠졌으나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일침략세력사이의 이러한 공모결탁이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이 회담뒤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닉슨과 사또는 《평화》와 《안정》의 간판밑에 악명높은 《미일안보조약》을 다시 확인하고 아세아침략에서 서로 《긴밀히 협력》할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미제의 비호밑에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되살아났으며 미제의 부추김을 받으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되고있는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그러한것처럼 지금 일본군국주의자들도 다른 나라들을 침략함에 있어서 상품과 자본을 대대적으로 들이밀어 경제적으로 예속화하고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여 그 나라 인민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며 나아가서 저들의 경제권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침략무력까지도 들여보내는 방법을 쓰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에서 우리 나라는 그 첫번째 대상으로 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금 남조선괴뢰들과 공모결탁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면에 걸쳐 우리 나라 남반부에 대한 침략의 검은 손을 깊숙이 뻗치고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 나라와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작전계획까지 짜놓고 전쟁연습소동을 련달아 벌리고있습니다. 심지어 사또같은 사람은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선제공격》에 대해서까지 떠들고있습니다.

사실이 이런만큼 오늘에 와서 일본군국주의가 되살아났는가 되살아나지 않았는가 하는것을 가지고 론의할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을 반대하고 그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데 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저지시키는데서 일본인민들의 투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기회에 말하였지만 일본인민은 지난날의 일본인민이 아닙니다. 일본인민은 군국주의의 해외침략으로 인한 고통과 후과를 맛본 인민이며 각성된 인민입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또다시 침략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일본인민은 가만있지 않을것입니다. 일본인민들은 지금 군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고 민주, 중립, 평화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습니다. 이 투쟁은 일본반동지배층에 큰 압력을 가하고있습니다.

일본지배층안에서도 침략전쟁을 하겠는가 말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대립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일본이 섬나라이고 공업원료를 거의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고있는 조건에서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의 처지가 매우 어렵게 될것이며 침략하려는 대상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로부터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사실상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아세아가 아니며 그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일본안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모든 력량이 단결하고 조선, 중국을 비롯한 아세아인민들이 힘을 합쳐 투쟁한다면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전쟁을 하고싶어도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것이며 놈들의 침략책동을 능히 파탄시킬수 있을것입니다.

오늘 아세아는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으며 아세아에서의 정세발

전은 전반적인 세계정세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아세아의 사회주의나라들과 싸우는 나라 인민들은 거듭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반제혁명투쟁에서와 새 사회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고있습니다.

미제는 스무해이상이나 중국을 고립시키고 봉쇄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패망한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대한 사회주의국가로 되였고 믿음직한 반제혁명력량으로 장성강화되여왔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적위신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의 지지밑에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지위가 회복되고 장개석도당이 유엔의 모든 기구들에서 쫓겨나게 된것은 국제정치무대에서 일어난 하나의 큰 사변이였습니다. 그것은 중국인민이 거둔 커다란 승리로 되는 동시에 평화와 진보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승리로 됩니다.

윁남인민은 미제국주의침략자를 반대하는 영웅적투쟁을 전개하여 원쑤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패배를 안겨주었으며 평화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습니다. 윁남인민은 오늘 남부윁남에서 미제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조국의 진정한 독립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우고있습니다.

윁남문제는 윁남민주공화국이 내놓은 윁남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4개 항목과 남부윁남공화 림시혁명정부의 7개 항목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윁남인민의 이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여나선다면 그때에는 더 큰 참패를 맛보게 될것입니다. 윁남인민은 반제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싸움으로써 최후승리를 쟁취하고야말것입니다.

반제구국항전에서 이미 커다란 승리를 이룩한 캄보쟈인민과 라오스인민들은 미제와 그 괴뢰고용병들에게 련속 세찬 공격을 들이대고있으며 원쑤들을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있습니다.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는 지금 자기 생명의 마지막시각을 살고있습니다.

조선, 중국, 윁남, 캄보쟈, 라오스를 비롯한 아세아인민들은 반제반미공동투쟁의 기발아래 굳게 뭉쳐 제국주의와 온갖 식민주의를 완전히 청산함으로써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고야말것입니다.

당신들도 아다싶이 세계적범위에서 진보와 반동간의 력량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근 유엔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에서 이전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기는 어렵게 되여가고있습니다. 이것은 미제가 유엔의 기발을 도용하여 범죄행위를 마음대로 감행하던 때가 이미 지나갔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당신들이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유엔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광범한 사회여론은 1972년을 《조선의 해》라고 하고있습니다. 금년이 《조선의 해》가 되겠는지는 두고보아야 알 일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민족의 존엄과 통일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와 신임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에 대한 우리의 립장에 대해서 말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금까지 유엔헌장을 존중하여왔으며 결코 그것을 위반하여본 일이 없습니다.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짓밟고 유엔의 이름을 더럽힌것은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감행할 때마다 유엔의 기발을 도용하였으며 특히 유엔의 탈을 쓰고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감행함으로써 유엔의 력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오점을 남겼습니다.

● 유엔이 자기의 신성한 헌장에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조선문제에서 지난 시기 범한 이러한 과오를 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은 미제기 유엔에서 비법적으로 꾸며낸 《조선문제》에 관한 모든 《결의》들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에 대하여 정당한 방침을 취함으로써 종래의 비법적인 《결의》들이 무효로 되게 하여도 좋습니다.

유엔은 마땅히 《유엔》의 이름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도구인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유엔은 조선문제에 대한 그 어떠한 내정간섭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5. 조선과 일본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우리 나라의 린방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지금 우리 두 나라는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나라》로 되여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력사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당한 나라이고 일본은 우리 나라를 침략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나라를 침략한것은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였지 인민이 아니였습니다. 서로 이웃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이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것이 없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비록 사회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일본과도 선린관계를 맺을것을 희망하여왔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립장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는 우리 공화국의 공명정대한 대외정책에 기초한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정부는 처음부터 우리 나라를 비우호적으로 대하여왔습니다. 요시다로부터 기시, 이께다를 거쳐 사도에 이르기까지 내각은 여러번 바뀌였지만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대시정책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사도내각에 이르러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더욱 심하여지고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남조선괴뢰들과 《한일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에 침투하고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며 동족상쟁의 전쟁을 도발하려고 하는 남조선괴뢰들을 부추겨대고있습니다. 일본수상 사도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에 가담할것을 공공연히 말하고있으며 조선인민을 함부로 모욕하고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에 선린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대시정책때문입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명백하며 또 시종일관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두 나라 사이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할것을 념원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리해관계에 맞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도 리롭다고 믿고있습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이룩하며 나아가서 국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일본에서 내각이 갈리고 안갈리는것은 그 나라의 내정문제이므로 우리는 거기에 간섭하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있습니다. 일본

에서 수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 대한 정책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개선될수 없습니다.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모든 문제들이 제대로 풀리게 될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시대의 추세에 맞게 자기의 그릇된 정책을 고쳐야 합니다. 일본정부는 마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하며 《한일조약》을 폐기하고 남조선재침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남조선괴뢰들을 부추겨서 조선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이며 거기에 끼여들어 한몫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걷어치워야 합니다.

요즘 일본인민들과 진보적인 계층들속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선린관계를 맺기 위한 운동이 광범히 벌어지고있습니다. 얼마전에는 234명의 여야당출신 국회의원들을 망라한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들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가관계를 맺을것을 요구하는 결의들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보며 그들의 투쟁이 훌륭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조선인민과 일본인민이 공동으로 성과있는 투쟁을 벌린다면 우리 두 나라 사이에 국교를 수립할수 있습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에 국교관계가 수립되면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취하여온 이때까지의 그릇된 정책들이 무효화될것입니다. 우리는 국교가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두 나라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이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여러가지 형편을 보아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국교를 맺는데는 일정한 시일이 걸릴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국교를 맺기전이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인사래왕을 많이 하며 경제, 문화적인 분야에서 교역과 교류를 널리 진행할 용의를 가지고있습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는 어디까지나 호상성의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두 나라사이에 부분적으로 교류가 진행되고있으나 일본정부의 그릇된 태도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성격을 면치 못하고있습니다. 일본정부가 미국의 비위에 거슬릴가 두려워서 그러는지, 남조선괴뢰들의 비위에 거슬릴가 두려워 그러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결코 두 나라 사이의 관계문제를 풀수 없다는것이 명백합니다.

결국 그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든지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선린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그것이 빨리 되는가 늦게 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본정부의 태도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60만 조선인들의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본질상 지난날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제입니다. 재일조선공민들은 오늘 엄연히 자기의 조국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서의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비우호적인 태도에 기인됩니다.

재일조선공민들은 자기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면서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특히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재일본조선인 총련합회를 뭇고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주체사상을 훌륭히 구현하였으며 한덕수의장동지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며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총련의 지도밑에 재일조선공민들이 일본정부의 갖가지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이룩한것은 일본인민들과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매우 감사히 여기고있으며 이 기회에 《요미우리신붕》을 통하여 일본의 벗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사의를 표합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이 자기의 민족적권리를 지키는것은 응당한 일이며 국제법에도 맞는것입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 나가 사는 일본사람들도 자기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지 내버리려고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사업을 놓고 말하여봅시다.

당신들도 아는바와 같이 민족이라는것은 무엇보다도먼저 언어와 문자의 공통성에 의하여 특징지어집니다. 우리 말과 글을 떠나서는 조선민족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을 박해하는것은 좋지 못한 정치적목적에서 출발하고있다고 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교육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에 물심량면의 지원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정부의 반동계층들은 남조선괴뢰도당과 결탁하여 재일조선인들에게 《영주권》신청을 내려먹이고 《한국국적》을 가지도록 강요하고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상으로는 국적선택의 《자유》를 내세우고있지만 내막적으로는 재일조선인들이 《한국국적》을 가지면 특별한 《대우》를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지면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일부 조선사람들은 그것이 시끄러워서 《한국국적》을 가지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강요에 못이겨 국적은 바꾸지만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우리를 한결같이 지지하는것처럼 그들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극 지지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한때 막혔던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의 길이 조일 두 나라 적십자단체사이의 합의에 따라 다시 열리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적권리를 지키는데서는 물론 조선인민과 일본인민들사이에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인민들의 지지밑에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재일조선공민들이 다 조국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이 사업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재일조선공민들의 귀국의 권리와 함께 조국에로의 래왕의 자유를 보장하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 가운데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당장 조국으로 돌아올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에게서 자기 조국에 왔다가는 권리마저 빼앗아서는 안될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들 가운데서 오직 조선공민들만이 조국에 래왕할 자유를 가지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당치않은 차별조치와 인권유린행위는 당장 중지되여야 합니다. 청진과 니이가다사이를 다니는 귀국선은 조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만 싣고 올것이 아니라 조국에 있는 가족, 친척, 친우들을 방문하고 다시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도 싣고 다니게 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는데서 총련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일본인민들과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앞으로도 총련과 잘 협의하며 재일조선공민들의 의로운 투쟁에 계속 귀중한 지지와 성원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긍지와 행복

희망찬 새해 1972년의 새 아침이 밝았다. 올해에 우리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장엄하고 경사스러운 해를 맞이하면서 전체 조선인민은 위대하고 영명하신 어버이수령님께 다함없는 충성과 경모의 정을 담아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며 만수무강을 축원하고있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 우리 겨레들의 심장마다는 오늘 비길데 없는 긍지와 행복감으로 한없이 높뛰고있다.

열다섯살의 젊으신 몸으로 혁명의 장도에 오르시여 근 반세기에 걸친 영광찬란한 투쟁의 길을 걸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처지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찾고 오늘은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세계선진국가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지난날 가난하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그 높은 은덕으로 하여 오늘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서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선두대렬에 확고히 서있다.

참으로 위대하고 영명하신 수령님을 모시고있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행복보다 더 큰 긍지, 더 값있는 행복은 없다.

우리 당원들과 전체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영원히 충실함으로써 지난날 그러했던바와 같이 앞으로도 빛나는 승리를 거두고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것이며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이다.

* *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서 위대한 수령의 령도는 인민대중의 모든 승리와 행복의 원천이며 담보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영광스러운 해방투쟁의 길을 개척하여주신 그때로부터 자기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참으로 긍지높고 자랑찬 혁명의 력사와 전통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또한 영명하신 수령님께서 이 땅우에 비할바 없이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심으로써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한 새 생활의 주인으로 되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사상리론과 탁월한 령도, 높은 덕성으로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며 세계피압박인민들의 해방과 새 생활 창조를 위하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현시대 인류의 진보와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주체사상의 창시보다 더 위대한 공헌은 없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서 혁명이 일정에 오르게 된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새로운 단계와 그 합법칙적요구 그리고 혁명의 발생발전의 법칙들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근본적인 지도사상으로서 주체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10페지)

혁명하는 당과 인민이 자기 나라 혁

명을 주체로 삼고 거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립장에 튼튼히 서며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는 원칙을 견지할것을 요구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은 매개 나라 당과 인민에게 혁명의 주인으로서 지녀야 할 근본립장과 태도를 밝혀주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하여 혁명하는 당과 인민들은 자기 나라 혁명에 발을 붙이고 세계관을 똑바로 세우며 자기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가장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경제적침략과 정치사상적공세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으며 공산주의운동내부의 불건실한 사상조류가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방해하고있을 때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과 모든 혁명적인민들은 오직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어둠을 헤치고 유일하게 정확한 해방의 길, 투쟁의 길을 찾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현시대 인류사상발전의 최고봉》으로, 《혁명의 확고한 승리를 담보하는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으로 정당하게 평가하고있다.

주체사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과학적해답을 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으시였으며 인류의 정신적재부를 비상히 풍부화하시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집대성한 백과전서적이고 진인적인 사상리론체계가 창시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것으로 일관된 혁명사상은 오늘 세계 수억만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비쳐주고있으며 그들을 승리의 신심으로 들끓게 하고있다. 이 위대한 사상은 온 세계 반제투사들과 혁명적인민들의 행동의 지침으로, 투쟁의 불씨로 되여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언어와 피부색의 차이도 가림없이 사람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다. 그 불씨가 일으키는 혁명의 불길은 대륙과 대륙을 휩쓸어 마침내 낡은 세계를 송두리채 불살라버릴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새 세계를 일떠세게 할것이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으로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여 혁명투쟁과 건설위업의 모범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지상락원을 마련하여주시는 위대한 업적을 쌓으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강도 일제를 격멸하시고 우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였으며 미제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을 령도하시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에게 그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패를 주고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와 그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있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의 사회주의조선이 있고 우리 인민의 행복이 있다.

15성상 긴긴 나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원쑤 일제를 때려눕힌 항일무장투쟁과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깃부시고 그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조국해방전쟁의 영웅적위훈은 오늘도 제국주의침략과 반동을 반대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으며 그들에게 승

리의 신심을 북돋아주고있다. 인류는 한세대에 세계인민의 가장 흉악한 원쑤인 두 제국주의를 때려눕힌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새 조국 건설과 새 생활 창조를 조직령도하시여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과업들을 철저하게 독창적으로 해결하시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이끄시여 경제문화건설에서 세기적인 비약을 이룩하게 하시고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이 창설되고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결과 우리 나라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경제와 기술의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세계선진국가대렬의 당당한 성원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지난날 뒤떨어진 경제를 가지고있었던 탓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였고 발전된 민족으로서 세계의 모든 대소민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떳떳하게 국제무대에 나설수 있게 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이끄시여 남이 한걸음 나갈 때 열걸음, 백걸음을 나가며 천리마를 탄 기세로 계속전진, 계속혁신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이룩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는 력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완수하고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오늘 우리는 6천톤프레스와 전기기관차, 중량자동차와 대형뜨락또르를 비롯한 대형기계들과 정밀기계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낼뿐아니라 현대적인 공장설비를 종합적으로 생산하고있으며 해방전 한해에 137만메터밖에 짜내지 못하던 천을 오늘은 4억메터이상 생산한다. 우리 공업은 해방전 1944년 한해에 생산한 공업제품을 오늘 단 12일동안에 생산하며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자체로 생산보장한다. 우리 농촌은 수재와 한재를 모르고 억년풍작을 노래하며 기계와 전기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짓고 남새도 고기도 알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 선진적사회주의농촌으로 급속히 변모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계심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전쟁의 상처와 세기적인 락후성을 그렇게도 빨리 가시고 세계선진국가대렬의 당당한 성원으로 되였으며 수모받고 멸시당하던 우리 인민은 오늘 남부러울것 없는 문명하고 유족한 민족으로서 세계 어떤 민족들과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활개를 펴고 나설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는 사회주의적생산에 기초하여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마련하면서도 인민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 인민의 복리가 계통적으로 증진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일자리가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밥을 빌어먹는 사람도 없으며 모든 근로자들은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대해서도 아들딸들을 공부시키는데 대해서도 병을 치료하는데 대해서도 근심걱정을 하지 않게 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일하고 배우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게 되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3페지)

압박과 착취가 없고 근심걱정이 없이 잘먹고 잘입고 잘사는 문제, 이것은 동서고금 피착취피압박인민들의 숙망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근본문제이다. 우리는 이 세기적인 과제가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그렇게도 짧은 기간에 그렇게도 훌륭히 해결된 실례를 더는 모른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우리 나라는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가진 나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수준을 요구할뿐아니라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요구한다. 우리의 새세대들과 모든 근로자들을 문명하고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구상과 깊은 배려는 비할바 없이 우월한 교육제도로 구현되여 찬란히 꽃피고있다.

우리의 새세대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의 혜택으로 누구나 다 돈한푼 들이지 않고 정규학교에서 공부하고있으며 풍부한 일반지식과 현대적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새인간으로, 유능한 새 사회건설자로 믿음직하게 준비되고있다. 전국 이르는곳마다에 서있는 고등기술학교들과 대학들에서는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아들딸들이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민족간부로 튼튼하게 자라나고있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고등교육체계가 마련되여 근로자들은 다 소원대로 공부를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려는 인민들의 력사적인 숙망도 풀어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한없이 높은 덕성으로 하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도 귀중한것으로 되여있으며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무상치료제와 예방의학적방침이 관철되여 모든 사람들이 병나도 치료받을 근심걱정을 모르고 건강한 몸으로 활기에 넘쳐 살고 일하며 60청춘 90환갑을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조선에서 문화는 진정 인민의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량식으로 되여있으며 모두가 다 문화를 창조하는데 참가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물질생활과 사상정치생활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찬란하게 개화발전하고있으며 여기서 바로 세계에 이름높은 《황금의 예술》이 꽃피고있으니 이것은 곧 꽃피는 우리 생활,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우리 생활의 반영이다.

전체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 땅우에 일떠세워주신 사회주의조국, 이는 정녕 사람들이 압박과 착취를 모르고 실업과 병마에 대한 공포도 없이 누구나 다 희망에 따라 배우고 소질에 따라 일하며 마음껏 재능을 발전시키고 풍만한 물질생활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인민의 지상락원이다.

위대한 스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교양하시여 혁명하는 인민으로 키워주심으로써 더 없이 귀중하고 보람찬 행복과 긍지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는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고있는 보람찬 혁명적변혁의 시대,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혁명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있는 장엄한 력사적시대에 살고있습니다.》

(《5대복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1페지)

압박받고 착취당하는 인민들을 해방하여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이끄는 혁명적변혁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로서 높은 정치적각성을 가지고 혁명위업에 참가하는것보다 더 큰 영광, 더 값있는 행복은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람이란 따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체득하고 실천에서 그것을 훌륭히 구현하도록 우리 인민을 이끌어주시였다. 당과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계급적원쑤들을 무한히 증오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바쳐싸우는 혁명가가 되도록 자래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와 사랑속에서 당의 꾸준한 교양과 실천투쟁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자기의 사상정치적풍모를 일신하였다. 우리 인민은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졌던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구속에서 해방되여 사상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웠으며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덮어놓고 자기것을 깔보고 남의것을 통채로 삼키려는 현상을 더는 찾아볼수 없게 되였다. 오늘 모든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자신을 더욱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수령님께 충성다할 일념으로 가슴불태우고있으며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기풍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공산주의를 향한 천리마운동에서 정신문화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나가고있으며 아득히 멀리 전진하였다. 력사는 지난날 우리와 같이 뒤떨어지고 가난하고 수모받던 처지로부터 오늘의 우리와 같이 선진적이고 유족하고 긍지높은 처지에로 세기적인 비약과 변혁을 이룩한 인민을 아직 알지 못한다.

혁명적랑만으로 가득찬 우리 인민의 꽃피는 행복의 송이송이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 탁월한 령도와 함께 하늘보다도 높고 해빛보다도 따사로운 그이의 고매한 덕성이 깃들어있다.

인간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며 인민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인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당적, 국가적으로 모든 시책을 베풀어주시고도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세심한 배려를 돌려주신다.

이 나라의 도시와 농촌, 산판과 배머리, 학교와 상점, 탁아소와 살림집 할것없이 어디를 가나 수령님의 따사로운 보살핌이 미치지 않은곳이란 없다. 인민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손길이 닿는 모든곳에 생활의 기쁨과 감격은 한량없고 생산에선 새로운 혁신의 불길이 일어 천리마는 더욱 세차게 나래치고 인민의 행복은 끝없이 더해간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다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어가시기 위하여 사회정치적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당을 따라오려는 그들의 지향을 깊이 믿으시고 그들을 아량있게 포섭하여 교양개조하며 하나의 혁명대오로 굳게 묶어세워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신다.

오늘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 모든것을 의탁하고 그이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치여 수령님의 부르심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꾸려졌다.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함께 남조선인민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과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투쟁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고계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반부의 겨레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남조선혁명 승리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공화국북반부를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기지로 튼튼히 꾸리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령도하여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남북조선에서는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혁명력량이 튼튼히 꾸려지고 내외의 혁명정세는 매우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으며 자주적평화통일의 기운이 급속히 성숙되여가고있다.

수령님의 영명한 령도밑에 형제당, 형제나라들 그리고 세계의 혁명적인민들

파의 국제주의적련대성과 친선협조관계는 날을 따라 강화발전되고있으며 세계에서 우리 혁명의 벗들과 지지자들은 더욱더 늘어가고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세계혁명의 기본문제들인 반제반미투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여 인류의 전진운동에 위대한 공헌을 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으로 되는 탁월한 반제혁명전략인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릴데 대한 세계혁명의 기본전략,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전략 그리고 미제의 손아래동맹자 일본군국주의와 서독복수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방침들은 세계에서 제국주의를 멸망시키고 피압박인민들을 자유와 독립과 사회주의의 길로 이끄는 휘황한 등대로 되고있으며 모든 나라 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고무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혁명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여 영생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어버이수령님, 인류의 진보와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위대한 공헌을 하고계시는 영명하신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주체의 조국》, 륭성발전하는 사회주의조국이 있고 오늘의 행복과 영광이 있으며 보다 찬란한 래일이 있다.

온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시대가 낳은 가장 걸출하고 탁월한 령도자》, 《싸우는 세계인민들의 희망의 등대》, 《20세기의 영웅》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그이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와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과 빛나는 혁명활동력사를 연구하여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정신으로 무장하고 그 사상, 그 정신으로 싸워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추세로 되고있으며 조선을 방문하여 수령님을 단 한번이라도 만나뵈옵는것은 혁명적인민들의 최대의 영광으로, 행복으로 되고있다.

전세계진보적인류의 끝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문명하고 유족하게 살며 그이의 붉은 혁명전사로 일하며 싸우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행복과 영광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다.

우리 인민은 오늘의 행복이 귀중하면 할수록 그 력사적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백두의 밀림, 만주의 설한풍, 반세기에 걸친 혁명의 가시덤불을 헤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하고도 헌신적인 투쟁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의 이 행복, 이 영광이 있고 휘황찬란한 공산주의미래가 있음을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이 행복, 이 영광을 더욱더 빛내이고 영원히 꽃피워나가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우리 인민의 영예롭고도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는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보고와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심장으로 받들고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4월 15일전으로 넘쳐 완수함으로써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수령님탄생 예순돐을 가장 드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모두다 수령님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쳐 6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자!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날에는 오직 더 큰 승리와 영광과 행복만이 있을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 전술적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원대한 전략적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27년간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과 전국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반혁명간의 력량관계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 혁명승리의 주객관적요인은 더욱 성숙되여가고있으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시여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 혁명정세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였다.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국토와 민족이 갈라진 조건에서 조선혁명은 통일적으로 발전할수 없게 되였으며 그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가로놓이게 되였다.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에 의하여 국토와 민족이 갈라진 특수한 력사적조건은 그에 상응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더우기 분렬된 나라들에서의 혁명투쟁에 관한 기성의 본받을만한 지도리론도 경험도 없는 조건에서 남북조선혁명을 어떻게 이끌고나가는가 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전반적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을 성과적으로 타개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길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혁명을 반대하며 조선인민의 통일독립국가건설을 반대할뿐아니라 북조선에까지 자기 세력을 뻗치려는 미제국주의침략정책에 부닥치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인민의 모든 혁명투쟁은 할수없이 얼마동안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투쟁형식으로 벌어지지 않을수 없게 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5~286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국혁명에 관한 전략사상은 통일적인 조선혁명을 불가분적으로 련관된 두 지역에서의 혁명투쟁으로 일단 나누어 진행하며 이미 해방된 북반부에 전국혁명의 강력한 기지를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남조선혁명을 수행하며 두 지역의 혁명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침략책동으로 인한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은 혁명투쟁을 불가피하게 일정한 력사적기간 두 지역에서 서로 다른 형식으로 벌리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앞에는 이미 혁명이 승리한 북반부에서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따라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전국혁명의 기지를 마련하며 아직 해방되지 못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기 위한 혁명을 추진시켜야 할 두가지 혁명과업이 나서게 되였다. 이 두가지 혁명과업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은

통일적인 전국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조선혁명을 두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면서 우선 북반부에 강력한 혁명기지를 꾸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기지창설에 관한 로선에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남북조선 두 지역에서 혁명투쟁을 발전시켜 민족주체적력량을 강화하며 북반부혁명력량의 주도적역할밑에 남북혁명력량의 전략적배합에 의하여 전국혁명을 완성할데 대한 탁월한 전략사상이 담겨져있다. 분렬된 나라들의 혁명투쟁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들을 공고발전시키며 전국혁명의 강력한 기지를 꾸리는것은 혁명을 확대하고 그 승리를 보장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류례없는 복잡성과 간고성을 띤 우리 나라 혁명에서 혁명기지를 튼튼히 꾸려야만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항상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조국통일과 전국혁명의 승리를 위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나갈수 있다.

수령님의 탁월한 로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의 전략적거점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으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을 주동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국혁명에 관한 전략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지역혁명에 관한 사상이다.

수령님께서는 남조선혁명을 하나의 지역혁명으로 보시고 사회혁명으로서의 지역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분렬된 나라들의 혁명에 관한 리론을 완성하시였다. 지역혁명에 관한 수령님의 전략사상은 남조선혁명운동이 우리 나라의 한 지역적범위에서의 혁명투쟁이기는하나 그것이 식민지반봉건사회인 남조선의 사회경제관계와 그에 뿌리박고있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일어나는 하나의 사회혁명으로 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기본전제를 이룩한다는 가장 정확한 과학적고찰에 기초하고있다.

지역혁명으로서의 남조선혁명에 관한 수령님의 전략적방침을 일관하고있는것은 남조선혁명에서 남조선인민들자신의 주동적역할에 관한 탁월한 사상이다.

남조선혁명을 남조선인민이 주동이 되여 수행할데 대한 방침의 본질적요구는 무엇보다도 남조선인민들자신이 주체가 되여 남조선에서 혁명운동을 추진시키며 혁명을 폭발시키고 주권문제를 자체로 해결해나가는데 있다. 남조선혁명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자신의 투쟁이며 이 혁명수행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도 남조선인민자신이다.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자신이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리고 주동적으로 들고일어날 때에만 승리할수 있다.

남조선혁명을 남조선인민이 주동이 되여 수행할데 대한 사상은 사회혁명의 발생발전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지역혁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한 정확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듯 분렬된 나라들에서의 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완성하심으로써 오늘의 력사적조건에서 전혀 새롭게 제기된 혁명문제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리론실천적해답을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시였다.

지역혁명과 전국혁명에 관한 수령님의 전략사상은 혁명리론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고 그를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시킴으로써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풍부히 한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1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전체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조선혁명의 유기적구성부분인 남조선혁명에 관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남조선혁명을 상대적독자성을 가진 하나의 사회혁명으로 고찰하시면서 남조선사회의 사회경제관계와 계급적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를 독창적으로 명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기본임무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내쫓고 그 식민지통치를 없애며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움으로써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79～80페지)

오늘 남조선사회는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 있는 식민지반봉건사회이며 남조선사회의 기본모순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둘사이의 모순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식민지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남조선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다.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부식하며 남조선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인민의 극악한 원쑤이다. 따라서 남조선혁명앞에는 두가지 혁명과업 즉 미제와 남조선인민들간의 민족적모순을 해결하는 민족해방의 과업과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남조선인민간의 계급적모순을 해결하는 계급해방의 과업이 제기된다.

남조선혁명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적성격과 기본임무에 관한 리론은 바로 이러한 남조선사회의 성격과 모순관계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은 그이께서 일찌기 조선혁명을 령도하신 첫시기에 창시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의 직접적계승으로서 그를 해방후 남조선에 조성된 정세에 맞게 창조적으로 구현하여 발전풍부화시킨것이다.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은 이 혁명에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혁명성과 조직성이 가장 강하고 혁명을 종국적승리에까지 이끌어갈수 있는 능력을 가진 로동계급을 령도계급으로 하며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사회주의혁명에로 곧바로 나아가는 전제를 조성한다는데 그 중요한 특성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 있는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새로운 류형의 사회혁명에 관한 리론을 처음으로 정연하게 체계화하시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기초로 되는 혁명의 대상과 동력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미제침략세력을 남조선혁명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규정하심과 함께 그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며 놈들의 비호밑에 남조선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고있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를 혁명의 대상으로 규정하심으로써 혁명의 주되는 타격대상과 공격방향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이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 투쟁대상문제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으로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대한 새로운 기여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진보적인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군인, 일부 애국적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을 남조선혁명의 동력으로 규정하심으로써 혁명에

가장 광범한 군중을 망라할수 있게 하셨다.

사회혁명의 전개려은 중요하게 혁명투쟁에 얼마나 광범한 인민대중이 참가하는가에 크게 의존한다.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가장 광범한 계급계층들을 동력으로 삼아 투쟁에 떨쳐나서게 할 때에만 혁명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는 힘을 가지고 전진할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의 가장 광범한 계급계층들을 혁명의 동력으로 규정하심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강력한 대중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가장 폭넓고 힘있게 전개할수 있는 길을 독창적으로 열어주시였다.

혁명투쟁은 정확한 혁명로선과 함께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전술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만이 빨리 전진할수 있으며 승리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주타격대상과 공격방향을 명시함과 함께 전략전술적방침에서 중심적내용을 이루는 혁명력량편성에 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력량을 준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며 그 주위에 사회의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을 결속하여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3페지)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 동시에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94페지)

혁명의 승리는 반혁명세력에 비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리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준비하는것이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주력군을 사회의 기본계급인 로동계급과 농민 그리고 그 속에 뿌리박은 맑스-레닌주의당으로 규정하시고 주력군편성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주력군은 혁명투쟁에서 기본전선을 담당하고 반혁명에 결정적타격을 가하는 혁명의 기본부대이다.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려야 그에 의거하여 강력한 정치적군대를 편성하고 반혁명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다. 또한 혁명의 주력군이 강한 조건에서만 광범한 계급계층에 대한 혁명적영향력을 강화할수 있고 대중의 위대한 힘을 발동하여 반혁명을 타승할수 있다.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주력군을 꾸리는것과 함께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층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야 한다.

혁명은 주력군 하나의 힘만으로는 승리할수 없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굳게 결속하여야 반혁명에 비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하고 혁명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길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주력군을 보조할수 있는 힘있는 부대를 편성하기 위한 방도로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한 해답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로동계급과 그 혁명적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통일전선의 사회정치적기초로 되는 로농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로동자, 농민들과 청년학생, 지식인들의 련합을 실현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상층통일전선을 이룩하는 방침을 견지하며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을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에로, 부분적인 련합은 전면적인 련합에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주력군과 함께 보조력량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략사상은 혁명력량편성을 위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발전완성시킨 독창적인 사상이며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력량편성에 관한 탁월한 전략적방침과 함께 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장성강화할데 대한 가장 혁명적인 방도를 명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력량은 광범한 대중적투쟁이 벌어지는 조건에서만 끊임없이 장성강화될수 있다. 적극적인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만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과정이 촉진되며 혁명적핵심대렬이 늘어나고 혁명조직들의 전투력이 강화될수 있다.

또한 대중투쟁을 힘있게 벌려야만 혁명도상에서 부닥치는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을 주동적으로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당면투쟁과업을 옳게 설정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89～90페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파쑈민주화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남조선혁명운동발전의 객관적요구와 혁명운동을 대중의 정치사상적수준과 대중운동발전수준에 맞게 발전시켜야 할 현실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빨리 축적하고 혁명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기게 하는 혁명적이며 주동적인 방침이다.

이 당면투쟁과업은 남조선에서 가장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거하여 혁명운동을 대중화하고 적극화하여 적들을 최대한 고립시키며 혁명운동의 대중적지반을 급속히 확대해나갈수 있게 한다.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당면투쟁은 결코 그 과업해결에만 머물수 없으며 자기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따라 혁명의 전략적과업을 해결하는데로 나가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의 당면한 모든 투쟁은 정권전취를 위한 결정적투쟁의 준비로 되여야 하며 그 결정적투쟁은 오직 폭력적방법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

력사는 아직 그 어떤 반동지배층도 혁명적폭력에 의하여 타도됨이 없이 스스로 정권에서 물러난 실례를 알지 못한다. 오늘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제놈들의 식민지파쑈통치가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저들의 여명을 부지하려고 더욱더 악랄하게 책동하면서 파쑈적폭압을 강화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원쑤들의 반혁명적폭력을 짓부시기 위한 혁명적폭력투쟁이 없이는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에 관한 리론과 모든 전략전술적방침들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의 전기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2

조국의 자주적통일은 남조선혁명과 함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에 따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우리 인민의 민족지상의 과업이며 사활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은 어디까지나 한 나라

의 비극적인 분렬을 끝장내고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로부터 빼앗긴 자기의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으며 나라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이룩하는 문제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조국통일에 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구상에는 외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주체적힘으로 재통합할데 대한 민족내부문제의 맑스-레닌주의적해결에 관한 사상과 전국적범위에서 조선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과 결부되는 민족해방혁명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남북통일을 실현하자는것입니다.》(《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40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은 자주적원칙과 민주주의적원칙을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여기에는 민족내부문제해결의 일반적원칙과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념원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자주성의 원칙이다.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어떤 민족이든지 완전한 정치적자결을 실현하며 자기 권리를 자기 손에 틀어쥐고 행사하여야만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고 나라를 통일하는 문제는 그 어떤 다른 민족의 문제인것이 아니라 한 강토에서 살고있는 단일민족인 우리 조선민족내부의 문제이다.

우리 인민이 민족내부문제인 통일문제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조국통일문제에서 외세의 간섭은 국토와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는 길이며 예속의 올가미에 걸려들어가는 길이다. 자주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만 모든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에 의하여 주동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나라의 통일문제에서 자주적원칙이 견지되여야 민주주의적원칙도 옳게 구현될수 있다.

민주주의적원칙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원칙에서 나라를 통일할데 대한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에는 우리 민족의 내정문제인 나라의 통일문제를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체사상의 요구와 제국주의자들과 끝까지 싸워이기려는 철저한 반제혁명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밝혀주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력량편성방침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이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세가지 혁명력량이 잘 준비되여야 합니다. 그 첫째는 북조선의 혁명력량이며, 둘째는 남조선의 혁명력량이며, 셋째는 국제적혁명력량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80페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세가지 혁명력량을 꾸릴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를 직접 대상으로 하고있는 조선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의 주체적력량과 함께 국제혁명력량을 다같이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조국통일과 조선

혁명을 확신성있게 승리에로 이끌기 위한 탁월한 방침이다.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남북조선에서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축적하는것이다.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과 남조선혁명력량은 어느 하나가 다른것을 대신할수 없으며 다같이 조국통일과 전국혁명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요인이다. 여기에서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은 주도적력량이며 조국통일과 전국혁명의 원동력이다. 북반부의 혁명력량이 강대하여야 남조선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수 있고 조국의 평화적통일문제를 주동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과 함께 남조선혁명력량은 주체적력량의 한 구성부분이며 조국통일의 중요한 력량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압박과 착취를 받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일떠서야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수 있으며 그것을 꺼꾸러뜨리고 조국통일의 순조로운 길을 열어놓을수 있다.

주체적력량을 꾸리는 동시에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세가지 혁명력량을 꾸릴데 대한 방침은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혁명승리의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며 혁명의 전략을 풍부히 한 모범으로 된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력량편성방침을 제시하시는 동시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현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94페지)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적량심을 가진 민주인사가 정권에 들어앉아 미군철거를 주장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민주주의적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이라면 그들과 언제 어디서나 평화적조국통일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루차 표명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91~92페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도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은 조국통일문제해결의 가장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길을 밝혀준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혁명이 승리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인민의 정권이 수립되면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반부의 애국적민주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아무런 장애도 없이 순조롭게 실현될수 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계급적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명의 과업과 국토와 민족이 분렬된 비극적인 상태를 끝장내기 위한 민족적투쟁과업을 유기적으로 련결시킨 가장 혁명적인 방도이다.

이와 함께 조국의 평화적통일은 남조선에서 민족적량심을 가진 민주인사가 정권에 들어앉는 경우 그와의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질수도 있다. 이것은 평화적통일의 다른 하나의 방도로서 분렬된 조국의 재통일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민족문제를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해결해나갈수 있는 합리적이며 독창적인 방도이다.

우리 당은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을성있는 노력을 다해왔다.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통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세우는 방법으로 조선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기본방안을 내놓았을뿐아니라 파

도적대책으로서 남북조선련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 남북조선의 무력을 대폭 줄이며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문제, 분렬로 인한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 친우들의 념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남북간의 호상방문과 래왕, 서신거래를 실현하며 기자, 예술단, 체육단을 교류할데 대한 문제 등을 거듭 제기하였으며 그를 위하여 남북간의 협상을 진행할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여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해에만도 8개 항목의 평화통일방안을 내놓았으며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8월 6일 연설과 올해 신년사 그리고 일련의 담화들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립장을 다시금 밝히시면서 남조선의 민주공화당, 신민당, 국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천명하시였다.

이 모든것은 조국통일의 방도를 진정으로 모색하며 온갖 가능성을 다하여 평화적조국통일의 계기를 성숙시키려는 우리 당의 시종일관하고 진지한 노력의 표시이며 주동적조치인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의 평화통일방안을 전면적으로 재천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위정자들이 만일 그 어떤 출로를 찾으려 한다면 지금과 같은 비렬한 술책에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자기의 죄과를 솔직히 인정하고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하며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조선사람끼리 협상하여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진지한 호소에 호응해나서야 할것입니다.》

수령님의 이 교시는 조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고있으며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이 우리 당의 공명정대한 제안들에 호응해나섬으로써 놈들이 자기의 출로를 찾을수 있는 길을 명시해주고있다.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들과 주동적인 조치들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해외조선공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으며 세계인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은 마땅히 이 거족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당의 공명정대한 제안에 호응해나서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오직 그래야만 조국과 인민 앞에 저지른 죄과를 다소라도 씻을수 있고 자신을 구원할 출로를 찾을수 있다. 이밖에 다른 길은 없다.

만일 박정희괴뢰도당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매여달려 파쑈테로통치를 부지하려고 시도하면서 민족반역행위를 계속 일삼는다면 그것은 놈들의 파멸을 촉진시킬따름이다.

요즘 남조선의 반동들과 집권자들이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란 구실밑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파쑈적폭압과 전쟁소동을 벌리고있으나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는 평화통일기운을 억누르며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여론을 속이고 상전에게 무기와 딸라를 더 구걸해보려는 비렬한 행위이며 림종에 다달은자들의 마지막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력사의 흐름은 매국노들의 이러한 비렬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놈들의 기만술책은 그 누구도 속여낼수 없다.

더우기 박정희괴뢰도당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승공통일》을 부르짖고있는것은 얼빠진자들의 잠꼬대에 불과하다.

인류의 리상이며 미래인 공산주의는 그 무엇으로써도 소멸할수 없으며 공산주의운동은 이미 10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 승승장구하고있다. 공산주의사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확고한 지배적사

상으로 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되였으며 남조선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자리잡고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괴뢰도당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을 보지 않고 력사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매국매족행위를 계속한다면 놈들은 어떠한 출로도 찾아내지 못할것이며 영원히 매국노의 죄악을 씻지 못한채 멸망하고말것이다.

만일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이 이제라도 외세의존과 민족반역의 길을 버리고 참다운 조선사람의 립장으로 돌아선다면 우리 당은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을것이며 그들과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이다.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의 평화통일방안은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평화적조국통일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주고있다.

3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은 우리 인민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확고한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투지를 안겨주는 불패의 전투적기치이며 힘있는 리론실천적무기이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은 지난 27년간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전행정에서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되였으며 날을 따라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감으로써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이 비할바없이 장성강화되였다.

우리 혁명의 책원지인 공화국북반부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위력한 기지로, 불패의 보루로 전변되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단결되고 혁명기지의 물질적토대가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은 어떠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 능히 쳐물리칠수 있게 튼튼히 준비되였다.

북반부혁명기지와 사회주의력량은 남조선혁명을 지원하며 조국의 통일과 장래번영을 담보하는 튼튼한 밑천으로, 혁명의 대세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성과에 고무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꺾어버리며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우고있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보다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습니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17페지)

오늘 남조선혁명운동은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인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리론, 전략전술적방침을 구현하는 영광찬 길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남조선의 더욱더 광범한 인민대중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다. 주체사상의 거대한 견인력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확대발전하고있다.

자기들의 실제적인 생활체험과 남조선혁명운동의 피의 교훈을 통하여 남조선에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관철하여야 한다는것을 확고한 진리로

재득한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결속되여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가슴불태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원수님은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사상은 조국통일의 확고한 신념과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과학이며 우리의 세계관이고 필승의 해불이다.》라고 하면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휘황한 래일을 내다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심, 위대한 주체사상에 대한 그들의 절대적인 신봉은 남조선혁명발전의 전로정에서 이룩된 가장 고귀한 전취물이다. 이는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의 집중적표현이며 그들의 투쟁에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남조선인민들은 원쑤들의 류례없는 파쑈적폭압속에서도 놈들의 식민지통치를 쓸어버리고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와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투쟁의 불길속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과정이 촉진되고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의 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남조선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의 결성은 남조선혁명과 전국혁명에 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이며 획기적사변이다.

통일혁명당의 창건으로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자기들의 투쟁을 전일적으로 령도할 정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며 원쑤들의 반혁명적공세에 대처할수 있는 주력군의 핵심적골간부대를 가지게 되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통일혁명당조직을 튼튼히 꾸리며 그 두리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묶어세우기 위한 조직정치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파쑈폭압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꺾어버리기 위한 반미, 반일, 반괴뢰 투쟁을 억세게 벌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소자산계급 등 광범한 계층을 망라하면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등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있다. 투쟁은 더욱더 폭동적성격을 띠고 발전하고있으며 그 예봉이 직접 미일침략자들과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에게 돌려지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원쑤들의 민족분렬정책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날에는 평화통일이라는 말조차 할수 없던 남조선에서 이제는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였으며 조국의 통일과 남북간의 접촉을 그처럼 완고하게 반대하던 남조선당국자들로 하여금 늦게나마 남북조선 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에 응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8개 항목의 평화통일방안과 수령님의 력사적인 8월 6일 연설이 있은후 남조선에서는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으며 평화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짐에 따라 지어 야당과 괴뢰

지배층내에서까지도 평화통일이란 말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오늘 판문점에서는 우리 당의 주동적조치에 의하여 해방후 26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조선 적십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남북으로 갈라진 동포들의 불행을 덜어줄데 대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고있다.

생활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평화적조국통일방안이 전체 남북조선인민들의 절절한 념원과 지향을 반영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구국방안이라는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오늘 정세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 있다.

미제는 세계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배격당하고있으며 국내적으로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를 겪고있다. 일본의 사또도당도 지배층내부의 알륵과 광범한 인민대중의 강력한 반정부투쟁에 부딪쳐 허우적거리고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위기와 놈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총칼의 비호밑에 여명을 부지하고있는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심한 곤경에 빠지고 안팎으로 고립당하고있으며 국제고아로 버림받고있다.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련대성도 더욱 강화되였으며 우리는 더 많은 지지자와 동정자들을 얻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형제당들과 나라들, 혁명조직들과 인민들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있다.

모든 사실은 국내외의 혁명정세가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유리하게, 적들에게는 더욱더 불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으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이 쫓겨나고 박정희괴뢰도당이 영원히 매장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북반부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일, 반독재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한다.

전체 조선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결정적으로 물러가게 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놈들이 남조선사태에 절대로 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조국수호와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혁명적진출과 통일기운을 억누르기 위해 가혹한 탄압소동을 벌리고있으나 놈들은 그 어떠한 발악적책동으로써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자유와 해방,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진출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수령님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싸운다면 우리는 어떠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 능히 쳐물리칠수 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전체 조선인민의 거족적투쟁에 의하여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쫓겨나고 조국은 통일될것이며 남북겨레가 다같이 통일된 조국에서 영명하신 수령님을 모시고 자유와 행복, 륭성과 번영을 누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직업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전투적강령

지난해 12월에 열렸던 조선직업총동맹 제5차대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온 세상에 힘있게 시위하고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는 투쟁에로 그들을 힘차게 불러일으킴에 있어서 중요한 사변으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우리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지난 기간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고 6개년계획의 첫해과업수행에서 이룩한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그들에게 또다시 커다란 기대와 신임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사회주의하에서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에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로동운동의 력사적로정을 심오하게 분석하시면서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는 혁명발전의 각이한 단계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가 세워져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위원회들의 집체적령도가 실현되는 새로운 조건에서 직업동맹의 임무는 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교양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직맹사업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하에서 직업동맹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상교양단체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지금까지 그 누구에 의해서도 해명되지 않은 사회주의제도확립이후시기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사명에 대한 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기 이전시기 직업동맹은 부르죠아지들을 반대하는 투쟁조직으로서 로동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트가 정권을 잡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직업동맹은 광범한 로동자, 사무원들을 망라한 대중적정치조직으로서 그의 기본임무는 당의 령도밑에 비당원로동자들은 혁명화하고 인테리들을 로동계급화하는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으며 사상교양의 방법,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전체 동맹원들을 사회주의건설에로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물론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첫시기에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지 못하고 경제관리분야에 아직도 지배인유일관리제와 같은 자본주의잔재들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직맹은 행정지배인과 《단체계약》을 체결하며 로동보호사업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조건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위하여 필요한것이였으며 또 어느정도 불가피한 현상이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고 특히 공장, 기업소들에서 당위원회를 최고지도기관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가 세워진 조건에서 직업동맹이 감독하고 통제할것이란 아무것도 없게 되였다. 직업동맹앞에는 오직 로동계급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학교로서 직맹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그들을 당과 국가가 내세우는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사업외에 그 어떤 다른 임무가 있을수 없다. 만일 사회주의하에서 직업동맹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마치도 그 어떤 《감독기관》, 《통제기관》처럼 행사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과 로동정량, 로동일의 단축 등과 같은 문제에 간섭하며 문화정서, 문화휴식 등에만 관심을 돌린다면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의 직업동맹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극히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기본임무를 명확하게 밝혀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사상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직업동맹건설과 그 사업에 전면적으로 구현한것으로서 우리 혁명실천을 통하여 이미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확증된 위대한 사상이다.

그것은 직업동맹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혁명적진수를 고수하고 그를 우리 시대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가장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직업동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적인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만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고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는 투쟁에서 당의 인전대이며 방조자로서의 자기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직맹 제5차대회에서 또한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본질과 그 필연성,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의 내용에 대하여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으며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수행하는데서 로동계급과 직맹조직들앞에 나서는 당면한 과업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뚜렷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업동맹 제5차대회에서 주신 교시는 실로 사회주의하에서 직업동맹이 나아가야 할 유일하게 정확하고 혁명적인 길을 뚜렷이 밝혀준 위대한 전투적강령이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강유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오늘 직업동맹앞에는 수령님께서 직맹 제5차대회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직업동맹은 무엇보다먼저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여 직맹원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화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한다는것을 의미하며 혁명화란 공산주의교양을 하여 사람들은 혁명적세계관이 선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든다는것을 말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하여야만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없는 사회를 만들수 있으며 혁명화를 계속하여야만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첫째로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사상, 공산주의사상을 가지게 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는 자본주의사상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사상, 집단주의사상과 한자리에 있을수 없습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는 착취사회의 유물로서 집단주의와는 같이 있을 자리가 없

다. 그것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착취계급의 사상이며 집단생활과 조직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리기주의사상이 커지면 나라와 인민의 운명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개인의 리익과 안락만을 끝없이 추구하게 된다.

리기주의사상을 버리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자로 될수 없으며 혁명가로 될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도 나라와 사회의 리익을 더 존중히 여기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반대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동지를 사랑하며 인민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워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에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같이 공동의 리상과 목적을 위하여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가지도록 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공산주의사회는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로동을 사랑하고 즐기며 공동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로동에 대한 성실성은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당과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일생을 공동로동에 성실히 바치며 로동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는 사람만이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라고 할수 있다.

직맹조직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속에서 로동을 즐기고 로동을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적극 교양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애호하는 정신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크고 작은 모든 재산은 다 로동자, 농민의 로동으로 이루어진것이며 인민들의 공동소유로 되여있다. 이 모든 재산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처럼 어느 개인의 리익을 위한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것이며 우리 세대들을 위하여서뿐아니라 후대들을 위하여서도 계속 복무할 재산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모든 재산들을 자기의것처럼 아끼고 잘 관리하며 그것들을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효과있게 쓰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며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에 대하여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뒤떨어진 사상과 낡은 관습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지난날의 처지를 잊지말도록 하여야 하며 자본주의제도와 계급적원쑤들 특히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그들에게 오늘의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똑똑히 인식시키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 굳함없이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사람들을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숭고한 공산주의적혁명사상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태도를 밝혀주며 우리 시대 혁명운동앞에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주는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이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발광적인 공세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는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주체의 혁명적리론으로 온갖 잡사상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하여 나갈수 있었다.

실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직맹원들에게 있어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집행자로 되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자랑은 없으며 이보다 더 중요하고 영예로운 과업은 없다.

로동계급과 전체 직맹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들과 교시들 그리고 근 반세기에 걸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여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직맹 제5차대회에서 로동계급은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는 동시에 지식수준을 부단히 높여 인테리들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은 낡은 사회를 개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혁명의 주력군이며 령도계급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은 누구보다도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을 가지는것과 함께 자신의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점차 없애고 공산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할수 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당이 학습하자》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워 공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도 적극 망라되고 매일 2시간이상 책읽는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인테리에 못지않는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로 전체 동맹원들을 조직동원하는것은 오늘 직업동맹앞에 나서고있는 당면한 중요한 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3대기술혁명과업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7페지)

3대기술혁명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공업화이후시기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기술혁명의 총적방향과 내용, 그 수행방도를 가장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준 위대한 기술혁명강령이다. 바로 이 영예롭고도 중대한 과업이 지금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직맹원들 앞에 맡겨져있다.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기본고리로 되는것은 공작기계공업을 강화하는것이다.

기술혁명은 곧 기계혁명이다. 기계를 많이 생산하여야 기술혁명을 잘할수 있으며 기계설비를 많이 생산하자면 공작기계가 많이 있어야 한다.

수령님께서 지난해에 희천땅에서 몸소 지펴주신 새 기술 혁신의 위대한 봉화가 전국에 타번져 오늘 공작기계생산에서는 새로운 일대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3대기술혁명수행의 넓은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였다.

기계공업부문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정밀도가 높고 질좋은 공작기계를 더 많이 생산하며 그 품종을 늘이는데 모든 힘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는데 필요한 자동차와 뜨락또르, 련결농기계를 더 많이 생산보장하며 랭동기, 세탁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부엌세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정일의 부담으로부터 녀성들을 해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기계공업에 화력을 집중하여 전반적 기술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필요한 강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금속자재를 더많이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늘어나는 기계설비에 상응하게 동력공업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현시기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또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다. 우리는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에 대한 신비주의를 마스고 도처에서 자동화요소와 기구,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직업동맹앞에 나서고있는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일뿐아니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훌륭한 방법이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대중적운동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직업동맹이 당앞에서 책임적으로 맡고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모든 직맹조직들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세가지 중심과업인 사람과의 사업, 책과의 사업, 설비자재와의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지금 정세는 날로 혁명의 편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우리의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 동시에 남조선 인민들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지원함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속히 앞당겨야 한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또한 반제반미투쟁의 기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전세계로동계급과의 계급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직업총동맹의 앞길에는 더욱 큰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이다.

모두다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조선직업총동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그이께서 직맹 제5차대회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와 항일무장투쟁

주 봉 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으며 이 행정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시작되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한 투쟁이다.

실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서 주체사상은 그 근본초석으로 되며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함으로써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며 그이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여야 한다.

1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앞길을 휘황하게 밝혀주며 그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불패의 혁명적기치,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하며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하여나가는 창조적인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11페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것은 주체사상의 기본요구이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립장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합법칙성과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필연적요구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는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혁명위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끄는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이 그 나라 내부력량이라는것을 가르치고있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이다. 누구도 주인을 대신하여 혁명을 해줄수 없으며 그에 대하여 책임질수 없다. 매개 나라 혁명은 세계혁명과의 련관속에서 진행되는 것만큼 국제적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매개 나라 혁명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 자체의 힘이다.

오직 나라의 실정을 잘 아는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주인된 립장에서 문제를 풀 방향을 찾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력량을 최대한으

로 동원하여야만 혁명은 승리할수 있다.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본다면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휘할수도 없으며 혁명운동의 발전과 그 승리를 기대할수 없다.

맑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다. 맑스-레닌주의는 어디까지나 혁명투쟁의 일반적원리를 제시하고있을뿐, 모든 구체적인 문제들, 혁명발전에서 제기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모든 문제들을 례외없이 해결할수 있게하는 미리 마련된 처방을 줄수는 없다.

더우기 혁명을 수행하는 매개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되는 자기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존공식이나 명제에 기계적으로 매달리거나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면 자기 나라 혁명을 정확히 지도할수 없으며 결국 혁명을 망치고만다.

공산주의자들은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1920년대말～1930년대초 국제국내정세의 새로운 발전은 주체확립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온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11페지)

1920년대에 이르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민족해방운동 등은 종전에 비할바없이 전세계적규모에서 급속히 확대되여갔다. 10월혁명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공산당들이 출현하여 활동하게 되였으며 압제자들과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급속히 강화되였다. 또한 실천투쟁과정에서 공산주의대렬이 빨리 자라났으며 자주적으로 자기 나라 혁명을 지도할수 있는 지도력량이 자라나고있었다.

혁명과업에 있어서도 선행단계와는 비할바없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나서고있었다. 공산주의대렬안에는 로동계급이 이미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하는 나라도 있었고 정권전취의 과업을 전면에 내세우고있는 자본주의나라 당들도 있었으며 민족해방의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 당들도 있었다. 조성된 새로운 력사적조건은 매개 나라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에게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문제해결에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철저히 지키며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할것을 요구하였다.

혁명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요구는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 환경과 조건,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우와 같은 책, 111페지)

조선인민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온 첫날부터 외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여왔으나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했던 투쟁의 첫시기에는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수 없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우리 인민을 이끄시게 된 1920년대말～1930년대초 우리 나라 형편은 참으로 간고하고 엄혹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전대미문의 야만적인 식민지테로통치와 살인적인 략탈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는 우리 나라 실정에 적용할만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리론도, 실천적경험도

없었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맑스-레닌주의거치밑에 진행된 식민지민족해방전쟁으로서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였다. 그리하여 혁명로선과 전략전술로부터 구체적인 투쟁방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맑스-레닌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새롭게 탐구하고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야 하였으며 오직 자체의 힘에 의하여 투쟁의 앞길을 개척하여나가야 하였다. 이것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더우기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은 사대주의로 하여 막대한 해독을 입었다. 지난날 우리 나라가 일제에 의하여 강점된것도 사대주의후과였고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실패한것도 결국 사대주의에 물젖은 종파분자들의 책동에 기인하였다.

사대주의를 없애고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여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혁명투쟁의 승리를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로, 우리 민족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문제로 나섰다.

조선혁명의 주체확립에 대한 력사적위업은 오직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였다.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선행한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 그리고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전면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이미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적인 조선혁명의 로선을 내놓으시였으며 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심으로써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은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모든 혁명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다.

혁명투쟁에서 정확한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소유하는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것은 혁명투쟁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에 의하여 지도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문제는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결속시켜 부닥친 난관을 극복하고 사소한 좌우경적편향도 없이 혁명위업수행에 확신성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기때문이다. 따라서 혁명투쟁이 정확한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가지는것은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시였으며 온갖 기회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추호의 동요도 없이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은 그이의 혁명사상에서 진수를 이루고있다. 혁명과 건설에 관한 수령님의 모든 사상과 리론들은 어느것을 막론하고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여있다.

주체사상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높은 책임감, 자기 인민의 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국제혁명앞에 지닌 자신의 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에 기초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견결하게 끝까지 수행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근본립장을 명시한 사상이며 우리 시대의 혁명의 근본지도사상이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은 그이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하신 모든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방침들에 빛나게 구현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전기간에 걸쳐 자주성을 잃고 남에게 아부굴종하는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 종파분자들의 비굴한 행동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시고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모든 로선과 방침들을 세우시고 그를 빛나게 관철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조선혁명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확립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 나라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철저하게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영웅적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당면목적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는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투쟁대상인 일제는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이다.…그러므로 일제는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조선을 독립시켜야 하는가?! 외국의 원조로써는 절대로 독립을 찾을수 없다.…

유일한 길은 우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일제와 맞서서 싸워이기는것이다. 그러자면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은 그 누구의 덕이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자체의 힘과 투쟁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철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유일하게 정확한 혁명로선이였으며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에서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오직 무장투쟁으로써만 무장한 반혁명을 격멸할수 있다는 가장 철저한 반제혁명로선이였다.

이 로선은 또한 상비적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되는 형태로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다른 모든 형태의 투쟁에 대한 전반적지도를 실현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승리를 힘있게 촉진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가장 정당한 자주적인 혁명로선이였다.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세계혁명앞에서 지닌 자기의 숭고한 민족적임무를 다할뿐아니라 국제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실제적으로 크게 이바지한 정당한 방침이기도 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로선—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심과 함께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가장 정확히 조직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을 걸쳐 마침내 1932년 4월 25일 영광스러운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항일유격대는 수령님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며 간악한 일제를 반대하고 조선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로동계급의 혁명적무장력이였으며 세계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혁명군대였다.

항일유격대는 적과 싸우는 전투대오였을뿐아니라 또한 인민을 교양하고 선동하는 선전자였으며 인민을 조직동원하는 조직자였다.

항일유격대의 창건은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빛나는 구현이였으며 일제침략자들의 멸망을 예고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첫시기

인 1930년대 전반기에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혁명근거지를 창설하시고 그에 의거하시여 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가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두만강연안에 창설된 유격근거지는 항일무장투쟁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광범한 반일군중을 결속하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유격근거지에 대한 문제는 유격투쟁의 일반적인 군사적지탱점으로만 알려져있었다. 따라서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한 혁명근거지를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창설해야 하는가 하는문제는 전혀 해명되지 못한채 남아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형편에서 유격전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독창적인 유격근거지창설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실천에서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특성과 당시의 혁명정세 그리고 항일무장투쟁의 총적임무로부터 출발하시여 유격근거지를 항일무장투쟁의 군사전략적거점으로뿐아니라 전반적조선혁명의 책원지—강력한 혁명의 보루로 창설할데 대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유격근거지창설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보다 풍부히 하고 새롭게 발전시키시였다.

이 유격근거지창설방침은 국가적후방이나 외부의 지원도 없이 무장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당시의 조건에서 오직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모든 가능한 조건들을 리용하여 강력한 혁명의 보루를 쌓음으로써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 가장 적극적이고도 현명한 방침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에 의거하시여 항일유격대를 더욱 확대강화하시고 혁명조직들을 튼튼히 꾸리시였으며 광범한 반일군중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시고 일제와 그 주구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시였으며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을 확고히 보장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항일유격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꾸리시는것과 함께 천재적인 유격전술을 창조하시여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강대한 적과 희생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군사지식을 배웠고 유격전쟁의 전략전술을 습득하였으며 또한 항일전쟁에 필요한 전략전술을 창조하였다.

아군은 이 시기에 강한 적들을 약자로 만들며 아군을 강자로 만드는 주요한 전략전술과 경험을 축적하게 되였다.…

수적으로나 무장장비에서 비할바 없이 우세한 일제침략군과 싸워이기자면 무엇보다도 전술적우세로써 적을 제압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하여도 민족해방투쟁의 기본형식으로서의 유격투쟁에 관한 투쟁방법이나 그 누가 써놓은 유격활동의 군사교범도 없었다. 다른 나라들에서 무장투쟁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우리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것이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갓 조직된 항일유격대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술을 가지고 적들과 싸워이기겠는가 하는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이 절박한 문제는 오직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과정을 통하여 어느 나라 병서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이며 명확한 유격전술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능숙히 적용하시여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주시였으며 항일유격대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종파분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이 자주적인 립장을 잃어버리고 남의 본을 통채로 따다가 옮겨놓으려는 교조주의적책동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시고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조선혁명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적성격과 민족해방의 당면임무에 알맞는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유격근거지에서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신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은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결속하여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며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적기치로 되였다.

또한 인민혁명정부로선은 국가와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변천된 력사적조건에 맞게 새롭게 발전시키고 풍부화시킨것으로서 주권을 전취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자체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은 조선혁명의 자주성을 확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자신의 힘에 의하여 끝까지 수행되여야 한다는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자체의 맑스-레닌주의당을 가져야 한다고 인정하시고 조선공산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와 함께 혁명적대중단체건설사업,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반제공동전선의 빛나는 실현 등 어렵고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가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전반기에 쌓으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에 토대하시여 1936년 2월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새로운 전략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해 5월에 있은 동강회의에서 조국광복회를 결성하시였으며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시였다. 그리고 새로운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시고 무장투쟁을 우리 나라 북부국경지대와 나아가서 국내깊이에까지 확대하심으로써 적들에게 보다 큰 타격을 주고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발전에서 하나의 획기적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할데 대한 조선인민의 력사적인 숙망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혁명에 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혁명로선과 독창적인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구현한것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던 피어린 싸움의 나날에 몸소 투쟁의 불길속에서 구상하시고 집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세상에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로작에서 조성된 국내외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 그리고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로정을 전면적으로 총화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전략전술을 다시금 명철하게 천명하시였으며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임무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주체의

빛발로 조선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줌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끄는 불멸의 혁명적 기치로,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였다.

로작은 또한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이 나아갈 투쟁의 진로를 가장 명백히 밝혀주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 불멸의 공헌을 한 력사적문헌이다.

실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이 나아갈 혁명의 로정과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의 참된 교과서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되며 제국주의자들에게는 공포와 죽음을 안겨주는 무서운 폭탄으로 된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혁명의 대로를 따라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굴함없이 싸워나아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마침내 일제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우리 인민이 그처럼 갈망하던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세계혁명운동상에서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된 최초의 혁명투쟁으로서 조선인민의 혁명적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고 민족의 영예를 고수한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였다.

이 위대한 혁명투쟁행정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마련되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행정에서 몸소 이룩하신 위대한 혁명전통에 토대하시여 해방후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혁명적민주기지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관철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보장하시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시종일관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에 확고히 서시여 독창적인 경제로선과 자위적인 군사로선, 주체적인 사상문화혁명로선 등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심으로써 우리 나라를 위력한 사회주의강국으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위대한 《주체의 조국》으로 되게 하시였다.

이것으로 하여 오늘 전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높이 우러러보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보다 더 큰 영예, 더 큰 자랑은 없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며 그것을 옹호보위하며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조국을 하루속히 통일하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것이다.

미제의 《평화전략》은 뒤집어놓은 전쟁전략

박 찬 근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인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전면적으로 폭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공공연히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니, 〈협상〉이니, 〈교류〉니 하는 갖가지 허울좋은 간판들을 들고나오고있으며 이른바 〈평화전략〉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들의 침략정체를 가리우며 세계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한 상투적인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제의 〈평화전략〉이란 곧 뒤집어놓은 전쟁전략을 의미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96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현시기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평화전략》의 침략적본질을 명백히 밝혀놓으심으로써 세계혁명적인민들로 하여금 미제에 대한 사소한 환상도 철저히 짓부시고 놈들을 반대하여 더욱 원칙적으로,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우리는 미제의 《평화전략》의 음흉한 침략적본질을 똑똑히 간파하고 놈들의 교활한 《량면전술》을 반대하여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미제의 세계전략을 성과적으로 짓부셔버리고 반제반미투쟁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갈수 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놈들이 매여달리고있는 《평화전략》의 침략적본질을 명백히 밝혀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미제의 《평화전략》은 바로 놈들의 침략적세계전략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그 중요한 고리로 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세계침략을 위한 미제의 기본전략은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대결을 피하면서 작고 분렬된 혁명적인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은 무력으로 각개격파하려하며 사상적으로 나약하고 혁명을 하지 않으려 하며 제국주의와의 무원칙한 공존만 부르짖으면서 인민들속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며 제국주의와 사이좋게 살기를 바라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사상정치적공세를 강화하여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 하는 것이다.》(《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혁명을 촉진하자》, 259~260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미쳐날뛰면서 두가지 전략을 가지고 두 전선을 펴고있다. 놈들은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을 쥐고 휘두르면서 핵공갈과 《평화적침투》, 탄압과 회유기만을 결합하여 혁명적인 나라들은 무력침략으로 하나하나 먹어가며 하며 사상적으로 나약한 나라들은 사상문화적침략으로 와해시키며 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힘의 정책》을

공공연히 추구하면서 《평화》의 간판을 들고 사상정치적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것은 놈들의 이와 같은 침략적야망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미제의 《평화전략》은 놈들의 량면전술의 한고리이며 로골적인 무력침략의 보충물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을 《평화》의 사도로 가장하고 《평화》에 대한 나발을 요란스럽게 불어대면서 사상정치적공세를 강화하고있으며 세계인민들속에 미제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그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켜 반제반미투쟁을 무마하며 반제진선을 와해시키려하고있다.

허울좋은 《평화》의 보자기로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고 그 뒤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침략수법이다.

력사적사실은 제국주의자들이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할 때마다 저들을 《평화》의 《벗》으로 더욱더 가장해나섰다는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악명높은 히틀러파시스트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그러하였고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바로 그러한것이다.

과대호전광으로 악명높은 히틀러란놈은 《나는 평화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전쟁에 대하여 생각한다》라고 로골적으로 떠벌였으며 일본제국주의자들도 제놈들의 침략책동을 《아세아의 평화》를 위한것으로 엄폐하려 하였다. 1910년 8월 일본 《천황》이란 놈은 이른바 《칙령》에서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는것이 《동방에서의 항구한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강도적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국주의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수법으로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감행하여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극동의 평화》에 대하여 떠들면서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15개추종국가의 고용군까지 끌어들였던것이다.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를 《수호》한다는 황당한 구실밑에 인도지나에서 침략전쟁을 확대하였다.

모든 사실은 미제의 《평화》나발은 곧 전쟁나발이며 놈들이 《평화》에 대하여 떠들 때마다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최근 미제국주의자들이 《평화전략》에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는것은 놈들의 침략정책의 전면적인 파탄과 그 위기의 직접적인 반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비록 그 힘이 약화되여도 결코 변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옛진지에서 스스로 물러가려 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궁지에 빠질수록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을 쥐고 휘두르는 〈량면전술〉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며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 법입니다.》(《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 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12페지)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국주의자들은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흉악한 야망밑에 《힘의 정책》을 공공연히 추구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감행하여왔다. 놈들은 전면전쟁과 핵전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면서 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였으며 인도지나를 비롯한 일련의 지역들에서 《국부전쟁》과 《특수전쟁》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격화되는 침략정책은 저들의 야수적본성을 온 세상에 여지없이 드러내놓았을뿐이며 놈들은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였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과 반혁명간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미제의 침략정책은 걸음마다 파탄되였고 세계의 력량관계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극히 불리하게 전변되였다. 세계인민들의 혁명적

각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미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대렬은 비상히 확대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반미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으며 인민들의 반전운동은 미국안에서도 대중적인것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추세로 되였다.

미제의 침략정책의 전면적인 파탄과 국제무대에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날로 불리하게 전변되고있는 력량관계는 놈들이 결코 《힘의 정책》으로써는 침략적 목적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은 정세하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로골적인 무력침략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이른바 《평화전략》에 집요하게 매여달림으로써 제놈들의 침략적세계전략을 기어코 실현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화》의 미명밑에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폭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다름아닌 〈평화〉의 미명밑에 진보적인민들을 반대하는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벌려놓고있으며 또한 〈평화〉의 미명밑에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정치적와해책동을 강화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9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평화》의 미명밑에 로골적인 무력침략과 사상정치적와해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최근 미제의 《평화전략》은 특히 《닉슨주의》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닉슨도당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종래의 《지배》대신에 《협동관계》로 또한 《대결》에서 《협상》에로 넘어갈것이라고 떠벌이면서 마치도 제놈들이 침략정책과 간섭정책에서 점차 물러서는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세계인민들을 기만하며 《평화》의 막뒤에서 강도적인 침략정책을 계속 공공연하게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다름아닌 《닉슨주의》의 간판밑에서 진보적인민들을 반대하는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더욱 대대적으로 벌려놓고있다.

미제는 《닉슨주의》를 추구하면서 인도지나에서는 전쟁의 《웰남화》란 간판밑에 침략전쟁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는 《미군감축》이라는 간판밑에 새 전쟁 도발책동을 발악적으로 강화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른바 전쟁의 《웰남화》와 《웰남에서의 철수》를 표방하면서 남부웰남에 계속 눌러앉아 전쟁정책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은 놈들이 결코 이 지역에서 물러가려 하지 않고있으며 반대로 더욱더 악랄한 방법으로 침략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는것을 폭로하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다그치고있다. 놈들은 그 무슨 《미군감축》에 대하여 떠들면서 그 구실밑에 남조선괴뢰군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그 현대화를 다그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과 일본을 군사적으로 더욱 접근시켜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에 즉시로 일본과 미국 본토로부터 대병력을 투입할수 있는 전략체계를 재편성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빈번한 군사연습을 벌려 미국본토로부터 제놈들의 침략군과 무기들을 빠른 시간에 남조선에 실어나르기 위한 《공수작전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미제7함대소속군함들로 《비상기동함대》를 편성하여 우리나라 근해에서 《대기태세》를 취하게 하였다. 남조선에서의 사태발전은 《미군감축》소동이 조선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멀게 한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의 정세를 계속 전쟁접경에로 나아가게 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와 같이 《닉슨주의》는 미제국주의의 상투적인 《량면전술》의 재판이며 죽어가는자들이 꾸며낸 더욱 교활하고 모험적인 전쟁정책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전략》을 추구하면서 그의 한고리로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정치적와해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동서간의 접촉과 교류》를 확대한다느니 하면서 그것을 수단으로 저들의 반동적사상문화를 침투시켜 일부 나라들에서 《자유화》와 《민주주의적발전》을 조장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랭전에 매여달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후진국공동개발》이라는 간판밑에 《원조》를 미끼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침투하여 독점자본의 해외팽창의 길을 개척하고있으며 이 나라들의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고있다. 그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들에서의 경제명맥을 손아귀에 틀어쥐고 풍요한 자원과 재부를 가혹하게 략탈하여가고있으며 경제발전을 억제하고 정치적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평화군》, 《아프리카십자로계획》과 같은 미명밑에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반동적인 사상문화적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속에 '숭미반공사상을 고취하고 썩어빠진 양키식문화를 부식하여 이 나라들을 반제전선에서 하나하나 떼내기 위한 파괴활동과 전복음모를 감행하고있다.

《평화》의 간판뒤에 숨어서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이와 같은 음모책동은 신생독립국가들을 끊임없이 위협공갈하며 이 나라들을 사실상 식민지, 반식민지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평화》의 간판을 들고 세계침략을 위한 제놈들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악랄하게 미쳐날뛰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실은 미제의 이와 같은 음모책동에 대하여 최대의 경각성을 가지며 놈들의 온갖 침략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따라서 오늘 미제의 로골적인 무력침략책동과 함께 놈들의 교활한 《평화전략》을 짓부셔버리는것은 현시기 반제반미투쟁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미제의 《평화전략》을 철저히 분쇄함으로써 《평화》의 간판뒤에 숨어서 감행하고있는 침략책동을 힘있게 짓부셔버릴수 있으며 놈들의 세계전략전반을 성과적으로 저지파탄시킬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교활하고 악랄한 침략책동을 전면적으로 분석폭로하시면서 미제에 대하여서는 사소한 환상도 가지지 말며 놈들을 반대하여 더욱 원칙적으로 견결히 투쟁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추호의 환상도 가져서는 안됩니다. 미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며 그들과의 무원칙한 타협을 설교하는것은 인민들의 혁명적경각성을 무디게 하며 미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오만무례해지고 횡포무도하여지게 하며 그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부추겨주는 결과밖에 가져다주는것이 없다는것을 력사는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2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사소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미제의 기만술책에 환상을 가지게 되면 놈들의 강도적침략정책의 본질을 똑똑히 볼수 없으며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없게 된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는것과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이 《평화》의 가면을 뒤집어쓴다고 하여 결코 놈들의 침략적본성이 변할수는 없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며 그것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특

히 침략과 전쟁으로 살쩌왔고 그것없이는 하루도 살아갈수 없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있고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더욱더 발악하고있다. 놈들은 제놈들의 옛지위를 유지하며 이미 잃어버린 진지를 되찾으려고 더욱 악랄하고 횡포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므로 원쑤들의 최후발악적인 《량면전술》에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며 놈들의 어떠한 흉계도 제때에 짓부셔버림으로써 미제의 종국적멸망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지구상에 미제가 살아있고 인민들을 억압하고 략탈하는 한 인민들은 잠시도 편안히 살수 없다. 오직 미제를 반대하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고 반미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만 놈들의 온갖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미투쟁전략을 높이 받들고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최전선에서 힘차게 싸워나아가고있는 우리 인민은 오늘 원쑤들의 최후발악적인 《량면전술》에 더욱더 경각성을 높이고있으며 놈들의 온갖 악랄한 침략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림으로써 내리막길을 걷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마지막숨통을 끊어버리고야말 전투적결의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여달리면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지만 그것은 제놈들을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있다. 지구상의 온갖 제국주의가 다 그러한것처럼 미제국주의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죽어가고있다.

국제무대에서의 정세발전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그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고있으며 다른 한편 미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 앙양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아세아에서 우리 인민, 중국인민, 웰남인민, 라오스인민, 캄보쟈인민 그리고 기타 아세아나라인민들은 아세아에 대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셔버리며 모험적인 《닉슨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아세아를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련속적인 타격으로 말미암아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걸음마다 파탄되고있으며 놈들은 지금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엄중한 위기에 부딪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교활하고 악랄한 침략책동으로써도 이미 기울어진 제놈들의 운명을 결코 구원할수 없다.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승리하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추세이다.

근로자 제1호 (루계 358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2년 1월 15일 발행 • 1972년 1월 20일
ㄱ—14236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 호

평 양 근로자사 1972

근로자

제 2 호(359)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맑스-레닌주의당활동에서 대중지도에 관한 문제는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행되는 시기에 어떠한 원칙과 방법으로 대중을 교양하고 혁명과업수행에 조직동원하는가 하는것은 현시대가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사회주의하에서의 당 및 국가 경제 사업에 대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사상, 지도방법을 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창시는 그 불후의 리론실천적공헌으로 하여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력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실천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으며 날이 갈수록 그것이 가지는 혁명적의의와 영향력은 더욱더 커가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오늘의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여온 보람찬 로정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언제나 당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숭고한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더 없는 행복과 민족적자부심에 충만되여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진수를 더욱 깊이 파악하고 그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지난 시기 그러하였던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의 전진을 다그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앞당기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　　*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대중지도에 관한 사상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문제를 전면적으로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대중을 영도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지도사상, 사업체계와 사업방법 문제는 그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진 다음에는 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1페지)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은 혁명과 건설

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전제로서 그것은 대중속에서 철저히 관철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그것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이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대중지도에 관한 사상,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소유하고있어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특히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위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는 사회주의의 조건에서는 그들을 지도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 사업작풍, 사업체계 문제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대중지도에 관한 사상,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된 사회주의적생산관계에 맞게 개선완성하고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능동적작용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현시대가 긴절하게 그 해결을 기다리던 대중지도의 리론과 방법에 관한 문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처음으로 전면적이고도 과학적인 해명을 받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반영한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지도사상이며 지도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으로 되여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98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시고 확고히 견지하여오신 혁명적군중로선과 혁명적사업방법의 전통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구체화하시고 발전시키시여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시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근저에 흐르고있는 근본사상은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이다.

청산리정신은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혁명적군중로선의 사상을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행되는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키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묶어세우며 대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으며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군중로선입니다.**》(우와 같은 책, 298페지)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원래 공산주의자들의 근본립장이며 관점이며 따라서 군중로선의 근본원칙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원칙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새로운 환경에 맞게 더욱 구체화하시고 발전시키시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인민대중의 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개인경리가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당과 국가가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질수 없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된 조건에서는 그들의 리익과 의사를 대표하는 당과 국가가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것은 필연적인 요구이다. 이것은 인민대중에게 충실히 복무할데 대한 군중로선의 원칙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새로운 조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이다.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주위에 묶어세우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의 일관한 원칙이며 혁명적군중로선의 중요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는 의식적인 적대분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

을 다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새로운 사상과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은 대중을 각성시키며 교양개조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조건에서는 대중을 교양개조하는 폭과 심도에서 종전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높은 요구가 제기된다.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을 접수하고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 조건에서는 극소수 적대분자를 제외한 모든 군중을 다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에로 이끌고가야 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워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할수 있으며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도 촉진할수 있다.

청산리정신에서는 군중에 의거하고 그 지혜와 힘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할데 대한 군중로선의 원칙도 더욱 발전되고 구체화되였다.

군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며 그것을 발동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서 근본원칙이며 혁명적군중로선의 본질적요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원칙을 전체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에 참가하는 새로운 조건에 구체화하시고 발전시키시여 모든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근로대중은 한갖 착취의 대상으로만 인정되여왔으며 따라서 그들은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아무러한 흥미도 가지지 못하였으며 자기의 창발성을 나타낼수 없었다.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는 경제건설도 문화건설도 인간개조도 모두가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대중을 교양개조하고 대중에 의거하여 사업할데 대한 군중로선의 원칙들은 이와 같이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맞게 발전되고 구체화되였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청산리정신은 청산리방법과 유기적으로 련관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98~299페지)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의 하나는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일군들이 언제나 현지에 내려가서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걸린고리를 풀어주며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세우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청산리방법이란 아래사람들에게 관료주의적으로 내려먹이는것이 아니라 밑에 내려가 도와주며 걸린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이다.

사회주의하에서 하부에 대한 상부의 지도는 착취사회에서와 같이 지배계급의 의사와 요구를 하부에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공동의 임무로 되는 당정책관철, 혁명과업수행을 실속있게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웃사람이 하부에 내려가며 현실에 침투하며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걸린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는 사업방법은 사회주의의 본성에 완전히 맞는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며 당정책집행을 확고하게 담보하는 가장 합리적인 사업방법이다.

청산리방법의 본질적요구의 하나는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것이다.

혁명에서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전적으로 그들자신의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대중자신의 의식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 직접적인 담당자인 근로대중의 자각성을 어떻게 높이며 그들의 적극성과 창조력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저절로 발양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계급적각성과 공산주의적의식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그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투쟁하려는 결의에 충만되고 자기 사업의 정당성과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아는 때에라야만 비로소 최대한으로 발양될수 있다.

청산리방법은 근로자들속에서 언제나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으로 하여금 제기된 혁명과업을 자신의 사활적인 사업으로 접수하고 자각적열성을 높이 발양하여 문제해결의 방도를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청산리방법은 어디까지나 혁명의 주인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직접적인 담당자인 대중을 교양하고 방조하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을 발동시켜 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하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방법이다.

이 사업방법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언제나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고유한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방법, 전반을 장악하면서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과학적인 사업방법을 그 중요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옳게 결합하여야만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투쟁목표와 투쟁방도를 정확히 제시하면서 그것을 모든 고리들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철저히 관철하도록 보장할수 있고 대중속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싹들을 제때에 발견하고 일반화할수 있다. 이 원칙적인 방법을 견지할 때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을 교양하고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할데 대한 군중로선의 요구를 더 잘 관철할수 있다.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전반을 장악할데 대한 방법은 주어진 력량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과학적인 사업방법이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단위에서 이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대중의 힘과 물질적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확보할수 있다.

사업방법은 일정한 사회적사상의 반영이며 그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청산리방법은 사회주의조건에 맞게 구체화되고 발전된 군중로선의 사상인 청산리정신의 반영이며 그에 의하여 규정된것이다. 다시말하여 청산리방법은 청산리정신을 구현한 사업방법이다.

그러므로 청산리정신을 실천에서 구현하려면 청산리방법을 관철하여야 하며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면 사회주의조건에 맞게 군중로선이 구현되는것이다. 청산리정신을 떠난 청산리방법이 있을수 없고 청산리방법이 없이는 청산리정신을 실천에서 구현할수 없다. 우리는 청산리정신, 수령님의 혁명적군중관점과 군중로선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조건에서만 청산리방법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것을 사업에서 성과적으로 구현할수 있다.

이와 같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서로 분리할수 없는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고있다. 그러므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본질과 내용, 그들간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것은 혁명실천에서 이 정신, 이 방법을 옳게 관철하기 위한 전제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우선 맑스-레닌주의당의 지도작풍과 사업방법을 개선하며 당사업을 참말로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게 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서 그의 창시는 당건설, 당사업발전에서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간부들과 당원들, 군중들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장시켜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 혁명과업수행에로 동원하는 조직정치사업이다.

당사업은 그 본질에 있어서 행정경제적, 기술적인 실무사업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교양하고 결속시키며 발동시키는 사업인만큼 그것은 그 본성에 맞는 혁명적이며 당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요구한다.

만약 당사업에서 이 요구를 어기면 당사업의 본성에 배치되는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의 편향이 나타나게 되며 특히 당이 정권을 장악하고있는 조건에서는 일군들이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게 될 위험이 커지는것이다.

혁명적 군중관점과 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당원들과 간부들속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와 당세도를 없애며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는 편향도 극복하고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킬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또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 튼튼히 의거할 때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려는 수정주의적편향도 막아낼수 있다.

이와 같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혁명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에 전적으로 맞는 당사업방법으로서 맑스-레닌주의당사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또한 국가, 경제 기관, 근로단체들의 사업에서 대중에 대한 지도를 가장 정확하게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국가기관, 근로단체들은 당의 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대중속에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당의 인전대이며 방조자이다. 그것들은 다 같이 대중을 옳게 교양하고 그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경제 기관, 근로단체들의 사업에서도 기본은 사람들을 자각적으로 발동시키는 사업으로 되여야 하며 따라서 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도 군중로선에 기초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으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국가, 경제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의 사업에서도 언제나 대중이 살며 일하는 하부에 지도를 접근시키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을 자각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동지적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경제문화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칠수 있게 한다.

이리하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적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고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또한 일군들의 사상정치수준을 높이고 군중을 혁명화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방법은 목전의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깊이있게 수행할수 있는 힘있는 사업방법일뿐아니라 일군들의 사상정치수준과 실무수준을 높이며 군중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교양방법입니

다.》(우와 같은 책, 299폐지)

당사업, 근로단체사업뿐만아니라 국가경제기관사업도 주로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게 하는 청산리방법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의 로선,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를 옹호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단련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혁명화를 촉진하게 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지도일군들자신도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고 더욱더 혁명화되게 한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도록 하는 청산리방법은 한사람이 열사람을, 열사람이 백사람을, 백사람이 천사람을 교양개조하게 하며 이렇게 하여 전당과 전체 군중을 교양개조하도록 하는 당의 전통적인 방법과 결합되여 온 사회를 혁명화하는 힘있는 무기로 된다.

이리하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도 물질적요새도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대중령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거대한 공헌으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대중령도에 관한 문제는 우리 시대에 와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로서 이것을 리론적으로 옳게 푸는가 못푸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발전시키시여 대중지도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행되는 새로운 조건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할 원칙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적사업방법에 관한 리론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심으로써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등 온갖 낡은 사업방법을 완전히 없앨수 있는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의 기본요구를 지버리고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거나 대중령도에서 물질적자극에만 매달리는 기회주의적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촉진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되였을뿐아니라 맑스-레닌주의의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되고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의 귀감이며 빛나는 전형인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오직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창시될수 있었다.

위대한 방법과 작풍은 위대한 사상과 고매한 품성을 지닌 수령에 의해서만 창조된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같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방법의 창시는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리고 혁명적군중로선과 그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의 력사적뿌리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혁명사상과 철저한 혁명적군중관점을 지니시고 인민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며 한품에 안아주시는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셨기에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적군중로선과 혁명적사업방법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실수 있었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시종일관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새로운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여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이시기에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새 환경의 필연적요구를 제때에 포착하시고 그에 맞게 전통적인 혁명적

군중로선과 혁명적사업방법을 더욱 반전시키시고 구체화하시여 력사에 길이 빛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실수 있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군중로선에 기초하시여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위대한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일반화하시여 당과 국가, 경제 기관들, 근로단체들의 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령도하심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빛나는 업적을 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일군들을 비롯하여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관철하며 청산리방법과 배치되는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모든 분야에 걸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들의 사업에서는 거대한 전변이 일어났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위대한 생활력은 우선 우리 당사업을 참말로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게 한데서 뚜렷이 나타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웃기관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아래일군들을 가르쳐주고 간부들과 핵심들이 당원들과 군중을 교양하여 움직이는 사업체계가 섬으로써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였을뿐아니라 당중앙위원회의 의도가 아래에 빨리 들어가게 되였으며 상하가 더욱 단결되고 기맥이 잘 통하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당안에는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또 동지들사이에 서로 도와주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모든 당원들이 당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16～117페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한때 우리 당사업발전을 가로막던 관료주의, 형식주의의 낡은 틀이 마사지고 일군들의 사업수준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결과 당대렬의 조직사상적통일이 강화되고 상하간의 합심이 이루어져 수령님의 의도가 아래에 재빨리 들어가 무조건 접수관철되게 되였으며 당원들간의 동지적협조가 더한층 강화되게 되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관철되여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당이 강화되였을뿐아니라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더한층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군중을 수령님과 당의 주위에 철석같이 묶어세울수 있게 되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는 행정에서 일군들은 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의논하고 같이 일하면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모든 문제를 군중의 리익에 맞게 해결하며 군중이 아파하는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당정책을 실현할줄 알게 되였다. 이것은 광범한 대중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수령님과 당을 따르고 받들게 하였으며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였다.

당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관철되게 됨으로써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이 높아지고 당조직들이 당원들과 군중을 발동하여 혁명과업들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하는 혁명적이며 당적인 사업 체계와 방법이 확립되였다.

이와 같이 당사업이 철저하게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고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한 강철의 대오로, 인민대중과의 불패의 련계를 가진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

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위대한 생활력은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한데서 뚜렷이 나타났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일반화하시여 국가, 경제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이게 하시였으며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커다란 앙양을 이룩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사회주의경제관리에 구현하시여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시하시고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을 마련하시였다.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일군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비로소 은을 나타낼수 있는것이다.

국가, 경제 기관들, 근로단체들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여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당경제정책집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고조를 이룩하고 그것을 계속 견지할수 있게 하였다.

국가, 경제 기관, 근로단체 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늘 대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며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해 대중과 더불어 토의하며 로동자들 호상간, 로동자, 기술자들간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생산활동과 경제관리에 모든 근로자들이 주인답게 참가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이와 같이 당,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등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총체를 더욱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현저히 높이여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혁명화하여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며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데서 거대한 힘을 발휘하고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행정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대중은 일상적으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로선, 정책으로 교양을 받으면서 자기 개인의 리익을 버리고 당과 혁명을 위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숭고한 혁명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수령님께서 주신 혁명과업수행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하게 되였다.

특히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군중에게 접수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근로자들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고 군중이 이 사업에 달라붙게 됨으로써 온 사회를 혁명화하는데서 획기적전진이 이룩되였다.

또한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하부를 실속있게 도와주며 정치사업을 앞세워 당원들과 근로자대중을 자각적으로 발동시키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지도일군들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모든 지도일군들이 우선 자신을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로선, 정책으로 더욱 확고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현실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방도를 찾아내며 대중을 교양하고 당정책관철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줄 알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성, 조직성을 배워 자신의 혁명화를 촉진하게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의 혁명화를 촉진시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위력은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높이 발양되고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있는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그 행정에서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도, 생산을 발전시키는 사업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당사업을 발전시키고 온 사회를 혁명화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촉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두 요새 점령을 앞당기는데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 높은 찬양과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외국의 수많은 벗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다 해당될수 있는 맑스-레닌주의의 산 모범》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고있다.

외국의 한 벗은 《김일성수상의 령도방법은 인민대중을 승리에로 동원하는 진정한 인민적령도방법이다. 인민대중을 력사발전의 동력으로 간주하시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혁명적으로 풀어나가시는 김일성수상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의 조선인민은 천리마나라 인민으로 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그이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그것은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위력한 무기이다.

생활을 통하여 그 위력이 남김없이 검증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틀어쥐고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극복못할 난관이나 점령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바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철저한 혁명적군중관점을 구현한것이며 그이께서 근 반세기동안 우리 인민을 이끄시고 혁명을 령도하여오신 위대한 령도방법을 집대성한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군중관점을 소유하여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적군중관점을 확립하여 온갖 낡은 사상관점, 사업방법, 사업작풍을 없애고 당과 혁명에 충실하며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답게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본질적요구들을 철저히 관철할수 없다. 더우기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기술혁명이 촉진되고있는 현조건에서 일군들이 정치실무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당의 정책적요구를 옳게 파악할수 없고 문제를 높은 정치적안목에서 보고 처리할수 없으며 기술경제적문제들을 옳게 해결할수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로작들, 특히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와 올해신년사를 깊이 연구하여 자신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힘써야 할것이다.

이리하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 구현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사회주의경제를 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구현되여있으며 그이의 백전백승의 혁명적령도방법이 체현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틀어쥐고 나아갈 때 우리 인민의 힘찬 진군은 더욱 촉진될것이며 혁명의 승리는 더욱 앞당겨질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의 길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수행하고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풍부히 하는데 영생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그이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무르익혀오신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구체화한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기본문제의 하나로 인정하시고 그 해결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그이께서는 곳곳에 농민조직을 무어 착취와 압박에 시달리던 근로농민들을 묶어세우고 각성시키시였으며 조국의 광복과 농민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농민문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강령을 완성하시였으며 우리나라 농민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신 후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밝히신 농민해방의 강령에 기초하시여 섬참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심으로써 우리 농민들을 봉건적 및 식민지적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시였으며 우리나라 농촌경리발전과 전반적사회경제발전을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그 엄혹한 나날에도 벌써 승리의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새로 자라난 사회주의싹을 소중히 키우시고 전쟁의 포화가 멎자 지체없이 농업협동화를 제기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 농민들을 자본주의적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는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이후시기의 농촌문제를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그것을 정확히 풀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맑스-레닌주의적길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힘차게 추진됨으로써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이 비상히 높아지고 농업생산력이 크게 발전되여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훨씬 줄어들었다. 생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혁명사상이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위대한 혁명사상과 전략전술을 체계정연하게 집대성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이며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처음으로 밝힌 불후의 고전적인 맑스-레닌주의문헌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근 반세기에 이르는 영

광찬란한 투쟁행로를 무한한 감격속에서 돌이켜보면서 그이의 만수무강을 한결같이 축원하고있으며 수령님께서 밝히신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높이 받들고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그이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고있다.

1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인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농촌문제해결의 력사적경험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교훈을 분석일반화하시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독창적인 혁명사상을 천명하심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유일하게 옳은 길을 명시하시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농촌을 어떻게 발전시키며 협동농민들을 어떻게 공산주의까지 이끌고갈것인가 하는것은 이때까지 그 누구도 해명하지 못하였던 전혀 새로운 문제이다.

기존 맑스-레닌주의리론은 사회주의혁명단계까지의 농촌문제에 원칙적인 해명을 주고있으며 그 이후시기의 문제는 개척되지 못한 미해결문제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현시대의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 농촌문제를 맑스-레닌주의원칙에서 새롭게 해명하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생소한 길을 독창적으로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정확한 길을 찾아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특히 지난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예속밑에 있었던 탓으로 락후한 농업을 가진채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더욱 절실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무르익혀오신 원대한 구상과 그것을 실현하여 이룩하신 위대한 성과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의 창시는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촌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발전에서 혁명적인 전환으로 된다. 그것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이 혁명리론이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며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혁명사상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새로운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본질적내용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사회경제적지반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화하는 기초우에서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며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 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3페지)

사회주의농촌문제는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청산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문제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농민을 로동계급화하며 농업을 공업화하며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끌어올리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농촌문제는 단순한 기술경제적문제로 될수 없다. 그것은 사회주의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문제인 동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동력을 강화하는 정치적문제이며 농촌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 사회주의적인것을 창조하는 사회적문제이다.

사회주의농촌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기본적인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마지막문제이다. 사회주의농촌문제가 해결되여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면 농민들의 사회경제적처지를 개선하는 문제가 로동계급의 사회경제적처지를 개선하는 문제와 별개의 문제로 제기될수 없으며 또 농업생산력을 공업생산력발전에 따라세우는 문제가 별도로 제기될수도 없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동맹자로서의 농민의 사회경제적처지에 관한 문제와 인민경제의 2대부문의 하나인 농촌경리의 생산력발전에 관한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사회주의농촌문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이 남아있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는 사회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로 될수 없다.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후에도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여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건설을 다같이 잘해나감으로써 적대분자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근거지와 지반을 없애며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농민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시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이룩할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는 그 이전시기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제기된다.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는 생산관계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것이 중심문제였지만 사회주의하에서는 이미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는것이 중심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위대성은 또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방도를 밝힘으로써 사회주의제도가 선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를 새롭게 명백히 규정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사업에서 반드시 세개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첫째로,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셋째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우와 같은 책, 33~34페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본문제의 하나인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후에도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준동하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될뿐아니라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여야만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앙양된 농민들의 열성을 견지하고 그것을 더욱 높일수 있으며 이미 수립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할데 대한 철저한 혁명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농촌에서의 계속혁명의 내용과 그 호상관계를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이것은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과업이다.

…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과업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그것들은 통일적과정으로서 수행되여야 한다.

그가운데서도 사상혁명은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혁명과업이다.》(우와 같은 책, 34～35페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이와 병행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강력히 밀고나가야 하며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자본주의가 남겨놓은 기술, 문화, 사상 분야에서의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앨수 있다.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 수행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를 명백히 밝힌것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과 맑스-레닌주의발전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업협동화가 완성된 후에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과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협동화가 완성된후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도시가 농촌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38페지)

사회주의농촌을 적극 지원할데 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농민들의 사회계급적처지와 농업의 경제적기초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를 정확히 반영한 새롭고 귀중한 결론이다.

농촌에서 자본주의가 청산되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수행된 결과 농민은 로동계급과 동일한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싸우는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였으며 로동계급과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담당하는 기본력량으로 되였다. 새로 확립된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는 호상 밀접한 련계속에서 발전하는 사회주의적소유의 두 형태로서 다같이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기초를 이루고있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전인민적소유의 발전에 대하여서뿐만아니라 협동적소유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뿐만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다 같이 완전히 책임지고 돌보아야 하며 공업이 농업을, 도시가 농촌을 모든 분야에서 백방으로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계급의 국가가 농촌을 돕는것은 결국 사회주의농촌진지를 강화하여 사회주의국가의 계급적지반을 튼튼히 하는것이며 농촌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함으로써 공업자체와 전체 인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위업의 실현을 힘있게 앞당기는것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선후 로동계급의 지원, 공업의 방조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독창적으로 구현한 유일하게 옳은 립장이며 농민은 오직 로동계급의 령도와 방조하에서만 사회

주의의 길에 들어설수 있고 공산주의로 넘어갈수 있다는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창조적으로 적용한 가장 정확한 태도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농촌사업을 홀시하고 농촌을 희생으로 하여 도시를 꾸리려는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정권을 잡는 첫날부터 자본주의가 남겨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특히 사회주의공업의 기초가 축성된후에는 결정적으로 방향을 돌려 공업이 농업을, 도시가 농촌을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강력히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협동화이후 농촌에서 제기되는 혁명과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자본주의가 남겨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관리운영수준과 소유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유일하게 옳은 맑스-레닌주의적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경제관리수준과 소유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농촌경리의 지도관리를 개선하여야 하며 협동적소유를 점차적으로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소유관계와 경제관리수준에서의 농촌의 락후성을 없앨수 있으며 이러한 락후성과 관련되여있는 도시와 농촌간의 모든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앨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동경리에 대한 관리운영의 개선방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방향은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영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40페지)

사회주의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관리할데 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내려진 또하나의 새롭고 귀중한 결론이다.

농업생산도 공업생산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술공정이며 사회주의하에서 그 기술장비는 끊임없이 개선되여간다. 이러한 사정은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에서 기술지도를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기술지도를 강화하여야만 복잡한 기술공정을 거쳐 진행되는 생산과정에 깊이 침투할수 있으며 생산장성의 예비를 찾아내여 생산을 늘일수 있고 농촌기술혁명을 촉진할수 있다.

농업협동경리는 또한 대규모의 사회주의적경리인만큼 자본주의경리나 개인농경리와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움직일수 없다. 사회주의경제법칙이 작용하는 조건에서 그의 요구에 맞게 모든 경영활동들이 계획화되고 조직화되여야만 토지, 농기계를 비롯한 생산수단들과 로동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농촌건설의 전반적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이 더욱 심화발전되여 생산의 사회화수준이 높아지고 기술장비수준이 제고되면 될수록 기업적지도 즉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지도와 경영활동의 계획화, 조직화는 필연적으로 더욱더 강화되게 된다.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기업적지도방법은 경제관리수준에서의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농업지도방법이다.

수령님께서는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련계에 관한 문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끌어올리는 방도에 관한 문제를 또한 독창적으로 해명하시였다.

농촌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후 새로 확립된 협동적소유형태는 농업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적응하며 농민들

의 의식발전정도에 적합한것으로서 오래동안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자면 협동적소유를 발전시키고 완성하여야 하며 소유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를 없애나가야 한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협동적소유를 강화발전시키고 그것을 전인민적소유에로 끌어올리는 방도로서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킬것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두 소유의 성격과 호상관계, 협동적소유의 발전수준, 그리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풍부한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내놓으신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방도이다.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밀접히 결합시켜나가야만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을 강화할수 있으며 공업의 기계기술, 선진적기업관리와 생산문화를 농촌경리에 더잘 보급할수 있으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오직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면서 두 소유를 밀접히 결합시켜나가야만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키고 그것을 전인민적소유에 더욱더 접근시킬수 있으며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점차적전화과정을 순조롭게 할수 있으며 촉진할수 있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주요조건의 하나로서 지역적단위와 거점을 설정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농촌과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대상을 지도하려면 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지역내의 모든 대상들을 직접 지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는 지역적단위와 거점이 있어야만 정치, 경제, 문화 등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련계를 옳게 보장할수 있으며 농촌에 대한 도시와 공업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실로 지역적단위와 거점에 관한 문제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농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2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으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오랜 세월에 걸쳐 착취와 빈궁이 지배하던 우리 농촌을 유족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을 구현하여 새로운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는 투쟁에서 거둔 위대한 성과는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우리 농민들과 인민들 앞에는 뚫고나가야 할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사회주의하에서 농촌건설은 전인미답의 길이며 특히 자본주의로부터 락후한 농업을 넘겨받은 나라들에서 그것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였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과 그 사환군들이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악랄하게 비방

증상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투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서시여 새로운 독창적인 농촌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능숙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을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협동화된 농촌을 자주 찾으시여 변화된 사회주의농촌의 구체적실정을 몸소 료해하시고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위대한 구상을 익히시였으며 그것을 체계정연하게 집대성하시여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작성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전체 농민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합법칙적로정을 밝힌 ·완전무결한 맑스-레닌주의적강령을 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곧바른 길을 따라 거침없이 내달릴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한편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한 실제적조치들을 취하심으로써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확고한 사회경제적조건들을 마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촌사업에 대한 당조직들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면서 모든 농민들이 다 조직생활에 참가하여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있도록 농업근로자동맹을 창설하는 력사적조치를 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정치사상적지도를 확고히 앞세우시면서 농촌을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강력히 돕도록 백방으로 심려하시였다.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원대한 구상에 따라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농민들에게도 로동자, 사무원들과 꼭같이 국가부담으로 문화주택을 지어주며 국가자금으로 농촌기본건설을 진행하도록 하신 사실하나만 가지고도 어버이수령님께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얼마나 크나큰 배려를 돌리시고계시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고 그 기업관리수준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군을 기업적지도의 단위로, 거점으로 설정하시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농업지도체계를 창설하심으로써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적지도와 물질기술적방조를 효과있게 실현하고 농업관리를 선진적인 공업관리수준에 접근시킬수 있게 하시였으며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생산적련계를 강화하여 두 소유가 유기적으로 밀접히 결합할수 있게 하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농장의 경영활동에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시여 농촌사업에서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더욱 밀접히 결합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농장원들속에 더욱 실속있게 침투시키고 제때에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 조치들을 련이어 강구하시였을뿐아니라 몸소 여러 농촌들을 찾으시여 농촌사업과 농민들의 생활을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농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세심히 보살피고계시는 수령님께서는 기계와 전기, 화학의 힘으로 농업생산을 공업화하여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생산을 몇곱절 더 훨씬 높일수 있는 공산주의적농법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산간지대에서 농민들의 생활을 푸는 방도와 중간지대에서 농사짓는 법,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나라의 그 어느 농촌, 그 어느 협동농장치고 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그이의 극진한 보살피심이 돌려지지 않은데가 없다.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극진한 배려, 세심한 지도를 떠나서 우리 농촌건설의 성과, 우리 농민들의 생활향상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에 의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는 이미 위대하고 찬란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지난날 원시적인 농기구밖에 없었던 우리 농촌은 현대적인 기계와 과학기술로 장비된 발전된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제4차대회가 내놓은 방침과 특히 1964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놓은 길을 따라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커다란 힘을 돌렸으며 이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9페지)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논관개가 완전히 끝났으며 밭관개도 적지않게 실현되였다. 특히 지난 몇해동안에 중요 벼생산지대들에서 고이는물빼기공사가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나라의 전반적지역에서 강하천정리사업, 해안방조제공사가 널리 진행되였으며 최근시기에는 방대한 면적의 남새밭과 밀보리밭에 현대적분수식관수시설들이 건설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전국이 조밀한 관개망으로 뒤덮이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대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는 투쟁에서 거둔 가장 자랑찬 성과의 하나이다.

우리 농촌에서는 또한 뜨락또르를 비롯한 수많은 현대적농기계들이 농민들의 힘든 일을 대신하고있으며 밭갈이로부터 수확, 탈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농작업의 종합적기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이리하여 우리 농민들은 참말로 헐하고 흥겹게 농사일을 할수 있게 되였으며 휴식도 하고 학습과 문화생활도 하면서 일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전기화의 력사적과업도 빛나게 실현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배려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리와 모든 마을, 모든 농가에 100%로 전기가 들어갔다. 우리 나라의 모든 농민들이 다 밝은 전기불밑에서 생활을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리고 있으며 전기동력이 농업생산의 모든 공정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우리 나라는 농촌전기화분야에서 이미 세계선진국가들의 수준에 이르렀다.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다. 농업생산의 중요기술공정들이 화학적방법에 의하여 처리되고있으며 전면적화학화가 급속히 추진되고있다.

이와 같이 농촌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어떤 가물이 들고 큰물이 나도 흉년을 모르게 되었으며 기계로 밭을 갈고 전기로 낟알을 털며 약으로 김을 죽이면서 농사를 짓는 휘황찬란한 새 시대가 펼쳐졌다.

농촌기술혁명을 진행하여 농업부문에서 이룩한 특별한 성과는 대자연을 정복개조하고 국토의 면모를 개변시킨것이다. 지난날 불모의 땅으로 불리우던 수많은 동강의 넓은 벌들이 풍년벌로 전환되고 백무고원과 같은 높은 지대가 축산기지, 원료기지, 식량기지로 변하였으며 오랜세월 버림받아오던 넓은 간석지가 개간되여 식량기지, 비단원료기지로 되고 과수원을 대대적으로 늘일데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실현되여 나라의 모든 야산들이 화려한 과일동산으로 전변되였다.

기술혁명을 수행하여 거둔 위대한 성과의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농업부문이 공업부문으로 전환된것이다. 우리 인민

들에게 더욱 유족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항상 심려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와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년간에 그 규모와 설비에 있어서 세계 1등급의 가금공업이 창설되였다.

지난날 침체하고 어지럽던 우리 나라 농촌은 활기있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문화혁명은 농민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농촌기술간부를 양성하며 농촌의 낡은 면모를 개변하고 온갖 뒤떨어진 생활양식과 인습을 없애며 생활을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9페지)

우리 나라에서는 동방에서 처음으로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전체 농민들이 중학교이상의 일반지식과 기술지식을 배우고있으며 이미 당이 길러낸 기술간부의 대부대가 농촌에서 일하고있다. 또한 새로운 농촌문화주택들과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들이 알뜰히 꾸려지고 집집마다 유선방송과 출판물들이 들어가고 농촌텔레비죤화가 빨리 추진됨으로써 농촌의 문화적락후성이 급속히 가셔지고 도시와 농촌 주민들간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다.

우리 농촌의 세기적락후성의 마지막흔적인 오막살이들이 자취를 감추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과 현대적건물들이 우뚝우뚝 솟아나며 무지와 몽매, 근심 속에서 모대기던 우리 농민들이 의식주에 대한 걱정은 물론 자녀들을 공부시킬 걱정, 병고칠 걱정 없이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다루면서 흥겹게 일하며 문명하게 생활하는 바로 이것이 수령님의 품속에서 변모된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사상혁명을 앞세우고 모든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또한 우리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도덕적풍모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농민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그이께서 내놓으신 혁명과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수립되고있다. 모든 농민들이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 등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견결히 증오하는 높은 계급적의식에 불타고있으며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고 그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정열을 다 바칠 혁명적각오를 가지고있다. 농업근로자들속에서는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나라의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공산주의적태도가 크게 자라나고 새것을 지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생기발랄한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가 급속히 퍼져나가고있다. 우리 농촌에서 계속 확대발전되고있는 위대한 천리마작업반운동과 그 행정에서 이룩된 모든 세기적인 변혁들은 농민들의 정치사상생활에서 일어난 이러한 전변이 가져다준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문화, 기술 혁명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실로 우리 나라 농촌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우리 농민들은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로동계급과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열렬한 혁명가로 자라났으며 무료교육, 무상치료, 유급휴가와 정휴양 등 크나큰 국가적혜택을 받으면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나라의 농업은 지난날의 심한 기술적락후성과 편파성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다각적으로 발전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힘있는 인민경제부문으로 전변되였다.

모든 생활은 우리 나라에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위업이 가장

정확한 길을 따라 전면적으로 진척되고 있으며 거기에서 이미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적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이 어렵고도 복잡한 과업이 가장 신속있게, 가장 높은 속도로 수행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는것이며 그 구현을 위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수령님의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튼튼히 하고 우리 사회주의농촌을 지상락원으로 전변시키는 힘있는 무기이다. 오늘 전체 농민들과 인민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혁명사상과 그것을 구현하여 이룩한 위대한 성과는 또한 남반부 농민들과 인민들에게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한한 동경과 조국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북돋아주고있으며 그들을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들을 반대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혁명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이다. 세계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세상에 발표되자 그것을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와 농업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맑스-레닌주의적농촌건설강령》으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락후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위대한 실천적의의를 가지는 훌륭한 문헌》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서 자기들의 휘황한 래일을 내다보면서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나라의 민족적독립과 그 공고화를 위하여,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탁월한 혁명사상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맑스-레닌주의를 확고히 견지하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적용발전시켜 빛나는 결실을 거두게 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문제에 대한 수정주의자들의 그릇된 견해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과학적공산주의 리론의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하였다.

수령님의 이 위대한 사상과 우리 나라 농촌건설에서 거둔 찬란한 성과는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생동한 경험과 사실로써 과시하고 공산주의자들만이 진정으로 농업문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실지로 보여줌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혁명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그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였다.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탁월한 사상이 나옴으로써 과학적공산주의 리론은 처음으로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제기하게 되였고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정확한 길을 알게 되였다. 또한 이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제도가 선후의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리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에로 점차적이행에 관한 리론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이 새롭게 해명되였다.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길을 리론적으로 밝히시였을뿐만아니라 실천적으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모범을 창조하심으로써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농민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실제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력사는 농민해방의 위업을 위하여 수많은 혁명가들이 고귀한 피를 흘렸고 허다한 농민운동과 선진적인 사상들이 제기된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농민대중을 사회의 구속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그 숭고한 사업을 실지로 완수할수 있게 하지 못하였다. 수백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인류력사앞에 미해결문제로 남아있었던 농민해방의 력사적과업은 오직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서만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실로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을 사회의 모든 구속에서 해방하고 력사의 적극적이며 의식적인 창조자로 되게 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서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신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인류의 영재이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한 새로운 웅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그이의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혁명사상을 농촌건설분야에서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나갈 때 지난 시기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것처럼 그이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내놓으신 새로운 력사적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당면하여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농촌경리부문앞에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을 앞당기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데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모두다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농촌건설에 관한 그이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

황 룡 섭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경사스러운 민족적명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면서 수령님의 반세기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를 무한한 감격과 흥분 속에서 돌이켜보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혁명위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민족적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력사에 영원토록 길이 빛날 불멸의 혁명업적을 이룩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영생불멸의 혁명업적, 그것은 수령님께서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영광스러운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과정에서 이룩된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불멸의 혁명업적은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혁명전통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따라서 그것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서 사상리론적재부와 함께 혁명의 승리를 공고히 하고 그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고귀한 혁명적밑천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굳건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불멸의 혁명업적은 오직 조선혁명의 승리의 앞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일제침략자들에게 짓밟혀 우리 인민의 원한이 서리였던 시기에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심으로써 빼앗겼던 조국을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이 땅우에 일대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새 시대를 마련하시였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온 세상에 자랑하고있으며 그것을 더 없이 귀중히 간직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고있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일편단심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싸울것을 더욱 굳게 다짐하면서 충성의 한마음으로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 *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투쟁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혁명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일제를 타도하고 민족적해방을 이룩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적비운이 드리웠던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 반제민족해방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15성상의 영웅적무장투쟁을 벌림으로써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외래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이룩하는것은 일제의 조선강점이후 조선인민앞에 나선 민족지상의 혁명과업이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운동이 있었다. 그리고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됨에 따라 공산주의운동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운동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변하는 로동계급의 현명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한것으로 하여 막대한 손실을 당하고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리하여 조선혁명은 그 요람기부터 준엄한 시련과 우여곡절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시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이룩하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은 오직 조선혁명이 나아갈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고 그를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할 위대한 령도자, 현명한 수령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확고히 조직령도할 현명한 수령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바로 그러한 시기에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밑에 승리적으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조선혁명의 새 시대가 열리였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세계혁명운동의 새로운 력사적조건, 조선혁명의 객관적요구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혁명의 가장 올바른 지도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주체적혁명로선은 조선혁명을 조선인민이 책임지고 자신의 힘과 투쟁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주체사상, 주체적립장을 반영한 위대한 혁명로선이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혁명로선이였다. 그것은 이 혁명적로선이 조선혁명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요구,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가장 집중적으로 반영한 유일하게 정확한 혁명로선이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로선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선행한 부르죠아민족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이 완전히 극복되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맑스-레닌주의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우리의 혁명적 로동자, 농민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켰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53페지)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첫 맑스-레닌주의

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반혁명적폭력에 혁명적폭력으로 대항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는 가장 적극적이며 결정적인 투쟁인 동시에 인민대중의 다른 모든 형태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가장 위력있는 투쟁형태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확고한 중심을 이루었다. 이 무장투쟁은 단순한 무장투쟁이 아니라 대중의 정치, 경제적투쟁과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당창건사업,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등 전반적조선혁명을 강력히 발전시키였다.

현대적무기와 기술기재로 무장한 일제침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항일무장투쟁은 투쟁의 첫 걸음부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한 혁명투쟁이였다. 이 무장투쟁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무기와 탄약, 식량과 피복을 비롯한 모든것을 적과의 투쟁속에서 자체로 해결하여야 하였으며 혁명의 배신자들인 좌우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주의자들의 악랄한 도발책동을 물리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간고한 혁명투쟁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이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나가시면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을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으며 이미 제시된 혁명로선 관철에로 그들을 정확히 조직동원하시여 마침내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조선인민은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에 의하여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고 륭성과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였을뿐아니라 조선혁명의 가일층의 발전과 그 종국적승리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선 당창건과 그 강화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여 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의 항일민족해방투쟁은 장차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적당창건을 위한 조직적, 사상적 준비를 이루었으며 우리 혁명운동의 빛나는 전통으로 되였습니다.》(《김일성선집》, 제4권, 525페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는것은 창건될 당을 일층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 관건적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갖추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건될 당의 핵심적골간을 키우시는 한편 좌우경기회주의와 종파주의를 극복하시고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단결과 그 순결성을 보장하시였으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조직생활과 당사업의 기본원칙을 확립하시였다.

또한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주체적혁명로선과 투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으로 공산주의자들을 무장시키심으로써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는 해방직후의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지체없이 당을 창건하고 그를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고귀한 밑천으로 되였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와 함께 인민정권건설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이룩하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하는 기본담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조국의 해방과 자기의 주권을 위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으며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페지)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며 혁명의 승패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사활적문제이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손에 주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야만 완전한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할수 있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시종일관 주권문제에 가장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 옳은 해결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바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수령님께서는 혁명적폭력에 의한 주권전취를 조선혁명의 근본문제로 규정하시고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가장 옳바른 길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이 작성되고 그것이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장차 수립될 인민정권의 원형인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민정권건설의 기본원칙이 확립되고 새 국가건설의 혁명적골간이 마련되였다. 그리하여 해방후 인민정권을 건설하고 그를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축성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대중단체건설과 혁명무력건설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이 사업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키심으로써 당의 인전대인 근로단체건설과 인민무력건설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시였으며 이 과정에서 귀중한 사업경험을 창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당, 정권기관, 각종 대중단체를 조직하시고 그 임무와 역할, 그것들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규정하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원형을 마련하시였다. 이것은 해방후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를 지체없이 조직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를 확립하는데서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고귀한 밑천으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을 결성하시고 여기에 광범한 군중을 망라시키시였으며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당시 조성된 혁명정세를 옳게 파악한 기초우에서 무장투쟁을 대중의 정치, 경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키며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혁명의 대중적기반을 닦았습니다.》(《김일성선집》, 제4권, 525페지)

혁명은 인민을 위한것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따라서 혁명은 광범한 군중을 각성시켜 동원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결국 인민대중을 전취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광범한 군중을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쟁취하며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조직을 뭇으시고 여기에 광범한 반일혁명군중을 묶어세우시여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신 풍

부한 사업경험을 이룩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사업경험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상설적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전국적범위에서 통일전선운동을 급속히 확대발전시키시여 광범한 군중을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결성과 함께 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하는것은 모든 반일세력들을 묶어세우고 국제적규모에서 공동의 적, 일제침략자들을 고립시키고 놈들을 타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린접국가공산주의자들과는 물론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반일세력들을 하나의 반제공동전선에 결속시키시고 그들의 공동투쟁을 조직하는데서 귀중한 사업경험을 창조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당 및 정권기관, 근로단체건설과 혁명무력건설, 통일전선사업에서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해방후 혁명을 옳은 길로 이끌고 확고한 승리를 보장하는데서 끝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조선혁명뿐아니라 세계혁명발전 특히는 식민지민족해방운동발전에 영생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그 지도사상에 있어서, 그 형태와 규모에 있어서, 그 간고성과 장기성에 있어서 세계혁명운동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영웅적혁명투쟁이였다.

간고한 시련과 영웅적사변들로 가득찬 항일무장투쟁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수행하는 길로 확고하게 나아갔으며 력사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여 나아갔다.

민족적비운이 드리웠던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수령님께서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체계에 첫돌파구를 열어놓으심으로써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영향을 주시고 그들에게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이리하여 항일무장투쟁은 식민지 및 반식민지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세계혁명의 2대혁명력량의 하나로 전환시키는 선구자적역할을 하게 되였으며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새 기원을 열어놓았다.

특히 국제파시즘이 대두되고 제국주의의 반동공세가 더욱 강화되던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심으로써 일제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세계제국주의침략세력을 약화시키시였으며 국제반파쑈운동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고 불멸의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을 창조하심으로써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특히는 식민지민족해방운동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그러기에 전세계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금치못하고있으며 수령님을 따라배우는것을 최대의 자랑으로, 크나큰 영광으로 여기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실로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을 이룩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수령님에 의하여 이룩된 불멸의 혁명업적은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가장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며 조선혁명의 튼튼한 밑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이룩하심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체없이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을 가지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밑에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드떡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택한 혁명로선을 따라 확고히 전진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을 내놓으시고 인민정권창건의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으심으로하여 우리 인민은 강유력한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인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조선인민은 또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자위의 군사사상과 혁명무력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혁명의 믿음직한 보위자인 일당백의 인민군대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민족으로부터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쓰라린 망국노의 운명에서 영원히 벗어나 세계의 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떳떳이 나아가는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을 령도하시여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빠른 시일내에 가장 철저히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 온갖 착취의 근원이 영원히 청산된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게 하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시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수령님의 장기간의 혁명투쟁과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가장 혁명적인 당과 인민정권, 일당백의 혁명무력을 가진 가장 존엄있고 권위있는 인민으로, 세기적 락후와 빈궁을 영원히 없애버리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인민으로 되였으며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시대에 살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싸우는 전세계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에게 자기 혁명위업에 대한 정당성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홰불로, 불패의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오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위대한 공적으로 하여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영광과 행복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연구하고 수령님을 따라 배움으로써 자신을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 열렬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고 세계혁명위업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수령님의 두리에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은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

리 동 희

오늘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와 새 환경에 맞게 광범한 군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 우리의 혁명력량을 일층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튼튼히 꾸리며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묶어세워야 한다.

우리 당은 이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전체 인민을 굳게 묶어세워 온 사회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이룩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미는 기본 동력으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기는 강유력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실로 수령님의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단결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발휘하고있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며 공산주의에로의 힘찬 전진을 위한 결정적요인으로 되고 있다.

* *

수령의 두리에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요구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인민을 위한것이며 인민대중 자신의 사업입니다.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지 않고서는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결국 군중을 많이 전취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와 성과를 결정하는 근본문제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28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의 승패는 결국 누가 군중을 더 많이 쟁취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대중을 결속하며 대중을 혁명에 인입시키는것은 당활동의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에서 결정적인 힘은 주체적력량이다.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야만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이겨낼수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은 이 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인민대중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착취계급을 때려부시고 온갖 낡은것을 청산하며 새것을 창조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을 통하여 건설된다. 이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은 우리 당이 혼자서 할수 없다.

계급적원쑤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하며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하고 이에 적극 참가하여 견결히 투쟁할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오직 광범한 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만 혁명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광범한 군중을 전취하여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가 못 세우는가 하는것은 혁명승리의 성과를 결정하는 근본문제이다.

광범한 군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이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되는것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특성으로부터 오는 필연적요구이다.

해방후 나라가 남북으로 분렬된 조건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할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혁명이 아직도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과업이 여전히 남아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 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것은 당이 많은 군중을 쟁취하며 혁명력량을 축적하는것입니다. 한줌도 못되는 원쑤들을 고립시키고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대중을 우리 당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워야만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언제든지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으며 혁명에서 종국적으로 승리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15페지)

우리는 전국적으로 볼 때 아직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혁명은 장기성과 간고성을 띠게 되였다.

또한 국제반동의 괴수이며 우리 인민의 가장 흉악한 철천지원쑤인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하에서 나라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오늘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준비에 미쳐날뛰고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건설을 파괴하려고 갖은 발악적책동을 다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을 적들은 제일 두려워하며 이 통일단결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갖은 발악적책동을 다하고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조국통일을 원하는 모든 군중을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취하여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언제든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으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광범한 군중을 전취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은 우리 나라 주민구성의 복잡성과 관련하여 더우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랜 기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나라의 남북으로의 분렬, 특히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의 리간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에서는 복잡성이 생겼습니다.

이 복잡한 계층들에 대한 문제를 옳바르게 풀며 그들을 당과 혁명의 편에 확고히 끌어들이는것은 전체 인민의 통일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우와 같은 책, 17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오랜 기간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미제에 의한 나라의 분렬,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은 적들의 리간책동으로 우리 나라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에서는 많은 복잡성이 생기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이라도 우리 당을 따르려는 광범한 군중을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취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우리 인민은 간고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단련되였으며 사회계급적처지와 립장, 각오정도에서 크게 달라졌다.

그러므로 변천된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사업을 개선강화하고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은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

각계각층 군중을 튼튼히 쟁취하면 그만큼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은 튼튼히 꾸릴수 있을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에게도 커다란 정치적영향을 주어 광범한 애국적인민들을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울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변천된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사업을 개선강화하고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처럼 수령님의 두리에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과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특성으로부터 나서는 근본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는 요인이며 혁명승리의 기본담보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을 령도하시는 첫시기부터 군중과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광범한 대중을 쟁취하는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광범한 반일혁명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력량을 반석같이 꾸리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안팎의 온갖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당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며 각계각층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을 정확히 조직령도하시였다.

해방후 우리 당앞에는 광범한 군중을 쟁취하는 문제가 혁명의 승패를 결정하는 관건적문제의 하나로 나섰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심히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었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이 전개되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우리 당앞에는 계급적력량관계를 옳게 타산하고 광범한 군중에 대한 정확한 계급정책을 실시하며 혁명적군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과업이 중요하게 나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자기 대렬을 강화하는 한편 언제나 광범한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2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을 강화하고 광범한 군중을 쟁취하여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시였으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시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군중으로써 혁명의 기본부대를 튼튼히 꾸리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극소수의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나라에 조성된 주객관적정세를 과학적으로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내외원쑤들과 종파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시면서 주체적인 민주기지로선을 제시하시고 북반부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당을 창건하신데 뒤이어 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을 실현하시여 우리 당을 대중적정당으로 급속히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대중단체들을 조직하시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시였다.

특히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하시고 광범한 청년학생들을 유일적인 청년조직에 결속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고 민주주의적제정당사회단체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시였으며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민주주의적혁명력량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시였다.

또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계급관

계를 정확히 분석하시고 옳은 계급정책을 실시하심으로써 혁명실천을 통하여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시였다.

그리하여 당의 령도밑에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시여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인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민주주의혁명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시기에 전쟁으로 인하여 조성된 새로운 현실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당을 강화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을 와해하려는 종파분자들의 취소주의적책동과 관문주의적경향을 반대하고 당대렬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는 한편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청산하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시였다 그리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전선사업을 개선강화하며 특히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급속히 확대강화되고 그 전투력이 더욱 높아졌을뿐아니라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더 한층 튼튼하여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의 리간책동으로 인하여 생긴 주민들의 정치적구성의 복잡성을 정확히 분석하시고 계급투쟁을 일층 강화하여 기본군중을 각성시키고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 제압하는 동시에 기본군중으로서 몰라서 당과 혁명앞에 일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들을 아량있게 포섭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원쑤격멸의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수령님께서는 전후시기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사회주의적개조방침과 정확한 계급정책을 제시하시고 도시와 농촌의 모든 사람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하시여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시였다. 이리하여 로농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확고히 이루어졌으며 이에 기초하여 전쟁의 피해를 급속히 가시고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어려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이후시기 조성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당을 강화하고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새롭고 독창적인 방침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우리 당을 정확히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60년 4월 1일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와 일련의 교시들에서 각계각층 군중, 특히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의 구체적인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극소수의 원쑤를 고립시키고 각계각층의 군중을 우리 당 주위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당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담하게 교양전취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다가오는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전체 군중을 당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켜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령도하시면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 당 제5차대회보고 등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통하여 사회주의하에서 계급투쟁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문제, 계급투쟁과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문제, 온 사회를 혁명화, 로

동계급화할데 대한 문제 등 고전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리론과 독창적인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전당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여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며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한 방침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면서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는것이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19페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방침은 사회주의사회의 계급관계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에 대한 전면적이며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그것은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진입하며 광범한 군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계급투쟁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의 호상관계를 옳게 보지 못하고 그 어느한 측면은 홀시하고 다른 한 측면에만 치우치는 좌우경적편향을 다같이 경계하시면서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시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은 철저히 고립되고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는 더욱 굳건히 다져졌다.

또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전체 인민이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더욱 굳게 단결되고 온 사회가 서로돕고 이끌어나가는 붉은 대가정으로, 불패의 혁명대오로 전변되였다.

한편 수령님께서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완전한 통일과 단결을 실현하시였으며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시여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당과 대중과의 련계,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화되였으며 전체 인민은 혁명적정열과 락관에 넘쳐 환기를 띠고 일하고 생활하고있으며 혁명과업수행에서 매일과 같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처럼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투쟁에서 어려운 문제로 나섰던 사회정치생활이 각이한 군중을 당주위에 결속시키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해결되면서 당과 대중과의 통일단결이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우리 혁명승리의 강력한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변천된 새로운 현실에 맞게 당조직사업을 개선강화하고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은 수령님만을 믿고 수령님은 인민을 믿으시는 하나의 대오, 사나운 풍랑과 뢰성벽력에도 드놀지 않는 불패의 혁명대오가 꾸려졌다.

이 모든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의 조직로선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이룩될수 있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당조직들이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온 사회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성된 정세는 광범한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야 할 중대한 과업을 제기하고있다.

그러므로 각급 당조직들은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결합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대중지도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

중과의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우선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본군중은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계급적지반입니다. 기본군중을 잘 교양하여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강화하고 혁명의 기본부대를 튼튼히 꾸릴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29페지)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기본군중은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계급적지반이다. 그러므로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잘 교양하고 정치적각성을 높여야 당의 계급적진지를 강화하고 혁명의 기본부대를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기본군중에 의거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전취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기본군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의 주력군답게 자기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촉진시킬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군중들과의 사업은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절실하게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조직들은 광범한 군중과의 사업에서 본인의 현재동향을 기본으로 하여 매 사람을 평가하며, 사람들을 믿고 검열하며, 투쟁을 통하여 개조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사업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혁명의 편에 끌수 있는 모든 력량을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취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군중관점을 철저히 세우고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진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계급적분해를 더욱 촉진시키며 반동분자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쟁취할수 있는 사람을 다 교양개조하여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것은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것은 대중지도의 맑스-레닌주의적원칙이다. 근로단체들을 적극 발동시켜야만 당의 두리에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광범한 군중을 혁명과 건설에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일층 높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간부들은 군중과의 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체득하고 조성된 정세와 변천된 새로운 현실에 맞게 당조직사업을 개선강화함으로써 군중과의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며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조국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한다.

인민정권기관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강령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문헌

정 수 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52년 2월 1일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당지도일군 련석회의에서 《현계단에 있어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력사적연설을 하신 때로부터 스무해가 된다.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인민정권앞에 나선 기본임무와 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특히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새형의 주권형태인 인민정권의 계급적성격과 특징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국가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지난 20년간 우리 인민이 달성한 자랑찬 성과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우리 혁명의 강유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의 계급적성격과 임무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과업들을 명시하신 수령님의 력사적연설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력사적인 2월연설은 당시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그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력사적문헌이며 앞으로도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유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 *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연설 《현계단에 있어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에서 우리 인민정권의 계급적성격과 기본임무에 대하여 다시금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정권은 제국주의의 주구이며 그 세력을 부식하는 지주, 예속자본가들과 친일파, 친미파, 민족반역자들에 대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하며 인민자체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34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우리 인민정권의 계급적성격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신 독창적인 사상이다.

정권의 계급적성격은 그 정권이 어느 계급에 의하여 령도되며 어느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권인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므로 정권의 성격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적대계급에 대한 독재를 옳게 실시하고 혁명의 편에 인입할수 있는 모든 력량들을 최대한으로 묶어세워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정권에는 지주, 자본가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부르죠아독재정권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 있다.

부르죠아독재정권은 지주, 자본가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억누르며 그들에게서 온갖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다. 다시말하여 부르죠아독재정권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지주, 자본가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부르죠아독재정권과는 정반대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은 지주, 자본가들에

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자기의 정권을 가지지 못하였던 탓으로 하여 갖은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으며 식민지 노예의 생활을 강요당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인민은 해방후 력사상 처음으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나라의 주인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새형의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인 우리 인민정권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뿌리에서 자라난 정권으로서 인민자신이 자기 손으로 조직한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다.

우리 인민정권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과 밀접한 련계를 맺고있으며 인민에게 의거하여 사업하며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고있다. 또한 인민정권기관은 자기 사업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참가시키면서 인민대중에 깊이 뿌리를 박고 사업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혁명적인 정권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인민정권의 계급적성격에 관한 독창적사상은 인민정권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령도권을 확고히 보장하고 정권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마련할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길을 밝혀준 사상으로서 인민정권을 부단히 강화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강령적인 지침으로 되며 국가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에 대한 특출한 공헌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또한 우리 인민정권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임무를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정권은 근로대중의 선봉대인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과 조국전선산하 국내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자기 주위에 집결하여 조선인민의 극악한 원쑤인 민족반역자, 친일파, 친미파, 예속자본가, 지주를 대표하는 리승만반동파들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민족적투쟁을 전개하며 조선의 완전독립과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현계단에 있어서 자기의 기본임무로 삼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34페지)

수령님의 이 강령적교시는 새형의 정권형태인 우리 인민정권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임무를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로동계급에 의한 정권전취는 프로레타리아혁명의 시초에 불과하다.

로동계급은 정권을 장악한 이후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에 의거하여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의 온갖 반항을 분쇄하여야 하며 경제, 문화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공고히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인민들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혁명적무장력을 건설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정권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인민의 원쑤들인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온갖 반항을 철저히 분쇄하였으며 북반부에 강력한 민주기지를 창설하고 그것을 공고히 하며 보위하기 위한 군사적 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였다.

특히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정권은 전체 인민들을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믿음직하게 수호하였다.

해방후 우리 인민이 달성한 이 모든 성과들과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는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임무를 밝혀주신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여주었다.

인민정권의 기본임무를 밝히신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은 주권을 장악한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부터 시작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신 탁월한 사상이다. 이 사상은 해방후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우리 인민정권이 유일하게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투쟁할수 있게 하였을뿐아니라 로동계급이 주권을 장악한 모든 나라들에서 반드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상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 《현계단에 있어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에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기본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을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일제사상잔재 및 낡은 봉건적사상잔재와 투쟁하며 그 표현인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340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에는 인민정권기관을 강화하며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본과업이 밝혀져있다.

정권기관일군들속에 남아있는 일제사상잔재와 봉건적사상잔재 등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인민정권을 강화하며 그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우리 나라가 근 반세기동안이나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받아왔기때문에 정권기관내에서 일하는 일군들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제사상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있었다. 이것은 각 방면에 걸쳐 우리 사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 있었다.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일제사상잔재와 봉건적사상잔재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인민에게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수 없었다.

특히 우리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와 대치되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뿌리뽑아야 하였다.

꾸준한 사상투쟁을 통하여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할 때 인민의 충복답게 혁명임무를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과 함께 그의 표현형태인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인민정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관료주의는 봉건제도나 자본주의제도하에서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지배계급들의 반인민적통치방법이며 우리 인민민주주의제도하에서는 도저히 허용될수 없는 해로운 작풍이다.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은 당정책을 외곡하며 우리 인민정권기관의 전투력을 마비시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는데 막대한 장애를 준다. 또한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은 인민정권의 위신을 떨어뜨리며 우리 인민정권을 인민대중으로부터 리탈시킴으로써 인민정권으로 하여금 자기의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뿌리빼지 않고서는 인민정권기관의 기능과 전투력을 높일수 없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집행하여나갈수 없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앞에 제기된 기본과업을 성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소유하게 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인민의 리익을 존중히하며 인민에게 호령할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복하고 교양하며 항상 인민에게서 배우며 인민을 위하여 성심성의로 복무할줄 아는 진정한 인민의 일군이 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46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에 기초한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할데 대하여 가르쳐주고있다.

인민에 대한 옳은 견해와 태도를 가지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싸우며 모든 사업에 대하여 군중앞에서 책임지며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을 가르치는 인민적사업작풍, 이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모든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으로 된다.

일군들이 오직 이러한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만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친두길미 그들에게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고 그들의 창발적 열성과 지혜를 조직동원하여 부과된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이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는것과 함께 사업방법을 개선하고 지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일군들이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는것과 함께 사업방법을 개선하고 지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대중을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을 소유하고 지도수준을 높여야만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사업방법을 개선하며 지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을 따라배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집체적토의를 강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공을 주어 그들이 각각 자기맡은 사업에서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모든 사업에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적사업작풍과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할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그이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몸소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있는 인민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사업방법이며 사업작풍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신 인민적사업작풍과 혁명적사업방법을 따라배울 때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일군으로, 인민의 충복으로 될수 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인민정권의 기본과업과 그 실행방도에 관한 사상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상이다.

인민정권을 강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인민정권건설과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불패의 생활력을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이 있은후 당 및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과 전체 인민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있게 연구하며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들인 관료주의, 탐오랑비, 횡령, 절취 등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수령님의 력사적인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이 비판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확립되였으며 그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군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유능한 일군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수령님의 력사적인 2월연설을 사업과 생활에서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대중을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옳게 집행하였다.

그리하여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도 파괴된 경제를 급속히 복구운영하며 모든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전시 경제계획과 알곡증산계획을 초과수행함으로써 전선과 후방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민생활을 안정시켰으며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와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 영예로운 전투적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우리 혁명의 강유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당 및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은 수령님의 모든 로작들과 함께 이 문헌을 깊이있게 연구하여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일군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편단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지도일군들의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부단히 개선완성하여 나감으로써 우리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나아가야 할것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일당백의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리 두 익

오늘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우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앞두고 온 나라가 전투적기백과 혁명적열의로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스물네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인민군대의 억센 뿌리를 마련하시였으며 그에 토대하시여 해방후 제때에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그를 당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키우시였다.

인민군대는 창건 첫날부터 당과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믿음직하게 수호하였다. 오늘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일제침략군과 미제침략군을 반대하여 싸워이긴 고귀한 경험, 유격전쟁과 현대전쟁을 다같이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다.

인민군대의 강화발전과 그가 쌓아올린 빛나는 업적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조선인민군창건 스물네돐을 맞는 인민군장병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무력으로 확고히 담보할 드높은 결의에 넘쳐있다.

1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류례없이 간고하고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해방된 조국에 건설할 정규적인민무력의 억세고도 깊은 뿌리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의 장도에 오르신 첫시기부터 혁명적폭력과 혁명무력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시고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강력한 상비적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할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내놓으시였으며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항일유격대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이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은 완전한 식민지조건에서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진행된 력사상 첫 민족해방전쟁이였다. 항일유격대의 창건은 예속국가인민들에게 나라가 완전히 식민지로 전락되고 특히 국가주권과 아무러한 국가적후방도 외부의 지원도 없으며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어려운 조건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혁명적무력으로써 반혁명적폭력을 타승하여야 한다는것을 력사상 처음으로 뚜렷이 보여주었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면서 장차 해방된 조국에 강력한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벌써 빨찌산때에 조선을 해방하면 빨찌산을 골간으로 하여 진정한 인민군대를 조직한다는 구호를 내놓았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여 식민지민족해방전쟁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자위의 혁명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구현하시여 혁명무력건설의 원칙, 혁명전쟁의 군사전략전술적문제 등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으며 혁명군대안에 세워야 할 혁명적사상체계의 전형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혁명군대가 계승해야 할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를 마련하시였을뿐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을 간부군대로 강화하시고 모든 대원들을 주체사상과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고 유격전뿐아니라 대규모적인 현대전도 능숙히 지휘하며 정규부대를 훌륭히 관리할수 있는 유능한 군사정치간부로 키우시여 장차 창건할 정규적인 혁명무력의 튼튼한 골간을 준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한 15여성상에 걸친 항일무장투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불패의 강철의 대오로, 정치와 군사를 겸비한 간부군대로 단련육성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규적인 혁명무력을 제때에 창건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이미 마련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1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인민군대의 력사적뿌리는 가장 심오하고도 풍부하며 가장 억세고도 공고한 무력건설의 토대이다. 그것은 이 뿌리가 혁명의 영재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마련하시였고 그이의 불패의 자위적 군사사상과 군사리론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장 포악한 일본제국주의침략자를 반대하는 장기적이고 간고한 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루어진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억세고도 깊은 뿌리를 가지고있는것은 인민군대의 커다란 자랑이고 영광이며 그것은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으로, 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억센 뿌리를 토대로 하시여 해방후 지체없이 정규적혁명무력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우리 인민이 자기의 강력한 민족군대를 가지지 못하였던 탓으로 하여 나라잃은 쓰라린 설음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력사적 교훈과 해방후에 조성된 정세,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우리 혁명의 전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인민무력건설을 당면한 3대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수많은 애로와 난관들을 몸소 타개하시면서 인민군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무력건설의 튼튼한 준비를 갖추신 기초우에서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로서, 로동당이 령도하는 혁명무력으로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의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61~362페지)

인민군대는 항일유격대의 후계자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위업을 이어나가는 영광스러운 혁명무력이다.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당의 혁명위업의 실현을 무력으로 담보하는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이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

와 혈연적으로 련계된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다.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님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하며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하며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는 혁명군대이다.

조선인민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킬수 있는 강력한 정규군을 가진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인민으로 되였으며 우리 혁명은 자기의 강력한 혁명무력에 의하여 튼튼히 보위되고 힘있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2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군사리론을 창시하시여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육성강화하고 그의 빛나는 승리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위대한 군사사상과 군사리론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가 종국적으로 멸망하고 세계적규모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현시대의 객관적요구와 혁명전쟁과 현대전쟁의 모든 경험과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한 독창적인 군사 사상과 리론이다. 그것은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이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소멸하는 전기간에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군사사상전반을 관통하고있는것은 주체사상을 군사분야에 구현한 자위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방에서 자위라는 말은 글자그대로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한다는 말이며 군사분야에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이 구현된것입니다. 참된 혁명가들은 언제든지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혁명을 수행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야 하며 외래제국주의침략도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물리치고 자기를 보위하려는 자주적인 립장을 지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나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나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풀어나가야 하며 자주적립장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로동계급과 그의 당이 군사문제해결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이다.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만 군사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고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질수 있으며 군사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튼튼히 보장할수 있다.

자위사상은 전쟁승리에서 내부적요인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자위사상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군사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혁명무력을 건설하고 자체의 튼튼한 국방력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어떤 악랄한 침략책동도 결정적으로 때려부시고 자기 나라의 혁명을 튼튼히 보위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영원히 쓸어버리고 세계혁명발전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위사상을 구현하시여 혁명무력건설과 국방건설에서 그리고 현대전쟁과 혁명전쟁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자위적 군사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혁명무력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혁명무력인 인민군대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우리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보위하는 당의 군대인것만큼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당에 충실할수 없으며 자기의 기본사명을 다할수 없습니다.》

혁명무력건설에서 근본문제로 나서는것은 혁명군대를 당의 유일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였으며 수령님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그이께서 내놓으신 혁명위업의 철저한 수행을 무력으로 담보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무장력이다. 그리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인민군대렬의 철석같은 통일단결은 인민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따라서 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것은 인민군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확고부동한 근본원칙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유일하게 계승하며 군대에 대한 당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며 군대대렬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써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모든 군사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군인들의 정치적각성과 사상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여기에 군사기술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며 강철같은 자각적규률과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 등을 인민군건설의 중요원칙으로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와 함께 인민군대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각 군종, 병종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현대적정규무력으로 만들데 대한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 사상과 리론은 혁명군대를 철저히 당의 군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무력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상과 리론이며 혁명적무장력의 위력을 담보하는 제요소들을 통일적으로 갖춘 강력한 혁명무력을 건설할수 있게 하는 탁월한 사상과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위사상을 구현하시여 혁명무력건설원칙과 함께 자위적군사로선을 비롯하여 국방력을 철벽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방침들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방위력을 불패의것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군사로선에 따라 인민군대에서는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방침을 계속 관철하며 인민들은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 방침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73페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인민군대를 질적으로 강화하며 그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게 하는 현명한 로선이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의 기본내용을 이루는 전군간부화방침은 인민군대렬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끊임없이 단련시켜 모든 장병들을 한등급이상의 높은 지휘관의 임무를 맡아 수행할수 있게 준비시킴으로써 인민군대를 질적으로 강화하며 유사시에는 그들을 골간으로 하여 우리의 무력을 급속히 늘일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전군현대화방침은 현대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개선하고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의 독창적인 전법에 기초하여 진행하게 하며 군인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군사과학기술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위력을 실질적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만들뿐아니라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요새화하여 가장 위력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우게 하며 나라의 경제적위력도 강화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원쑤들의 무력침공도 자체의 힘으로 쳐부시고

나라를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게 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정규무력을 일당백으로 강화하고 그를 핵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을 조국방위에 동원하며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력량과 사람, 무기, 진지 등 군사력의 주요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다같이 강화하게 함으로써 가장 위력한 자위적방위력을 마련할수 있게 하는 현명한 로선이다. 이 로선은 현대전쟁과 혁명전쟁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반영하고있으며 사회주의조국방위조직의 가장 옳은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며 혁명전쟁의 전략적요구들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로선으로서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행정에 걸쳐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국방건설의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천명하신 자위적군사사상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탁월한 군사전략전술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치사상적우세와 그에 기초한 전략전술적우세로써 기술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승하는것을 혁명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요구로, 정규무력을 골간으로 하고 그에 민간무력을 옳게 배합하는것을 혁명전쟁에서 군사적력량을 편성하는 기본요구로 제시하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잘 할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투쟁형식과 방법을 옳게 배합하여 적을 타승할데 대한 탁월한 군사전략전술적방침을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전략전술적방침은 정치사상적우세에 기초한 전략전술적우세로써 기술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성과적으로 타승하는 기본방도를 밝혀주는 독창적인 방침이다. 이 방침은 자체의 투쟁수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적극적이고 령활하게 적을 사면팔방에서 끊임없이 족침으로써 제국주의침략자들의 기술적우세를 압도하고 놈들을 성과적으로 타승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밖에도 공격에서나 방어에서나 적을 포위하여 완전히 소멸하며 적을 련속적으로 타격하여 철저히 소멸하며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여주지 말데 대한 문제 등 모든 작전과 전투들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군사전략전술사상은 현대전쟁과 혁명전쟁이 제기하는 모든 중요한 군사전략전술적문제들에 가장 옳은 해답을 주며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자도 타승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이 사상은 현대전과 혁명전쟁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오늘도 앞으로도 보편적 의의를 가지게 되는 불멸의 사상이며 미제를 소멸하고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싸움에서 인민군대를 확고한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백전백승의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밖에도 국방력과 혁명무력강화에서 정치사상의식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사상,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관점과 태도를 비롯하여 군사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 사상과 리론은 주체사상과 철저한 반제혁명사상,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구현하고있는것으로서 제국주의가 종국적으로 멸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전세계적규모에서 승리하고있는 오늘의 혁명적폭풍우의 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군사문제들을 가장 옳게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지도적지침이며 군사분야에서 온갖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혁명적원칙을 고수할수 있게 하는 강력한 사상리론적

무기이다.

실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의 탁월한 군사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혁명무력건설의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시고 맑스-레닌주의군사 사상과 리론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으시였으며 그 보물고에 영생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3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현명한 령도로 인민군대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고 언제나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창건하신후 짧은 기간에 그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키우시였다. 이것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를 굳건히 수호하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미제침략자를 괴수로 하는 16개국 무력침공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을 반대하는 3년동안의 전쟁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싸움이였으며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에게 있어서 가장 엄혹한 시련이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 앞에 엄중한 위협이 닥쳐온 이 준엄한 시기에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를 원쑤격멸에로 하나와 같이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인민군대의 모든 승리를 직접 조직하시고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탁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매 시기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와 적의 전략적기도를 명철하게 분석판단하시고 전쟁의 매 계단마다 정확한 전략적 및 작전적 방침들을 제시하시여 인민군대를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기에 현대전쟁에서 정치도덕적요인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문제, 나라의 실정에 맞게 병종과 군종들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전쟁에서 정규전과 유격전을 결합시킬데 대한 문제 등 중요한 군사문제에 대한 새로운 리론적해명을 주시였으며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을 실증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적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한 즉시적인 반공격전과 련속적인 타격전, 적의 배후에서의 제2전선의 형성, 갱도전을 비롯한 여러가지 새로운 군사예술을 창조하시였다. 이리하여 인민군대로 하여금 항상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의 기술적우세를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할수 있게 하시였다. 정세발전에 대한 과학적인 예견성, 기도의 독창성과 기묘성,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전법의 창조, 기도관철에서의 견결성과 지휘의 령활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전략적지도는 인민군대를 언제나 확고한 승리에로 이끌었던것이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웅적조선인민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미제침략자들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패배를 안기고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가져왔다.

실로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독창적인 군사 사상과 리론, 창조적인 군사예술의 위대성과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였으며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조선 인민과 인민군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조선혁명완성을 위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키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군대에 대한 사업을 더 잘하고 인민군대를 정치, 군사 등 모든 면에서 강화하여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만드는것입니다.》

전후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화하는것은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긴절한 요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화함에 있어서 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대안의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며 당정치사업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이시였다.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정치사업을 강화해야만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고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인민군대를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군대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그것은 또한 당의 군사로선과 군사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군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강화하는 중요담보로 된다.

군대안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당정치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수령님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당위원회제도를 내오고 정치위원제를 실시한것이다. 수령님의 이 현명한 방침에 의하여 군대안에서 개인의 독단과 주관, 군벌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정치, 군사, 후방 등 모든 사업이 해당단위의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밑에 보다 원만히 수행되게 되였으며 인민군장병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그들을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 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데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대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군사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장병들을 자위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는 한편 전법을 연구하고 군사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를 개선하고 전투훈련을 강화하는 등 모든 군사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준비시키는 사업을 실속있게 하며 그의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한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할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강력한 국방공업을 창설하시고 군사대학을 비롯하여 각 군종, 병종 부문의 튼튼한 간부육성기지를 꾸며주시는 등 인민군대를 강화할수 있는 온갖 조건들을 다 마련해주시였으며 군대안의 크고작은 모든 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군인들을 넓은 한품에 안으시여 열렬한 혁명가로,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키워주시였으며 늘 군인들을 찾으시여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실로 인민군대의 강화발전과 군인들의 성장, 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깊은 배려와 뜨거운 사랑은 해빛보다도 더 은혜롭고 따사롭다. 탁월한 혁명사상과 령도력을 지니고계실뿐아니라 공산주의적덕성의 전형을 겸비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고있는 인민군대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군대이며 그이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있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

민군대는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믿음직하게 자라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이 훌륭히 관철된 결과 우리의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28페지)

지금 인민군대렬은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확고히 통일단결되여있으며 인민군장병들은 어떤 풍파속에서도 수령님과 당을 목숨으로 사수할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또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려는 혁명적각오와 견결한 혁명정신, 장병들사이의 혁명적단결,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와 같은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이 인민군대의 온 대오를 지배하고있다.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튼튼한 자립적인 국방공업에 토대하여 인민군대의 모든 군종, 병종 부대들은 위력한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장비되였으며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추고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며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고 현대적무기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 강력한 현대적인 자립경제와 국방공업, 전민무장과 요새화된 강토,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하고있는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

*　　　*

오늘 조성된 내외의 정세는 인민군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있으며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미일반동의 2중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은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을 떠벌이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들을 꾸며내여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며 범죄적인 전쟁준비에 혈안이 되고있다. 력사적경험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괴뢰들이 제놈들의 처지가 어려워질 때마다 《평화》의 간판을 들고나왔으며 이 기만적구호밑에 류혈적인 참극을 빚어내고 야만적인 살륙전쟁을 감행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는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나라이며 우리 인민은 평화를 열렬히 사랑하는 인민이다. 따라서 우리의 국방력은 방위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우리 인민은 누구를 다치려 하지 않지만 그 누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미제침략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 박정희괴뢰도당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한다.

조선인민군은 100만의 일제관동군과 싸워이긴 항일유격대의 후계자이며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를 타승한 영웅의 군대이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일당백의 혁명군대이다.

만약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 인민군대는 침략자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완전히 격멸소탕하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인민군장병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갈것이며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영예롭게 완수할것이다.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것은 3대기술혁명의 중요과업

오 태 호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3대기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서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일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 문제는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풀어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일데 대한 방침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떨쳐나서야 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고 기술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현시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것을 농촌기술혁명의 절박한 과업으로 규정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빛나게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매우 절박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농촌로력을 많이 절약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9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농업을 공업화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농업과 공업간의 로동조건에서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 문제이다.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생산에 현대적 기계기술과 농업과학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고 농업을 공업화함으로써만 농업생산과정이 비록 생물학적과정이라 하더라도 기계와 화학, 전기의 힘으로 생산을 진행하여 농민들의 힘든 일을 대신할수 있게 하며 농업로동을 헐한 로동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하여 농업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없애며 로동자들과 함께 농민들도 다 잘 살게 만들어야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536페지)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일뿐아니라 힘든 로동이 없어지고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가 없으며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이 다 잘 사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기술혁명을 다그쳐 생산력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며 특히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완수하고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킴으로써 낡은 사회의 유물인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매개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자마자 인차 없어지는것이 아니며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지고있는 착취사회의 유물로서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가 남아있게 되는 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매우 오래동안 정신로동과 육체로동, 중로동과 경로동, 직접부문로동과 간접부문로동 사이의 차이가 남아있게 되며 특히 뒤떨어진 생산력을 물려받은 나라들에서는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가 심하게 남아있게 됩니다.**》(《사회주의경제판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384폐지)

사회주의하에서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가 남아있게 되는것은 착취사회의 낡은 유물이며 그것은 특히 지난날 뒤떨어진 생산력을 물려받은데 있다.

지난날 뒤떨어진 농업국가들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계급들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로 말미암아 생산력의 발전 특히 기술의 발전은 극도로 억제당하였었다. 그리하여 농업생산은 거의 전적으로 등짐과 손로동에 의하여 진행되였다.

이와 함께 과학문화는 도시에 집중되고 농촌은 훨씬 뒤떨어져있었다.

이것은 결국 공업에 비한 농업의 기술장비수준에서와 도시주민에 비한 농촌 주민들의 기술문화수준에서의 락후성을 가져오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낳는 중요한 근원으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의 근원을 밝히시면서 사회주의하에서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가 남아있게 되는 것은 또한 공업의 발전수준과도 관련되여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론 이러한 락후성은 낡은 사회의 유물이며 사회주의하에서 그것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것은 공업 및 도시의 발전수준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5폐지)

낡은 사회의 유물인 도시에 비한 농촌의 사상, 문화 분야에서의 락후성과 함께 기술분야에서의 락후성은 사회주의하에서도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가 남아있게 되는 중요한 근원으로 된다. 그것은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 공업의 발전수준과 관련되여있다.

다아는바와 같이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오직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에 의해서만 축성될수 있다. 따라서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앨수 있을정도로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려면 나라의 공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창설해야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워놓아야 한다. 이와 같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으려면 일정한 력사적기간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와 같이 지난날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였고 락후한 식민지공업을 물려받은 나라들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하에서 농촌기술혁명이 농민들을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이지만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 문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이 실현된 다음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높은 새로운 단

계에서 전면적으로 제거되고 해결되여야할 순차적인 혁명과업이라는것을 말해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물질기술수단들을 원만히 생산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농촌기술혁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기본적으로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올라섰으며 농민들의 힘든 일을 많이 덜어주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나라 농촌이 너무나 뒤떨어져있었기때문에 아직도 농촌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도시보다 뒤떨어져있으며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사이에도 차이가 많다. 이것은 현시기 착취사회의 낡은 유물의 하나인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 문제가 성숙된 문제로,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게 되였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는데서 사상혁명과 함께 기술, 문화 혁명을 수행하여 농업을 공업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기술, 문화 혁명을 실현하여 농업을 공업화하여야 합니다. 농업을 공업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496페지)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는 농업이 공업보다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한데로부터 나오는 차이로서 그것은 도시주민들과 농촌주민들의 문화수준에서의 차이, 로동자와 농민의 사상의식수준에서의 차이와 함께 도시와 농촌의 차이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되고있다.

따라서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널리 벌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농업을 공업화함으로써만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고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자와 농민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기술을 발전시켜 공업로동과 농업로동과의 차이를 없애며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켜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만들어야 하는것과 함께 농민들의 뒤떨어진 사상을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으로 개조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61페지)

수령님께서 하신 이 교시는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한 길을 가장 정확히 밝혀주고있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켜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것과 함께 농민들의 사상을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을 발전시켜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는 문제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소유관계에서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는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규정하는 본질적차이며 그것은 공업에 비한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의 락후성에 있다. 따라서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 과정은 곧 소유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일데 대한 기술혁명과업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농민들을 하루빨리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을 공산주의사회에까지 이끌고갈데 대한 원대한 구상과 고매한 덕성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기 위한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이 수행된 다음에 제기되는 필수적인 혁명과업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때까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제기되지 못하였으며 제기할수도 없었다.

이 문제는 오직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서만 해명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일데 대한 기술혁명의 방침에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앞날을 예견하시고 무르익혀오신 원대한 구상과 우리 인민을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시려는 그이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고매한 덕성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실로 이 모든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일데 대한 방침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과학적으로 반영한 가장 과학적이며 현명한 방침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일데 대한 농촌기술혁명의 필연성을 심오히 밝히시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기 위하여 무엇보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있는 농기계들을 보다 효과있게 리용하며 여러가지 현대적농기계들 특히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 맞는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널리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50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은 농촌경리의 기계화에서 이룩된 성과와 사회주의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된 현실적요구를 반영하고있는 가장 과학적인 방도로 된다.

농업생산의 종합적기계화는 농업생산의 모든 공정을 현대적기계기술에 의하여 진행하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농사에서 농민들의 손로동을 없애고 모든 농사일을 기계로 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게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역할을 높여 농촌경리에 이미 나가있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을 보다 효과있게 리용하며 농촌에 더 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생산공급하는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농촌경리에서 기계화의 수준을 높이고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종합적기계화를 더 빨리 촉진할수 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또한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는 능률적인 여러가지 현대적농기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여 농촌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농업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데 기초하여 농업로동의 생산능률을 계속 높일수 있으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빠른 속도로 줄여나갈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널리 실시하기 위하여 관수체계가 실시되는 2모작밭들과 벼직파를 하는 논들에서 먼저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며 점차 그 성과를 확대하여 가까운 앞날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을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빨리 실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있으면서 알곡증수의 중요한 예비로 되는 지대부터 먼저 시작하여 종합적기계화를 점차 모든 지대에로 확대하여나가는것은 종합적기계화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고리로 된다. 특히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다그치는데서 중간지대에 힘을 넣는것이 중요하다. 중간지대의 기계화에 힘을 넣어야만 알곡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으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의 기계화수준과 토지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전면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토지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농촌경리의 전면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과업은 토지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0페지)

토지정리사업을 잘하는것은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높이고 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또한 그것은 농촌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털어버리고 국토의 면모를 사회주의적으로 일신하기 위한 보람차고 영예로운 하나의 대자연개조사업이다.

토지정리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 포전들을 크고 규모있게 만들며 비탈진 밭들을 다락밭으로 만들어 논밭에 기계가 들어가서 능률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기 위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널리 실시하는것과 함께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에서 기계의 힘만으로는 사람의 로동을 다 대신할수 없으며 따라서 기계로 할수 없는 농사일은 화학의 힘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촌경리의 화학화는 농민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고 적은 로력으로 농업생산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기계화의 제한성을 극복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또한 전면적인 화학화의 실시는 농업생산의 특성과 현대적농업과학의 추세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농민들을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기계로 할수 없는 농사일들에 화학적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 가장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의 하나는 김매는 일이다. 그러므로 효능이 높은 여러가지 살초제를 널리 리용하여 화학적방법으로 김을 없애야 한다. 이것은 오늘 농민들의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을 없애며 그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일데 대한 기술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면 가까운 앞날에 정보당 투하되는 로력을 논에서는 60~80공수, 밭에서는 20~30공수로 낮추어 한사람이 논은 5~6정보, 밭은 8~10정보이상 다루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협동농장들에서도 공장, 기업소들에서와 같이 점차 8시간로동제를 실시하게 되며 로동조건에서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훨씬 줄어들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 보고와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일데 대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촌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날로 심화발전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

남 기 홍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오늘 남조선의 더욱더 광범한 인민대중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그들의 자유와 해방,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들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가슴불태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원쑤들의 파쑈폭압을 무릅쓰고 반미, 반괴뢰 투쟁을 세차게 벌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놈들을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남조선혁명승리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수령님께서 밝히신 독창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 사회적진보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으며 승리의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다.

수령님의 전략전술적방침이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창조적태도로 일관되여있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사상리론적기초이며 혁명실천에서 그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검증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걸어온 전행정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혁명도상에 가로놓인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 자랑찬 로정이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하였기때문에 조선혁명을 가장 빠른 길로 전진시킬수 있었으며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오늘 원쑤들의 파쑈적폭압밑에서 영용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있어서 혁명승리의 곧바른 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사상적기치로 되고있다.

남조선혁명은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진행되는 전조선혁명의 유기적구성부분이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구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따라서 남조선혁명운동은 오직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전략전술적방침에 의해 지도될 때만이 승리할수 있고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도 이룩될수 있다.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또한 남조선인민들이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태도,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투쟁 방도와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남조

선혁명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모든 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억압받고 착취받는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혁명투쟁에 의하여서만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 자체가 주동이 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91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에는 주체사상의 본질적요구가 구현되여있으며 혁명승리의 일반적합법칙성을 나라가 분렬된 조건과 미제강점하의 남조선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독창적인 사상이 천명되여 있다.

주체사상은 억압받고 착취받는 인민대중이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힘으로 부단히 혁명해나가는 가장 견결한 실천투쟁의 길을 가리켜준다. 사회혁명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사회내부의 혁명력량이다. 남조선혁명의 직접적담당자는 남조선인민들이며 그 승리는 남조선인민들의 결정적투쟁에 의해서만 달성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설 때만이 외세의존과 숭미사대주의사상, 《반공》사상 등 온갖 반동적사상구속에서 벗어나 당의 유일사상과 높은 계급의식으로 무장하고 그들자신이 주체가 되여 혁명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는것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만이 남조선혁명의 완성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담보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다.

지난 기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남조선혁명운동은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인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게 되면서 비로소 자기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할수 있게 되였으며 과학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구현하는 영광찬 길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20여년간의 간고한 투쟁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과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지도사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진리를 깊이 체득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오늘 남반부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그 기발아래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굳게 결속시키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조선혁명의 유일한 령도자,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로 우러러보면서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원수님은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남조선혁명의 휘황한 등대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주체사상은 과학이며 우리의 세계관이고 필승의 홰불이다.》라고 하면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살며 싸우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에 휩싸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거대한 견인력, 수령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충성심, 이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원쑤들의 파쑈폭압을 무릅쓰고 반미구국투쟁에 떨쳐나서게 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다.

* *

오늘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반미구국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더욱 각성되고 조직화되여가고있으며 투쟁은 승리의 한길로 상승발전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군인, 중소상인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고있으며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 및 비합법 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배합하면서 더욱더 대중적성격을 띠고 고조되여가고있다.

오늘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는것은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투쟁대오를 굳게 결속하고 끊임없이 확대하면서 비합법지하투쟁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혁명가들은 통일혁명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그 두리에 애국적인민들을 굳게 묶어세우며 지하와 산속에서, 감옥과 교수대에서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88페지)

남조선에서 통일혁명당의 결성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수령님의 전략전술적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남조선혁명가들의 간고한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며 획기적사변이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그를 조직하고 지도하는 혁명의 참모부이며 선봉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가져야만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이 창건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은 혁명투쟁의 믿음직한 정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원쑤들의 발악적공세를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혁명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핵심적골간부대를 가지게 되였다.

오늘 통일혁명당조직들은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정을 심어주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해석선전하여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으며 검열되고 단련된 선진분자들로 당대렬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있다. 통일혁명당의 지도밑에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를 비롯한 여러가지 비밀소조에 망라되여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있다. 그들은 일터와 가정, 먼바다와 깊은 산속에서 수령님의 로작과 전기를 탐독하며 그이의 연설을 록음하여 깊이 연구하고 있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또한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며 강력한 대중적혁명력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형태의 대중단체를 건설하고 그를 통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조직정치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고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무기획득, 군수시설의 파괴, 미제침략군과 악질주구들의 처단 등 과감한 무장활동을 옳게 배합하면서 지하혁명투쟁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전개하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피어린 지하혁명투쟁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우수한 공산주의적지도핵심들이 끊임없이 자라나고있으며 혁명의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꾸며져가고있다.

이것은 혁명의 주력군을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할데 대한 혁명준비기의 전략적기본과업이 해결되여가고있으며 혁명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사업이 실속있게 진척되고있다는것을 증시해주고있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의 지하혁명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반제,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투쟁이 더욱 확대발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89~90페지)

반파쑈민주화투쟁을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남조선혁명운동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강화함으로써만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혁명력량을 빨리 장성시킬수 있으며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촉진할수 있다.

오늘 안팎으로 곤경에 빠지고 내리막길을 걷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제놈들의 파멸의 운명을 모면하려고 필사적으로 파쑈폭압에 매달리고있다. 남조선에서 파쑈독재를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도, 나라의 통일도 이룩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당면과업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생활령역에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전취하는것이다. 실천적생활체험을 통하여 더욱 각성된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은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더는 감수하지 않으려는 단호한 각오밑에 놈들을 반대하여 과감히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최근시기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특징적인것은 혁명의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소자산계급 등 광범한 계층들의 투쟁이 폭동적성격을 띠고 대중적규모로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는것이다.

남조선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초보적인 집계에 의하더라도 409건의 투쟁을 벌렸다. 이것은 1970년 년간투쟁건수에 비해서도 1.3배이상 장성한것으로 된다. 서울 《한진상사》로동자들의 집단적폭동, 영등포구 녀성로동자들과 《신진자동차부평공장》로동자들의 대중적인 롱성, 파업투쟁, 남조선전역의 6개 산별부문 로동자 5만 4천여명과 서울시내 운수부문 로동자 2만 1천여명의 투쟁 등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로동자들과 함께 농민들의 폭력적진출도 강화되였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남조선농민들의 투쟁은 320여건에 달한다. 광주군내 5만여명 농민들과 주민들의 대규모 폭동을 비롯하여 남조선 이르는곳마다에서 농민들은 땅을 요구하며 관개시설개선과 토지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요구와 생활상요구를 결합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경제군사화책동으로 인한 재난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군사화책동으로 인하여 시시각각으로 몰락을 강요당하고있는 남조선의 소자산계층도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기세에 맞추어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이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그 규모와 형태, 성격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있으며 지난 시기에 비해 한계단 더 높이 발전하고 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은 오직 자신의 결정적투쟁으로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확고한 결의와 그들의 의식화, 조직화과정을 반영하고있다.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거하여 대중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투쟁대오에 끌어들이면서 혁명운동의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마련할수 있게 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주목되는 새로운 추세의 하나는 그 조직성과 련대성, 완강성과 적극성이 보다 강화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포악한 원쑤들과는 오직 조직된 힘으로 맞서야만 승리할수 있다.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은 자신의 투쟁조직을 가질 때만이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될수 있으며 군중의 조직된 력량만이 반혁명을 성과적으로 타승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과정에서 자신의 단합된 힘의 위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였으며 조직적결속의 필요성과 의의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민주주의적인 로동조합과 각종 친목단체를 내오고 개별적 기업체에 국한되였던 투쟁조직을 부문별 또는 지역적으로 확대하여 《파업위원회》, 《투쟁위원회》를 뭇고 공동투쟁을 완강히 벌리고있다. 농민들의 투쟁도 지역간의 공동투쟁에로 그 규모와 련대성이 더욱 확대강화되고있다.

그리하여 투쟁을 통하여 기본군중을 단련하고 조직적으로 결속할데 대한 혁명적전략전술의 기본요구가 옳게 실현되여가고있다.

특히 지난해에 남조선의 광범한 민주세력은 《민주수호국민협의회》와 같은 통일전선조직을 형성하고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더불어 학원의 군사화와 파쑈화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더욱 앙양되고있다.

지난해 괴뢰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발단된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협잡 《선거》를 반대하고 《4.27선거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대중적인 애국항쟁으로 발전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것은 학원의 군사화와 부정《선거》자체에 대한 항거일뿐아니라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의 산물인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인 반파쑈민주화투쟁이였다.

최근시기 청년학생들은 《부정부패자의 처단》, 《처벌된 학생의 구제》, 《교련수강서약의 무효화》 등의 구호밑에 정의의 애국투쟁을 거세차게 벌림으로써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더욱 혼란속에 몰아넣고있다.

청년학생들은 각종 합법 및 비합법 단체와 조직을 뭇고 투쟁의 통일성과 조직성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그들은 학교내 투쟁조직뿐만아니라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련맹》, 《민주수호투쟁위원회》 등 전남조선적인 학생투쟁조직을 내오고 그에 의거하여 변천되는 정세에 맞게 새로운 구호를 제기하면서 투쟁을 점차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있다. 투쟁과정에서 청년학생들과 로동자, 농민들과의 련대성이 강화되고 언론계,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각계층 군중들과의 전투적련대성도 더욱 긴밀하여졌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통일적인 중앙집권적청년학생조직이 발족되여가고있으며 학생운동이 점차 단순한 민주주의운동의 범위를 벗어나 강력한 혁명운동으로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청년운동은 오직 로동자, 농민의 투쟁과 결합되여야만 참다운 혁명운동으로 될수 있으며 커다란 힘을 발휘할수 있다. 청년학생들의 민주주의운동이 로동자, 농민의 정치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그것이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에 복무하는 혁명운동으로 될수 있고 로동자, 농민의 투쟁도 빨리 발전할수 있다.

오늘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군사파쑈폭압을 반대하는 투쟁에 견결히 나섬으로써 놈들의 식민지통치를 혼란시키고 남조선혁명운동을 발전시키는 교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이것은 정치적자유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민주주의운동이 현시기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에 돌파구를 열어놓는 실제적력량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새로운 추세는 반미, 반일, 반박정희 감정이 더욱 높아가고 투쟁의 화살이 직접 미제침략자들에게 돌려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타도하여야만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수 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략기도를 분쇄하여야만 새로운 재난의 위험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0페지)

오늘 전례없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는 미제는 더욱 악랄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남조선에서 식민지지배와 전쟁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민족경제는 여지없이 파탄되고 인민들의 사회경제적처지는 극도로 악화되였다.

미제는 또한 막다른 골목에서의 출로를 찾으려고 발광하면서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남조선괴뢰도당에게 무장을 대주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내몰아 남조선에 대한 재침략을 적극 부추기고있다.

미제에 의하여 재생재무장된 일본군국주의는 대단히 팽창되였으며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제놈들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망상밑에 이미 남조선에 공공연히 기여들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남조선을 팽창된 일본독점자본의 시장으로 만들고 군사적침투를 본격화하고있다.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와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분쇄하지 않고는 남조선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없고 새로운 재난을 면할수 없다.

투쟁의 매 걸음마다에서 미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침략적본성과 교활성,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의 위협성을 깊이 자각한 남조선인민들은 오늘 놈들에게 투쟁의 예봉을 더욱 집중하는데로 나가고있다. 파주와 평택, 양주, 철곡, 부평 등지의 주민들과 미제침략군기관에 고용된 남조선로동자들이 놈들의 폭행과 민족적멸시,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한 대중적반미투쟁, 일본군국주의두목의 남조선행각을 계기로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과 사회단체들이 벌린 강력한 반일투쟁과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에 있는 일제의 《위령탑》을 까부시는 투쟁, 부산과 마산, 울산에서 일본독점자본의 침투를 반대하는 투쟁, 인천지구 괴뢰공군병사들의 폭동 등 남조선도처에서 적극적인 반미, 반일, 반괴뢰 투쟁이 련속 일어나고있다.

이러한 투쟁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드높은 반미기세와 투쟁의 반미적성격을 반영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에게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하여온 일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저주와 울분이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혔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충실한 2중주구로서 온갖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고있는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준엄한 단죄이며 항거인것이다.

남조선에서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는 반미, 반괴뢰 투쟁의 불길은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각성이 비상히 높아지고 그들의 투쟁이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혁명투쟁으로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미제와 박정희반역도당의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가고있는것이다.

조국의 평화적통일은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선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시종일관 투쟁하여왔으며 지난해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는 또다시 8개 항목의 평화통일방안을 채택하고 세상에 공포하였다. 우리 당의 평화통일방안은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로 남조선인민들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한 8개 항목의 평화통일방안이 나간후 남조선에서는 커다란 반향이 일어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평화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그 거세찬 조류는 남조선의 더욱 광범한 사회계층과 각 당, 각파의 정치세력들에까지 번져가고 지어는 야당과 괴뢰지배층내에서도 평화통일이란 말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특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과 올해 신년사 그리고 일본기자들과의 담화에서 몰락하여가는 미제의 처지와 그로부터 출로를 찾기 위한 놈

들의 교활한 책동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그에 대처할 혁명적인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크게 고무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게 하시였다.

남조선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각계각층 인민들로부터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에게 더욱더 커다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각 방면의 압력에 못이겨 박정희괴뢰도당은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회담에 끌려나오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오늘 남북의 협상과 교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일단 시작한 남북적십자단체간의 회담을 그만둘래야 그만둘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다.

남조선에서 날로 앙양되고있는 반미구국투쟁과 조국통일기운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였으며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지반을 크게 뒤흔들어놓고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인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 국내외적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에 부딪치고있다. 미제는 그 지배층내부에서의 심각한 모순과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전, 반정부 운동에 부딪치고있을뿐아니라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얻어맞고 병신이 되여 내리막길을 걷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에 의거하여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전쟁 정책은 놈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미제를 등에 업고 해외침략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날뛰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도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어가고있다. 대미추종정책에 매달리고있는 일본군국주의두목 사또일파는 정치적혼란에 빠져있으며 자국내 민주세력과 세계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배격당하고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위기와 남조선에서 날로 앙양되고있는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에 의하여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심한 곤경에 빠지고 놈들의 식민지군사파쑈독재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총칼의 비호밑에 여명을 부지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은 안팎으로 고립당하고 국제고아로 비림받고있으며 《대통령》감투는 끈 떨어진 갓신세가 되여가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협잡《선거》로 괴뢰대통령의 《3선당선》을 날조하고 파쑈폭압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나 그것으로는 제놈들의 허물어져가는 지반을 수습할수 없게 되였다.

사태발전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막다른 곤경에 처해있으며 그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써도 더는 유지하기 어렵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반공》과쑈체제를 강화하며 인민들의 혁명적진출과 조국통일지향을 억누르기 위하여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라는 구실밑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죄적인 전쟁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원쑤들의 이러한 발악적책동은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이 앙양되고 제놈들이 더욱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다는것을 반증해주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전쟁책동과 파쑈폭압을 강화할수록 그것은 놈들을 국제국내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그 멸망을 촉진할뿐이다.

투쟁의 불길속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더욱 각성단련될것이며 마침내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야말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백전백승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줄기차게 싸워나가는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쓸어버리고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에 안겨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김 관 섭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살며 싸워나가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은 없다. 우리 인민은 전세계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 인민들이 한결같이 우러러받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살며 혁명하는것으로 하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고있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및 세계혁명발전에 기여하고계시는 위대한 공헌으로 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서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신다.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흠모하면서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하는 우리 인민을 몹시 부러워하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련일 축전과 편지를 보내오고있을뿐아니라 대륙과 대양을 건너 매일과 같이 우리 나라에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으며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고있다.

*　　　　*

국제로동계급과 피압박근로대중들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은 천재적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을 가지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가장 정확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며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아간다.

지난 기간 국제로동계급이 혁명투쟁에서 달성한 력사적인 승리는 그 모두가 위대한 수령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며 그것은 그들의 이름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여있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쌓아올린 공헌과 업적으로 하여 한 나라 인민들뿐아니라 국제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추대되게 되며 그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인도하시고 세계혁명발전에 기여하신 거대한 공헌과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높은 존경과 두터운 신뢰를 받고계신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시대가 낳은 가장 위대한 수령》으로, 《탁월한 사상리론가》로, 《혁명의 위대한 전략가》로 우러러 모시면서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아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가장 고귀한 감정으로 되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지니신 권위와 신임은 가장 높은것으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날이 갈수록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고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지향과 열

의는 지금 하나의 시대적조류로 되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위원회》들을 조직하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연구하고있으며 《김일성동지로작번역위원회》, 《김일성동지로작출판위원회》들을 내오고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대대적으로 번역출판하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출판물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천재적로작들을 대서특필하여 소개선전하고있다.

이와 함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과 《김일성도서관》을 꾸리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대한 연구발표모임, 연구토론회들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고있다.

오늘 세계의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끓어넘치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으로 수령님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의 한 사회활동가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가 낳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사랑받는 수령이시라고 나는 조금도 주저없이 말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적인 분이시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은 그이의 말씀에서 배우고있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아프리카의 한 벗은 시 《김일성! 그이는 붉은 태양》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위대하도다, 여기 조선에서 솟아오른 빛나는 태양
그 붉은 태양은 위대하신 그이 김일성!
그 빛발 온 세상 압박받는 사람들에게 비쳐가고
사람들은 김일성사상을 가슴마다에 간직하여라
불타는 태양이 어찌 조선만을 비친다 하랴,
휘황한 그 빛발 어찌 조선만을 위함이라 하랴,
그 태양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세아
피압박인민들의 붉은 등대여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세계피압박인민들의 《붉은 태양》으로 소리높이 노래하면서 그이께 끝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는것은 응당한것이며 필연적인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한몸에 체현하고계시며 그들에게 투쟁과 승리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고계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다. 천재적인 지략과 예리한 통찰력, 비범한 령도력과 높은 덕성을 겸비하고계시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세계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인도하고계심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뿐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높이 추대되고계신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근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혁명투쟁력사는 로동계급의 가장 위대한 수령만이 이룩할수 있는 빛나는 공헌과 혁명적업적으로 가득찬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 세계혁명발전에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온것입니다.》(《조선

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 보고》, 111폐지)

세계혁명운동의 규모가 종전과는 비할바 없이 확대되고 그것이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각이한 발전단계에 처하여있으며 혁명투쟁이 민족국가들을 단위로 하여 다양하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의 력사적조건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 창시하신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운동에서 제기되고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옳게 풀어나갈수 있는 투쟁의 무기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신 영생불멸의 공헌으로 하여 전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위대한 사상리론가로, 영명한 혁명의 수령으로 무한한 존경을 받고계신다.

오늘 주체사상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심장속에 더욱 널리 파급되고있으며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칭송하면서 그이의 주체사상을 《현시대 인류사상발전의 최고봉을 이루는 사상》,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높이 평가하고있다. 그들은 《우리 시대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는것은 바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사상인 주체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사상은 혁명의 확고한 승리를 담보하는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이다.》라고 말하면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하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서 무한한 고무를 받은 아프리카의 한 국가활동가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우리 아프리카혁명가들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나는 그이의 사상을 우리 대륙에 더욱 꽃피게 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일하겠다. 우리는 조선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미래를 보고있다. 조선은 우리의 교과서이다.》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있으며 그들의 한결같은 공감과 지지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나라를 《주체의 조국》으로 빛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위대한 승리와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심으로써 실천적 경험과 모범으로 세계혁명적인민들을 경탄케 하고계시며 그들의 높은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심으로써 반만년의 우리 나라 력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어린시절부터 혁명투쟁의 길에 다서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15성상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강도 일제를 타승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심으로써 절세의 애국자로, 민족적영웅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으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때려눕힘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고수하시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고 세계적범위에서의 반제반미투쟁에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실로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공적은 세계의 혁명전쟁력사에서 찬란히 빛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반제투쟁의 상징》으로 우러러보면서 그이께서 령도하신 우리 인민의 반제반미투쟁의 승리에서 자기들의 승리를 내다보고있다.

외국의 한 벗은 《김일성수상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은 첫째로는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달성한것으로 하여, 둘째로는 미제에게 처음으로 심대한 군사적패배를 준것으로 하여 2중의 영웅적인 나라이다.》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반드시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야말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특히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세기적인 변혁에 무한히 감탄하면서 조선에서의 이와 같은 눈부신 성과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심으로써만 이룩될수 있었다고 한결같이 강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멀리 달려나아갔으며 륭성발전하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7페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오늘처럼 륭성과 번영의 시대가 펼쳐지고 세인을 놀라게 하는 기적을 창조하여 우리 민족의 영예와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우리 인민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심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온 세상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천리마조선》,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제도를 가진 그리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인 국방력,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에서 사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전체 조선인민은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이끌어주고계시는 수령님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 땅우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못하면서 높이 찬양하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워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무한히 동경하면서 사회주의의 진면모를 보기 위해서는 조선에 찾아가야 한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조선을 방문하는것은 세계의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의 절실한 념원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나라를 찾아온 수많은 외국의 벗들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한 우리 인민의 성과를 축하하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의 한 벗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어린시절에 〈성경〉에서 〈천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동경하였었다. 그러나 그 〈천당〉이란 말뿐이지 실지 보지도 못하였으며 또 거기에 가본 사람도 없다. 그런데 나는 오늘 천리마조선땅에서 이전에 내가 그처럼 동경하던 그 〈천당〉을 보는것 같다.

조선의 사회제도는 얼마나 좋은가!

나는 모든 세상사람들에게 말하고싶다. 조선에서와 같은 이런 좋은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님의 령도는 세계에서 모범으로 되며 그이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외국의 벗들이 한결같이 말하는것처럼 우리 나라에서의 력사적인 변혁과 기적적인 성과들은 위대한 혁명사상과 과학적인 령도예술, 고매한 덕성을 다 체현하고계시는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군중관점에 철저히 서시여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빛나게 구현하시였으며 공산주의적 덕성과 풍모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민대중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서 배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또한 인민대중의 요구와 희망을 제때에 알고 그를 해결하며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하여야 합니다.》(《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20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을 혁명승리에로 빛나게 조직령도하고계신다. 수령님의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나날들은 진정한 인민의 수령만이 겸비하고계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인 복무, 무한히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며 겸손하시고 소박하신 고매한 덕성과 위대한 공산주의자의 풍모로 수놓아져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이실뿐아니라 인민들에게 투쟁의 길을 가르쳐주시는 스승이시며 인민들을 넓으신 한품에 안으시여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예술과 높으신 덕성에 무한히 감탄하면서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금치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번만이라도 만나뵈온 외국의 벗들은 그이를 우러러 《그 덕성만 보아도 세계지도자들의 모범으로 되는 위대한 수령》이시며 《위대한 공산주의자, 위대한 혁명가, 탁월한 혁명의 수령만이 가질수 있는 품성을 지니신 분》이시라고 감격하여 말하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의 한 벗은 《김일성동지는 아주 현명하신 분이시며 항상 군중속에 계시며 검박하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이께서는 매사람의 심장을 틀어쥐시며 그이앞에서는 그 누구도 생각한바대로 말하지 않고서는 못견디게 된다. 이런 고귀한 품성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다 있을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김일성수상님께서만 찾을수 있는것이다.》라고 하면서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였다. 외국의 한 기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받은 인상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피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기자로서 김일성수상동지에 대해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며 그저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얼마나 너그러우신가〉 하는 말로밖에 표현할 능력이 없다. 오직 나의 심장만이 수상동지의 풍모를 표현할수 있으나 심장의 펜대를 움직이지 못하는것이 유감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처럼 외국의 벗들로부터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는것은 바로 그이께서 공산주의적덕성의 가장 빛나는 모범을 보이고계시며 그이의 높으신 덕성이 공산주의자들,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투쟁과 생활의 위대한 귀감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무한히 귀중히 여기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인도하고계실뿐아니라 국제혁명운동에서 제기되고있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과학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높은 존경과 두터운 신뢰를 받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변천되는 복잡한 국제정세를 제때에 옳게 평가하고 옳바른 대외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국제관계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여놓았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95페지)

혁명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오늘 우리 시대의 세계혁명앞에 제기되고있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과 전략전술적원칙들 그리고 구체적인 투쟁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영명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나라들 및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 원칙과 방도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의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키기 위한 반제반미투쟁전략과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모든 원칙적문제들과 구체적방침들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근본리익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혁명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세계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그들의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제반미투쟁전략에 대하여 《현시대의 가장 정당한 투쟁전략》, 《전세계인민들의 투쟁강령》이라고 높이 평가하고있다. 그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반제반미투쟁전략은 현시대의 반제반미투쟁의 등대로 되고있으며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에게 구체적인 투쟁방도를 제시하여준 우리 시대의 가장 천재적이며 리론실천적인 투쟁전략으로 되고있다.》고 말하면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지침으로 힘차게 싸워나아가고있다.

이렇듯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오늘 찬연한 빛을 뿌리면서 세계의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속에서 널리 파급되고있으며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기여하신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권위와 그이에 대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두터운 신임은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확고한것으로 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끓어넘치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오늘 세계의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속깊이 간직하고있는 확고한 신조로 되고있으며 그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고무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이 그처럼 열렬히 흠모하고 존경하여마지않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직접 모시고 혁명하는 인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으신 덕성을 더 깊이 연구하고 널리 선전함으로써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세계의 더욱 넓은 지역에서 찬란히 꽃피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 제2호 (루계 359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2년 2월 1일 발행 • 1972년 2월 5일

ㄱ—2411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3 호

평 양 근로자사 1972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3 호(360)

차 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반제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고계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투쟁력사는 우리 나라에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시대를 열어놓은 영광찬란한 투쟁력사인 동시에 국제로동계급과 전세계피압박인민들의 혁명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혁명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제국주의에 관한 과학적인 리론을 창시하시고 탁월한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제시하심으로써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며 그들을 위대한 승리에로 고무하여주고계신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반제투쟁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행정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은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풍부히 하며 반제반미투쟁에 떨쳐나선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재부로 된다.

실로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철저한 반제혁명사상과 과학적인 반제투쟁전략을 내놓으시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을 빛나는 승리에로 고무하시는 위대한 반제투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시대의 반제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등대로 우러러보면서 그이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이 한결같이 우러러 받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직접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제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워나아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자랑과 영예는 끝이 없다.

오늘 우리 인민은 민족최대의 경사인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면서 반제투쟁과 세계혁명 위업에서 이룩하신 그이의 위대한 업적들을 무한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게 돌이켜보고있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제혁명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세계혁명적인민들과 더욱 굳게 단결하여 싸워나아감으로써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더 빨리 이룩하려는 확고한 결의에 넘쳐있다.

1

선행한 고전가들이 제국주의에 관한 리론을 기초지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력사적행정에서 제국주의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현대제국주의를 정확히 평가하고 분석하는것은 반제투쟁과 세계혁명발전에서 리론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발전행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제국주의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제국주의의 력사적지위를 새롭게 해명하시고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으며 현대제국주의의 침략정책에서 나타나고있는 새로운 특징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현대제국주의에 관한 리론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됨으로써 우리 시대에 와서 제국

주의가 어떤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것이 어떻게 멸망해가고있는가 하는것이 과학리론적으로 완전히 해명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제국주의의 력사적지위를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는 멸망하고있으며 무너져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89페지)

《미제국주의는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여있다.》(《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22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현대제국주의가 바로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망하여가는 력사적인 단계에 놓여있다는것, 그 종국적멸망이 일정에 오른 제국주의이라는것을 똑똑히 가르쳐주고있다.

현대제국주의의 력사적지위에 대한 수령님의 과학적인 규정은 우리 시대의 제국주의발전의 실천적행정에서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우리 시대에 와서 제국주의세력은 급속히 쇠퇴몰락하여가고있으며 세계혁명력량은 전례없이 장성강화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으로 말미암아 세계제국주의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였으며 놈들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 대한 지난날의 지배권을 잃어버렸다.

사회주의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체계로 전변되고 지구상의 모든 피착취인민들과 피압박민족들이 해방투쟁에 떨쳐나섬으로써 세계의 력량관계는 제국주의에는 극히 불리하게, 사회주의와 혁명의 편에는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운동, 로동운동과 평화애호운동등 세계의 광범한 혁명력량들이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고있다.

특히 오늘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인 민족해방투쟁은 세계제국주의의 마지막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되고있으며 이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어가고있다.

수세기동안 제국주의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략탈당하여온 수억만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저주로운 식민지멍에를 벗어던지고 거연히 일떠서 새로운 력사무대의 주인공으로 되였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낡은 제도를 짓부시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위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고있다.

세계인구의 3분의 2이상과 지구 륙지면적의 71%를 차지하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은 세계자본주의체계의 전반적위기를 격화시키고 제국주의에 가장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있다. 민족해방운동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식민지노예의 철쇄는 이르는곳마다에서 끊어져가고있으며 인류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제국주의식민지체계는 밑뿌리채 붕괴되여가고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제더는 《안전한 후방》도, 《고요한 뒤동산》도 존재하지 않게 되였으며 제국주의의 마지막숨통은 끊어져가고있다.

실로 민족해방운동이 국제무대에서 오늘처럼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된 때는 일찌기 없었으며 세계혁명력량이 오늘처럼 강력한 힘으로 제국주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때는 일찌기 없었다.

오늘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쇠퇴몰락은 현대제국주의가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멸망해가고있다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얻어맞고있으며 안팎으로 곤경에 빠지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97페지)

조선침략전쟁에서 참혹한 군사정치적패배를 당하여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전쟁에서 입은 상처도

아물리지 못한채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련속 얻어맞아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다.

미제가 조선침략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인도지나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또다시 심대한 패배를 당하고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현대제국주의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더욱더 죽어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국내에서 심각한 정치경제군사적위기를 겪고있다.

미제의 지배층내부에서 모순이 날로 심화되고있으며 미국인민들의 반정부기세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다. 특히 미국내에서 인민들의 반전운동이 대중적으로 앙양되고 미제침략군병사들속에서 염전사상이 점점 높아가고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의 사회적불안은 더욱 심각한것으로 되고있다.

경제의 침체와 통화팽창은 지속되고있으며 국제수지는 끊임없이 악화되고있다. 딸라의 가치가 떨어져 오늘에 와서 그것은 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있으며 한갖 종이쪼박으로 되여버렸다. 실로 미제국주의자들이 그처럼 믿어온 딸라의 시세가 오늘과 같이 땅바닥에 떨어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따라서 지난날 딸라의 힘을 믿고 자본주의세계에서 우쭐거려온 미제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심각한 딸라위기에 봉착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돈을 주고 매수하는 방법으로 많은 나라들을 제놈들에게 예속시켜오던 신식민주의정책도 끝장나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날로 심화되고있는 딸라위기를 막아보려고 이른바 《신경제정책》이라는것을 들고나왔으나 그것으로써도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오히려 저들 내부와 자본주의세계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을뿐이다.

미제는 침략무력을 세계 여러곳에 널어놓음으로써 군사전략상 약점을 면할수 없으며 저들이 감행하고있는 전쟁의 침략적이며 반인민적인 성격으로 하여 본질적취약성을 가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대외침략정책에서 막다른 골목에 이른 제놈들의 처지를 건져내보려고 악명높은 《닉슨주의》를 악랄하게 추구하고있으나 사또와 같은 우둔한자들을 내놓고는 그 누구도 반아물지 않고 있다.

모든 사실은 지난날 핵공갈과 딸라의 힘으로 남을 억누르고 략탈하던 미제의 힘이 이제는 현저히 약해졌으며 멸망의 내리막길로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미제의 쇠퇴몰락과정은 곧 미제에 의하여 지탱되고있는 자본주의세계의 붕괴와 멸망 과정을 의미하는것이다.

오늘 제국주의렬강들간에 날로 첨예화되고있는 모순은 현대제국주의가 멸망하고있는 또하나의 명백한 징조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세계내부에서 정치, 경제적위기는 날을 따라 더욱 심화되고있으며 시장과 세력권을 빼앗기 위한 싸움에서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은 더욱 날카로와지고있습니다.》(《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3페지)

사회주의나라들이 끊임없이 장성발전하고 신생독립국가들이 자주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세계제국주의의 시장과 세력권은 현저히 축소되였다. 자본주의발전의 불균등적법칙의 작용으로 인하여 제국주의세계내부에서의 세력관계도 부단히 변화되여가고있다. 이로부터 시장과 세력권을 빼앗기 위한 제국주의세계내부의 모순과 대립은 필연적인것이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날카로와지고있다.

제국주의렬강간의 첨예해지고있는 모순으로 말미암아 미제에 의한 종속적인 《동맹》관계는 전면적으로 파탄되고있으

며 자본주의세계는 4분5렬되여 수습할수 없이 붕괴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세계내부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변화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현대제국주의가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멸망해가고있는 제국주의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과학적인 평가의 정당성을 웅변으로 증명해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제국주의의 침략정책에서 나타나고있는 새로운 특징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제국주의자들이 멸망에 가까와갈수록 그 착취적이며 침략적인 본성이 더욱 악랄하고 교활해진다는것을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의 본성은 변할수 없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이다. 제국주의는 죽을 때까지 인민들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략탈할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0페지)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이 처한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자국내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데서 찾으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반동적인 통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부르죠아민주주의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마구 짓밟고 로골적인 파쑈테로통치에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은 더욱 더 가혹하고 교활한것으로 되고있다. 독점부르죠아지들은 최대한의 리윤을 짜내기 위하여 로동시간을 인장하고 로임을 동결시키는 등 근로자들의 리익을 침해하고있을뿐아니라 현대과학과 기술의 도움으로 살인적인 로동강도를 강요함으로써 상대적잉여가치형태로 근로자들을 착취하고있다.

사상문화분야에서 제국주의는 극도의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부르죠아사상을 류포시킴으로써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려 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멸망에 직면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내리막길을 걷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책동은 놈들의 대외침략정책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을 쥐고 휘두르는 《량면전술》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며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악랄하고 교활하게 감행하고있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공공연히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니, 《협상》이니, 《교류》니 하는 갖가지 허울좋은 간판들을 들고나오고있으며 이른바 《평화전략》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다. 놈들은 《평화》의 미명밑에 진보적인민들을 반대하는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벌려놓고있으며 또한 《평화》의 미명밑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정치적와해책동을 강화하고있다. 따라서 놈들의 《평화전략》이란 곧 뒤집어놓은 전쟁전략을 의미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악랄하고 교활한 침략책동으로써 온 세계를 제놈들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흉악한 야망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내리막길에서 발악하고있는 현대제국주의의 악랄한 침략책동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그것은 놈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놈들의 취약성을 보여주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는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사상루각과 같은것이며 그 멸망은 불가피하다.

제국주의자들은 발악하면 할수록 더욱더 엄중한 위기에 부닥치게 되며 멸망의 구렁텅이에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를 괴수로 한 세계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의 완전한 멸망과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의 종국적승리는 필연적인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2페지)

수령님께서는 낡은 봉건사회가 멸망하고 새로운 자본주의사회가 발생발전한것처럼 자기 세기를 다 산 자본주의제도가 새롭고 진보적인 사회주의제도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것은 막아낼수 없는 사회발전의 법칙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새것이 승리하고 낡은것이 멸망하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바로 이와 같은 법칙에 의하여 한때 온 세계를 집어삼키려던 강도 일본제국주의가 멸망했고 히틀러독일과 파쑈이딸리아도 패망하고말았다.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도 지금 허장성세하면서 발악하고있지만 결국은 종국적인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 미제는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산 죽어가는 력량이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인류의 진보를 지향하는 새로운 력량이다. 그 어떤 힘도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돌려세울수 없다.

이렇듯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제국주의에 관한 리론을 과학리론적기초우에서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현대제국주의에 관한 새롭고 독창적인 리론은 현시기 반제투쟁의 정확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을 반제투쟁의 위대한 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데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키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우리 시대의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운동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전략적방침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에 관한 탁월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오늘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41페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에 공격을 집중하는것이 중요하다.》(우와 같은 책, 521페지)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처음으로 공동적인 주타격방향을 밝혀준 독창적인 전략이다.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에게 공격을 집중할데 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은 세계의 광범한 반제력량을 총동원하여 세계혁명의 주되는 타격대상인 미제국주의를 때려눕힘으로써 제국주의세력전반의 멸망을 촉진시키며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적방침이다.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우리 시대의 세계혁명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반제투쟁과 세계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세계적범위에서 혁명력량이 오늘과 같이 장성하지 못하였고 제국주의세력의 운명이 하나의 제국주의에 의존되여

있지 않았던 지난시기에는 제국주의의 약한 고리를 하나씩 폭파하는것이 세계혁명전략의 기본으로 되였다. 그러나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일정에 오르고 제국주의체계에서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에 상응한 세계혁명전략을 새롭게 밝힐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체계에서 일어난 변화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에 대한 전면적이며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우리 시대의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을 독창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반제투쟁과 세계혁명운동이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오늘 미제는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세계혁명발전을 가로막는 주되는 세력이다.

미제는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흉악한 목적밑에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인민들의 혁명위업에 가장 악랄하게 도전하여나서고있다. 지구상에는 미제의 침략의 마수가 미치지 않은곳이 없으며 놈들의 발길이 닿는곳에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데가 없다. 따라서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세계평화를 지킬수 없으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도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없다.

또한 현대제국주의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체계로 재편성되였으며 여기에서 미제는 세계제국주의의 기둥으로, 국제반동의 원흉으로 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자본주의세계의 패권을 틀어쥔 미제는 저들의 군사경제적 우세를 리용하여 일련의 제국주의나라들을 종속적인 동맹관계에 얽매여놓았다.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가 날로 심각화되고있는 력사적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은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나며 사회주의와 세계혁명력량을 반대하는 공통된 침략야망으로 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서로 결탁하게 되였으며 반혁명적인 동맹을 형성하게 되였다.

이 모든것은 미제를 반대하는데 투쟁의 화살을 집중하여야만 현대제국주의 세력전반의 멸망을 촉진시킬수 있으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길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말해준다.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릴데 대한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이렇듯 우리 시대의 반제투쟁과 세계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현시기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세계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전략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미제의 《세계전략》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미제를 미화분식하고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회피하는 온갖 기회주의적사상조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전세계적범위에서 반제반미투쟁을 새롭게 앙양시키는데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미공동행동을 이룩하고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을 이룩하며 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82페지)

반미통일전선과 반미공동투쟁을 실현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미제의 종국적멸망을 다그치기 위한 혁명력량편성문

제에 관한 전략전술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전략적방침은 더 많은 동맹자들을 전취하여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함으로써 미제를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그에 공동으로 타격을 가하게 하는 과학적인 전략적방침이다.

또한 이 전략적방침은 반제전선을 최대한으로 확대하여 미제에 집단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세계혁명력량을 각개격파하려는 미제의 침략적전략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게 하는 가장 정확한 전략적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반제반미통일전선과 반미공동행동을 실현하는데서 특히 아세아혁명적나라인민들의 전투적단결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고있는 조선과 중국, 웰남과 라오스, 캄보쟈를 비롯하여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이 반제반미통일전선을 강화하고 반미공동행동을 힘있게 벌려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보다 강력한 집단적반격을 가할데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주동적인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이 반제반미통일전선을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현시기 반제반미투쟁의 가장 치렬한 전선으로,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는 아세아에서 미제의 격화되고있는 침략과 전쟁 정책을 힘있게 짓부셔버릴수 있게 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방도를 가르쳐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세계적규모에서의 반제반미통일전선과 반미공동투쟁의 실현을 앞당기게 하며 전반적인 반제반미투쟁에 더욱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아세아혁명적나라인민들의 반제반미통일전선을 실현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성과적으로 짓부셔버리고 세계적범위에서의 반제반미투쟁을 새롭게 앙양시키는데 커다란 전환을 일으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그이의 천재적인 반제반미투쟁전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미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는 강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각각 미제의 팔도 뜯어내고 다리도 뜯어내며 머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비록 적은 힘이라고 하더라도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이렇게 모두 함께 달라붙어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미제의 각을 이르는곳마다에서 뜨게 되면 미제는 결국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06~107페지)

수령님께서 밝히신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이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경험 그리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경험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한데 기초하고있는 가장 전투적이고 명확한 전략이다.

이 전략은 세계의 모든 인민들을 반미투쟁의 결전장에 광범히 떨쳐나서게 하고 세계의 이르는곳마다를 반미혁명투쟁의 치렬한 전투마당으로 되게 함으로써 미제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키는 동시에 혁명적인민들로 하여금 매 전선에서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미제의 각개격파책동을 짓부시게 하는 진공적인 전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큰 나라들뿐아니라

작은 나라들도 주체를 세우고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끝까지 용감히 싸운다면 능히 큰 적을 때려부실수 있다는 투쟁의 진리를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미제의 최후발악적인 《량면전술》을 철저히 저지파탄시킬데 대한 원칙적인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량면전술》에 대처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더욱 경각성을 높이며 혁명적이고 명확한 전략전술로써 놈들에게 계속 세찬 공격을 들이대여 놈들을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와 같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지향과 우리 시대의 반제투쟁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반미투쟁전략을 제시하심으로써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흉악한 침략책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을 새롭게 앙양시키는데 탁월한 공헌을 하고계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종국적멸망을 앞당기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선차적으로 공격의 예봉을 집중하는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과 그 동맹자들 특히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 앞에는 미제국주의침략을 좌절시키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매우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01페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 큰 제국주의세력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버릇되여온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들의 철천지원쑤이다. 놈들은 지난날 가장 악랄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온갖 흉악하고 잔인한 략탈만행을 감행하였을뿐아니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아세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급속히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미제의 침략정책의 충실한 《돌격대》로 복무하면서 미제를 등에 업고 아세아에서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을 실현하여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아세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위협은 날로 커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제2차세계대전직후에 벌써 일본군국주의를 되살려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는 미제의 흉악한 책동과 미제의 비호밑에 또다시 옛지위를 회복해보려는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야망을 예리하게 간파하시고 그 재생을 반대할데 대한 투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최근년간 더욱더 로골화되고있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공모결탁의 침략적본질을 전면적으로 꿰뚫어보시고 놈들의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킬데 대한 원칙적인 투쟁방침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야망을 꺾어버리기 위하여서는 일본반동지배층에 대하여 어떠한 환상과 기대도 가지지 말고 원칙적립장을 견지하며,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일치한 행동으로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침략 책동을 저지시키고 침략적인 미일결탁을 결정적으로 파탄시키며, 일본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고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투쟁방침은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일본의 광범한 민주력량과 단결하여 일본군국주의에 안팎으로부터 공격을 가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철저히 고립시키며 놈들의 모험적인 침략책동을 성

과적으로 저지파탄시키게 하는 가장 정확한 투쟁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반제반미투쟁의 모든 전략적방침들은 그이의 철저한 반제혁명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지향과 현시기 반제반미투쟁의 근본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3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철저한 반제혁명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에 기초하시여 우리 인민의 반제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세기에 빛나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세계혁명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투쟁의 전행정에서 언제나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투쟁의 진두에 서시여 우리 인민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타개하시면서 15성상에 걸치는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인민을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기반에서 해방하는 력사적위업을 완수하시였을뿐아니라 식민지민족해방진쟁에서 첫 승리를 이룩하시는 선구자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과 그 빛나는 승리는 당시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을 들씌우고있던 국제파시즘의 괴멸을 촉진시키고 제국주의식민지체계에 커다란 돌파구를 뚫어놓음으로써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열어놓는데 위대한 기여를 하였다.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행정에서 창조하신 반제민족해방운동의 전략전술과 그리고 풍부한 투쟁경험들은 식민지민족해방전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켰으며 그것은 피압박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에서 고귀한 재부로 되고있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강도 일제를 타승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을 령도하시여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인 미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심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지켜내시였으며 반제투쟁과 세계혁명 발전에 또다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승리는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일떠선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19페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제혁명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미제를 비롯한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심으로써 전조선을 강점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중국과 쏘련을 침략하려던 미제의 흉악한 새 세계대전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

온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세계적범위에서의 반제반미투쟁을 새롭게 앙양시키는데서 위대한 전환을 열어놓았다.

이렇듯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도 일제를 타승하신데 련이어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를 타승하심으로써 한세대에 두개의 제국주의와 싸워이기신 민족적영웅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으로 세계인민들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긴장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더 철벽으로 다지며 적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심으로써 아세아와 세계 평화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54페지)

수령님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의 날로 로골화되는 전쟁정책에 대처할수 있는 정치사상적준비를 튼튼히 하도록 하시는 한편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내놓으시였다. 이것은 나라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에 따르는 주동적이며 현명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에 의거하여 원쑤들의 온갖 침략책동을 힘있게 짓부셔버릴수 있었다.

최근년간 미제국주의자들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을 벌려놓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 나라의 문턱까지 제놈들의 숱한 침략무력을 끌어다놓았으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공공연히 시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세계가 우리 나라에서의 사태발전을 주시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있는 긴장한 정세하에서 적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라는 단호한 립장을 견지하시고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심으로써 원쑤들로 하여금 우리 인민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강력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하여 미제침략자들에게 거듭 돌이킬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가하심으로써 미제의 무모한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어떤 립장을 가져야 하며 놈들을 반대하여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바로 그러기에 세계혁명적인민들은 미제의 모험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린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견결하고 영웅적이며 대담한 조치》, 《투쟁에서의 견결성의 모범》이라고 한결같이 말하면서 그것은 오직 철저한 반제혁명사상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라고 경탄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로골적인 침략과 전쟁 정책을 단호히 짓부시는 한편 놈들이 추구하는 《평화전략》의 침략적본질을 낱낱이 발가놓으시고 《평화》의 간판뒤에 숨어서 감행하고있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착잡하고 복잡한 사태발전에 대한 수령님의 명철하신 분석과 판단은 이 문제에 대하여 갈피를 못잡고있던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사태의 진상과 본질

을 똑똑히 가려볼수 있게 하였으며 그들을 새로운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고 있다.

실로 급변하고있는 국제정세에 대처한 우리 당의 주동적이며 진공적인 대외정책적방침들은 세계의 광범한 사회계와 인민들의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으며 적들을 더욱더 곤경에 몰아넣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인민의 반제반미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힘있게 조직령도하고계심으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영웅조선》, 《반제투쟁의 기수》로 세계에 그 이름을 빛내이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혁명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우리 인민의 반제투쟁에서뿐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투쟁의 실천속에서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우리 인민을 비롯하여 중국인민, 인도지나인민, 일본인민 그리고 기타 아세아나라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은 날로 강화되고있으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은 더욱 높아가고있다.

아세아혁명적나라인민들은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강력한 집단적반격을 가하고있으며 놈들을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날이 갈수록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 인민들이 미제에게 투쟁의 창끝을 돌리고 이르는곳마다에서 놈들의 각을 뜨는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미제의 더러운 침략의 마수는 가는곳마다에서 동강이 나고있으며 마지막숨통이 끊어져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혁명사상과 탁월한 반제반미투쟁전략은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빛나는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혁명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오늘 국제무대에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빛나는 승리를 가져오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혁명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반제반미투쟁의 뜨거운 불씨를 안겨주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싸워나아갈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우리 시대의 반제반미투쟁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끄시고계시는 탁월한 공헌으로 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높은 신뢰와 존경, 다함없는 흠모를 받고계신다.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시대의 가장 걸출한 반제투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이 《붉은 태양》으로 우러러 따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된 영예를 가슴깊이 아로새기고 수령님의 백전백승의 혁명사상과 천재적인 전략전술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그이께서 가르치신대로 세계혁명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반제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반제혁명사상이 세계의 더욱 넓은 지역에서 찬란히 꽃피게 하여야 하며 반제투쟁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더 빨리 다그쳐나아가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중심과업을 명시한 강령적교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와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민족최대의 명절인 수령님탄생 예순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힘찬 로력투쟁으로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2차대회가 진행되였다.

이번에 진행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2차대회는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농업근로자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전체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시위하고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하신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 즉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킴에 있어서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하에서 혁명적농민조직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을 직접 창건하여주시였으며 그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지도와 배려를 돌려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사회주의하에서 농업근로자동맹앞에 나서는 기본임무와 전투적인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교시는 우리 나라에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강령이다. 수령님의 교시는 또한 전체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관철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이며 농근맹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강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중심과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근로자동맹의 기본임무는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 농민대중속에서 교양사업을 진행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입니다. 농업근로자동맹은 모든 농민대중을 포괄하는 근로단체로서, 농촌사업을 보장하는 우리 당의 외곽단체로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내놓은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면 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28페지)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대로를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농촌건설강령이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조직동원하여 테제를 관철하는것이 농근맹조직의 기본임무로 된다는것을 천명하시였으며 이번 대회에서 다시금 농근맹조직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강령에 따라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농촌테제를 농업근로자동맹의 투쟁강령으로 제시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사회주의적농업근로자들의 대중적정치조직인 농업근로자동맹의 기본임무를 력사상 처음으로 독창적으로 밝혀준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사회주의하에서 농근맹의 기본임무와

전투적과업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신 수령님의 금번 교시는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근맹사업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오늘 농근맹조직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업근로자동맹 제2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농근맹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농근맹조직들은 무엇보다먼저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여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 속에서 사상혁명을 세차게 벌림으로써 그들의 로동계급화, 혁명화를 다그쳐야 한다.

사상혁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 우리 당내에는 당의 이 유일한 사상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있을수 없다.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자—이것이 오늘 우리 당의 구호이다.》

농근맹원들을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그이의 교시를 무조건 옹호관철하여나갈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금번 대회에서 농근맹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는 동시에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금번대회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농근맹조직들은 세가지애호운동 즉 땅을 사랑하고 기계설비를 사랑하며 산림을 사랑하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사상은 공산주의교양을 농촌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그리고 농근맹원들의 생산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신것이다. 또한 이 사상은 공산주의교양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섬멸전의 방법으로 더욱 심화시켜 진행할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근맹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서 선차적주목을 돌려야 할것은 땅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요한것은 토지관리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농업에서 기본생산수단은 토지입니다. 땅이 있어야 기계화나 수리화도 필요하지 땅이 없으면 기계가 아무리 많고 물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76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땅은 농업에서 기본생산수단이다. 땅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수 없으며 농기계도 농약도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농업에서 기본생산수단이며 우리 인민의 귀중한 밑천인 땅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농업근로자들을 교양하는것은 농근맹조직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땅을 적극 개량하고 더 많은 땅을 얻어내며 이미있는 토지를 한평도 허실하지 않도록 알뜰히 거두어야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으며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농근맹조직들은 땅을 알뜰히 거두고 보호하면서 새 땅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한 투쟁에로 농근맹원들을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포전별 토양의 성질에 맞게 화학비료시비체계를 세우고 흙깔이를 잘하여 토양을 적극 개량하고 그 비옥도를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공산주의교양에서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공동재산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나라와 협동농장의 공동재산을 애호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은 농근맹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은 어느 한 개인의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의 재산이며 우리 세대들뿐아니라 후대들을 위해서도 귀중한 재부이다. 공동재산은 또한 집단의 모든 성원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거대한 밑천으로 된다.

그러므로 각급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이 나라와 협동농장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며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농근맹원들에게 사회주의하에서는 사회적부가운데 자기 개인의 몫도 있으며 사회적부가 늘어날수록 자기도 더 잘 살수 있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자동차와 뜨락또르, 삽과 호미, 낫, 양수장 등 나라와 협동농장의 모든 공동재산을 자기의것보다 더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협동농장의 재산을 탐오랑비하는 현상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며 식량을 비롯하여 전기, 물, 비료, 기름 등 국가재산을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금번 대회에서 공산주의교양에서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산림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나라의 귀중한 자원인 산림을 풍부히 조성하여 그것을 잘 보호관리하는것은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산림을 정성들여 가꾸면서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조성해나가는것은 땅을 보호하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농근맹조직들은 금번 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교시대로 전체 농근맹원들을 적극 발동하여 이미 있는 나무들을 정성들여 가꾸는 운동을 광범히 벌리는 한편 모든 지방의 산과 들에 빨리 자라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해마다 계획적으로 심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근맹조직앞에 나선 중심과업의 다른 하나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매우 절박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농촌로력을 많이 절약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9페지)

오늘 농업근로자동맹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할 영예롭고도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농촌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 속에서 3대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학습구호 즉 정책학습, 기술학습, 경영학습을 강화하는것은 전면적기술혁명의 단계에 들어선 우리 농촌의 구체적실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제시하신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수령님께서는 농촌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 속에서 우선 정책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농촌기술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학습하지 않고는 농촌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수도 없으며 그 수행을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할수도 없다.

정책학습을 강화하는것, 이것은 농촌기술혁명수행의 선결조건이다.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 속에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 농촌테제를 비롯하여 농업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기술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수령님의 극진한 배려와 보살핌 속에서 오늘 우리 농촌에는 수많은 현대적 농기계들과 화학비료, 농약들이 공급되여 농민들의 일손을 덜하고 흥겹게 하여주고있으며 해마다 농업생산량은 늘어나고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매해 우리 나라 농촌에는 대중소형의 여러가지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적 농기계들이 더 많이 공급되고있다.

이와 같이 농촌에 수많이 공급되는 기계수단들과 화학비료, 농약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농업생산량을 더욱 늘이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농촌기술혁명의 직접적담당자들인 농업근로자들 속에서 기술학습을 강화하여 기술수준을 더한층 높여야 한다.

농근맹원들속에서 기술학습을 강화하여 기계와 설비를 능숙하게 다루고 비료와 농약을 효과있게 리용하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 필요한 기술지식을 습득시켜야 한다. 특히 기계농사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누구나 다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능숙하게 다룰수 있도록 운전기술을 배우기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려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농촌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한 경영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대농장을 경영하는 오늘 지난날의 낡은 경험주의만 가지고는 농장을 잘 경영할수 없다.

그러므로 대농장을 경영하는 현실조건의 요구에 맞게 농촌경리부문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농촌경영학에 대한 학습 특히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업생산지도에서의 10대과업과 협동농장관리에서의 10대과업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경제관리운영수준을 한계단 높여야 한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금번 대회에서 제시하신 3대학습을 강화하여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의 정치사상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을 더욱 높이여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금번대회에서 문화혁명을 다그치는 것이 현시기 농근맹조직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문화혁명은 농민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농촌기술간부를 양성하며 농촌의 낡은 면모를 개변하고 온갖 뒤떨어진 생활양식과 인습을 없애며 생활을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9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앞당길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다. 농촌문화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만 농근맹원들을 지식있고 문명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수 있으며 우리의 농촌을 더욱 발전된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려나갈수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금번 대회에서 농촌문화혁명의 중심과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우선 생산문

화를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교시하시였다.

생산문화를 높이는것은 비단 공업기업소들에서뿐아니라 농업과 축산업, 과수업 등에서도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생산문화를 높이는것은 제품의 질제고에 영향을 주는 제반 기술경제적요구들을 충족시키며 생산자들의 위생관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게 함으로써 제품의 생산과정으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생산의 전행정에서 문화성을 보장하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생산문화를 높일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농촌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촉진시켜 알곡과 남새, 과실 등 온갖 농산물들을 알뜰히 생산하고 포장하고 보관하도록 하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농촌문화혁명에서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생활문화를 확립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생활문화를 확립하는것은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본성에 맞게 살며 행동하도록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근맹조직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농촌문화주택들을 알뜰히 꾸리고 관리하며 농업근로자들의 몸가짐도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도록 일상적인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근맹조직들은 수령님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절박한 과업으로 제시하신 농촌수도화와 뻐스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농촌구락부와 학교, 유치원, 탁아소 등 문화교양기관들과 공공시설들을 더 잘 꾸리고 효과있게 리용하며 농업근로자들속에서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중간지대농업을 발전시키는것을 농촌경리부문앞에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농근맹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알곡생산의 거대한 예비가 있는 중간지대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령님께서 대대적으로 보내주시는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효과있게 리용하여 지대별 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음으로써 알곡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이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농근맹조직을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농업근로자동맹이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급 농근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의 전투력과 자립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농근맹조직들은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면서 각계각층 군중들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의식적인 극소수 반동분자들을 제외한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농근맹조직들은 동맹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농업근로자동맹이 대를 이어가면서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인전대로서의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농근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농근맹 제2차대회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밝혀주신 휘황한 길을 따라 사회주의완전승리와 공산주의에로의 진군운동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아가자.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

백 능 기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 대회와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수령님 탄생 예순돐전으로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이는 우리 당과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주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충성심의 표현이며 그이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우리 당에 대한 그들의 열렬한 지지와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이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조직적선봉대이며 우리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인 조선로동당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백전백승의 당이며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세련되고 단련된 불패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의 전행정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력사이다.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오늘과 같은 강철의 당, 필승불패의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돌이켜보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을 대를 이어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빛내일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전투적선봉대인 조선로동당은 우리 당의 총비서이시며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그이의 령도밑에 불패의 대오로 강화발전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이며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이 땅우에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위대한 당이다.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자면 반드시 자기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전위대인 당을 가져야 한다. 로동계급이 자기의 혁명적조직인 당을 가져야만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오직 수령에 의해서만 창건될수 있으며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강화발전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란 본질에 있어서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이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그것은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그이께서 이룩하여놓으신 항일혁명투쟁의 영

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고있을뿐아니라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고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고있기 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직접 창건된 가장 영광스러운 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당을 창건한 목적은 어디까지나 우리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묶어세워 조국을 통일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데 있습니다.》

로동계급의 수령이 당을 창건하는것은 결국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묶어세워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자는데 있다.

로동계급은 수령에 의하여 창건된 이러한 혁명적당을 가져야만 혁명운동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실현할수 있으며 대중운동을 하나의 목적실현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혁명투쟁의 지도사상을 창시하는것과 함께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진분자들을 묶어세워 당을 창건하게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정확한 길로 인도하는 현명한 수령만이 로동운동에서 자연발생성을 극복하고 그에 목적의식성을 부여하며 분산된 력량을 하나의 사상과 목적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의 집단으로 묶어세울수 있다.

따라서 수령이 없이는 계급의 전위조직인 당도 창건될수 없으며 광범한 근로대중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도 없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실천에 구현하시여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승고한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영웅적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로동계급은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여야 그에 토대하여 진정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할수 있으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에도 드놀지 않는 강철의 당으로 공고발전시킬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으로 될 공산주의적핵심을 수많이 키우시였으며 광범한 반일군중을 결속하시여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시였다. 또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전략전술을 완성하시였으며 종파주의, 온갖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과 순결성을 보장하시였다.

이리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당창건방침에 따라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공고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가 마련되였으며 풍부하고도 다방면적인 당사업경험들이 이룩되였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는 해방후 우리 당창건의 확고한 기초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지체없이 당을 창건하시였다.

우리 당의 창건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조선혁명발전에서 력사적인 전환점으로 되였다. 조선의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이때로부터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힘있는 전위부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우리 당의 창건은 우리 인민들과 전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직접 계승한 혁명적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항일무장투쟁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난 영광스러운 당이며 위대한 혁명투쟁에서 검열되고 세련된 불패의 당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02~103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어떠한 전통을 계승하고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 당의 근본성격과 당활동의 총적방향을 규정짓는 원칙적문제이며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그를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창시될수 있으며 혁명전통에는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이 집대성되여있다. 따라서 당이 혁명전통을 계승하는것은 수령을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활동할수 있게 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진정으로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전투적부대로 되자면 반드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혁명전통을 계승해야 한다. 그래야 대를 이어가면서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될수 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그 당을 창건한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을 고수하지 않고 오가잡탕을 허용하게 될 때에는 그 당은 벌써 본래의 당이 아니며 당의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이 계승하고있는 혁명전통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다.

여기에는 수령님의 주체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혁명정신, 고귀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등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킨다는것은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사업방법과 작풍을 이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그이께서 항일혁명투쟁행정에서 이룩하신 주체의 사상체계와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인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11페지)

당의 지도사상은 당의 근본성격을 규정짓는 결정적요인이다. 당이 어떠한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는가 하는것은 당건설의 총적방향과 당활동의 근본원칙,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규정짓는 기본출발점으로 된다.

원래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안에는 하나의 지도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이 있을뿐이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전세계혁명운동의 전 과정이 보여준 력사적교훈이다.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이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을 가장 철저히 반영한 혁명적인 사상이며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주체사상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이며 자연과 사회의 발전법칙을 정확히 인식하고 세계를 혁명적으로 변혁해나가는 가장 정확한 무기와 방법을 주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 혁명적진수를 확고히 고수하고 철저히 계승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조선로동당은 바로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대를 이어가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있음으로 하여 가장 혁명적인 당으로 되며 불패의 위력을 가진 백전백승의 당으로 된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당이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당의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지도사상을 창시하시고 당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으며 손수 당을 창건하시였을뿐아니라 극히 짧은 력사적기간에 우리 당을 조선혁명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나아갈수 있는 강유력한 전투적부대로 자래우시였다.

우리 당의 앞길에는 실로 헤아릴수 없는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 당이 오늘과 같이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고계시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문제로 제기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령도하심으로써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완전히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섰으며 전당이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여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08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력사적숙망을 빛나게 실현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도록 우리 당을 힘있게 이끌어주심으로써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실현하시였으며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을 쓸어버리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

도밑에 전당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산조직으로 되였으며 어떠한 풍파라도 뚫고나갈수 있는 혁명적이고 강력한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적당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당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조선혁명의 강유력한 전투적선봉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당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그 두리에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원칙적요구이다.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것은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수령님께서는 당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주객관적조건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대중적당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끄심으로써 우리 당을 짧은 기간에 대중속에 튼튼히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정확히 령도하는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당앞에 나서는 정치적임무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을 높이며 그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을 높이며 그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야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당앞에 나서는 정치적임무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는 한편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을 당사업의 기본고리로, 당건설의 기초로 규정하시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당을 항상 생기있고 움직이는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각급 당위원회를 해당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되게 하고 그를 튼튼히 꾸리도록 하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시였다.

특히 수령님께서는 군중로선에 기초한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전당에 일반화하심으로써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시였으며 정연한 당사업체계를 확립하시였다.

그리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위대한 비약이 이룩되였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게 되였다.

지난기간 혁명과 건설의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총비서이시며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의 령도밑에 우리 당이 불패의 전투적부대로 강화발전됨으로써 이룩된 빛나는 열매이다.

이와 같이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손수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당이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직접 이어받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대이며 우리 혁명의 세련된 전투적참모부이다.

* *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전체 인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최고의 영예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오랜 세월에 걸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다. 당과 로동계급의 이러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당을 창건하고 령도하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계승함으로써 그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승리와 당자체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자면 반드시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이 땅우에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그이의 당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빛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대를 이어가면서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후대들도 반드시 우리의 사상을 계승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우리의 사상을 계승하지 않는다면 그때의 당은 벌써 조선로동당이 아닙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정치적무기인 당의 존망과 관련되는 원칙적문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혁명의 근본문제이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계승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당은 벌써 더는 그 당을 창건한 수령의 당으로 될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당은 명맥이 끊어지게 되며 혁명은 대를 이어나갈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이 존재하는 전기간 언제나 충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대를 이어나가면서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사상의 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가 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반당반혁명적사상조류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우리의 후대들도 대를 이어가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당이 영원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이기 위해서는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당건설사상을 당사업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당을 불패의 전투적선봉대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근 반세기에 걸치는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과정에 쌓으신 풍부하고도 다방면적인 경험에 기초하시여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건설의 근본원칙으로서의 당의 유일사상체계수립에 관한 리론을 비롯하여 당사업의 대상과 본질에 대한 리론, 당사업의 기본고리와 당건설의 기초에 관한 리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방법으로서의 키잡이에 관한 리론, 군중로선에 기초한 혁명

적사업방법으로서의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등 혁명적당건설과 당사업리론발전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당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당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며 그이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는데서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특히 우리들은 변천된 새 환경에 맞게 당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들을 심장으로 받들고 당대렬을 확대강화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전체 인민대중을 더욱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당을 그 어떤 풍파에도 고력하지 않고 오직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불패의 전투적인 선봉대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촉진시키는 중요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발전하는 현실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37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광명한 미래도 바랄수 없다.

우리 당의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만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이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행동상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목적지향성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발전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인 각급 인민위원회와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많이 가지고있는 기관들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수령님께서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시여 창시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당의 지도작풍과 방법을 더욱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깊이 뿌리박고있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전투적이고 세련된 혁명적인 당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항일유격대의 창건

김 경 인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와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환경속에서 멀지 않아 영광스러운 항일유격대 창건 마흔돐을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절정에 이르고 조선혁명의 앞길이 극히 암담하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상비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였을뿐아니라 그를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힘있게 발전시키시였다.

수령님에 의하여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건설을 비롯한 우리 당의 가장 빛나는 혁명전통이 마련되였다.

수령님께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그를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풍부한 경험들은 조선인민군의 건설과 조선인민의 모든 혁명투쟁에서 고귀한 밑천으로,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항일유격대의 창건자이시고 항일무장투쟁승리의 조직자이시며 해방후 이 력사적뿌리를 계승한 우리 인민군대의 창건자이시고 그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혁명을 항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께 더없는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지난날 항일혁명선렬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하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선혁명의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우리 나라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선진적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써 우리 나라의 혁명적인민무력의 첫 대오인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6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항일유격대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였다. 이때로부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여름 일찍부터 구상해오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비롯한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그후 1931년 11월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명월구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회의에서 조성된 혁명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는 무장투쟁을 당면한 문제로 제시하시고 상비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조선혁명을 외세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조선사람자체의 힘과 투쟁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철저하게 주체적이며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였다. 또한 이것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무장투쟁에로 발전시켜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혁명적폭력으로 타승하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할데 대한 가장 혁명적이며 철저하게 반제적인 방침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장투쟁을 견결히 전개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는 반혁명적무력에 의거하여 계급적지배를 확립하고 식민지를 통치하며 자기의 반혁명무력이 완전히 격파되기전에는 침략과 전쟁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다.》(《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19페지)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식민지민족해방전쟁에서 승리하자면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오직 혁명적폭력에 의해서만 반혁명을 타승하고 식민지민족해방위업을 달성할수 있다는 가장 철저한 반제혁명사상에 기초하고있다.

나라의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에서 결정적인 투쟁형태는 무장투쟁이다.

제국주의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식민지인민들의 모든 혁명적진출을 류혈적으로 탄압하는 조건에서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혁명은 무장투쟁을 진행하지 않고는 승리할수 없다.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정규화된 반혁명무력을 성과적으로 격파하기 위해서는 상비적혁명무력에 의한 무장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상비적혁명무력은 식민지나라들에서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기본수단이며 민족해방혁명의 결정적력량이다.

상비적무력을 조직하고 그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여야만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조직화할수 있으며 현대적으로 무장한 정규적인 반혁명무력을 성과적으로 쳐부실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상비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는 사업에는 수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다.

주권도, 민족군대의 토대도, 그 어떤 외부의 지원도 없으며 온 나라가 일제의 폭압망으로 뒤덮이고 적들의 야수적탄압이 끊임없이 감행되는 조건에서 무장대오를 결성하고 그 대중적지반을 닦으며 무장을 갖추는 사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항일유격대창건앞에 가로놓인 이 어려운 문제들은 오직 오랜 투쟁속에서 단련되시고 세련되시였으며 확고한 혁명적원칙성과 불굴의 혁명적의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애로를 헤쳐나가시는 비범한 령도력을 지니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와 반동군벌들의 탄압책동이 더욱 극심해지고 적들이 상시적으로 뒤따르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무시로 닥쳐오는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해나가시면서 조선혁명군대원들과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원들을 교양하시여 창건될 유격대의 핵심적골간으로 키우시고 무장투쟁을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유격대를 결성하기 위한 사업을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과 밀접히 결합시키시고 실천투쟁속에서 검열된 우수한 선진분자들을 무장대오에 받아들이시였으며 그 대중적지반

을 튼튼히 꾸리나가시였다.

한편 수령님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몸소 키워오신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지하공작원들을 동만의 여러곳에 보내시여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들을 묶어세워 무장력량을 꾸리며 광범한 군중을 혁명화하여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더욱 넓혀나가도록 하시였다.

이렇듯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눈부신 투쟁에 의하여 항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핵심적골간들이 꾸려지고 그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이와 함께 무장획득을 위한 투쟁도 활발히 전개되였다.

무장을 갖추는 사업은 실로 어려운 일이였다. 나라가 이미 일제의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된 조건에서 그 어데서 무장적방조를 받을수도 없었고 그 누구에게서 무기를 넘겨받을수도 없었다. 오직 목숨을 내대고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자체로 무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획득을 위한 가장 정확한 방도를 제시하시였으며 그 관철에로 혁명조직과 군중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가 무장을 잡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무장을 잡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앉아서 한탄하거나 적들의 귀축같은 만행을 보고 아우성이나 치는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들은 일어나 손에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 무기는 어디서 구하는가? 돈이 있으면 살수도 있고 또 만들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길은 적의 무기를 빼앗는것이다. 지혜를 짜내고 장소를 택하여 죽음을 두려워 안하고 나서면 한사람한사람이 자기가 잡을 무기는 해결할수 있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무한히 고무된 혁명군중들은 《무장은 생명이다!》라는 구호밑에 남녀로소 할것없이 무기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자신을 무장하고 그것을 밑천으로 하여 또다시 적을 족치고 무기를 얻어냈으며 한편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 선진적인 청년들을 무장시켰다.

또한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반일부대들의 적대적행동이 항일유격대를 창건하는 사업에서 엄중한 장애로 되였다.

당시 일제의 만주침공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민족주의적무장력인 중국인 반일부대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일제의 기만선전과 민족리간책동에 넘어가 조선인민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무조건 적대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직 혁명을 위하여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반일부대사령부와 직접 담판하심으로써 조성된 난관을 타개하시고 그들을 반일공동투쟁에 끌어들이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을 이겨내시고 마침내 1932년 4월 25일 장기간에 걸쳐 몸소 육성하신 조선혁명군성원들과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원들을 핵심골간으로 하여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조선인민의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항일유격대가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자기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군대, 맑스-레닌주의적인 혁명군대를 가지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항일유격대는 그 지도사상과 계급적구성, 사명과 투쟁목적에 있어서 진정으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무력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항일빨찌산은 지주, 자본가를 위해

서가 아니라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해서 싸우며 언제든지 인민과 같이 살고 인민과 같이 싸우는 그러한 투쟁정신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항일유격대의 사상은 맑스-레닌주의사상이였으며 그 목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66페지)

항일유격대는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무장력이였으며 인민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진정으로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인민의 군대였다.

항일유격대는 또한 단순히 적과 싸우는 무장대오였을뿐아니라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선동하는 선전자였으며 인민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조직자였다.

항일유격대는 수령님께서 직접 창건하시였고 그이의 직접적지도를 받는 조선혁명의 기본핵심력량이였다. 따라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적과 직접 싸우는 무장대오인 동시에 조선혁명전반을 이끌어나아가야 할 영예로운 사명을 지닌 정치적부대였다.

항일유격대는 또한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세계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군대였다.

항일유격대는 조선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이 다른 나라 로동계급을 방조하고 세계혁명을 촉진하는것으로 된다는 확고한 사상으로 무장하였으며 그 위업에 무한히 충실하였다.

바로 이 모든것에 항일유격대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항일유격대의 창건은 조선인민의 혁명운동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인민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진정한 혁명무력을 가지고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 나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우리의 혁명적 로동자, 농민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켰습니다. 항일유격투쟁은 반혁명적무력에 혁명적무력으로 대항하는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이어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다른 모든 형태의 대중투쟁을 힘차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3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항일유격대가 창건되고 무장투쟁이 조직전개됨으로써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조선혁명의 확고한 중심을 이룬 항일무장투쟁은 반혁명적무력에 혁명적무력으로 대항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서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이어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인민대중의 다른 모든 형태의 투쟁을 힘차게 고무추동하고 진반적조선혁명을 일대앙양에로 불러일으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질식상태에 놓여있던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은 다시 그 명맥을 이어나갈수 있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조선인민은 일찍부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일제를 반대하여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끊임없이 투쟁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도 많이 흘렸다.

일제의 강점을 전후하여 의병투쟁, 독립군운동, 애국문화정치운동이 전개되였고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맑스

-레닌주의의 영향밑에 로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대중운동이 전개되였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들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였음으로 하여 높은 형태의 투쟁, 조직적인 무장투쟁에로 발전할수 없었으며 적들의 야수적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매번 실패하였다.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시게 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되고 수령님의 정확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비로소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자기의 혁명군대인 항일유격대를 가지게 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는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거하면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자들에게 계속적인 타격을 주어 그 멸망을 촉진시키고 조선인민의 주체적힘으로 반제민족해방위업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항일유격대가 창건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비로소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업도 실천적으로 결합되게 되였다.

지난날 독립군이나 의병대들도 조선독립을 위해 투쟁한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다 자산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민족주의군대로서 민족해방의 과업을 근로인민의 계급적해방의 과업과 결합시킬수 없었으며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수 없었다.

항일유격대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군대로서 무엇보다먼저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민족해방의 과업을 완수할뿐 아니라 장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지지를 받으면서 무장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치렬한 불길속에서 조선공산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튼튼히 마련하시였으며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실현하는 위대한 사업을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이렇듯 항일유격대가 창건되고 항일무장투쟁이 조직전개됨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은 이때로부터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령도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항일유격대의 창건은 또한 세계의 수많은 식민지나라들가운데서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의 첫 탄생으로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세계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은 종주국로동계급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거하여야만 민족적해방을 달성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었다. 이리하여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은 종주국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 기대를 걸고 유리한 정세가 다가오기만 기다리면서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꾸리지 않고 민족해방투쟁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밀고나가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 어느 식민지나라도 제국주의예속에서 자신을 해방하지 못하고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이러한 본질적약점을 깊이 통찰하시고 조선인민의 혁명적무장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무장투쟁을 힘차게 벌리심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민족해방의 위업을 달성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써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자기 힘을 믿고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침략자들과 맞서 싸울때 그 어떤 강적도 능히 타승하고 민족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를 확증하였다.

실로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민족해방의 위업을 달성하고 로동계급의 주권을 전취한 혁명전쟁으로서 인류사발전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전혀 새로운 시대, 주체의 시대를 열어놓은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여 식민지나라인민들에게 민족해방투쟁이 공산주의운동과 결합되고 그것이 또한 무장투쟁과 결합됨으로써만 완전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비로소 맑스-레닌주의가 우리 나라의 현실과 결합되고 공산주의운동이 민족적 및 사회적해방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결합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4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진행된 항일무장투쟁은 그 투쟁강령과 전략전술의 작성으로부터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투쟁에 이르기까지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이 철저히 결합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빛나는 전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선행시기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세계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경험과 교훈을 심오히 분석총화하시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최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공산주의운동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그 실천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실로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크게 고무하시고 그들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붕괴를 더한층 촉진시키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키시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서 위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창건하신 항일유격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항일유격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보살핌속에서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였으며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항일유격대를 로동계급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구성에서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항일유격대를 계급적원칙에서 튼튼히 꾸려야만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과 계급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었으며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무장투쟁과정에서 새 대원들을 계속 흡수하여 우리의 대오를 부단히 확대하여야 한다. 유격근거지들에는 적과의 싸움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들이 적지 않다. 이들을 유격대에 받아들여서 훌륭한 혁명전사로 육성하여야 한다. 우리의 유격활동지역내에는 다수의 광산, 림업 로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유격대오를 장성시킬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다.…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에는 항일유격대내에서 로동계급의 구성을 높이고 그 령도권을 확고히 보장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그이

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의 사명과 성격에 비추어 그를 로동계급의 계급적군대로 튼튼히 꾸리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몸소 키우신 쟁쟁한 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하고 실지투쟁에서 검열된 혁명적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항일유격대오를 부단히 확대강화하여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유격근거지와 각지 광산, 농촌들에 당조직들과 혁명적군중조직을 내오시고 그를 통하여 실지투쟁에서 검열된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을 선발하여 무장대오에 받아들이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는 그 대열보충사업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었으며 혁명군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항일유격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함으로써 놈들의 량적우세를 정치사상적우세로, 군사기술적우세를 유격전술적우세로 타승하는 혁명대오로 준비시켜야 한다.》(《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23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오를 혁명군대의 본성에 맞게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을 첫째가는 중요한 문제로 내놓으시였다.

혁명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그의 정치사상적우월성에 있다.

항일유격대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칠것을 각오한 혁명투사들이였다. 그러나 투쟁이 간고해지고 적들의 사상공세가 강화되는 조건하에서 그들에게 계급의식과 혁명승리의 신심을 계속 높여주지 않는다면 항일유격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충분히 나타낼수 없었다.

항일유격대내에서 정치사상사업의 기본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 전략전술로 무장시키며 항일유격대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육성하는것이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것을 투쟁과 생활에서 심장으로 체득했고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님의 사상대로 살며 싸우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대내에 정연한 정치교양사업체계를 세우시고 정치사업을 조성된 정세와 대원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시였으며 그것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에 있어서 그들이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자신의 힘으로 혁명을 완수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철저히 반대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그 간고한 나날에도 《조국광복회 10대강령》,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등 수많은 로작들을 손수 친필하시여 유격대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으며 정세가 복잡하고 투쟁이 간고해지면 질수록 대원들의 학습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이리하여 항일유격대내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게 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 높은 계급의식과 철저한 반제혁명사상,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등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을 세울수 있었으며 혁명투쟁속에서 그것을 빛나게 구현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를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 동시에 그들을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에 온갖 정력을 다 바치시였다.

현대적인 기술장비로 무장된 가장 야수적이며 교활한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하자면 항일유격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뿐아니라 우수한 군사기술과 명확한 전술로 무장하여야만 했다. 이것은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력의 중요구성부분의 하나인 무장장비를 부단히 강화하시는 한편 그에 적응한 높은 군사기술과 유격전술을 깊이 소유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에 부단히 변천하는 혁명정세에 적응하게 무장투쟁의 총적임무와 당면과업들을 정확하게 결합시켜 유격근거지의 창설과 공고화문제, 군사활동지대의 선정, 유격투쟁형식의 선택, 유격대오의 확대강화를 위한 구체적방도 등 일련의 전략전술적문제들을 천명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급변하는 군사정치정세에 적응하게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명확무쌍한 유격전술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능숙하게 적용하심으로써 항일유격대를 부단히 강화할수 있었고 모든 전투활동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를 결성하시고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시작하시였던 1930년대 전반기에는 우리 나라 북부국경지대와 동만의 광활한 지역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고 그에 의거하여 무장투쟁을 발전시키시는 한편 혁명력량을 보존육성하시고 장차 무장투쟁을 더욱 광활한 지역에로 확대하여 적극적공세에로 이행할수 있는 준비를 튼튼히 갖추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대 후반기부터는 조성된 주객관적조건들을 정확히 타산하신데 기초하시여 새로 백두산근거지를 창설하시고 적에 대한 적극적공세에로 이행하면서 무장투쟁을 국내깊이까지 확대하시고 항일무장투쟁과 함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들을 전국적규모에서 활발하게 벌리시였다.

그리하여 적들의 반동공세가 전례없이 강화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은 일대 앙양을 이룩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40년대에 들어와서 조성된 국내외정세의 변화에 대처하여 항일유격대의 력량을 보존육성하고 군사훈련과 정치리론학습을 강화하며 대부대활동으로부터 소부대활동으로 이행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도처에 림시근거지를 창설하고 소부대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며 인민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여 민족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어나가도록 하시였다.

참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종국적으로 패망시키고 조국해방을 성취하시였으며 이 행정에서 혁명무력건설

의 풍부한 경험과 근본원칙들을 쌓아올리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행정을 통하여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로동계급적인 상비무력창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심으로써 그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상비적무력은 반드시 수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 되여야 하며, 정치사상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이에 군사기술사업을 옳게 배합하여야 하며, 상하일치, 군민일치,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규률이 전대오를 지배하게 하여야 하며 무장대오에 대한 당적령도가 실현되여야만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될수 있다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확증하시였다.

오직 이 근본원칙들이 철저히 견지될때만이 그 무장력은 진실로 혁명적인 무력으로서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적인 혁명군대,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에서 폭력투쟁만이 최후승리를 달성할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라는것을 확증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로 되는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와 모든 승리를 담보하는 확고한 밑천을 마련하여주시였다.

* *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위대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제때에 우리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들을 창건하시고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전변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48년 2월 8일 항일유격대의 직접적계승자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짧은 시일내에 그를 현대화된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세계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하고 놈들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크게 공헌을 한 위대한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승리에로 령도하시였으며 우리나라를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해방후 우리 인민이 달성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근반세기간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모두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길을 따라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에 의한 조선국민회창건과 그 불멸의 업적

박 희 석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웅대한 강령과 올해 신년사에서 주신 전투적과업들을 높이 받들고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전으로 어김없이 끝내기 위하여 눈부신 투쟁을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조선국민회창건 쉰다섯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에 의한 조선국민회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조선국민회가 창건됨으로써 시련을 겪고있던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일대 전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반일력량의 단합을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게 되였다.

참으로 김형직선생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위훈과 고귀한 업적은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선생님의 열렬한 애국사상과 혁명정신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여 조국의 통일독립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을 무한히 고무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시고 지도하시는 행정에서 쌓아올리신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을 커다란 민족적긍지를 가지고 돌이켜보면서 선생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경모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고있다.

* *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에 의한 조선국민회의 창건은 그이께서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무르익혀오신 원대한 구상과 그 실현을 위한 피어린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조선국민회가 창건되던 1910년대 후반기는 일제의 극악무도한 무단통치가 절정에 이르고 조선인민이 일찌기 겪어보지 못한 민족적 억압과 착취 속에서 신음하던 일대 수난의 시기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민족의 모든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노예적굴종만을 강요하였으며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 학살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앞에는 앉아서 영원히 일제의 노예가 되여 생죽음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생결단하고 일어나 일제와 싸워서 빼앗긴 조국을 도로 찾느냐 하는 두 길이 있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전도를 근심하는 애국적 인민들과 독립운동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싸워서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실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길을 찾지 못하고있었다.

한때 일제를 반대하여 무장을 들고 일어섰던 의병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애국자》로, 《우국지사》로 자처하던 사람들가운데는 놈들의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여 국외로 망명하거나 종교의 외피를 쓰고 외세의존과 《청원》의 방법으로 독립을 달성하려 하거나 《때》를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개중에는 개인테로행위로 나라의 독립을 달성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당시 농민들도 소작쟁의를 일으켰으나 그것은 개별적인 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의 조선강점후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투쟁강령과 방도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산만하게 진행되였으며 따라서 그것은 매번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이 시기에 와서 일대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었다.

당시의 조성된 정세와 민족해방운동은 개별적으로 활동하고있던 독립운동자들과 모든 애국력량을 한데 묶어세우고 정확한 투쟁방도를 내세우며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나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이 절박한 요구는 오직 진생애를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몸바쳐싸우신 김형직선생님의 탁월한 혁명활동과 정확한 지도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애국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당시 일제의 포악성과 우리 나라 반일운동의 제한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벌써 중학교 재학당시에 반일학생운동의 선두에 서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속에서 학우회, 독서회, 일신친목회 등을 무으시고 선진적인 청년학생들을 묶어세우시여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시였으며 그들을 반일반미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청년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의에 불타는 조선의 애국학도들인 우리가 왜놈들에게 짓밟힌 조국의 참상을 보고만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수 없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 싸우자면 우선 우리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하여 단합되고 준비된 이 무서운 힘으로 왜놈들을 때려부시고 기어코 나라를 다시 찾아야 한다.》

선생님의 이 가르치심은 정의에 불타고있던 우리 나라 청년학생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그들을 강도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중학교를 중퇴하신후 직업적인 혁명가로 나서시여 표면상 교원의 직업을 가지시고 활동하시면서 청년학생들을 반일애국사상과 자주정신으로 교양하시는 한편 국내외의 반일독립운동자들과 긴밀한 련계밑에 조선독립을 위하여 생사운명을 같이 할 동지들을 묶어세우시여 장차 강력한 반일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할 터전을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시여 마침내 1917년 3월 23일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시였다.

조선국민회가 창건됨으로써 독립운동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비로소 정확한 투쟁 목적과 방도를 가지고 반일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릴수 있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일대 전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창건하신 조선국민회는 우리 나라에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기 이전시기 반제적립장이 가장 철저한 혁명적조직이였으며 그 조직규모와 활동범위에 있어서도 가장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다.

조선국민회의 목적은 장차 동양에 멸철 구미제국주의세력과 일본제국주의세력간에 패권을 다루게 될것이므로 그 기회에 그들을 물리치고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는것이며 이를 위해서 당면하게는 동지들을 묶어세워 그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것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조선국민회로 하여금 이 목적실현을 위하여 국내외에 있는 애국단체들과 련계를 취하고 공작원들을 황해도, 경상도, 전라도 등 국내각지에 파견하여 그 력량을 확대하며 이러한 지역들에는 구역장을 두고 이들의 회합을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그리고 국외 안동에는 련락원을 파견하고 북경에는 통신원을 두도록 하시였다.

또한 일제의 파쑈적탄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지호상간에 일체 암호를 사용하는 등 그 활동에서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게 하는 한편 자금조달과 무기구입을 위해 노력하며 회원들가운데서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군사간부로 육성할것을 계획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밝히신 조선국민회의 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

들은 당시의 정세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제시된 유일하게 정당한것이였다.

그것은 외세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모든 애국력량을 단합하고 그 힘을 부단히 키움으로써 유리한 정세가 도래할 때에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달성하며 청원이나 개량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정치활동과 군사활동의 적절한 배합에 의하여 독립을 이룩할것을 목적으로 한 가장 적극적이며 자주적인 투쟁방침이였다.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날로 첨예화되여가는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을 깊이 통찰하시고 심오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당시의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반일민족해방의 과업을 명철하게 제시하신것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국민회는 그 조직수법이 비상하고 치밀하였다.

조선국민회는 회원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목숨걸고 싸울것을 맹세하는 사람들만을 엄밀히 선발하여 가입시켰다. 그리고 동지호상간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회원들의 사상적인 동요와 조직으로부터의 리탈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이 모든 사실은 조선국민회가 치밀한 조직규범과 강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가진 비합법적조직이였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바로 이러한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으로 하여 조선국민회는 일제의 파쑈적탄압과 삼엄한 감시속에서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자기의 활동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었으며 광범한 군중을 자기 조직에 묶어세우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할수 있었다.

김형직선생님의 탁월한 지도밑에 정확한 투쟁방침과 방도를 가지고 조직된 조선국민회는 자기의 숭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렸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조선국민회조직을 확대강화하시며 그를 통하여 반일애국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가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신후 평양, 강동 일대를 활동의 중심지로 삼으시고 동지규합과 조선국민회조직의 확대, 군사간부와 인재의 양성, 자금조달과 무기구입, 광범한 군중속에서의 반일애국선전사업 등 수많은 사업들을 몸소 조직지도하시였다.

참으로 김형직선생님께서 정확한 투쟁 목적과 활동규범을 가지시고 조선국민회를 조직지도하심으로써 그 조직망은 창건된지 불과 반년 남짓한 기간에 국내각지에는 물론 국외에까지 널리 확대되여갔으며 그 주위에 반일애국력량을 급속히 묶어세울수 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와 함께 광범한 군중을 합법적조직에 묶어세우시고 그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부단히 교양하심으로써 조선국민회의 활동을 보다 원만히 보장하며 그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나가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계》를 뭇던 풍습을 리용하시여 조선국민회의 지하활동을 가리워주며 그의 활동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방조해주는 합법적인 단체로서 학교계, 비석계, 향토계 등을 무으시고 여기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시였으며 그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시기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리하여 선생님의 탁월한 지도밑에 《계》에 망라되였던 사람들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국민회조직에 들어오게 되였으며 그 대렬이 끊임없이 확대강화되여나갈수 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가시기 위하여 광범한 군중속에서 《지원》의 애국사상에 의한 교육, 문화, 정치 활동을 활발히 조직전개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애국사상— 여기에는 나라의 독립과 번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원대한 뜻을 품고 비록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미래를 사랑하며 앞날의 승리를 굳게 확신하면서 시련을 뚫고나가야 한다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이 깃들어있다. 또한 여기에는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와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 힘을 키워서 조국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자주정신과 애국적이며 인민적인 교육사상이 담겨져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 《지원》의 애국사상을 높이 추켜드시고 혁명의 대를 이을 후대교육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교편을 잡으신것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떠메고나갈 불굴의 혁명투사로 교양육성하시기 위하여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너희들이 공부를 왜 하는가, 그것은 왜놈들앞에서 종노릇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또 왜놈의 개가 되려고 하는것도 아니다. 오직 나라를 찾기 위해서이다.

왜놈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금은보화도, 쌀도 모두 빼앗아가고있다.

왜놈들을 내쫓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없다.

우리는 왜놈들을 내쫓고 나라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글 한자를 가르치시여도 거기에 애국주의사상을 심어주시였으며 문장 하나를 지으셔도 민족적자부심과 반일애국사상이 꽉 차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보셔도, 우리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셔도 무심히 지나지 않으시고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 일제침략자들을 짓부시고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는 마음을 더욱 굳게 다지도록 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자신이 몸소 교편을 잡으시고 청소년들을 애국자로 키우시는 한편 조선국민회 회원들을 지도하시여 국내의 넓은 지역들에 수많은 사립학교와 야학을 세우시고 우리 나라 말과 글, 조선 력사와 지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며 학과학습과 군사훈련을 배합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이 시기 여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강연, 해설담화사업을 진행하시며 운동회와 연예공연, 글짓기, 토론회, 이야기모임을 리용하시는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문화계몽사업을 활발히 조직전개하심으로써 인민대중속에 반일애국사상의 불씨를 심어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또한 독립운동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무장활동을 위한 준비사업을 힘차게 추진시켜나가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탁월한 지도밑에 정치문화계몽사업과 무장투쟁준비사업을 결합시킨 조선국민회의 활동은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부터 전개된 의병투쟁, 애국문화운동 등 모든 반일투쟁들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고 분산적으로 진행되던 근본약점들을 극복하고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하기 위해서는 정치사상적준비와 함께 무장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는것을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비합법적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와 합법적조직인 학교계, 비석계, 향토계 등을 조직하시여 합법적활동과 비합법적활동을 능숙하게 결합하심으로써 일제의 파쑈적폭압과 삼엄한 경계속에서도 인민대중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시고 그들을 혁명조직에 튼튼히 결속하시여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탁월한 지도밑에 조선국민회의 조직이 급속히 확대강화되고 그 영향하에 조선인민의 반일기세가 더욱 높아지게 되자 일제침략자들은 극도로 당황하였으며 반일지하혁명조직과 그 지도자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바로 이러한 때 강력한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던 조선국민회는 일제주구놈들의 밀고에 의하여 그 조직이 드러나게 되였으며 놈들의 야수적인 탄압을 받게

되였다.

그리하여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조선국민회의 창건자이시고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17년 가을 일제경찰놈들에게 불시에 체포되게 되시였다. 선생님께서 체포되실 때 전국적범위에서 조선국민회 성원들과 이에 관계했던 100여명의 동지들이 검거되였다.

참으로 이 검거사건은 우리 나라에서 3.1인민봉기이전에 있은 가장 큰 사건이였으며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큰 손실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옥중에서도 놈들과 굴함없이 싸우시였으며 앞으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감옥에서 나오신 선생님께서는 옥중에서 받으신 상처와 쇠약해지신 몸을 추세우실 사이도 없이 또다시 혁명의 길에 오르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고향을 떠나시면서 동지들과 인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뜻깊은 말씀을 남기시였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내 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제놈들과 싸워이겨야겠다.

내가 싸우다가 실패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가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독립시켜야 한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처럼 조국광복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안으시고 1918년말부터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압록강연안과 남만 일대로 옮기시였으며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이끄시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였다. 당시는 로씨야에서 사회주의 10월혁명이 승리한후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민족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방향전환의 력사적시기에 반일독립운동자들과 모든 애국력량을 통일적으로 묶어세워 반일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시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위대한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시였다.

참으로 나라의 독립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전생애를 다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높으신 혁명정신과 고귀한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길이 빛날것이며 조선인민의 가슴속에서 영생불멸할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오직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한몸을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높이 찬양하고있으며 그것을 따라 배우고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김형직선생님의 이름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력사에 새별처럼 찬연히 빛날것이다.》,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투쟁은 나라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고 하면서 김형직선생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 *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혁명위업은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발전되였으며 이땅우에 빛나는 열매를 맺었다.

우리는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뜻을 이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가야 한다.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

조선공산주의녀성운동의 탁월한 선구자 강반석녀사

김　　신　　숙

우리의 모든 녀성들과 근로자들은 멀지 않아 조선의 위대한 어머님이시며 조국의 광복과 녀성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신 강반석녀사의 탄생 여든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생애와 활동은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전우이시며 안해로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낳아 키우신 조선의 위대한 어머님으로서 또한 열렬한 공산주의자, 강의한 녀성해방투사로서 걸어오신 가장 슬기롭고 빛나는 투쟁로정이였다.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께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 녀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조선공산주의녀성운동의 탁월한 선구자이시였다.

낡은 사회가 강요한 무지와 몽매, 온갖 무권리와 천대에서 조선녀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투쟁업적은 조선혁명과 녀성운동 발전에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우리 녀성들과 인민들을 끝없이 고무하여주고 있다.

* *

우리 나라에서 녀성운동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와 방조밑에 강반석녀사께서 부녀회를 조직지도하신 때로부터 참다운 맑스-레닌주의적 발전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력사적으로 형성된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녀성문제는 오로지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맑스-레닌주의기치따라 전진할 때 비로소 옳게 풀려나갈수 있으며 종국적해결을 이룩할수 있다.

녀성운동의 맑스-레닌주의적단계에로의 발전은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이 창시한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녀성문제를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인정하시고 녀성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사회혁명에서 녀성문제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조선녀성들의 처지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 녀성해방에 관한 과학적인 지도리론과 투쟁강령을 처음으로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녀성해방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시기 위하여 1926년 무송에 계실 때 녀성들의 정치조직으로서의 반일부녀회를 조직하실것을 강반석어머님께 당부하시였다.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며 탁월한 녀성해방투사이신 강반석녀사께서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지체없이 부녀회를 조직하시고 조국의 독립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어머님의 눈부신 활동에 의하여 지난날 가혹한 착취와 억압, 봉건적예속에서 시달리던 녀성들이 무지와 몽매, 세기적인 잠에서 깨여나 공산주의적녀성혁명조직인 부녀회에 뭉치였으며 조국의 광복과 자신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보람찬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방조밑에 강반석녀사께서 조직지도하신 부녀회는 녀성해방에 관한 수령님의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나라에서의 첫 맑스-레닌주

외적녀성정치조직이였다.

또한 부녀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녀성들을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의 투쟁에 의식성과 조직성을 넣어준 힘있는 정치사상교양단체였으며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반일민족해방투쟁에로 녀성들을 조직동원한 참다운 혁명조직이였다.

녀사께서 조직지도하신 부녀회와 그 빛나는 활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공산주의녀성운동의 장엄한 시초가 열리게 되였으며 녀성해방운동의 발전과 그 승리를 위한 튼튼한 터전이 마련되게 되였다.

참으로 강반석녀사에 의한 부녀회의 조직과 지도는 우리 나라 녀성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운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지침으로 삼아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걷게 되였으며 녀성의 사회정치적해방을 위한 투쟁이 공산주의운동과 유기적으로 결합되게 되였다.

강의한 녀성해방투사이신 강반석녀사께서 부녀회를 조직지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녀성운동에서 처음으로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전환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게 되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녀성문제의 기본은 녀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와 압박 그리고 인신적 예속과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에서 남자와 꼭같은 정치적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조선녀성들은 민족적 및 계급적인 착취와 예속을 당해왔으며 인신적으로 완전히 무권리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당시 조선녀성들은 2중3중의 억압과 착취, 천대 속에서 신음하였다.

일제의 조선강점은 조선녀성들을 이러한 중세기적인 처지와 전대미문의 억압속에서 신음하게 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제도를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조선녀성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을 이룩할수 없었으며 나아가서는 온갖 불평등과 인신적예속에서 그들을 해방시킬수 없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녀성문제의 옳은 해결은 오직 녀성해방에 관한 문제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전환시킬 때에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반일민족해방투쟁시기 녀성운동앞에 나선 이러한 혁명적요구로부터 출발하시여 우선 녀성들에 대한 문화계몽사업,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시고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높이시였으며 녀성들을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봉건적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에 조직동원하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강반석녀사의 이러한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녀성들의 진정한 해방은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고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그런 사회를 세울 때에만 가능하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녀성해방에 관한 사상이 우리 나라 녀성운동에서 처음으로 빛나게 구현되게 되였다.

강의한 녀성해방투사이신 강반석녀사께서 부녀회를 조직지도하심으로써 녀성의 사회정치적해방은 로동계급의 지도밑에 녀성들자신의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빛나게 구현할수 있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부녀회원들에게 항상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녀자들도 남편과 오빠들처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야 한다. 남자들만 총을 쥐고 싸워야 한다는 법은 없다. 남편과 오빠들이 총을 들고 혁명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싸울 때면 우리 녀성들도 남성들을 도와 원쑤들을 족쳐야 한다.…

강반석녀사의 이 가르치심은 조선녀성들이 해방되여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자면 봉건제도와 식민지통치제도를 없애버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녀성들

이 남자들과 함께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며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주권을 인민자신의 수중에 장악해야만 녀성들도 완전한 사회적해방을 달성할수 있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녀성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사회적력량이다. 녀성들이 높은 의식성과 조직성을 가지고 혁명투쟁에 나설 때에만 민족해방위업에 기여할수 있을뿐아니라 자신의 사회적해방을 이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촉진시킬수 있다.

녀성해방을 위하여 녀성들자신이 직접 손에 무장을 잡고 반일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강반석녀사의 가르치심은 녀성들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민족적 및 사회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철저한 반제적립장을 구현하고있으며 녀성대중을 사회혁명의 중요한 력량으로 보시는 그이의 녀성들에 대한 높은 신임을 직접 반영하고있다.

강의한 녀성해방투사이신 강반석녀사께서 부녀회를 조직지도하심으로써 녀성조직건설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제 나라를 잃고 망국노의 쓰라림을 겪고있는 우리가 목숨을 아껴서 무엇하겠니. 가는 나무가지도 한가치한가치씩은 꺾을수 있지만 여러대를 합쳐놓으면 꺾지 못하는 법이니라.

여기에 모인 사람은 몇이 안되지만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합심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다.…

강반석녀사의 이 가르치심은 녀성들이 자기의 민족적 및 사회정치적 해방을 가져오자면 광범한 녀성군중을 망라한 대중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녀성들의 대중적인 정치조직건설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 민족해방혁명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녀성들의 정치적조직이 있어야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에 보다 광범한 녀성대중을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녀성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투쟁의 유일성을 보장할수 있다.

광범한 녀성들을 혁명투쟁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모두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워야 한다. 광범한 녀성들을 조직에 튼튼히 결속시키고 부단히 혁명화하여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야만 조국의 광복도, 녀성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도 더욱 촉진된다.

조선공산주의녀성운동의 탁월한 선구자이신 강반석녀사께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녀성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 제시하신 녀성조직건설에 관한 탁월한 방침을 구현하시기 위하여 불요불굴의 활동을 전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방조밑에 강반석녀사께서 불요불굴의 활동을 전개하신 결과에 우리 나라의 녀성운동은 선행시기 조선녀성운동에 나타났던 본질적약점을 완전히 이겨내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지난 시기 도시의 일부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녀성들의 사회운동으로서 허공에 떠있던 녀성운동은 강의한 녀성해방투사이신 강반석녀사께서 부녀회를 조직지도하신 때로부터 광범한 근로녀성들속에 깊이 뿌리를 박았으며 넓은 지역에 빨리 확대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종래에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우리 나라의 녀성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방조밑에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며 탁월한 녀성혁명투사이신 강반석녀사께서 조직지도하시게 됨으로써 수령님의 정확한 지도리론과 전

략전술적방침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는 공산주의녀성해방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와 방조 밑에 강반석어머님께서 조직지도하신 부녀회와 그 빛나는 활동은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적녀성해방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 ＊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며 강의한 녀성해방투사이신 강반석녀사께서는 조선혁명과 녀성운동 발전에 거대한 업적을 남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와 방조 밑에 강반석녀사께서 조직지도하신 반일부녀회와 그의 빛나는 활동과정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경험은 조선녀성운동발전과 그 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강의한 녀성해방투사이신 강반석녀사께서 부녀회를 조직지도하시는 행정에서 이룩하신 가장 귀중한 혁명업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녀성운동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구현하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것이다.

사회혁명이 어떠한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가 하는것은 그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선행시기 조선녀성운동이 아직 제궤도에 오르지 못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요람기에 있었던 많은 결함과 부족점들을 자체내에 가지지 않을수 없었던것도 바로 그 당시의 녀성운동이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였으며 과학적인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조국의 광복과 우리 조선녀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바치신 조선공산주의녀성운동의 탁월한 선구자이신 강반석녀사께서는 선행시기 녀성운동이 겪었던 이러한 본질적약점을 깊이 헤아리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조선녀성운동의 과학적인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부녀회활동의 강령적지침으로 삼으심으로써 녀성운동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 부녀회조직을 통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조직진행하신 설득력있는 강연회, 토론회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보위하며 녀성운동에 관한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해설선전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였으며 밤마다 부녀회원들앞에서 진행하신 문화계몽사업도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결부되지 않은것이 없었다. 우리 나라 녀성운동에서 수령님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수립될수 있게 된것은 강반석녀사의 이와 같은 정력적인 투쟁의 직접적인 결실이였다.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며 강의한 녀성해방투사이신 강반석녀사께서는 또한 반일부녀회활동과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 녀성운동발전을 위한 튼튼한 터전으로 되는 녀성조직건설의 풍부한 경험과 고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녀성들의 대중정치조직을 어떻게 건설하는가 하는것은 녀성운동의 발전방향을 규정하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선행시기 녀성운동이 우리 나라 근로녀성들의 기본부대를 이룬 농촌녀성들속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주로 도시의 일부 부르죠아녀성들에게만 눈길을 돌린 결과 부르죠아적 및 소부르죠아적 운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사실은 이것을 잘 말하여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녀성조직건설원칙을 높이 받드신 강반석녀사께서는 우선 선행시기 녀성운동의 본질적약점을 가려보시고 부녀회를 근로녀성 특히 로동녀성과 농촌의 빈고농출신 녀성들속에 깊이 뿌리박도록 하시기에 전심전력을 다하시였다. 녀사께서는 조선사람이 사는 많은 부락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으며 녀성들을 부녀회조직에 굳게 묶어세우시였다. 강반석녀사의 눈부신 활동에 의하여 여러곳에 반일부녀회들이 조직되였다.

녀사께서는 부녀회조직이 확대발전함에 따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방조밑에 부녀회조직을 더욱 정비강화하시였다. 그리하여 부녀회

는 회장밑에 조직부문과 선전부문을 맡아보는 위원들을 두고 그 밑에 반장을 두어 정연한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였다.

대중정치조직건설에서 먼저 핵심을 꾸리고 그들을 골간으로 하여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는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날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신 확고한 정치조직건설원칙이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부녀회를 조직지도하시면서 기본군중들속에서 사상이 건전하고 의지가 굳센 녀성들을 핵심력량으로 키우시는 한편 투쟁을 통하여 단련된 사람들로 핵심대렬을 늘이는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강반석녀사의 불요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녀성조직건설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광범한 근로녀성들이 부녀회조직에 뭉치였으며 원쑤가 누구인지도 모르던 녀성들이 각성되여 자유와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 힘있게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탁월한 녀성정치활동가이신 강반석녀사께서는 또한 부녀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광범한 녀성대중을 혁명화하여 혁명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대중단체의 기본사명은 대중을 혁명화하여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데 있다는 사상을 구현하시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시였다.

녀사께서는 부녀회를 조직지도하시면서 야학, 강연회, 토론회, 노래보급, 이야기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녀성들의 특성과 때와 장소에 맞게 정치선전사업을 벌리시여 군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시였다. 녀사께서는 낫놓고 기윽자도 모르는 녀성들속에 들어가시여서는 항상 《무식한 사람은 소경과 같고 글을 배워야만 마음의 눈을 뜰수 있다.》고 가르치시면서 자신께서 열심히 학습하시였을뿐아니라 아직 봉건륜리도덕관념에서 해방되지 못한 녀성들을 일깨워 글을 배워주시였다. 또한 천대받고 버림받던 우리 나라 녀성들이 제 이름조차도 변변히 가지지 못하고있는 사실하나를 놓고도 바로 이것이 오랜 세월을 두고 내려오던 우리 녀성들에 대한 봉건적예속의 산물이며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의 직접적결과라는것을 똑똑히 깨우쳐주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녀성대중속에서 부단히 정치선전사업을 벌리시여 그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시였을뿐아니라 대중을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 지하혁명사업을 하시다가 반동경찰에 체포되시였을 때 강반석녀사께서는 반일부녀회원들과 군중들에게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론리정연하게 해설하신후 반동경찰의 죄행을 폭로규탄하시면서 모두가 그이를 석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다. 녀사의 절절한 호소에 호응하여 부녀회조직과 광범한 녀성들은 인류가 낳은 위대한 혁명가를 석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섬으로써 적들로 하여금 군중의 기세와 수령님의 완강한 항거에 질겁하여 며칠후 그이를 석방하지 않을수 없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이러한 혁명투쟁을 조직지도하심에 있어서 언제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교양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부녀회 회장으로 녀성들속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하시는 한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도하시는 공산주의자들의 비밀혁명소조에 참가하시여 더욱 적극적으로 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 녀사께서는 수령님께서 조직하신 새날소년동맹과 반제청년동맹사업을 적극 도우시였으며 《새날》 신문을 배포하며 조직의 비밀문건을 전달하는 일, 무기운반과 적정탐지 등 어렵고 위험한 과업들을 맡아 훌륭히 수행하시였다.

특히 강반석녀사께서는 모든 힘을 다하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도우신것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을 일신상의 위험도 돌보시지 않

오시고 도우시였으며 수령님의 지도밑에 싸운 청년학생들의 혁명사업에 대하여서도 물심량면으로 적극 도우시였다. 녀사의 불면불휴의 간고한 투쟁은 대중들로 하여금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가지게 하였으며 더욱 힘차게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고무하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이처럼 무지와 몽매에서 헤매던 조선녀성들에게 민족적의식과 계급적각성을 불러일으키시였으며 그들을 조직에 묶어세우시고 혁명화하여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이끄시였다.

강의한 녀성해방투사이신 강반석녀사께서는 높은 공산주의적덕성과 불요불굴의 혁명적의지를 지니시고계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항상 군중속에 들어가시여 군중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면서 군중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시였다. 녀사께서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를 막론하고 항상 겸손하시고 소박하시였으며 인자하시면서도 강의하시였고 깨끗하고 알뜰하게 생활하시고 사업하시였다.

강반석녀사의 이와 같은 품성과 고매한 덕성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구현이며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녀성의 전형적모범이다. 이것은 우리 녀성들은 물론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따르고 본받아야 할 위대한 귀감으로 된다.

강반석녀사께서는 혁명가가 반드시 지녀야 할 품성인 강의한 의지의 소유자이시였다.

1917년 강동에서 일제경찰놈들에 의하여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체포되신후 어리신 자제분들만 데리고계시던 강반석녀사께서는 집에 야수적으로 달려들어 <비밀문건>을 내놓으라고 호통치던 일제기마경찰대놈들에게 단신으로 단호히 항거해나서시였다. 녀사의 항거에 질겁한 일제경찰놈들이 넋을 잃고 뒤걸음질을 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은 바로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는 강반석녀사의 강의한 혁명적의지앞에 놈들이 굴복하였기때문이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눈보라 울부짖는 음력 정월 초이튿날, 12살되시는 어리신 원수님을 혼자 고향 만경대에로 배움의 천리길을 떠나보내시였으며 아버님께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였다는 소식에 접하신 14살되시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천리길을 달려오셨을 때 저녁한끼를 같이 나누시고는 그날밤으로 어리신 두 동생들과 함께 머나먼 림강땅으로 떠나도록 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이처럼 어리신 원수님을 끝없이 사랑하시면서도 나라찾는 큰일과 사사를 가르시였으며 혁명의 요구라면 아드님에 대한 애정도, 남편의 서거에 대한 슬픔도 다 누르시고 결단성있게 행동하시는 강의하고도 고결한 품성을 지니시고계시였다. 그러하시기에 녀사께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신후 만리 이역땅에서 모진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면서도 오직 남편의 뜻을 이어 기어코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고야말겠다는 송죽같은 굳은 절개를 지키시면서 하루같이 싸워오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또한 웃어른들에 대하여 례절이 밝으시였으며 혁명동지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니시고계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 지니신 부모님에 대한 효성과 이웃과 동지들에 대한 사랑은 나라와 민족을 되찾고 전체 인민이 다같이 잘 살게 되는 새 사회를 건설할것을 갈망하는 공산주의자들만이 지닐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였으며 그렇기때문에 그 효성과 사랑의 힘은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그처럼 깊이 울려놓는것이였다.

강의한 녀성혁명투사이신 강반석녀사의 혁명가적품성과 높은 덕성은 자제분들에 대한 원칙적인 사랑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녀사께서 자제분들에게 돌려주신 사랑은 단순한 혈육의 정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숭고한 혁명위업에 바쳐진 위대한 사랑이였다.

항일무장대오를 갓 조직하신 수령님께서 집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병세가 몹

시 위독하신데다가 쌀마저 떨어져 모진 고초를 겪고계신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좁쌀 한말을 사가지고 찾아가셨을 때 강반석녀사께서는 아드님께 혁명위업에 전심전력할것을 엄하게 타이르셨다. 녀사께서는 병환으로 하여 생명이 위급하신 순간에도 자신보다 아드님을 생각하시였고 혁명을 먼저 생각하시였기에 찾아오신것만 해도 효성스럽고 반가운 일이였지만 혁명을 위하여 그토록 간곡히 타이르시였던것이다. 녀사의 자제분들에 대한 사랑은 곧 조국과 혁명에 대한 사랑이였으며 또 그만큼 자제분들을 한량없이 뜨겁게 사랑하시였던것이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깊은 우애의 정신을 지니시고계시였다. 녀사께서 보여주신 동지와 이웃에 대한 우애심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계급적우애심이였다.

녀사께서는 이웃집에서 돈 3원이 없어서 애쓰는것을 보시고 다른 사람한테서 꾸어다 주셨다가 돈쓴 사람이 빚을 물지 못하게 되자 아무말없이 자신의 치마를 팔아 빚을 물어주시였다. 이와 같은 고결한 성품이야말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계급적우애로부터 나온것이였다.

모진 고역과 기아에 허덕이면 한 아주머니가 부자집자식놈이 먹는 떡을 달라고 발버둥치는 자기 아이를 때리려고 할 때 강반석녀사께서는 가슴아픈 심정으로 요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아주머니! 때고파 우는것도 죕니까?…우리가 가난하게 살며 헐벗고 굶주리는것도 그놈들때문이예요. 아주머니의 아픈 심정이자 우리의 심정이지요.…

강반석녀사의 우애심은 바로 이와 같이 계급적우애심이였음으로 하여 떡 한개 아이들에게 쥐여주지 못하여 속을 태우던 수많은 아주머니들의 심금을 울려놓았으며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농민들의 피땀을 빨아먹는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에 대한 증오로 불타게 하였다.

이렇듯 강반석녀사께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녀성해방에 관한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실현하시는 과정에서 고귀한 업적들과 경험들을 쌓아올리심으로써 우리 혁명과 녀성운동발전에서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를 마련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 마련하여주신 이와 같이 고귀하고 위대한 혁명적재부와 튼튼한 터전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 *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며 탁월한 녀성해방투사이신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생애와 고귀한 혁명업적은 우리 혁명과 녀성운동발전을 위하여 무한히 귀중하다.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생애는 오로지 조국의 광복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압박받고 천대받던 조선녀성들의 민족적 및 사회계급적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신 영광스럽고도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생애이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오늘 비록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나 녀사께서 간직하셨던 고결한 혁명정신과 영생불멸의 투쟁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우리 인민은 조선의 위대한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를 무한히 존경하고 신뢰하면서 어머님의 모범을 따라배우고있다.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혁명업적과 고매한 덕성은 우리 녀성들과 근로자들이 본받아야 할 고귀한 모범일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녀성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오늘 우리 전체 녀성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와 방조 밑에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적녀성해방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으시였으며 녀성운동의 발전을 위한 튼튼한 터전을 닦아놓으신 강반석녀사께서 오직 조국의 광복과 녀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신것처럼 모두다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끝까지 싸워나아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계급교양은 공산주의교양의 기본

장 임 호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 5차 대회보고를 비롯한 불후의 로작들에서 계급교양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객관적요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하시여 계급교양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사회주의혁명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계급교양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것은 누구도 제기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문제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교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심으로써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이 절박한 문제를 력사상 처음으로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계급교양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이 계급교양을 로동계급의 리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와 함께 사상적요새를 승리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밝혀준 탁월한 사상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가장 철저한 혁명적립장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위대한 사상이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계급교양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의 혁명적진수를 더욱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현시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키며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계급교양은 공산주의교양의 기본으로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입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떠난 공산주의사상이란 있을수 없으며 계급교양을 떠난 공산주의교양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루며 따라서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들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62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이다.

계급교양사업은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이다. 그것은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과 혁명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증오하고 놈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할뿐아니라 낡은 착취제도와 지주, 자본가 등 반동계급을 때려부시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우자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루며 따라서 공산주의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다. 로동계급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한 낡은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인류의 최고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사명을 지닌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다. 로동계급은 오직 기아와 빈궁, 정치적무권리와 죽음만을 강요하는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건설하여야만 자기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다. 로동계급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착취와 압박이 없고 계급적차이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사는 사회이다. 공산주의사상은 바로 로동계급의 이러한 계급적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혁명사상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을 떠나서 공산주의사상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계급교양을 떠나서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계급교양이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공산주의교양의 목적과 관련된다. 공산주의교양은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견결한 공산주의자로 키우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근로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과 함께 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고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이 모든 공산주의교양의 내용들은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것들은 한결같이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에 기초하고있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공산주의교양의 모든 내용들에 일관되여있으며 그 밑바닥에 놓여있는 근본사상이다. 그러므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할 때에만 공산주의교양의 다른 과업들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을 떠나서는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계급교양이 공산주의교양의 기본으로 된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은 우리 시대의 객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현시기 국제무대에서는 혁명력량과 반혁명세력,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에 치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고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현대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공공연히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평화전략》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다. 놈들은 《평화》의 가면을 쓰고 진보적인민들의 반미투쟁기세를 거세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면서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를 리용하여 혁명적인민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려고 꾀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철저히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매개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을 건진하게 반전시켜나갈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는 제국주의 특히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반제반미투쟁의 전초선으로,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의 가장 치렬한 투쟁전선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에 미쳐날뛰는 한편 사상문화적침투를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있으며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이 또한 로골화되고있다. 나라가 분렬되여있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한 참된 공산주의자로 키워야 한다.

계급교양이 공산주의교양의 기본으로 된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진행하는 혁명은 곧 온갖 낡은것을 때려부시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입니다.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 진보와 보수와의 투쟁, 적극과 소극과의 투쟁,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와의 투쟁, 총체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투쟁, 이것이 우리가 하는 혁명투쟁의 내용입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위업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낡고 썩은것을 쓸어버리는 과정에서만 승리할수 있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57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위업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지주, 자본가 계급을 때려부시고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쓸어버리는 첨예한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승리할수 있다. 그것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야 하며 대를 이어가면서 끝까지 완수하여야 할 매우 어렵고도 복잡한 혁명과업이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낡은 사상 잔재가 의연히 남아있고 제국주의자들의 파괴암해책동과 사상문화적침투가 계속된다. 특히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는데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혁명적으로 단련되지 못한 새세대들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다. 따라서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 낡은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새세대들과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한 공산주의자로 키워야 한다.

이 모든 사실은 공산주의교양에서 계급교양이 기본으로 된다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의 정당성을 확증하여주고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교양의 내용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급교양에서 첫째로 강하게 취급해야 할 문제는 근로자들속에서 제국주의를 미워하는 사상을 키우는것입니다.

제국주의는 우리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입니다. 제국주의는 다 나쁘지만 특히 우리가 싸워야 할 제국주의는 미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72페지)

온갖 반동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미워하는 정신을 키우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확립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적관점, 혁명적세계관은 적을 미워하는데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지주, 자본가 등 계급적원쑤를 미워하는데로부터 낡은 착취제도를 때려부셔야 하겠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게 되고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혁명투쟁에 몸바쳐나서게 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속에서 우리의 주되는 투쟁대상인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높이는것은 계급교양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특히 지난날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놈들의 비호밑에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들씌웠으며 오늘 또다시 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에 미쳐날뛰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일본군국주의를 끝없이 증오하며 놈들을 반대하여 언제나 억세게 싸울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사상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키는것은 현시기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박정희괴뢰도당과 세계의 모든 반동들을 증오하며 놈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철저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있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교양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자본주의제도의 부패성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근로자들에게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는데서 남북조선의 판이한 현실을 가지고 교양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남북간의 판이한 현실을 통하여 새것인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낡고 썩어빠진 자본주의는 필연코 멸망한다는 진리를 똑똑히 알려줄 때 근로자들은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울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음으로 계급교양에서 중요한것은 군인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85페지)

자기 계급과 인민을 사랑하며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조국, 자기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는 정신은 로동계급에게 고유한 가장 고상한 품성의 하나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똑똑히 인식시키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계급교양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키워주는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에게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의 혁명적본질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킬수 있고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호보위할수 있다. 또한 나라살림살이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재능과 정열을 다바쳐투쟁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에게 혁명의 전도에 대한 신심과 락관주의를 길러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 위업의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혁명의 전도를 락관하는 정신이 없다면 혁명투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닥치게 될 곤난을 이겨낼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81페지)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것으로서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로동계급의 선진투사들이다. 그들은 사회발전법칙에 따라 제국주의는 멸망하고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제국주의교형리들과 계급적원쑤들의 어떤 탄압과 야수적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공산주의미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투쟁하는것이다.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계급교양을 통하여 그들에게 제국주의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똑똑히 인식시키며 그들을 혁명적락관주의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 *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과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인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반드시 당정책교양 및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92페지)

계급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자로 키우자는데 있다. 여기에서 근본문제로 나서는것은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진행정에서 그리고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모든 전선에서 언제나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로동계급의 계급적 관점과 립장, 혁명적인 리론과 방법이 전면적으로 심오히 구현되여있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모든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만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철저히 서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사업과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는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계급교양사업의 근본요구이다.

계급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특히 새세대들이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증오하고 놈들을 반대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투쟁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생동한 모범을 따라배우게 함으로써 그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 혁명적세계관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계급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계급교양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으며 그들을 혁명승리에로 동원할수 없습니다.》
(우와 같은 책, 485페지)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은 사상분야에서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수정주의를 비롯한 반동사상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철저히 무장시킬수 없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동시에 그들속에서 수정주의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수정주의를 비롯하여 온갖 반동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으며 수정주의사상독소의 침습을 철저히 막아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계급교양을 혁명적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키며 계급적각오정도와 의식수준이 각이한 사람들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진행하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을 비롯하여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리용할데 대한 문제 등 독창적인 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교양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현실에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의 장도에 오르신 첫시기부터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는 전행정에 걸쳐 시종일관 계급교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의 주객관적요구에 맞게 계급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내외의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근로대중의 계급의식을 높이는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관심을 돌리시였다.

특히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전후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는 어려운 투쟁속에서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현명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학적인 예지와 천리안의 통찰력으로 내외의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먼 앞날을 꿰뚫어보시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에 앞서 인민대중의 계급의식을 높이고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여 중첩되는 난관과 애로를 극복타개하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각 분야에 걸쳐 날카로운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되며 이는 우리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임무를 제기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499페지)

수령님께서 1955년 4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놓으신 불후의 로작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과 계급의식을 높이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그이께서는 이 로작에서 우리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우리 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 계급교양의 필요성과 내용, 기본방향 등을 뚜렷이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독창적인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후에도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당면한 요구와 전망적요구를 다같이 훌륭히 해결할수 있는 고리를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데서 찾으시고 이를 위한 과학적인 방침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계급교양사업을 정제건설, 혁명적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키며 그것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것, 이것은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전행정에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탁월한 방침이다.

계급교양을 전면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방침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시킬수 있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새 전쟁 도발에 그처럼 미쳐날뛰는 조건에서도 사회주의전취물을 굳건히 보위할수 있었다. 또한 수정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탕들을 쓸어버리고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수 있었다.

영명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상히 앙양된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 혁명과 건설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혁 그리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반영하시여 천리마운동을 발기하시고 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시였을뿐아니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시였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된 새로운 력사적환경은 계급교양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하루빨리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철저한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전개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전진을 보장할수 없으며 이미 얻은 승리를 공고히 할수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5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성과적으로 끝난 력사적전환의 시기였던 1958년말 불후의 로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과학적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독창적인 방침은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력사적과업을 앞에 두고 먼저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탁월한 방침이다. 그것은 또한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고 그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급속히 전진시킬수 있게 한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수정주의의 해독성이 극심하였으며 더우기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던 시기에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는 강령적교시를 하심으로써 근로자들 특히 새세대들과 인민군장병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전면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천재적인 사상과 리론, 탁월한 방침들을 천명하시였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관한 수령님의 창조적방침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사상령역에서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사람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영원히 해방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그것은 또한 기술혁명, 문화혁명과 함께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올바른 길을 밝혀준 탁월한 방침이다.

계급교양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방침들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철통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룩되였으며 극히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근로자들의 계급적각성이 높아지고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단결됨으로써 우리는 새 전쟁 도발에 미쳐날뛰는 미제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실수 있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사상독소의 침습을 미리막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를 창조하고 계속 혁명적대고조를 견지할수 있었다.

우리 인민이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계급교양에 관한 수령님의 창조적 사상과 리론, 과학적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계급교양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의 혁명적진수를 깊이 파악하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모두의 가장 영예로운 임무의 하나이다.

우리는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단결시킴으로써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아가야 할것이다.

나라살림살이와 절약투쟁

최 재 국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와 최근에 있은 여러차례의 교시들에서 절약투쟁을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약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이 랑비현상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며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원료와 자재를 극력 절약하며 원단위소비기준을 결정적으로 낮춤으로써 적은 로력과 원료,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데 대한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림으로써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빛나게 완수해야 할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와 사회의 재부를 계속 늘이는것과 함께 이미 창조하여놓은 재부를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14페지)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린다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 재산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와 인민의 재부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늘여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물질적기초인 사회주의적소유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꾸리며 있는 밑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이 일체 랑비현상을 없애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며 원가를 낮추어 국가축적을 확대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추가적인 투자없이 생산과 건설을 늘일수 있게 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향상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랑비를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관철에로 전체 근로자들을 힘있게 이끌어오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급속히 강화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도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무거운 임무와 방대한 혁명과업은 그 어느때보다도 전군중적운동으로 랑비를 반대하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깐지게 꾸릴것을 요구하고있다.

현시기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

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리는것이 특별히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그것이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는 믿음직한 담보의 하나로 되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일으키며 내부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며 엄격한 절약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35페지)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앞당겨수행하여야 할 보람찬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가 이 보람차고 성스러운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내부에 있는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여 더 많이 생산하는 동시에 이미 마련된 밑천을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리며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있는 원료, 있는 자재, 있는 설비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6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특히 오늘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여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진 조건에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만일 우리가 6개년계획기간에 해마다 강재를 1%씩만 절약하여도 그것으로 2만대에 가까운 뜨락또르를 더 만들수 있으며 전력소비를 1%씩만 낮추어도 그것으로 30만톤의 강재를 더 생산할수 있다.

이것은 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이 오늘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을 더 빨리, 더 잘 수행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리는것은 또한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직도 랑비하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랑비만 없앤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살수 있을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340페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오늘 우리나라에 마련된 경제적밑천은 비할바 없이 크며 우리 나라는 이미 중요공업제품 인구 한사람당 생산량에서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부분적으로는 따라앞서고있다.

그런데 우리 인민경제에서는 아직도 랑비하는것이 적지 않다. 우리가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랑비현상을 근절하며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효과있게 리용한다면 인민생활을 지금보다 훨씬 높일수 있다.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것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와 관련하여서도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미일반동과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분별없는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의연히 긴장하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원쑤들의 임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철저히 갖출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정세의 요구를 철저히 실현하자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래야만 나라의 축적을 부단히 늘여 우리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물질적준비도 더 잘해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

른 단위에서 랑비를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것이 우리 혁명과 건설을 빨리 다그쳐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현시기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 사업에 모두다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현시기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에 대하여서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재산을 탐오랑비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투쟁은 무엇보다먼저 사상전선에서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22페지)

국가사회재산을 애호하지 않으며 그것을 탐오랑비하는것은 자본주의사상의 표현이다. 따라서 랑비를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러자면 사상전선에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사상교양은 근로자들의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은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는 근본열쇠로 된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특히 랑비를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교시를 깊이 침투시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되게 하며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산주의교양 특히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의 재산이 곧 자기의 재산으로 되며 사회의 부가 늘어날수록 자기도 더 잘 살수 있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국가사회재산을 자기의것처럼 소중히 다루고 아껴쓰는 공산주의적기풍을 확고히 세울수 있다.

절약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상전선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원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개인리기주의사상을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할것입니다. 이런 사상투쟁이 없이는 결코 국가재산을 탐오랑비하는 현상을 없앨수 없습니다. 이것이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본문제입니다.》(우와 같은 책, 528페지)

사상투쟁, 이것은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쓸어버리는 힘있는 무기이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 국가사회재산을 자기의 물건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절약하지 않는 자본주의사상이 새로 생겨날수 있는 사회경제적근원은 없다. 그러나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머리속에 형성된 자본주의독소는 바로 아스팔트틈새로 돋아올라오는 풀과 같이 집요하고 지독하다.

그러므로 낡은 사상 잔재는 완강하고도 꾸준한 사상교양과 함께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성과적으로 극복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서 사상교양과 함께 국가사회재산을 랑비하는 온갖 그릇된 경향에 대하여 추호도 융화묵과함이 없이 제때에 심각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통제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아직도 사상적으로 개조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으며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자본주의사상잔재가 남아있는것만큼 사상교양 하나만으로는 탐오랑비현상을 완전히 없앨수 없으며 거기에 반드시 통제가 안받침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29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탐오랑비를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사상교양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이와 함께 통제를 배합하는것이 중요하다. 조그마한 자본주의요소도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인 요구이다. 만일 사람들의 의식속에 아직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통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질서와 규률이 해이되고 이런 름을 타서 불가피하게 개인주의와 리기주의,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 등 자본주의적사상요소들이 머리를 쳐들어 국가사회재산을 좀먹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장을 줄수 있다.

그러므로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로부터 기업소경영활동의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국가사회재산관리규정을 비롯하여 사회성원들의 공동질서를 밝힌 똑똑한 규정들을 잘 만들며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잘 지키도록 하는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산관리에서의 제정된 질서와 규률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때에는 경제적, 법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자재를 사장시키거나 랑비하는 현상과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하여야 한다.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통제사업을 강화하는데서 기관, 기업소 책임일군들이 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국가재정의 랑비는 그 대부분이 우리 일군들이 기업관리를 잘하지 못하며 국가기관들과 기업소들에 질서가 없는데서 생기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47페지)

기관, 기업소 지도일군들이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곳에서는 국가사회재산을 좀먹고 랑비하는 현상들이 나타날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일군들은 국가규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국가규률을 어기는 현상을 큰 수치로, 범죄로 알고 국가규정을 엄격히 지키며 국가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생산일면에만 치우치고 자재, 자금 및 로력 랑비현상과의 투쟁을 강하게 전개하지 않는 경향을 극복하고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며 계산과 통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기관기업소 지도일군들은 자재공급사업을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잘하여 있는 자재와 원료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자재공급계획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맞물려 세우며 자재공급에서 상사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의 재산을 사장시키거나 랑비하며 류용하는 현상을 없앨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제때에 원만히 공급할수 있다.

랑비현상을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는데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야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고 원가를 체계적으로 저하하는 문제도, 긴장된 로력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으며 제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일수 있으며 불합격품과 오작품을 내여 원료, 자재를 랑비하는 현상도 없앨수 있다.

그러므로 도처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리는것은 있는 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있는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이 건설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는것은 절약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하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는 목적은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자는데 있는것만큼 생산에 대한 모든 지출을 반영하는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는것이 필수적인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수 없다.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국민소득을 끊임없이 늘이며 축적과 소비를 계통적으로 장성시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물의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비생산부문인 예산제기관들에서 경비예산자금을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절약투쟁에서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경비예산기관들은 계획에서 불필요한 예비를 만들어두고 일을 헐하게 하려는 사상관점과 사업방법을 극복하고 군중과 토의하여 온갖 내부예비를 찾아내며 최대한으로 절약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이를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일 좋은 통제방법이 인민적감독입니다.》(《김일성선집》, 제5권, 201페지)

《우리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매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절약하고 검박하게 사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58페지)

혁명적군중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반랑비투쟁과 절약투쟁을 강화하여나가는것은 이 사업에서 성과를 달성할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근로대중은 모든 재부의 주인이며 관리자이다. 또한 생산의 목적도 근로대중의 복리를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근로대중이 국가재산을 랑비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응당한 의무로 된다. 뿐만아니라 광범한 군중이 동원되여 그 어디에서나 절약투쟁을 강화할 때 국가사회재산을 튼튼히 지켜내고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일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 광범한 군중을 인입시키며 그것을 군중자신의 사업으로, 전인민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하며 이 사업이 기관기업소로부터 인민반과 매 가정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진행되도록 짜고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서 재정통제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그이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은덕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배려

홍 준 표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고 우리 인민에게 끝없이 자유롭고 행복한 새 생활을 마련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며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강도 일제를 처부시고 조국을 광복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남조선인민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민족분렬의 비운을 쓸어버리고 남녘동포들에게 광명의 새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전반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가운데서도 언제나 남조선인민들에게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끝없이 고무하여주시였으며 그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하여 시종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였다.

참으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끝없이 고매한 덕성을 떠나서는 북반부인민들의 오늘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이 통일된 조국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래일을 생각할수 없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를 열렬히 흠모하면서 그이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싸워나아가는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휩싸여있으며 원쑤들의 가혹한 파쑈폭압속에서도 놈들을 반대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가고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전반을 령도하시면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고 도탄속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였으며 항상 육친의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남조선동포들이 겪고있는 이 참경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결코 분렬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있고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이 외래침략자들에게 갖은 민족적 모욕과 천대를 다 받고있는 이 불행한 처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의 어느 공산주의자도 조선의 어느 량심있는 민족주의자도 자기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4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우리 세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그이의 숭고한 공산주의적의무감과 높은 책임성,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의 학정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심려와 사랑으로 일관되여있다.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조국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나서는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서 언제나 그것을 조국을 통일하며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할데 대한 문제와 밀접히 결부시켜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북조선을 조선혁명의 기지로 인정하고 그것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는것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전국적으로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원칙적립장을 지켜왔다.》(우와 같은 책, 196페지)

조선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을 깊이 통찰하신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북조선에 강력한 혁명기지를 꾸리는것을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의 승리의 기본담보로 보시고 공화국북반부를 전국적판도에서 민족해방의 과업을 완수하고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할 튼튼한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과 정력을 다하시였다.

혁명기지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은 조선혁명을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완성하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복구하고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튼튼한 물질적밑천을 마련하시려는 그이의 원대한 구상에 기초하고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였다. 우리 나라는 더욱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한 자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되였다. 인민의 정치적자주성과 민족적존엄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게 되였다.

북반부의 위력한 혁명기지와 사회주의력량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으며 그들의 자유와 해방,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북반부의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면서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인식하며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남녘형제들을 언제나 잊지 말고 그들의 반미구국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지지성원하도록 교양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제침략자들에 의해 혹심하게 파괴된 경제를 복구건설할 때에도 항상 전민족의 리익과 장래발전을 생각하였으며 남조선동포들을 도와주는것을 자기들의 신성한 민족적의무로 여겨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과 정부의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실 때에도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 하나,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는데서도 하나의 관개공사를 하는데서도 북반부인민들의 행복한 생활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래일을 고려하시였다. 공장, 기업소에 들리시면 남녘형제들을 위하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고 지어 하나의 부두설비를 보시고도 앞으로 인천과 부산으로 구호물자를 실어나를 배길을 생각하시였다.

이렇듯 수령님께서 구상하시는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설계도에도 통일된 조국에서 남조선인민들이 북반부인민들과 같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높은 뜻이 담겨져있으며 비록 우리들이 덜먹고 덜입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일정한 지장을 받는한이 있더라도 남조선인민들을 하루빨리 구원하시려는 뜨거운 어버이사랑이 깃들어있다.

참으로 수령님의 모든 구상과 정책작성의 기저에는 언제나 통일적인 조선혁명이 놓여있으며 남조선동포들에 대한 뜨거운 동포애적심정이 절절히 흐르고 있는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는 남조선인민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시고 정확한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여 그들의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고귀한 은덕이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혁명의 옳은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가져야만 정확한 전략전술의 사상리론적기초를 가질수 있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혁명투쟁에서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일제와 미제에 의하여 60여년의 오랜 세월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여 온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계급적 및 민족적 각성을 높이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세계관으로 확고히 무장하는것은 그들자신이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진다. 더우기 이것은 미일침략자들이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감행하고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숭미사대주의와 공미굴종사상,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환상이 퍼지는 조건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지 않을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을 각성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대중속에서 미국에 대한 환상과 사대주의사상을 극복하며 〈반공〉사상을 뿌리뽑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97페지)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을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인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의 자주정신과 계급의식을 높이고 가장 정확한 혁명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체득하도록 깊이 배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외세의존사상은 인민들의 혁명적각성을 마비시킬뿐아니라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반하는 망국사상이라는것을 가르치시고 남조선인민들이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을 때만 이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길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근본문제를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에서 혁명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체득하고 혁명투쟁에서 어떤 립장과 태도를 견지하여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였다.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있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그들의 투쟁에서 빛나게 구현되고 있다. 주체사상은 그들의 심장속에 가장 귀중한 혁명의 재부로,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로 간직되고있다.

참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은 오늘 서울의 운수로동자들과 녕월의 탄부들, 지리산골짜기와 호남벌의 농민들, 속초와 남해바다가 어민들, 서울과 대구의 청년학생할것없이 모든 남조선인민들의 앞길을 태양과 같이 비쳐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써 암중모색하는 남조선의 수백만 대중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들에게 혁명하는 시대의 인민으로서 지녀야 할 정치적생명력을 넣어주심으로써 혁명의 길에서 굴함없이 싸워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이 옳은 투쟁강령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싸워나갈수 있도록 정확히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의 사회경제관계와 혁명의 주객관적정세, 계급적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 대상과 동력, 남조선혁명발전의 현단계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또한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준비하며 혁명투쟁을 전개하여나가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을 명시하심으

토써 혁명발전의 매 시기 남조선혁명운동이 곧바른 길을 따라 전진할수 있도록 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인 조국통일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원칙적립장과 합리적인 방안들, 조국통일을 위한 세가지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 등 통일도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빛나게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정확한 방침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기간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었으며 오늘 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그날을 눈앞에 바라볼수 있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간고한 시련속에서 언제나 희망과 신심을 잃지 않고 굳세게 싸워나가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으며 그들을 오늘과 같은 힘있는 력량으로, 혁명의 주인으로 키워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를 통일하고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할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당면하게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매우 좋으며 더욱 좋은 앞날이 약속되고있는 반면에 남조선형편은 실로 암담하며 인민들이 기아와 빈궁에서 허덕이고있습니다. 남조선동포들을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651~652페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배려는 우리 조국이 일제기반에서 해방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하였다.

일제가 모든것을 파괴하고 패주한 해방직후 우리의 전기사정이 매우 곤난하였을 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의 공장, 기업소들에 전력을 보내주시였으며 3.8선이남지역에 저수지물도 보내여 남조선농민들이 함께 쓰도록 배려하시였다. 비록 조국의 절반땅이 미제의 강점하에 있고 그 사회제도가 다를지라도 수령님께서는 압박과 기아에 신음하는 남조선인민을 잊지 않으시고 이러한 너그러운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던것이다.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수령님의 배려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더욱 전면적으로 베풀어졌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남반부지역에서 당 및 정권 기관, 사회단체들을 조직하여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도록 하시고 그를 위하여 4천여명의 우수한 당원들과 간부들을 파견해주시였다. 그리하여 남반부의 넓은 지역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정치, 경제적 지반은 청산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적 제도와 질서가 확립되였으며 인민들은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진정한 삶의 보람을 누리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후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던 재더미우에서 복구건설의 첫삽을 들던 어려운 시기에도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들을 실업과 기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조선에 극심한 식량위기가 조성되고 대부분의 농가가 기아선상에 놓이게 되였을 때에 절량민들에게 많은 식량을 공급할데 대한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또한 일자리를 찾아 헤매이는 수백만 실업자들과 거리를 방황하는 걸식아동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막대한 원호물자를 보내줄데 대한 조치를 강구해주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회의에서는

남조선의 령락된 민족공업과 농촌경리를 부흥시키며 도탄에 빠진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제대책을 취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만반의 조치를 강구해주시였다. 여기에는 전력과 석탄, 강재, 공작기계를 비롯하여 뜨락또르와 불도젤, 축력과 어로설비 등 막대한 량의 물자를 보내주며 공장과 주택을 건설해줄것이 예견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조종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가난한 주민들과 실업자들을 수억만리 외국자본가들과 농장주들에게 종신노예로 팔아넘길 때 그들을 공화국북반부에 받아들여 희망과 기능에 따라 일자리를 알선해주며 생활안정을 위한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도록 하시였다. 또한 조난당한 남조선어민들을 구원하여 병치료도 해주고 배와 어구들도 수리하여 고향으로 무사히 돌려보내도록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군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신 크나큰 배려에는 우리가 그 어떤 무거운 부담을 치르더라도 남녘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라면 모든것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그이의 한없이 고매한 뜻이 어려있다.

이렇듯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행복하게 사는것을 보실때마다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인민들을 생각하시며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뛰노는 북반부어린이들을 보실때마다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이는 남조선류랑고아들을 생각하시며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을 위한 수령님의 배려는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남녘동포들을 생각하시는 그이의 뜨거운 심정은 남반부에 고향을 둔 사람들에 대한 육친적배려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북반부에는 남조선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혁명을 위하여 자기 고향을 떠나 북조선으로 들어온 아주 좋은 동무들입니다. 이 동무들은 남조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우리 당의 귀중한 보배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무들이 앞으로 남조선에 나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선봉적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들을 체계적으로 교양육성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93페지)

수령님께서는 사선을 헤치고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온 동무들을 위하여 정전후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선참으로 송도정치경제대학을 세워주시고 학습과 생활 조건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돌봐주시고 몸소 그들의 학부형이 되시여 졸업식에도 참석해주시였다.

이것은 혁명의 대사변을 앞두고 남반부에 고향을 둔 동무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실천적으로 세련된 유능한 혁명가로 키우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또하나의 극진한 배려인것이다.

특히 간고한 시련속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수령님의 심려는 한량없이 크다.

수령님께서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굴의 투쟁을 벌리다가 놈들에 의하여 야수적으로 학살된 혁명가들에 대해 못내 가슴아파하시였으며 그들의 투쟁업적을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남조선의 지하와 산속에서, 감옥과 교수대에서 용감히 싸우고있는 혁명가들과 수많은 이름없는 영웅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계신다.

남조선혁명가들에 대한 수령님의 배려는 모든 남녘인민들에 대한 그이의 높은 신임과 육친적사랑의 표시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시기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의 길을 헤쳐나갈 새로운 국면을 열며 분렬로 인한 남조선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더욱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북적십자단체들사이의 회담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성의를 다하여 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분렬로 말미암아 인민들이 겪고있는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며 그것을 디딤돌로 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길을 헤쳐나갈것을 원합니다.》

수령님의 이 교시는 분렬된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고 생사기로에서 헤매이는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토록 깊이 심려하며 모색하고계시는 그이의 육친의 사랑으로 일관되여있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일련의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시여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마련하여주신 수령님께서는 어떻게 하나 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을 찾아주고 자유롭게 오가게 하며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려고 깊이 심려하고계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제기된 8개 항목의 구국방안에, 뒤이어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연설과 올해 신년사 그리고 외국기자들과의 담화들에서 평화통일의 계기를 성숙시키기 위한 일련의 주동적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립장과 방침을 다시금 천명하시면서 조국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문제를 풀기 위하여 남조선의 민주공화당, 신민당, 국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의 광범한 접촉과 대화를 진행할데 대한 주동적발기를 하시였다.

특히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제거하고 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도로서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맺으며 남북정치협상을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정전협정을 남북사이의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남북사이에 접촉과 련계를 강화하며 조국통일문제를 풀기 위하여 남북정치협상을 진행할것을 주장합니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으며 남북정치협상을 진행할데 대한 방안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모든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통일의 문을 열어놓기 위한 대담한 조치로서 현시기 조국통일의 유일하게 정확한 진로를 밝혀주고있다.

남북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철거한 조건에서 남북조선의 무력을 대폭 줄인다면 긴장상태는 가셔지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열릴것이다. 뿐만아니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에게 들씌워지고있는 무거운 군사비부담도 덜어줄수 있게 될것이며 남조선의 자원이 탕진되는것을 일정하게 막을수 있게 될것이다.

또한 남북정치협상은 남북간의 접촉과 련계를 실현하며 민족적 화목과 단결을 이룩하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마련할수 있게 할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한 남조선에서 지난날 나라와 민족 앞에 죄과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도 참다운 조선사람의 립장에 돌아서서 다같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다. 수령님의 이 방침은 전체 조선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게 하시려는 그이의 원칙적립장과 함께 죄과를 저지른 사람들도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나서게 함으로써 그들자신이 재생의 길을 찾게 하는 너그러운 조치인것이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모든 방안들과 조치들은 우리 당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해온 통일방안들과 더불어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서 그것은 민족의 념원과 운명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깊은 사려에서 출발하고있다. 여기에는 우리 조국의 륭성발전과 번영을 위한 근본리익과 남북조선인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지향이 전면적으

로 반영되여있다.

이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모든 구상과 사색은 언제나 조국통일과 련결되여있으며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고있는것이다.

참으로 남조선인민들이 휘황한 래일을 바라보면서 살며 싸워온 로정은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로 가득차있으며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위력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매국역도가 제아무리 인민탄압에 피눈이 되고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가로막으며 미쳐날뛰여도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해빛아래 반미구국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용감하게 일떠선 남녘땅형제들의 투쟁은 결코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 ❀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끊임없는 사랑과 배려는 언제나 혁명의 리익, 인민의 리익을 최고의 리익으로 삼으시고 조선혁명을 그 진두에 서시여 령도하시는 그이의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의 구현이다.

암흑의 땅 남녘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수령님의 극진한 배려, 이것은 오직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첫시기부터 항상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투쟁하여오신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 찾아볼수 있는 가장 고결한 공산주의적 성품이며 덕성인것이다.

여기에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적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을 유격근거지인민들에게 나누어주시고도 갖은 고초를 겪으며 엄동설한에 떨고있는 적통치구역내 인민들에게 천을 나누어주어 옷을 해입게 하시였으며 대원들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모포를 덮어주시고 련락떠난 대원들을 생각하시여 몇밤이고 지새우신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옮겨져있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베푸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배려는 남녘땅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데가 없으며 그이의 자애로운 사랑은 모든 남조선인민들의 가슴마다에 맥맥히 흘러들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배려를 심장깊이 새기고 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몸바쳐나설 불같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조선혁명의 유일한 령도자로 우러러받들면서 그이를 끝없이 흠모하고있으며 수령님의 품에 안겨 자유와 행복을 누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반미구국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미일침략자들과 그 2중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아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며 그이의 극진한 배려속에서 휘황한 전망을 안고 억세게 싸워나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그들이 영명하신 수령님을 모시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 그날은 조만간 오고야말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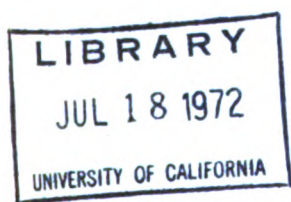
근로자 제 3 호(루계 360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 1972년 3월 1일 발행 • 1972년 3월 5일

ㄱ—2443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4 호

평 양 근로자사 1972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4 호(361)

차 례

인민들은 수령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서깊은 만경대에서 탄생하신 때로부터 영광의 60성상이 흘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날이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크나큰 경사이다.

이 력사적인 날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과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다함없는 존경과 충성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고있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60성상을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복무의 력사이며 우리 나라와 온 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보람찬 투쟁의 력사이다.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는 걸출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혁명적실천가의 력사이며 한없이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신 인민의 참다운 수령의 혁명력사이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울어진 조국의 운명을 건지시기 위하여 혁명의 장도에 오르신 때로부터 망국의 비운속에서 헤매이던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민족재생의 희망찬 서광이 비끼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의 력사는 위대한 투쟁과 창조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였다.

지난날 영명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탓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투쟁의 옳은 길을 찾지 못하고 암중모색하였으며 혁명은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지않으면 안되였다.

온 민족이 조국강토에 드리운 암운을 가셔버리고 나라와 인민을 생사존망의 기로에서 구원해줄 탁월한 수령의 출현을 애타게 기다리며 몸부림치던 력사의 시각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와 민족의 피타는 갈망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혁명의 길,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길에 나서시였다.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신 수령님께서는 열네살 되시던 해에 일제와 싸워 나라를 찾고야말겠다는 불타는 념원과 굳은 결심을 가슴에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때를 회상하시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열네살 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이렇게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김일성선집》, 제1권, 1963년판, 11페지)

맑스-레닌주의기치, 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투쟁의 길에 나서신 수령님께서는 벌써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조선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그 려정을 하나하나 마련하여나가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그 어떤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원쑤와의 판가리싸움을 해야 하는 실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류례없이 간고한 혁명전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붕괴과정을 촉진시키시였으며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반제혁명투쟁에서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펼쳐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가장 귀중한 혁명적재부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악한 일제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우리 인민을 식민지노예의 멍에에서 해방하신 혁명의 영재이실뿐아니라 새 사회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끄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고 개선하신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장구하고도 간고한 나날에 쌓이고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몸소 새 조국 건설의 진두에 서시여 우리 인민을 장엄한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총검의 숲을 헤치고 일제의 100만 대군을 때려부시는 투쟁도 매우 간고한 투쟁이였지만 그처럼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선진적인 자주독립국가로 일떠세우는 투쟁도 그에 못지않게 복잡하고 어려운 투쟁이였다. 해방후 우리는 나라가 갈라지고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직접 맞선 첨예한 정세하에서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철저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새 사회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해나가심으로써 우리 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굽임없이 이끄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경험에 토대하시여 해방후 지체없이 조선혁명의 전투적참모부이며 향도적력량인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시였으며 우리 국가와 혁명무력을 건설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과 시련을 몸소 타개하시면서 민주개혁을 철저히 수행하시여 매우 짧은 기간에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튼튼한 기지로 꾸려놓으시였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조선전쟁은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가리싸움이였으며 우리 공화국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인민들을 원쑤격멸의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여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놈들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 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 미일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가장 곧바른 길로 이끄시여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세상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힘있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경제와 기술의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세계선진국가대렬의 당당한 성원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지난날 뒤떨어졌던 탓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서 세계의

모든 대소민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떳떳하게 국제무대에 나설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이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력사적사변이며 자랑찬 승리의 총화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심각한 인간개조사업을 정확히 이끄시여 온 사회를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하나의 붉은 집단으로 튼튼히 꾸려놓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오늘 우리 인민은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던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정신적해방을 이룩하였으며 정치적으로 가장 발전된 인민으로, 비할바없이 높은 정신도덕적풍모를 가진 혁명적인민으로 되였다. 온 사회에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차넘치고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기백과 창조적정열이 약동하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업, 위력한 자위적인 방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선진적이며 문명한 사회주의강국으로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있으며 우리 인민은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당당한 주인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혁명적인민으로 일찌기 없었던 행복을 누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두 지역에서 각이하게 진행되는 혁명투쟁을 다 같이 정확하게 령도하심으로써 분렬된 나라에서의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다그쳐나가는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가시는 한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탁월한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남북조선인민들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고계신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우러러보면서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아가고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존경과 흠모의 정은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를 모시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그들의 지향은 더욱 증대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속깊이 뿌리박은 가장 숭고한 감정으로, 그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의지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려명은 더욱 밝아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투쟁력사는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서 조국과 민족 앞에 영생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영광스러운 력사인 동시에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서 전반적세계혁명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자랑찬 력사이다.

수령님의 장구한 기간의 혁명투쟁은 우리 나라, 우리 민족만을 위한것이 아니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들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뿐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곳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혁명의 근본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에

관한 과학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오시였으며 우리 혁명의 실천적 경험과 모범으로써 세계혁명운동을 고무하시고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서 쌓아올리신 영생불멸의 공헌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속에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높이 추대되고계시며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다함없는 존경을 받고계신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혁명적사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시대의 세계혁명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거대한 역할을 하고계시며 탁월한 공헌을 하고계시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세기에 걸치는 혁명투쟁력사는 걸출한 사상리론가의 력사이며 위대하고 풍부한 사상리론적재부를 쌓아올리신 찬란한 력사이다.

수령님께서는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문필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세계사적변화와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수많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에 과학적이며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 세계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오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비상히 풍부화시키시였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확신성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뚜렷한 진로를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주체사상의 창시, 이는 인류의 진보적사상발전에서 위대한 혁명적전환으로 되며 새로운 높은 단계로 된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지금 온 세상 혁명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힘있게 틀어잡고있으며 대륙과 대양을 건너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는 힘으로 퍼져나가고있다.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것은 시대의 추세로 되였으며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되고있다.

수령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며 내외의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지난날 우리 혁명의 내외적환경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대렬안에서 기회주의가 대두하여 사상적혼란을 일으켰으며 당안에 숨어있던 종파분자들, 수정주의자들이 머리를 쳐들고 음으로 양으로 우리 혁명을 방해해나섰다.

수령님께서는 그 어떤 풍파에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시종일관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하시였으며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이끄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오심으로써 불굴의 공산주의투사, 견결한 혁명가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에게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는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고계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수령님의 혁명활동로정은 인민에 대하여 무한히 인자하

시고 너그러우시며 겸손하시고 소박하신 진정한 인민적수령의 풍모와 덕성으로 수놓아져있다.

수령님께서는 항상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시면서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인민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이끌어주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가 애써 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인민들을 잘 살게 하자는것이고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는것이며 모든 사람이 잘 살수 있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62페지)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의 기나긴 나날 휴식도 밥잠도 잊으시고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정력을 다 기울여오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을 찾으시여 무릎을 마주하시고 나라일을 허물없이 상론하시며 인민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하기에 수령님께서 계시는곳에 인민들이 있고 인민들속에는 언제나 수령님께서 계시며 수령님과 인민의 마음은 하나로 잇닿아있는것이다.

우리 나라 그 어디를 가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란 없으며 우리 인민들 그 누구나 수령님의 높으신 은덕과 크나큰 배려가 가닿지 않는 사람이란 없다.

수령님의 사랑의 해빛은 나라가 갈라져 민족의 혈맥이 끊어진 남녘땅의 형제들에게도, 멀리 바다건너 이국땅의 우리 동포들에게도 따사로이 비치고 있다.

정녕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배려는 하늘의 높이나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의 전과정은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예술, 고매한 덕성을 다 지니신 로동계급의 걸출한 수령만이 쌓을수 있는 불멸의 공헌과 혁명적업적으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한평생을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인민의 오늘의 이 영광과 행복이 있으며 보다 휘황한 래일이 약속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그이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당, 조선로동당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워나아가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영예와 자랑은 끝없다.

우리 혁명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며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가장 영예로운 의무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그이의 혁명전사로 살며 일하는 끝없는 영예와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되게 하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대대손손 이땅우에 찬란히 꽃피워나아갈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창시자이시다

최 용 건

멀지 않아 우리 인민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이 민족적대의 경사의 날에 즈음하여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거부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남반부인민들, 60만 재일조선동포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 세계의 광범한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사들이 그이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올리고있으며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의 심장은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과 불보다 뜨거운 충성의 열정으로 세차게 고동치고있으며 그들은 주체의 나라, 자주, 자립, 자위의 조국에서 민족의 영예를 만천하에 빛내이며 행복하고 보람있게 사는 위대한 혁명적인민으로 된 그 근본에 대하여 깊이깊이 생각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우리 인민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의 비운속에서 피눈물을 뿌리며 살아왔다. 그때는 참으로 민족수난의 참담한 시기였다. 유구한 력사를 가진 조선은 하나의 살기띤 음산한 감옥이였고 이르는곳마다에서는 인민들의 피가 흐르고있었다. 일제의 수탈과 낡은 생산관계의 질곡으로 경제는 피폐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오래동안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 그처럼 가난하고 무력하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졌던 조선은 해방후 불과 2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기적인 락후성을 영영 털어버리고 위대한 창조와 변혁과 비약의 길을 걸어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은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위력한 경제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되였다.

오랜 세월 암흑과 무서운 가난속에서 노예살이를 강요당해오던 우리 인민은 오늘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무한히 부러워하는 행복한 인민으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반만년 력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민족사적전변이며 일대 변혁이다.

이것은 오직 위대한 사상과 심오한 혁명리론,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계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진두에 서시여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고 우리 혁명의 깊고도 억센 뿌리이며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인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여주셨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장도에 오르시여 가장 험난하고 간고한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헤쳐오시였으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걸으신 60성상의 나날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로동계급

의 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적복무의 력사이며 새 시대, 영광스러운 주체의 시대를 열어놓은 찬란한 승리의 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수행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내놓으심으로써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직접 조직령도하시여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의 대업을 이룩하시였다. 이 영광스러운 혁명의 나날에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빛나는 혁명전통, 가장 고귀한 혁명적재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맑스-레닌주의적주체의 사상체계와 불요불굴의 공산주의적투쟁정신,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군중로선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혁명전통이다.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인 이 전통은 조선혁명승리의 튼튼한 밑천이며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귀중한 공동의 재부이다.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에게는 오늘의 행복과 영광이 있고 더욱 광명한 래일이 있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약속되여있다.

1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오직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의 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창시될수 있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혁명승리를 위하여 무한히 귀중한 재부로 되는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전통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맑스-레닌주의리론과 혁명실천이 결합되고 혁명승리의 영광스러운 길이 처음으로 개척되는 위대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만 이룩된다.

우리 인민은 일찍부터 외래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그러나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기전에는 우리 당이 계승할만한 그 어떤 혁명전통도 이룩될수 없었다.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에 일어났던 의병투쟁, 애국문화정치운동과 독립군운동을 놓고보더라도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 자체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우리 당이 계승할만한 그 어떤 혁명적유산도 형성될수 없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벌어진 우리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도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함으로 하여 옳은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을 가질수 없었으며 결국 종파분자들에게 롱락당하고말았다. 종파분자들은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키워 혁명을 할 대신 외세에 의존하여 추악한 종파적목적을 실현하려고 날뛰였으며 각종 사이비리론을 퍼뜨리면서 대중을 혼란시켰으며 파쟁에 몰두하면서 공산주의대렬을 사분오렬시켰다. 그러다나니 초기공산주의운동 역시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될만한 아무런 유산도 남겨놓지 못하였다.

이 시기까지 참으로 조선혁명은 수령의 령도가 없음으로 하여 일대 시련을 겪고있었으며 그 전도는 극히 암담하

였다.

조선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며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줄 위대한 수령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었다. 그것은 실로 전민족의 피타는 갈망이였다.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였다. 이때로부터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옳은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을 가지고 승리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극히 가난하고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열렬히 싸운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태여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모님의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교양과 험한 풍랑과 시련으로 가득찬 자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일찍부터 남달리 뜨거운 애국의 정열과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시였으며 어리신 나이에 벌써 조국광복의 대업을 성취하고 이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부강한 인민의 새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식민지반봉건사회의 특수한 사회경제관계와 력사적조건에서 첨예하게 얽힌 민족적모순과 계급적모순을 해결하는 조선혁명은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는 어렵고도 복잡한 투쟁이였다.

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로부터 구체적인 투쟁 형태와 방법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완전히 새롭게 탐구하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만 하였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국제공산주의운동도 새로운 지도사상의 창시를 긴절하게 요구하였다.

1920년대말에 이르러 세계혁명운동은 전세계적규모에서 급속히 확대되여갔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운동이 민족국가단위로 각이한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진행되였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혁명의 지도력량이 현저하게 자라났다. 이와 같이 변화된 새로운 시대적조건은 매개 나라 혁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그 나라 혁명력량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새로운 시대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선행한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교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온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5페지)

김일성동지에 의한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는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근본지도사상이며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초석으로 되는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1930년 여름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위대한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시 우리 나라 사회경제관계와 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

하시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과 항일무장투쟁로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조선공산당창건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을 가장 정확히 규정하시고 반제민족해방혁명과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처음으로 조선혁명에 관한 과학적인 전략전술이 세워지게 되였으며 암흑속에서 방향을 몰라 헤매이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이때로부터 명백한 혁명로선을 가지고 투쟁에 나설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성격과 과업을 밝히시면서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한후 계속하여 사회주의혁명으로 넘어가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로선을 선명하심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력사상 새로운 유형의 사회혁명 즉 반제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서의 조선혁명의 성격을 정확히 인식할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처음으로 반제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서의 조선혁명의 성격을 밝히시고 조선인민의 주체적인 힘으로 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위대한 사상과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꾸리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로선들을 제시하시였으며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를 타승하기 위하여서는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한 무장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식민지민족들의 해방은 종주국의 프로레타리아혁명이 승리하여야 가능한것으로만 알려지고있던 종래의 견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민족해방의 새로운 독창적인 길을 밝혀준 천재적인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조선혁명에서 처음으로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확립하는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이 빛나게 해결되였으며 선행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본질적약점들이 완전히 극복되고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리론이 혁명적실천과 밀접히 결부되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은 우리 인민에게 뚜렷한 목표와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등대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불멸의 혁명적기치로 되였다.

오랜 기간 일제를 반대하여 피흘리면서 싸워왔지만 정확한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이 없었던 탓으로 하여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어온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이때부터 방향을 똑바로 잡고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가장 올바른 길, 위대한 혁명의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에 기초하시여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의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직접 조직전개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식민지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진행된 가장 간고한 민족해방전쟁이였으며 반혁명무력에 혁명무력으로 대항하는 민족해방투쟁의 최고형태로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확고한 지도적

중심을 이루었다.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고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여 전반적조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높이 받들고 동만과 남만, 중부만주와 북만의 넓은 지역들에서 활동하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그이의 령도밑에 항일무장대오를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세계력사상 그 류례가 드문 가장 간고하고 가장 장기적인 혁명전쟁이였다.

남의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로 강대해지고 방대한 폭압기구와 경제적잠재력, 수백만의 정규무력을 가지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있던 포악한 일제와 정면대결하여 판가리싸움을 벌리는 항일무장투쟁은 첫걸음부터 말로 다 표현할수 없는 간고성을 띠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혁명적군중의 지원외에는 아무런 지원도 없으며 유격전술이나 군사활동의 교범도 가지고있지 못한 조건하에서 군사정치활동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적과 싸워야만 하였다.

이 어려운 혁명전쟁은 오직 위대한 혁명사상과 지도리론, 확고한 혁명적원칙성과 불요불굴의 투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과 예리한 통찰력, 천재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높은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신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매 발전단계에 따라 주체적이며 가장 과학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으며 기회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확고히 마련해나가시는 한편 민족적 및 국제적 범위에서 모든 반제력량을 일제를 격멸하는데로 조직동원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반적조선혁명을 정확히 령도하시는 한편 친히 무장대오의 진두에 서시여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직접 조직령도하시여 모든 곤난과 시련을 헤치시고 투쟁을 승리에로 인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의 총적임무와 당면한 과업들을 정확히 결합시키시였으며 유격전쟁에 관한 전략전술을 독창적으로 창조하시고 그를 가장 훌륭히 구현하심으로써 수적으로나 기술적장비에서 비할바없이 우세한 적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령활무쌍한 전법과 신출귀몰한 유격전술로 걸음마다 적을 격멸소탕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유일중심으로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뭉친 혁명대오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은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한 중요한 요인이였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오직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의 중심에 단결하여 유일적인 령도밑에 싸워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였다. 이 력사의 교훈을 통절히 느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영명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모신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끝없는 행복으로 여기였으며 그이의 령도밑에서만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일편단심 그이께 충직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신뢰하고 존경하며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 의지로 굳게 뭉쳐 오직 그이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을 자기들의 필생의 혁명임무로 여기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떤 명예도, 직위도 요구하지 않았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로서 그이를 몸가까이 모시고 조선혁명을 위하여 힘껏 싸우는것이였다. 그들의 한결같은 열망은 그이를 모시고 싸우다가 자기 한몸 죽어도 그이께서 싸우고계시는 백두산에 묻히고싶은 그것이였다. 남만에서 활동하던 동무들도, 북만에서 투쟁하던 동무들도, 국내각지에 파견되여 활동하던 동무들도 마음은 언제나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로만 쏠리고있었으며 그들의 심장은 언제나 모든것을 다바쳐 그이께 충성다하려는 열정으로 뜨겁게 끓어번지고있었다.

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며 행동강령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혁명로선과 방침, 그이의 명령과 지시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깊이 연구하여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였기때문에 천고의 밀림속에 홀로 남아 수십일씩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연명할 때에도, 원쑤들의 철창속에서도, 단두대의 이슬이 되는 마지막순간에도 굴함없이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살며 싸웠으며 그이를 위하여 한몸을 초개와 같이 바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좌우경기회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반혁명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다.

실로 항일무장투쟁대오안에는 백전백승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인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만을 알고 오직 한마음 그이께 충성다하는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찼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두다 불사조처럼 용감히 싸웠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5성상에 걸친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여 《무적황군》을 자랑하는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였다.

참으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조국을 광복하시여 암흑속에서 헤매이던 조선에 약동하는 생활을 마련하여주신 수령님의 위대한 공적은 불멸의 금자탑으로 영원히 높이 솟아 온 누리에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시여 승리한 항일무장투쟁의 전 행정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승리한 로정이였으며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만이 지닐수 있는 령도예술과 공산주의적덕성을 집중적으로 구현한 영광찬란한 력사이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이 위대한 혁명투쟁,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그 내용이 비상히 풍부하고 다면적이며 심오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전통은 맑스-레닌주의 기치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선혁명의 승리의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영웅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과 고귀한 경험과 업적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92폐지)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계승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항일유격대의 사상체계를 계승하며 그 우수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계승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66폐지)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그 지도사상에 있어서, 그 형태와 규모에 있어서, 그 목적지향성과 조직성에 있어서 그리고 그 업적에 있어서 비할바없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투쟁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주체의 사상체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이 1920년대의 투쟁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은 그것이 바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진행되였다는데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과학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고상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으며 사대주의, 종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세우시였다.

수령님의 령도밑에 온갖 기회주의와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이 보장되고 사람들의 민족자주의식이 높아졌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에 조선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주성의 원칙에서 독자적으로 풀어나가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혁명적원칙들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시고 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원칙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부합되는 한 그 어떤 기존 명제나 공식에 조금도 구애됨이 없이 가장 과학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과 투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조선인민혁명군과 인민들을 능숙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독창적인 조선공산당창건방침, 로동계급의 새로운 형태의 주권창설의 길을 밝히시여 국가와 혁명에 관한 리론을 가일층 발전시키신 인민정권건설로선과 혁명적인 원칙을 가장 철저히 구현한 인민무력건설방침 등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나라 혁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그를 고수발전시키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담당수행할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일관하게 투쟁하심으로써 수많은 혁명투사들과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시여 혁명의 골간부대를 튼튼히 꾸리시고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쌓으시였으며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 모든 애국적인민들을 조선혁명의 전략전술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들을 위대한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튼튼히 묶어세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힘으로 창조적으

로 풀어나가도록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을 끊임없이 교양하시였다.

그리하여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자주적립장, 창조적립장이 이루어졌으며 혁명투쟁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가 서고 주체로선이 확고히 관철되게 되였다.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주체의 전통은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오랜 기간에 걸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튼튼히 마련되였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끝없이 귀중한 밑천이며 우리 인민이 대를 두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야 할 혁명의 재부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 고상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의 전형을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맑스-레닌주의적신념을 가지고 백절불굴의 투쟁을 전개한 항일빨찌산의 혁명정신을 반드시 계승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71페지)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에 필승의 신념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 등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의 가장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의 진수를 이룬다.

불멸의 업적으로 가득찬 수령님의 혁명투쟁로정은 혁명에 대한 그이의 무한한 충실성,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굴함없이 싸워오신 그이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빛나는 력사이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요구라면 사생결단의 준엄한 마당에서도 한몸의 위험을 돌보시지 않으시였으며 백절불굴의 강의한 혁명정신과 헌신성을 발휘하시여 조선혁명앞에 가로놓여있던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제때에 가장 정확하게 풀어나가시였다.

그리하여 그 무수한 난관과 시련의 고비들을 뚫고 넘어야 하였던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에로만 이끌어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5성상에 걸치는 항일무장투쟁의 준엄한 나날 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힐줄 모르는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로 교양하시였다.

수령님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인간의 상상을 뛰여넘는 그러한 험난한 투쟁의 길에서 난관과·시련으로 잇닿아진 간고한 나날에도 굴함없이 승리를 확신하고 용기백배하여 일제와 싸워 승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은 그 내용의 풍부성과 심오성에 있어서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의 빛나는 모범이며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른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면서 무한히 심오하고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고귀한 투쟁경험과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일제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민족해방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선혁명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심과 함께 민족해방혁명에서 무장투쟁의 선구자적모범을 보여주시고 세계피압박피착취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크게 고무하시는 가장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민족적 및 사회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개된 민족해방전쟁이였으며 무장투쟁을 새롭게

개척해나가면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했던 실로 복잡하고 어려운 투쟁이였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은 상비적무력에 의한 무장투쟁과 기타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투쟁 즉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적투쟁과 비합법적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일민족해방혁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일제를 패망시키기 위한 이와 같은 항일혁명투쟁행정에서 당 및 인민정권건설에 관한 사업경험, 대중단체건설경험, 혁명무력건설과 군사활동 경험 그리고 통일전선사업경험 등 실로 혁명투쟁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풍부하고도 다방면적인 고귀한 투쟁경험들이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면서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전형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을 위해 철저히 복무하며 대중에 의거하며 대중의 창조력을 동원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계승하여오는 우리 당의 전통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61페지)

공산주의적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장 철저히 체현하고계시는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날부터 사업 방법과 작풍문제를 대중지도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혁명적군중관점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전형을 창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혁명적군중로선의 기본요구는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대중을 교양하여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혁명사업을 진행해나가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설복과 교양을 기본으로 하며 우가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며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며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등 가장 혁명적이며 가장 과학적인 대중지도방법을 확립하심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로동계급적인 겸손성과 소박성, 공산주의적인 인간성과 높은 문화성, 혁명적기풍과 이신작칙 등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인민적사업작풍의 전형을 창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은 공산주의자들이 대중지도에서 언제나 본보기로 삼아야 할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혁명의 간고하고 준엄하고 영광스러운 나날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것으로 하여 그리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애국자의 불굴의 투쟁의 찬란한 력사이며,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으로 수놓아진 불멸의 영웅서사시인 그이의 혁명력사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음으로 하여 그 내용이 매우 심오하고 풍부하며 영원한 생활력과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할바없는 큰 감화력을 안겨준다.

그러기에 우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물론 싸우는 세계 여러 나라 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여기고있으며 사업과 생활에서 투쟁의 교과서로, 귀감으로 삼고있는것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

명루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전력사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거창한 투쟁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마련해주신 혁명의 깊고 억센 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있었기때문에 우리는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과 강력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와 당의 인전대들, 일당백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을 튼튼한 토대우에서 지체없이 창건하고 극히 짧은 기간에 불패의것으로 공고발전시킬수 있었다.

또한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모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튼튼히 세울수 있었다.

특히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으며 힘겨운 결사전을 벌리는 시기였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 인민과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있었기때문에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비롯한 16개국 무력침공자들을 쓸어버리고 혁명의 전취물과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지켜낼수 있었으며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의 가장 흉악한 원쑤인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전후 온갖 시련과 풍파를 뚫고 단 몇해동안에 세계전쟁력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피해를 말끔히 가서버릴수 있었으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위대한 투쟁에서 참으로 커다란 승리와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여있으며 사람들은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전사로서의 높은 자부심과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끝없는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싸우고있다.

력사의 가장 참담한 수난자였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길을 따라 인류의 최고리상을 선봉에 서서 실현해나가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이 계승한 혁명전통의 빛나는 열매이며 그 불패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는것이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위대한 승리는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도록 가장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이다.

해방후 우리 당의 력사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킨 자랑찬 투쟁력사이며 이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가장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이 가

지는 커다란 혁명적의의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일찌기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가며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를 구현하시여 혁명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영원히 꽃피워나가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언제나 혁명전통에 튼튼히 의거하며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도록 하는것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혁명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혁명전통은 혁명과 건설의 전행정에서 일관하게 지침으로 삼아야 할 혁명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 혁명적인 투쟁원칙과 과학적인 투쟁방도들을 주는 동시에 혁명력량장성의 뿌리로,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이 발휘하는 사상정신적힘의 무궁무진한 원천으로 된다.

때문에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언제나 혁명전통에 튼튼히 의거하여야 하며 그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조선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신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위대한 지도사상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 원칙과 방도에 기초하여 혁명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확히 수립하고 대중을 이끌어 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혁명전통에 기초하시여 혁명의 전략전술을 가장 정확하게 세우시였으며 그것을 혁명실천에서 빛나게 구현해나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독창적인 건당, 건국, 건군 방침, 오래동안 무르익혀오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원대한 구상에 기초하여 해방후 프로레타리아독재체제의 총체를 정연하게 세우시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가장 과학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과 그 실행방도들을 내놓으시였다.

해방후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적민주기지창설로선, 새 형태의 인민정권건설방침과 민족통일전선로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사회주의문화건설방침,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방침, 세계혁명의 기본전략과 반제반미투쟁전략, 자위적인 군사로선과 과학적이며 공산주의적인 대중령도방법 등은 모두 항일혁명투쟁시기 그이께서 내놓으신 혁명근거지창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혁명력량편성에 관한 위대한 사상, 독창적인 경제사상과 혁명적인 문화건설에 관한 사상, 철저한 반제혁명사상, 계급로선과 군중로선,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대중지도에 관한 사상 등에 기초한것이며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신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승리의 길을 개척하시면서 창시하신 독창적인 혁명사상과 심오한 혁명리론, 끝없이 고귀하고 무한히 풍부한 혁명투쟁경험들을 혁명발전의 매 단계, 매 시기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정확히 구현하고 빛나게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손수 키우신 혁명적골간에 의거하여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가도록 하시였다.

혁명력량은 빈터전에서가 아니라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력사적

시기에 수령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골간과 혁명의 대중적지반에 의거하여 자라난다. 이것은 주체적혁명력량장성의 일반적합법칙성이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내놓으신 혁명력량편성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높이 받들고 해방후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하기 위하여 진공적으로 투쟁하여왔으며 이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오늘 항일무장투쟁시기 수령님께서 몸소 키워주신 혁명골간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혁명대오는 해방후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검열되고 단련된 새로운 수많은 혁명간부들로 확대강화되였으며 그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언제나 주동적으로 빛나게 해제껄수 있는 필승불패의 전투대오로 자라났다.

또한 우리 나라에 수립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에 토대하여 로농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유일중심으로, 그이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는 강철의 혁명대오로, 언제나 승리하며 전진하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빛나는 구현이며 그 계승발전을 위한 투쟁이 가져온 가장 고귀한 결실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호보위하고 그것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종파분자들과 수정주의분자들을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전통을 헐뜯고 그 계승발전을 극력 반대한것은 종파분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전통을 옹호보위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파분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가장 날카롭고 원칙적인 투쟁을 끊임없이 벌리오시였다.

이 투쟁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매우 간고하고 심각한 투쟁을 동반하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온 종파의 뿌리가 매우 깊었으며 그들이 남을 등에 업고 안팎의 원쑤들과 손을 잡고 반당반혁명적인 책동을 가장 집요하고 악랄하게 감행해온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종파는 벌써 공산주의운동의 초기부터 나타나 서로 령도권을 쟁탈하기 위한 파벌싸움을 오래동안 벌려왔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해방후에도 우리 혁명대렬안에 기여들어 종파활동을 계속 악랄하게 벌렸으며 조선혁명발전에 헤아릴수 없는 손실을 끼치였다.

종파분자들은 례외없이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거부말살하려고 책동하였다.

혁명을 파괴하고 나라를 팔아먹기 위하여 혁명전통을 가장 악랄하고 집요하게 반대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적발폭로분쇄하고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튼튼히 옹호고수하는 투쟁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였다.

그러나 이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장기간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시며 조선혁명을 계속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전통을 반대하는 이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제때에 적발폭로하는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시는 한편 종파분자들이 끼친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투쟁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혁명전통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귀중히 여겨왔으며 수령님의 부름에 언제나 끝없이 충직해온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이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내외원쑤들의 준동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혁명전통을 튼튼히 고수하였으며 그것을 더욱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혁명적기세로 진진, 진진, 투쟁 또 전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이 세찬 혁명의 불길속에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은 산산이 쪼각나고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온 종파는 말끔히 가셔졌으며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유일중심으로, 그이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공고하고 완전한 통일단결을 실현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 당 건설력사에 영원히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가장 빛나는 성과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위력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경험은 혁명전통교양이 직접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새세대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비할바없이 큰 감화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0페지)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깊이 인식시키고 그이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끝없이 고귀하고 무한히 풍부한 혁명투쟁경험, 숭고한 덕성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가장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특히 그것은 혁명투쟁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것은 또한 당을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울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혁명전통교양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하도록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혁명전통교양을 당조직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고 전당에 정연한 혁명전통교양체계를 세웠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벌려왔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전개된 혁명전통교양은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더욱 똑똑히 알고 어떤 풍파속에서도 혁명전통을 옹호보위하게 되였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는 참된 혁명가,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자라나게 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와 천리마운동의 가일층의 심화발전을 위한 확고한 밑천으로 된다.

참으로 심오한 혁명사상과 혁명리론, 탁월한 령도력과 숭고한 덕성을 다 겸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마련해주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있었기때문에 우리 당과 인민은 안팎의 원쑤들의 발악적인 공격도, 배신자들의 파괴책동도, 력사가 물려준 락후성으로 인한 난관도 다 물리치고 험산준령을 넘으면서 오늘의 높은 승리봉에 오를수 있었다.

혁명적실천과 력사적경험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라는 것과 이 빛나는 혁명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의 모든 활동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혁명에 대한 온갖 그릇된 현상과 날카로운 투쟁을 벌리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이 귀중한 혁명의 진리를 잊지 않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튼튼히 고수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그이께서 개척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것이다.

3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예이며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이 혁명의 새로운 시원을 열어놓은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형성된 자체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는것은 혁명을 계속 승리적으로 수행하여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왜 우리는 혁명전통을 계승해야 하는가? 혁명전통을 계승해야만 선렬들이 과거 혁명투쟁에서 승리한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을 굳게 할수 있으며 매개 사람들에게 열렬한 애국심과 혁명적투지를 북돋아줄수 있습니다.》(《김일성선집》, 제5권, 1960년판, 503폐지)

《…우리 선렬들의 항일투쟁의 전통을 계승하는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영광이며 승리의 담보입니다.》(우와 같은 책, 506폐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수 있으며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혁명적원칙을 지키고 혁명을 동요없이 해나갈수 있다.

또한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야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대를 이어가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다.

혁명전통을 거부하게 되면 혁명은 전진을 멈추게 되며 그 명맥은 영영 끊어지게 된다.

혁명전통에 대한 태도문제는 혁명에 대한 근본립장을 표현하는 원칙적문제이며 맑스-레닌주의와 기회주의, 혁명가와 혁명의 배신자들을 갈라놓는 기본척도의 하나이다.

그것은 이 문제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는가 중도에서 쥐여버리는가 하는 혁명위업의 전도와 당의 존망,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도 혁명의 도상에 있으며 혁명적폭풍의 시대에 살고있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세계혁명의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앞으로

도 간고한 투쟁을 해야 한다.

오늘날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는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끊임없이 혁명대렬에 보충되고 세대교체가 부단히 진행되고 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계속되며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집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을 혁명전통으로 교양하여야만 그들을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키울수 있으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67페지)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했고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나서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화할데 대한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제기하고있다.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혁명전통으로 잘 교양하여야만 수령님께서 내세우신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수 있으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수 있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젊은 세대들이 혁명전통으로 무장하지 않고 그것을 계승발전시키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혁명의 장기성과 간고성 앞에서 권태와 동요를 나타내고 혁명투쟁을 포기하게 된다.

우리는 젊은 세대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가며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은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해나가는데 필요한 사상과 리론, 공산주의적혁명정신과 혁명가적품성,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생동한 력사적사실과 전형적모범에 기초하여 체득시키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독자적인 체계이며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의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인민경제도 더욱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데서 기본은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시면서 영생불멸의 혁명전통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학습시키는것이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숭고한 덕성을 따라배우게 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혁명투쟁시기 수령님에 대한 혁명선렬들의 무한한 충실성을 본받게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계승과 관련하여나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업은 혁명전통을 거부하는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혁명전통을 튼튼히 옹호고수하는것이다.

수정주의의 반동적본질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것은 혁명의 뇌수인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는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우선 수령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을 거부하며 말살하려고 책동한다.

수정주의자들이 혁명전통을 거부말살하려는것은 그들이 혁명을 거부하는 근본립장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수정주의진흙탕속에 빠지게 되면 근로자들의 건전한 혁명의식은 마비되고 부화타락한 자본주의 사상의식과 생활양식이 판을 치게 되며 혁명의 전취물은 위

험에 빠지고 혁명은 대가 끊어지게 된다.

력사적경험은 혁명전통을 거세하고 말살하려는 수정주의가 결국에는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허물어버리고 사회주의를 망쳐버리며 자본주의를 복구하는데로 나가는 위험한 결과를 빚어낸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혁명전통을 거부하는 수정주의자들의 반동적책동에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 어떤 사소한 수정주의적요소라도 절대로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내부에서도 생겨나지 못하도록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수정주의사상이 발붙일수 있는 부르죠아사상,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그릇된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야 한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혁명전통을 실지 사업과 생활에서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것이다.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은 사람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참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과정으로 되여야 하며 실생활과 결부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혁명전통교양의 생활력이 사람들의 사상과 도덕, 경제와 문화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의 부단한 혁신과 일대 비약에서 나타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함으로써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영원히 빛내여나가야 한다.

* *

지금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눈앞에 두고 온 나라는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그리하여 천리마조선의 빛나는 력사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들로 수놓아지고있다.

우리 천리마시대의 한해가 보통때의 수십년에 맞먹는다면 이 한해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왕성한 창조와 혁신의 해로, 가장 위대한 사변들로 충만된 가장 영광스러운 해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공업화의 터전우에, 새로운 위대한 변혁을 이룩할 1970년대초에, 로동당시대의 영웅서사시적력사에 또하나의 가장 빛나는 충성의 높은 금자탑을 쌓아올리고있다.

또한 우리 인민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이 장엄한 현실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교양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높은 사상정치적수준과 한없이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이 계승한 혁명전통은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으며 또 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이 우리 혁명발전과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며 우리 사회의 전진운동을 강력히 추동하는 힘의 원천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가며 튼튼히 지키고 해와 달이 다하도록 빛내여나갈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과 더불어 그이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영생불멸할것이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김 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에 걸친 혁명활동을 통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그를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발전시키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도 일제를 쳐물리치시고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였을뿐아니라 진정한 인민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여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참다운 조국을 가지게 되였으며 착취와 압박, 예속과 굴욕, 빈궁과 락후에서 영원히 벗어나 부강하고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인민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반세기에 걸친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곧 우리 인민의 진정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고 그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력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에 뿌리를 둔 참다운 인민의 국가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얻은 위대한 혁명적전취물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불패의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밑에 세계의 대소국가인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떳떳하게 나서게 되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수반이시며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면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와 감사의 정을 담아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으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이께 영원히 충성다할 불타는 결의에 가득차있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권문제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대중의

민족적 및 사회적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주권문제를 옳게 풀어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 걸쳐 주권문제와 국가건설문제에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이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처음으로 인민정권에 관한 탁월한 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정권문제를 옳게 풀기 위하여서는 해당시기의 혁명의 성격과 임무, 계급관계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정권형태를 규정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첫시기에 이미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당시의 계급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새로운 정권형태로서의 인민정권에 관한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의 이 사상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이께서 집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과학적으로 정식화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과 사회경제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앞으로 세워야 할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혁명정부로 되여야 한다는 로선을 내놓았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38페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혁명의 성격과 임무, 그 사회의 계급관계에 완전히 부합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정권형태를 밝혀주고있다.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의 동력으로 되며 여기에서 로동계급은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대변하고 모든 근로대중을 조직령도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유일한 계급으로서 사회주의혁명시기에는 물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도 령도계급으로 된다. 이러한 력사적환경과 혁명력량편성에서의 특성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정권의 새로운 형태를 요구하였다.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복잡하게 엉켜져있고 혁명의 사회계급적지반이 비할바없이 넓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의 조건에서는 선행시기의 리론만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옳은 해답을 줄수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력사적조건이 제기하는 이러한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제민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새로운 정권형태로서 인민정권에 관한 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인민정권은 우선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민주주의정권,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으로서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을 자기 임무로 한다. 인민정권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무기로 될뿐아니라 그것이 발전하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주의혁명의 무기로도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이 혁명의 발전에 따라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합법칙적과정을 과학적

으로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민주주의정권으로서의 인민정권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한 다음에는 인민대중을 로동계급과 빈농민의 최종목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로동계급의 확고한 령도적지위는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이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민주주의혁명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령도적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대중을 한층더 튼튼히 묶어세우면서 계속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데로 넘어간다. 사회주의혁명의 전제조건이 마련되여 정권의 계급적기초가 강화됨에 따라 민주주의혁명을 위한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통일전선으로 발전되고 인민정권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권으로 발전하게 된다.

력사적경험은 인민정권이 이와 같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것이 발전하여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우월한 정권형태라는것을 실증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인민정권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은 주권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새로운 발전으로 되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 발전을 위한 탁월한 기여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권문제, 국가건설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신 또하나의 불멸의 공헌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건설의 원칙과 국가활동의 지도적지침을 밝히신것이다.

로동계급의 국가가 어떤 원칙에서 건설되여야 하는가 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높여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근본문제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건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근본원칙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국가가 당의 로선, 정책의 집행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며 그 계급적성격을 철저히 견지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 당의 유일한 령도밑에 모든 국가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72페지)

로동계급의 국가는 수령의 혁명사상의 구현인 당의 로선, 정책을 집행하는 혁명의 무기이다.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당의 조직적의사의 체현자인 수령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고 새 력사의 보람찬 창조자로 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사회발전법칙에 기초한 혁명리론과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로써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며 투쟁을 승리에로 이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국가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받음으로써만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옳게 수행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국가가 그 창건자인 수령의

혁명사상으로부터 리탈될 때 그는 변질할 위험을 면할수 없으며 본래의 사명을 옳게 수행할수 없다.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건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사상은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기초우에서 내놓으신 탁월한 사상이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에 전적으로 맞는 독창적인 국가건설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국가활동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규정하심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가 자기의 사명을 가장 정확히 수행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3페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는것은 제국주의와 장기간 대치하여 민족국가단위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조건에서 혁명발전의 필연적요구로 된다.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만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나갈수 있으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다.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만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는 당의 령도밑에 자기 정책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관철할수 있으며 대외관계에서도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을 행사할수 있다.

경제에서의 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이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적번영의 기본담보이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에 추종할수 밖에 없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나라의 모든 자원과 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민족들간의 불평등의 실제적기초인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국방에서 자위는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경제적자립의 군사적담보이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나라와 민족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킬수 있는 자위적인 국방력이 없이는 자주, 자립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현실은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이 사회주의국가가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확고한 지도적지침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이 원칙은 일찌기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사대주의, 교조주의와의 장기간에 걸친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비로소 내놓으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로동계급의 국가활동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시고 그를 구현한 국가기관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국가활동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한 원칙은 로동계급의 국가의 인민적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정권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정권기관의 특징은 인민자신이 자기의 손으로 조직하였으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정권이라는데 있습니

다. 이 정권기관은 인민과 밀접한 련계를 맺고있으며 인민에게 의거하여 사업하며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고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은 자기 사업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참가시키면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사업하는 정권기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34페지)

로동계급의 국가는 반인민적폭압기구인 착취계급의 국가와는 달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손으로 조직되고 그들자신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에게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국가이다. 그러므로 대중을 위해 복무하고 대중을 교양하여 묶어세우며 대중에 의거하여 사업할데 대한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인민의 국가인 사회주의국가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요구이다.

사회주의국가는 혁명적군중로선을 계급로선과 밀접히 결부하여 관철하여야 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착취계급에 대한 독재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국가는 자기 활동에서 반드시 독재와 민주주의,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옳게 결합하여나가야만 인민적국가의 본성에 맞게 혁명적군중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국가활동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한 원칙은 수령님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군중로선의 전통에 그 력사적뿌리를 두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국가 기관들과 그 일군들의 사업방법에 관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그들을 교양하고 단결시키며 대중의 힘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사업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그이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시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키신 대중령도에 관한 탁월한 사상이며 방법이다.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도 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주관주의에 빠지고 관료주의를 범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시면서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이 관료주의를 없애며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사업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앞에 새롭게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이후시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임무와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는 과도기의 전기간은 물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할 때까지 그리고 그후에도 세계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는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한 다음에도 계급투쟁과 사상혁명, 경제사업을 다같이 잘해나가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고 계급없는 사회가 실현되면 과도기가 끝난다는것을 천명하시고 과도기가 끝난 다음에도 사람들의 머리속에서는 낡은 사상 잔재가 완전히 없어질수 없으며 생산력은 아직 공산주의적 분배원칙을 실시하리만큼 높은 수준에

이룰수 없으므로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견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또한 세계혁명이 아직 완수되지 못하고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한 나라 혹은 일부 지역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는 제국주의침략의 위협을 면할수 없으며 외부의 원쑤들과 결탁한 내부의 원쑤들의 반항도 면할수 없는만큼 이런 조건하에서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가서도 국가는 조락할수 없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의연히 남아있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주권과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우리 나라 혁명실천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 혁명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대한 과학적분석과 철저한 계속혁명의 립장에 기초한것으로서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지도적지침이며 맑스-레닌주의와 세계혁명 발전에 대한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권과 국가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그를 령도하시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미 우리 인민의 진정한 주권을 세우기 위한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을 령도하시는 첫시기부터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며 장차 우리 나라를 압박과 착취가 없는 진정한 인민의 조국으로 건설할것을 구상하시고 주권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주권은 오직 혁명적폭력에 의해서만 전취할수 있다는 확고한 원칙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무장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유격근거지에서 정권수립이 긴절한 실천적문제로 되였을 때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당시 쏘베트정부로선을 고집하던 종파분자들의 좌경적편향을 철저히 짓부시고 주권문제해결의 유일하게 옳은 길을 밝히시였다.

수령님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유격근거지—해방지구들에는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되고 운영되여 귀중한 경험들이 축적되였으며 장차 우리 나라에 세워질 인민정권의 원형이 창조되였다. 또한 항일혁명투쟁의 전행정에 걸쳐 앞으로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혁명적골간이 준비되였다.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인민정권의 력사적전통은 해방후 우리 인민의 건국사업에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건당, 건국, 건군의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선인민앞에는 의연히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해야 할 과업이 나서게 되며 주권문제에 있어서는 현단계에서의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해야 할 과업이 나서게 됩니다.》(《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12페지)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에서 조선사람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을 창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광범한 농민대중과 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급, 량심적인 민족자본가 등 각계각층의 민주력량을 망라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며 그에 토대하여 인민정권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침략군대가 남조선을 강점하게 된 조건에서 최단기간에 북반부를 혁명적민주기지로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인민정권수립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의 복잡한 환경속에서 계급적원쑤들의 반항을 짓부시면서 일제식민지통치의 낡은 기구를 철저히 마스고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시고 그에 의거하는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창설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 정권을 무기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시였으며 이어서 그것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민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회로 발전시키심으로써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인민정권을 령도하시여 북반부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기지로 꾸리시면서 우리 인민을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길로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북반부에서 이룩된 사회경제적변혁에 기초하시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사를 반영하시여 우리 인민의 진정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애국적인민들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정권이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얻은 위대한 전취물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73페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참다운 조국을 창건하시려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의 빛나는 실현이였으며 자유와 독립과 행복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을 창건하여주심으로써 오래동안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모든 대소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당당히 국제무대에 나서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망국노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존엄있고 슬기로운 자주독립국가의 인민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건된 공화국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국가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우리 국가 사회제도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시위하게 하시였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던 인류의 흉악한 원쑤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조국의 자유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게 하시였다.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청소한 공화국은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로동자, 농민들과 전체 인민을 한사람같이 조직동원하여 후방을 철옹성같이 공고히 하고 전시생산을 끊임없이 진행하여 전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으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타승하고 자기

의 위력을 온 세계에 과시하였다.

전쟁의 혹심한 파괴는 전후 우리 혁명앞에 헤아릴수 없는 난관을 조성하였다. 혁명이 난국에 부닥칠 때마다 언제나 현명한 로선과 진공적인 방침들을 내놓으시고 인민들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수령님께서는 전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인민경제복구발전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내외의 원쑤들의 책동과 온갖 난관을 이겨내고 그 로선을 정확히 관철하도록 우리 정권을 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백년대계로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쌓을데 대한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으며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여 자립적민족경제토대축성과 인민생활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하여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전후 복구건설이 성과적으로 끝난 다음에도 우리의 경제형편은 아직 어려웠고 제국주의자들의 《반공》소동과 수정주의자들의 비렬한 책동, 남조선에 둥지를 튼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범죄적행위로 하여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간고한 시기에 우리 정권이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기가 내세운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며 원쑤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는 한편 주되는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와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일어났으며 그 불길속에서 반당분자들의 책동도 적들의 《반공》공세도 다 날아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쌓는 문제도 인민생활문제도 승리적으로 해결되였다.

사회주의기초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할 절박한 요구를 명철하게 포착하시고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농업협동화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정권을 령도하시여 이 력사적인 과업을 몇해어간에 빛나게 완수하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인민정권으로 하여금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지도사업을 힘있게 벌려 협동조합조직을 촉진하는 한편 조직된 조합들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하여 그것을 조직경제적으로 공고히 하는데 큰 힘을 돌리도록 령도하시였다. 농업협동조합들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 로력적 방조와 재정적지원, 농촌경리발전을 위한 방대한 국가투자는 조직된 조합들을 공고발전시키고 전반적농업협동화운동의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놀았다.

수령님께서는 경제토대가 매우 미약했던 개인상공업과 부농경리도 협동화를 통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를 옳게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승리적으로 완수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는 우리 인민을 압박과 착취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에서 살게 하시려는 수령님의 숭고한 념원을 실현하는 길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였으며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일어난 근본적전환이였다. 이 위대한 승리로 하여 우리 국가는 튼튼한 사회주의적토대우에 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

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성과적 수행에로 공화국정권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국가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사업을 다같이 잘해나가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67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를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도상에서 우리 정권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는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한것이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인민정권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높아지고 근로자들속에서 천리마운동이 계속 강력히 전개됨으로써 사회주의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우리 나라에서는 불과 14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되였다.

이것은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승리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였다.

이 위대한 사변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가 훌륭히 건설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그리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의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나라로 되였으며 우리의 혁명기지는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졌다. 또한 우리 나라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경제와 기술의 락후성은 종국적으로 없애고 세계선진국가대렬의 당당한 일원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지난날 락후한 탓으로 수모받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힘있고 발전된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정권은 또한 문화혁명, 사상혁명 수행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어린이들로부터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 과학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로 되였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촉진되여 우리 근로자들속에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며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고 온 나라가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단합되여 서로 돕고 이끌며 나가는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되였다.

국토가 량단되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부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옳게 배합하도록 우리 정권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으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이 격화되고 정세가 더욱 긴장되는데 따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새로운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공화국정권은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한 수령님의 새로운 혁명로선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사업을 개편하고 조국보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돌리였다. 우리 정권은 전체 인민군대를 간부화하고 현대화하며 전체 인민

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요새화하기 위한 방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원쑤들의 그 어떤 침략도 단매에 쳐부시고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확고히 세워놓았다.

공화국정권은 또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촉진하며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3

공화국이 창건된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업적들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정권을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전과정에 걸쳐 인민정권의 위치와 사명에 부합되게 정권기관들을 조직정치적으로 공고히 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입니다.》
(우와 같은 책, 526페지)

우리 정권은 각계각층 인민대중속에서 당의 모든 로선, 정책을 집행하며 수령님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자기의 모든 활동을 진행하는 당의 수중에 장악된 혁명의 무기이다.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급 정권기관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며 정권기관들을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일군들로 튼튼히 꾸며야 한다.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정권기관들에 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인민정권이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의 첫시기부터 인민정권기관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이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한때 수정주의의 영향밑에 정권기관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고 저들의 종파적야망을 실현해보려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범죄적책동을 폭로분쇄하시고 인민정권이 나아갈 옳은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각급 정권기관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당적지도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하였다. 이리하여 모든 국가기관들이 례외없이 해당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하는 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권기관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도록 하시는 동시에 정권기관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복무하는 일군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정력을 다 바쳐 싸워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2페지)

수령님께서는 인민정권을 수립하신

첫시기부터 일군들속에서 일제통치시기의 낡은 사상과 관습의 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당의 사상,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인민의 충복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권을 조직정치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고 계급적립장이 확고하며 혁명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우수한 일군들로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계급적지반을 공고히 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정책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도록 어버이심정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속에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정권은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혁명에 충실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들로 튼튼히 꾸려졌다.

이것은 인민정권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이룩한 가장 커다란 성과의 하나이며 혁명의 무기로서 자기 역할을 보다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정권기관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그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시종일관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과 국가의 로선,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이 옳게 세워진 다음에는 사업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여하에 달려있으며 일군들의 사업작풍은 결코 그들의 사업능력이나 성격상 문제가 아니라 사업행정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사상의 표현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정권기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 잔재에 근원을 둔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뿌리뽑는것이다.

수령님께서는 끝없는 어버이사랑으로 우리 일군들의 그릇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시고 바로잡아주시였다. 특히 그이께서 창조하시고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신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우리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높아지게 되였으며 오래동안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속에서 발로되였던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이 기본적으로 없어지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 문제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적추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이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돌리시였다.

수령님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을 양성하며 재교육하기 위한 각종 교육기관들과 양성기지들이 꾸려졌으며 실천에서 이미 그 생활력이 확증된 한달강습체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교양체계들이 세워졌다. 수령님의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오늘 우

리의 모든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은 당정책과 경제리론, 기술지식을 깊이 소유하고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받고있다.

참으로 공화국정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인 령도를 받고있음으로 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국가정권으로 강화발전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권의 기능을 백방으로 높이도록 령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계급투쟁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조건에서 매우 복잡하고 치렬한 성격을 띠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은 곧 첨예한 계급투쟁이였으며 전후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과정이 또한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계속되는 침략과 파괴암해 책동,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의 준동, 당내에 숨어있던 반당종파분자들의 반혁명적책동으로 하여 계급투쟁은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체 인민을 계급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도록 하시는 한편 공화국정권의 계급적본질을 명백히 하시고 사법, 검찰, 안전 기관들을 튼튼히 꾸리며 그 사업을 개선강화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날을 날카롭게 세우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정권이 통일전선에 기초하고있다고 해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정권은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통일전선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본질상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될수밖에는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138페지)

수령님께서는 우리 정권이 계급적본질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독재라는것을 명백히 하시고 그 독재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적아를 똑똑히 가르고 극소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는 동시에 혁명의 편에 설수 있는 모든 군중을 전취할데 대한 방침과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이를 정확히 관철하도록 우리 정권을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는 마치도 계급투쟁이 없어지고 프로레타리아독재가 필요없게 되는듯이 떠벌이던 기회주의자들의 잡소리를 여지없이 짓부시고 우리 정권의 독재의 기능을 계속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우리 정권의 기능을 백방으로 높이도록 하여주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계급투쟁이 그처럼 치렬한 조건에서도 내외의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의 자유와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권을 령도하시여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문화교양자적기능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

는 한편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68페지)

수령님께서는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다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사회주의하에서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며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과 혁명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임무와 역할을 새롭게 밝혀준것으로서 공산주의위업에 대한 특출한 기여로 된다.

사상혁명을 옳게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뿌리깊이 남아있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지 않는다면 부르죠아사상의 영향이 증대되고 근로자들의 혁명의식이 마비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정권앞에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국가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교육기관이 노는 역할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시종일관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교육기관은 국가의 사상문화교양자적기능을 직접 담당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상혁명의 기본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교육기관들을 잘 꾸리고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고 새세대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을 창시하시고 교육사업에서 주체와 로동계급적선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시여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는 무기로서의 교육기관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세워주시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새세대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수행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시고 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가장 선진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며 그것을 대중화할데 대한 주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우리 정권을 정확히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에 따라 공화국정권이 교육사업과 문학예술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어 정권기관, 교육기관, 문화기관들의 사상문화교양자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과 새세대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권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령도하시였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혹심한 파괴적전쟁을 겪은 조건에서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례없는 어려운 과업은 국가, 경제 기관들의 조직지도의 기능을 높일것을 요구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요구에 맞게 우리 정권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인민경제관리기구를 개편하고 우수한 지도력량을 산업, 운수 부문에 돌리며 경제지도기관들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국가정권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높이는 문제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완수됨에 따라 더욱 절박하게 제기되였다.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이다. 확립된 사회주의적생산관계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문제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결할것을 요구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생산력에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어떻게 적응시키고 완성시켜나가며 확립된 토대에 맞게 상부구조를 어떻게 완성하며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작용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59~160페지)

확립된 토대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상부구조를 완성하고 그 능동적작용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 중대한 문제는 오직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경제지도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에 맞게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경제관리에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 농업지도체계,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지배인유일관리제를 없애고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고 생산조건을 보장해주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훌륭한 경제관리체계이다.

수령님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여주심으로써 국가, 경제 기관들이 기업관리에서 자본주의적요소를 완전히 없애고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훌륭히 구현하여 지도관리일군들과 생산자들간, 생산자들 호상간의 동지적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며 경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지난날 개인농경리를 지도하던 행정기구체계로써는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대규모농업협동경리를 지도할수 없다는것을 통찰하시고 농촌경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기관들인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를 새

로 내오며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개편하는 창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새 농업지도체계에서 기본으로 되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업기술자들과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을 장악하고 기업적방법으로 협동농장들을 직접 지도하는 기능과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실현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새 농업지도체계는 또한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의 역할을 높이고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원만히 실현하게 함으로써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공업과 농업간의 생산적련계를 더욱 강화하여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촉진한다.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에서 출발점으로 되는것은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반적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며 국가의 계획화수준을 더욱 높여 경제를 보다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계획의 일원화체계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계획부서들을 해당 기관과 국가계획위원회에 2중 종속시키고 중앙으로부터 지방과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계획화사업을 통일적으로 진행하게 한다. 그것은 계획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면서 계획화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아래에서의 지방본위주의와 기관본위주의, 국가계획일군들의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다 없애고 계획화에서 객관성과 현실성과 동원성을 원만히 보장하게 한다.

또한 계획의 세부화는 국가계획기관들이 전반적경제발전과 매개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밀접히 련결시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지방 및 기업소들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구체화하고 모든 지표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똑바로 맞물리게 함으로써 경제발전에서 불균형성과 자연생장성의 요소를 완전히 없애게 한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는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계획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나라의 경제를 아무런 혼란도 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맑스-레닌주의혁명적원칙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에 완전히 맞는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를 세워주심으로써 우리의 국가정권은 자기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이여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맞게 지방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특히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높이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성과있게 조직령도하시였다.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주의적소유로 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된 조건에서 지방정권기관들은 지난날 개인경리를 대상하여 사업하던 때와는 달리 지방의 수많은 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 그에 속해있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하여 사업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편에서 지방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특히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높이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

되는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없다.

수령님께서는 지방정권기관들의 역할을 제고함에 있어서 군인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군은 직접 농촌을 지도하며 농민들의 생활에 직접 접근하고있는 행정적인 말단지도단위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이다.

그러므로 군인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부는 군내의 건설과 국토관리, 지방공업, 주민행정 등 모든 사업에 대한 군인민위원회의 조직지도와 감독통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강구함으로써 그가 자기 임무를 원만히 할수 있게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군내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군인민위원회의 역할을 높이여 농촌주민들의 생활을 도시주민들의 생활에 접근시키도록 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우리의 각급 정권기관들은 생산과 건설, 인민생활 등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조직지도하는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계급적원쑤들의 준동은 걸음마다 분쇄되고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교육, 문화는 찬란히 개화발전하고 공업과 농촌경리는 류례없는 속도로 장성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계통적으로 골고루 높아지고 나라의 방위력은 더욱더 철벽으로 다져졌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우리의 국가정권이 조직정치적으로 더욱더 공고화되고 모든 부문에 걸친 그의 조직지도기능이 끊임없이 높아짐으로써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지나온 영광스러운 로정을 통하여 불패의 생활력과 위력을 뚜렷이 시위하였다.

오늘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는 끊임없이 공고발전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기치밑에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우리의 참다운 조국입니다.》(우와 같은 책, 13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그를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공고발전시키심으로써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의 주인으로 되게 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공화국의 품속에서만 자기들의 참다운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확고하게 체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민족의 유일한 국가이며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전체 조선인민의 진정한 민족적 리익과 의사를 대표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를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나가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공화국정부의 모든 대내외정책은 전적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세워지고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구현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조국을 침략하고 우리 인민을 예속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며 그 누구든지 우리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유린하거나 모독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민족적리익과 세계인민의 공동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제를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립장은 오늘 온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적토대우에서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고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에 의거하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국가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이 모두다 공통된 목적과 리해관계를 가지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며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 동지적관계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고있다.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인민대중의 확고한 정치사상적통일은 우리 인민정권과 국가사회제도의 공고한 정치적기초를 이루고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와 성과의 결정적요인으로 되고있다. 수령님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결속되여있는 여기에 바로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기적변혁과 기적들의 원천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며 행복한 물질문화적생활을 마련하여주는 참다운 인민의 국가이다.

인민정권하에서 우리의 근로자들은 온갖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으며 모든 국가사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각급 주권기관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대표들로 구성되여있으며 전체 인민이 비상한 정치적 및 로력적 열의를 가지고 국가사회생활과 사회주의건설에 몸바쳐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발전하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일찌기 없었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와 사회주의공업국가건설에 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빛나게 실현되고 인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수령님의 육친적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먹고입고 쓰고사는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근심걱정을 하지 않게 되였으며 그들의 생활은 고르롭게 빨리 향상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자기의

기능과 지식에 따르는 일자리를 가지고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있어서 실업이란 영원히 옛말로 되였다.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과 농민들의 수입은 계통적으로 오르고 물가는 끊임없이 떨어져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은 높아지고 생활은 날로 더욱 유족하여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로동에 의하여 분배받는 외에 국가의 막대한 사회문화시책비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커다란 혜택을 받고있다. 우리 인민은 국가비용으로 정, 휴양소에서 즐겁게 쉬고있으며 부양할 사람이 없는 로인들과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고아들도 국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국가와 사회적 부담으로 탁아소와 유치원들에서 행복하게 자라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터운 육친적배려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후대교육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일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받고있으며 대학과 고등기술학교들에서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마음껏 공부하고있다. 수령님의 독창적인 교육사상에 기초하여 공화국정부는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10년제의무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수준을 더한층 높이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더욱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게 될것이다.

수령님의 인민적보건사상이 정확히 구현되여 전반적이며 완전한 무상치료제가 실시됨으로써 사람들은 병나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치료를 받고있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에 따라 보건위생기관들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고있으며 인민들은 무병장수를 노래하면서 흥겹게 일하며 생활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공화국의 품은 진정 조선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공화국의 륭성발전에서 자기들의 참다운 행복을 보고있으며 공화국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굳게 믿고있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행위도 단호히 쳐물리치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지키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이 땅우에 더욱 휘황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할 불같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자유와 독립과 행복의 기치이며 그 영향력은 날을 따라 더욱더 커가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36~137페지)

공화국은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다.

수령님의 품속에서 날로 번영하는 공화국북반부와는 달리 오늘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로, 군사침략기지로 완전히 전변되였으며 인민들은 가장 초보적인 자유와 생존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폭압과 기아에 신음하고있으며 날로 로골화되는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으로 인하여 미일침략자들의 2중의 노예로 전락될 위험에 맞다들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은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오직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식민지통치제도를 청산하고 인민이 정권을 쥐여야만 자유와 행복을 누릴수 있다는것

을 깊이 깨닫게 되였으며 공화국을 자기들의 진정한 조국으로 바라보면서 그 위력의 장성에서 끝없는 힘과 용기를 얻고있다. 그들은 공화국의 기치밑에 조국을 통일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그리고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더욱 억세게 싸우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0만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어머니조국으로 되고있다. 지난날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나라없는 백성으로 다른 나라 땅에서 민족적차별대우와 온갖 멸시를 다 받으면서 무권리와 모진 생활고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 자기들의 권리를 요구할수 있게 되였으며 나아가서는 조국의 품안으로 돌아와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과 행복의 기치이다.

거의 반세기동안 조국을 잃었던 우리 인민은 오늘 강력한 자기 조국을 가지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전례없는 번영의 시기에 놓여있다. 우리 인민은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끝없이 사랑하며 그 공민된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이 조국이 귀중하면 할수록 그 력사적뿌리를 잊을수 없다.

우리는 우리 인민에게 이 조국을 마련하여주시고 더욱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오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고 오늘의 행복과 래일의 번영이 있다는것을 영원히 대를 두고 잊지 않을것이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함으로써 수령님의 높으신 은덕에 보답하며 그이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공화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일것이다.

우리 공화국기발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국광복의 성전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깃들어있으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인민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몸바쳐싸운 참다운 애국투사들과 영웅전사들이 흘린 붉은 피가 스며있다. 우리 인민은 이 기발을 높이 들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공화국을 견결히 수호하며 공화국의 륭성발전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것이다.

어떠한 힘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이끄시는 공화국의 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나라를 자립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신 혁명의 영재이시다

박 성 철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일찍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의 영예와 기개를 떨치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마련한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시기이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을 령도하시여 지난날 가혹한 착취와 압박, 세기적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자립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심으로써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위력한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이는 우리 당과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에서 높이 쌓아올린 가장 위대한 성과이며 우리 당 경제정책의 주되는 총화이다.

우리 나라가 자립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력사는 김일성동지의 우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의 력사이며 그이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탁월한 경제건설리론의 승리의 력사이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은 그이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 끝없는 영예와 행복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반세기의 기나긴 세월 그이께서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이룩하신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혁명업적을 긍지높이 칭송하고있으며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다.

1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고수하고 그것을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풍부화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는 목적은 인민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며 그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야만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줄수 있으며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며 인민들의 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일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와 사회주의의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원칙적문제의 하나로 나서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옳은 해답을 주심으로써 새로운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창시하시고 새 사회건설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뿐아니라 자본주의발전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에로 가는 길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공동의 재부로 될 고귀한 사상리론실천적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처음으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가장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길을 밝혀주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사상은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경제건설리론발전에 기여하신 가장 위대한 공적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이룬다는것을 의미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98페지)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주로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원, 자기의 민족간부와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며 자기 나라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는, 말하자면 제발로 튼튼히 서서 움직이는 위력한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현력사적시대에 사회주의경제는 자립경제로 되여야 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근본방향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경제건설분야에 구현한것이다.

이 로선에는 바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어디까지나 자기가 책임지고 수행하며 자체의 힘으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관통되여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국제적 지지와 협조가 물론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결정적인것은 그 나라 자체의 힘이다. 철저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자기 나라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국내의 자연부원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경제건설도상에서 나서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을 잘하자면 무엇보다도 매개 나라의 주체적혁명력량이 튼튼히 꾸려져야 한다. 혁명을 하려면 우선 정치적력량 그리고 경제적힘과 군사적힘이 있어야 한다. 경제적힘은 물론 정치적력량과 군사적힘도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튼튼히 꾸릴수 없는것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무엇보다먼저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고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완전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립적으로 꾸려나가지 못하며 경제를 자기 의사대로 움직일수 없다면 그 나라를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로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정치적으로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기본과업의 하나일뿐아니라 매개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라는것을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쌓아야 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7~538폐지)

전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실현되기전에는, 아직도 국가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매개 나라 인민들이 반드시 민족국가단위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야 하며 자체의 민족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물론 국제자본을 반대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은 국제적인것이며 사회주의국가들은 호상협조와 서로 긴밀한 련계속에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것은 합법칙적인것이다.

오늘날 사회주의가 세계적체계로 확대되였다고 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가 결코 그 어떤 초국가적인것으로 될수는 없는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바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민족국가단위로 쌓을데 대한 합법칙적요구에 완전히 맞는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나라의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정확한 균형을 주동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여야만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키울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민족들 사이의 불평등의 실제적기초인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계급적차이를 완전히 없애는것과 함께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민족들사이의 온갖 불평등도 종국적으로 없앨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은 매개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고 하여 저절로 없어지는것이 아니며 민족들사이의 이러저러한 통합의 방도에 의하여서도 없어지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민족들은 자체를 근로적인 사회주의적민족으로 만들어야 할뿐아니라 자체의 매우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온갖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고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점차 공산주의에로 넘어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사상은 맑스-레닌주의원칙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일관되여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함께 국제적임무에도 다같이 충실한 혁명적로선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나라들사이에 문을 닫아매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것이 아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은 매개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전체 사회주의나라들의 위력을 강화할수 있게 한다.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는 세계사회주의경제체계의 자립적인 하나의 단위로서 세계사회주의체계는 그를 이루고있는 매개 단위가 강하여질 때 그 전반적위력도 강해진다.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가 강화되면 될수록 매개 나라들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제적인 경제협조에 떳떳하게 참가할수 있으며 호상협조관계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할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여야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렬강들의 경제적침략과 경제적봉쇄정책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완전히 맞는 철저한 혁명적로선이며 진정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을 구현한 경제건설로선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사상과 함께 사회주의공업화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낡은 사회로부터 뒤떨어진 경제를 물려받은 나라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나라를 선진적인 공업국가대렬에 들어서게 하는 지름길을 밝혀주시였다.

지난날 산업혁명을 거치지 못한 나라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술적락후성을 없애고 나라를 점차 공업화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를 완전히 건설하려면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공업화를 하여야만 우리 나라를 선진적인 공업국가로 만들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33페지)

사회주의공업화는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데서 가장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사회주의공업화에 의하여 창설되는 위력한 현대적공업은 자립적민족경제의 골간을 이룬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여야만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을 이룩할수 있다. 사회주의공업화는 농업생산을 공업화할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며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촉진시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공업화를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의 통일속에서 보시고 나라의 공업화는 반드시 자립적공업체계를 세우는 원칙에서 실현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공업화에 관한 완전히 독창적인 사상이다.

이때까지 일반적으로 공업화는 현대적공업의 창설 특히 현대적중공업을 창설하게 되면 실현되는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현대적공업의 창설일반으로써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근본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고 튼튼한 자립적경제체계를 세우자면 반드시 나라의 공업화를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을 건설하는 원칙에서 진행해야 하며 그와 함께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이 나라의 공업화에서 준수해야 할 근본원칙을 밝혀주는 이 사상은 사회주의공업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새로운 과학적해명을 준 창조적리론이다.

사회주의공업화는 기술혁명과의 긴밀

한 통일속에서 진행되며 공업화의 실현은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서 커다란 전진으로 된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한 다음에도 그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기술혁명의 본질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으며 그 실현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기술혁명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더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만드는데 있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그리고 기술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끝까지 진행해야 할 계속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이후 기술혁명의 총적방향과 내용을 처음으로 명확히 밝혀준것으로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거대한 기여로 된다.

나라를 공업화하고 자립적인 사회주의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중공업과 경공업, 공업과 농업의 호상관계, 경제토대의 축성과 인민생활향상 문제를 옳게 설정하며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실현할수 있는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내놓으심으로써 이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확대재생산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가장 훌륭한 정책》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과 경제건설력사에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것이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은 중공업과 농업을 제껴놓고 경공업건설을 앞세우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자본주의적공업국가건설방법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경공업과 농업 발전을 뒤로 미루면서 중공업일면만을 강행적으로 발전시키는 공업화방법과도 다른 사회주의공업화의 새로운 방법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져있던 공업화의 기존공식을 깨뜨리고 자립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번과정을 가장 빨리 성과적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는 새 환경에 맞게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으로 확립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독창적인 체계이다.

군중로선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것은 인민대중이 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생산발전의 합법칙성에 완전히 맞으며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사업방법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군중로선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확립은 지난날 경제기술실무사업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던 낡은 경제관리체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공산주의적원칙을 많이 체현한 새로운 경제관리체

계에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며 생산력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게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이다.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게 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나타내게 할수 없으며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없다. 물질적자극을 전면에 내세워 사람들을 돈만 알게 하여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이것은 경제관리에서 부르죠아적원칙을 도입하는것이며 사람들에게 리기주의를 조장시키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일할수 없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사람들을 자각적으로 일하게 하고 공산주의적으로 생활하게 하며 모든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서로 돕고 이끌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혁명적인 경제관리체계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생산력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객관적법칙도 결국은 사회주의국가의 옳은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높여야 원만히 실현되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생산의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는 천재적리론을 내놓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바로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고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 중앙집권제와 민주주의를 옳게 배합하여 나갈수 있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전진하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특히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무시하는 좌경적편향과 정치도덕적자극을 홀시하고 물질적관심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제지도에서 지방분권화와 기업의 자유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경적견해를 완전히 극복할수 있게 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앞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가장 짧은 력사적기간내에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킬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며 자립적인 사회주의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처음부터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이 해방후 새 조국 건설에 착수하였을 때 우리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다.

우리가 일본제국주의자들로부터 넘겨받은것이란 파괴된 공장, 혼란된 운수기관, 파산된 농촌경리, 장부만 남은 금고뿐이였다. 우리에게는 경제기술인군도, 관리간부도 부족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쫓겨가면서 자기들이 없으면 조선의 산업, 운수는 모

조리 마비될것이라고 하였으며 미제와 온갖 반동들은 우리 인민의 전국위업을 파괴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재건한다는것은 《절대로 실현불가능》한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족은 슬기롭고 강의하고 재능있는 민족이며 전체 인민이 힘을 합쳐 일떠설 때 능히 자기 힘으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우리 인민에게 넣어주시고 불굴의 투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모든 난관과 애로를 물리치면서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무르익히시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정식화하신 경제사상에 기초하시여 해방직후에 벌써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토지개혁과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철저히 실시하시여 나라를 앞으로 공업화하기 위한 유리한 사회경제적조건을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도기 첫시기 당의 경제정책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민경제계획을 세우시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내미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도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축성을 위한 사업을 멈추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쟁의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나라의 장래공업화를 구상하시고 현대적기계제작공업의 토대를 마련하여나가시였으며 앞으로 대량적으로 요구될 민족간부를 양성하며 나라의 원료연료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대자연조사사업과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몸소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은 전후시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전후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전쟁에 의하여 모든것은 불타고 파괴되였으며 벽돌 한장, 세멘트 한그람 없는 빈터우에서 전후복구사업을 진행하며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켜야 하였다. 또한 북반부사회경제발전의 요구에 따라 복구건설과 병행하여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도 적극 밀고나가야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실 그때에는 무엇부터 시작하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을 정도로 우리 형편이 어려웠으며 우리앞에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나섰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97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을 놓고 조선은 백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였다.

그러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이 있고 주권이 있고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는 이상 전쟁의 피해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페허우에서 또다시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끝난지 불과 며칠밖에 안되는 1953년 8월 5일에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모든것을 민주기지강화를 위한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에로!》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이때까지 그 어디에서도 해본 일이 없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사회주의개조방침을 내놓으시여 당과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기술적개조에 앞세우는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심으로써 지난날 산업혁명을 거치지 못한채 새 사회건설에 들어서는 우리 나라와 같은 세계 대다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에로 가는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고 공업화와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실현에 착수한 5개년계획시기에 내외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첨예하였으며 경제형편도 어려웠다. 우리 인민은 3개년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전쟁의 상처를 가셔내고 인민경제의 복구기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그때까지만 하여도 아직 우리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으며 중공업의 토대는 미약하였다. 우리에게는 자재와 자금도 모자랐으며 인민생활도 아직은 곤난하였다. 게다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외부의 그 지지자들과 결탁하여 우리 당을 반대하여나왔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은 새 전쟁 도발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혁명의 앞길에 새로운 난관이 가로놓인 이 준엄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의 구호밑에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으며 반당종파분자,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전당적, 전인민적 정치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주되는 힘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돌리도록 하시였다.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앞당기기 위한 위대한 공산주의적전진운동인 천리마운동이 발생하였으며 그 거세찬 진군속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책동도,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도 다 날아났다. 우리 당은 더욱 단련되고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 력량으로 강화되였으며 5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공업총생산액적으로 2년반에 점령하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났다.

우리 당과 인민은 7개년계획시기에 들어서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첨예한 정세하에서 공업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환경과 조성된 정세를 깊이 분석하시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내놓으시였다.

최근년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강화되고 수정주의적사상조류가 외부로부터 침습해들어오자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수정주의분자들은 양봉음위의 방법으로 당정책을 성실하게 집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에 반기를 들고나왔다. 이자들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생산장성속도를 높일수 없다는 수정주의적궤변에 매여달리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빨리 전진시키기 위한 근로자들의 창조적열의를 마비시키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이러한 책동을 분쇄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을 사회주의건설에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제기하시고 그를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밑에 래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건설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다른 손에는 총을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고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 걸쳐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 이것은 공산주의적혁명기풍과 혁명정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동원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야 하며 어떠한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새 사회를 건설할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은 한편으로 미제를 비롯한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반항을 물리치는 치렬한 계급투쟁인 동시에 당의 자주적립장,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을 반대한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과의 심각한 투쟁과정이였다.

제힘을 믿지 못하고 남만 쳐다보며 남이 하는 소리만 따라외우는데 습관된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은 종합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원료기지를 가진 자립적민족경제는 큰 나라들에서만 건설할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집요하게 반대해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의 이러한 반당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자력갱생하여 자체의 힘과 자기 나라의 자원으로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건설하는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조직동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자체의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킴이 없이는 나라의 공업화도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도 기대할수 없으며 다른 형제국가들과의 경제적협조도 옳게 진행할수 없다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시고 경제건설의 전기간 강력한 현대적기계제작공업의 창설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시였다.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떨쳐나선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경험도 기술도 모자라는 어려운 조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전고투하면서 자체의 힘과 지혜로 현대적기계설비들과 현대적공장의 종합설비들을 설계하고 만들어내기 위한 눈부신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자동차와 뜨락또르, 엑스까와또르, 불도젤, 8메터타닝반 등 여러가지 현대적기계설비들이 련이어 새로 생산되였으며 우리의 기계공업에서는 일대 비약이 일어났다.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기계제작공업의 창설과 그 강화발전을 위한 로정은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빛나게 구현되고 승리한 자랑찬 로정이며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과 불굴의 의지를 온 세상에 시위한 창조와 혁신의 력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내의 자연부원과 원료원천에 의거하는 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의 확고한 원칙적방침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힘차게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고 현대과학기술의 힘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있는 자원은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며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있는것으로 바꾸어쓰는 방법으로 국내자원에 기초한 튼튼한 원료 및 연료-동력 기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추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원료와 연료 원천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창설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으며 특히 제철공

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리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동안 콕스탄이 없으면 철을 생산할수 없는것으로만 여겨오던 낡은 관점이 마사지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무연탄을 가지고 철을 생산할수 있는 주체적인 제철공업발전의 전망을 열어놓게 되였다. 오늘 주체공업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있는 우리의 비날론공업도 바로 이와 같이 하여 생겨나게 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우리 공업에서의 주체확립을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심으로써 종전까지 우리 나라에 없다고 하던 여러가지 광물들도 많이 찾아낼수 있게 하시였으며 국내의 섬유원료로 인민들의 입는 문제도 풀고 건설사업도 국내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빨리 진행할수 있도록 하시였다.

지난날 낡은 사회로부터 뒤떨어진 경제와 기술을 물려받은 나라의 인민들이 착취와 예속에서 벗어나 새 사회를 건설하며 부강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건설하는데서 부닥치게 되는 첨예한 문제는 현대적공업건설과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인재 문제를 옳게 풀어나가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문제도 어디까지나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해결하시였다.

전후시기에 우리 인민은 형제나라들로부터 적지 않은 경제기술적원조를 받았다. 이것은 우리의 어려운 복구건설사업에 큰 도움으로 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자체의 힘과 국내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는데 결정적의의를 부여하시였으며 이와 함께 형제나라들의 원조를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효과있게 쓰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공업화와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위한 자금문제해결의 기본열쇠를 무엇보다도 인민경제의 내부축적을 끊임없이 높이는데서 찾으시였다. 동시에 그이께서는 푼전을 아껴쓰며 축적된 자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공업화에 필요한 많은 자금을 공업자체가 담당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의의를 부여하시였다.

지난날 락후한 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하여 얼마동안 농촌에서 일정한 자금을 얻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빨리 발전하는 사회주의공업은 많은 건설자금을 요구하는 반면에 인민경제 내부축적을 늘일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을 마련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로부터 출발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공업화의 기초가 쌓아진 다음에는 현대적공업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공업자체가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더 나가서 공업이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하여 커다란 재정적지원을 주도록 하는 현명적조치를 취하시였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현대적공업의 창설과 함께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금문제해결에서 새로운 경험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체의 민족기술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또한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렵고 많은것이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민족간부양성사업에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시였으며 그것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현명한 방침을 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여 사회주의건설에 널리 끌어들이는것과 함께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민족간부를 대대적으로 키우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뒤떨어진 처지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진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장엄한 실천투쟁속에서 기술간부대렬을 끊임없이 자래우고 늘이는 대담하고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이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를 따라 우리 나라의 수많은 건설장들은 문자그대로 실천속에서 기술일군들을 키워내는 대학들로 전변되였으며 하나의 용광로, 하나의 발전소, 하나의 공장이 건설되면 여기서는 수많은 기술자, 전문가의 대집단이 자라났던것이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며 나라를 자립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경제건설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의 나날이였으며 그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확증한 보람찬 승리적로정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령도의 전행정은 혁명적군중로선으로 일관되여있으며 군중로선의 전면적승리를 보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의 기본담보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590페지)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를 항상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에서 찾으시였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묶어세우며 대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으며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혁명적군중로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군중로선에 관한 위대한 사상을 창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몸소 가장 빛나게 실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바로 그이께서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키신 대중지도의 탁월한 공산주의적지도사상이며 지도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얼마나 일상적으로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사업하시는가 하는것은 그이의 력사적인 현지지도의 빛나는 로정이 웅변적으로 말하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의 모든 도시와 농촌, 공장과 협동농장 할것없이 수령님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곳은 없으며 공업화의 어려운 시기에 새로 일떠선 공장과 기업소, 새로 만들어진 현대적기계설비들과 하나하나의 제품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것에도 그이의 직접적인 보살피심과 육친적배려가 가닿지 않은 것은 없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시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시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을 사람에게서 찾고 사상에서 찾고 정치에서 찾아야 한다는 일관한 혁명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대중의 높은 자각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방대한 모든 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광범한 대중의 힘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였다.

지방산업공장의 대대적인 건설도, 전후 재더미로 되였던 도시와 농촌의 건설도, 수리화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도 모두다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의 방대한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적은 자금으로 인민소비품의 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는 경공업기지를 쌓도록 하시였으며 현대적인 도시와 사

회주의농촌의 건설도 힘있게 다그치고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완성하는 과업도 성과적으로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예술을 구현하고있는 군중로선에 의거한 경제건설방법은 군중의 집체적힘과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방법이며 전국가적, 전인민적 힘을 동원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는 위력한 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불굴의 강의한 의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언제나 문제를 대담하게 제기하시고 끝까지 해결하여나가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련이어 새로운 전투를 포치하시고 우리 인민을 계속혁신, 계속전진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단 정책을 세우신 다음에는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걸음도 물러섬이 없이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완강한 혁명적전개력을 가지시고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힘차게 추동하시면서 한 문제를 푸시고는 련이어 다른 문제를 제시하시여 그들을 끊임없이 새로운 투쟁과 새로운 승리에로 인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후 내외원쑤들이 우리 당의 독창적인 경제건설로선을 악랄하게 반대하여나섰을 때에도 추호의 동요없이 그것을 철저히 관철시켜나가시였으며 복구기의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신데 뒤이어 지체없이 공업화와 기술개건의 과업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것이 나오고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도록 하시였으며 대중의 대담한 발기와 창발성을 적극 지지하고 고무하여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화의 과업이 빨리 진척됨에 따라 도처에서 기계설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때 그이께서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반대하는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게 하는 한편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공작기계가 있는 모든곳에서 공작기계를 생산해내는 군중적인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공업화의 완성을 위한 투쟁시기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소극과 보수, 침체와 답보를 불사르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도록 하시였으며 기계설비의 낡은 공칭능력을 마스고 날에 날마다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매시기마다 사업의 중심고리를 정확히 포착하시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여 문제를 하나씩 섬멸전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면서 전반적련쇄를 튼튼히 틀어쥐고 이끌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함에 있어서 일반적포치와 구체적인 개별적지도를 밀접히 결합시키고 한점에서 모범을 창조하여 일반화하심으로써 항상 전국을 창조와 혁신으로 끓어번지게 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모든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령도예술은 그이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이끌어주신 위대한 천리마운동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은 우리 당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앞당기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54페지)

천리마운동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되고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창조력의 발현이며

언제나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의 힘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밀고나가는 우리 당 군중로선의 승리이며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혁명정신을 구현한 장엄한 전인민적전진운동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것을 쓸어버리고 끊임없이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우리 나라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대 혁명운동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근로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 앞당기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난관을 항상 주동적으로, 진공적으로 풀어나가시는 탁월한 령도의 산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대중의 정치사상의식을 높이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이에 물질적관심성의 원칙을 옳게 결합시키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면서 여기에 과학과 기술을 결합시키는 창조적조치를 취하심으로써 이 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시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이 한걸음 걸으면 열걸음, 백걸음을 내달리면서 충천한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에 박차를 가하여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였으며 공업화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였다.

참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세련된 맑스-레닌주의적령도와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겸비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을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 힘차게 이끌어주시였기에 우리 나라는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자립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될수 있었으며 오늘의 찬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 우리 인민이 오늘과 같이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번영하는 민족으로 되여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우리 인민은 보통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려운 과업을 불과 14년이란 짧은 기간에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자립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건설에서 이룩한 가장 커다란 성과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자체의 튼튼한 중공업기지를 축성하여놓은것이다.

오늘 우리의 중공업은 갖출것을 기본적으로 다 갖춘 완비된 중공업으로 확대발전하였으며 그 발전전망은 무한히 광활하다.

특히 중공업의 핵심이며 기술발전의 기초인 기계제작공업에서 질적인 비약이 일어났다. 지난날 간단한 농기구나 부속품조차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던 우리 나라에서 오늘은 6,000톤프레스와 중량자동차, 대형기계들과 정밀기계 등을 마음대로 생산하고있을뿐아니라 적지 않은 기계설비들을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하고있다. 1971년에 우리의 기계공업생산액은 1946년에 비하여 무려 569배로 급속히 늘어났다. 오늘 우리의 기계공업은 공작기계생산에서만 하여도 한해동안에 3만대의 수준을 돌파하게 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또한 현대적이며 자립적인 강력한 국방공업을 창설하여놓았다. 지난날 보총한자루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던 우리 나라에서 오늘은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들을 무장시키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자체로 생산하고있다.

중공업의 힘있는 지원밑에 경공업발전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지난날 소비품의 거의 전부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나라는 오늘 현대적중앙공업과 지방공업으로 이루어진 자체의 튼튼한 경공업기지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의 경공업은 일용잡화로부터 문화용품, 가정용품, 식료가공품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는 믿음직한 소비품생산기지로 발전하였다. 지금 우리의 상점들에는 어디를 가나 우리가 만들어낸 상품으로 가득차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실현된 결과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공업발전수준이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공업과 농업 총생산액가운데서 공업의 몫은 1946년에 29.8%이던것이 1970년에는 75.3%로 높아졌다. 우리는 전력, 석탄, 강철, 화학비료, 세멘트 등 중요공업제품 인구한사람당 생산량에 있어서 이미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부분적으로 따라앞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기술혁명의 과업이 또한 빛나게 수행되였다. 특히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세기적변혁이 일어났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수리화와 전기화가 완성되고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에서 눈부신 발전이 이룩되였다. 우리 농촌은 큰물과 가물의 피해를 모르고 해마다 안정된 풍요한 수확을 내며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짓고 남새와 고기, 알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는 선진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오늘 우리의 인민경제는 어느 한 부문에만 편중되지 않고 강력한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다같이 조화롭게 발전하고있는 자립적경제체계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인민경제의 자립성이 튼튼히 마련된 여기에 우리 나라에서 실현된 사회주의공업화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있으며 그 거대한 생활력이 있다.

나라의 생산력발전에서 거대한 비약이 일어나고 사회주의제도가 더욱 공고화됨에 따라 인민생활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지난날 헐벗고 굶주리며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번영하는 사회주의공업국가의 인민으로서 누구나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집걱정을 모르고 행복에 넘쳐 생활하고있으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은 날을 따라 급속히 향상되고있다.

참으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입니다.》(우와 같은 책, 426페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립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움으로써 우리 인민은 튼튼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쌓고 무엇이든지 하자

고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일이 없는 힘있는 경제적밑천을 마련하여놓았다.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됨으로써 우리의 혁명기지는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졌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지원하며 조국의 통일과 장래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공고한 물질적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가 건설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힘은 우리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할 혁명적경제력이다. 우리가 마련한 경제력은 공화국북반부인민들만 잘 살기 위한것이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력이며 조국이 통일된후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복구하고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경제력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력사적전변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온갖 세기적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힘있고 존엄있고 발전된 사회주의국가로서 국제무대에 떳떳하게 나서게 되였으며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협조를 더욱 확대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혁명기지를 철벽으로 다짐으로써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모든 원쑤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놈들을 궁지에 몰아넣고있으며 사회주의동방초소를 믿음직하게 지키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 전변시키신 고귀한 업적과 경험은 국제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특히 제국주의의 착취와 예속을 반대하며 새 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을 끝없이 고무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우리의 경험은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하는 인민은 불패이며 오직 이 길로 나갈 때만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자주, 자립의 길은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길이며 외세의존의 길은 예속과 망국의 길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고귀한 경험은 맑스-레닌주의리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서 귀중한 재부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지난 기간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계속 공고발전시키며 당면하여 당 제5차대회에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6개년계획의 전투적강령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이 실현되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강화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새로운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이다.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실현되고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비약적인 기술적 진보가 이룩될것이며 과학과 교육, 문화가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하고 인민생활은 더욱 높은 수준에 올라설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보다 더 힘있고 보람찬것으로 되였으며 우리앞에는 더욱 광활한 전망이 펼쳐지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그이의 혁명전사로서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것을 무한한 행복으로, 영광으로 여기고있으며 그것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라의 륭성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필승불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최 현

오늘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또한 멀지 않아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에서의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 마흔돐을 성대히 맞이하게 된다.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커다란 사변으로 되는 이 뜻깊은 날들에 즈음하여 온 나라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끝없는 충성의 열정으로 들끓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험난한 투쟁의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면서 조선혁명을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오시였으며 혁명위업에 불멸의 위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세기적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력사상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새 시대를 펼쳐놓으시였으며 동방일각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대의 혁명발전과 혁명전쟁에 대한 심오한 통찰과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위대한 군사사상을 창시하시고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탁월한 군사지략으로써 력사상 가장 야수적인 두 제국주의, 일제와 미제를 무찌르는 준엄한 혁명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혁명위업수행에 찬연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 걸어오신 60성상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헌신적복무의 력사인 동시에 맑스-레닌주의리론과 군사사상의 발전, 혁명전쟁의 승리와 사회주의조국방위를 위한 간고한 투쟁으로 아로새겨진 영광찬란한 력사이다.

수령님탄생 예순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우리 인민과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군사사상과 군사리론, 탁월한 령군술과 전략전술,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특별한 감회를 가지고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행복을 가슴깊이 새기며 일편단심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에 가득차 있다.

1

군사활동과 국방건설에서의 혁명적 지도사상은 새로운 시대적요구와 혁명전쟁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되며 발전한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군사분야에 구현하시여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관철할데 대한 독창적인 군사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와 주권을 잡은후 로동계급이 군사활동과 국방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는 지도적원칙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방에서 자위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한다는 말이며 군사분야에서 우리 당의 주체사상이 구현된것입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군사분야에 구현한 자위의 혁명적본질은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군사활동과 국방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며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자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자체의 힘으로 보위하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처음으로 위대한 자위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당이 군사활동과 국방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 인민대중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혁명적인 길을 밝혀주시였다.

자위사상이 가리키는 혁명적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매개 나라는 혁명전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인 자체의 주체적힘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인 군사전략을 결정적으로 파탄시키고 나라의 정치적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킬수 있으며 나아가서 국제혁명위업에도 성과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것이다.

참으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자위사상은 우리 시대의 혁명운동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현대전쟁과 혁명전쟁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위사상을 구현하시여 식민지민족해방전쟁과 사회주의조국방위전쟁, 사회주의나라의 국방건설에 관한 사상을 전일적으로 정연하게 체계화하시고 맑스-레닌주의군사사상과 군사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식민지민족해방전쟁에 관한 군사사상은 수령님의 군사사상의 전 체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수령님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혁명적폭력이 노는 역할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시고 민족해방운동이 무장투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합법칙성과 무장투쟁이 상비적혁명무력에 의거하는 유격전의 형식으로 진행되여야 할 필연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또한 무장대오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무력조직에서 계급적원칙을 지키고 무장대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그에 군사기술사업을 밀접히 결합하며 상비

적혁명무력과 함께 비상비적무력을 배합할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혁명무력건설에서 나서는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는 간고한 투쟁행정에서 유격전의 군사 전략과 전술, 명철한 령군술과 전법들을 새롭게 창조하시였으며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과 전술적우월성으로써 제국주의침략군대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격파할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무장투쟁을 기본형식으로 하여 민족해방투쟁을 수행할데 대한 사상과 유격대전설원칙, 유격전과 유격대활동의 원칙에 관한 수령님의 천재적군사사상은 무장폭동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과 혁명무력건설과 군사전략사상에서 새로운 발전으로 된다.

주권을 잡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로동계급과 그 당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조국방위에 관한 군사사상에 튼튼히 의거해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현대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미제의 세계전략, 사회주의국가제도와 방위력의 성격, 사회주의조국방위전쟁의 전인민적성격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전쟁을 적극 지지하며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혁명적립장을 밝히시였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조국방위전쟁의 군사전략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혁명전쟁에서 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매개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군사행동지대의 특성에 맞게 전법을 끊임없이 완성하고 그에 따라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이르는곳마다에서 소멸할수 있는 군사 전략과 전술을 전면적으로 작성할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정규적혁명무력건설원칙과 함께 상비적정규무력과 전인민적민간군사조직을 옳게 배합하며 전쟁에 대처하여 인민과 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고 정규무력을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자립적민족경제에 토대한 자립적국방공업을 창설할데 대한 자위적국방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들을 내놓으시였다.

실로 자위사상을 초석으로 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적군사사상은 혁명전쟁의 각이한 단계, 군사활동분야에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군사사상이며 혁명적로동계급이 온갖 반동적부르죠아군사리론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서, 군사문제해결에서와 혁명전쟁수행에서 전투적기치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쳐부시고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초기에 벌써 우리 나라를 비롯한 식민지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경험과 교훈을 주체적립장에서 깊이 분석총화하시고 혁명발전의 요구를 예리하게 통찰하시여 식민지민족해방전쟁에 관한 독창적인 군사사상을 제시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15성상에 걸친 장구한 기간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식민지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위대한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포악무도한 군사봉건적제국주의이며 국제파시즘의 아세아돌격대였던 일본제국주의를 상대로 하여 진행한 준엄한 혁명전쟁이였으며 장기성과 간고성, 그 형태와 규모에서 류례없는 혁명투쟁이였다. 이 전쟁은 아무러한 국가적후방이나 민족군대의 토대도 없는 조건에서 혁명무력을 조직하고 무장투쟁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실로 어려운 싸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홰불로 무장투쟁의 전략전술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밝히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자기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41페지)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군사활동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제1차적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식민지민족해방전쟁에서의 전략과 전술, 무장투쟁의 형식과 방법 등 군사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밝혀지지 못하였으며 의거하여야 할 그 어떤 군사교범도 없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무장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자체로 풀어나가야만 하였다.

주체적립장을 튼튼히 지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혁명전쟁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었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시여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조직적인 무장투쟁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전략로선을 내놓으시고 무장투쟁의 총적임무와 당면과업들을 옳게 결합시켜 유격대의 창건과 그의 강화, 유격근거지의 창설 및 공고화와 군사행동지대의 선정, 유격투쟁형식의 선택, 유격전의 원칙과 전략전술 등 무장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장투쟁의 시기상조》를 떠들어대던 암둔한 종파분자들의 우경투항주의적인 반동적견해를 철저히 짓부시고 상비적혁명무력에 의한 무장투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심으로써 적들의 공세로부터 혁명력량을 튼튼히 보위하고 혁명의 핵심적골간을 끊임없이 장성시킬수 있었으며 혁명적폭력으로 적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며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제국주의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로부터 허물어버리는 결정적인 투쟁의 길을 마련하실수 있었다.

동시에 근거지방어만을 주장하거나 대도시포위전투나 한두차례의 대부대의 결전으로써 유격전쟁의 《승산》을 보려는 군사모험주의자들의 반동적견해를 철저히 짓부시고 군사활동과 군사전략문제에서 좌우경적편향을 극복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시여 로동자, 농민의 선진분자들로써 맑스—레닌주의적인 상비적혁명무력인 조선

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그것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된 간부군대로 튼튼히 꾸리도록 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유격전의 전략적단계를 옳게 규정하시고 군사정치정세의 변화와 매 시기의 구체적투쟁임무에 따라 군사조직을 명확하게 재편성하심으로써 무장투쟁과 전반적반일투쟁을 광활한 지역과 전국적판도에서 계속 앙양시켜나가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의 창설과 그것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수령님의 투쟁은 그이의 주체적인 군사전략사상과 군사전략적지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유격근거지는 무장투쟁이 민족해방투쟁의 기본으로 되며 민족해방전쟁이 유격전의 형식으로 진행되게 되는 조건에서 군사활동의 거점으로, 혁명의 책원지로서 절실히 필요한것이다.

수령님께서는 변화발전하는 정세의 요구와 투쟁임무에 맞게 각이한 형태의 유격근거지들을 창설하심으로써 무장투쟁의 정치군사경제적거점과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마련하고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1930년대에 창설되였던 유격근거지들은 혁명의 책원지로서뿐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의 후방기지와 유격활동의 지탱점으로, 무장대오의 정치군사적위력을 급속히 확대강화하며 적극적이며 기동성있는 군사행동을 보장하는데서 실로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무장투쟁의 형식과 방법, 군사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규정하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것은 그 투쟁의 승패와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군사전략과 명활한 유격전술, 천재적인 명군술과 전법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능숙히 적용하심으로써 적들을 항상 수세와 궁지에 몰아넣고 격멸소탕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자체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보다 많은 적을 소멸하며 적의 약점을 능숙하게 포착리용하고 적을 주동적으로 공격하며 력량의 집중과 분산 및 이동을 명활히 실현하며 대부대활동과 소부대활동을 옳게 결합하는 등 독창적인 유격전과 유격대활동의 원칙들을 창조하시고 능숙히 적용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투쟁의 어떤 어려운 정황에서도 항상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극적인 공세를 벌리도록 하심으로써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전국적판도에서 혁명투쟁의 성과를 확대해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초기에 근거지를 보위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조직지휘하시면서 적의 약점을 리용하여 정면타격과 배후교란작전, 기습전과 매복전, 유인전과 추격전 등을 훌륭히 배합하심으로써 적을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게 하였으며 그때에 벌써 적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로 넘어갈데 대한 탁월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그의 실현을 위한 튼튼한 준비에 기초하여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에서 수많은 작전, 전투들을 련이어 조직지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군사전략적지도가 있었음으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에 유격대오와 그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 나라 혁명력량은 끊임없이 자라나고 각종 형태의 대중투쟁이 더욱 세차게 일어날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자체의 주체적힘으로 민족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수행해나갈수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어떠한 위급하고 복잡

한 정황도 미리 헤뚫어보시고 력량의 집중과 분산, 이동을 능숙히 실현하시여 적을 강자로부터 약자로 만드는 반면에 유격대로 하여금 항상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은 력량으로 많은 적을 소멸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림기응변하고 천태만변하는 유격전술을 창조하고 널리 적용하시였다.

1930년대 후반기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국경연안으로 진출하게 되자 일대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적들은 대병력을 새로 동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일대 대규모적인 《포위소멸》을 기도하였다. 원쑤들은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들을 《포위공격》하기 위하여 이른바 《참빗전술》로써 백두산주변에 대한 대수색전을 벌리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때에 적들의 이러한 발광적인 전술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혁명군부대들로 하여금 대부대활동과 소부대활동을 명활하게 배합하고 력량의 집중과 분산 및 이동을 능숙히 실현하여 우세한 적을 분산약화시키고 적의 정통을 불의에 타격하여 소멸하게 하시였으며 력량상 우세를 믿고 덤벼드는 적들을 유인하여 혼란에 빠뜨려놓고 앞뒤와 익측, 여러곳에서 그리고 큰 적도 치고 작은 적도 쳐서 소멸할수 있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는 서쪽에서 치고 동쪽도 서쪽도 치며 한곳의 적을 고립시켜놓고는 적의 증원부대를 매복습격하며 적들의 한가운데 끼여들었다가는 재빨리 빠짐으로써 적들끼리 싸우게 하며 적은 력량으로 적을 기만유인하여 불의에 타격하며 멀리 가는척하면서 적의 턱밑에 돌아앉았다가 앞뒤에서 적을 소멸하는 등 실로 천태만변의 유격전술과 전법을 능숙하게 적용하심으로써 적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전략전술적우세로써 압도하고 전투의 걸음걸음마다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시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보천보에 대한 국내진공작전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군사전략전술의 빛나는 승리였다.

일제의 식민지폭압정책과 적들의 반동공세가 전례없이 강화되였던 이 시기 국내진공작전을 조직전개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보통사람으로서는 생각할수 없는 대담하고도 비범한 작전적구상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때 적의 기도를 멀리 앞질러 내다보시면서 한부대는 안도, 화룡을 거쳐 두만강을 건너 무산지구로 진격하도록 하시고 다른 한부대는 국내와 가까운 림강, 장백 일대에서 적을 견제하도록 하심으로써 놈들의 주의를 딴곳에로 돌리게 하시였다.

이렇게 하여 그이께서 친솔하신 주력부대의 전투작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시였으며 적을 불의에 타격소멸하는 위대한 작전을 승리적으로 결속지을수 있었다.

적들이 《공산군의 전략전술은 참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어느 병서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진법〉으로 전쟁을 한다.》고 비명을 지른것도 바로 이때에 있은 일이다.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일제의 야만적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우리 인민에게 승리에 대한 신념을 북돋아준 혁명의 서광이였으며 일제침략자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커다란 군사정치적타격을 주어 종국적멸망을 촉진시키고 싸우는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여준 위대한 전략적방침의 승리였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군사예술의 독창성과 불패의 힘은 대부대선회작전시기에도 뚜렷

이 나타났다.

당시 적들은 백두산 서남부일대에서의 우리의 군사활동방식을 알고 토벌력량을 증강집중하고 악착한 《진드기전술》로써 우리를 포위봉쇄하는 한편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찾아내려고 수색전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이러한 기도를 앞질러 간파하시고 백두산을 중심으로 대부대선회작전을 조직하여 적들이 따라오면 또 새 자리에 옮겨가고 또 그곳에 적들이 따라오면 놈들을 족치고 다른 새 자리로 옮겨가군 함으로써 적들을 완전히 피동에 빠뜨려놓고 섬멸하게 하시였다.

이 시기 수령님께서는 륙과송전투와 장신즈목재소습격전투, 무산지구대안에로의 진출과 대마록구전투, 홍기하전투를 비롯한 크고작은 수많은 전투들에서 력량의 집중과 분산, 이동을 명확히 실현하여 습격전과 야간전, 유인전과 매복전, 도시진공전투와 포위전 등 각이한 유격전의 형식과 방법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적을 이르는곳마다에서 격멸하도록 하시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적들의 대군을 완전히 괴멸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 싸움으로 날이 가고 해가 바뀌는 열다섯해 기나긴 세월을 하루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의 진두에 서시여 인민과 유격대원들을 항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을뿐아니라 우리들을 백전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로 키워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유격대원들을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고 혁명의 지조를 꿋꿋이 지켜나가는 강의한 혁명가로 준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투의 불비속에서도 몸소 창조하신 유격전의 군사전략과 전술, 전법과 령군술로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교양육성하시였으며 실천을 통하여 그것을 깊이 체득하도록 가르쳐주시였다. 탄알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전투마당에서도 수령님께서는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몸소 기관총을 잡으시고 싸움의 앞장에 서시였으며 간고한 고난의 행군길에서는 한홉의 미시가루마저 어버이심정그대로 대원들에게 돌려주시였다.

하기에 우리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명도밑에 그이의 전사로 살며 싸우는것을 최대의 영예로, 그 무엇과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이께서 밝히신 조선혁명에 관한 로선과 투쟁방침들을 철저히 옹호하였고 그이께서 주신 명령과 지시는 생명과 바꾸는한이 있더라도 어김없이 수행하고야말았던것이다.

수령님께서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 《**우리 빨찌산들은 원쑤에게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인민들에게는 순한 양처럼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야 한다.**》고 우리들을 항상 가르치시면서 인민의 리익을 존중하고 철저히 옹호하며 언제나 인민의 충복이 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어려운 전투환경속에서도 인민들의 피해를 념려하시여 희생을 무릅쓰고 적을 다른데로 끌어다 족치군 하시였다.

참으로 대원들과 인민들에 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인 배려, 그이께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은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성취하시였으며 반혁명적무력에 혁명

적무력으로 대항하는 무장투쟁만이 반제민족해방투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라는것을 온 세계에 힘있게 실증하시였다.

또한 인류를 파시즘의 노예화로부터 구원하며 승리한 프로레타리아혁명을 무장으로 보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으며 린접국가인민들의 해방투쟁을 피로써 도와주는 국제주의적 산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제국주의식민지체계에 아물수 없는 커다란 첫 돌파구를 뚫어놓으시였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 자위적군사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진행되는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의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3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현대제국주의의 괴수인 미제침략자를 때려부신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다.

1940년대중엽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로 조국은 해방되였으나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국토는 량단되고 민족은 분렬되였으며 우리 조국에는 전쟁의 위협이 조성되게 되였다.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미제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며 우리 나라를 아세아대륙침략의 교두보로 만들기 위하여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피로써 찾은 나라의 독립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준엄한 판가리싸움에 나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반제반미투쟁이였으며 인민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47페지)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3년동안의 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였다.

미제는 최신기술로 장비된 제놈들의 륙해공군의 기본력량과 15개 추종국가 무력을 동원하여 수적우세와 기술적우세로써 단숨에 우리를 굴복시켜보려고 덤벼들었다.

당시 우리 인민군대는 청소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일제식민지통치기반으로부터 해방된지 다섯해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형편에서 세계 《최강》을 떠들며 백여차례의 침략전쟁에서 《승리》만을 알던 미제와 그를 우두머리로 한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을 반대하여 싸운다는것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에게 있어서 실로 힘겨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추호도 동요하지 않았으며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원쑤를 무찌르는 성전에 결연히 떨쳐나섰으며 그이의 탁월한 령도밑에 세계전쟁력사상 류례드문 간고한 시련을 이겨내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일제의 백만대군을 물리치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신 전설적영웅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침략자 미제를 격멸하는 성전에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능숙히 조직동원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에 대처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힘을 전쟁승리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침과 방도들을 내놓으시였으며 그의 관철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인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전투적구호밑에 당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시였으며 국가, 경제 기관들의 모든 사업을 급속히 전시체제로 개편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심으로써 온 나라를 하나의 강력한 전투진영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원쑤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의 부정의적성격, 미제의 취약성과 군사전략의 모험성, 제국주의동맹의 불견고성 등에 대한 과학적분석과 그리고 조선인민이 진행하는 전쟁의 정의적성격과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과 무궁무진한 힘, 인민민주주의제도의 불패의 생활력과 전세계인민들의 국제주의적지지 등 전쟁승리의 모든 요인들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혁명의 임무와 조성된 군사정세, 적아간의 력량관계 등을 전면적으로 타산하신데 기초하여 전쟁의 매 전략적단계들을 옳바로 규정하시고, 천재적인 군사전략전술적방침들을 내놓으시였으며 몸소 진두에 서시여 그 방침의 실현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전기간 무엇보다도 군사분야에서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이끌어나가시였다.

군사활동에서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탁월한 군사전략사상과 전략전술적방침을 구현할수 없었으며 전쟁에서 군대와 인민의 적극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양시킬수 없었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전기간 인민군대와 인민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시였으며 우리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혁명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를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당의 군대,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 튼튼히 꾸려나가시였으며 군대에 대한 당적령도를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특히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에서 세련되고 단련된 우수한 혁명투사들을 계속 인민군대에 파견하시여 그들을 골간으로 하여 혁명가의 대렬을 늘이도록 하시였으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각 군종과 병종을 조국해방전쟁의 요구와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 맞게 전면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그이께서 창시하신 자위적군사전략사상과 독창적인 군사전략전술, 전법에 정통하도록 하심으로써 전투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정치사상적, 전술적 우세로써 적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결정적으로 타승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세발전에 대한 과학적인 예견성, 기도의 독창성과 기묘성, 독창적인 투쟁형식과 방법의 능숙한 결합, 지휘에서의 견결성과 명활성으로 천재적인 군사전략적지도를 실현하심으로써 전쟁의 매 단계에 나서는 어려운 군사전략적과업들을 빛나게 해결하시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인도해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진 전선에 걸친 불의의 공격을 단호히 물리치고 즉시로 전면적인 반공격에로 넘어가는 독창적

인 군사전략으로써 전쟁초기부터 침략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시였다.

일반적으로 전쟁력사는 우세한 군사적잠재력을 가지고있고 충분한 방위태세를 갖춘 나라일지라도 적의 불의의 침공앞에서는 엄혹한 시련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공격으로 넘어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로 하여금 적들의 불의의 침공을 그 자리에서 좌절시키고 즉시적이며 전면적인 반공격에로 넘어갈수 있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주타격방향과 보조타격방향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시고 적들에 대한 련속적인 타격과 포위전을 능숙하게 조직지휘하심으로써 패주하는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않고 침략자들을 소멸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남반부의 넓은 지역의 인민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전인민적항전에로 일떠서게 하시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대전지구해방작전은 그이의 탁월한 군사예술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한 위대한 작전이였다.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상승사단》으로 자처하던 제놈들의 24사로 대전지구에 《불퇴의 선》을 구축하고 새로운 대병력을 상륙시켜 24사와 시급히 합류시킴으로써 인민군대의 거세찬 공격을 저지시키려던 적의 작전적기도를 미리 포착하시고 적에 비하여 한수 먼저 선손을 쓰시였으며 독창적이며 기묘한 전법과 명군술로써 적이 합류되기전에 미제침략군 24사를 대전지구에서 완전히 포위소멸하심으로써 원쑤들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주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직접적지휘밑에 조직진행된 대전지구해방작전은 그이께서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창조하신 령활한 전략전술을 현대전의 조건에 능숙하게 구현한 위대한 작전이였으며 각 병종부대들의 긴밀한 협동작전밑에 정면공격과 익측공격, 민첩한 기동과 우회와 포초, 매복과 습격, 련속타격과 림기응변의 전술 등 다양한 무장투쟁의 형식과 방법이 유기적으로 배합되여 진행된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였다. 이 작전은 기술적 및 수적 우세를 떠들던 적을 정치사상적, 전술적 우세로 타승하여 미제의 작전적기도를 산산이 부셔버린 통쾌한 작전이였다.

이 작전의 승리는 당시 미제침략군 극동사령관이였던 맥아더로 하여금 워싱톤에 보내는 비보에서 《면은 싸웠으나 내가 미처 손쓸사이 없이 완전히 괴멸되고말았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미제침략군의 《최종방어선》은 이렇게 무너졌으며 《무적의 상승사단》은 조선전선에서 이렇게 전멸되고야말았다.

그리하여 《조선에서의 작전은 수일내에 끝날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불의성》과 《전격전》으로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삼키려던 미제의 전략적기도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적아간의 력량관계의 변화로 말미암아 조성된 새로운 군사정치정세하에서 매우 어려웠던 정황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키심으로써 인민군대의 새로운 재진격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시였다.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원쑤들이 《조선에서의 전쟁은 끝장났다.》고 떠벌였고 우리의 벗들까지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있던 전략적후퇴의 간고한 시기에도 승리의 확신으로 전쟁의 전망을 확고히 예견하시면서 전선의 매 계선마다에서 완강한 방어를 조직하여 적을 타격하며 적의 발악적인 공세를 저지시키는 동시에 최전선의 주력부대들의 조직적후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도록 하

시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후비부대를 계속 준비하심으로써 인민군대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재진격에로 넘어갈수 있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부대의 전략적후퇴를 조직하시면서도 재진공을 구상하시고 준비하시였으며 적의 공격을 좌절시킨 바로 그때에 벌써 여러 단계의 작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하시고 적의 배후에 제2전선을 형성하시는 대담하고도 독창적인 군사전략을 창조하시였다.

특히 제2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수령님의 방침은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군사행동의 차후발전에 대한 천재적인 예견에 기초한것으로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토대하여 세워진 세계전쟁력사상 그 류례를 볼수 없는 위대한 방침이였다. 이것은 하나를 보시고도 열, 백을 헤아리시는 비상한 통찰력, 하나의 작전을 전반적인 작전과 련쇄된 고리로, 다음 작전의 준비로, 서락으로 보시면서 맺힌 고리들을 혁명적으로 풀어나가시는 과학적예지와 혁명적전개력을 지니고계시는 우리의 수령님께서만이 구상하시고 내놓으실수 있는 탁월한 군사전략적방침이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때에 적의 전략적기도와 약점, 전쟁발전전망을 천재적으로 예견하시고 적보다 몇수 더 먼저 뜨시였다.

전투에서는 누가 상대방보다 한수 더 내다보느냐 하는것만으로써도 승패는 결정된다고 말할수 있다.

사실 그때 제2전선을 담당한 군단은 그이의 이러한 탁월한 전략작전적방침이 있었음으로 하여 그이께서 맡겨주신 지역을 튼튼히 장악하고 현대적인 대정규부대으로써 적후활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모범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패주하는 적을 이르는곳마다에서 완전히 포위소멸할수 있었던것이다.

수령님의 탁월한 방침과 지도에 의하여 《크리스마스》이전으로 전 조선을 강점한다고 떠들어대던 미제침략자들의 전략계획은 완전히 파탄되게 되였으며 적들은 38도선이남으로 구축되고야말았다.

적극적진지방어전에서도 수령님의 독창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의 우월성은 남김없이 시위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지역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떠벌이면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투항주의적이며 반동적인 군사적견해를 단호히 폭로규탄하시고 갱도를 기본으로 하는 강력한 방어진지를 굳설하게 하심으로써 산악방어를 철벽의 요새로 만들어 원쑤들의 온갖 형태의 무력침공도 성과적으로 격퇴하게 하시였으며 조국의 촌토를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게 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커다란 전략적의의를 가지고있었던 1,211고지의 전투승리는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작성하신 명확한 군사 전략과 전술, 전법의 불패의 힘과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1,211고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략전술상 매우 중요한 곳이였다. 만일 이 고지를 내놓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지역을 적들에게 넘겨줄수 있게 되며 따라서 전쟁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수 있었다.

당시 적들은 제놈들의 기도를 가리우기 위하여 전선서부에서와 중부에서 허위기동과 《맹렬한》 공격을 조직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적들의 음흉한 기도를 제때에 꿰뚫어보시고 서해안의 일부 방어부대들을 재빨리 전선동부에 기동시키는 한편 1,211고지일대에 강력한 방어지대를 형성하게 하고 적사포까

지 고지에 끌어올려 보포협동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비행기사냥군조, 땅크사냥군조, 저격수활동, 습격조 등을 널리 조직하시여 이 지대에서 일대 섬멸전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이렇게 하여 적들의 《하기공세》와 《추기공세》를 여지없이 파탄시키고 전쟁의 국면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환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처럼 바쁘신가운데서도 일신의 안전을 돌보시지 않으시고 친히 전선에 나가시여 현지에서 작전을 직접 조직지휘하시였으며 전호에서 싸우는 우리 전사들을 고무격려하시였고 군인들의 생활과 건강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뜨겁고도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가렬한 전쟁의 나날 싸우는 전사들을 언제나 생각하시며 그들을 금싸라기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면서 고지에서도 항상 더운 밥과 더운 국을 먹게 하라고 한밤중 우리에게 전화로 신신당부하시였으며 원쑤의 화구를 몸으로 막고 중상을 입은 한 전사의 건강을 그토록 념려하시여 손수 보약까지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실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어버이심정그대로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로 하여 우리 인민군용사들은 피어린 락동강의 격전장에서도, 엄혹한 시련이 겹쳤던 전략적후퇴의 길에서도 항상 수령님을 우러러 불사신마냥 싸웠으며 《김일성장군 만세!》를 웨치면서 육탄이 되여 적의 화구도 서슴없이 막아나설수 있었던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몸소 조직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지하공장의 로동자들과 전시식량증산을 위해 투쟁하는 농민들을 찾으시여 그들을 전시생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으며 모든것이 다 파괴된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온갖 대책을 세워주시였을뿐아니라 전후 복구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면서 그 준비사업을 하나하나 마련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적 잠재력을 전쟁승리에로 능숙히 조직동원하시였으며 탁월하고 천재적인 군사지략으로써 정규전과 유격전, 대부대활동과 소부대활동을 능숙하게 결합시키시고 적의 불의의 공격에 대처한 즉시적인 반공격전과 련속적인 타격전, 기본전선과 적후에 형성한 제2전선과의 협동에 의한 대포위전, 갱도에 의거한 적극적인 방어전과 습격전, 산악전과 야간전, 산악조건에서의 각 군종과 병종들간의 협동작전, 포화력의 집중적인 리용과 유동포활동, 저격수운동과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 등 새로운 전략전술과 독창적인 전법을 창조하고 적용하도록 하심으로써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력사적인 승리로 결속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군사사상과 군사예술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군사분야에서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주체적이며 자위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우리 인민군대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온 세계에 남김없이 떨치게 하시였으며 제국주의침략군대와 반동세력에 비한 혁명군대와 혁명적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온 세상에 력력히 실증하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심으로써 미제의 새 세계대전 도발책동을 결정적으로 짓부시고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지키는데 위대한 기여를 하시였으며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시고 세계제국주의체계의 전면적 붕괴와 멸망을 더욱 촉진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이룩하심으로써 100여년의 침략력사에서 패배를 모른다고 호언장담하던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리고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미제는 결코 무적이 아니며 그와 맞서 끝까지 싸운다면 능히 이길수 있다는 위대한 투쟁의 진리를 깨우쳐주시였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새롭게 앙양되게 하시였다.

4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위적인 국방건설방침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사회주의나라의 방위력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다.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것은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그들이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강력한 자위적인 방위력을 가져야만 제국주의의 침략을 저지파탄시키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킬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혁명발전의 필연적요구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현대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 혁명전쟁의 합법칙성을 깊이 통찰하신 기초우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력사적기간 국방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탁월한 로선과 방침들을 새롭게 내놓으심으로써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이 근본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54페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함께 국방건설을 통일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총적방향을 밝힌 새롭고 독창적인 전략로선이다.

만일 전쟁과 그로 인한 파괴를 두려워하면서 경제건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수 없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전진시킬수 없을것이며 반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 경제건설에만 치우치고 국방력을 충분히 강화하지 않는다면 도리여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게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고사하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과 나라의 안전도 보위할수 없게 될것이다.

경제와 국방에 대등한 힘을 넣어 다

같이 힘있게 밀고나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령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드놀지 않는 혁명적원칙성과 완강한 의지, 혁명적절개력으로 온갖 난관과 시련을 타개하시면서 경제와 국방을 병진하는 전인미답의 길을 대담하게 개척하여 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시는 한편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 속에 몸소 들어가시여 이 로선의 혁명적본질을 깊이 인식시키고 위대한 주체사상과 전철한 반제혁명사상, 전쟁에 대한 혁명적관점으로 그들을 튼튼히 무장시키시였으며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소극성, 보수주의 등 온갖 낡고 침체한것들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전당적,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조직지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복잡한 내외의 정세하에서도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었고 일단 유사시에는 전방과 후방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나라의 경제를 튼튼히 준비할수 있었으며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강력한 자위적인 국방력을 꾸려놓을수 있었다.

실로 수령님께서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과 그 당이 온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할 때까지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내놓으시고 몸소 경제와 국방을 병진하는 어렵고 복잡한 길을 대담하게 개척해나가심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과 국제혁명위업에 위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내놓으시였을뿐아니라 자위사상의 요구에 맞게 국방건설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밝히시고 나라의 방위력을 불패의것으로 만드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자위의 정신을 구현하여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처할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게 하며 이미 쌓아놓은 튼튼한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에 의거하여 나라를 방위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충분히 갖추는 동시에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40페지)

전쟁에 대처할수 있도록 인민과 군대의 정치사상적준비를 앞세우면서 자체의 튼튼한 물질적준비와 군사적위력을 다같이 강화하는것은 국방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수령님께서는 인민과 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소홀히 하고 물질적준비에만 매달리거나 인민과 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 사업을 물질적준비와 군사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결부시키지 않는 온갖 그릇된 편향들을 다같이 배격하시고 나라의 방위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인 군사로선을 내놓으시고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우는 독창적인 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는 우리 당 군사로선

의 진수입니다.>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군사로선은 사회주의하에서 혁명무력건설과 나라의 방위력강화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며 국방에서 주체성의 원칙,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길을 처음으로 밝히신 위대한 군사강령이다. 여기에는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의 고귀한 경험과 교훈, 현대전쟁의 요구들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규정하신바와 같이 현대전쟁은 립체전으로서 전투행동이 땅과 바다, 하늘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며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다. 현대전쟁은 막대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동원하며 정규무력과 함께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전인민적항전을 벌릴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국가는 자위적군사로선의 요구대로 전군을 간부화, 현대화하며 전민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요새로 만들어야만 사람, 무기, 군사진지들을 다같이 옳바르게 결합시켜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국방사업을 전인민적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고 군사전략상요구에 맞는 위력한 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울수 있다.

정규적혁명무력인 인민군대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수행한다.

우리의 정규무력을 일당백의 현대적혁명무력으로, 간부군대로 튼튼히 꾸리는것은 그 어떤 원쑤들의 도발책동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불패의것으로 만들며 일단유사시에는 군대를 량적으로 급속히 늘여 제국주의침략자들을 결정적으로 타승할수 있게 하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항상 사람, 군인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시였으며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우월성과 현대적군사기술을 밀접히 결합시키심으로써 인민군대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군을 현대화함에 있어서도 주체성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전법을 끊임없이 완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시며 나라의 공업발전수준에 따라 필요한 무기와 군사장비를 자체로 만들어내며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준비시키고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게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현대화하도록 하시였다.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위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핌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전사들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등급이상의 높은 군사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게 준비될수 있었고 일등급의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로 튼튼히 장비될수 있었으며 각 군종과 병종들이 자위에 기초한 군사전략적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튼튼히 꾸려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발생발전되고있는 붉은기중대운동은 인민군대를 자랑스러운 간부군대로, 일당백의 현대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대중적공산주의운동이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창조하신후 인민군대의 한 구분대를 찾으시여 사상혁명을 위주로 하는 붉은기중대운동의 불길을 몸소 지펴주시고 이 불길이 인민군대의 온 대오를 휩쓸게 하심으로써 전투에서 단련되고 당의 군사로선관철을 통하여 더욱 강화된 우리의 인민군대를 공산주의적으로 살며 일하는 혁명가들의 대부대로, 정치사상적우월성과 현대적군사기술이 튼튼히 결합된 실로 그 어떤 원쑤도 당해내지 못할 무적의 대오로 장성강화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전민을 무장시키고 온 나라를 요새화하는 방대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심으로써 적들의 어떠한 침공도 막아낼수 있는 군사전략상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를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 방침은 국방에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구현한것으로서 혁명무력과 함께 전체 인민대중을 튼튼히 준비시키고 군사행동지대를 철벽으로 꾸려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불패의것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기 위한 방침을 적극 실현해나가심으로써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이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건설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시였으며 온 나라를 현대전의 어떤 정황조건에서도 사람과 전투기술기재, 중요 대상물들을 믿음직하게 보위할뿐아니라 정규무력과 무장한 인민이 튼튼히 의거하여 원쑤들의 침공을 물리칠수 있는 하나의 난공불락의 군사요새로 전변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 세우신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는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인 사람과 그의 사상의식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면서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다른 모든 요인들을 튼튼히 꾸리게 함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을 불패의것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방도로 된다.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방위력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닦아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나라의 튼튼한 물질적토대를 쌓을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지난날 보총이나 몇자루 생산하는 보잘것없는 군수공업을 가지고있던 우리 나라에 조국보위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국방에 필요한 군사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위력한 자립적인 국방공업기지를 튼튼히 닦아놓으시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국방건설방침과 자위적군사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는 일당백의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튼튼히 서고 자립적인 튼튼한 국방공업기지를 가진 강력한 자위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될수 있었으며 우리 민족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될수 있었다.

바로 우리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강력한 국방력과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있음으로 하여 적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이 계속되는 오늘의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었고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때에도 적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라는 단호한 립장을 취하여 미제침략자들로 하여금 우리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게 할수 있었으며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었던것이다.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군사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한 반제혁명전쟁에서와 자위적인 혁명무력건설과 국방사업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군사전략가》로, 《현대제국주의를 타승한 강철의 명장》으로, 《반제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우러러 칭송하며 존경하고있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군사사상, 자위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적들의 그 어떤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정치사상적, 물질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놓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동원되고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고 전쟁에 대한 혁명적관점을 튼튼히 세워야 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여야 한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새 전쟁 도발음모는 더욱더 로골화되고있으며 미제의 비호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또한 남조선괴뢰도당은 자기 상전들의 전쟁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눈이되여 미쳐날뛰고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원쑤도 단숨에 때려눕힐수 있는 튼튼한 군사적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여있다.

전당, 전민, 전군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뭉쳐있으며 그 어떤 원쑤들의 침공도 일격에 타승할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일당백의 인민군대와 무장한 인민의 불패의 힘이 있으며 온 나라가 난공불락의 군사요새로 튼튼히 전변되였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의 이 엄연한 현실을 망각하고 또다시 분별없이 전쟁모험을 감행한다면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군대와 무장한 전체 인민의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면치 못할것이며 원쑤들은 자신이 지른 불속에서 영영 타죽고야말것이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며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김 영 주

전체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가장 뜻깊은 민족적경사로 맞이하고있다.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은 그이의 반세기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력사를 크나큰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게 돌이켜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동안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맑스-레닌주의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여오시였다.

이 위대한 공헌으로 하여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과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의 무한한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신다.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혁명기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한 장구한 투쟁과정에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사상리론적업적은 비상히 풍부하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맞으면서 우리는 그이의 혁명사상의 기본내용을 더듬어보려 한다.

1. 김일성동지는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높은 단계에로 발전풍부화시키시고 조선혁명리론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김일성동지는 류례없이 간고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면서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창시하신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갖 착취제도를 쓸어버리고 인류의 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상 가장 심각한 변혁과 창조의 과정이다.

로동계급이 이 위대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과학적인 혁명리론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리론이 없는 혁명실천은 자연발생성과 맹목성을 피할수 없으며 우여곡절과 실패를 면할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혁명리론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밝혀진다.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의 지혜와 재능은 무궁무진하지만 혁명의 지도리론은 결코 그들속에서 저절로 나오는것

이 아니다. 대중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도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분석종화되고 일반화되여야 혁명리론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을 혁명승리에로 이끄는 로동계급의 수령은 로동계급의 과학적인 혁명리론의 창시자로 된다.

로동계급이 투쟁무대에 오른 이래 그들의 앞길을 처음으로 밝혀준 맑스주의는 국제로동계급의 최초의 수령인 맑스에 의하여 창시되였다. 또한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시기의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인 레닌주의도 맑스의 위업을 계승한 로동계급의 수령인 레닌에 의하여 창시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여 새로운 혁명리론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은 그 첫걸음부터 새로운 혁명리론을 요구하였다.

조선인민은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부터 반일의 기치밑에 민족해방운동을 줄기차게 벌렸으며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등장함에 따라 공산주의운동도 싹트기 시작하였다. 민족적독립과 공산주의 구호를 든 수많은 선각자들이 나섰고 인민들은 많은 피를 흘리면서 싸웠으나 초기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실패를 거듭하였다. 그것은 바로 옳은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이 없었던 탓이였다.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여있던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은 전혀 새롭게 밝혀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간고한 시련속에서 조선혁명이 새로운 혁명리론을 절박하게 요구한 바로 그때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였다.

수령님의 혁명활동의 개시와 더불어 조선혁명의 가장 정확한 투쟁강령이 나왔으며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승리의 새 서대가 열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오르신 첫날부터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다.

수령님의 사상리론활동은 처음부터 철저한 주체적립장으로 일관되였다. 남의 힘에 대한 의존심이나 기성리론과 경험에 대한 교조적태도는 그이와 아무런 인연도 없었다.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립장에서 혁명활동의 첫시기에 벌써 수많은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조선혁명의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연구하시였으며 그를 널리 보급하시였다. 1927년에 첫 맑스-레닌주의적신문 《새날》을 몸소 발간하신후 초기혁명활동시기에만도 수많은 혁명적출판물들을 발간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창조적인 연구와 그 보급을 위한 김일성동지의 정력적인 활동과정은 곧 조선혁명의 정확한 지도리론을 마련하시는 과정이였다. 그이의 탁월한 초기사상리론활동은 마침내 1930년대초에 전면적으로 밝혀진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으로 빛나는 결실을 맺었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아직 20대도 못되는 젊으신 때에 독자적인 사상리론활동을 통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승리의 앞길을 개척하시였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탁월한 사상리론적업적을 쌓아올리신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쉬임없이 리론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간고하고 복잡한 정치군사활동이 끊임없이 계속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집대성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불후의 고전적로작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몸소 집필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히시였으며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의 분망한 환경속에서도,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도 탁월한 리론을 제시하시여 혁명의 난국을 타개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후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관한 테제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통하여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조건에서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끈바른 길을 밝히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을 밝히시기 위하여 더욱 큰 정력을 지니시고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앞날을 멀리 내다보시면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을 위하여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에 심오한 과학리론적해답을 주시였다. 그이께서 발표하신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주체사상에 관한 로작들,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정치경제학로작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과학적공산주의문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인민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실로 기나긴 혁명투쟁로정에서 그이께서 몸소 작성하시고 발표하신 우리 당 문헌들과 공화국정부정강들, 그이의 력사적인 보고들과 연설들, 담화들과 현지교시들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사상리론적업적의 높이를 뚜렷이 보여준다.

김일성동지의 사상리론활동은 언제나 혁명실천과 밀접한 통일을 이루고있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조선혁명의 앞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신 때로부터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전인미답의 길을 밝히시기까지 언제나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실천적요구로부터 출발하시여 그리고 그 풍부한 실천적경험을 전면적으로 일반화하시여 새로운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을 지니시고 시대의 요구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성,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시여 탁월한 리론을 창조하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근로하는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 속에 담긴 고귀한 진리를 예리하게 포착하시고 대중의 풍부한 경험을 일반화하시여 모든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또한 혁명리론의 정당성을 대중의 혁명실천을 통하여 검증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켜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모든 리론은 례외없이 혁명실천속에서 나왔을뿐아니라 혁명실천에 철저히 복무한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리론을 한갖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혁명투쟁의 무기로, 대중을 각성시키고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삼

오시였다. 그러기에 그이께서는 모든 문제를 과학리론적으로 깊이 해명하는데만 머무르시지 않고 그 실천방도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으며 복잡하고 어려운 리론문제도 대중이 쉽게 파악할수 있는 표현으로 풀어주시였다.

수령님의 모든 리론이 그처럼 생동하며 대중의 심장을 그처럼 힘있게 틀어잡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김일성동지의 사상리론활동은 또한 비상히 다방면적이다.

수령님의 심려와 사색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와 모든 분야에 미치고있으며 인민들의 모든 생활에 잇닿아있다. 그이의 심려가 미치는 모든곳에서 새로운 리론이 출현하였으며 그이의 다방면적인 실천활동행정은 동시에 비상히 폭넓은 리론적재부가 마련되는 과정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에 이르는 동안 반제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세계혁명을 위한 헌신적인 투쟁과정에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모든 단계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였다. 또한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비합법적투쟁과 합법적투쟁,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사상투쟁, 주권전취이전의 투쟁과 주권전취 이후의 투쟁, 유격전쟁과 현대전쟁, 당 및 국가 건설과 근로단체건설, 경제건설과 문화건설 등 온갖 형태의 투쟁을 몸소 조직하시고 지도하시는 과정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지도리론과 방침을 작성하시였다.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의 앞길을 밝히는 강령적 로작들과 함께 유격전의 군사교범과 불후의 고전적문예작품 등을 몸소 창작하신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은 정치와 경제뿐아니라 군사, 문화, 교육, 예술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있다.

참으로 김일성동지는 위대하고 심오한 백과전서적인 사상리론적재부를 창조하신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바로 그이의 이렇듯 위대한 사상리론활동의 빛나는 결실이다.

1) 주체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수많은 로작들에서 이에 대한 독창적인 리론을 전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과 기본요구,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 등 주체확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심오하고도 구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이리하여 하나의 전일적인 리론체계를 갖춘 주체의 위대한 학설을 확립하시였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근본립장과 태도를 밝혀주는 사상이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 영생불멸의 혁명사상이며 공산주의운동의 근본원칙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온 혁명의 객관적진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

는 자주적인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하며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하여나가는 창조적인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4~505페지)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나라 당과 인민자신이 주인노릇을 똑똑히 해야 하며 그러자면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은 사고와 혁명실천에서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이러한 태도와 립장을 견지해야 로선과 정책을 옳게 세울수 있고 인민의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할수 있으며 민족의 독립과 번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자주성과 창조성, 이것은 주체사상의 본질적요구이다.

주체사상은 우선 로동계급의 자주성의 요구를 가장 완전하게 반영하고있다.

공산주의운동은 원래 온갖 예속을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자주적운동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그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혁명을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혁명을 하는것이다.

공산주의운동은 또한 나라를 단위로 하고 민족주체적역량에 의하여 진행되는 운동이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기본임무는 자기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잘하는것이다. 매개 나라 혁명의 담당자는 그 나라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자체의 힘이다. 다른 나라 사람이 혁명을 대신해줄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을 잘하자면 그 나라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이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만일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한다면 사대주의를 면할수 없고 민족적독립과 존엄을 고수할수 없으며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책임적으로, 주동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없다.

이와 함께 《자주성》, 《독자성》의 간판밑에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로동계급의 국제적련대성의 원칙을 거부하는것도 공산주의자들의 태도가 아니다.

주체사상에서의 자주성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완전한 자주성이며 로동계급의 국제적련대성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기초한 자주성이다.

주체사상은 또한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성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맑스-레닌주의는 창조적학설이다. 그것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며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다. 만일 교조주의에 빠져 기존명제와 남의 경험을 통채로 삼킨다면 창조적학설로서의 맑스-레닌주의의 위력과 생활력을 발양시킬수 없다. 이렇게 되면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킬수 없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상과 리론, 명제들을 내놓을

수 없다.

다른 한편 《창조성》의 간판밑에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와 혁명적원칙을 거부하는것은 혁명적학설로서의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성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수정주의이다.

주체사상에서의 창조성은 혁명의 요구, 현실의 요구라면 어떠한 기존명제나 리론에도 구애되지 않는 창조성이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를 철저하게 고수하는 창조성이다.

주체사상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은 불가분리의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고있다. 자주성을 떠난 창조성도, 창조성을 떠난 자주성도 생각할수 없다.

창조성은 자주성에 기초할 때 철저히 구현될수 있다. 제정신을 가지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에 설 때에만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자주성이 없이 남에게 매여가지고서는 하고싶은 말도 제대로 할수 없다.

자주성은 창조성과 결합될 때 철저히 구현될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자체의 지도리론, 자체의 로선과 정책이 없이는 자주성이란 생각할수 없다. 남의 로선과 정책, 남의 경험을 통채로 삼키고 남이 말하는 대로만 따라간다면 자주성이 보장될수 없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견지해야 할 지도적원칙을 밝혀주는 사상이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는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기 위한 지도적원칙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이것이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립장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0폐지)

사상, 정치, 경제, 군사 등 인류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들에서 예속과 불평등을 없애야 공산주의운동의 총국적목적인 인류해방의 위업을 완수할수 있다. 그러자면 착취와 압박의 근원을 없앨뿐아니라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국제관계에서도 온갖 예속과 불평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원칙은 그것을 호상 밀접한 통일속에서 옳게 관철할 때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될수 있으며 자기의 생활력을 완전히 발휘할수 있다.

사상에서의 주체는 사람들속에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관점과 태도를 세우기 위한 사상사업의 지도원칙이다. 사상에서의 주체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위한 근본조건이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이 하는것만큼 그것을 잘하자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옳은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을 가지고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을 똑바로 세워야 한다. 사상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고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좀먹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한 사상정신적해방을 이룩할수 있으며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한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데서 기본은 자기 수령의 사상,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자기 머리로, 창조적으로 사고한다는것은 곧 자기 수령의 사상,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사고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수령의 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것이며 자기 당과 인민의 리익과 의사의 최고표현이다.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철두철미 그에 기초해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모든 분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뿌리뽑고 주체를 철저히 세울수 있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다. 그것은 정치적독립을 이룩하고 민족자결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대내외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행정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정치적지도원칙이다. 정치적자주성은 경제에서의 자립과 국방에서의 자위를 위한 기본담보이다.

경제에서의 자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내용과 방향, 방도를 밝혀주는 경제건설의 지도원칙이다. 자립경제는 정치적자주와 군사적자위의 물질적기초이다. 경제적자립이 없는 정치적독립이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으며 또 경제적자립이 없이는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할수 없다.

국방에서의 자위는 제국주의와 맞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국방사업의 지도원칙이다. 자위적국방력은 독립국가의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자위적국방력이 없는 정치적독립이란 언제든지 침해당할수 있는 극히 불안전한것이다. 그런 조건에서는 또한 안심하고 건설도 할수 없다.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는 주체적혁명력량, 정치적력량과 경제적력량, 군사적력량을 강화하는 가장 옳은 길이다.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은 철저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 사상이며 원칙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주장하는 자주성은 결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뿐만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것입니다. 자주성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결코 그것을 약화시키는것으로 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가 있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주의를 떠난 자주성도 있을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82~183페지)

로동계급의 국제적임무,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는 결코 그 어떤 공담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국제로동계급앞에 지닌 그 매개 민족부대들의 기본임무는 무엇보다도먼저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잘하는것이다. 먼저 승리한 혁명의 경우에 국제적임무는 또한 자기의 경험과 모범으로써 아직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의 혁명을 도와주고 자기의 정치, 경제, 군사적 힘으로 세계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원하는것이다. 이 임무도 결국은 자기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잘해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또한 국제적단결도 자주성에 기초해야 진실로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이처럼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

무, 자주성과 국제주의는 서로 뗄수 없이 통일되여있다. 만일 자주성을 잃고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제대로 못하여 남의 신세나 진다면 아무리 국제주의와 국제적임무에 대하여 강조하여도 그것은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 진정한 국제주의는 오직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잘하는데 기초해서만 나올수 있는것이다.

실로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게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 립장과 원칙을 밝혀주는 사상이며 민족과 인민을 온갖 예속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할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모든 민족과 인민이 다 자기 나라의 참된 주인이 되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제발로 걸어나가야 한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리는 그 누구에게나 다 파악될수 있는 가장 명백한 객관적인 진리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명백하고도 단순한 진리가 혁명의 사상적무기로서 파악되지 못하였었다.

인류사회는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착취와 피착취, 지배와 복종, 압박과 예속의 관계로 얽매여져있었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국내생활에서뿐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지배와 예속, 대국주의와 사대주의로 엉켜진 그러한 생활에 깊이 물젖어왔다. 작은 나라, 뒤떨어진 나라 사람들속에는 더말할것도 없고 큰 나라, 발전된 나라 사람들속에도 더 큰 나라, 더 발전된 나라를 숭배하는 비굴한 사상이 생겨났다. 이러한 낡은 사상은 공산주의운동내에도 침습해들어왔다.

자주성과 창조성의 원칙은 원래 자체의 힘으로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 사회주의, 공산주의 봉우리에 이르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근본요구이다.

그러나 사대주의가 있는곳에서는 이 자주성과 창조성의 원칙이 제대로 관철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적경험은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06페지)

사대주의는 특히 작은 나라,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나타날수 있는 낡은 사상으로서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만 쳐다보며 자기의것은 다 무시하고 남의것은 다 좋다고 떠받들면서 남에게 아부굴종하는 민족허무주의사상이다. 사대주의는 자기 나라 실정에 맞건 안맞건 상관없이 기존명제와 남의 경험을 통째로 삼키는 교조주의를 동반하며 외부로부터 온갖 기회주의를 다 끌어들인다. 사대주의에 물젖으면 자기 머리로 사고하지 않고 남의 풍에 놀며 자력갱생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며 결국 혁명과 건설을 잘할수 없다.

혁명과 건설을 잘하자면 반드시 사대주의를 뿌리뽑아야 하며 사대주의를 뿌리뽑자면 오직 그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위력한 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특히 작은 나라,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혁명이 성숙됨에 따라 주체의 진리를 체득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구현하는 문제가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기되였다.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지배와 예속의 관계로 사람들을 얽매여놓았던 낡은 세계의 그처럼 무거운 압력을 폭파하고 주체, 자주, 자립, 자위에 대한 인민들의 념원과 지향을 확고한 신념으로, 과학과 현실로 전환시킴으로써 거기에 잠재해있는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혁명적

정력의 문화구를 열어놓은데 바로 주체학설의 창시가 가지는 거대한 력사적 의의가 있는것이다.

주체사상은 혁명적폭풍우의 시대인 우리 시대의 혁명발전의 근본요구를 반영하고있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온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05페지)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독창적으로 혁명승리의 길을 헤쳐오신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가 상승적으로 발전하던 시대와는 물론 혁명이 한 나라에서만 수행되던 시대와도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력사적시대이다. 우리 시대는 큰 나라나 작은 나라, 발전된 나라나 뒤떨어진 나라 할것없이 모든 나라들에서 혁명이 성숙되고 수행되는 말그대로 세계혁명의 시대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국제적규모에서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며 지구상의 모든 피착취인민들과 피압박민족들이 해방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이며 혁명적폭풍우의 시대입니다. 제국주의는 멸망하고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온 세계적범위에서 승리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13페지)

1920년대말 1930년대초 자본주의세계를 휩쓴 파국적인 경제공황을 계기로 제국주의의 전반적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세계정세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섰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모순과 함께 제국주의나라들에서의 로자간의 모순과 파시즘과 인민간의 모순, 제국주의와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사이의 모순,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이 첨예화되였으며 많은 나라들에서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여 사회주의는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고 사회주의건설이 일정에 올랐으며 국제무대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력량과 반혁명세력 사이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이 전례없이 앙양되였다. 혁명의 폭풍우는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의 범위를 벗어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대륙을 휩쓸게 되였다.

이 위대한 혁명적변혁의 시대인 우리 시대는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하였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혁명외에 식민지예속국가들과 뒤떨어진 나라들에서의 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세계혁명의 전략전술 등 앞선 시기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였으며 그것은 매개 나라의 각이한 사회경제적조건과 민족적특성 등으로 하여 더욱 복잡성과 다양성을 띠게 되였다. 이미 있는 공식과 명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남의 경험을 그대로 옮겨놓아가지고서는 우리 시대의 이러한 복잡한 혁명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갈수 없었다. 맑스-레닌주의일반적원리와 남의 경험을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되였다.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은 또한 혁명과 건설에서 매개 나라 인민들과 공산주의

자들이 자주성을 견지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우리 시대에 와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은 그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그 내용이 비상히 복잡해졌다. 각이한 조건과 단계에서 복잡성과 다양성을 띠고 벌어지는 매개 나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그 어떤 국제적《중앙》이 유일적으로 지도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것으로 되였을뿐아니라 매개 나라들에서 혁명력량이 자라난 조건에서 그것은 불필요한것으로 되였다.

시대는 달라졌으며 혁명의 임무도 달라졌다. 혁명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맑스-레닌주의를 보급하는 과업이 기본문제로 나섰던 지난 시기에는 공산주의운동에서 국제적조직이 필요하였으며 그 지도밑에 세계에 맑스-레닌주의를 보급하며 각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을 키우고 묶어세우는 사업을 할수 있었다. 로씨야사회주의10월혁명당시만 하여도 혁명이 성숙된것은 몇개 나라뿐이였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보급하고 그 민족부대들을 조직하는것이 문제로 되였다. 사실상 맑스-레닌주의는 10월혁명을 계기로 전세계에 보급되였던것이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고 많은 나라들에서 혁명이 성숙된 실천적요구로 제기된 우리 시대에 와서는 맑스-레닌주의를 매개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적용하여 자체의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우며 근로대중을 반동의 아성을 공격하는 투쟁에로 실지 조직동원하는것이 기본문제로 나섰다. 이 임무는 그 어떤 국제적《중앙》이나 다른 나라 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매개 민족부대들의 자주적활동에 의해서만 수행될수 있었다. 더우기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고 나라들사이에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작용하고있는 조건에서 어느 한 나라 당이나 국제적조직이 다른 나라들의 혁명과 건설을 지도한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맑스-레닌주의리론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창조적립장과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자주적립장은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바로 이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창시된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핵이며 진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의 진수를 이루는것은 맑스-레닌주의적인 주체사상이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4페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주체사상을 초석으로 하는 전일적인 사상리론체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각이한 혁명단계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다방면적이고도 풍부한 혁명리론을 내놓으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학설의 모든 구성부분을 새롭게 발전시키시였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를 고수한 사상이며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을 새로운 시대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사상이다.

맑스-레닌주의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보편적진리와 일반적원칙이 담겨져있다. 이것을 확고히 고수하고 계승하며 새로운 시대

적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혁명승리의 필수적조건이다.

수령님께서는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투쟁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의 기성리론과 명제들을 새로운 혁명실천경험과 시대적요구에 기초하여 심화발전시키고 풍부화하심으로써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서 더욱 힘있는 무기로 되게 하시였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특히 변화된 력사적조건에서 새롭게 제기된 많은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명한 위대한 창조적사상이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그리고 세계혁명 등 혁명과 건설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해답을 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높은 단계에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실로 주체사상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모든 내용과 특징을 규정하는 근본사상이며 그 위대성과 창조성, 혁명성과 전투성, 불패의 생활력의 원천으로 된다.

주체사상은 오늘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시대적사조로 되고있으며 그것을 따라배우는것은 막을수 없는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다. 이것은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세계의 압도적다수의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과 뒤떨어진 나라들이다.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가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나라대렬이 확대되여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만큼 세계혁명의 운명은 결국 이 대다수 나라들에서의 혁명승리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다. 세계의 압도적대다수를 차지하는 작은 나라, 뒤떨어진 나라 인민들과 민족들이 사대주의사상에서 벗어나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설 때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힘으로 될것이며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급속히 촉진될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고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될것이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다.

2)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새로운 리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리론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룬다. 그이께서는 이미 1930년대초에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을 규정하시면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으심으로써 민족-식민지혁명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민족해방의 과업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밀접히 결부하여 수행하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류형의 사회혁명이다. 이 혁명은 반제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반제민족해방혁명리론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민족해방투쟁

의 최고형태로서의 무장투쟁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장투쟁을 견결히 전개하여야 한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19페지)

제국주의자들은 반혁명적폭력에 의거하여 계급적지배를 유지하고 식민지를 통치한다. 그들은 반혁명적무력이 완전히 격파되기전에는 자기의 지배권을 순순히 양보하지 않으며 절대로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다.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손에 무장을 들고 견결히 싸워야만 발톱까지 무장한 제국주의침략군대를 쳐부시고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을수 있다.

민족해방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장투쟁과 함께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 대중의 준비정도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옳게 배합하여 벌려야 한다. 그러나 모든 대중투쟁은 그 형태가 어떻든지간에 다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결정적투쟁의 준비로 되여야 하며 그 결정적투쟁은 오직 폭력적방법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

무장투쟁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혁명적폭력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민족해방혁명의 구체적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탁월한 사상이다.

수령님께서 무장투쟁에 관한 리론을 구현하시여 몸소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혁명의 위대한 승리였을뿐아니라 제국주의식민지체계에 돌파구를 뚫어놓고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의 획기적인 앙양을 이룩하게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그이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혁명군대에 의거하는 조직적무장투쟁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식민지나라들에서의 무장투쟁의 가장 합리적인 조직형식과 무장력의 건설, 근거지창설, 무장투쟁의 원칙과 명확무쌍한 전략전술과 전법을 독창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제국주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일떠선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에 귀중한 기여를 하시였다.

민족해방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피압박인민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침략세력과 맞서 싸워야만 참다운 해방과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승리를 위한 기본문제로서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고 로동자, 농민을 튼튼히 묶어세워 주력군을 편성하는 동시에 광범한 애국력량을 망라하는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주체적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는 길을 명시하시였다.

이 리론은 로동계급의 령도권과 로농동맹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더욱 발전시킨것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령도할수 있는 유일한 혁명적계급은 로동계급이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자기 편에 확고히 전취하여야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

특히 농민을 쟁취하는 문제는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매우 중요하게 나선다. 이 나라들에서 주민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은 제국주의적, 봉건적 압박과 착취로 하여 혁명성이 높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여기에서 농민대중은 단순히 로동계급을 보조하는 력량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로동계급과 함께 민족적 및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직접적담당자로 된다.

또한 식민지나라들에서는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급과 일부 애국적 민족자본가 등 광범한 애국력량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참가하며 이들은 혁명의 보조력량으로 된다.

혁명력량편성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바로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대중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튼튼히 묶어세우며 모든 반제력량을 최대한으로 쟁취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할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밝혀준것이다. 이것은 식민지반봉건사회관계에 맞는 가장 정확한 력량편성계획이며 반혁명에 대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하여 반제민족해방혁명의 확고한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게 하는 전략사상이다.

민족해방을 실현한 다음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국주의기반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사회주의에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혁명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민주주의혁명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인민민주주의혁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리론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인민정권과 인민민주주의제도 수립에 관한 리론이다.

모든 혁명에서 기본문제는 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 주권문제는 새롭게 해결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반동적통치기구를 짓부신 다음 세워야 할 정권은 인민민주주의정권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정권이며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정권이다. 이 정권은 부르죠아정권과 근본적으로 대립될뿐아니라 력사에 이미 알려진 로동계급의 정권들과도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정권이다. 이것은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광범한 계층이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는 정권형태이다. 인민정권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여 제반 민주주의적과업을 철저히 실현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대중을 이끌어나간다.

인민민주주의정권의 기본과업은 제국주의잔재를 철저히 청산하는 한편 제반 민주개혁을 수행함으로써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는데 있다.

민주주의혁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토지개혁이다. 토지문제를 옳게 해결해야 농촌에 뿌리박은 반동세력의 경제적 지반을 청산하고 농민들을 봉건적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민주화하며 사회적진보를 이룩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개혁과 관련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기초하여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철저히 청산하고 근로농민적토지소유제도를 세우기 위한 토지혁명에 관한 새로운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외래독점자본가들과 그와 결탁한 예속자본가들의 소유를 수탈하여 국유화할데 대한 사상,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사상, 교육을 민주화하며 자체의 민족간부대렬을 꾸릴데 대한 사상들을 밝히시였다.

우리 당이 이 탁월한 리론을 철저히 구현하여 해방후 북반부에서 수행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새 사회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첫 승리였으며 제국주의예속밑에 있던 인민들에게 진보적인 새 제도를 세우는 길을 밝혀준 귀중한 경험으로 되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승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에로 나아갈수 있는 전제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강점하에 놓여있는 남조선에서는 민족해방의 과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이 수행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는 조선혁명이 아직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 남아있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전국혁명과 지역혁명의 호상관계를 깊이 통찰하시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면서 북반부에서 혁명을 더욱 전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국토와 민족이 분렬된 조건에서 해방지역을 강력한 혁명기지로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반제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완성하는 길을 밝혀준것이다. 이 방침에 의하여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은 계속 승리의 앞길을 개척할수 있게 되였으며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이 급속히 추진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온 세계적범위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혁명적전환이 이룩되고있는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프로레타리아혁명리론을 발전시킨것이며 특히 반제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사회주의적변혁을 실현하는 길을 밝혀주는 리론이다.

반제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통하여 인민정권이 서고 광범한 민주력량의 단결이 이루어졌으며 중요산업이 국유화된 조건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수립하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는 문제는 새롭게 구체적으로 해명되여야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민주주의혁명을 통하여 강화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과 로농동맹에 기초한 인민대중의 통일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초우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을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창조적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의 정권문제를 새롭게 해결하는 길을 열어놓은것이다.

그이께서는 또한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확립하는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해명을 주시였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기술개조에 앞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할데 대한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력과 기술의 발전수준은 비교적 낮다 할지라도 생활이 낡은 생산관계의 개조를 절실히 요구하며 또한 그것을 맡아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였을 때에는 사회주의적개조를 미룰수는 없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73페지)

소상품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의 기본과업이다. 그런데 지난 시기까지는 사회주의공업화를 먼저 하는것이 하나의 공식으로 되여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험은 생활이 절실히 요구하고 주체적혁명력량이 마련되여있을 때에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먼저 하는것이 혁명의 근본리익에 맞는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하여야 선진적생산관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공업화와 기술개조를 빨리 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농촌경리의 협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실물로써 그 우월성을 보여주며 협동화의 형태와 규모, 속도를 옳게 규정하며 그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리하여 생산력과 기술발전 수준이 낮은 조건에서도 사회주의혁명을 가장 빨리 수행하는 올바른 길을 열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중소상공업자들의 자본주의적경리형태를 협동조합을 통하여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외래제국주의의 압박을 받았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참가하였으며 로동계급의 당을 따라나서는 민족자본가들을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수탈과 청산의 방법으로 처리할수는 없다. 더우기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그들의 경제토대가 매우 미약한 형편에서는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이 그들자체의 리익에도 맞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중소상공업자들과 함께 농촌의 부르죠아지인 부농의 경리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자본주의적경제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이 새로운 방침은 계급적원쑤들을 최대한 고립시키고 사회주의혁명을 순조롭게 진행할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며 제국주의예속밑에 있던 나라들이 사회주의혁명에서 중소부르죠아지문제를 해결하는 혁명적방도를 밝혀주는 창조적인 리론이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이 구현되여 전후 우리 나라에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섰으며 북반부혁명기지는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이에 의거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수 있게 되였다.

실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은 사회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킨 탁월한 리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리론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이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실천적과업으로 되고있는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새로운 문제들을 심오히 해명하시였으며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공산주의 미래사회를 뚜렷이 밝혀주며 거기에로 나아가는 로정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에 관한 탁월한 리론

을 제시하심으로써 공산주의건설의 과학적강령을 명시하시였으며 그것을 실현하는 기본열쇠를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두개 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하나는 물질기술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인데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며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을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생산력을 달성하는것입니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철저히 개조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요새도 점령할수 없으며 따라서 공산주의사회를 완전히 건설할수 없습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264페지)

공산주의사회란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가 확립되고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한 사회일뿐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적으로 철저히 개조된 사회이다.

공산주의의 두 요새 점령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조선혁명과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건설의 강령을 전면적으로 밝혀준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인류는 오랜 세월을 두고 모든 인민이 행복하게 사는 미래의 리상사회를 꿈꾸어왔다. 맑스-레닌주의 선행고전가들은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창시함으로써 인류의 이 리상을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웠다. 그들은 공산주의사회의 륜곽을 그려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일련의 원칙들을 밝혔으며 특히 공산주의의 물질적전제를 해명하였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공산주의사회는 물질적으로 매우 풍부한 사회이다.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아야 모든 사람들에게 수요에 의하여 분배할수 있는 높은 생산력을 창조할수 있으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과업도 훌륭히 해결할수 있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자면 물질적요새와 함께 또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사회는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도 과거사회와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사회이다.

물질생활과 함께 사상생활은 인간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령역이다. 사상의식을 떠난 인간을 생각할수 없는것과 같이 사상생활을 떠난 사회를 생각할수 없다. 공산주의사회는 철저한 공산주의적의식으로 무장하고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누리는 사람들의 사회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도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없다.

또한 물질적요새도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사람들의 자각성과 혁명적열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논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될수록 사람들의 능동적역할은 더욱 커진다. 수백만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제국주

의와 오래동안 대치된 조건에서 진행되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계속되는 사정과 관련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만일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약화시킨다면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되살아나고 조장되며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지켜낼수 없게 될것이다. 따라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은 공산주의건설의 선차적인 과업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사회의 전모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강령을 명시하시였을뿐아니라 거기에로 가는 단계와 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명적전환의 시기, 과도기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때까지 과도기가 언제까지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없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로정은 뚜렷이 밝혀지지 않고있었다. 또한 과도기문제에 대한 그릇되고 혼란된 견해도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건설하게 될 때 과도기의 임무가 실현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처음으로 과도기의 계선을 명백하게 그으시였을뿐아니라 무계급사회가 실현되고 과도기가 끝난 다음에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올라서자면 혁명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켜야 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과도기에 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과도기의 계선을 사회주의제도의 수립까지로 보는 그릇된 견해와 그것을 공산주의 높은 단계까지로 보는 모호하고 애매한 견해들이 다 극복되였으며 공산주의건설의 전반적로정에 대한 리해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공산주의의 두 요새에 관한 리론과 과도기리론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리해에 머무르고있었던 공산주의사회와 거기에로 가는 로정을 구체적으로 해명하여주고있으며 그 리정표를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오늘의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밝히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력사적위업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가 과도기의 전기간에 있어야 할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과도기가 끝난 다음에도 그것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 반드시 계속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411페지)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과도기와 시기적으로 일치하는것으로 보아왔다. 즉 과도기가 끝나게 되면 프로레타리아독재도 필요없게 되는것으로 인정되여왔다. 이것은 발전된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동시에 승리할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문제는 달리 제기되고있다. 세계혁명이 아직 완수되지 못하고 지구상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한 나라 또는 일부 지역에서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고 나아가서 공산주의가 실현되였다하더라도 이런 사회는 제국주의의 위협을 면치 못할것이며 외부의 원쑤와 결탁한 내부의 원쑤들의 반항도 면할수 없다. 또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넘어가자면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잔재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온 사회를 혁명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차이도 없앨수 있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 견지되여야 하며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가서도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프로레타리아독재가 필요없게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줴버리는것은 혁명을 포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업을 말아먹는 극히 위험한 편향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리론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이 두 측면을 옳게 결합하여나간다는것은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는 사업과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69페지)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는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적대분자들에게도 마음대로 활개칠수 있는 자유를 주는 그 어떤 초계급적인 《순수민주주의》로 될수는 없다. 계급적원쑤들에게 민주주의를 주는것은 그만큼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하는것으로 된다.

《순수민주주의》에 대한 주장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자유》에 대한 주장도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와 인연이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와 집단의 리익을 떠나서 개인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생각할수 없다. 만일 사회주의사회에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떠난 그 어떤 《완전한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썩어빠진 부르죠아자유이며 방종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오직 혁명의 리익의 범위내에서 말하고 행동할수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만이 있을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가장 보람있는 생활이다.

《순수민주주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반대하며 사회주의사회에 부르죠아민주주의를 끌어들여 혁명의 전취물을 파괴하려는 반혁명적책동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르죠아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가장 높은 민주주의로서의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의 혁명적본질과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키기 위한 원칙적방도를 가르쳐주심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와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를 확고히 고수할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프로레타리아독재가 해결하여야

할 임무와 그 수행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는 무엇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갈것인가, 이것은 수령님께서 새롭게 해명하신 사회주의,공산주의 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길을 전면적으로 가르쳐주고있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리론은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문제를 새롭게 해명하고 맑스-레닌주의계급투쟁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킨 사상이며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근본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준 위대한 리론이다.

로동계급화란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이며 혁명화란 모든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켜 그들을 참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만드는것을 의미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사회주의하에서 진행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라는 탁월한 정식화를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계급투쟁과 함께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다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 있는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172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도 계급투쟁이 계속되지만 그 형식은 좀 달라져야 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적대적계급이 없어지며 따라서 계급투쟁의 형식도 착취사회에서와는 달리 제기된다. 물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외부로부터 기여드는 적대분자들과 그와 결탁한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의 준동은 계속된다. 이를 반대하는 투쟁은 역시 비타협적성격을 띠며 프로레타리아독재가 끝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급투쟁의 형식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는 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에 고유한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 있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룬다. 이것은 물론 사회주의근로자들내부에 아무런 모순과 투쟁도 없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착취계급은 없어졌으나 착취사회의 낡은 사상 잔재는 의연히 남아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투쟁은 로동계급의 사상과 부르죠아사상간의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역시 계급투쟁으로 된다.

낡은 사상을 뿌리뽑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투쟁은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첫시기부터 제기되는 과업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나서는 선차적과업은 온갖 착취제도를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만드는것이며 따라서 계급투쟁의 주되는 방향은 이 문제 해결에 돌려진다.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지고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 전변된 이

후에 와서는 낡은 사상 잔재를 전면적으로 뿌리빼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된다. 이 투쟁을 잘해야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기본추동력인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이 전면에 나서게 되며 이것이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을 새롭게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계급투쟁을 부인하는 편향과 함께 그것을 착취계급을 청산하는 투쟁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려는 편향을 다같이 없애고 계급투쟁의 임무를 가장 철저히 수행할수 있게 하시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사회를 대표하는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그의 혁명적작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혁명적실천과 조직생활을 통한 단련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사상은 모든 인민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탁월한 리론이다.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리론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왔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사상생활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이루어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모든 사회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확신성있게 풀어나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문제에 새로운 해명을 준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7페지)

혁명과 건설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진행되며 나라마다 그에 고유한 사회경제적특성이 있고 생산력발전수준도 같지 않으며 매 시기 제기되는 혁명과 건설의 구체적과업도 서로 다른 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반드시 민족국가의 범위에서 자립적인 단위로 쌓아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주의법칙의 요구대로 생산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높

일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은 또한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민족들사이의 불평등을 없애고 민족의 전면적인 개화발전을 이룩하며 자주성과 평등의 원칙에서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경제건설분야에 구현한 자립경제건설에 관한 리론은 자기 인민의 힘과 국내자원에 의거하여 그리고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의 근본리익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자립적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게 하는 현명한 로선이며 맑스-레닌주의확대재생산리론을 더욱 발전시킨 창조적로선이다. 이 로선은 경공업을 먼저 발전시켜 자본을 축적한 다음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자본주의공업건설방법이나 사회주의나라에서 중공업을 먼저 강행적으로 발전시킨 다음 경공업을 발전시키는 이미 알려진 방법과는 달리 중공업, 경공업, 농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다 같이 빨리 발전시키는 혁명적인 길을 가르쳐준것이다. 그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축성과 인민생활향상, 축적과 소비, 앞날의 리익과 당면한 리익을 옳게 결합시켜 해결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간의 적극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인 과업들을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최대한 빨리 건설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공업화와 기술혁명은 나라의 기술경제적자립성을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올리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적이며 자립적인 공업체계확립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는 독창적인 사회주의공업화리론과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에 관한 새로운 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축성하기 위한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특히 3대기술혁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53페지)

수령님께서는 3대기술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조건에서 기술혁명의 근본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밝혀주시였으며 근로자들을 유해롭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환히 열어주시였다. 기술혁명의 새로운 리정표를 뚜렷이 밝혀준 3대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동조건의 차이와 로동의 차이를 점차 없애며 농업을 공

업화하고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과정을 촉진시킬수 있게 하는 창조적사상이며 기술의 요새를 돌파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무기로 된다.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농촌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지금까지 해명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시고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근본원칙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남아있게 되는 근원을 밝혀주시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였다. 또한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협동경리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여야만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농촌의 계급진지를 공고히 하고 농업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농촌에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다고 하여 혁명을 중단하고 기술경제적인 문제에만 매여달리거나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농촌을 홀시하고 농민들을 책임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풀수 없을뿐더러 농촌의 사회주의진지를 허물어버리고 농업생산을 침체와 파탄의 길로 이끌어갈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사이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여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접근시킬데 대한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가르쳐주시였다.

실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농민을 책임지고 공산주의까지 이끌어가려는 로동계급의 철저한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구현한 창조적사상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위대한 기여를 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경제의 규모가 진례없이 커진 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어떻게 관리운영하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관리분야에서의 풍부한 실천적경험을 일반화하시여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을 제시하시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관리운영할수 있는 대로를 열어준것이다.

경제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관리운영해나가자면 무엇보다도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하에서는 근로자들이 생산의 주인이며 관리의 주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관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되여야 하며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바로 군중속에 들어가야 군중의 힘을 발동할수 있고 태산도 허물수 있다. 아무리 기술경제적타산을 잘한다 해도 사람들의 자각적활동을 떠나서 그것은 한갖 죽은 수자놀음에 지나지 않으며 군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발성을 타산할수는 없다. 오직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사람들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이에 기술경제적인 사업을 옳게 결합시켜나감으로써만 생산과 경제관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은 경제관리에서 온갖 자본주의적 요소와 전통을 마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칙의 확고한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근본적우월성을 심오히 밝히시고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이 객관적합법칙성으로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국가의 계획적지도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 특히는 생산자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생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이 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튼튼히 틀어쥐고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국가의 중앙집권적계획적지도를 강화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간다면 경제규모가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생산을 얼마든지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상품생산이 남아있으며 가치법칙도 작용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에 관한 창조적인 리론을 밝히시고 경제건설에서 상품화폐관계를 정확히 리용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명확히 가르치시였다.

상품화폐관계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으로 하여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과 관련된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을 반영하는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 그리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줴버리고 상품화폐관계의 리용을 위주로 하면서 물질적자극에만 매달리며 경제를 <지방분권화>, <자유화>한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커다란 손실을 줄수 있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무시하고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것도 그릇된 편향이다. 중요한것은 상품생산과 관련된 낡은 사회의 경제적 범주와 법칙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리익에 맞게 그에 복종시켜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점령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리론과 방침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탁월한 리론이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리론실천적문제에 과학적해명을 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정치경제학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경제리론을 지침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날 락후한 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경제와 기술의 락후성을 청산하고 오늘 자립적인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남들이 백년 또는 수백년이 걸려서야 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단 14년동안에 한 우리의 경험은 뒤떨어진 처지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인민대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이 두 요새를 다같이 더 빨리 점령해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불러일으키신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부문에서 계속혁신, 계속앙양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더 잘, 더 빨리 점령해나갈수 있게 하는 전인민적대진군운동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천리마운동은 경제, 문화 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대중적운동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게 한다는데 그 본질이 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천리마운동을 힘있게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된 힘, 더 빨리 나가려는 그들의 열화같은 지향과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앞당기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제국주의와 대치한 환경에서 진행되고있다.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54페지)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은 경제건설이나 국방건설의 어느 한 측면에도 치우치지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와 국방상 요구를 다같이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창조적로선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전쟁정책이 더한층 로골화되는 조건에서 놈들의 어떠한 무력침공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는 동시에 어떠한 불의의 사태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빠른 속도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인 군사로선

을 내놓으시였다. 이 로선은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전국가적, 전인민적 방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나라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자체의 힘으로 튼튼히 보위할수 있게 하는 정확한 길을 밝혀준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독창적 사상과 리론을 밝히신 동시에 혁명전쟁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새롭게 발전시키시였다. 이미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민족해방을 위한 무장투쟁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창시하신 수령님께서는 현대전에 상응한 천재적인 군사전략전술을 밝히시고 그 빛나는 실천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미제무력침공을 반대하는 3년간의 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의 빛나는 승리였다.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과 자위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내외정세가 극도로 첨예한 최근년간에도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보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이 모든 독창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거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인미답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3) 령도 체계와 방법에 관한 리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체계와 방법 문제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인 과학리론적해명을 주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탁월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서만 승리할수 있다.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다. 그러나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는 대중은 암중모색하게 되며 자기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오직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옳은 길을 따라 나아갈수 있으며 자기의 무궁무진한 힘을 다 발휘할수 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수령, 당, 계급, 대중은 서로 떼여놓을수 없는 전일체를 이루며 수령은 그 총체를 움직이는 최고뇌수이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것은 혁명투쟁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로동계급의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맑스-레닌주의당을 강화하고 그 선봉적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는 무기이며 혁명의 참모부이다.

당이 자기의 이 숭고한 사명을 옳게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도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튼튼히 뿌리박아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건설하시면서 대중적당건설에 관한 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당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를 가장 훌륭히 해결할수 있게 하시였다.

대중적당건설리론은 당이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 인테리 등 근로대중의 선진분자들을 자기 대렬에 묶어세우고 그 계급적기반을 넓히며 광범한 근로대중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실현하는 길을 밝혀

주는 새로운 리론이다. 이것은 바로 당 발전의 첫시기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전과정에 걸처 맑스-레닌주의당을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탁월한 사상이다.

대중적당을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핵심을 키우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그자체가 근로인민의 선진분자들로 이루어진 대오이지만 당안에서도 매개 당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능력상 차이가 있게 되는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당이 근로대중의 통일적정당으로 발전하는 초시기에는 공산주의의식으로 충분히 무장하지 못한 사람들도 당에 들어오게 되는것만큼 매개 당원들의 준비정도에는 더욱 큰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적핵심을 키우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당원들을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는것은 당대렬의 량적확대와 질적공고화를 옳게 결합시키며 당의 로동계급적성격을 계속 확고히 보존하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대중적당건설리론을 지침으로 자기 발전의 첫시기에 근로대중을 통일적으로 령도하는 로동당으로 발전하였으며 당건설의 전행정에서 당을 대중과 유리된 소수공산주의자들의 조직으로 만들려는 좌경관문주의와 당의 계급적성격을 거부하고 그것을 대중구락부로 만들려는 우경투항주의를 다같이 배격하면서 당대렬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당건설리론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리론이다.

수령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과 당사업의 총적과업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확고히 보장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10페지)

사상의지의 통일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생명이다.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리론은 바로 당이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통일단결되여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줌으로써 사상의지의 통일을 완전히 실현하며 민주주의중앙집권제적규률을 가장 철저히 확립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맑스-레닌주의당에 있어서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은 로동계급의 수령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원래 수령과 사상을 같이 하는 혁명투사들로 뭉쳐진 전투적조직이다.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은 로동계급의 계급적본성과 공산주의운동,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발전의 요구이다. 온갖 부르죠아정당, 기회주의정당들과 구별되는 맑스-레닌주의당의 본질적특징도 바로 그가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철석같이 통일단결되여있는데 있다.

당의 지도형식인 집체적지도도 오직 수령의 유일적령도에 기초하는 조건에서만 그 힘을 나타낼수 있다. 집체적지도는 본질상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당의 지도형식이며 따라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떠난 《집체적지도》는

무의미한것이다. 만일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떠난 그 어떤 《집체적지도》가 있다면 그것은 마치 사령관이 없는 사령부와 같은것으로 되고말것이다. 수령의 령도에 《집체적지도》를 대치시키면서 수령의 령도를 거부하는것은 결국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마비시키기 위한 수정주의적책동이다.

수령의 유일적령도가 없는 당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본성을 상실한다.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만 당의 조직, 사상, 리론적 기초를 공고발전시켜 로동계급의 선봉대, 조직된 부대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완전한 통일단결을 실현함으로써 필승불패의 사상의지적통일체로 되였으며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당건설리론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탁월한 당사업리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다시말하여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장시켜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이 바로 당사업입니다. 우리는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려는 온갖 편향들을 반대하고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에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511폐지)

당사업의 기본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혁명을 위한 정치조직이다. 혁명의 원칙은 사람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혁명도 사람이 하며 건설도 사람이 한다. 기술실무사업으로는 사람을 움직일수 없고 따라서 혁명을 할수 없다. 만일 당이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하지 않고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한다면 그것은 곧 공산주의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을 해소해버리는것을 의미한다.

당사업의 기본에 관한 리론은 당활동에서 혁명적원칙을 거부하는 기회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당을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지침으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들과 그 해결방도들을 똑똑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밝혀주시였으며 당사업을 강화하는 기본고리, 당건설의 기초가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조직지도하는데 있다는것을 명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군중과의 사업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혁명의 계급진지를 튼튼히 꾸리며 극소수의 계급적적대분자들을 내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원칙을 밝히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령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들을 옳게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근로단체들에 대한 지도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단체들을 통하여 군중사업을 하는것을 대중지도의 맑스-레닌주의적원칙으로 규정하시고 사회주의하에서의 근로단체들의 임무를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근로단체들의 성격과 임무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각이하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단체들은 각계각층의 군중을 직업별, 성별, 년령별로 망라하여 정치조직생활에 참가시키며 그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대중교양단체이다. 근로단체들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나서는 원칙적인 요구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행정화하는것은 광범한 근로자들을 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화하는 길을 막아버리는것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심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자면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들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의 사업에 대한 당의 통일적령도를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원칙으로서의 키잡이에 관한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당적령도를 강화할수 있는 확고한 사상리론적기초를 마련하시였다. 당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한다는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토의에 기초하여 당정책의 집행 방향과 방도를 규정하고 옳바른 결정을 채택하며 해당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발동하여 그것을 옳게 집행하도록 정치적으로 보장하는것을 의미한다. 키잡이에 관한 리론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그 어떤 《간섭》으로 생각하면서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 기회주의를 배격하는 동시에 당기관들의 행정대행과 관리일군들의 개인독단을 없애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옳바른 정치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리론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그 위력을 옳게 발양시키는데서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이 또한 중요한 문제로 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진 다음에는 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여부가 그것을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크게 달려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면서 군중로선에 관한 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혁명적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세우는 사상리론적기초를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의 기본담보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590페지)

군중로선이란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묶어세우며 대중에게서 힘과 지혜를 얻으며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대중령도의 원칙이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정권을 잡기 이전이나 정권을 잡은 이후시기나를 막론하고 언제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당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당도 일단 정권을

잡으면 군중로선을 어길 위험성이 커지게 되며 일부 일군들속에서 관료화, 행정화의 경향이 나타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하신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대중영도에 관한 사상이며 방법이다.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통일되여 있다. 청산리정신은 청산리방법을 일관하고있는 사상이며 청산리방법은 청산리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도 체계와 방법에 관한 리론은 이처럼 혁명적령도의 근본원리로부터 그를 실현하는 기구와 사업체계, 사업방법에 이르는 모든 분야,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집대성한 전일적인 리론이다. 이 창조적인 리론이 제시됨으로써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서 새로운 분야가 전면적으로 체계화되였다.

이 위대한 혁명리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이 계속되는 간고한 조건에서도 인민대중을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할수 있었으며 국제적으로 기회주의가 대두한 시련의 시기에도 추호의 동요없이 맑스-레닌주의혁명적기치를 확고히 고수할수 있었다.

4) 우리 당과 세계혁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시종일관 세계혁명운동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부분인것만큼 우리 당과 인민은 세계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야 하며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지금도 항상 국내에서의 혁명과 더불어 세계혁명을 헤아리고계신다.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그 전략전술을 옳게 세우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수령님께서는 현시기 세계혁명의 전략적인 주타격방향과 모든 혁명력량의 공동의 투쟁대상, 그것을 타승하기 위한 투쟁방침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데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41페지)

미제는 현대제국주의의 괴수이다. 제2차세계대전을 계기로 일어난 자본주의 렬강들의 력량관계에서의 변화에 따라 세계제국주의체계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여 재편성되였다. 오늘 제국주의나라들은 호상간의 모순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세계혁명력량을 반대하는 공통된 목적으로 하여 미제를 중심으로 서로 결탁되여있다.

미제는 현대제국주의의 괴수일뿐아니라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 횡포한 국제헌병으로서 전세계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이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세계평화를 지켜낼수도 없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이룩할수도 없으며 그 어떤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릴데 대한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현대제국주의 괴수를 꺼꾸러뜨림으로써 세계제국주의 전체를 쓸어버리는 혁명적인 길을 가리켜준 위대한 전략이다.

미제를 타승하기 위해서는 그가 발붙이고있는 모든곳에서,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서 반제반미투쟁의 불길을 높이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강력한 집단적반격을 가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미통일전선로선과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새로운 투쟁전략을 제시하심으로써 미제를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모든 반제력량의 공동투쟁과 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은 원래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전략전술적 원칙이다.

오늘 미제를 반대하는것은 하나의 국제적조류로, 시대의 추세로 되고있으며 여기에는 가장 광범한 반제력량이 참가하고있다. 국가사회정치제도나 정치적 리념상의 차이에 관계없이 비록 불철저하고 견고치 못한 력량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동맹자들을 전취하여 반미투쟁 전선에 끌어들여야 미제를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그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킬수 있으며 제국주의의 종국적멸망을 앞당길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인 아세아에서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여 미제에 집단적반격을 가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아세아의 혁명적 나라인민들이 반제반미통일전선을 펴고 반미공동투쟁을 벌리는것은 이 지역 인민들속에서 형성된 반제공동투쟁의 력사적전통에 비추어보나 그들의 리해관계의 공통성에 비추어보아 가장 현실적인 길이며 실천에 의하여 이미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혁명적인 길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반제반미투쟁전략에서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전략사상은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각각 미제의 팔도 뜯어내고 다리도 뜯어내며 머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1페지)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전략은 반제반미투쟁에 떨쳐나선 모든 사람들 특히 작은 나라 인민들에게 능히 미제를 때려눕히고 그 마지막숨통을 끊어버릴수 있다는 뚜렷한 전망과 신심을 안겨주고있으며 비록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주체를 튼튼히 세워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힘을 믿으며 모두가 달라붙어 용감하게 싸운다면 얼마든지 미제를 타승할수 있다는 투쟁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이 탁월한 전략사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제를

두려워하는 공미굴종사상, 큰 나라만 쳐다보는 사대주의적대외의존사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반미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게 한다. 그리하여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를 미제의 팔다리를 뜯어내고 머리를 잘라내는 반미투쟁의 결전장으로 되게 한다.

미제를 때려부시기 위해서는 또한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미제의 동맹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을 반제반미투쟁의 중요한 전략적과업의 하나로 규정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 앞에는 미제국주의침략을 좌절시키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매우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96~497페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곧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이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재무장시켜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고 책동하여왔다. 한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에 편승하여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여보려고 꾀하여왔다. 이리하여 미일간에 아세아침략을 위한 반동적공모결탁이 이루어졌고 종속적동맹관계가 맺어졌다.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비호밑에 재생재무장되는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일찌기 간파하시고 그 침략야망을 꺾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일관하게 벌리시였으며 특히 최근년간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책동이 로골화되는 정세에 대처하여 그것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오늘 아세아와 세계 침략을 위한 미일반동들의 책동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은 날을 따라 커가고있다. 지금에 와서 일본군국주의가 되살아났는가 않았는가 하는것을 가지고 론의할 때는 이미 지나갔으며 문제는 재생재무장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해외침략의 길로 공공연히 나서고있는 오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혁명적인민들앞에 나서는 가장 긴박한 과업의 하나이다.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은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똑똑히 보고 고도로 경각성을 높이며 일치한 행동으로 그의 해외침략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세계인민들이 힘을 합쳐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과 함께 아세아에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구라파에서 서부독일군국주의의 팽창정책을 짓부셔버리며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의 동맹자들과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 때 미제를 괴수로 하는 현대제국주의의 멸망은 더욱 촉진될것이다.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쓸어버리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세계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이다.

오늘 사회주의력량은 제국주의세력을 압도하면서 날을 따라 강화발전되고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수정주의의 대두로 말미암아 전일적인 대오로, 단합된 력량으로 나가지 못하고있으며 세계혁명수행에서

놀아야 할 응당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수정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세계혁명발전의 가장 절실한 문제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앞에 놓인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수정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수정주의의 근원은 안으로는 부르죠아적영향의 포로가 되는것이며 밖으로는 제국주의의 압력에 투항하는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부르죠아적영향이 심하고 제국주의의 압력이 강하더라도 현명한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에는 수정주의가 하나의 사상조류로서 당내에 대두할수 없다. 따라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수정주의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맑스-레닌주의혁명적원칙에 튼튼히 서서 수정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국제적범위에서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동시에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으로 되여야 한다. 수정주의를 반대한다고 하여 단결을 부인하여도 안되며 또한 단결을 강화한다고 하여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포기하여도 안된다. 투쟁을 통해 단결을 이룩하며 단결의 원칙에서 투쟁하는것은 수정주의를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형제당, 형제나라들의 단결을 강화할수 있는 옳은 방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를 없애고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시였다. 그것은 첫째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것, 둘째로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각국 로동운동을 지지하는것, 셋째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가는것, 넷째로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것이다. 이것은 현존의견상이를 좁히고 사회주의나라들간의 통일과 단결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정당한 원칙이다.

사회주의나라들간의 의견상이는 서로 다른 국가사회제도간의 모순이나 적대되는 계급들간의 불상용적인 리해관계를 반영한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이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한다면 현존의견상이를 능히 극복하고 단결과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언제나 계급적전우로서 서로 단결하고 협조하는 고상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을 지켜야 한다. 자기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칙을 계속 고수하면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힘을 합치며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각국 혁명운동을 지지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응당한 계급적의무로 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호상관계에서 언제나 자주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자주성은 형제당, 형제나라들의 호상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며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그들자신의 신성한 권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성을 형제당, 형제나라들의 호상관계의 확고한 기초로 규정하시고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을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자주성을 구실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등을 돌려대거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구실로 자주성을 부인하며 침해하는 온갖

그릇된 경향을 다같이 극복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형제당들간의 단결을 건전한 기초우에서 발전시킬수 있는 정확한 길을 열어주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시련을 이겨내고 반드시 통일단결을 회복하고야말것이며 세계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할것이다.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력량과 함께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시대에 이르러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이 세계혁명수행에서 노는 역할은 비할바없이 커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을 이루고있으며 그것들은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하나의 흐름에 결합되고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0페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은 오랜 세월에 걸쳐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인민들의 성스러운 해방투쟁인 동시에 세계제국주의를 쓸어버리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다.

식민지는 제국주의의 생명선이다. 사실상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신구식민주의가 청산된다면 제국주의적서구라파도, 제국주의적북미주도 존재할수 없게 될것이다.

세계의 수억만 피압박인민들이 세기적잠에서 깨여나고 혁명의 거세찬 폭풍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휩쓸고있으며 그 속에서 세계제국주의의 생명선이 동강나고있다.

자본주의나라 로동운동만이 세계혁명의 기본력량으로 되고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이 한갖 후비군으로 간주되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지금에 와서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홀시하는것은 세계혁명발전에 대하여 무관심한 기회주의적표현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우리 시대 세계혁명의 기본력량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대상과 동력, 혁명력량편성과 투쟁형태 나아가서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문제 등 이 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이리하여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키시였다.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은 세계사회주의력량과 함께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면서 제국주의를 매장하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세계혁명전략은 간고한 투쟁속에서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검증된 진리이며 민족적독립과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계혁명의 한고리인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뿐아니라 세계혁명발전을 위하여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 투쟁하여왔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신임을 지니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2. 김일성동지는 강의한 의지와 탁월한 령도예술로써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실천가이시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시대의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실뿐아니라 위대한 혁명적실천가이시다.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투쟁정신과 견결한 혁명적원칙성,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 천재적인 통찰력과 과학적예견성, 위대한 감화력과 포옹력 등 모든 고귀한 혁명적품성을 한몸에 지니시고 현명한 령도와 헌신적투쟁으로써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 령도하신 우리 조선혁명은 두 차례의 전쟁을 겪었고 두 단계의 혁명을 거친 가장 치렬한 계급투쟁이였으며 진보적인류의 선진대렬에 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온 가장 위대한 건설사업이였다.

제국주의강적을 대상하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은 매우 어렵고 힘겨운 투쟁이다. 식민지의 뒤떨어진 처지에서 새 사회를 건설하는것도 이에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이 모든 투쟁을 다 가장 훌륭히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계전쟁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간고한 두 차례의 혁명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강철의 명장이시다.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원쑤들의 가혹한 탄압속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15년동안이나 강대한 일제침략군과 대결한 혁명전쟁이였다. 이처럼 간고한 조건에서 싸워이긴다는것은 보통으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아무런 민족군대의 토대도 없는 빈터우에서 일제침략군과 맞서 싸울수 있는 강력한 혁명무력을 단기간내에 조직해내시였으며 피어린 투쟁속에서 유격전의 전략전술을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몸소 진두에서 수많은 대소전투들을 조직지휘하심으로써 준엄한 시련으로 가득찬 항일무장투쟁을 걸음마다 승리와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마침내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의 선구자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해방후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반대한 조국해방전쟁도 어렵고 힘겨운 전쟁이였다. 세상사람들은 해방된지 5년도 못되는 조선인민이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인민군대를 가지고 백여년의 침략전쟁력사를 가진 세계 《최강》을 자처하는 미제침략군을 상대로 현대전을 한다는 그자체가 기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백전백승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전쟁의 승리에 대하여 처음부터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수령님께서는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령활한 전략전술로써 인민군대의 매 작전들과 중요한 전투들을 직접 조직지휘하심으로써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민족적독립을 고수하시였으며 반제반미투쟁의 새 시대, 미제

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 놓으시였다.

그리하여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치시고 인류해방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복잡한 두 단계의 혁명을 순조롭게 승리에로 이끄시고 어려운 새 사회 건설에서 기적을 이룩하신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조선혁명은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또 3년간의 준엄한 전쟁까지 겪은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 진행되였으며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과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아무러한 우여곡절없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가장 철저하게 그리고 가장 짧은 기간내에 수행할수 있었다.

특히 전후 재더미속에서 우리 인민이 빨리 일떠설수 있는가 없는가, 뒤떨어진 처지에서 빨리 벗어나 선진국가들을 따라잡을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길을 따라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변혁을 불과 4~5년동안에 끝내도록 이끄시고 우리 나라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놓으시였으며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처지에서 빨리 벗어날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나서는 모든 새로운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히시고 그것을 빛나게 풀어나가심으로써 이 땅우에 세기적변혁을 이룩하시였으며 뒤떨어지고 파괴되였던 우리 나라를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는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그리하여 수천년의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민족적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뒤떨어진 처지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실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하루도 쉬임없이 모든것을 오직 혁명을 위하여 다 바치신 그 장구한 투쟁과정에서 로동계급의 혁명력사에 영원히 빛날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이 그처럼 찬연히 빛나는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을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보고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에 걸쳐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려왔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7페지)

수령님께서는 장기간에 걸치는 혁명투쟁과정에서 수많은 풍파와 시련을 겪으시였으며 혁명의 명맥을 잇느냐 못잇느냐 하는 어려운 고비들을 수많이 넘기시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이 부닥친 모든 준엄한 시련과 난관들을 이겨내시였을뿐아니라 그때마다 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중첩되는 시련과 난관들을 이겨내고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위대한 승리와 빛나는 업적들은 그 어느것이나 주

체를 확립하기 위한 김일성동지의 완강하고 헌신적인 투쟁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지고있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와 그와 결합된 종파주의를 뿌리빼기 위한 심각한 사상투쟁을 동반하였다.

원래 우리 나라 종파분자들은 례외없이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이였으며 어떠한 독자적인 리론이나 강령도 없이 남의 풍에 놀면서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 감행한 탐위분자, 타락분자들이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며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과 혁명 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언제나 가장 깊은 관심을 돌렸다.

종파주의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전후시기는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후시기 당내 사상전선에서 우리가 한 주되는 투쟁은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을 강화하며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며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93페지)

전후 우리 당은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힘있게 벌렸다. 수정주의가 머리를 쳐드는데 따라 종파주의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되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종파주의와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며 그 여독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종파주의와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그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그처럼 바라던 당과 혁명 대렬의 통일단결을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하였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오랜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며 우리 당 건설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이며 우리의 모든 승리, 후손만대의 영원한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가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완전한 통일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것으로 간직하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위대한 투쟁으로 충만된 력사이며 주체의 기치밑에 자욱마다 승리를 기록한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바로 주체사상으로 하여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은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며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망,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로선과 정책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하시고 모든 분야, 모든 문제에 걸쳐 독창적인 옳바른 로선과 정책,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언제나 대중으로 하여금 뚜뚜한 목표와 구체적인 방도를

가지고 신심에 넘쳐 곧바른 승리의 길로 전진할수 있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 정권, 근로단체, 무력 건설의 원칙으로부터 그 일상적인 활동의 개별적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경제로선과 중공업, 경공업, 농촌경리 등 매개 부문들의 정책으로부터 남새생산, 가금업, 과수업 등의 개별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문예 사상과 정책으로부터 영화, 연극, 가극, 음악 등의 개별적인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군사사상과 전략으로부터 개별적인 병종들의 조직운영과 구체적인 전술, 전법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그처럼 방대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신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부문, 어느 단위, 어느 문제를 불문하고 똑똑하지 않은 문제가 없다.

혁명과 건설의 로선과 정책으로 대중을 무장시키고 그것을 관철함에 있어서 옳은 구호를 내놓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의 전과정에서 언제나 적에 대해서는 심장을 찌르는 예리한 구호로 타격을 주시였고 인민들에 대해서는 심금을 울리는 전투적구호로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불러일으키시였다. 일찌기 무장투쟁의 구호밑에 우리 인민을 영웅적항일무장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신 때로부터 오늘 3대기술혁명의 구호로 사회주의공업화가 수행된 다음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시기까지 우리 혁명의 매 단계에서 그이께서 제시하신 모든 전략전술적구호들은 언제나 대중을 영웅적위훈에로 부르는 진투적기치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 로선과 정책, 방침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또한 언제나 세밀한 조직사업을 따라세우시였다.

탁월한 조직력과 정력적인 조직활동은 위대한 실천가로서의 수령님의 령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김일성동지는 일찌기 15살 어리신 때에 독자적으로 비합법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으시고 불과 몇해동안에 소년, 청년학생, 로동자, 농민, 녀성 등 광범한 각계각층 군중을 여러가지 혁명조직들에 묶어세워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꾸리시였고 새 사회건설의 길에서 모든 난국을 몸소 타개하시면서 가장 힘있고 공고한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시였으며 언제나 당과 인민을 혁명과 건설에 가장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시는 위대한 조직자이시다.

수령님의 정력적인 조직활동, 상상조차 할수 없는 방대하고도 세밀한 조직사업, 이것은 온 나라를 언제나 혁명적고조로 들끓게 하며 이르는곳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수령님께서는 전국방방곡곡을 찾으시면서 당, 정권 기관, 근로단체, 인민군구분대들과 공장, 기업소, 농장들, 교육, 보건, 문화 기관들의 사업으로부터 인민들의 살림살이와 어린이들의 놀이감에 이르기까지 크고작은 모든 일들을 깊이 헤아리시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수많은 사업들을 직접 포치, 재포치하심으로써 온 나라를 힘쓸 모범을 창조하시며 혁명적고조의 불씨를 지피신다.

참으로 모든 분야, 모든 문제에 걸쳐 수령님께서 하나하나 조직하시고 가꾸시는 그 세심한 손길에서 우리의 웅장한 공장들과 풍요한 농장들, 화려한 도시들과 아담한 마을들이 솟아났고 백과주렁지는 과일동산들과 현대적대가금기지들이 자라났으며 온 나라를 뒤덮은

학교, 유치원, 탁아소, 병원망들이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지니시고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련이어 승리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끌어주시였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의 혁명적전개력은 수령님의 철저한 계속혁명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다. 그이께서는 철저한 계속혁명의 립장에서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단계의 혁명리론을 밝히시고 몸소 우리 당과 인민의 진두에 서시여 불굴의 의지와 현명한 령도로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새 승리를 향하여 쉼없이 전진하여야 하며 혁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11폐지)

공산주의혁명위업은 이미 이룩한 승리에 자만하거나 혁명을 중단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 계속혁명의 과정이다. 더우기 매우 뒤떨어진 처지에서 새 사회건설에 착수한 우리는 남보다 더 빨리 달려나가야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조선혁명의 종국적목적을 뚜렷이 밝히시고 혁명투쟁의 전기간 거기에로 나아가는 지름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한 단계의 혁명과업을 수행하시면서 미리 다음 단계의 혁명과업을 구상하시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심으로써 매 단계의 혁명과업을 순조롭고 철저하게 그리고 짧은 기간내에 완수할수 있게 하시였다.

토지개혁을 수행할 때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앞날을 예견하시여 협동화의 전제조건을 마련하시였으며 온 강토가 가렬한 전쟁의 불바다속에 잠겼던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신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완강한 전개력으로 하여 우리는 전후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서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비상히 빠른 속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었던것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을 계속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와 기회주의를 가르는 날카로운 문제의 하나이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제도의 근본적인 교체문제가 더는 나서지 않는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계급투쟁은 계속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이 계속혁명의 과정이라는 확고한 혁명적립장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비롯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의 모든 과업들을 규정하시고 그 관철에로 우리 인민을 확고하게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옳바른 길을 개척하시였을뿐아니라 일단 로선과 정책을 세우신 다음에는 어떠한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한걸음도 물러서심이 없이 그것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한 문제를 푸시고는 련이어 새로운 과업을 내세우심으로써 대중을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도록 이끄시였으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계속혁신, 계속전진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우리 인민이 시련과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그것을 주동적으로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게 하시였으며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였다. 참으로 수령님의 강의한 맑스-레닌주의적원칙성과 비상

한 혁명적전개력과 탁월한 령도예술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언제나 자기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그 어떤 동요와 주저도 없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은 사소한 답보와 침체도 모르는 끊임없는 고조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할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이 련속 승리적으로 수행되고 짧은 기간에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를 거쳐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위대한 비약이 이룩된것은 수령님의 이러한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였으며 이신작칙으로 그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며 인민대중의 념원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원칙밑에 혁명군중에 의거하여 수십수백배의 적을 타승하는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으며 새 사회 건설의 전과정에서 언제나 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으시였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그들을 묶어세워 혁명과업수행에 동원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공산주의적령도방법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기나긴 혁명의 나날 언제나 인민을 따뜻이 일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스승으로서, 인민생활의 구석구석을 보살펴주시는 어버이로서,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친근한 벗으로서 인민들속에 계시는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였다. 그이께서 공장과 농촌, 도시와 마을을 찾으신 현지지도의 길은 몇천몇만리인지 헤아릴수 없다. 이 나라 큰 기업소나 협동농장은 물론 이름없는 어촌과 산간벽촌에 이르기까지 그이의 현지지도가 미치지 않은곳이 없으며 그이를 수십차례나 맞이한 기업소와 농촌도 수없이 많다.

수령님께서 인민대중을 찾으시는 길은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파악하시고 그들의 경험을 심오히 분석총화하여 당의 방침을 세우시는 과정이였으며 또한 그 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시는 과정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는 정치사상사업으로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앙양시키면서 모든 사업을 대중적운동으로,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웅대한 대자연개조사업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관리도, 문학예술사업과 인간개조사업도 모두 군중자신의 사업으로, 군중적운동으로 성과적으로 실현되여왔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에 난국이 가로놓인때일수록 더욱더 인민을 굳게 믿으셨고 그들의 힘에 튼튼히 의거하시였다. 전쟁의 준엄한 시각 당원인 한 로동자의 신념에 찬 목소리에서 커다란 힘을 얻으셨고 반당종파분자들의 책동이 우심했던 시기 한 농촌할머니의 소박한 말에서 신심을 굳게 하셨다는 그이의 말씀속에는 인민의 힘을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큰 힘으로 믿으시는 가장 완성된 혁명적군중관점이 표현되여있다.

수령님께서는 1956～1957년 내외원쑤들의 발악적책동이 극심했던 시기에도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천리마운동의 불길을 지펴올리시였으며 부닥친 난국을 타개하시고 혁명의 새로운 앙양을 불러일으키시였다. 1967～1968년 미제침략자들의 새 전쟁 도발소동이 더욱 로골화된 그때에도 룡성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새로운 고조를 불러일으키시였다.

지난날 혁명과 건설에서 수없이 이룩된 혁신과 기적의 그 밑바닥에는 이처럼 인민의 힘에 대한 그이의 철석같은 신념과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대담한 목표를 내놓으시고 대중을 발동하여 그것을 점령해나가시는 그이의 탁월한 령도예술이 놓여있다.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들은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것을 의탁하면서 그이의 두리에 한덩어리로 뭉쳐나가는 힘—바로 이것이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결정적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함께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위대한 혁명적실천으로 하여 우리 당은 과오를 범하지 않고 어렵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중첩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 오늘과 같은 찬란한 승리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풍부화시키신 걸출한 사상리론가로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여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신 위대한 실천가로서 지난 반세기동안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위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탁월한 사상과 리론,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의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고 언제나 곧바른 길로 전진할수 있었으며 이 땅우에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고 세계혁명에 커다란 기여를 할수 있었다.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에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해답을 주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혁명사상과 독창적인 리론 그리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그이의 위대한 업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끝없이 귀중한 재부로 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하고 그이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듦으로써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며 그이께서 펼쳐주신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굴함없이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으면서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선혁명의 승리와 세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고있으며 수령님께 최대의 영광과 축하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영광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그 위대한 생활력

김 동 규

우리 인민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맞이하면서 수령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그이께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적업적을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반세기동안 오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위대한 수령으로서 조선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을뿐 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서 60성상을 국제로동계급과 세계피압박인민들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바치오시였으며 인류의 진보와 번영을 위하여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와 혁명발전의 객관적법칙을 정확히 반영하시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의 혁명사상을 새롭게 발전시키시고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에게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세계를 창조하는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 위력한 사상적무기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였으며 국제적범위에서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며 지구상의 모든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쓸어버리는 결정적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 혁명적폭풍의 시대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이 제기하는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에 관한 문제들을 새롭게 해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고상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에 기초하여 언제나 조선혁명을 세계혁명의 구성부분으로 보시였고 우리 인민의 실천투쟁과 세계혁명에 대한 기여를 통하여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함께 국제적임무에 끝없이 충실하시였다.

1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패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포악하고 음흉한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정에서 쌓으신 고귀한 경험을 일반화하시고 우리 시대의 기본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시여 현대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으시였다.

반제반미투쟁로선을 바로 세우고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은 우리 시대의 전반적세계혁명운동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웨.이.레닌이 제국주의론을 내놓은 때

로부터 제국주의는 용근 반세기동안 많은 새로운 특성을 나타냈으며 현대제국주의로 변모되였다. 제국주의력사발전행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에 기초하여 제국주의에 대한 리론을 완성하고 그에 따라 반제투쟁의 전략전술을 새롭게 수립하여야만 우리 시대의 모든 혁명운동을 승리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본주의의 최고단계이고 최후단계이며 기생적이며 부패하며 죽어가는 자본주의로서의 제국주의에 관한 레닌의 학설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여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리론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새롭게 해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먼저 현대제국주의의 본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제국주의침략정책의 근원을 정확히 인식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의 본성은 변할수 없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이다. 제국주의는 죽을 때까지 인민들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략탈할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0페지)

《일본제국주의나 미제국주의나 또한 지난날의 제국주의나 오늘의 제국주의나 할것없이 모든 제국주의는 다 침략적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73~474페지)

현대제국주의는 지난날의 제국주의에 비하여 극도로 악랄해지고 횡포해진 제국주의이다. 현대제국주의는 독점적고률리윤을 광란적으로 추구하면서 착취와 략탈을 가장 가혹하게 감행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제국주의의 새로운 특징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주시였다.

현대제국주의는 국가독점자본의 지배에 기초하여 정치에서의 파쑈화,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경쟁, 침략과 전쟁 정책, 사상문화의 반동화를 일삼는다.

현대제국주의는 많은 나라들에서 빈번한 군사정변에 의하여 괴뢰정권을 조작하며 《후진국공동개발》의 미명하에 경제《원조》정책, 《평화군》의 간판밑에 사상문화적침투, 《반공》, 《호상안전》의 이름밑에 군사빨럭정책을 실시하는 등 가장 교활하고 음흉한 신식민주의수법에 매달리고있다.

오늘에 와서 제국주의는 또한 자본주의의 정치, 경제의 불균등적발전법칙의 작용과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의 심각화와 관련하여 자본주의세계의 주되는 군사적, 경제적 력량으로 되고있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현대제국주의체계로 재편성되였다.

수령님께서는 현대제국주의의 본성과 특징을 전면적으로 밝히심과 함께 제국주의의 력사적지위를 새롭게 천명하시고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다.

전세계적범위에서의 력량관계의 근본적변화로 하여 제국주의의 세력범위는 그 어느때보다도 축소되였으며 제국주의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있다. 오늘 세계인구의 3분의 1이상이 제국주의전선을 끊어버리고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섰으며 지구륙지면적의 71%를 차지하는 광대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수억만 인민들이 저주로운 제국주의멍에를 벗어버리고 정치적독립을 달성하였다.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이 더욱 심각화되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계급적 모순과 대립이 전례없이 첨예화되고있다. 현대제국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으며 안팎으로부터 호된 타격을 받고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여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아직도 의연히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남아있으며 그들은 절망적인 처지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더 필사적으로 발악한다.

수령님께서는 이 모든것에 기초하여

제국주의를 과대평가하여도 안되고 과소평가하여도 안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제국주의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세계혁명의 기본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반제반미투쟁을 우리 시대의 선차적과업으로 규정하시였으며 반제반미투쟁의 전략전술적방침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타승하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데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41페지)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흉악한 침략자이며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국제헌병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의 교살자이며 세계평화의 교란자이다. 오늘 지구상에는 미제국주의침략의 마수가 미치지 않은 지역이 없으며 미제의 침략위협을 받지 않고있는 나라가 없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도,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도 승리할수 없으며 세계 어느 지역의 혁명도, 세계 어느 나라 인민의 혁명투쟁도 승리할수 없다.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세계의 어느 나라나 할것없이 미제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서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모든 혁명력량이 미제국주의에 공동으로 타격을 주며 사면팔방으로 압력을 가할 때 미제의 힘은 최대한으로 분산약화될것이다. 그리고 반제력량은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를 타승하고 전반적국제반동세력의 완전한 붕괴를 촉진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제국주의렬강들이 서로 비슷한 력량관계를 이루고있어 제국주의련쇄가운데서 가장 약한 고리를 폭파하는것이 반제투쟁의 기본문제로 나섰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국제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를 타도하여야만 현대제국주의체계전반을 붕괴시킬수 있는 현시대의 객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전략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골적인 폭력에 의거하여 작고 분렬된 혁명적인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으며 사상정치적공세를 강화하여 혁명을 하지 않으려는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하기 위한 미제의 《세계전략》을 짓부시며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전략전술적문제들을 새롭게 천명하시였다.

다른 나라에 의존하려는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책임지는 주인다운 립장과 미제에 대한 공포심을 버리고 그와 용감히 싸우는 혁명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은 반제반미투쟁에서 근본문제로 나선다. 다른 한편 혁명적인민들의 국제적단결의 위력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반제반미투쟁을 힘차게 벌리는것은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국제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불멸의 주체사상과 견결한 혁명정신, 고상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반제투쟁에 구현하시여 혁명하는 나라들이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 전략은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온갖 혁명적잠재력을 반제반미투쟁에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게 하는 가

장 혁명적인 전략이다. 비록 작은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주체를 세우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용감하게 일어나 싸운다면 큰 적을 타승할수 있다.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전략은 싸우는 나라 인민들에게 백절불굴의 투지와 필승불패의 신념을 북돋아주고 세계의 가는곳마다를 반제투쟁의 치렬한 결전장으로 전변시킬수 있게 하며 반제반미투쟁에서 새로운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고있다.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힘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다른편으로 허울좋은 《평화》의 탈을 쓰고 이른바 《평화》공세를 감행하여나서고있다. 미제국주의를 완전히 타승하기 위하여서는 원쑤들의 최후발악적인 《량면전술》에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며 그들의 온갖 흉계를 제때에 짓부셔버리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흉악한 《량면전술》의 침략적본성을 명철하게 꿰뚫어보시고 가장 혁명적인 원칙성을 견지하고 명확한 전략전술을 적용하여 그것을 짓부셔버릴수 있는 방도를 명시하시였다. 미제의 《힘의 정책》에는 정의의 혁명전쟁으로 맞서며 평화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뒤집어놓은 전쟁전략인 놈들의 《평화전략》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폭로분쇄함으로써 그들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전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국제적인 반제반미공동행동과 반제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반제반미공동행동과 반제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하여야만 반제반미혁명력량을 몇십, 몇백배로 강화하여 국제반동세력의 련합전선을 성과적으로 격파할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세계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시여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 의견상이가 있고 각이한 혁명력량이 국가사회정치제도와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를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반제세력이 미제를 반대하는데서 리해관계의 공통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것을 밝히시고 반제투쟁에서 시종일관 견지하여오신 전통적인 전략적원칙을 오늘의 조건에 부합되게 적용하시여 반제반미공동행동과 반제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제를 반대하는 견결한 혁명력량뿐아니라 비록 불철저하고 견고치 못한 력량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동맹자를 전취하여 반제전선을 확대하며 사소한 가능성이라도 다 리용하여 광범한 반제공동투쟁을 벌리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반제반미투쟁의 력량편성에서 혁명적원칙성과 전술적신축성을 옳게 배합하여 반제혁명력량을 더욱 광범히 결속하고 원쑤들을 더욱더 철저히 고립시키게 할뿐아니라 모든 반제력량이 세계혁명위업을 완수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참다운 앞길을 밝혀준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고있는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이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에 집단적반격을 가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96폐지)

아세아가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됨에 따라 미제국주의자들은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부

지하기 위하여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있으며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이 지역에서 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을 가로막아보려고 분별없는 모험을 감행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조선과 중국, 웰남, 캄보쟈, 라오스를 비롯한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이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야만 미제의 음흉한 《새 아세아정책》을 성과적으로 저지파탄시킬수 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반대하는데 여러 나라 반동세력을 리용하고있다. 미제의 동맹자들 특히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전면적으로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제국주의체계전체를 허물어버리기 위하여 매우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누구보다도먼저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정확히 통찰하시고 현대제국주의체계에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와의 호상관계의 본질적내용이 종속적동맹에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신데 기초하여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한 명확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의 아세아전략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고리입니다.》
(우와 같은 책, 499폐지)

일본군국주의는 미제국주의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빨리 되살아났으며 미제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결탁하여 해외침략에 광분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공모결탁의 위험성은 미제가 일본을 기지로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커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손아래동맹자로서의 일본군국주의를 혁명적아세아나라들을 반대하는 《돌격대》로 내세우고 침략적군사기지로서의 일본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아세아침략에 더욱 적극적으로 리용하는 길에 들어섰다. 한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새 아세아정책》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어리석게 망상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경제의 군사화와 재무장을 다그치며 국내체제의 파쑈화를 서두르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독점자본의 팽창과 그 지배체계의 확립에 기초하여 본격적으로 해외침략의 길에 들어서고있으며 《평화》의 탈, 《원조자》의 탈을 쓰고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다. 이와 함께 일본군국주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고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투쟁을 무마하며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똑똑히 깨닫고 미제를 반대하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며 일치한 행동으로 그의 침략적야망을 꺾어버려야 할것이다. 특히 일본의 광범한 민주력량이 한결같이 일떠서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강한 압력을 가하고 드세찬 공격을 들이대는것이 중요하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가장 초미의 문제인 반제반미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전면적으로 정연하게 집대성하시였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기 위한 힘있고 뚜렷한 투쟁의 지침을 명시해주시였다. 그이께서 창시하신 반제반미투쟁전략은 세계혁명의 주타격방향과 혁명력량의 편성, 그 위력의 강화방도를 비롯하여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모든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한것으로 하여 반제반미투쟁의 위대한 기치로 되고있

오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적결전에 떨쳐나선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그것은 또한 현대 제국주의체계의 멸망을 알리는 조종으로 되며 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을 끝없는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폭탄선언으로 된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우리 시대의 모든 국제혁명력량들, 혁명조류들의 력사적지위와 세계혁명발전에서 노는 역할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였으며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로동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천재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민족운동이 발전된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의 소수민족의 자결을 위한 민족운동으로부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뒤떨어진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위대한 혁명투쟁으로 전환된 새로운 력사적환경에서 민족해방혁명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밝히는것은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식민지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현시대의 민족해방운동의 전략전술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결하시였으며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전혀 새로운 경지를 독창적으로 개척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제2차대전후 국제적규모에서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형편과 식민지예속국가들과 신생독립국가들에서 로동계급이 장성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이 높아진 오늘의 조건을 정확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우리 시대의 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지위와 그 역할을 과학적으로 특징지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인민들의 성스러운 해방투쟁인 동시에 세계제국주의의 이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 혁명력량을 이루고있으며 그것들은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하나의 흐름에 결합되고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0 페지)

우리 시대의 민족해방운동은 앞선 시대의 민족운동과 같이 국제프로레타리아혁명운동의 단순한 후비군이 아니며 또한 소부르죠아운동이나 농민운동도 아니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함께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키고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한 위대한 혁명투쟁이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혁명력량과 반동세력이 대결하는 세계적투쟁무대로 되고 이 지역 인민들은 세기적잠에서 깨여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적결전에 일떠서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는 종전과 같이 제국주의의 《안전한 후방》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가장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치렬한 반제전선으로 되였으며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은 제국주의적서구라파와 제국주의적북미주를 없애버리는 보람찬 혁명투쟁이다. 3대륙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치명상을 입고 진퇴량난의 막다른 골목에 빠지고 있으며 인류를 그처럼 가난과 굶주림속에서 헤매이게 하던 치욕스러운 식민주의는 이 지역에서 마지막시간을 보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투쟁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심으로써 식민지민족문제에 대한 교조주의적태도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시고 국제혁명운동의 전략을 정확히 규정할수 있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은 부르죠아혁명과 원칙적으로 구별될뿐아니라 사회주의혁명과도 다른 새로운 성격의 사회혁명으로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된다. 그이께서는 이에 기초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현실에 맞는 식민지민족해방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의 사회경제적관계와 계급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혁명의 대상과 주공방향을 명확히 규정하여주시였다.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착잡하게 엉키고있는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 사회의 기본모순은 외래제국주의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를 일방으로 하고 국내 인민대중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량자간의 모순이다. 식민지, 반식민지 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선차적으로 벌리는 동시에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만 민족해방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대상을 옳게 규정하심과 함께 혁명의 동력을 꾸림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적역할에 관한 사상, 로동계급의 령도권에 관한 사상, 로농동맹에 관한 사상을 우리 시대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조건에 창조적으로 구현하시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튼튼히 꾸리고 그 두리에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을 결속하여 혁명의 주력군을 믿음직하게 꾸릴데 대한 로선을 밝혀주시였다. 이 로선은 맑스-레닌주의당의 통일적령도밑에 로동계급의 령도적지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 인구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을 혁명의 예비군으로서가 아니라 기본동력으로 되게 함으로써 혁명대오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게 한다.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적모순이 전면에 나서고있는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 민족적 압박과 차별대우를 받고있는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들을 반제민족해방혁명의 동력으로 될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각계각층 군중을 망라한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창조적방침을 명시하시였다. 이 방침은 주력군을 편성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주력군을 도와 적에게 강력한 타격을 줄수 있는 힘있는 보조적력량을 이룩할수 있게 하며 쟁취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쟁취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고 반혁명에 대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민족해방혁명리론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민족해방투쟁의 기본형태이며 최고형태로서의 무장투쟁에 관한 사상이다.

제국주의가 폭력으로써 약소민족들을 략탈하고 압박하는 이상 피압박인민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침략자들에 항거하여 투쟁하는것은 빼앗을수 없는 그들의 권리이며 식민지인민들은 혁명적폭력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폭력을 격파하여야 자신을 해방할수 있다.

식민지예속국가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국내외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옳게 타산한 기초우에서 과학적이고 면밀한 투쟁방침을 세우고 여러가지 투쟁 형태와 방법을 옳게 배

합하여 혁명투쟁을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러다가 일단 혁명정세가 다가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지체없이 무장을 들고 결정적인 판가리싸움을 벌려 외래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셔야 한다.

식민지민족해방전쟁에서 피압박인민들은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이 없이 사면포위와 공격 속에서 적은 무력으로 중첩되는 난관을 물리치면서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들과 장기적으로 힘겨운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조건에서 인민들은 오직 상비무력에 의한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벌려야만 적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어 놈들의 력량을 끊임없이 소모약화시킬수 있으며 혁명력량을 계속 확대강화하고 투쟁을 조직화할수 있으며 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전국적판도에서 전인민적항쟁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실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적폭력, 무장투쟁에 관한 사상은 제국주의멍에를 벗어던지고 민족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폭력, 무장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반동적통치기구를 짓부신 다음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이 수립하여야 할 정권형태에 관한 전혀 새로운 사상을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새로운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정권형태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리하여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이 좌우경적오유를 범함이 없이 혁명에서 기본문제인 정권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해결하고 혁명적인 사회경제적개조를 단행할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의 악랄한 파괴암해책동에 대비하여 그리고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의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 민족해방혁명이 해결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을 전면적으로 명시하시였다.

정치적독립의 달성은 새 생활, 새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길에서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벗어난 인민들은 이미 이룩한 승리에 조금도 도취하지 말며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고 선진적인 사회제도인 인민민주주의사회제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제국주의에 대한 온갖 환상을 철저히 깨뜨려버리고 신식민주의의 올가미에 다시 걸려들지 않기 위하여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뿌려놓은 종주국에 대한 사대주의 특히 숭미사대주의와 대미의존사상, 공미굴종사상을 반대배격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며 자위적민족군대를 가져야 한다.

정치적독립을 달성한 인민들이 민족해방위업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단계에 머물러있을것이 아니라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난 나라들이 진정한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주의적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살았습니다.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압박, 예속과 몰락의 길입니다. 사회주의만이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억압을 없애버림으로써 전체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보장합니다.》(우와 같은 책, 290페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이행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력사발전의 필연적과정이며 이 지역 인민들의 줄기찬 지향이다. 독립을 달성한 나라들에서는 각양각색의 정치사상조류들이 범람하는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언제나 철저한 혁명적립장과 계속혁명의 사상을 고수하고 과학적사회주의리념으로 인민대중을 이끌어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과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이 자체의 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완수하여나가기 위해서는 세계혁명력량과의 단결 특히 3대륙인민들 호상간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공통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그들의 혁명투쟁은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된다. 아세아가 자유롭지 못하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가 편안할수 없으며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미제국주의를 때리부시면 아세아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된다.

전세계혁명력량과의 국제주의적뉴대속에서 같은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억세게 투쟁할 때 제국주의침략자들을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 자기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할수 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가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체계로 전환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총적임무가 일정에 오른 세계혁명의 새 시대가 제기하는 새로운 리론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계시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혁명력량을 향도하는 권위적력량인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현명한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국제프로레타리아트의 위대한 전취물인 세계사회주의체계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함께 인류력사발전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전세계적범위에서 온갖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것은 인류의 리상이며 세계력사발전의 필연적추세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련속적으로 일어나고 승리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이 점차 확대강화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세계적체계에로 전환되는 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기지로, 전세계피압박인민들의 승리의 보루로, 세계평화의 성새로 되여야 한다.

국제혁명운동발전에서 세계사회주의체계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이 체계를 이루고있는 단위인 매개 사회주의국가를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매개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나가야 하며 자체의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통하여 세계인민들을 고무하고 그들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견인력을 높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승리한 혁명은 자기의 경험과 모범으로써 아직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의 혁명을 도와주고 자기의 정치경제군사적힘으로 세계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지원하여야 하며 아직 혁명이 승리하지 못한 나라 인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정책으로부터 승리한 다른 나라 혁명을 보위하고 자기 나라 혁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세계혁명운동발전의 법칙이며 인민들의 혁명투

쟁과정에서 이룩된 훌륭한 전통이다.

오늘 지구상에서는 지난 시기와는 달리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이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고있을뿐아니라 세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과거의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의 수억만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나서고있다.

변화된 현실은 각이한 력사발전조건과 사회계급관계를 가지고있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울수 있는 혁명리론을 절박하게 요구한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류력사발전의 객관적행정과 혁명의 주객관적조건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련이어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이 절박한 시대적요구를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마련된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전제에 기초하여 이미 발생한 사회주의적요소를 조장발전시키면서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을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무기로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이 새롭게 발전됨으로써 로동계급은 자본주의가 불가피적으로 겪는 진통과 재난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에로 나갈수 있는 뚜렷하고 곧바른 길을 알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위대한 력사적전변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에로 가는 로정에서 첫 출발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가 확립된 다음에도 사회에는 적대계급의 준동이 있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으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지 못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기초가 축성된 다음에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며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면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점차 공산주의를 건설하여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근본리익을 정확히 반영하시고 혁명실천의 풍부한 경험을 일반화하시여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혁명을 계속할데 대한 사상을 천명하시였으며 공산주의의 두 요새인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전략적목표를 제시하시고 그것을 달성하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새로운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명하시고 정확하게 해결하시였다. 이리하여 인류사회발전의 옹근 하나의 력사적시기와 관련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학설이 정연하게 수립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의 전체계와 내용이 새롭게 심화발전되였다.

실로 사회주의나라들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수령님의 리론적공헌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의 대외적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들도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앞에 나서는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견결한 혁명적립장을 고수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폭로규탄하며 실제적인 조치로써 그것을 짓부셔버리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또한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창조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만국의 로동계급에게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련대성을 표시하여야 하며 저주로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철쇄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백방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자들로부터의 완전한 정치경제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할것이다.

사회주의력량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을 공고발전시키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형제당, 형제나라들의 통일단결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힘의 원천은 그 대렬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에 있다. 단결은 로동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로동계급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단결의 힘에 의거하여 국제자본을 반대하는 어려운 계급적전투에서 승리할수 있었다. 오늘도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이 통일단결되여야만 미제를 비롯한 반혁명세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수 있으며 그들을 심각한 곤경에 몰아넣고 세계혁명을 힘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그러나 현시기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내부적의견상이로 하여 사실상 공동의 혁명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 계급적동맹체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있으며 전일적인 대오로서 세계혁명운동앞에 지닌 자기의 커다란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회복하며 강화하는것은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이 해결을 기다리는 중대한 문제로 나섰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현난국을 타개할수 있는 방침은 맑스-레닌주의적원칙과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세계혁명의 전도에 대하여 심려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제시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계급적전우들인 형제당, 형제나라들은 모두다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단결을 모색하고 통일을 수호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산당, 로동당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각국의 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아가며 다른 당,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조건에서 의견상이는 뒤로 밀고 무엇보다먼저 친선과 협조를 도모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립각한 혁명적인 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형제당, 형제나라들이 서로 존중하고 자주성을 옹호하여 불패의 위력을 가지는 참다운 국제주의적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매개 당의 신성한 권리이며 매개 당은 또한 다른 형제당들의 자주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성을 존중하는것은 형제당들간의 단결과 협조의 전제로 되며 기초로 됩니다. 모든 당들이 서로 자주성을 존중하여야만 형제당들간의 단결과 협조가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하고 동지적인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345～346페지)

형제당, 형제나라들은 완전한 평등, 자주성, 호상존중, 내정불간섭 및 동지적협조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형제당 및 형제나라들 사이의 호상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로동당들은 인종별이나 민족별, 지역별, 나라의 크기와 발전수준등에는 관계없이 오직 계급적전우로서 단결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자주성은 로동계급의 국제적련대성을 귀중히 여기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민족주의나 고립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우리 당이 주장하는 자주성은 결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뿐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것이다.

현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의 하나는 반혁명적기회주의사상조류로서의 수정주의를 극복할데 대한 문제이다.

안으로는 부르죠아적영향의 포로가 되고 밖으로는 제국주의의 압력에 투항하여 발생한 수정주의는 공산주의운동내에서 주되는 위험으로 되고있다. 수정주의를 극복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인민들의 사회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는가 못하는가,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는가 못하는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혁명과 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견결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장기간에 걸친 국제기회주의조류와의 비타협적인 투쟁행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정주의가 대두하여 사상적혼란을 일으키고있을 때 그 해독적본질을 정확히 통찰하시고 그 누구보다도먼저 반수정주의투쟁의 기치를 높이 드시였으며 수정주의를 극복할데 대한 혁명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 당 및 국가 건설, 민족해방운동, 제국주의와 전쟁과 평화문제를 비롯하여 공산주의운동의 로선상 모든 기본문제에서 좌우경적편향을 범하지 않고 맑스-레닌주의위업에 충실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형제당, 형제나라들과의 단결의 절절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시여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검열하고 교양하며 투쟁하면서 단결하고 단결하면서 투쟁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수정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정주의를 반대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제시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공산주의운동을 건전한 사상적기초우에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혁명적인 지침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운동 및 국제공산주의운동과 함께 자본주의나라 로동운동에도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의 강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제국주의나라 근로자들은 당면한 정치, 경제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정권을 쟁취하며 자본주의제도를 때려부시기 위한 높은 형태의 투쟁에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은 먼저 승리한 사회주의혁명을 보위하고 식민지예속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학설은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이며 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의 위대한 전투적기치이다.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5대륙인민들의 일치한 념원과 숭고한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그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는 나라 인민들, 손에 무장을 들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피압박인민들, 외래침략자들과 국내반동들의 파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새 생활을 용감하게 창조하고있는 인민들, 독점의 전횡과 자본의 억압을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3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세련된 령도예술을 지니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서 조선혁명과 함께 전반적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오시였으며 또 투쟁하고계신다.

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자본의 힘이 국제적인것처럼 국제적인 운동이며 개별적나라들의 혁명운동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으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의 당앞에 부과된 민족적임무와 국제주의적임무의 호상관계를 명철하게 밝히신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위업에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기여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에서 태여난 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 의무를 지니고있습니다.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에게 분공된 국제주의적의무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조선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조선혁명을 잘해야 국제주의적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것으로 됩니다. 우리의 모든것은 다 조선혁명을 수행하는데 복종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8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혁명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맡겨진 첫째가는 과업인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불패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과 결부시키고 그것을 더욱 새롭게 발전시키시였으며 혁명의 매 발전단계마다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해방후 민주주의적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 전후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중첩되는 난관과 간고한 시련들로 가득찬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진행정에서 매개 나라 혁명가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할뿐아니라 전반적세계혁명의 추진에도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빛나는 실천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우리 인민을 령도하시여 조선혁명을 잘하고 우리의 혁명력량을 비상히 강화하심으로써 국제혁명전선의 전초기지를 튼튼히 꾸리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전반적사회주의력량의 위력과 국제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게 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에서 혁명과 건설이 승리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당은 국제혁명운동의 힘있는 선봉대의 하나로, 우리 나라는 세계혁명의 믿음직한 기지의 하나로 전변되였다. 이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해방과 독립,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 혁명에서의 전형의 하나인 조선혁명의 수행방도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시고 그것을 혁명적으로 실천하시여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혁명과 건설의 경

험과 본보기를 수많이 창조하심으로써 아직 승리하지 못한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고무하고 도와주는 국제주의적의무에 충실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반제반미투쟁의 실천적모범을 창조하시여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붕괴과정을 더욱 촉진시키고 반제반미투쟁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항일혁명투쟁과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국제적인 반파쑈투쟁에 크게 이바지하시였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반제반미투쟁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일떠선 인민들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수 없으며 제국주의침략자들과는 맞받아싸워야 하며 또 용감히 일떠서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심과 불굴의 투지를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조선인민을 령도하시여 두 단계에 걸치는 사회의 혁명적개조를 승리적으로 완수하심으로써 제국주의기반에서 벗어난 과거의 식민지인민들이 이미 이룩한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새 생활을 창조하는 곧바른 승리의 길을 밝히시였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가장 짧은 기간에 순조롭게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 고귀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실천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위대한 력사적전변을 이룩하게 하심으로써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 다음 어떤 길을 밟아서 어떤 방법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가 하는 경험을 창조하시고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시키시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차게 고무추동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비방중상을 산산이 짓부셔버리시였다.

참말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들은 아직 혁명이 승리하지 못한 나라 인민들이 자기 나라에서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진정한 민족적번영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위업을 명확한 전망과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주고있다.

우리의 경험은 그것이 혁명과 건설의 정확한 지도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이룩된 것으로 하여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사상은 기성리론과 기존명제를 교조주의적으로 옮겨놓거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어디까지나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의 견지에서 독창적으로 사고하며 맑스-레닌주의를 부단히 변화되는 환경과 결부시키며 그것을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은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양하고 혁명발전의 결정적요인인 내부력량에 의거하여 매개 나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민족해방혁명도 외부의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식민지예속국가인민

들자체의 사회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과 민족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밀접히 배합하여 힘차게 벌려야만 승리할수 있다. 새 사회를 창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력사적위업도 매개 민족국가에서 주체사상을 실천투쟁에 구현하여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할 때 성과적으로 완수될수 있다. 만약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혁명발전의 근본원리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어기고 남만 쳐다보면서 자기의 힘을 동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혁명과 건설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을뿐아니라 만회할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수 있다. 우리 시대의 세계혁명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이런 쓰라린 교훈을 한두번만 보여주지 않았다.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의 수많은 우여곡절이 사대주의해독과 관련되여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일어난 뼈저린 실패가 또한 사대주의해독과 관련되여있다. 자주의 길은 승리와 번영의 길이며 외세의존의 길은 패배와 몰락의 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자기 나라의 공산주의운동과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민족적해방을 이룩하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을뿐아니라 위대한 주체사상을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정치에서 자주적이며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힘있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완전한 정치적자결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 믿음직한 자위력,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주체확립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귀중한 경험은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 자기 나라 혁명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자각을 높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기 나라의 잠재력을 적극 동원한다면 어떠한 난관과 애로도 이겨내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자신심을 북돋아주고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이 인민들의 해방투쟁사에 아로새겨질 가장 고귀한 창조물이며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매장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가는 혁명적인민들을 위하여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통하여 세계혁명에 특출한 기여를 하고계실뿐아니라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힘으로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고 계신다.

수령님께서는 철저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언제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과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계신다.

일찌기 조국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시기부터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이미 승리한 혁명을 보위하며 린접국가의 혁명위업을 지원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조직진행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미제를 성과적으로 때려부실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지지성원을 보내고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최전선에 서있는 웰남, 캄보쟈, 라오스를 비롯한 인도지나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 물심량면으로

되는 사심없는 지원을 주고계시며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투쟁, 앙골라, 모잠비크, 기네(비싸우)를 비롯한 아프리카나라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견결히 지원하고계시며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꾸바인민의 투쟁, 미제와 친미반동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싸우고있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서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며 이 나라들이 하루빨리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완전한 정치적독립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치적지지와 경제문화적원조를 주시는것과 함께 이 나라들과 그 어떤 부대조건도 없이 완전한 평등과 호혜,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경제적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계시며 그들의 혁명투쟁에 열렬한 성원을 보내고계신다.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김일성동지께서 다른 나라 혁명에 주시는 지원속에는 이 모든 곤난과 사정을 무릅쓰고 오직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같은 전선에서 싸우는 전우들을 진심으로 도우시려는 그이의 고상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이 깃들어있으며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할 계급적형제들을 생각하시는 그이의 극진한 사랑이 스며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가장 간고하고 복잡하며 다양한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을 승리적으로 이끄시고 다른 나라 혁명을 진심으로 도우시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운동발전에 거대한 실천적공헌을 하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　　*

오늘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에 대한 거대한 사상리론실천적공헌으로 하여 세계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신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현시대가 낳은 영명하고 걸출한 령도자로 우러러보고있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에서 사회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사상리론적무기를 찾고있다.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고계시는 우리 나라를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의 모범의 나라》로 부르고있으며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승리와 성과에서 끝없는 용기와 고무를 얻고있다. 그들은 김일성동지를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성원을 주시는 진정한 수령으로 칭송하며 그이께서 보내주시는 국제주의적원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혁명전사로 투쟁하는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높은 긍지를 가지고 그것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리론을 전투적기치로 삼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힘차게 투쟁하여나감으로써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길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김 중 린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이 되는 가장 경사스러운 날에 즈음하여 전체 남북조선인민은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안고 그이의 영광스러운 투쟁로정과 찬란한 혁명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0성상을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바쳐오시였으며 그 과정에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이 불멸의 공헌가운데는 우리 당과 인민을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이끌어오신 그이의 위대한 업적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령도하고계시는 전반적인 우리 나라 혁명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 앞에는 두가지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그 하나는 나라의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하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95페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은 현시기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2대혁명과업의 하나이며 당면최대의 민족적과업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첫날부터 혁명의 전국적완성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정확히 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조국통일방침과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을 뚜렷이 내놓으시고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남조선혁명에 대한 북반부혁명기지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시면서 민족의 모든 애국력량을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과 인민의 진두에 서계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은 중첩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헤쳐올수 있었다. 오늘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이 류례없는 복잡성과 간고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빨리 발전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수령님의 옳바른 령도의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령도하시며 우리 시대의 세계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구현하고있는 그이의 주체사상과 백전백승의 전략전술에 의하여 그 앞길이 뚜렷이 밝혀져있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승리는 필연적이며 멀지 않아 반드시 현실로 될것이다.

1

우리 나라는 거의 반세기동안에 걸치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자 곧 미제국주의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갈리웠다. 우리 인민은 또다시 흉악한 강적과 맞다들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은 커다란 장애에 부닥치게 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으나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와 직접 맞선 조건에서 전국적인 테두리에서 혁명을 해본 경험은 지난날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것은 어느 당과 인민 앞에도 나선적이 없는 새로운 문제였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이 초미의 문제에 대한 옳바른 해답은 오직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주어질수 있었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고 조국을 광복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차대전직후 국제국내적으로 미제에 대한 환상이 적지 않게 퍼지고있던 그 시기에 벌써 높은 혁명적원칙성과 천재적예지로 미제의 남조선강점의 본질을 꿰뚫어보시고 우리 나라 혁명이 복잡성, 간고성, 장기성을 띠게 되리라는것을 예견하시였으며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시여 전국적테두리에서 혁명승리를 최대한으로 앞당길 독창적이고 정확한 전략구상을 세우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져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가장 옳은 길은 먼저 인민들이 이미 주권을 틀어쥔 북반부를 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82페지)

《당은 북반부에서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키고 혁명기지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며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의 예속에서 해방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꾸준히 싸워왔습니다.》(우와 같은 책, 300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5년 10월 우리 당 창립대회에서 내놓으신 유명한 민주기지로선을 핵심으로 하는 조선혁명의 전국적완성에 관한 총적전략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혁명을 뗄수 없이 련결된 두 지역혁명의 통일체로 보고, 먼저 조건이 유리한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빨리 추진시켜 전국혁명의 튼튼한 기지를 꾸리며, 그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조건이 불리한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자래우고 혁명운동을 발전시키며, 남북혁명력량의 전략적배합에 의하여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이것은 조선혁명을 어디까지나 우리 당과 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기초하고있으며 제국주의침략자들과 끝까지 싸우는 철저한 반제혁명정신으로 일관되여있다. 거기에는 나라가 둘로 갈리운 형편에서도 혁명을 전국적판도에서 힘있게 내밀 과학적인 방도가 밝혀져있으며 더우기는 북반부에 마련된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남조선에 조성된 불리한 조건을 효과있게 극복하는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있다.

참으로 그것은 위대한 선견지명과 깊

은 통찰력, 확고한 원칙성과 폭넓은 신축성을 구현한것으로서 류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우리 나라 혁명을 가장 빠른 승리의 길로 이끄는 독창적이고 정확한 전략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천재적인 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나라의 북반부를 전국혁명의 튼튼한 거지로 꾸리기 위한 방도와 함께 전국적범위에서 혁명을 완성하는 방도들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독특한 현실을 정확히 타산하시고 혁명의 전국적완성의 과업을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두가지 문제로 갈라서 취급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은 외래침략세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 남반부에 부지되고있는 반동적사회제도를 혁명적으로 변혁하는 문제이며 조국통일은 인공적으로 갈라진 우리 나라의 령토와 민족을 다시 통합하는 문제이다. 이 두가지 문제는 그 성격이 다르고 포괄범위가 다르나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는 하나의 과업해결에 복무하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그 로선과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명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전국적완성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남조선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은 아직도 외래제국주의의 예속밑에 있는 우리 나라 령토의 절반과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전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있다.》(우와 같은 책, 229페지)

남조선혁명은 전조선혁명의 뗄수 없는 구성부분인 동시에 남조선의 식민지반봉건적사회제도와 그 고유한 모순에 객관적근거를 두고있는 지역혁명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을 상대적독자성을 가진 하나의 지역혁명으로 규정하시고 남조선혁명은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자신의 투쟁인만큼 그들자체가 주동이 되여야만 성과있게 수행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서의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 대상과 동력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시였으며 그 전략전술적문제들에 전면적이고 정연한 해명을 주시였다.

혁명에서 근본문제는 정권에 관한 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에서 정권전취를 혁명의 전략적임무수행의 중심고리로 내세우시고 그 해결을 위한 정확한 방침들을 천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서 정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미제와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의 판가리싸움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주공방향을 반혁명의 우두머리인 미제에게 두고 그 앞잡이들에 대한 공격을 이에 배합할것을 제시하시였다. 또한 반혁명을 타승하려면 혁명의 기본군중인 로동계급과 농민을 맑스-레닌주의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진보적인 청년학생, 지식인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애국적군인, 애국적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까지 포함한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펌으로써 혁명의 정치적군대를 잘 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반혁명적폭력에 매달리고있는만큼 혁명적폭력으로

맞서야만 놈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주고 정권을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천명하시고 그 기본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남조선에서 정권전취를 위한 혁명의 공격방향과 주공방향, 주력군과 후비군의 편성 및 배치방침, 반혁명에 대한 결정적타격의 기본방도 등 혁명의 전기간에 걸쳐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방침들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시였다.

정권문제해결을 위한 혁명투쟁은 일반적으로 두개의 단계 즉 혁명의 준비기와 결정적시기를 거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적로정을 뚜렷이 밝히시고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축적장성시켜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을 준비를 갖추는것을 혁명준비기인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으로 규정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에 기초하시여 정치사상사업을 앞세우고 당건설과 군중단체건설, 통일전선사업과 괴뢰군와해전취사업을 내밀어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반혁명세력을 고립약화시킬 조직정치적과업을 제시하시고 혁명준비기의 전략적지도의 원칙들을 천명하시였다. 여기에는 반혁명과의 결정적대결을 피하면서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장성발전시키며, 혁명운동전반을 성과있게 이끌면서 당면한 모든 투쟁을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에로 이끌며, 투쟁성과에 기초하여 혁명력량을 체계적으로 꾸리면서 그것을 정확히 포치할데 대한 문제 등이 들어있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주객관적정세의 변화에 따라 당면한 시기의 특징을 바로 포착하고 알맞는 중심과업을 내세우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매 시기마다 전술적과업을 뚜렷이 제시하시였으며 투쟁구호를 잘 들고 투쟁형태와 방법을 옳게 선택하는 동시에 적들의 내부모순과 약점을 효과있게 리용하며 투쟁의 여러가지 형태, 방법, 규모를 잘 배합하여 대중운동을 적극 밀고나갈데 대한 전술적지도의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결정적시기는 여러가지 형태로 닥쳐올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 도래할 혁명적대사변의 이러저러한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시고 혁명의 결정적시기의 전략전술적문제들에 예견성있는 해답을 주시였다. 거기에는 반혁명에 결정적타격을 주고 지체없이 정권을 틀어쥘데 대한 결정적시기의 기본방침과 함께 그 관철을 위한 전략적지도의 원칙들과 일련의 전술적문제들이 들어있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남조선에서 정권전취를 위한 혁명의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을뿐아니라 혁명에 의하여 세워질 정권의 성격과 형태 그리고 이 정권이 수행하여야 할 과업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남조선혁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이 모든 전략전술적방침들은 남조선사회제도의 성격과 민족적 및 사회적 모순들에 대한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분석에 기초하고있으며 우리 나라 남반부가 처한 특이한 조건과 계급력량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타산하고있을뿐아니라 앞으로의 발전전망까지 명철하게 예견하고 있다.

더우기 거기에는 력사상 가장 어려운 역경속에서 악독하고 강대한 반혁명세력과 싸워이긴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비상히 풍부한 경험과 나라의 북반부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된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귀중한 경험이 집중적으로 구현되여있으며 국제혁명운동의

수많은 경험과 교훈들이 주체적립장에서 충분히 참작되여있다.

참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은 우리 나라 남반부에서의 지역혁명앞에 나서고있는 모든 문제들에 명확한 리론실천적해답을 주고있는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전략전술이다. 그것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전략전술의 고전적인 모범이며 정권전취를 위한 혁명의 전략전술을 더욱 완성한것으로서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확고하게 담보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조선혁명의 전국적완성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에서 이와 함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조국통일에 관한 리론과 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한 나라의 비극적인 분렬을 끝장내고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로부터 빼앗긴 자기의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으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사활적요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98~199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명철하게 규정하시고 자주적립장을 통일문제해결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으로 내세우시였으며 그 기초우에서 조국통일에 관한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밝히시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원래 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우리 민족내부의 문제이다. 우리 민족내부에서 조국통일을 반대하는것은 한줌도 못되는 매국세력뿐이다.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침략과 전쟁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이 놈들을 비호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문제해결에 작용하는 모든 현실적요인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갈라진 우리 나라를 통일하는데는 객관적으로 두가지 전도 즉 평화적전도와 함께 비평화적전도가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내부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전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을 구현하시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원칙에서 남북을 통일하는것을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으로 내세우시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도들을 밝히시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온갖 외세의 간섭을 없애고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기본방도와 남북사이의 평화협정체결 및 무력축소, 편지거래와 인사래왕, 경제문화적 교류와 협조, 남북조선련방제 등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일련의 과도적방도들이다.

이와 함께 수령님께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는 언제나 전쟁의 위협이 드리워있는 조건에서 있을수 있는 전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원쑤들이 우리 인민에게 전쟁을 강요한다면 놈들을 무력으로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뿐만아니라 평화적 및 비평화적 통일의 이러저러한 가능성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시면서 모든 정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원칙적인 방도들을 명시하시였다.

갈라진 우리 조국의 통일은 구경 그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극복하고 분렬의 근원을 뿌리뽑음으로써만 이루어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은 그 구체적방도가 어떻든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놈들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때려부심으로써만 이루어질수 있다는것을 명시하시고 조국통일의 3대혁명력량을 준비한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으로 이루어지는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면서 이와 함께 세계의 모든 진보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력량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원칙적요구를 내세우시고 그 구체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에 관한 이 모든 로선과 방침들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주객관적조건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예견성있는 타산에 근거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고있는 전민족의 한결같은 요구를 담고있다. 그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으며 분렬된 나라에서의 민족문제해결과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보편적인 원칙을 가르쳐주고있다.

참으로 조국통일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로선과 방침들은 통일문제해결에서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전국적판도에서 반혁명에 대한 혁명력량의 우세를 확고히 보장하며 모든 정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결정적으로 앞당길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로선이며 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독창적인 구상을 세우시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징기성을 띤 우리 나라 혁명을 성과있게 내밀고 그 전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2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데서 옳은 로선과 방침을 세우는것과 함께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바로 조직지도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현명한 로선과 방침을 밝히신 동시에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그 관철에로 당과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총적전략에 기초하시여 무엇보다도먼저 북반부에 민주기지를 창설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진시키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북반부에서는 불과 1～2년동안에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철저히 수행되고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들어섰으며 북반부는 전국혁명의 힘있는 기지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반혁명의 력량호상관계를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빨리 전변시키시면서 전체 조선인민을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통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도 인민들의 혁명기세는 급속히 높아졌으며 로동자, 농민들과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반

대하고 북반부에서와 같은 민주개혁의 실시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전인민적구국항쟁에 일떠섰다. 광범한 민주세력은 물론 김구, 김규식 등 우익정당의 거두들까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덕성과 수령님의 령도밑에 북반부에서 이룩하고있는 새 조국 건설의 빛나는 성과에 감동되여 그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받들면서 반미구국의 길에 떨쳐나섰으며 반동세력은 완전히 고립되여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정확한 로선과 방침이 그대로 구현되였더라면 남조선에서도 혁명운동이 승리적전진을 이룩하였으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그러나 당시 남로당지도부내에 기여든 간첩종파도당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로선과 방침을 음으로 양으로 반대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외곡하면서 혁명운동을 파멸에로 몰아갔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수령님의 정확한 로선과 방침이 관철되지 못하고 혁명력량은 전면적으로 파괴되였으며 남조선혁명운동은 거듭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다 놓치고말았던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짓부시고 조국해방전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신 다음 새로운 정세밑에서 온갖 기회주의적편향을 극복하시면서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북조선을 조선혁명의 기지로 인정하고 그것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는것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전국적으로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원칙적립장을 지켜왔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9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이 미제의 강점밑에 있고 우리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북조선에서도 남조선이 해방될 때까지 기다리며 혁명을 더 전진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그릇된 견해를 물리치시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시였다. 다른 편으로 그이께서는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만 생각하고 그 성과에 만족하면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임무를 잊어버리는 온갖 표현들을 견결히 반대하시고 남조선혁명에 대한 북반부혁명기지로부터의 지원을 각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면서 전국적범위에서 혁명을 힘차게 추진시키시였다.

전후 남조선혁명운동앞에는 수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다.

미제와 리승만역도들의 식민지파쑈적폭압으로 말미암아 온 남조선천지는 중세기적암흑속에 잠기였고 적들의 악랄한 《반공》선전의 영향이 뿌리깊은데다가 《공산주의자》의 탈을 쓰고 간첩종파도당이 끼친 악독한 후과로 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서는 공산주의와 혁명에 대한 외곡된 표상이 작용하고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운동을 추켜세우는것은 사실상 모든것을 새로 시작하기보다 더 어려운 문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이 처한 어려운 형편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것을 극복타개할 명철한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전 남조선혁명운동의 교훈을 심각히 분석총화하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새로운 터전우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하는것을 남조선혁명을 추켜세우는 관건적문제로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남조선에 조성된

형편을 정확히 고려하시여 전망적인 타산밑에서 혁명의 핵심력량을 꾸준히 축적보존하면서 정세를 성숙시켜나갈데 대한 가장 적절한 방침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당면한 민족최대의 과업인 조국통일의 구호를 전면에 제기하심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각성을 더욱 높이고 대중운동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수령님께서는 북반부에서 전쟁의 상처를 하루빨리 가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기적인 비약을 이룩하며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도록 하시면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공명정대한 방안들을 제시하시여 통일문제해결에서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시였다. 그리하여 남조선혁명운동은 중첩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북반부에서 이룩되고있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 고무된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 속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점차 높아지고 혁명가들의 대렬이 자라나게 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남조선혁명가들의 합법적정당으로서 진보당이 나오게 되였다. 진보당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방침을 실현하는데로 광범한 대중을 일떠세움으로써 남조선에서 평화통일기운을 높이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전후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선 남조선혁명운동은 1960년 4월 드디여 대중적인민봉기로 폭발하였다.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청년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은 어 봉기를 통하여 미제의 손때묻은 앞잡이인 리승만괴뢰정부를 무너뜨리고 반미구국투쟁에서 첫 승리를 이룩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정세밑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일관된 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시면서 남북조선련방제를 비롯한 획기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시여 남조선에서 정세발전을 더욱 촉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방침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조국통일기운은 전례없이 높아지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은 날을 따라 강화되였다. 이 과정에서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대두하고 사회대중당이 나오게 되였다.

사회대중당의 지도밑에 투쟁의 불길은 온 남녘땅에 세차게 타번지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분렬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격동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

이와 같이 전후 첫시기에 남조선혁명운동은 수령님께서 취하신 세련된 방침에 따라 침체상태에서 벗어나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남조선혁명조직들은 아직 준비된 지도핵심들로 튼튼히 꾸려지지 못하였으며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로선과 방침들을 관철하는데서 일련의 편향을 산생시켰다. 그리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은 4월인민봉기를 완전히 승리에로 이끌지 못하였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군사파쑈도당을 내세워 반혁명적인 《군사정변》을 일으켰을 때에도 그에 대하여 단호한 반격을 조직할수 없었다.

5.16《군사정변》은 남조선에서 날로 강화되고있는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앞에서 막다른 골목에 이른 미제와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의 피비린내나는 반혁명적공세였다. 남조선에서 제놈들의 반인민적통치를 더는 다른 방법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군사정변》을 통하여 가장 악랄한 식민지군사파쑈독재를 세우고 《반공》의 구실밑에 온 남조선천지를 종칼이 지배하는 공포의 분위기속에 몰아넣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 투옥, 학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운동은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밑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부닥친 시련을 이겨내고 혁명운동을 발전시킬 정확한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후 새로운 반전의 길에 들어선 남조선혁명운동과정에서 인민대중이 보다 각성되고 자신들의 실천적체험을 통하여 사회적변혁의 출로를 모색하고있는 조건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구호를 전면에 제기하시고 투쟁목표와 그 실현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전후 첫시기 남조선혁명운동에서 쌓은 경험과 교훈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분석평가하시면서 남조선에서 혁명적당건설을 결정적으로 다그칠것을 간곡히 일깨워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이 반제반봉건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혁명적당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이 없이는 인민대중에게 명확한 투쟁강령을 줄수 없으며 혁명군중을 굳게 묶어세울수 없으며 군중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41～142폐지)

수령님께서는 혁명적당건설을 촉진하고 혁명력량을 장성강화하는데서 대중투쟁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당면전술적단계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우심으로써 원쑤들의 군사파쑈적폭압밑에서 대중적혁명력량을 마련해나가며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빨리 성숙시킬 효과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다른 한편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군사기지화정책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걸음마다 폭로하시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도발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시면서 남조선혁명에 대한 북반부혁명기지의 지지성원을 각방으로 강화하시고 전체 조선인민을 반미반일구국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리하여 남조선혁명운동은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빨리 발전하게 되였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원쑤들의 야수적폭압속에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을 다그쳤으며 이 과정에서 통일혁명당의 지역조직들을 비롯한 일련의 지하당조직들을 꾸리고 1969년 8월에는 그것을 통일적맑스-레닌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켰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삼고있는 통일적맑스-레닌주의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의 출현은 남조선혁명에 관한 수령님의 로선과 방침의 위대한 결실이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오래동안의 피어린 투쟁에서 남조선혁명가들이 쟁취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다.

통일혁명당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당원들과 인민대중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정치선전을 강화하고 당대렬을 투쟁속에서 단련된 혁명핵심들로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면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전략전술을 관철

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가혹한 군사파쑈적폭압속에서도 1964년 3.24투쟁과 6.3봉기, 1965년 8월투쟁, 1967년의 괴뢰대통령 및 괴뢰국회의원 《선거》 반대투쟁을 비롯한 큰 규모의 투쟁들을 련이어 벌리였으며 원쑤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다. 특히 그들은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인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의 장기집권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반파쑈민주화방침을 성과있게 구현하였으며 지난해 4월에 있은 괴뢰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광범한 반파쑈민주주의세력의 통일전선적련합을 더욱 강화하고 군사파쑈독재정권의 타도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어느때보다도 높이였다.

그리하여 지난날에는 평화통일이라는 말조차 할수 없었던 남조선에서 남북의 교류와 평화통일에 대한 구호를 공공연히 내들수 있게 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대세의 압력에 못이겨 말로나마 《평화통일》을 운운하지 않고서는 배겨낼수 없게 되였으며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회담에 끌려나오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러한 정세밑에서 이미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를 통하여 8개항목의 구국방안을 내놓도록 하시여 남조선에서 정세발전을 성숙시켜오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전변시키시면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결정적으로 촉진시킬 획기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난해 8월 6일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과 올해 신년사 그리고 일본 《요미우리신붕》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련이어 제시하심으로써 남조선괴뢰도당으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매국배족적립장을 버리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의 길에 나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놈들의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체를 더욱 완전히 드러내놓고 영영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든지 둘중의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몰아넣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에서 정세발전은 전례없이 촉진되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은 날을 따라 유리해지고있으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전망은 더욱더 밝아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첫날부터 민족분렬의 크나큰 고통을 한몸으로 감당하시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억압과 착취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불행한 처지에 대하여 언제나 깊이 심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을 하루빨리 구원하며 그들의 령락된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 거듭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남조선인민들에게도 북반부인민들과 같은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장애를 몸소 헤치시며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능숙하게 령도하여 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조선혁명을 옳바르게 령도하여왔으며 우리 인민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끌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10페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완수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줄기찬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에 따라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

명성은 무엇보다먼저 남조선혁명을 북반부에서의 혁명 및 건설과 유기적으로 련결시키시고 조국통일을 혁명의 전국적완성과 밀접히 결합시키시여 그것을 가장 빠른 승리의 길로 이끄신데 있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성을 깊이 신뢰하시고 남북조선의 혁명력량이 각각 차지한 위치에서 혁명의 전국적완성에 최대한으로 기여할수 있게 하신데 있다.

그것은 또한 혁명적원칙성과 신축성을 통일적으로 구현하시여 언제나 적들을 수세와 궁지에 몰아넣으시고 주동을 확고히 틀어쥐신데 있으며 민족의 모든 애국력량을 거족적으로 동원하시였을뿐아니라 강력한 국제적지지성원을 획득하시면서 혁명운동을 끊임없이 전진시키신데 있다.

참으로 조선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는 천재적예지와 불굴의 기백과 세련된 수완으로 부닥치는 온갖 장애를 완강히 헤치시고 당과 인민을 확신성있게 이끄신 맑스-레닌주의적령도예술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오직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남조선혁명은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우여곡절을 성과있게 이겨내고 승리적전진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업은 최후승리의 날을 더욱 뚜렷이 내다볼수 있게 되였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백전백승의 전략전술, 그이의 정확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조선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3대혁명력량이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반혁명사이의 력량호상관계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나라의 북반부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승리하고 전국혁명의 믿음직한 기지가 꾸려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승리와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반석같이 다져졌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16페지)

오늘 나라의 북반부에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였으며 당안에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온 사회가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한사람같이 통일단결되여있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구현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불패의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되였으며 그 위력은 비상히 커졌다.

강력한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가진 북반부혁명기지는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조건에서도 전국적판도에서 반혁명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력사발전행정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발아래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이 장성강화되고 혁명운동이 발전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빛나는 성과에 고무된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오늘 통일혁명당이 추켜든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의 기치를 따라 혁명력량을 더욱 장성발전시키고 반미구국투쟁과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습니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원쑤들이 필사적으로 가로막고있는 장벽을 뚫고 남조선천지에 그 찬란한 빛발을 뿌리고있으며 반세기 가까운 세월 언제나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였고 세계혁명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계시는 수령님의 불멸의 영상은 남조선의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아로새겨져있다.

오늘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 속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으며 그것은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하나의 사회적추세로 되고있다. 그들은 원쑤들의 야수적탄압밑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따라배우고있으며 그이께서 밝혀주신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벌리고있다.

남조선에서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가들이 수많이 자라나고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혁명력량을 꾸리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통일혁명당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기의 전일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당력량을 급속히 확대강화하였다.

통일혁명당은 그 력사는 비록 짧지만 당건설에서 근본문제인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이미 해결하였다. 현시기 국제적으로 여러가지 기회주의사상이 머리를 들고 많은 나라들에서 맑스-레닌주의당대렬이 분렬되여 진통을 겪고있으나 통일혁명당안에는 오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밖에 모르는 드높지 않는 사상체계가 서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당안에 사상의지 및 행동상의 통일이 확고히 보장되여있다. 통일혁명당은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방침에 따라 당조직들을 탄력성있게 꾸리고 당의 군중지반을 확대하면서 그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나가고있다.

남조선에서 당력량과 함께 대중적혁명력량이 또한 장성하였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조직화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청년학생들속에서 전남조선적규모의 여러개의 대중단체들이 나왔으며 각계각층 민주주의세력의 반파쑈련합은 《민주수호국민협의회》와 같은 통일전선조직체들을 내오고 더욱 확대발전되고있다.

맑스-레닌주의당의 지도밑에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지고 혁명력량이 강화됨에 따라 대중운동과 투쟁은 새로운 특징을 나타내면서 빨리 발전하고있다.

남조선에서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각계각층 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를 망라하고 지구성을 띤 대중투쟁으로 발전하였으며 그것은 평화적조국통일운동과 밀접히 결합되고있다. 특히 청년학생들은 학원의 군사화와 파쑈화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요구하여 줄기찬 대중적투쟁을 벌리고있으며 자기들의 민주주의적운동을 로동자, 농민들의 계급적운동과 결합시켜나가고있다.

반파쑈민주화투쟁의 격류속에서 기본군중의 진출도 점차 강화되고있다.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은 량적으로 훨씬 장성하였을뿐아니라 《한진상사》로동자들의 폭력적진출, 평택지구에서의 반미시위,

실미도군인폭동 등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그 성격이 전례없이 격렬해지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오래동안 쌓이고쌓인 불평불만이 한데 합쳐지고있으며 그 크나큰 힘이 폭발의 분출구를 찾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의 장성과 혁명운동의 발전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반동적식민지파쑈통치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을 조성하고있으며 그것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빨리 성숙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도 더욱 강화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반제혁명력량은 날로 확대강화되고있으며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신년사》, 1972년 1월 1일, 23～24페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절실한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그 커다란 견인력으로 하여 모든 대륙, 모든 나라의 더우더 많은 혁명적인민들속에서 열화같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량심있는 사람들이 그이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우러러받들고있다. 우리 나라의 국제적권위와 영향력은 날을 따라 커지고 우리 인민은 국제적으로 많은 혁명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전세계인민들의 지지성원은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다.

조선혁명에 대한 이러한 국제적련대성은 원쑤들을 더욱 고립약화시키고있으며 우리 나라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앞당기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방침과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3대혁명력량준비가 모든 분야에서 성과적으로 진척된 반면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고립약화되고있으며 일찌기 없었던 곤경에 빠져있다.

우리 혁명의 주되는 적인 미제국주의는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로 하여 내리막길에 들어선뒤 이르는곳마다에서 련이어 얻어맞아 녹아나고있다. 핵공갈도 더는 통하지 않게 되고 딸라주머니도 밑창이 드러난 오늘에 와서 미제는 제국주의동맹국들은 물론 추종국가들로부터도 고립되고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되살아났고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된 일본군국주의 역시 아세아인민들의 단결된 힘과 일본의 광범한 민주주의세력의 항거에 부닥치고있으며 정세의 급격한 변화앞에서 갈피를 못잡고 허둥지둥하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미일침략자들을 두상전으로 섬겨온 남조선괴뢰들은 국제적고아의 신세가 되여가고있으며 저들의 피치 못할 운명을 예감하고 극도의 불안과 절망에 휩싸여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안으로도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놈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매달려온 《반공》체제는 금이 가고 경제는 전면적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있으며 '군사파쑈통치는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다.

궁지에 빠진 남조선괴뢰들은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을 떠들면서 이른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파쑈적폭압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으나 그것은 제놈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있을뿐이다.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혁명과 반혁명 사이의 력량관계로 보아 우리 조국의 통일과 전조선혁명의 대세는 더욱

명백해졌다.

빨리 전변되고있는 매우 유리한 내외의 정세속에서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 당과 인민의 전진운동은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으며 불을 보듯이 명백해진 우리 조국의 통일과 전조선혁명의 대세를 돌려놓은 힘은 이 세상에 없다.

* *

오늘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를 자기의 수령으로 모신 끝없는 긍지와 영광에 휩싸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면서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더욱 앞당길 새로운 투지를 가다듬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겠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장기성을 띤 우리 혁명을 어떻게 하면 좀더 짧은 기간에 완수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79페지)

우리는 아직 혁명의 도상에 있으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원쑤들의 집요한 반항에 부닥치고있다.

남조선에 등지를 틀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세와 력량관계가 저들에게 불리하게 전변되어 전조선을 지배하려던 야망을 당장 이룩할수 없게 되자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시키려는 더욱 교활한 음모를 꾸미고있다.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정세가 급변되는 틈을 타서 남조선에서 미제의 《역할을 대신》하며 기회를 보아 우리 나라를 또다시 병합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꾀하고있다. 이를 위하여 놈들은 군국화를 다그치는 한편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남조선에 재침의 마수를 깊이 뻗치고있다.

조성된 정세밑에서 우리는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력량의 거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남조선재침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내외의 유리한 정세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다그치는데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으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길수 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촉진하는것,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내세우신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전국적판도에서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무궁한 번영을 누리려는 전체 우리 인민의 력사적인 숙망을 이룩하기 위한 보람찬 과업이다.

오늘 이 중대한 과업을 앞에 놓고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반미반일구국투쟁과 반파쑈민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며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앞당길 혁명적결의에 불타고있다.

공화국북반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대진군에 박차를 가하면서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혁명을 지원하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남북조선인민들의 거족적투쟁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멀지 않아 통일될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전국적판도에서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양 형 섭

오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우리 민족최대의 경사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여 무한한 기쁨과 감격,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0성상을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해방,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여오시였으며 이 행정에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영생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조선혁명의 전투적선봉대로서의 우리 당의 창건과 공고발전, 이는 우리 당의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반세기에 이르는 혁명활동행정에서 이룩하신 가장 빛나는 공적의 하나이다.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정치적참모부,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그를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 깊은 력사적뿌리를 두고있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을 수행하는 간고하고도 험난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강유력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우리 당이 창건되고 장성강화되여온 전 과정은 일찌기 그 어느 당의 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준엄하고 시련에 찬 전투적로정이였다.

우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아세아는 세계정치투쟁의 주요무대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착잡하게 뒤엉켜있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모든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들을 해결함으로써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할뿐아니라 동방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며 세계혁명에 이바지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이 나섰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조건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거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인미답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내외원쑤들과의 간고한 투쟁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밖으로는 강대한 적 일제와 미제를 상대로 하는 힘겨운 투쟁을 벌려야 하였으며 안으로는 외래제국주의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과 온갖 반혁명적사상조류들을 극복하는 치렬한 투쟁을 진행하여야 하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 시련에 가득찬 간고하고도 복잡한 투쟁속에서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면서 강유력하고 세련된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하였으며 그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곧바로 전진시켜왔다.

이것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당건설리론을 밝히시였으며 몸소 혁명적당건설을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신 결과이다.

당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를 고수하고 그것을 새로운 시대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위대한 사상이다.

수령님께서는 당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시대적조건과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고 그것을 우리 당건설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건의 새로운 길을 밝히시고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위업을 가장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건의 합법칙적요구와 혁명발전의 현실적조건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할데 대한 천재적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확고한 길을 개척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의 전위대이며 혁명의 참모부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있어야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결속하여 혁명투쟁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옳은 전략전술을 가지고 인민대중을 승리에로 인도할수 있다.》(《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34페지)

로동계급의 전위대이며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창건된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인류가 이룩한 모든 선진적사상과 풍부한 혁명실천의 경험을 분석총화하고 시대의 요구와 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여 혁명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창시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선진분자들로써 당을 조직한다. 다시말하여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의 수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사상을 같이 하는 계급의 선진분자들을 묶어세워 창건하는것이다.

이러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수령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혁명적골간이 튼튼히 꾸려져야 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이 확고히 이루어져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고한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35페지)

당창건에 앞서 공고한 조직사상적준비를 갖추는것은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가 있어야 당을 견고한 토대우에 창건할수 있으며 창건된 당이 첫날부터 혁명을 옳은 길로 이끌수 있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튼

튼한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창건된 당은 비록 정세가 어렵고 투쟁이 간고하여도 창건 첫날부터 자기 대렬의 통일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혁명의 지도력량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교훈은 튼튼한 조직사상적준비가 없이 창건된 당이 어떠한 결말을 가져오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1925년에 몇몇소조들의 결합으로 창건되였던 조선공산당은 결국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과 일제의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던것이다.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혁명발전에서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오늘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이전시기와 같이 국제적중앙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였다. 공산주의운동은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벌어지고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의 민족부대를 창건하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발전의 추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자면 반드시 그 조직사상적기초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자기 나라 혁명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창건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으며 창건된 당을 빨리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을데 대한 사상은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맑스-레닌주의당창건준비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는 길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며 우리 나라에서 당창건문제를 가장 혁명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길을 밝혀준 탁월한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당창건의 가장 정당한 길을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몸소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쌓기 위한 투쟁은 곧 1920년대 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심각한 투쟁이였다. 이 투쟁은 일제의 파쑈적폭압을 이겨내면서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새로운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며 옳은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하며 공산주의운동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종파사대주의자들은 1920년대 공산주의운동을 말아먹은 다음에도 교훈을 찾을대신 계속 파쟁을 일삼으면서 제각기 《공산당》간판을 내걸고 국제당의 《승인》을 받는것으로 당창건을 대신하려고 책동하였다. 이자들의 책동은 결국 아무런 준비와 혁명력량의 축적없이 허공에 집을 짓겠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여 당을 창건하려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그릇된 책동을 철저히 배격하시고 어떤 기성관례나 틀에도 구애됨이 없이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힘에 의거하여 조선혁명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당창건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추진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항일무장투쟁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등 혁명적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심으로써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장차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검열되고 단련된 생신한 공산주의핵심을 길러내시였으며 종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투쟁을 통하여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광범한 반일대중속에 혁명의 씨앗을 뿌리

시고 모든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시면서 그것을 소중히 가꾸어 공산주의운동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실로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내외의 온갖 원쑤들의 음모책동과 파괴행위를 물리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요람기에 있었던 본질적약점들을 이겨내시고 우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믿음직하게 닦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루어진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하여 해방후 복잡한 환경에서도 우리 당이 튼튼한 토대우에서 창건될수 있었으며 당은 창건 첫날부터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을 정확하게 령도할수 있었던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5페지)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창건의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하에서도 미제와 그 앞잡이 국내반동들의 악랄한 파괴책동과 혁명대오안에 끼여든 종파분자, 지방할거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분렬책동을 짓부시고 맑스-레닌주의혁명적당을 창건하는 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이리하여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오랜 시일에 걸쳐 조직전개하신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불굴의 투쟁은 고귀한 열매를 맺었으며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참다운 정치적무기,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의 창건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이 태여나게 되였다.

조선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시였으며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인 우리 당의 창건은 실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수립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당을 불패의 사상의지적 통일체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사상의지의 통일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은 매우 복잡하고 간고한 조건에서 진행되게 되였으며 공산주의대렬안에서는 고질적인 종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심대한 해독을 끼치고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의 운명과 혁명승리를 결정하는 관건적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신 첫날부터 당건설의 전행정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를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수립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원칙을 새롭게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당건설분야에 구현하시여 당의 유일사상체계수립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당의 생명인 대렬의 조직사상적통일을 가장 확고히 실현할수 있는 길을 명확히 밝혀주시였으며 당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의 조직, 사상, 리론적 기초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로동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역할과 그의 조직된 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하도록 하는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이며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당을 창건한 수령의 사상으로 전당이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렬의 조직사상적통일을 이룩하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진행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수령과 당의 호상관계, 맑스-레닌주의당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당건설의 근본요구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당과 계급, 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유일중심이다. 수령이 없는 당은 지휘관이 없는 군대와 마찬가지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지도적력량으로 될수 없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향도적력량인 당을 통하여 혁명운동전반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실현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최고형태의 정치적조직이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혁명의 무기이다.

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라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맑스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1국제당을 창건하고 로동계급에게 혁명의 참된 길을 밝혀주었으며 투쟁의 무기를 주었다. 레닌은 레닌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적당들과 구별되는 새형의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고 그를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바로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인것만큼 이 무기에다 이런 포탄, 저런 포탄을 마구 쓸수는 결코 없는것이다. 맑스-레닌주의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하나의 로선, 하나의 정책만이 있을뿐이며 두개의 사상, 두개의 로선이 있을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지도적지침은 맑스-레닌주의이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밖에 다른 지도사상이 있을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48페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투쟁에서 전위부대의 역할을 수행하자면 반드시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지도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는 그것이 매개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될 때 위력한 무기로 된다.

오늘날 혁명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고있으며 나라마다 실정이 다르고 혁명발전단계가 각이한것만큼 매개 나라 당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옳게 령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자체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가져야 한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은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 당들의 유일한 지도사상은 곧 당을 창건한 수령의 사상이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있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다.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무엇보다도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요구를 가장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의지에 기초한 당대렬의 완전한 통일, 이것은 온갖 소부르죠아적기회주의정당들과 구별되는 맑스-레닌주의당의 본질적특성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움으로써만 전당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될수 있으며 전당이 한마음한뜻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과 정연한 조직체계를 확립할수 있다. 또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만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당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사상조류들을 극복하고 언제나 당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고수할수 있으며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는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다.

반대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지 않고 당을 창건한 수령의 사상을 계승해나가지 않는다면 당은 변질되고 혁명은 중도반단되며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실로 맑스-레닌주의당이 자기의 조직, 사상, 리론적 기초를 공고발전시켜 로동계급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로서의 역할을 높여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그것은 당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혁명투쟁의 전행정에 걸쳐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원칙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유일사상체계수립에 관한 사상을 창시하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한 위대한 사변으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수립에 관한 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처음으로 당의 통일단결의 사상조직적기초와 당건설의 근본원칙, 당사업, 당활동의 총적방향을 명확히 밝히시였으며 당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키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당의 유일사상체계수립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그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위대한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가장 위력있고 공고한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며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을 고수하고 종파주의, 기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활동의 내외적환경이 어렵고 복잡할

수록, 혁명투쟁이 치렬하고 간고할수록 당의 통일과 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종파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심으로써 온갖 반당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조류들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전당과 전체 인민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게 하시였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력사적투쟁경험은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들을 극복하기 위한 당내투쟁을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 때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하고 자기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일관한 투쟁을 통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나라 혁명운동에 커다란 해독을 끼쳐온 온갖 반당적 및 반동적 사상조류들을 극복하고 조선공산주의 운동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력사적 위업이 빛나게 수행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섰으며 전당이 맑스-레닌주의 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여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2페지)

오늘 우리 당안에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찼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확고한 신념으로 튼튼히 무장되였다.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교시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그들 모두의 확고부동한 신조로, 행동준칙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그이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확고히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된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의 통일과 단결이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에 걸치는 투쟁을 통하여 이룩하신 가장 빛나는 혁명업적이며 우리 당과 우리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이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의 실현, 이것은 우리 당이 영원히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되였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당이 어떤 풍파와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우리 혁명의 앞길을 독자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의 위대한 승리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에서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3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적당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우리 당 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당을 극히 짧은 기간에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선진분자들을 당대렬에 광범히 망라하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강유력한 전투적부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대중적당을 건설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혁명의 참된 전위부대,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반드시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을 통일적으로 령도하는 대중적정당으로 발전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당은 결코 소수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으로 되여서는 안됩니다. 조선공산당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인 정당으로 되여야 하며 새 조선 건설을 조직령도하는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로 되여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로동자, 농민, 진보적인 지식인중에서 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하며 민주주의적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가장 모범적이고 전위적인 작용을 할수 있는 우수한자들로 당대렬을 급속히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6~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선진분자들로써 대중적당을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대중적당건설의 가장 빠른 길을 개척하시였다. 이것은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해방후 조성된 혁명정세 그리고 우리 나라 근로대중의 사회경제적처지와 그들의 혁명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로동계급뿐아니라 광범한 근로대중이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으며 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열렬히 지향하고있는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로동계급과 함께 광범한 근로대중의 선진분자들을 당대렬에 인입하며 그들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정당을 건설하는것은 오늘 절박한 시대적요구로 나서고있다.

더우기 지난날 우리 나라와 같이 제국주의예속밑에서 정상적인 자본주의발전이 억제되여 주민구성에서 농민을 비롯한 소생산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그들의 반제적혁명성이 강한 조건에서는 로동계급뿐아니라 농민, 인테리 등 근로대중의 선진분자들을 광범히 망라하는 대중적정당을 건설하는것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된다.

창건되자 곧 정권을 지도하게 된 우리 당 발전의 특성과 해방후 조국의 분렬로 말미암아 대중전취를 위한 투쟁이 치렬히 벌어지게 된 우리 나라 혁명정세가 또한 대중적당건설을 미룰수 없는 긴절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건설의 구체적조건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당 창건 첫시기부터 로동계급뿐아니라 광범한 근로대중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하는 대중적정당을 건설하는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대중적당건설에서 근로대중의 통일적정당인 로동당의 창립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먼저 로동계급의 전위부대인 공산당을 창건하시고 공산주의핵심대렬을 늘이시였으며 그 대렬

이 늘어나는데 따라 지체없이 당을 근로대중의 통일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시키시였다.

공산당을 로동당으로 개편함으로써 우리 당은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고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광범히 묶어세운 대중적정당으로 빨리 발전할수 있었다.

그리고 로동계급의 전위부대인 공산당과 별개로 농민, 인테리들의 정당이 존재함으로써 근로대중을 분렬시킬수 있었던 위험성을 제거하고 광범한 근로대중을 맑스-레닌주의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튼튼히 단결시킬수 있게 하였다.

광범한 근로대중속에서 당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발전의 전행정에서 나서는 합법칙적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대중의 의식성, 조직성은 더욱더 높아지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몸바쳐싸우는 선진분자들의 대렬은 끊임없이 확대된다. 그리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및 사회주의적 변혁과 개조가 심화될수록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사회경제적처지는 더욱 접근되며 사람들의 성분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촉진됨에 따라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날을 따라 더욱 공고화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조직령도하자면 당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대중속에 더욱 깊이 뿌리박아야 하며 그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와 계급관계, 대중의 준비정도를 깊이 통찰하시고 당장성사업에서 나타나는 좌경관문주의적편향을 제때에 극복하며 당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당대렬의 량적장성과 질적공고화를 밀접히 결합시키심으로써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대중적당건설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시였다.

당대렬의 량적장성과 질적공고화를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것은 대중적당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이다.

당이 전투적선봉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하자면 광범한 근로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그들가운데서 자라나는 선진분자들을 당에 받아들여 끊임없이 자기 대렬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함께 당이 자체의 로동계급적성격을 보존하며 맑스-레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자면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화하여야 한다. 만일 당의 대중적성격만을 강조하면서 당의 계급적성격을 거부하고 그것을 그 어떤 초계급적인것으로 전화시킨다면 당은 로동계급의 전위대, 조직된 부대로서의 자기의 본성을 상실하고 개량주의당, 기회주의당으로 전락되고말것이다. 다른 한편 당의 순결성만을 내세우면서 당문을 닫아매고 당에 광범한 근로대중의 선진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은 대중과 떨어진 무기력한 존재로 될것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적역할을 수행할수 없게 될것이다.

오직 당대렬의 량적장성과 질적공고화를 밀접히 결합시키는 조건에서만 당을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적당건설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하시면서 당대렬의 량적확대와 질적공고화를 밀접히 결합시키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대중적당건설에서 세포핵심을 육성확대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대중적당을 건설하면서 세포핵심을 부단히 육성하는것은 우리의 일관된 조직로선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77페지)

핵심이란 공산주의의 진리를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혁명의 길로 나아갈만한 당원들,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적원칙을 견결히 지키며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줄 아는 준비된 공산주의자들을 말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은 그 자체가 근로인민의 선진분자들의 대오이지만 당안에서도 매개 당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능력상 차이가 있게 되는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당이 근로대중의 통일적정당으로 발전한 초시기에는 공산주의의식으로 충분히 무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당에 들어오는것만큼 매개 당원들의 준비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당안에 공산주의적핵심을 튼튼히 꾸리고 그 대렬을 확대하는것은 당의 로동계급적성격을 확고히 보존하며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맑스-레닌주의원칙을 튼튼히 견지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그것은 또한 당핵심들에 의거하여 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당원들의 혁명가적자질과 당의 전투력을 높일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당의 핵심진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는것과 함께 모든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것은 당을 질적으로 공고히 하는 중요한 방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의 당성단련을 당사업의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 발전의 전기간에 걸쳐 이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대중적당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였다. 이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 구현됨으로써 우리 당은 강대한 혁명대오로 자라났으며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튼튼히 뿌리박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는 혁명적기백이 왕성한 대중적정당으로 장성발전하였다.

오늘 우리 당 대렬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사회주의건설과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대진군속에서 자라나고 단련된 혁명가, 선진투사들로 튼튼히 꾸려졌다. 그리고 우리 당의 두리에는 준엄한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각성되고 단련된 혁명적인민이,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고야말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는 영웅적인민이 굳게 결속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유일중심으로,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싸워나아가는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이며 그것은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대중적당건설리론과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고귀한 성과는 당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키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적경험을 풍부히 하는데 고귀한 기여로 된다.

4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우리 당 활동에서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심으로써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워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이 당원들과 당조직을 어떻게 발동하며 대중을 결속하여 혁명과 건설에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새로운 조건 특히 많은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과학적해명을 기다리는 절박한 리론실천적문제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기간에 걸치는 혁명투쟁행정에서 이룩하신 풍부한 실천적경험을 일반화하시여 맑스-레닌주의당사업에 관한 정연한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이에 대한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천재적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당활동의 근본원칙을 명철하게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다시말하여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장시켜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이 바로 당사업입니다. 우리는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려는 온갖 편향들을 반대하고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에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11페지)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수령님의 사상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본성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한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원대중이 뭉친 정치적조직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을 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다. 그리고 혁명과 건설의 성과여부는 그 직접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이 당정책관철에 어떻게 발동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일수 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워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적경험은 당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에 기본을 두지 않고 그것을 기술실무화할 때 그러한 당은 정치적참모부로서의 령도적기능을 수행할수 없게 되며 행정경제기관화되고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람과의 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며 그 기본내용은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이다. 그것은 사람과의 사업이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이고 그들의 자각성과 창조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수행하는것을 기본사업방법으로 삼기때문이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은 맑스-레닌주의당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특히 사람들의 능동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이 과거 그 어느 력사적시기와도 비할바없이 커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에 더욱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물질적요새와 함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인간개조사업, 사상혁명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닦을수 없으며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없다.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확고히 앞세우면서 이에 밀접히 결합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추진시켜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당은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에 기본을 두고 그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사업의 기본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신것은 맑스-레닌주의당사업리론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으로 된다.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당사업의 대상과 그 본질적내용을 명확히 밝히심으로써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려는 온갖 그릇된 관점과 태도를 철저히 극복하고 당사업을 사람과의 창조적사업으로 전변시킬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을 행정식, 명령식 방법으로 진행하거나 당이 행정을 대행하는 온갖 편향을 제때에 극복하도록 하시고 당사업이 철저하게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으로 되도록 이끄심으로써 우리 당 사업에서 커다란 전변을 이룩하게 하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당안에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되였다.

전당에 간부들과의 사업체계와 당원들의 당생활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서게 되였으며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튼튼히 세워졌다. 특히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움직이며 이렇게 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움직이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전당적으로 제도화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참말로 움직이는 당, 전진하는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의 기본에 관한 사상과 함께 조직생활의 강화가 당사업의 기본고리라는 독창적인 리론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우리 당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의 기본고리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데 있으며 당건설의 기초도 바로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당생활을 강화하여야만 당원들의 당성이 단련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선봉적역할이 높아지며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1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 당사업의 기본고리로, 당건설의 기초로 된다는 천재적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서 당조직생활이 가지는 의의와 그 중요성을 명철하게 밝히시였다.

당건설에서 당조직생활을 어떤 위치에 놓는가 하는것은 맑스주의와 기회주의를 구별하는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지 않거나 그를 약화시키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모두가 로동계급의 선봉대, 조직된 부대로서의 당을 와해시키며 적들과의 치열한 계급투쟁에서 로동계급을 무장해제하려는 반혁명적책동이다.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만 그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문제도, 당핵심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문제도 다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또한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만 일상적인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력량포치와 그 수행정형에 대한 정확한 총화를 진행할수 있으며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조직진행할수 있다.

참말로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그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고리로 된다.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은 조직된 부대로서의 당의 전투력을 높이며 모든 당조직들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산 조직으로 만들수 있게 하는 힘있는 무기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시종일관 당원들의 당생활거점인 세포를 강화하고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당안에는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이 확립되게 되였으며 우리 당은 당원들의 당생활에 기초하여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우리 당 건설의 실천적경험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맑스-레닌주의당사업에 관한 리론은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또하나의 근본문제를 옳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그것은 특히 주권을 잡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시기에 당사업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들을 극복하고 혁명적원칙에서 당사업을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명확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 특히 집권당의 조건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당을 어떤 난관앞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조선혁명을 능숙하게 그리고 확신성있게 승리의 한길로 령도할수 있는 세련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문제이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야만 수백만 근로대중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과 건설에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하는데 따라 당적령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히심으로써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정치적령도자입니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광명한 미래도 바랄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524페지)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하는데 따라 당의 령도를 계속 강화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될수록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발전함에 따라 당의 통일적지도의 의의가 더욱더 증대되는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다.

혁명과 건설의 심화발전은 당앞에 더욱더 복잡하고 웅대한 과업을 제기한다. 그리고 어떠한 혁명운동에서나 거기에 참가하는 대중의 의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이 조직화되면 될수

록 인민대중은 더욱 큰 힘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여 혁명적 변혁과 개조가 심각하면 할수록, 대중운동과 혁명투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적역할은 더욱 높아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 당이 경제, 문화 건설과 사상생활의 모든 분야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조건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은 더욱더 높아져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적역할은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하는 전기간에 걸쳐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여 사회의 계급관계가 변화되였다고 하여 당의 령도적역할을 약화시키거나 거부하는것은 안팎의 원쑤들앞에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무장해제시키는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게 하는 기회주의적책동이다. 오직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하는데 따라 당을 더욱더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야만 로동계급은 자기의 력사적사명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거세약화시키려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온갖 책동을 제때에 분쇄하시고 우리 당을 불패의 전투적선봉대로,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모든 조직들과 기구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여야 할 사명을 지닌 향도적력량이다. 따라서 지도의 통일성을 보장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지도의 통일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하나의 목적실현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모든 조직들과 기구들의 행동상통일을 보장할수 없다.

맑스-레닌주의당의 통일적지도는 오직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총체의 령도자이며 최고뇌수인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서만 확고히 실현될수 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령도이며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당정책집행에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 것은 당의 혁명적령도의 근본요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적령도의 근본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체계와 령도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심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과학적령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시였다.

당의 령도체계와 령도방법을 확립하는데서 각급 당위원회가 해당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사법, 사회안전 등 모든 부문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통제하도록 하는것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위원회들은 해당단위에서 최고지도기관이며 모든 부문 사업의 참모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70페지)

각급 당위원회를 해당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 하는 당적령도체계는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당의 위치와 역할, 당의 통일적령도의 합법칙적요구에 기초한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할 객관적필연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체계이다. 이 령도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위원회들의 통일적지도가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전일적인 령도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되였다. 또한 집체적지도기관인 당위원회가 당정책관철에서

마다에는 모든 사업을 직접 책임지게 됨으로써 지도에서 주관주의, 개인독단을 방지하고 당원대중과 근로자들의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되였다.

당의 령도체계와 함께 옳은 령도방법을 확립하는것은 당조직들과 인전대들을 발동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는데서 원칙적 의의를 가진다.

당의 령도방법을 확립하는데서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것은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적령도의 기본요구와 당사업과 행정경제사업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처음으로 키잡이에 관한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인전대에 대한 당적령도 특히 행정경제기관들에 대한 당적령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법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중요한것은 당위원회들이 키잡이를 잘하는것입니다. 당이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한다는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토의에 기초하여 당정책의 집행 방향과 방도를 규정하고 옳바른 결정을 채택하며 해당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발동하여 그것을 옳게 집행하도록 정치적으로 보장하는것을 의미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25페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는 당적령도의 기본요구들을 가장 정확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령도방법이다. 그것은 당의 정치적지도를 강화하고 당의 령도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하며 당정책의 집행자로서의 행정경제기관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임으로써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경험은 오직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옳게 하는 조건에서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에 관한 리론의 창시는 맑스-레닌주의당의 본성에 맞는 령도방법의 위대한 발견이며 진정한 당적령도방법확립의 시원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자면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집권당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 언제나 경계할것은 당세도와 관료화되는 경향입니다. 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맑스-레닌주의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틀을 차리며 군중로선을 어길 위험성이 커지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이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옳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가야 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07페지)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이 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서 가장 큰 장애로 되는것은 관료주의적사업작풍과 행정식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 당세도, 행정화의 경향을 반대하고 그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당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확립하도록 몸소 시범을 통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새로운 환경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그를 전당에 일반화하심으로써 당의 지도작풍과 지도방법을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오게 하시였으며 당사업을

전반적으로 심화시키시였다.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으로 되여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이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현실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 방법은 목전의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깊이있게 수행할수 있는 힘있는 사업방법일뿐아니라 일군들의 사상정치수준과 실무수준을 높이며 군중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교양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당 및 국가 사업의 모든 분야에 보급일반화됨으로써 당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국가, 경제, 문화, 군사 기관의 모든 사업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게 되였으며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끌며 다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차고넘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오직 우리 당만이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조선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으며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을 따라 공산주의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있다.

*　　*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에 걸쳐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로 되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장구하고 간고한 투쟁속에서 우리 시대,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맑스-레닌주의당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당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그것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무기로서의 맑스-레닌주의당의 본질이 심오하게 해명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당발생발전의 합법칙성과 당사업, 당활동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이 정연하게 체계화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당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당은 어떤 모진 풍파라도 뚫고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맑스-레닌주의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당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그리고 그이의 직접적인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 당은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찬 사상의지 및 행동의 철통같은 통일체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있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장성강화되였다.

또한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여 우리 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고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킴으로써 우리 조국청사에 영원히 기록될 불멸의 혁명업적을 이룩하여놓았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우리 당 건설에 빛나게 구현된 당에 관한 그이의 모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투쟁경험들은 그 모두가 맑스-레닌주의의 보물고

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적경험을 풍부히 하는데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당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리론, 그이께서 이룩하신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고귀한 경험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며 그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와 전진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맑스-레닌주의적당건설사상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을 고수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전체 당원들 앞에 나서는 가장 숭고하고도 영예로운 임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511페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으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전투적인 선봉대로 강화발전하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하기에 오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혁명의 강유력한 무기, 백전백승하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마련하여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다할 결의에 충만되여있으며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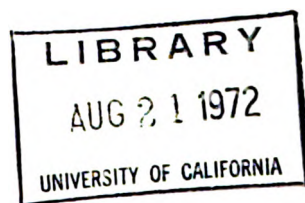
근로자 제 4 호 (루계 361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2년 4월 1일 발 행 • 1972년 4월 5일

ㄱ—2476 값 5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5 호

평 양 근로자사 1972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5 호 (362)

차 례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에 즈음하여

오늘 전체 당원들과 조선인민은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끝없는 환희와 감격 속에서 뜻깊게 맞이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은 이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날에 즈음하여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오로지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제국주의와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오시면서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청사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사에 길이 빛날 위대하고 찬란한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처음으로 조선혁명의 지도리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내놓으시여 우리 혁명의 앞길을 뚜렷이 밝히시였으며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고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이며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고귀한 혁명적재부인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전위대인 새형의 맑스-레닌주의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종파주의와 기회주의,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속에서 우리 당을 유일적인 주

제사상체계에 기초하여 하나로 통일단결되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와 근로단체들을 세우시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시였으며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육성강화하시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은 혁명의 세련된 참모부인 백전백승하는 당을 향도적력량으로 하는 강력한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를 가지게 되였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 과학적예견성과 명철한 통찰력, 강철의 의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지니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령도하시여 제국주의침략과 국내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분쇄하시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승리와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시였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세련된 령도와 천재적인 전략전술로써 미제침략자들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참패를 안기고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시였으며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시고 짧은 시일안에 착취없고 압박없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시였으며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였던 이 땅우에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시고 과학과 교육, 문화를 개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십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는 고결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전체 근로자들을 참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시며 우리 인민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십니다.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통일단결되여있으며 온 사회가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단합된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지난날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고 세계지도에서 오래동안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완전한 정치적자주성과 튼튼한 자립경제, 불패의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위대한 주체의 나라, 《천리마조선》으로서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그처럼 가난하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일대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시대에 사는 행복한 인민으로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혁명적인민으로서 그 영웅적기개를 온 세계에 떨치고있습니다.

온 3천리 조선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민족최대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여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고계시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한 해외동포들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십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하시고 혁명발전의 각이한 단계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탁월한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습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롭게 밝혀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 그리고 세계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이며 주체사상으로 일관되고 철저한 계속혁명사상과 반제사상, 혁명적군중로선으로 특징지어지는 위대한 사상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한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내놓으시고 그를 훌륭히 구현하시여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실천적모범과 풍부한 경험을 이룩하심으로써 세계혁명운동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으며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인 미일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민족적임무와 함께 국제적임무에 무한히 충실하시였으며 언제나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옹호하고 지원하여오시였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운동발전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시고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계십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걸어오신 60성상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오신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적복무의 력사이며, 조선혁명의 앞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시고 험난한 가시덤불을 헤치시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빛나는 력사이며, 위대한 사상과 리론, 탁월한 령도력과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조국과 혁명, 민족과 인류앞에 영생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혁명의 가장 위대한 수령의 영광찬란한 력사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조선혁명의 자랑찬 력사가 있으며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과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이 있으며 우리 인민의 행복한 오늘과 희망찬 래일이 있습

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난국을 헤치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기여하신 거대한 공헌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와 다함없는 존경을 받고계십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여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사에 불멸의 금자탑으로 높이 솟아있을것입니다.

위대하고 영명하신 령도자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공산주의자들이며 인민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조선인민은 한평생을 오로지 혁명에 바치시며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행복을 마련하여주시고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받들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대를 이어 끝까지 싸워나갈 불타는 충성심과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공화국내각은 전체 당원들과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절절한 심정을 담아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와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1972년 4월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의한 해외교포문제의 빛나는 해결

한 덕 수

조선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민족적 명절인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을 뜻깊게 맞이하여 총련의 전체 일군들과 60만 재일동포들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태여나시여 일찌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후 오늘에 이르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그이에 대한 끝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가득차있다.

오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60평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력사와 더불어 영원할 위대하고 찬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그 어느때보다 굳게 통일단결되여있으며 오직 그이께서 제시하신 애국적위업에 온갖 힘을 다 바치려는 철석같은 신념으로 넘치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준엄한 시련의 폭풍우를 헤쳐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반세기에 걸친 혁명투쟁의 력사는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져있으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서 영생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으시고 탁월한 공헌을 하신 가장 빛나는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일제통치의 암담하던 시기에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시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야 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인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를 타승하심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빛나게 수호하시고 미제가 내리막길에 굴러떨어지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전후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시고 우리 나라를 동방에서 처음으로 되는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시는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시였으며 오늘 전인미답의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종국적승리의 길을 빛나게 개척하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또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남북조선인민을 곧바로 이끄시여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혁명력사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무한한 충실성으로 일관되여있으며 가장 위대하고 풍부한 사상리론적재부로 충만된 찬란한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세계사발전의 새로운 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인민들에게 혁명과 건설의 정확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인류의 사상리론적보물고를 풍부히 하시고 세계혁명발전에 불멸의 위대한 기여를 하시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맑스-레닌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불후의 공헌으로 하여 조선인민뿐만아니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신다.

1

민족의 태양이시며 우리 해외교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몸소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고 세계혁명의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실뿐만아니라 해외교포운동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으며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창시하신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해외교포문제의 발생근원과 해외교포운동의 성격, 해외교포운동의 기본원칙과 방향, 재일조선인운동의 지도리론 등을 포괄한것으로서 그것은 해외교포운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탁월한 사상과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해외교포문제의 발생근원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에 있는 60만 조선인들의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본질상 지난날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제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와 같이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하에 있었던 나라들에서의 해외교포문제의 발생근원을 정확히 해명하심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죄악을 발가놓고 그들의 침략정책의 전모를 더욱 명백히 밝히시였다. 이것은 해외교포운동발생의 력사적배경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으로 된다.

해외교포운동은 자기 나라 땅에서가 아니라 이국땅에서 벌어지는 특수한 사정과 관련하여 그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서시여 해외교포운동은 자기 나라 혁명에 복무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명확히 가르쳐주시였으며 특히 파란곡절을 겪어온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해외교포문제의 발생근원과 해외교포운동의 성격을 밝히신데 기초하여 해외교포운동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을 천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해외교포운동의 원칙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의 지도사상을 해외교포운동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견지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자기 나라 혁명을 떠난 해외교포운동이란 있을수 없다. 이것은 언제나 자기 나라 혁명과의 유기적인 련관속에 있는 해외교포운동의 성격자체로부터 출발하는것이다.

특히 해외교포운동의 력사는 민족의 수령의 사상을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삼을 때에만 이 운동의 승리적발전이 담보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오랜 해외교포운동에 의하여 확증된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탁월한 수령은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의 유일한 체현자이며 전체 인민을 하나로 통일단결시키는 유일한 중심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혁명의 최고뇌수이다.

따라서 수령의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의 령도밑에 싸워나가는것은 혁명투쟁과 그 일환으로 되는 해외

교포운동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실현하는 문제는 결국 동포대중을 수령의 주위에 굳게 단결시켜 수령께서 창시하신 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제시된 혁명로선과 방침을 관철해나가는것을 의미한다.

모든 혁명운동이 그러한바와 같이 해외교포운동역시 오직 자기 민족의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그의 기치밑에 원칙적인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수령의 령도를 따라 나아가는 운동으로 되여야 하며 오직 그렇게 될 때에만 자기의 력사적사명과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이것은 해외교포운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해외교포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을 주체를 확립하고 그를 철저히 구현하는데 있다고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이 자기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자기들의 애국적활동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직 조선혁명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전과정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력력히 확증된 우리 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그것을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것입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해외교포운동에서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을 말한다. 즉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는 자주적립장과 남의것을 통채로 삼키려는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창조적립장에 서서 주로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적으로 성과있게 수행할수 있으며 이국땅에 있으면서도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기본임무로 삼고있는 해외교포운동도 옳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더우기 해외교포운동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문제는 해외에 나가사는 사람들일수록 민족자주의식이 흐리게 되여 자기의것을 홀시하고 남에게 아부하여 살려는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사상에 물젖기 쉬운 사정과도 관련하여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서는것이다.

자기 나라 혁명에 복무하는 애국적인 운동으로서의 재일조선인운동은 조선인민의 유일한 조국이며 온 민족의 희망의 등대인 영광스러운 사회주의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열렬히 지지하고 견결히 수호하는것을 성스러운 사명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해외교포운동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있다.

해외교포문제해결에서 주체를 확립할데 대한 문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일찌기 혁명활동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서시여 해외교포문제를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한 숭고한 위업과 결부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일제를 타도하고 해방된 조국땅우에 조선인민의 진정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재일동포들에게서 망국노의 멍에를 벗겨주고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된 영예를 안겨주시였을뿐만아니라 재일조선인운동이 공화국의 주권을 고수하고 조국의 통일과 륭성을 이룩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운동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러나 한때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에 물젖고있던 종파분자들은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실하며 공화국을 지지옹호하는 사람들을 헐뜯고 조선혁명을 위하

여 투쟁하는것을 《민족주의적편향》이라고 하면서 재일동포들을 일본의 《민주화투쟁》에로, 극좌모험주의에로 끌고감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에 커다란 손실을 주었다.

게다가 미일반동들의 가혹한 탄압과 박해에 의하여 재일동포들은 생존권마저 심히 위협당하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은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되였다.

이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재일조선공민들은 비록 일본땅에서 살지만 조선혁명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일본의 민주력량과 손잡고나가면서도 어디까지나 주체적립장을 견지하고 자기 조국의 통일과 륭성발전을 위한 애국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현명하고도 독창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풍부한 사업경험에 기초하시여 총련을 무어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종파분자, 사대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는 원칙적투쟁속에서 1955년 5월 25일, 재일동포들의 리익과 의사를 대표하는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결성되였다.

총련의 결성은 수령님의 불패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총련의 결성은 60만 재일동포들의 투쟁과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룬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총련의 결성에 의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은 비로소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참다운 해외교포운동으로서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재일동포들은 이국땅에 살면서도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 힘을 바쳐나가게 되였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해외교포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해외교포운동발전을 위한 리론과 방침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해외동포들을 힘있는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전민족적투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것이다.

이것은 해외공민단체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함으로써만 이루어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과 그 실현방도를 명시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무엇보다도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는 자기의 모든 조직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심화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잘 구현하여 각계각층 동포대중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묶어세워야 할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총련조직을 강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데 있다는것을 천명하시면서 그의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전조직이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한몸과 같이 움직일수 있게 하며 광범한 대중을 하나의 애국력량으로 묶어세워 조직의 대중적지반을 공고히 할수 있게 하는 조직건설의 근본원칙으로서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된다.

특히 위대한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문제는 내외반동들의 끊임없는 파괴책동과 그와 결탁한 종파분자, 변절자들의 분렬파괴책동이 감행되는 조건에서 총련조직을 튼튼히 꾸리는 기본열쇠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심화발전시켜야 하며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그릇된 사상을 반대하여 원칙적으로 투쟁하여야 하며 공화국정부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총련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사업을 사람과의 창조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내용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애국사업수행에서의 지휘성원들인 간부일군대렬을 주체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견실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열성동포대렬을 공고확대하고 그들속에서 조직생활을 부단히 강화하도록 하심으로써 하나가 열,열이 백,백이 천을 교양전취하여 총련의 조직대렬을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구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총련의 기본전취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시였으며 동포상공인들을 비롯하여 《영주권신청》을 강요당한 동포들, 젊은동포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주위에 굳게 묶어세울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동포대중들과의 사업에서의 기본은 각계각층 동포들을 대담하게 믿고 그들을 포섭교양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묶어세우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초석으로 하는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구현하여 동포들과의 사업체계를 세우며 혁명적사업 방법과 작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총련조직을 강화할데 대한 리론과 방침은 해외공민단체를 튼튼히 꾸리도록 할뿐만아니라 그를 굳건히 지키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사업을 부단히 강화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강유력한 담보로서 우리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해외공민들의 민족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할데 대한 리론과 방침을 명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모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견결히 지키면서 광범한 동포대중속에서 공화국공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민족교육의 발전과 우리 말 배우기운동을 확대발전시키며 조국에로의 귀국과 래왕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완강히 벌려야 하겠습니다.》

조국을 멀리 떠어진 이국땅에서 온갖 민족적 멸시와 박해를 받고있는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는것은 그들의 사활적인 리해관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방침에는 재일동포들의 리익과 념원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여있으며 그이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키는것은 후대들을 옳바르게 키우고 민족의 영예를 고수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자기 나라 말과 글, 력사를 모르고서는 같은 민족이라고 말할수 없다.

따라서 민족교육은 민족을 되찾고 민족의식을 높이고 민족적단결을 강화할뿐만아니라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유능한 일군들을 길러냄으로써 대를 이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사업을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것으로서 그를 발전시키는것은 해외교포의 존립과 해외교포운동의 발전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혁명적교육전통에 기초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해외교포교육의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에 대한 방침을 뚜렷이 명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교육의 목적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로부터 출발하시여 민족교육사업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시였다.

민족교육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문제는 재일동포자녀들을 대를 이어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빛내여나갈 믿음직한 일군으로 길러냄으로써 총련조직을 공고발전시키며 총련앞에 나서는 애국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교육사업에서 주체와 계급적선을 세울데 대한 교육방침과 모국어와 쓸모있는 산 지식을 습득하며 지덕체를 겸비하도록 하는 교육의 내용과 방도,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을 통한 교양방법, 자주적인 학교교육체계의 확립과 학교관리운영사업, 교원들을 혁명화할데 대한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민족교육사업을 주체적립장에서 발전시킬 강령적지침을 안겨주시였을뿐만아니라 주체적인 문예사상의 빛발로 재일동포들로 하여금 참다운 민족문화예술을 꽃피우고 마음껏 즐길수 있도록 하여주시였다.

다른 나라에 나가사는 해외공민들이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고 외국인으로서 응당 향유하여야 할 대우를 받는것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신성한 민족적권리이다. 더우기 일본정부가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매여달리면서 재일조선공민들을 정치적으로 선별하고 공공연히 박해하고 탄압하고있는 조건에서 이는 재일동포들의 사활적문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재일조선공민들이 놓인 처지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할데 대한 기본 방향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사업의 기본방향에서 중요한것은 이 사업을 군중을 교양전취하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동포들을 투쟁속에서 교양단련시키고 총련조직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위업에 크게 기여하도록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내외반동들이 괴뢰국적과 《영주권신청》을 전면적으로 강요하고있는 조건에서 공화국공민권을 위주로 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족교육의 권리, 조국에로의 귀국 및 자유왕래의 권리 등 제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구체적과업을 명시하심으로써 재일동포들이 자기의 응당한 민족적리익과 제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강화발전시킬수 있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에 기초하시여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데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자기가 벌리고있는 모든 활동을 언제나 조국의 륭성, 민족의 번영과 밀접히 결부시켜 일본에서의 민족적 단합을 강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과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함으로써 민족지상의 위업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 자기의 힘을 최대한으로 합쳐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교시에는 남북조선인민뿐아니라 전체 해외동포들의 최대의 민족적념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에 전체 재일동포들의 힘을 최대한으로 합쳐나갈수 있게 하는 주체적립장과 반제혁명적립장이 철저히 관통되여있다.

조국통일은 조국인민들뿐아니라 해외의 모든 조선공민들앞에 제기된 숭고한 민족적임무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이다.

실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혁명을 완성하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촉진하게 할뿐아니라 재일조선공민문제의 근본적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와 재일동포들의 애국력량 및 그들의 놓여있는 제반조건에 기초하시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총련이 놓아야 할 위치와 역할, 그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을 명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총련을 불패의 력량으로 꾸리는 한편 민족단합사업을 강화하여 각계각층 동포들을 애국력량으로 묶어세우도록 그의 원칙과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념원하는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한것으로서 60만 재일동포들을 반미구국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시켜 그들속에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발전시키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철저히 고립시킬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침이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리는것과 함께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촉진을 위한 투쟁방침은 총련과 재일동포들로 하여금 조국통일위업에 훌륭히 이바지하도록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에 기초하시여 총련의 대외사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뚜렷이 명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또한 일본인민과의 친선단결을 발전시키고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 우리 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더욱 빛내이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공고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총련의 대외사업의 중심은 일본인민과 일본민주력량 그리고 세계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해나가는데 있다는것을 천명하시고 총련의 대외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주체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대외활동에서 주체적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은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인민들과 평등한 립장에서 친선적인 뉴대를 강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의로운 투쟁과 총련의 애국사업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확대강화하는 기초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더욱 빛내이고 사회주의조국의 국제적위신을 높이는것과 함께 일본인민을 비롯한 전세계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를 위한 총련의 정당한 사업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가르쳐주시였다.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탁월한 리론과 방침은 총련을 공고히 하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국의 통일을 촉진시키고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총련의 모든 애국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강령적지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리론과 방침을 안겨주시였을뿐만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재일동포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심으로써 재일동포들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끌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을 제정공포케 하시여 재일동포들의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법적지위를 확고히 보장하여주시였으며 조국에로의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시고 귀국선 《만경봉》호를 보내주심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한 새생활을 누리려는 재일동포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여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의 형편이 그처럼 어려웠던 1957년부터 마흔네번에 걸쳐 118억 3천 522만 5천 433원(일본돈)의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을뿐만아니라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거저 주고 취학장려금을 주며 일본고등학교에 다니는 동포학생들에게까지 장학금을 주시는 해외교포력사에 그 례가 없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심으로써 자녀교육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절절한 념원을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과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한 높은 국가수훈, 학위학직을 비롯한 갖가지 영예로운 칭호를 수많은 재일동포들에게 안겨주시였을뿐만아니라 재일동포대표들에게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영예를 안겨주시였으며 귀중한 선물까지 보내주시여 우리들을 한없이 고무하여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에 간 재일동포들의 감사단, 축하단을 따뜻이 맞이하여주시고 간곡한 말씀을 주시는 한편 기회있을 때마다 조국의 대표들과 체육선수들을 일본에 보내주시여 우리들을 한없는 감격과 기쁨에 휩싸이게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시는 이 모든 배려는 그이의 고매한 덕성과 숭고한 인민적풍모의 뚜렷한 표시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6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힘의 원천으로, 모든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고있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에 의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리론과 방침은 재일조선인운동에서 빛나게 구현되여 거대한 승리를 이룩하고있으며 그 불패의 생활력은 남김없이 확증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총련결성후 재일동포들의 모든 애국운동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며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도록 그들을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총련결성후 재일조선인운동의 전 로정은 밖으로는 내외반동들의 파괴책동

을 물리치며 안으로는 종파분자,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자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불패의 주체사상을 옹호관철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으로 일관되였다.

재일조선인운동대렬에 끼여든 종파분자, 사대주의자들은 어려운 고비마다에서 머리를 쳐들고 겉으로는 총련사업을 걱정하는것처럼 가장하면서 뒤에서는 적들과 결탁하여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대렬의 통일단결을 허물고 총련조직을 파괴와해하려고 책동하는 등 배족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였으며 이러한 조건에서 총련은 이자들을 반대하는 원칙적투쟁을 벌리지 않을수 없었다.

종파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원칙상 총련대렬안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총련의 애국사업에서 주체사상을 보다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바로 총련은 대렬안에 나타난 온갖 그릇된 경향을 반대하고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면서 일군들과 동포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커다란 힘을 돌렸다.

그리고 종파분자들을 반대하는 이 투쟁을 총련조직을 강화하고 재일동포들을 조국통일을 비롯한 제반 애국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조직정치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강력히 전개하였다.

특히 총련은 제8차전체대회이후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에 모든 힘을 다함으로써 총련제9차전체대회에서 재일조선인운동에서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대렬의 통일단결을 크게 과시할수 있었다. 오늘 총련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모든 애국사업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 있다.

이 세상에는 남의 나라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많으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혁명전통의 계승자로서의 영예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서의 긍지도 드높이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재일동포들처럼 영광스럽고 행복한 해외공민은 없다.

총련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일본의 방방곡곡에 48개의 지방본부와 300여개의 지부, 수천개에 달하는 분회조직 그리고 조청, 녀맹, 상공회를 비롯한 27개에 달하는 산하 단체와 사업체를 가지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정스러운 애국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이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져지고 그 위신과 영향력이 전례없이 높아짐으로써 재일동포들은 총결기간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자본주의적환경에서도 자기들의 민족적리익을 성과있게 옹호하고 애국운동을 급속히 장성발전시킬수 있었으며 조선인민의 해방운동과 조국통일운동력사에 길이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해외교포운동력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자랑찬 성과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총련조직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총련조직은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위력한 조직으로, 공화국의 존엄있고 믿음직한 해외공민단체로 튼튼히 꾸려졌다.

오늘 총련의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오직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모두다 집집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있으며 어디를 가나 《김일성원수혁명력사연구실》을 정중히 꾸려놓고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 불패의 생활력,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그이의 고매한 덕성

을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일군들과 동포들은 1,900개의 강연구와 성인교육기관 등의 정연한 교양체계와 집중학습과 단기학습을 위한 교양망 그리고 《조선신보》를 비롯한 35종의 신문, 잡지를 통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부단히 학습하며 자신을 단련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총련 일군들과 동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절대화하고 그이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철석같은 신념에 차넘치고있으며 수령님의 교시와 그에 기초한 총련결정을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튼튼히 세우고있다.

오늘 총련의 전체 간부들과 열성동포들은 수령님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고있으며 총련사업을 믿음직하게 수행하고있다.

총련 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은 조직생활을 부단히 강화하고 하나이상의 분공을 맡고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함으로써 기층조직인 분회를 생동하게 꾸리며 상공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동포들을 총련조직에 굳게 묶어세우고있다.

그리하여 재일동포들의 대중적애국운동인 모범분회창조운동이 오늘 4,200여개 단위에서, 모범지부창조운동이 90여개 지부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이미 8개의 지부와 2천 7백여개의 단위들에 영예의 모범기발이 휘날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해외교포교육에 관한 방침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에서도 눈부신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친어버이사랑에 의하여 총련은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정연한 교육체계를 꾸려놓고 민족교육의 최고전당인 조선대학교를 비롯하여 아담하고 웅장하게 일떠세운 159개의 자주학교들과 오후 야간학교들에서 재일청소년학생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민족간부로, 조국통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고있다.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에서 이룩하고있는 총련의 빛나는 성과, 이것은 세계해외교포교육력사에서 실로 류례를 찾을수 없는것으로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립증해주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체육지도사상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총련은 조선중앙예술단과 조선연극단, 11개의 지방가무단과 1천여개의 각종 예술소조들을 꾸려놓고 《세계최고봉의 예술》, 《황금의 예술》로 명성을 떨치고있는 사회주의조국의 문예성과들을 내외인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동포들속에서 찬란한 민족문화예술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총련의 문예체육사업의 자랑찬 성과는 세인을 경탄케 한 인민상계관작품인 《조국의 해빛아래》를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상연한 대음악무용서사시와 대집단체조를 통하여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내외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를 확고히 지키며 영웅조선의 영예를 빛내여나가고있다.

총련은 최근시기에만도 내외반동들이 악랄하게 감행한 이른바 괴뢰국적과 《영주권신청》강요책동을 전동포적투쟁으로 파탄시키고 5천여명의 재일동포들에게 공화국국적을 되찾게 하였으며 《출입국법》을 비롯한 파쑈악법의 조작놀음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공화국공민의 영예와 존엄을 더욱 빛내이고 재일동포들의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굳건히 수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극진한 배려밑에 총련은 내외반동들과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세상사람들로부터 《자본주의사회

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불리운 공화국에로의 귀국사업을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실로 9만명이 넘는 재일동포들을 그리운 조국의 품에 안기도록 하였으며 전동포적인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6번에 걸쳐 재일동포들을 조국에 다녀오도록 하였다.

그뿐만아니라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생활권과 상공인들의 기업권을 굳건히 수호하고있으며 동포신용조합사업을 크게 발전시킴으로써 오늘 우리 신용조합들은 34개의 조합과 115개의 점포, 12만 8천여명의 조합원, 예금액 1천 4백억원을 가진 믿음직한 재일동포들의 자주적인 저축융자기관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참으로 세계해외교포들 가운데 재일동포들처럼 그렇게도 반동공세가 극심한 조건에서 자신의 민족적리익과 민주주의적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며 그를 지켜나아가고있는 해외공민은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침을 받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사업에서도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분렬된 조국의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총련의 전체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특히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평화적조국통일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국수호와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재일동포들을 굳게 단합시켜 반미구국투쟁을 전동포적으로 더욱 힘차게 벌리고있다.

또한 총련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반대하며 박정희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짓부시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며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성공시키고 남북간의 자유래왕을 실현시키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사업방침이 구현됨으로써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인민들과의 국제적련계를 강화하는 사업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령님의 불후의 천재적로작과 그이의 혁명력사는 일본어와 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로 수많이 번역출판되여 일본인민들과 세계인민들 속에 널리 보급되고있으며 강연과 담화 등을 통하여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철학사상, 정치경제학리론, 교육사상, 문예사상, 언어사상이 일본의 학자, 문화인, 언론출판관계인사, 정계, 경제계 인사들속에 체계적으로 해설침투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광범한 각계각층 일본인민들은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정을 더욱 두텁게 하며 일본의 각 대학과 연구기관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수령님의 로작과 혁명력사연구소조들을 수많이 무어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고있다.

지금 일본인민들속에서는 초당파적인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을 비롯하여 《일조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 《일조기자구락부》 등 수많은 조일친선단체가 무어졌으며 출판보도기관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우리 나라를 련이어 방문하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된 우리 나라의 발전모습을 보고 그를 널리 소개선전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일본인민들은 공화국에 대한 자기 정부의 적대시정책을 시정시키고 조일 두 나라 사이의 인사래왕과 경제, 문화의 교류를 확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으며 조국통일촉진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과 총련사업을 더욱 힘있게 지지성원해나서고있다.

참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자기앞에 나서고있는 숭고한 민족적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고있으며 존엄있고 권위있는 자주독립국가의 해외단체로서 또한 해외공민으로서의 단결된 힘과 애국적기백을 크게 과시하고있다.

총련의 모든 눈부신 발전과 성과들은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해외교포운동에 관한 사상과 리론, 방침의 빛나는 승리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의 고귀한 결실이다.

* *

오늘 총련의 전체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반세기에 걸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적로정을 통하여 재일본조선인운동의 력사적경험과 자신의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을 구현해나갈 때만이 승리와 영광의 휘황찬란한 길이 펼쳐진다는것을 철석같은 신조로 삼고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용감하게 전진함으로써 수령님께 영원히 충실할것이며 불패의 주체사상을 천대만대를 두고 빛내여나아갈것이다.

오늘 내외의 전반적정세는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편에 더욱더 유리하게, 안팎으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는 더욱더 불리하게 전변되고있다.

미제와 그의 조종을 받는 일본반동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궁지로부터 헤여나기 위하여 더욱 발악하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파괴책동은 로골화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의 앞길에는 의연히 허다한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나 원쑤들의 멸망은 불가피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억세게 싸워나가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투쟁에 발맞추어 조국통일의 력사적시각이 더욱더 다가오고있는 현정세에 맞게 총련사업을 더욱 높이 추켜세울것이다.

총련은 전체 재일동포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철통같이 묶어세우며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총련조직을 어떤 모진 풍파가 일고 사나운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불패의 조직으로 꾸릴것이다.

총련은 또한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고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전세계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애국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우리 민족의 륭성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전민족적투쟁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것이다.

그리하여 총련과 60만 재일동포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돐을 일대 민족적경사로 빛나게 맞이한 그 기세로 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 크나큰 육친적배려에 반드시 보답할것이다.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의 통일과 륭성발전을 위하여, 세계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6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창조적사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7년 5월 25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를 세상에 내놓으시였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수령님께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에서 과도기문제와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처음으로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력사적문헌을 비롯한 일련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를 새롭게 독창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 리론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과도기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였다.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이미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혁명적전환의 시기로서 과도기의 필연성을 밝히고 과도기의 국가정권은 프로레타리아독재로밖에 될수 없다는 사상을 제기하였다.

오늘 각이한 발전단계에 있는 나라들에서 혁명이 진행되며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고있는 력사적조건에서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선행고전가들의 명제를 우리 시대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긴절한 문제로 나섰다.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이 중대한 문제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 자본주의가 덜 발전하였던 수많은 나라들에서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고있는 오늘의 력사적조건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적경험을 개괄하시여 과도기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 무계급사회건설의 력사적과정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과도기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진로를 휘황히 밝혀주는 영생불멸의 과학적리론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장 곧바른 길을 따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과도기에 관한 창조적인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과도기의 계선문제를 정확히 해명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켜 중산층을 우리편에 완전히 쟁취하게 될

때,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건설하게 될 때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임무가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14폐지)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고 무계급사회가 실현되는 때 다시말하여 농민을 비롯한 지난날의 중산층도 다 로동계급화되여 모든 근로자들이 다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싸우게 될 때 사회주의는 완전히 승리하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끝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과도기계선에 관한 명제는 과도기를 승리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투쟁이 계속되는 시기로, 사회주의가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타승하는 혁명적전환의 시기로 보시는 원칙적립장을 반영하고있다.

과도기계선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과도기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된다.

맑스는 과도기문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도시뿐아니라 농촌까지도 완전히 자본주의화되여 농민이 따로 없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의 조건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중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프로레타리아혁명이 일어나 세계혁명이 비교적 빨리 승리하리라는것을 전제로 하였다. 따라서 맑스는 사회주의혁명에서 자본가계급을 때려없애고 그 소유를 수탈하여 전인민적소유로 만들기만 하면 과도기의 임무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행될수 있고 인차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들어갈수 있을것이라고 보았던것이다.

자본주의가 덜 발전하고 농민이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혁명을 령도한 레닌은 과도기에 관한 맑스의 견해를 기본상 계승하면서도 사회주의를 완전히 실현하려면 계급으로서의 자본가들을 때려부시는것만으로는 안되고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차이를 없애야 하는만큼 과도기를 비교적 긴 기간으로 보았던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선행한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의 명제들을 그것이 나오게 된 당시의 력사적조건과의 련관속에서 고찰하심으로써 그들의 명제가 그때에 있어서는 옳았지만 오늘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는 그것이 창조적으로 발전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지난날의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 덜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며 제국주의가 계속 남아있고 사회주의혁명이 진행되고있는 조건을 전제로 하시였으며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적경험에서 출발하시였다.

락후한 경제를 물려받은 지난날의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착취계급을 없애고 농민을 비롯한 소자산계급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나아가서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함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적요소들을 완전히 없애고 사회주의적근로자들 사이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그들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해 몸바쳐 싸우도록 만드는것은 오랜기간의 혁명과 건설을 통해서만 해결할수 있는 어려운 과업이다.

세계에 제국주의가 아직도 상당한 힘으로 남아있고 혁명과 건설을 파괴하기 위한 그들의 무력침공과 사상문화적침투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더욱 그러하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혁명운동이 진행되는 이와 같은 력사적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건설이 고도로 진척되여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고 무계급사회가 실현되는 때에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끝난다

는것과 과도기가 비교적 오랜기간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지난날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에서도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면 곧 과도기가 끝나는것은 아니라는것을 명백히 하시였다. 자본주의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 이미 농민이 없고 나라에는 공업로동자와 농업로동자만이 있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의 조건에서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고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면 벌써 계급적차이는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착취계급의 잔여세력과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없으며 따라서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끝나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과도기문제를 구체적으로 해명하시고 선행고전가들의 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였다.

과도기의 계선을 무계급사회의 실현까지로 보시는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려는 원칙적립장과 세계혁명이 승리하지 못한 조건에서도 한 나라 또는 몇개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확신에 기초한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과도기계선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리론은 이 문제에 있어서의 온갖 그릇된 립장들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으로 된다.

그것은 우선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끝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하에서 계속되는 계급투쟁의 과업을 끝까지 수행하지 않으며 혁명을 중도에서 그만두려는 그릇된 립장에 결정적타격을 주었다. 동시에 그것은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기간을 과도기로 보는, 사실상 과도기의 계선을 긋지 않는것이나 다름없는 그릇된 견해에도 타격을 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도기계선문제를 밝히심과 함께 과도기의 임무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어떤 과업들을 해결하여야 과도기가 끝나게 되는가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적대계급의 준동이 있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으며 나라의 공업화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지 못한 사회는 아직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라고 말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66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에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징표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과업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기본징표를 과학적으로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제도수립이후에 제기되는 과업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적어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끌어올리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과도기에 해결하여야 할 과업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무계급사회에로 이행할수 있는 과학적인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 독창적인 사상

이다.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착취계급을 계급으로서 없애는 방도를 밝힘으로써 무계급사회에로 나갈수 있는 기초를 닦아놓았다. 그러나 무계급사회를 건설하는 과업이 일정에 제기되지 않았던 력사적시기에 활동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직접 체험하여보지 못한 그들은 무계급사회건설의 길을 구체적으로 밝힐수 없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과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제도수립의 이전시기뿐아니라 사회주의제도수립이후 과도기의 전기간에 해결하여야 할 과업까지도 전면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무계급사회건설의 방도에 대한 정연한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과도기의 임무, 무계급사회실현의 방도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과도기 계급투쟁의 력사적경험을 과학적으로 반영하고있음으로 하여 어떠한 편향도 범하지 않고 무계급사회에로 곧바로 넘어갈수 있게 하는 창조적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도기의 임무를 명백히 하시였을뿐아니라 과도기가 끝난다음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기 위한 과업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라는것은 로동자와 농민의 차이가 없는 무계급사회일뿐아니라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차이도 없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입니다.》(《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8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과정에서 사회주의가 어느때 가서 완전히 승리하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로부터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의 이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도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특징이 남아있게 되며 사회주의건설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들어설수 있는 조건이 성숙된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기까지는 물론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도 생산력은 아직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또한 과도기가 끝나도 사상정신적풍모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완전히 개조되는것은 아니다.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을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여야 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간의 차이도 없애야 한다. 이 모든것은 물질생산에 훨씬 높은 과학기술이 도입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사상과 도덕을 소유할뿐만아니라 기술문화면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될 때에만 완전히 해결될수 있다.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도기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로정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들에서 나서는 과업들과 전략전술을 정확히 규정할수 있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과도기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해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로정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확신성있게 나갈수 있게 되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는 맑스-레닌주의에서 핵을 이루는 문제이며 맑스주의와 기회주의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는 문제이다.

오늘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는 새로운 력사적현실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킬것을 날카롭게 제기하고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어느때까지 존속되며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시간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으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무엇인가를 비롯한 일련의 문제들이 새롭게 해명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가 과도기기간에는 물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가 실현될 때까지, 제국주의가 세계적범위에서 멸망할 때까지 계속 견지되여야 한다는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가 과도기의 전기간에 있어야 할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과도기가 끝난 다음에도 그것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 반드시 계속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5페지)

《세계혁명이 아직 완수되지 못하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한 나라 또는 일부 지역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는 제국주의의 위협을 면치 못할것이며 외부의 원쑤들과 결탁한 내부의 원쑤들의 반항도 면할수 없을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가서도 국가는 조락될수 없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의연히 남아있어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6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들은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시간적으로 일치할수 없다는것과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언제까지 계속되여야 하는가를 처음으로 명철하게 해명한 고전적명제이다.

지금까지는 공산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과도기가 일치하는것으로 보아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과도기의 내용과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에 대한 독창적인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는 떼여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는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면서도 구별되는 문제이다. 과도기에 관한 문제는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한 나라에서 착취계급을 때려부시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를 타승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시기에 관한 문제이라면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는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틀어쥐고나가야 할 무기에 관한 문제이다.

때문에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고 무계급사회가 실현되면 세계적범위에서 혁명이 승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과도기는 끝나는것으로 된다. 그러나 세계혁명이 아직 완수되지 못하고 지구상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한 나라 또는 일부 지역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나아가서 공산주의가 실현되였다 하더라도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고 무계급사회가 실현되여도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하여 견지되여야 한다. 공산주의적분배를 실시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문제도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없애는 문제도 프로레타리아독재없이는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 견지되여야 할뿐만아니라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가서도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과도기가 끝난 다음에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할 때까지 그리고 세계에서 제국주의가 멸망할 때까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견지하여야 한다고 하신 사상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선행고전가들의 사상의 혁명적진수를 고수하고 그것을 오늘의 력사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위대한 사상이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탁월한 혁명리론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프로레타리아독재가 더는 필요없게 된다고 하면서 국가조락을 운운하는 기회주의적견해들에 대한 섬멸적인 타격으로 된다.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히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 한편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168페지)

《사회주의국가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사업을 다같이 잘해나가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67페지)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할뿐아니라 사상적요새도 점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급투쟁과 경제건설을 다같이 잘하여야 하며 특히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탁월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이 력사적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진행하는 계급투쟁에는 두가지 형식이 있으며 거기서 기본형식으로 되는것은 사상혁명을 앞세워 사회의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계급투쟁과 함께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다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 있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72페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적대계급은 계급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은 저들의 옛처지를 되찾으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파괴암해책동을 감행한다. 또한 밖으로부터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의연히 계속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는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의 반혁명적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켜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본기능이며 사회주의국가가 끝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급투쟁의 형식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주의하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가 수행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에 고유한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 있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룬다. 착취계급은 이미 없어졌으나 근로자들속에는 착취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사상 잔재들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이것은 적대적요소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마지막 지탱점이며 자본주의가 되살아날수 있는 온상으로 될수 있다.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기 위한 투쟁은 로동계급의 사상과 부르죠아사상간의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계급투쟁이다.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수행하는 이 계급투쟁은 어디까지나 우리 근로자들 내부의 문제이며 결코 사회의 성원들이 반목질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일과 단결을 목적으로 하여 협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계급투쟁이다.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나가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할수 있으며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혁명을 강력히 진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이 투쟁을 잘해야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기본동력인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끊임없이 강화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두 형식에 대한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적대분자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부인하는 편향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한 계급투쟁을 적대분자를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려는 편향을 다 같이 극복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임무를 가장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사상에서 또 한 중요한것은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리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소수 적대분자들에 대해서는 진압하고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이 두 측면을 옳게 결합하여나간다는것은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는 사업과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우와 같은 책, 169폐지)

수령님께서는 정치적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의 계급적본질을 심오히 밝히시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두 측면인 독재와 민주주의, 다시 말하여 적대분자들에 대한 진압과 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창조적인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의 혁명적본질을 고수하고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로서의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인류력사에서 계급을 떠난 국가가 없었던것과 마찬가지로 계급성을 떠난 민주주의란 있을수 없다. 어떤 국가에서나 민주주의는 주권을 잡은 계급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적대적인 계급에 대한 독재가 그에 결합되여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독재와 민주주의를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만 소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고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을 고수할수 있으며 동시에 광범한 근로대중의 창조적열의를 반양시키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다.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이 준동하고 계급투쟁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순수한 민주주의》, 《완전한 자유》란 있을수 없다.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는 철두철미 로동계급을 비롯

한 근로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이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로동계급의 당에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를 외곡하는 어떠한 기회주의적편향도 철저히 극복하고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를 옳게 보장할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가 근로자들에게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키고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면서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는것은 혁명의 근본요구이며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사업방법이다. 근로대중에 대한 민주주의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를 전제로 한다.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가 없이는 근로대중의 진정한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독재와 민주주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두 측면으로서 서로 뗄수 없는 밀접한 련관관계를 가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새롭게 해명되고 체계화된 독재와 민주주의, 그것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사상과 리론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활동의 원칙적요구를 반영한 창조적인 사상이며 이미 생활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수령님께서 독재와 민주주의를 결합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잘 결합시켜 한줌도 못되는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진압하는 계급투쟁과 근로대중에게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다 같이 잘 수행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　　　　*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한 창조적사상들은 우리 나라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수행하여야 할 기본과업들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시고 그 매 시기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신 천재적인 사상은 우리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가장 정확한 길로 이끌며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뚜렷한 투쟁목표와 확고한 전망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수 있게 한다.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이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서 절박하게 해명을 기다리는 복잡한 모든 문제들에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리론은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것을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완성시켜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한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리론실천적무기로 되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사상과 리론으로 무장하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전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웅대한 6개년 계획을 앞당겨완수하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의 가장 뜻깊은 민족적명절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승리의 길을 따라 질풍같이 달려온 천리마회천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기계전선의 수많은 공장들, 계관근위천리마검덕광산을 비롯한 채굴전선의 광산과 탄광들, 농며, 림업, 경공업, 건설운수 부문의 많은 기업소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3,000여개에 달하는 공장, 기업소들이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넘쳐수행하였으며 천리마강선제강소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6개년계획말 생산수준을 돌파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이 달성한 이 혁신적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과 올해계획을 훨썬 앞당겨 완수할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금후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있으며 우리에게 필승의 신념과 커다란 용기와 힘을 안겨주고 우리를 새로운 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전체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력사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웅대한 6개년계획과 올해계획 수행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기대와 신임에 반드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 *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와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을 총화하시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6개년계획의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4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 펼쳐주신 6개년계획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위력한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서 획기적전환을 이룩할 전투적강령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위대한 혁명강령이 수행되면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은 더욱 강화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비할바없이 튼튼하여질것이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보다 찬란히 개화발전되고 나라의 방위력은 그 어떤 원쑤들의 침략도 단매에 처부실수 있는 금성철벽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질것이다. 또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혁명강령이 수행되면 공화국북반부는 조선혁명의 기지로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불패의것으로 튼튼히 다져질

것이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은 더욱더 앞당겨질것이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이 실현되면 세계사회주의력량을 더욱 강화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을 촉진하는데 더 잘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수행을 위한 투쟁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앞당기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세계혁명을 강화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영광스러운 투쟁이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경제건설강령을 내놓으시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시였을뿐만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특히 수령님께서는 지난해 2월 온 나라가 웅대한 6개년계획수행의 길에 들어서면 첫시기 북방의 찬바람도 마다하지않으시고 몸소 회천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지펴주시고 그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극진한 배려 밑에 천리마대진군의 선두대렬에 서서 달려온 회천의 기계전사들이 수령님께 다진 충성의 맹세를 빛나게 수행한데 뒤이어 전국의 붉은 광부와 탄부들, 동력전사들과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로동계급이 자기들의 결의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함으로써 6개년계획의 두해분과제를 승리적으로 완수하였다.

웅대한 6개년계획의 두해분과제의 기한전 완수, 이것은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인민을 이끌어주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그이께서 밝혀주신 새로운 기술혁명로선의 찬란한 승리이다. 6개년계획의 두해분과제의 성과적수행은 또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전체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열화같은 충성심의 가장 생동한 발현이다.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높은 정치적 및 로력적 성과로 맞으려는 충성의 마음을 안고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달려온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한해남짓한 기간에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가 앞당겨 수행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는 더욱 튼튼해졌고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은 더욱 공고히 되였으며 자위적국방력이 일층 강화되였다.

방대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앞당겨완수하는 투쟁에서 이룩된 이 모든 혁신적성과들은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주는 거대한 고무적힘으로 되며 남조선에서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에게 가한 또하나의 커다란 타격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이 점차 없어지고 경제발전속도가 떨어진다는 기회주의적《리론》의 반동적본질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날날이 폭로하였다.

실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수행하는 투쟁에서 천리마조선은 또다시 기적을 낳았으며 온 세상사람들을 경탄케하는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였다.

지금 우리 인민과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 수행에서 헌신적으로 싸워 빛나는 승리를 거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으며 그들의 위훈을 높이 찬양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우리의 로동계급과 근로

자들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면서 이에 기술경제적사업을 적극 안받침해나갈 때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이 솟구치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이룩된다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가 이룩한 모든 성과와 경험은 6개년계획과 올해계획, 3대기술혁명과업을 훨씬 앞당겨수행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건설과 기술발전에서 얻은 커다란 성과로 하여 6개년계획을 승리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이것은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을 위한 첫 돌파구를 열어놓은데 불과하다.

우리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과업 수행에서 많은 일을 하였으나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야 할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특히 우리는 올해에 무엇보다도먼저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우선 기계공업부문에서 새 기술 혁신의 봉화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공작기계와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을 계속 늘임으로써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는 3～4대, 자동차는 1대씩 차례지게 할데 대한 어버이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형기계생산기지를 확대강화하며 야금공업과 세멘트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요구되는 대상설비들과 여러가지 자동화 요소와 기구, 계기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과업과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계공업과 함께 다른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도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높여야 한다.

흑색금속공업부문에서는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철생산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향상에 요구되는 강재를 비롯한 금속자재를 더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현존설비를 잘 리용하고 모든 설비와 기대들에 만부하를 걸어 화학섬유를 비롯한 여러가지 질좋은 화학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잘 리용하여 원료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소비품생산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들에게 질좋은 갖가지 소비품들을 더 원만히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우리는 농업부문에서 올해에도 계속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알곡, 고기, 남새를 비롯한 모든 농업생산물을 더욱 많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철도운수부문에서 철도수송능력을 더욱 높이고 새로운 철도건설을 다그침으로써 빨리 늘어나는 인민경제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진속도를 더욱 촉진함으로써 웅대한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하루빨리 점령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또다시 가장 선참으로 떨쳐나선 희천의 붉은기계전사들의 애국적발기에 호응하여 나라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올해계획을 10월 10일전으로 끝내며 올해안으로 6개년계획의

1973년말 생산수준을 돌파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동시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전국적범위에서 혁명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계속 강점하고있고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재침하고있으며 박정희괴뢰도당이 우리를 엿보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의 기술혁명을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면서 동시에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건설을 더 잘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작은 나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혁명의 길을 개척해나가자면 반드시 그이께서 제시하신 방침대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분야에 나선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작기계생산에서 위훈을 떨친 희천의 로동계급을 축하하시면서 모든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이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우리 당이 내세운 두 전선에서 계속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해제낀 그 기세, 그 열의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하며 모든 분야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강령을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기본열쇠로 되는것은 수령님께서 밝히신 새로운 기술혁명로선을 관철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분야앞에 나서는 과업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모든것은 다 기술혁명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당면한 생산과제수행을 힘차게 밀고나가면서 나라의 전반적생산력을 발전시키고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하여 기술을 혁신하고 생산공정을 개편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나라의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할수 있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분야에 나서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의 경험은 선진기술에 기초하여 대담하게 설비를 개조하고 생산공정을 적극 자동화하며 전문화의 방향에서 생산조직을 개편해나갈 때 생산에서 전환이 일어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로동자, 기술자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 어렵고 힘든 작업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반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선진기술의 도입으로 변화되는 생산의 제조건에 맞게 생산조직을 개편하며 생산에서의 전문화와 협동화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고 웅대한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근본담보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당정책관철에서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다.

모든 혁명과업수행에서와 마찬가지로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자신들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수령님께서 제시하시는 혁명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가적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대진군을 계속 다그치고 웅대한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 그이께서 밝혀주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방침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수령님의 교시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지침으로 삼아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 관철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것은 올해계획과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강화하여 국가사회재산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움으로써 온갖 랑비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재산관리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여러가지 통제수단들을 만들어 국가재산이 랑비되지 않도록 그 소비를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한없는 감격과 끝없는 기쁨으로 맞이한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전투적기백은 비상히 높다. 지금 그들은 자연과의 투쟁,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한 투쟁을 적과의 투쟁,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박정희괴뢰도당과 투쟁하는 바로 그러한 정신으로 진행하고있다.

우리가 올해계획을 앞당겨완수하고 6개년계획의 전투강령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이 기세, 이 기백을 계속 견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를 계속 견지하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광범한 생산자들속에 늘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진행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서 군중을 이끌며 생산에서 걸린고리를 하나하나 실속있게 풀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도일군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그들이 모든 힘과 지혜를 다 생산에 바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도일군들은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가 더 잘 구현되도록 함으로써 경제관리를 광범한 생산자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켜야 한다.

오늘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청년들과의 사업을 더 잘 하는것이다.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청년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전체 천리마기수들과 모든 근로자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자신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면서 동시에 도처에서 기술을 혁신하고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한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 때 우리의 과업이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받고있음으로 하여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승리를 거둘것이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 모든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전반적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더 빨리 앞당겨나가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탁월한 혁명리론과 천재적전략전술, 혁명과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백과전서적문헌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출판에 즈음하여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을 수록한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을 최근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의 출판은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생활에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에는 1968～1970년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론문, 보고, 결론, 연설, 강의, 담화들 가운데서 중요저작 17건이 수록되여있다.

1968～1970년, 이 기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서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서 위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혁명적사변들로 가득찬 보람있는 시기였다.

이 시기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의 새로운 엄중한 전쟁도발책동들을 단호히 짓부셨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를 창조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높은 령마루를 빛나게 점령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이 모든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승리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운동발전과 정세발전의 전반적추이 그리고 사회주의제도수립이후시기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과 천재적인 전략전술을 내놓으시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정확히 이끄시였으며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저작선집 제5권에 들어있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에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천재적리론, 독창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들이 금문자로 아로새겨져있다.

불멸의 혁명적기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과 그 전면적승리에 대하여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풍부화시킨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시기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조직령도하여오신 반세기동안 그것을 확고히 견지하심으로써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

하시였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에 들어있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고전적로작들에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이 명확히 천명되여있으며 주체를 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로정과 그 빛나는 승리가 전면적으로 총화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의 진수를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의 진수를 이루는것은 맑스-레닌주의적인 주체사상이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4페지)

주체사상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것으로서 그이의 혁명사상전반을 관통하고있는 근본사상이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판단하고 처리하는데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과 태도, 원칙과 방도들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04~505페지)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에 대한 교조주의적태도와 큰 나라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사상과 의존심, 민족허무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애는것과 함께 민족배타주의와 쇄국주의를 반대하여야 하며 자기의것을 내세운다고 하여 낡은것을 무비판적으로 되살리려는 복고주의도 엄격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주체의 혁명적본질입니다.》(우와 같은 책, 13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을 말하며 그것은 바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당과 인민자신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 자체의 힘이다. 남에게 의존해가지고는 혁명을 할수 없으며 다른 나라 사람이 혁명을 대신해줄수도 없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인 그 나라 당과 인민이 노력하고 투쟁하여야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매개 나라 당과 인민들은 자기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주체사상은 교조주의,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민족배타주의, 쇄국주의, 복고주의 등 반동적, 반맑스-레닌주의적 사상조류들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과 국제주의와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말하는 주체사상은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뿐더러 도리여 국제주의를 강화하기 위한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2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잘하는것은 매개 나라 당과 공산주의자들의 민족적임무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국제주의적임무이다.

매개 나라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자기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잘하여야만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수 있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혁명적인민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잘 지원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킨 위대한 혁명적지도사상으로서 우리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독창적인 사상이

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온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0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하고있다. 주체사상은 바로 우리 시대의 력사적조건에서 로동계급과 그의 당이 혁명과 건설의 전행정에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견지해야 할 맑스-레닌주의적립장과 태도, 원칙과 방도들을 새롭게 밝혀주는 혁명사상이다. 로동계급과 그의 당은 오직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를 현실에 적용하고 발전시킨 지도적지침을 확고히 견지해야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옳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훌륭히 실천하면서 로동계급의 세계사적사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제기된 절실한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온것이다.

우리 시대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지난시기와는 매우 달라진 력사적환경에서 발전하고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특징짓는 주되는것은 매개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민족부대들이 조직되여 혁명투쟁을 독자적으로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지도력량과 혁명의 주체적력량이 꾸려지고 공산주의운동의 국제적규모가 전례없이 확대된것이다. 지난날과 같이 공산주의운동에서 국제적인 《중앙》을 필요로 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또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의 주되는 특징을 이루는것은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이 다양성과 복잡성을 띠고 진행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력사적조건은 로동계급의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에게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며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나갈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필연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강력한 사상리론실천적무기를 안겨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총화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은 혁명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려왔으며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따라 그 투쟁을 더욱 강력적으로 벌렸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위대한 비약이 이루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에서 주체확립, 이것은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던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우리 인민을 해방한 사상혁명령역에서의 위대한 승리입니다.》(우와 같은 책, 506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은 주체사상을 여러 분야에 구현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우리 나라는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한 자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였으며 국제혁명위업에도 더잘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참으로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대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의 중심문제이며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 어떤 과업을 해결하고 어떤 로정을 거쳐 공산주의에 이르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겠는가 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구체적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근본특징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적대계급의 준동이 있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으며 나라의 공업화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지 못한 사회는 아직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라고 말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166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적대계급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없어지며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없는 무계급사회가 실현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지난날의 중산계층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여 과거 중산층에 속했던 사람들까지도 사회주의를 적극 지지하게 될 때 사회주의는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새롭게 밝히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의 징표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사회주의건설의 뚜렷한 목표를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사상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자면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도 사회주의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 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두 요새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해야 한다는 천재적인 사상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국가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사업을 다같이 잘해나가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67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고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 이 력사적과업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는 조건에서만 원만히 수행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특징과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도달하는 구체적로정과 그 실현방도를 천재적으로 밝혀준 탁월한 사상이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려는 로동계급의 확고한 혁명적의지를 철저히 반영하고있

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천재적인 해명을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와 과업들을 명철하게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자본의 포위속에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어느때에 가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위협을 완전히 면하게 되며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되는가를 새롭게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의 대다수 나라, 적어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이 련속적으로 일어나 제국주의적포위를 사회주의적포위로 바꾸어야 하며 사회주의국가를 포위하고있는 제국주의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세계적체계에로의 전환의 길을 열어놓아야 하며 포위당한 일국의 사회주의요새의 고립성을 없애고 국제로동계급과 세계피압박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의 강력한 뉴대를 이루어놓아야 한다. 오직 이렇게 될 때에라야만 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과 자본주의복구의 시도를 완전히 면할수 있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가 보장되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우와 같은 책, 24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국제자본을 완전히 타승하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조건과 전략전술, 세계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성과 그 구체적로정을 과학적으로 밝혀준 탁월한 사상이며 세계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킨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그것이 점차 확대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오늘 국제적으로 련합된 자본주의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세계혁명운동의 승리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원칙에 기초한 국제혁명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으며 사회주의 나라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여야만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먼저 승리한 혁명은 자기의 경험과 모범으로써 아직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의 혁명을 도와주고 자기의 정치, 경제, 군사적 힘으로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아직 혁명이 승리하지 못한 나라 인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정책으로부터 승리한 다른 나라 혁명을 보위하고 자기 나라 혁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천재적리론은 참으로 우리 혁명발전을 위한 강령적지침이며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두 요새인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할데 대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보고와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를 비롯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가금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며 군을 잘 꾸릴데 대하여》, 《교통운수의 긴장성을 풀데 대하여》, 《로동행정사업에 대한 몇가지 문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자》 등 여러 로작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두 요새인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 점령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문제들과 구체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단일한 전인민적소유를 확립하며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화의 기초축성, 공업화와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의 실현, 공업화의 성과

의 공고발전과 기술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전진 등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합법칙적로정을 명확히 밝히시고 우리 당이 지난 기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풍부한 경험들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결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위대한 성과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여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19페지)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이것은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공업화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공업화와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이 실현된 다음에도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으려면 아직 경제건설분야에서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맑스-레닌주의당이 경제건설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처음으로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47페지)

수령님께서는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경제부문별 과업을 천명하시면서 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고 그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며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문제 등을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6개년계획에서 중심을 이루는것은 3대기술혁명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3대기술혁명과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453~45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로선은 착취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까지 해방함으로써 사람들을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위업을 완수하는 길을 밝혀준 독창적인 기술혁명강령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기술혁명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고열 및 유해로동을 없애며 전반적인민경제부문들에서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시하며,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식료가공공업과 일용품공업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부식물과 부엌세간들을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인민생활을 고르롭게 높이는것을 6개년계획의 중요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원칙과 방도를 새롭게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축적하여 원수들의 임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는 전쟁준비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선차적으로 하면서 근로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수 있게 하며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다같이 고르롭게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75~476페지)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민생활문제해결에서의 우리 당의 이 원칙적방침은 혁명의 근본리익과 당면한 인민생활문제

를 옳게 결합시키며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침이다.

저작선집 제5권에 들어있는 여러 문헌들에는 또한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며 농촌의 뻐스화와 수도화를 실현하는것을 비롯하여 인민생활을 고르롭게 높이기 위한 구체적과업들도 명백히 밝혀져있다.

실로 6개년계획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며 조국의 륭성반전과 우리 인민의 보다 행복한 생활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설계도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점령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경제지도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이다.

로작들에는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한 우리 당의 업적과 경험이 총화되여있으며 경제지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과업들이 밝혀져있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과 함께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입니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도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완전히 점령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64～465페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하고 혁명화를 계속 밀고나갈데 대하여 천명하신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과 그 로정을 새롭게 밝혀준 독창적인 리론이며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고 물질기술적토대축성만을 강조하는 기회주의《리론》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혁명적인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는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432페지)

로동계급은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계급이며 공산주의사회를 대표하는 유일한 계급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야만 사회의 모든 계층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함께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이를 혁명실천과 결합시키며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고 특히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교양개조하는 방침에 따라 비판사업을 강화하며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과 같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구체적방도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점령의 전반적로정과 방도를 가장 정확히 밝혀준것으로서 공산주의적 새인간 육성문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사상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기간 문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 과학과 사회주의적민족문화예술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로 되였다고 강조하시고 사

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문화건설분야에서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고 복고주의적경향을 극복함으로써 교육, 과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459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는 그놈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서 해외침략의 길잡이로 되고있다. 이것을 막아내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없고 사회주의전취물을 고수할수도 없다. 다른 한편 문화건설에서 복고주의가 허용되면 지난날의 온갖 불건전한 문화가 머리를 쳐들게 되며 인민들의 의식속에 낡은 사상이 자라나게 된다.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막아내고 복고주의적경향을 극복할데 대한 수령님의 방침은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하며 혁명적인 방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 점령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천리마운동의 발생요인과 본질,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심오하게 분석하시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과업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심과업은 첫째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며, 둘째로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며, 셋째로 책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이 세가지 사업을 잘하는것 다시말하면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잘하는것이 바로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기본과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53페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이 세가지 과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갈 때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문제와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 문제를 통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빨리 점령할수 있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발전속도 문제와 상품화폐관계의 리용문제에 대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인 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문제,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대한 문제, 농민시장의 소멸방도문제와 같은 사회주의경제리론에서 절박하게 해명을 기다리던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새롭게 밝혀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경제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문제를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집니다.》(우와 같은 책, 30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과잉생산공황으로 말미암아 생산과정이 끊임없이 중단되고 많은 사회적로동이 랑비됨으로써 생산이 끊임없이 발전할수 없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온갖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고

생산을 계획적으로 높일수 있다. 이러한 생산장성의 가능성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강화되고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이 높아져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라의 경제가 더잘째일수록 더욱 많아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가 계획적으로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며 특히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인 사람들의 혁명적열의가 높이 발양됨으로써 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이라는것을 력사상 처음으로 밝히시고 우리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으로 그것을 확증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경제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관한 리론은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생산장성속도가 떨어진다는 온갖 궤변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될뿐아니라 사회주의정치경제학발전에서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상품화폐관계의 리용문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국가가 옳게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폐관계의 리용문제 특히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문제와 가치법칙의 리용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전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상품생산의 본질과 상품의 유래, 생산수단이 상품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과학리론적으로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자재공급계획과 협동생산계획에 따라 국가기업소들사이에 주고받는 생산수단들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적형태를 가지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치법칙도 상품생산에서처럼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형태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1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영기업소들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이 상품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것은 비록 국영기업소들이 다같이 단일한 국가소유의 기업소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생산수단을 리용, 관리하며 경리를 운영하는데서 마치도 서로 다른 소유의 기업소와 같이 서로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기때문이며 이러한 상대적독자성을 부여하는것은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관련되여있다.

수령님께서는 생산수단의 생산분야에서 상품적형태, 가치형태를 옳게 리용하는 한편 그 류통분야에서도 자재상사의 역할을 높여 자재, 원료를 팔고사는 상업적형태를 충분히 리용할것을 중요하게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품의 계획적인 생산과 류통에서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가치법칙의 요구를 잘 타산하여 상품의 값을 정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가격을 일원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치법칙이 다만 형태적으로 작용하는 분야 그리고 가치법칙이 작용하지만 그것이 계획적으로 리용되는 분야와 함께 가치법칙이 어느정도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농민시장에서의 상품화폐관계리용문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계획적인 국영상업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아직도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다 국가에서 넉넉히 공급하지 못하고 협동적소유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농민시장을 그대로 두고 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시였다.

《…국가적으로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공급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소유가 전민소유로 될 때에만 농민시장과 암거래는 없어지고 상업은 완전히 공급제로 넘어갈수 있을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23페지)

상업에서 자본주의적잔재를 많이 가지고있는 농민시장을 점차 없애며 사회주의상업을 완전한 공급제로 발전시킨

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리론은 맑스-레닌주의상업리론과 소비품분배리론을 더욱 풍부히 하고 발전시킨 탁월한 리론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에 관한 천재적인 리론을 내놓으심으로써 상품화페관계를 사회주의건설의 리익에 맞게 가장 정확히 리용하는 맑스-레닌주의적길을 열어놓으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저작선집 제5권에 들어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그 력사적사명이 명확히 밝혀져있으며 현시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적이며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이 주어져있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해야 할 필연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는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66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는 전기간에 걸쳐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는 천재적인 사상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계속 강화하여야만 완전한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 한편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68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라는것을 밝히시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바로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업을 완수하는데 있다는것을 천명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에 대한 수령님의 새로운 정식화는 현시기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복잡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앞에 나서는 중요임무는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 끌어올리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있다는것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두 측면인 독재와 민주주의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시고 그것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창조적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소수 적대분자들에 대해서는 진압하고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우와

같은 책, 169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류력사에서 계급을 떠난 국가가 없었던것과 마찬가지로 계급을 떠난 민주주의도 없었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어떤 국가에서나 민주주의는 주권을 잡은 계급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적대되는 계급에 대한 독재와 결합되여있다. 온갖 착취자들의 독재는 피착취근로대중에 대한 독재이고 그들의 민주주의는 소수착취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반대로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착취계급에 대한 독재이고 광범한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이다. 만일 전복된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이 준동하고 계급투쟁이 계속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른바 《순수한 민주주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사실에 있어서 인민들에게 부르죠아민주주의와 노예적자유를 강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적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의 계급적본질을 명백히 밝히시고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가르치시면서 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는 착취계급을 영원히 청산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뿐만아니라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주며 그들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170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그 어떠한 민주주의도 있을수 없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밝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이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를 외곡하는 어떠한 기회주의적경향도 철저히 극복하고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를 옳게 보장할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두 측면,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킬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이 두 측면을 옳게 결합하여나간다는것은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는 사업과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우와 같은 책, 169페지)

《국가활동에서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다 반대하면서 독재와 민주주의,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옳게 결합하여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우와 같은 책, 171페지)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키며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고립시키고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는것은 혁명의 근본요구이며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사업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독재와 민주주의,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되며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그것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불후의 공헌으로 된다.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저작선집 제5권에 수록된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와 당 제5차대회보고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는 우리 당과 인민이 지난 기간 국방건설분야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이 전면적으로 총화되여있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과업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의 방침에 따라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온 나라를 요새화하기 위한 방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튼튼한 자위력을 가질수 있게 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437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난 기간 우리 당은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확고히 수립하여놓았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원쑤들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그때마다 철저히 짓부시고 적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라는 단호한 립장을 취할수 있었으며 조국을 튼튼히 보위할수 있었다.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밝혀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이 이미 내놓은 전체 인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방침을 계속 견지하며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472페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위의 원칙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국방분야에 구현한것으로서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과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국방건설원칙이다..

문헌들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전민무장화를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는것이며 이를 위하여 전체 인민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군사훈련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적들의 어떠한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되는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 기초우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전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완성하며 그에 따라 군대의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다 달라붙어 원쑤들의 있을수 있는 침략책동에 대처할수 있도록 정치사상적 및 물질적으로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은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로선이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고 우리 조국과 사회주의동방초소를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당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문헌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는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고귀한 경험들이 전면적으로 분석총화되여있으며 혁명적당건설과 당사업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들과 리론실천적문제들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여있으며 당사업을 더한층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과업들이 명확히 제시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총결기간 당안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이 완전히 실현된 력사적승리를 전면적으로 총화하시면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총적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51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이며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의 운명을 결정하

는 중대한 문제이다.

만일 당안에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되거나 행동상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다. 유일한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지 못한 당에는 언제나 분파가 생기는 법이며 따라서 이러한 당은 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울수 없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통일적인 령도를 보장할수 없을뿐아니라 자기의 존재자체도 제대로 유지할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당조직들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역할과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수령, 당, 계급, 대중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 독창적인 사상이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구체적과업들에 대해서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고전적로작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우리 당 간부정책을 옳게 관철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는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을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과업이 명시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에서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사람과의 사업이란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76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천재적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당활동의 근본원칙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함으로써 정치적참모부로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약화시키는 온갖 편향들을 극복하고 당사업의 본질적요구들을 가장 정확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인 간부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간부들을 교양하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려 간부들을 혁명화하며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전당적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며 특히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의 기본고리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지도하는데 있으며 당건설의 기초도 바로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15페지)

수령님께서는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세포들의 역할을 높이고 각급 당위원회들을 간부들과 핵심당원들을 잘 배합하여 꾸림으로써 그들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전투적참모부로 만들며 각급 당위원회의 조직부와 선전선동부의 역할을 높이며 그들간의 배합작전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군중을 많이 전취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 승리와 성과를 결정하는 근본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강화하고 혁명의 기본부대를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반동분자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쟁취할수 있는 사람은 다 교양개조하여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서 근로단체들이 노는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사로청을 비롯한 모든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였다.

또한 저작선집 제5권에 들어있는 여러 로작들에는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서는 강령적과업들과 그 해결방도들이 똑똑히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중심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끌고나가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21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뚜렷이 밝혀준것으로서 당건설과 당사업의 총적과업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당사상사업의 확고한 지침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조직들은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며 부르죠아사상과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정주의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을 똑똑히 인식시키며 당안에 수정주의적사상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히 투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과업의 해결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시면서 사상사업에 대한 당조직들의 조직지도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특히 당사상사업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포치하며 그 수행정형을 제때에 료해장악하여 총화하고 다시 포치하는 방법으로 계속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당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앨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사상사업부문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모든 간부들이 정치사상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는 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저작선집 제5권에 들어있는 여러 로작들에는 또한 발전하는 현실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침과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 필요성과 당적지도의 본질을 지적하시면서 경제지도에서 키잡이를 잘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키잡이에 관한 리론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내에서 당과 인전대와의 호상관계, 당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과학적분석과 실천적경험에 기초한 가장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리론이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각급 인민위원회 그리고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많이 가지고있는 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 사법, 검찰 기관 등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당적령도의 의의와 중요성, 당적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저작선집 제5권에 들어있는 고전적인 로작들에 집대성되고 체계화된 당건설과 당사업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들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불패의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할데 대하여

남조선혁명은 전조선혁명의 구성부분이다.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과 함께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와 공화국창건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남조선정세발전과 남조선혁명운동의 력사적 경험과 교훈을 과학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을 전면적으로 심오히 밝히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사회의 식민지반봉건적성격과 계급관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한편으로 하

고 남조선인민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계급적 및 민족적 모순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기본임무를 다음과 같이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기본임무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내쫓고 그 식민지통치를 없애며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움으로써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79페지)

수령님께서는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명철하게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남조선혁명의 동력과 대상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시고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을 정확히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력량의 편성문제를 혁명전략에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통찰하시고 우선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강화하고 그 두리에 로동자, 농민을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애국적인 모든 정치세력들, 각계각층 군중들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며 적극적인 혁명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장성시키고 단련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이 방침은 혁명의 기본부대를 골간으로 하여 가장 광범한 력량을 결속시킴으로써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력량의 절대적인 우세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탁월한 전략적력량편성방침이다. 그것은 또한 인민대중의 의식화, 조직화를 촉진시키며 반동적공세가 강화되는 조건에서 혁명력량을 믿음직하게 보존, 축적, 장성시키면서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게 하는 명확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남조선혁명운동의 력사적 경험과 교훈을 분석총화하시면서 맑스-레닌주의적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통일적 맑스-레닌주의당,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의 출현이 남조선혁명운동발전에서 가지는 커다란 의의를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현단계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을 명시하시면서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남조선혁명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자신의 투쟁이므로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자체가 주동이 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수행방도를 명시하시였을뿐아니라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다시금 다음과 같이 명백히 밝히시였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남북통일을 실현하자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98페지)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으며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침이다.

우리 당은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을성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전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한 우리의 정당한 제안들을 매번 묵살해버렸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한사코 반대하여왔다.

남조선의 현 위정자들은 외세에 의존하여 잔명을 건져보려고 할것이 아니라 애국의 립장에 돌아서야 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선과 방침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최대한으로

앞당길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지도적지침이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길데 대하여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봉대가 되자》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는 지난 시기 우리 당과 인민이 국제관계분야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가 전면적으로 분석총화되여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운동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이 집대성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대처한 우리 시대의 가장 정확한 세계혁명의 기본전략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정세는 5대륙의 혁명적인민들에게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며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데 공격을 집중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28페지)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미제에 공격을 집중할데 대한 방침은 세계혁명의 주되는 대상을 밝힌것으로서 전반적세계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준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는 세계지배의 흉악한 야망밑에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실로 미제국주의는 력사상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략탈자이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이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없으며 민족적해방과 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도 이룩할수 없다.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있을수 없으며 그것을 종국적으로 타승할 때까지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제반미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에 대처하여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의 전투적단결과 반미공동투쟁을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고있는 조선과 중국, 웰남과 라오스, 캄보쟈를 비롯하여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 인민들은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보다 강력한 집단적반격을 가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496페지)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의 반미통일전선과 전투적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세계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을 힘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진공적인 전략적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아세아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치렬한 투쟁전선으로,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 있다. 미제는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혁명하는 나라들에 대한 각개격파전술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한편 악명높은 《새 아세아정책》에 따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교활한 방법을 쓰고있다. 미제는 아세아침략의 원흉이다.

혁명하는 아세아나라 인민들이 전투적단결을 강화하여 모두 달라붙어 미제에 공동으로 타격을 주며 압력을 가한다면 놈들은 배겨내지 못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아세아에서 쫓겨나고야말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데 대한 우리 당의 립장과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

민들 앞에는 미제국주의침략을 좌절시키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매우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96~497페지)

수령님께서 밝히신 미제를 반대하는 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방침은 강도적제국주의나라들사이의 종속적동맹관계와 미제의 침략전쟁수행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노는 반동적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투쟁방침을 명시한 위대한 전략사상이며 반제반미투쟁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탁월한 반제투쟁전략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는 일본군국주의를 아세아침략을 위한 《돌격대》로 내세우고 그들의 복수주의적야망과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저들의 침략전쟁수행에 적극 리용하는 길에 들어서고있다. 한편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을 실현하여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오늘 일본군국주의는 아세아에서 새로운 전쟁의 온상으로 되고있다.

독점자본이 국내에서 팽창하게 되면 해외침략의 길로 나간다는것은 제국주의발전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팽창될대로 팽창되고 다시 지배권을 확립한 독점자본에 기초를 둔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성을 보지 않으며 일본반동정부를 미화하거나 그와 무원칙하게 가까이한다면 그것은 아세아에서 전쟁의 위험을 더욱 증대시키며 그 해외팽창을 조장하여주는것으로 되며 또한 아세아에서 미제의 지위를 강화해주며 전반적반제투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주는것으로 될것이다.

세계의 모든 반제력량과 평화애호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일치한 행동으로 놈들의 재무장과 해외침략책동, 침략적인 미일결탁을 결정적으로 파탄시켜야 하며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일본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투쟁전략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각각 미제의 팔도 뜯어내고 다리도 뜯어내며 머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비록 적은 힘이라고 하더라도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이렇게 모두 함께 달라붙어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미제의 각을 이르는곳마다에서 뜨게 되면 미제는 결국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01페지)

수령님께서 밝히신 이 전략은 주체사상과 우리 시대 혁명적인민들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미제의 힘을 분산약화시켜 혁명하는 나라들에 대한 놈들의 각개격파전술을 성과적으로 파탄시키며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의 마지막숨통을 끊어버릴수 있게 하는 진공적이고 혁명적인 투쟁전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아무리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주체를 세우고 견결히 싸운다면 미제국주의를 능히 때려눕힐수 있다.

친개적로작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는 우리 시대의 혁명력량에 대한 과학적해명이 주어져있으며 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침들이 제시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의 단결된 힘이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노는 역할을 강조하시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의 계급적동맹과 그 전반적위력을 강화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밝히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의 하나인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지위와 역할을 해명하시고 민족해방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착취계급의 반동적독재기구를 전복하는 혁명적폭력이 없이는 승리할수 없다.》(우와 같은 책, 244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쫓겨나지 않는 한 식민지예속국가들에 대한 자기의 지배를 걷코 버리지 않으며 저들의 멸망이 가까와오면 올수록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폭력수단에 더욱더 필사적으로 매여달린다. 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착취계급의 반동적독재기구를 전복하는 폭력혁명이 없이는 승리할수 없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혁명적무력으로써 반혁명적무력을 격파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적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반드시 사회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63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본주의는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살았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류의 광명한 미래이며 모든 민족이 이 길로 가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혁명을 계속 밀고나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고 진보적사회제도를 세우며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자본주의가 불가피적으로 겪은 쓰라린 진통과 재난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인민의 자유와 행복과 민족적독립과 번영에로의 빠른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수 있다.

저작선집 제5권에 들어있는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몇가지 경험에 대하여》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들이 전면적으로 분석총화되여있다.

우리 당과 인민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서 이룩한 경험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물리치면서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를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킨 독창적이며 풍부한 경험들이다.

참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제반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이며 명백한 해답을 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사상과 리론, 독창적인 방침들은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풍부히 하고 그것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힘있는 무기로 된다.

* *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가 전면적으로 총화되여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며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다그쳐나가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로선과 독창적인 방침들이 똑똑히 천명되여있다.

실로 저작선집 제5권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총화한 력사적문헌이며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집대성한 백과전서적인 고전적문헌이다.

저작선집 제5권은 또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에서 얻은 참다운 진리를 담고있는 투쟁과 생활의 위대한 교과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긴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천재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이 집대성되여있는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을 깊이 학습하여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것을 무조건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금년도 계획과제를 10월 10일전으로, 6개년계획의 3년분과제를 금년말까지 앞당겨 수행함으로써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제공함)

불멸의 혁명적기치—조국광복회 10대강령

리 광 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6년전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엄혹한 불길속에서 조선혁명의 불멸의 기치—조국광복회10대 강령을 내놓으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을 영광과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이 땅우에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는 휘황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우리나라에서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주체적로선과 전략전술을 집대성한 조선혁명의 불멸의 기치이다.

수령님의 이 로작은 실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특히 식민지민족해방운동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 문헌으로서 날이 갈수록 자기의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　　　*

혁명투쟁에서 정확한 강령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총만 가지고는 안된다. 광범한 인민들을 혁명조직에 결속하여 그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그들에게 훌륭한 투쟁강령을 주어야 한다. 혁명성이 강한 로동자들이라고 해도 투쟁강령이 없을 때에는 자기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하며 설사 발휘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강령이 없는 투쟁이 아직 성공한 전례가 없다.…

인민대중은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인 투쟁강령에 의하여 지도되여야만 목적의식적으로 혁명에 참가할수 있으며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이러한 투쟁강령은 오직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에 의해서만 작성되고 제시된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은 인민대중에게 투쟁강령을 제시하며 그 실행에로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끈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경험에 의하여 확증된 혁명의 진리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들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못하고 정확한 투쟁강령을 가지지 못한탓으로 하여 막대한 손실과 쓰라린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게 됨으로써 비로소 정확한 투쟁강령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선행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 당시 조성된 혁명의 주객관적정세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주체적인 혁명로선이 제시됨으로써 선행시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이 완전히 극복되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은 주체의 기치밑에 맑스-레닌주의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1930년대 중엽에 이르러 우리 나라 혁명운동앞에는 간고한 시련과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였다.

포악무도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은 그 어느때보다도 더 우심하여졌으며 그것은 중일전쟁을 계기로 극도에 달하였다.

이 시기에 와서 일제는 대륙침략전쟁의 확대를 서두르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인 폭압과 경제적략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조선인민의 민족적인 모든것을 말살하려고 발광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인민과 일제와의 민족적모순은 일층 첨예화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기세는 날을 따라 더욱 높아졌다.

조성된 혁명정세는 각계각층의 모든 애국력량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정확한 투쟁강령을 내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쌓으신 고귀한 혁명업적과 경험에 기초하시여 력사적인 동강회의에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손수 작성하신 조선혁명의 불멸의 기치—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당시 조성된 우리 나라의 내외정세와 세계피압박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근본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준 위대한 문헌이다.

수령님께서 손수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매 구절마다에 담겨진 모든 사상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여있다.

참으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각계각층의 모든 반일력량을 총동원하여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하며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강령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강령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이 내세우고 해결하여야 할 기본과업들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으며 이 혁명단계에서 로동계급의 기본요구와 각계각층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시였다.

강령에는 무엇보다먼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정치적과업들이 밝혀져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기본적인 정치적과업에 대하여 강령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할것.》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며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활적 문제이다. 로동계급은 정권을 잡지 않고서는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도 이룩할수 없으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도 건설할수 없다. 따라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선차적이며 기본적인 문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정권을 전취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령에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계급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앞으로 세워야 할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부로 되여야 한다고 규정하시였다.

인민정권은 《콤뮨》이나 《쏘베트》정권

형태와는 구별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정권이다.

인민정권은 광범한 반제적이며 반봉건적인 민주력량을 결속하여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와 결탁한 극소수의 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들을 타도하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는 유일한 정권이다.

수령님께서는 강령에서 이 기본적인 정치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강령은 조선혁명의 주되는 타격방향을 명확히 밝히고 여기에 공격의 예봉을 집중할것을 규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시고 혁명의 주되는 투쟁대상은 일제침략자들이라고 밝히심으로써 혁명력량을 분산시킴이 없이 놈들에게 공격을 집중하게 하며 그 동맹자들인 친일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친일관료배들을 타도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를 소탕하고 인민정권을 세우자면 반드시 상비적혁명무력을 창설하고 혁명적폭력에 의거하여야 하며 각계각층 인민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것을 확대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 방침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 우리 나라 사회경제적 및 계급적 관계, 혁명승리의 합법칙성에 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한 현명한 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령에서 다음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경제적과업들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강령에서 《일본국가 및 일본인 소유의 모든 기업소, 철도, 은행, 선박, 농장, 수리기관 및 매국적친일분자의 전체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여 독립운동의 경비에 충당하며, 일부분으로는 빈곤한 인민을 구제할것.》을 천명하시였다. 여기에는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반영되여있다.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는 당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경제발전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기본문제였다. 이 문제의 해결은 일제와 그와 결탁한 친일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친일관료배 등 반동세력이 의거하고있는 사회경제적 기초를 허물어버리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게 하였다. 그것은 또한 로농동맹을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정치적열성을 비상히 높일수 있게 하였다.

강령에서는 이와 함께 공, 농, 상업을 발전시켜 자립적민족경제를 창설할데 대한 과업을 밝히였다. 이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경제분야에 구현한것으로서 식민지예속국가들의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게 하는 가장 올바른 길을 명시한것이다.

강령은 또한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8시간로동제와 민주주의적로동보호제도를 실시하고 대중생활을 개선할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을 일제의 식민지적강제로동과 중세기적착취에서 해방하고 사회적으로 보호하며 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게 하는 길을 열어줄수 있게 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령에서 다음으로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며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사회문화적과업을 내놓으시였다.

강령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

유와 남녀평등권 등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하며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과 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고 교육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일제와 봉건 잔재를 숙청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을 내놓았다. 이 과업의 실현은 나라의 독립과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강령에서 마지막으로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밝히시였다.

강령은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으로서 《조선민족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친밀히 련합하며 우리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시하는 나라 및 민족과 동지적친선을 유지할것.》을 밝히였다. 이것은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을 견지할데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것으로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과의 호상관계, 혁명투쟁에서 주체적혁명력량의 강화와 함께 국제적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것이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이처럼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조선의 모든 애국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혁명적강령이다.

이 강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업수행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을것을 목적하였으며 당면하게는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대중을 총동원할것을 목적하였다.

조선혁명의 불멸의 기치—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강령은 우리 인민의 혁명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맑스-레닌주의적강령으로서 조선인민에게 뚜렷한 투쟁목표와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등대로,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한 불멸의 기치로 되였다.

강령은 전체 조선인민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우리 인민을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였을뿐아니라 일제침략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놈들의 멸망을 촉진하는 선고장으로 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또한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대렬을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하나의 투쟁목표밑에 튼튼히 결속시켜 그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는 정치사상적기초로 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거기에 담겨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위대성으로 하여 커다란 혁명적견인력을 가지고 조선인민의 심장을 확고히 틀어잡았으며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되고 그 위대한 10대강령이 발표된지 불과 수개월만에 그 조직망은 여러가지의 명칭을 띠고 조선의 전국각지와 만주의 광활한 지역에 급속히 확대되여갔으며 그 산하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지식인, 민족주의자, 민족자본가, 애국적인 종교인 등 수십만의 반일군중이 굳게 결속되게 되였다. 조국광복회조직망이 확대되고 통일전선운동이 성과적으로 조직전개됨으로써 조선혁명의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이리하여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불멸의 혁명적기치를 따라 전국적범위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키게 되였다.

강령은 또한 세계혁명운동 특히 식민지민족해방운동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독창적으로 발전시키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전략전술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이것은 세계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과 전략전술의 발전에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그러기에 오늘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거기에 담겨져있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세계수억만인민들,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웅적항일무장투쟁시기에 내놓으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 빛나게 구현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의 위대한 사상은 해방후 우리 당의 정치로선과 20개조정강에서 계승되고 구체화됨으로써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혁명을 계속 전진시킴에 있어서 확고한 지침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는 해방직후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지체없이 자체의 힘으로 인민정권을 창건하고 제반민주개혁을 짧은 기간내에 철저히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촉진시켰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이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이 완수되고 사회주의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남반부에는 아직도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아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재침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우리는 공화국남반부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의 마수를 꺾어버리며 그 2중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림으로써 남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전국적범위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완성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불멸의 혁명적기치로 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문헌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담겨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자신을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준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을 남조선인민이 주동이 되여 수행할데 대한 방침

정 병 하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남조선혁명승리의 객관적필연성과 우리 나라 혁명에서 남조선혁명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남조선혁명을 백방으로 추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명확하게 제시하시였다.

지역혁명으로서의 남조선혁명을 최대한으로 추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에서 기본은 남조선혁명을 남조선인민들자체가 주동이 되여 수행할데 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자체가 주동이 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88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남조선혁명운동이 우리 나라의 한 지역적범위에서의 혁명투쟁이기는 하나 그것이 식민지반봉건사회인 남조선의 사회경제관계와 그에 뿌리박고있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일어나는 하나의 사회혁명으로 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기본전제를 이룩한다는 가장 정확한 과학적통찰에 기초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인민들자신이 주동이 되여 남조선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혁명의 발생발전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지역혁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한 정확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수령님의 이 방침은 남조선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독창적인 방침으로서 북반부혁명기지의 강력한 지원밑에 남조선인민들자신의 힘에 의하여 남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길을 밝혀주고있다.

남조선혁명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의 본질적요구는 무엇보다먼저 남조선인민들자신이 남조선혁명운동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동무들도 누가 당을 조직해주고 지도해줄것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기본원칙을 똑똑하게 안 다음에는 당도 자체로 조직하고 전략전술도 자체로 세우며 투쟁속에서 자신을 단련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단련된 동무들이 지도핵심을 이루고 광범한 군중단체들을 조직하며 조그마한 경제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대규모적인 혁명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이렇게 하면 남조선에서 혁명대렬이 계속 늘어날것이며 날이 갈수록 군중의 투쟁이 높아갈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91페지)

수령님께서는 전국혁명과 지역혁명으로서의 남조선혁명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남조선혁명운동은 응당 남조선인민들자신이 주동

이 되여 추진시켜나가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조선혁명은 하나이며 조선민족도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로 인한 남북의 분렬, 남북반부에 수립된 판이한 사회제도와 혁명발전단계상의 차이로 인하여 한 나라의 두 지역에서의 혁명투쟁은 각이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벌어지지 않을수 없으며 조선혁명은 통일적인 하나의 혁명투쟁과정으로 전개될수 없게 되였다.

이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남북반부인민들앞에는 서로 다른 혁명과업이 제기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앞에는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켜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겨야 할 투쟁과업이 제기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앞에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쓸어버리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해야 할 력사적과업이 제기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남조선인민들앞에 부과된 기본혁명임무이며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자신이 주동이 되여 수행하여야 하는것이다.

북반부혁명력량은 전국혁명의 견지에서는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기본주력으로 되지만 남조선혁명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도와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민족지원력량이다. 그러므로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혁명력량이 기본이 되여 추진시켜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경우에만 공화국북반부에 마련된 혁명기지의 강력한 지원도 더 효과적으로 받을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주동이 되여 남조선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방침의 본질적요구는 또한 남조선인민들이 자체로 혁명을 일으키는것이다.

사회혁명으로서의 남조선혁명의 담당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자신이며 남조선인민들이 필요한 순간에 자체로 남조선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것은 남조선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이다.

혁명의 발단은 단순한 주관적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질수 없으며 오직 혁명력량을 부단히 확대하고 혁명정세를 성숙시켜나가는 목적의식적인 투쟁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혁명력량의 축적과 장성은 혁명을 폭발시킬수 있는 주체적요인이며 혁명정세의 성숙은 객관적요인이다. 이 두 요인은 남조선지역내에서 남조선인민들자신에 의해서만 조성될수 있으며 누가 대신하여 조성해줄수 없는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계급적 및 민족적모순이 격화됨에 따라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의 위기가 가일층 심화되고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혁명정세가 부단히 성숙되여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 혁명의 주체적요인으로 되는 혁명력량의 준비정도는 혁명정세에 따라가지 못하고있다.

혁명력량의 확대강화는 저절로 이루어질수 없으며 투쟁속에서 이루어진다.

당면하게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것은 투쟁속에서 혁명력량을 축적장성시킬뿐아니라 혁명의 객관적정세를 끊임없이 성숙시켜나가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준비했다가 적중한 시기에 혁명을 일으켜야만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것이다.

남조선혁명을 남조선인민들이 주동이 되여 수행할데 대한 방침의 본질적요구는 또한 남조선인민들이 주권문제를 자체로 해결해나가는것이다.

남조선혁명의 당면한 전략적과업은 남조선인민들자신이 자기들의 일상적인 모든 투쟁을 반혁명세력을 타도하며 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킴으로써 자기 손에 정권을 틀어쥐는데 있다.

이 전략적과업의 해결은 객관적혁명정세의 변화에 따라 각이할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자신이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남조선인민들이 전

취한 정권을 성과적으로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그 정권앞에 제기된 혁명과업을 가장 철저히 실현할수 있다.

이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이 주동이 되여 남조선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남조선인민들이 자체로 혁명운동을 발전시키며 혁명을 폭발시키고 정권문제를 해결할것을 요구한다.

남조선혁명을 남조선인민들이 주동이 되여 수행한다는것은 결코 남조선혁명에 대한 북반부인민들의 책임을 조금도 약화시키지 않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에게는 남조선인민들의 앙양되고있는 투쟁기세에 발맞추어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43페지)

남조선인민들과 힘을 합하여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며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북반부인민들의 숭고한 민족적임무이며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따라서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고 혁명정세가 성숙되여 우리의 지원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남조선인민들과 힘을 합하여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 결정적투쟁에 동원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자신이 주동이 되여 남조선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남조선혁명을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과학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남조선혁명을 남조선인민이 주동이 되여 수행할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은 조선혁명의 총적인 전략적구상과 지역혁명으로서의 남조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다같이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방침이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 자신의 투쟁입니다. 억압받고 착취받는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혁명투쟁에 의하여서만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88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인 이 교시에는 남조선혁명을 남조선인민들이 주동이 되여 수행하여야 할 객관적필연성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남조선혁명운동은 우리 나라의 한 지역적범위에서의 혁명투쟁이지만 식민지반봉건사회인 남조선의 사회경제관계와 그에 뿌리박고있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일어나는 독자성을 가진 사회혁명이다.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사회안에 있는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자신의 투쟁이다. 원래 혁명이란 그 사회의 내부모순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적현상이며 이 모순은 어디까지나 그 사회내부력량에 의해서만 해결되게 된다. 그것은 해당사회의 모순이 낡은 사회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반혁명세력과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려는 혁명세력간의 격렬한 투쟁을 필연적으로 일으키게 되며 모순은 조만간에 혁명세력이 반혁명세력을 타승하는것으로써 해결되기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적모순해결의 법칙이며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오늘 남조선사회의 기본모순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 진보적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군인, 애국적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둘사이의 모순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이 모순은 남조선인민들자신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타승함으로써만 해결될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조선혁명은 원쑤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자신의 투쟁이며 여기에 이 방침의 정당성의 하나가 있다.

남조선인민이 주동이 되여 남조선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은 또한 남조선혁명의 동력인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혁명에 대한 자각성,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남조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침이라는데 있다.

남조선혁명은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든간에 남조선인민들자신의 적극적이며 의식적인 참가 없이는 실현될수 없으며 또한 남조선혁명이 승리하는 경우에만 전국혁명의 과업이 해결될수 있다. 그런것만큼 남조선인민들이 남조선혁명에 보다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면 참가할수록 남조선혁명과 전국혁명의 승리는 보다 빨리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만약 남조선인민들이 북반부혁명기지로부터의 지원에만 의거하고 혁명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지 못한다면 혁명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없으며 따라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남조선혁명의 주인은 바로 자기자신이라는 자각을 가질 때에만 혁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고 혁명운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그리고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과업을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수행할 때에만 남조선혁명은 성과적으로 촉진될수 있을것이다.

남조선혁명을 남조선인민들이 주동이 되여 수행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반혁명세력을 궁지에 몰아넣고 우리 혁명에 대한 보다 많은 국제적동정과 지지를 얻게 하는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있는 애국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북조선의 침입〉으로 묘사하며 남조선 현위기의 원인이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있는듯이 떠벌이면서 요란한 반공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196페지)

오늘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새로운 침략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치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엄중한 전쟁도발행위를 매일과 같이 감행하고있다. 원쑤들은 제놈들의 이 범죄적책동을 가리우기 위하여 이른바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하여 소란스럽게 떠벌이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려고 파렴치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남조선혁명을 남조선인민들자신이 주동이 되여 수행할데 대한 방침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남침》의 구실밑에 감행하는 무력증강과 전쟁도발책동을 폭로분쇄하고 원쑤들을 피동에 몰아넣는 동시에 더욱 많은 국제적동정과 지지를 얻을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남조선혁명을 남조선인민들이 주동이 되여 수행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남조선혁명의 합법칙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그것은 남반부인민들의 혁명적책임성을 더욱 높이고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 남조선혁명을 더욱 힘있게 촉진시킬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

력량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원수들의 반혁명적공세를 제때에 물리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86 페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을 남조선인민들이 주동이 되여 수행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려야 한다. 혁명력량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남조선인민들자신이 주인이 되여 남조선혁명운동을 추진시킬수 있으며 나아가서 혁명을 폭발시키고 주권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력량을 마련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강화하며 그 두리에 로동자, 농민을 묶어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혁명투쟁에서 기본전선을 담당하는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려야만 그에 의거하여 강력한 정치적군대를 편성하고 반혁명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다.

남조선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여있으며 그 어떠한 시련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끝까지 지킬수 있는 혁명투사들로 통일혁명당조직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로동자, 농민들을 대중조직에 묶어세워 그들을 당주위에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당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것과 함께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층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야만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길수 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은 반제, 반파쑈 민주화의 기치밑에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각층 군중들과 개별적인사들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혁명력량은 원쑤들을 반대하는 실천투쟁의 불길속에서만 장성강화될수 있다. 오직 적극적투쟁을 통하여 대중을 끊임없이 각성시키고 조직화함으로써만 강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할수 있으며 혁명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일수 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군대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축적하여나아간다면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을것이다.

남조선인민이 주동이 되여 남조선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방침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자부심과 책임성을 높이게 하며 강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하고 남조선혁명을 승리의 길로 확고히 이끄는 강령적지침이며 전투적기치이다.

일본독점자본의 팽창과 해외침략책동

현 명 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미제의 종속적동맹자로서의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위험성을 낱낱이 분석하시면서 그 경제적기초로서의 일본독점자본의 반동성과 침략성을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군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공모결탁의 직접적산물이며 살찔대로 살찐 일본독점자본의 해외팽창야욕을 직접적으로 반영한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 내리신 일본독점자본의 반동성과 침략성에 대한 분석은 세계진보적인민들로 하여금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원칙적립장을 견지하며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발전시켜나가게 하는데서 강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　　*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날로 악랄화되는 해외침략책동의 경제적기초는 다름아닌 일본독점자본의 급속한 부활과 그 강화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독점자본은 이미 팽창될대로 팽창되였으며 다시 자기 지배권을 확립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팽창 정책은 바로 일본독점자본의 이러한 부활과 그 지배체제의 확립에 기초하여 실시되고있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99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일본독점자본은 국내에서 이미 팽창될대로 팽창되였으며 자기의 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일본독점자본주의는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을 계기로 제2차대전전의 생산수준을 회복하였으며 1960년대의 중공업과 화학공업의 장성 그리고 이른바 《미일경제협력》하에서의 《고도장성》정책을 통하여 급격히 비대하여졌다.

오늘 일본은 공업생산에서 제2차대전전수준을 여러배 능가하여 자본주의세계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일본독점자본의 이러한 급속한 팽창과정에서 생산과 자본은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고도로 집적, 집중되였다. 일본에서 생산과 자본이 어느 정도로 집적, 집중되였는가 하는것은 전체 회사의 0.2%도 못되는 소수의 대독점체들이 전체 회사들의 자본금총액의 70%이상을 장악하고있으며 선철, 자동차, 동, 알루미니움 등 중요공업제품생산의 70~90%가 해당부문의 5개독점체들에 집중되고있는 사실로써 명백히 알수 있다.

특히 지난날 일본을 전쟁에서 전쟁에로 내몬 일본제국주의의 경제적지반으로 복무하였고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의 피와 땀을 빨아먹고 살이 찐 구재벌들이 새로운 기초우에서 재빨리 되살아나 재집결, 재편성되였다. 미쯔비시, 미쯔이, 스미도모, 후지, 다이이찌, 산와 등 구재벌들이 일본의 금융계와 산업계에서 지배적지위를 확립하고 그 지반을 더욱더 강화하고있다.

대독점체들간의 합병과 재편성이 촉

진됨으로써 중요산업부문들이 한두개 또는 두세개의 최대독점기업체들의 통제하에 들어가고있다.

또한 생산과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토대로 하여 거대한 금융자본이 형성되고 그 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되고있다.

경제에서의 독점의 지배는 필연적으로 그의 정치적지배를 동반하지 않을수 없다. 독점자본주의는 점차 소수독점이 국가기구를 틀어쥐고 좌지우지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에로 나아간다. 일본독점자본가들은 일본반동정부관료들과 결탁되여있으며 일본반동정부는 독점자본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도구로 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이 이와 같이 빨리 부활팽창되고 그 지배체제를 확립할수 있은것은 무엇보다도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을 위한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육성정책과 직접 관련된다.

미제는 2차대전후 세계제패계획을 실현하며 아세아에서 급격히 장성강화되는 혁명력량을 말살하고 아세아에 대한 침략적목적을 이루어보기 위하여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재무장시키는 정책에 매달렸다. 놈들은 일본의 군사전략적위치, 발전된 공업력, 야수적인 침략경험 그리고 풍부한 인적자원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저들의 손아래동맹자로,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육성하여왔다.

이로부터 미제는 일본독점재벌에게 가해졌던 형식적인 《해체》조치마저 재빨리 해제하였으며 그리하여 일본을 침략전쟁에로 내몰았던 일본독점재벌들은 고스란히 보존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2차대전행정에서 벌써 일본의 군사적잠재력을 아세아침략에 효과적으로 써먹으려는 전략계획으로부터 출발하여 일본에 대한 폭격을 주로 주민지역과 경공업시설들에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의 군수산업과 관련되는 중공업부문은 크게 파괴되지 않았다. 대전후 일본의 중공업부문의 설비능력은 전전에 비하여 의연히 높았다. 1945년 8월에 일본의 수력발전설비는 전전의 1.59배, 화력발전설비는 1.3배, 제련설비는 1.87배, 강재압연설비는 1.18배, 기계공업설비는 2.45배였다.

종속적동맹자로서의 일본군국주의부활정책에 따라 미제는 대전후 일본반동정부에 체계적으로 막대한 《원조》를 주었으며 그에 기초하여 일본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급속히 강화하여왔다.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2차대전직후부터 1962년까지 일본에 대한 미제의 각종 《원조》, 투자, 차관은 무려 60억딸라를 넘었으며 여기에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시기와 그후 계속된 《특별수요》까지 합치면 실로 백수십억딸라에 이른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일본에 쏟아부은 이 방대한 자금은 일본독점자본에 있어서 《황금의 소나기》로 되였으며 그것은 독점자본의 부활과 팽창 그 지배체제의 강화를 위한 《수혈》의 역할을 놀았다.

일본독점자본은 특히 미제의 군사보급기지화정책에 적극 추종하고 협력하여나섬으로써 군수산업을 급속히 발전시켰으며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빨리 비대해졌다.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특별수요》는 군수산업을 골간으로 하는 일본공업에 일대 《호경기》를 가져다주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하여 미제침략군에게 각종 무기와 군수품을 생산공급하며 비행기, 함선 등을 수리하여준 대가로 수십억딸라를 벌었으며 공업생산을 70%나 높였다. 놈들은 조선전쟁이후에도 계속되는 미제의 《특별수요》에 의하여 막대한 딸라를 벌어들였으며 군수산업의 기초로 되는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급격히 발전시켰다. 1950년부터 1961년까지 기간에 미제는 11억딸라의 《군사원조》를 제공한외에 1950년부터 1962년 8월까지 《특별수요》로 근 70억딸라를 일본독점체들에게 넘겨주었다.

일본의 《죽음의 장사군》들은 윁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을 돈벌이를 위한 또하나의 《절호》의 기회로

삼으면서 미제침략군에 대한 막대한 군수물자조달을 통하여 더욱 배를 불리고 살이 쪘다.

이와 같이 일본독점자본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아세아인민들의 피의 대가로 비대해졌다. 이것은 일본독점자본의 극악한 침략적본성과 일본공업의 강한 군사적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일본독점자본의 팽창은 이와 함께 일본의 광범한 근로대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야수적인 수탈에 의하여 더욱 빨리 촉진되였다.

일본독점자본가들은 《근대적》인 착취방법과 원시적인 착취방법을 결합한 이른바 일본식 《합리화》를 강행하여 일본근로자들을 야만적으로 착취하였으며 각종 세금과 료금 등을 통하여 인민대중에 대한 수탈을 감행하였다.

일본독점자본은 이른바 《미일경제협력》의 이름밑에 강행적으로 추진된 미제의 자본과 기술, 원료의 도입 그리고 인민대중에 대한 야수적인 수탈에 기초하여 설비투자를 대대적으로 강화하였으며 《국제경쟁력》을 급격히 높이였다.

실로 2차대전후 일본의 투자장성률은 미국의 3.5배가 더 되였다. 특히 군수산업의 기초인 중공업과 화학공업에 대한 설비투자는 1955~1961년에 이르는 7년동안에 8.5배로 늘어났다.

이 모든것은 일본독점자본이 미제의 《원조》와 적극적인 비호 그리고 미제의 조선침략전쟁과 웰남전쟁을 통하여, 일본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에 대한 야수적인 착취와 략탈에 기초하여 치부하였으며 오늘의 군국주의의 경제적기초를 축성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미제의 비호밑에 아세아인민과 일본로동계급의 피와 땀을 빨아먹고 비대하여진 일본독점자본은 오늘 《과잉》생산과 자체의 치명적인 취약성으로 하여 더는 국내에서 그대로 나아갈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허덕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독점자본이 국내에서 팽창하게 되면 해외침략의 길로 나간다는것은 제국주의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입니다.》
(우와 같은 책, 499페지)

팽창된 생산과 협소한 시장간의 모순은 현재 일본경제에서 가장 날카로운 문제로 나서고있다.

이미 1960~1961년경부터 방직공업, 강철공업 부문에서 시작된 《과잉》생산위기는 1963년부터는 자동차공업, 합성섬유, 전기기계, 특수강 공업부문에까지 확대되여 전체 산업부문을 휩쓸고있다. 판로를 잃은 제품의 체화량은 날을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안정된 시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더는 대량생산을 계속하기 어려운 막다른 형편에 처하여있다.

일본경제에서 나타나고있는 엄중한 《과잉》생산의 확대는 경쟁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대대적인 파산선풍을 불러일으키고있는데 그것은 납세부담의 증대와 각종 금융적조치를 통한 일본반동정부의 계획적인 《정리》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고있다. 이러한 심각한 파산선풍은 지어 대기업체들에까지도 파급되고있다.

일본에서의 상품의 대량적인 체화, 기업의 대대적인 파산은 근로인민에 대한 독점자본의 가혹한 착취와 수탈로 인하여 구매력이 계통적으로 낮아지고있는 실정에서 더욱더 파국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최근년간 설비투자를 맹목적으로 강화한 결과 고정자본투하의 확대도 더는 기대할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거기에다 일본에 대한 미국독점자본의 자본투하와 대량적인 상품투입은 그렇지 않아도 좁은 일본의 국내시장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있다.

대량생산과 관련한 원료문제역시 매우 첨예화되고있다. 원래 일본은 대량생산을 위한 자체의 튼튼한 원료원천지를 가지고있지 못하다. 이것은 일본독점자본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취약성의

하나이다. 더우기 최근년간 중공업과 화학공업이 빨리 장성함에 따라 원료원천을 확보하는 문제는 더욱더 날카롭게 나서고있다. 일본공업은 원료문제를 거의나 해외에 의존하고있는데 중공업의 원료인 철광석은 96%, 원유는 99%, 보키사이트와 니켈은 100%, 소금은 80%를 해외에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형편에서 안정된 시장과 보장된 원료원천지를 해결할데 대한 일본독점자본의 갈망은 광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일본독점자본가놈들과 반동지배층은 닥쳐오는 파국적인 공황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있으며 그 돌파구를 찾기에 모대기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들은 파국적인 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더욱더 경제의 군사화와 해외팽창정책에 미쳐날뛰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저들의 경제적리권을 보호하며 경제적세력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침략을 위한 준비를 공공연히 서두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정책>과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정책의 요구에 따라 지금 일본에서는 침략무력이 대대적으로 증강되고있습니다. 아세아를 지배하려는 극히 야심적인 계획밑에 추진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무장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97페지)

력사적으로 큰놈을 등에 업고 《횡재》하는데 버릇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이른바 《새로운 아세아정책》에 편승하여 제놈들의 해외팽창의 야욕을 실현하려고 망상하면서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적준비를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다.

해외팽창에 열이 오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공동방위》라는 간판밑에 《미일공동작전체계》를 확립하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력량을 반대하기 위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국내체제의 파쑈화에 더욱더 광분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무력인 《자위대》는 이미 30만에 이르는 병력으로 자라났으며 이것을 골간으로 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백만의 군대를 편성동원할수 있게 되여있다.

일본반동지배층들은 《경제대국》으로서 《국력에 상응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느니, 일본이 아세아의 《주역》을 맡아야 한다느니 하고 떠벌이면서 팽창주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증강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놈들이 침략무력증강에 얼마나 서두르고있는가 하는것은 이른바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1972~1976)기간에 군사비를 제3차《방위력정비계획》에 비하여 근 2.5배나 더 많이 투입할것을 예견하고있는데서 명백히 알수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렇게 힘으로써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며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미제와의 공동작전체계하에서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침략을 실현할수 있는 더욱 현대화된 공격무력으로 전변시킬것을 노리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무력증강을 서두르면서 오늘 신식민주의적수법에 의한 경제적침략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해외팽창의 더러운 야망밑에 <평화>의 탈, <원조자>의 탈을 쓰고 아무런 제재도 받음이 없이 세계의 모든곳을 마음대로 싸다니고있으며 동남아세아와 중근동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498페지)

국내에서 더는 그대로 살아갈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있는 일본독점자본은 《원조》요, 《협조》요 하는 따위의 허울좋은 탈을 쓰고 다른 나라에 대

한 경제적침투를 발광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남조선은 그 중요한 대상으로 되고있다.

범죄적인 《한일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남조선에 본격적으로 침투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리권과 시장을 손에 넣고 정치군사적침략의 지반을 더욱더 확대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청구권자금》, 《민간상업차관》, 직접투자와 합작투자 그리고 상품수출과 《기술협조》 등을 통하여 남조선의 산업부문은 물론, 상업류통, 금융, 기술 등 경제의 모든 부문에 깊이 뿌리를 박고있으며 남조선경제의 명맥을 틀어쥐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오늘 박정희괴뢰도당으로부터 정치경제적특권을 보장받고 사자본의 직접투자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일본독점체들은 《합영》이라는 간판밑에 남조선의 기간공업분야에 깊이 침투하고있으며 략탈적인 《보세가공》이라는 이름으로 남조선의 값싼 로동력을 무제한 착취하여 폭리를 얻고있다. 놈들은 지어 남조선의 포항이남의 넓은 지역을 일본의 《관서경제권》에 통합하여 이른바 《경제협력권》을 만들어내려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파렴치한 령토적야욕을 로골적으로 들고나온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참을수 없는 침략적망동이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독점자본의 침투는 강한 군사적성격을 띠고있으며 직접 군사침략적목적에 복무하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남조선에 침투한 일본독점자본의 80%이상이 남조선전지역을 군사행동지대로 만들기 위한 군사적대상들과 기타 군사적잠재력을 강화하는 부문에 집중되고있는 사실은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일본독점자본의 자본수출지로, 잉여상품시장으로 되였으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2중의 식민지로 전변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남조선뿐만아니라 아세아의 넓은 지역에 깊이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특히 동남아세아는 남조선과 함께 일본독점자본의 중요한 침투대상으로 되고있다. 놈들은 여기에서 남조선에서와 같은 그러한 정치경제적특권을 확보하며 그에 기초하여 동남아세아의 넓은 지역을 저들의 독점적인 식민지세력권으로 만들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무상증여》, 《배상지불》, 《정부차관》 등 먼저 국가자본을 들이밀어 략탈의 지반을 닦은 다음 점차 사자본을 대대적으로 직접 투자하는 단계에로 넘어가고있다.

대외《원조》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에 수출된 일본의 자본은 1960년부터 1969년 3월사이에 9배이상 늘어나 총 54억딸라에 이르렀다. 놈들은 《원조》의 탈을 쓰고 동남아세아나라들에서 중요산업부문에 깊이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막대한 재부를 략탈해가고있다.

이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대대적인 상품수출과 《기술협조》를 통하여 동남아세아나라들의 시장을 장악하고 공업기업소의 관리운영을 통제하고있다. 놈들은 이 지역에서 헐값으로 략탈하여간 원료를 가공하여 재수출함으로써 2중의 폭리를 얻고있다.

사또일파는 《1970년대의 10년을 아세아개발의 10년》으로 되게 하겠다고 떠벌이면서 아세아에 대한 전면적인 팽창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놈들이 떠벌이는 《아세아개발의 10년》이란 동남아세아의 경제를 일본공업의 부속물로 만들며 이 지역을 일본의 식민지세력권으로 완전히 전변시키려는 악랄한 침략계획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놈들은 이러한 목적밑에 신식민주의적침략정책의 집행도구인 《동남아세아경제개발각료회의》, 《동남아세아농업개발회의》, 《아세아개발은행》 등을 적극 리용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중근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도 경제적으로 침투하여 략탈을 감행하고있다.

교활하고 음흉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침략정책에 추종하여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뒤에서 적극 도와주면서도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굽신거리면서 아랍나라들과의 그 무슨 《친선》과 《중립》을 가장하여나서고있으며 경제적침략을 위한 길을 넓히려고 획책하고있다.

놈들은 같은 방법으로 아프리카나라들의 풍부한 원료자원과 값싼 로동력을 략탈착취하기 위하여 《사절단》, 《조사단》 등의 이름밑에 그 나라들에 빈번히 기여들고있으며 또한 라틴아메리카에도 략탈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이 모든것은 오늘 일본군국주의가 미제와 함께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자라났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착취자로, 략탈자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　　　*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세력이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고 해외팽창에 날뛰고있는 오늘 놈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임무이며 혁명위업의 절박한 요구이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평화애호력량들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위험성을 똑똑히 보고 그 침략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단호히 벌려야 한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한 고리이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위업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 결탁하여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며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고 미쳐날뛰고있으나 이것은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우와 같은 책, 500페지)

오늘의 아세아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며 마음대로 날치던 지난날의 아세아가 아니다. 어제날 식민지대륙이였던 아세아는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매장하는 국제혁명의 전초지로,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의 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도 성과적으로 때려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불패의 강력한 력량으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불의의 공격도 일격에 격파할수 있는 힘있는 경제력과 필승불패의 자위적국방력을 가지고있다.

만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도, 오늘의 엄연한 현실도 다 무시하고 미제와 한짝이 되여 계속 무모한 침략책동에 매달린다면 놈들은 더욱 비참한 운명을 면치못할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제아무리 날뛰여도 멸망의 운명에 처한 저들의 처지를 구원할수 없다.

근로자 제 5 호 (루계 362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2년 5월 1일　발 행 • 1972년 5월 5일

기—24107　값 50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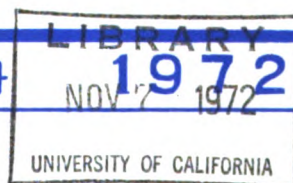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6 호

평 양 근로자사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 기 관 지

제 6 호 (363)

차 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과 하신 담화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5월 14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을 만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과 담화하시고 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담화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데 대하여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일본인민들과 함께 조일 두 나라 사이에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있으며 특히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재일조선공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옹호하고 도와주고있는데 대하여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당신들을 친우처럼 맞이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을 보내준데 대하여 단장선생과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단장선생께서는 소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단장선생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나와 우리 인민에 대하여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하여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일을 더 잘하여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였는데 물론 우리는 지난 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민들의 요구에 비해보면 아직 초보적인 성과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어려운 고비들을 기본적으로 넘기였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곤난은 있겠지만 자립적인 경제토대를 튼튼히 닦아놓았기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경제를 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있습니다.

당신들도 알겠지만 해방전에 우리 나라의 공업은 매우 락후하였으며 그것마저 지난 3년동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심하게 파괴되였습니다. 우리는 경제건설을 전후에 새로 시작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재더미우에서 도시와 농촌을 건설하였으며 공장을 일떠세웠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을 그리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로자들의 의식주문제 다시말하여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누구나 다 무료로 공부하고 무상으로 치료받을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놓았습니다. 이것은 새 사회 건설에서 우리가 이룩한 매우 귀중한 성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하게 될것입니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에 대하여서는 이미 신문에 많이 발표되였기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토대를 일정한 수준에 올려놓았기때문에 이제는 나라의 생산력을 한계단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으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점차 해방시킬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3대기술혁명과업을 6개년계획기간에 다 완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6개년계획이 수행되면 우리 나라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중로동과 경로동간의 차이, 공업로동과 농업로동간의 차이는 훨씬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이 사업은 아주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대외문화련락협회를 통하여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정세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국제정세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이미 다른 기회에 여러번 말하였기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국제정세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는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들에게는 불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몇개의 렬강들이 세계를 지배하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정의와 진보를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이 세계를 틀어쥐고나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민주공화국을 봉쇄하고 폭격을 강화하고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미제가 승승장구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멸망의 운명에 직면한 미제침략자들의 마지막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발악을 한다 하여도 웰남문제는 반드시 웰남인민의 의사대로 해결되지 결코 그놈들의 의도대로는 되지 않을것입니다.

오늘 제국주의렬강들사이에는 갈등이 격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의 내부모순도 극도로 첨예화되고있습니다.

지금 일본인민들은 미제를 추종하는 사또정부의 반동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일본인민들의 투쟁기세도 지난날보다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민들이 미제와 사또반동정부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마땅한 일이며 력사발전의 필연적결과입니다.

미국에서도 반동통치배들과 그들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신생독립국가대렬이 많이 늘어났으며 이 나라 인민들의 반제투쟁기세도 더욱 높아가고있습니다. 지

금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은 평화와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다시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압박을 받고있는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도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의 력량도 강화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제는 제국주의렬강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분할하여가지고 제멋대로 지배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인민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로 되여가고있습니다. 전반적정세는 날을 따라 혁명하는 인민들에게는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에게는 불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현국제정세를 총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도, 군, 리를 비롯한 행정단위조직에 대하여서와 지방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행정단위는 중앙, 도, 군, 리로 되여있습니다. 해방전과 해방직후 우리 나라의 행정단위는 5개 단위로 되여있었습니다. 다시말하여 중앙, 도, 군, 면, 리로 되여있었습니다. 행정단위에 중간다리가 하나 더 있으면 그만큼 우의 결정과 지시들이 아래에 빨리 내려가지 못하며 또 인민들의 의견이 우에 빨리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을 없앴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방행정단위에서 군이 중심적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도는 중앙과 군사이에서 중간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인민들과 더잘 접근하기 위하여 군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방정권기관에는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인민회의는 주권기관으로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표인 대의원들로 구성됩니다. 리인민회의는 리대의원들로, 군인민회의는 군대의원들로, 도인민회의는 도대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인민위원회는 인민회의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인민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인민회의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보고합니다.

우리의 인민정권기관은 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민정권기관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정권기관은 인민의 충복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았습니다. 다시말하면 우리의 인민정권기관은 인민의 심부름군입니다.

인민들이 정권을 세웠으면 그 정권은 말그대로 인민의 정권이 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어떤 개별적인 통치자의 정권이 되여서는 안됩니다. 인민정권이 참다운 인민의 정권으로 되자면 인민들속에서 선거된 인민의 대표들이 인민의 리익에 맞게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속에서 선거된 대표들이 인민의 의사에 맞지 않게 일한다면 그런 정권은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험과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의 경험을 보면 인민에 의하여 선거된 정권기관일군들이 관료주의를 부리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이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인민정권기관이 인민의 충복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일군들속에서 관료주의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나올수 있습니다. 낡은 사상잔재에 물젖은 사람들은 위원장자리에 올라앉으면 마치도 벼슬자리나 얻고 관

리가 된것처럼 생각하면서 관료주의를 부립니다. 또한 주관주의로부터도 관료주의가 생깁니다. 일부 일군들은 자기로서는 일을 잘하느라고 하지만 아래실정을 알지 못하다보니 인민들의 리익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는 일군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경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집권당에서 관료주의를 부릴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늘 강조하고있으며 지방정권기관이나 중앙정권기관이나 할것없이 모든 정권기관들에서 관료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우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지방정권기관들의 중요한 임무는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것입니다.

중요한 경제기관들에 대한 지도는 해당 성들에서 직접 하기때문에 지방정권기관들은 주로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을 책임적으로 지도하고있습니다.

지방정권기관들은 무엇보다먼저 상업기관을 담당지도합니다.

상업기관은 인민들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직접 책임지고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의 상업기관은 자본주의상업기관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본주의상업기관은 리윤추구를 위한 기관이지만 우리의 상업기관은 완전히 주민들에 대한 공급기관입니다. 우리의 상업기관들은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책임지고있으며 인민들에게 상품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삼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상품은 유일가격에 의하여 판매됩니다. 우리는 가격의 일원화를 실시함으로써 상업기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물건값을 높이거나 낮추지 못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공업상품의 가격은 도시나 산골이나 할것없이 다 같습니다.

례를 들어 평양에서 성냥 한곽의 값이 1전이라면 백두산밑에 있는 산간마을에서도 1전입니다. 지난날 개인상인들은 평양에서 성냥 한곽에 1전을 받았다면 산골에 가서는 2~3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어디서나 물건값이 같은 나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도시에 비하여 산간지방에서는 물건값이 비쌉니다. 그렇기때문에 도시와 산간지방간의 생활상 차이가 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가격의 일원화가 실시됨으로써 도시와 산간지방간의 생활상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상품분배도 골고루 하고있습니다. 중앙상업기관에서는 전국적인 상품공급계획을 세우고 도들에 상품을 내려보내며 도에서는 군들에 내려보내고 군에서는 상점들에 상품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지방들에서 자기 지방에 필요한 상품을 더 요구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더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 상업에서는 상품에 대한 주문제도 실시하고있습니다. 례를 들어 어떤 주민이 상품을 주문하면 상업기관에서는 그것을 책임적으로 해결하여줍니다.

지방정권기관들은 상업기관들이 우리 나라 상업제도의 요구에 맞게 자기 사업을 원만히 하도록 지도합니다.

지방정권기관들은 도시경영사업도 맡아봅니다.

국가와 전체 인민의 공동재산인 건물들과 시설물들을 제때에 수리하고 관리하는것은 인민위원회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도시경영사업을 잘하여야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도시경영사업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보장합니다. 큰 규모의것은 중앙예산에 포함시켜 하고 작은 규모의것은 지방예산에 포함시켜 합니다.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기업소들과 철도, 도로, 항만 같은 큰 건설은 중앙예산에 포함시켜 하고 그밖의 작은 규모의 건설은 지방예산에 포함시켜 합니다. 주택건설은 대부분 지방예산으로 합니다.

지방정권기관들은 또한 교육사업을 지도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전국적의의를 가지는 학교들도 있고 지방적성격을 띤 학교들도 있습니다.

대학같은것을 보면 전국적범위에서 소요되는 인재를 키워내는 종합대학, 공업대학, 화학공업대학, 기계공업대학, 농업대학, 의학대학과 같은 대학들도 있고 지방적범위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도들에는 자기 도에 필요한 교육일군들을 키워내는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양원대학이 있습니다. 사범대학에서는 중학교 교원들을 키워내고 교원대학에서는 인민학교 교원들을 키워내며 교양원대학에서는 유치원교양원들을 키워냅니다. 또한 도마다 농업부문간부들을 키워내는 농업대학과 보건부문간부들을 키워내는 의학대학이 있습니다. 도적범위에서 필요되는 간부들을 키워내는 대학들은 주로 도에서 책임적으로 지도관리합니다.

중학교, 인민학교, 유치원, 탁아소에 대한 직접적지도관리는 군인민위원회에서 맡아합니다.

인민위원회는 주로 학교건설문제, 학생추천문제, 교원선발배치문제를 봅니다.

학교들에서의 교육은 해당 성의 유일강령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그러나 지방의 특성에 따라 일부 과목들을 더 첨가할수도 있습니다. 인민위원회는 각급 학교들에서 유일강령에 따라 교육사업이 정확히 진행되도록 지도합니다.

지방정권기관들에서는 보건사업도 맡아봅니다.

우리 나라의 보건제도는 무상치료제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방의학적방침을 실시하고있으며 이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의사담당구역제같은것도 실시하고있습니다. 의사담당구역제라는것은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할당하여 예방치료사업을 하는것입니다. 의사들은 자기가 맡은 구역에 늘 나가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사업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리마다 진료소가 있고 군마다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군병원을 종합병원으로 만들고 리진료소를 병원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들에도 병원을 꾸리려고 합니다.

지방정권기관들에서는 당과 정부가 내놓은 이 모든 보건정책을 직접 집행합니다.

지방정권기관들은 지방산업공장들도 지도합니다.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자기 지방에 있는 원료를 가공하는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례를 들어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자기 지방에서 나는 과일, 남새, 물고기같은것을 가공하며 자기 지방의 특산물도 가공합니다. 장, 기름같은 부식물은 다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합니다.

그리고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다른 지방의 원료를 가져다 가공하기도 합니다.

지방산업공장들에서 만든 제품은 주로 자기 지방에 공급하며 일부는 도시와 다른 지방에도 공급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지방정권기관들은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는 기관으로 되고있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지방정권기관을 인민들의 심부름군이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이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인민들의 생활에서 표현되며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인민들이 내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교육체계와 교육내용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능력있는 일군들을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회제도를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능력있는 일군들이 없으면 그 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으며 지켜낼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당이 학습하고 전민이 학습하고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투쟁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학습하고있다고 말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간부들부터 학습에서 이신작칙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을 간부들의 학습날로 정하고 모든 간부들이 정상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간부들은 토요학습외에 로임을 받으면서 1년에 1개월 또는 6개월씩 각급 학교에 가서 의무적으로 공부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중앙에는 고급당학교와 인민경제대학이 있고 도에는 공산대학이 있으며 군에는 군당학교가 있는데 도간부들과 군책임일군들은 고급당학교나 인민경제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군간부들은 도공산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리간부들은 군당학교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도와 군 책임일군들가운데서 수준이 어린 일군들은 고급당학교와 인민경제대학의 1년반 또는 3년반에 가서 공부합니다.

간부들이 학습하는 내용은 여러가지입니다. 간부들은 자기의 희망에 따라 정치학습을 하고싶으면 정치학습을 하고 기술과 경제관리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싶으면 그에 대한 학습을 합니다. 학습에 필요한 조건은 국가적으로 다 보장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또한 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직장장학교와 작업반장학교가 있으며 공장들에는 기능공을 키우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대학과 공장고등기술학교가 있으며 대학 통신학부와 야간학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중학교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단계를 거치지 못한 뒤떨어진 나라가 빨리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의 지식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국가의 혜택에 의하여 다 중학교이상 나왔지만 45~50살이상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방전에 공부를 못하여 수준이 매우 어리였습니다. 이들의 수준을 하루빨리 높이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었으며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잘 키울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여도 부모들이 집에서 나쁜 영향을 주면 그들도 자연히 뒤떨어지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단계에서 전체 인민이 문맹을 퇴치하도록 하였으며 다음단계

에서는 인민학교졸업수준의 일반지식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리에 근로자중학교를 내오고 지난날 중학교를 나오지 못한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을 중학교졸업정도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하고있습니다. 이 사업도 자금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기간 우리는 전체 인민들이 다 공부하도록 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새세대들의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교육체계에 대하여서는 그동안 당신들이 학교들의 참관을 통하여 잘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이르는곳마다에 학교가 있으며 우리는 새세대들을 다 학교에서 무료로 공부시키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에서 학교교육비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 나라의 국가예산에서 학교교육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학교들에서는 청소년학생들에게 선진과학기술을 가르치고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모르고서는 국가, 경제문화기관들을 잘 관리운영할수 없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청소년학생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할데 대한 구호를 내놓고 그들속에서 기술을 배우는 운동을 널리 벌리고있습니다.

청소년학생들속에서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운동이 널리 벌어진 결과 이 분야에서도 큰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지난날에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공장에 들어가 1년이나 1년반동안 견습공으로 일해야 기능공이 되였지만 지금은 공장에 들어가자 인차 기능공이 됩니다. 그리하여 공업이 발전하는데 따라 기능공대렬을 원만히 보충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학교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있습니다. 학교교육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다른 나라의것을 기계적으로 본따는것이 아니라 우리의것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날 우리 사람들이 교조주의를 하다보니 적지 않은 편향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날 예술부문일군들은 음악같은것도 우리 나라의 민족음악을 발전시키는데는 관심을 적게 돌리고 서양음악에 많이 치중하였습니다. 음악은 어디까지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하며 누구나 다 리해할수 있고 부를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예술을 위한 예술을 발전시켜서는 아무런 의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예술, 인민들이 좋아하는 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강하게 내세우고있습니다. 우리는 가사를 하나 써도 누구나 다 알아볼수 있는 가사를 쓰며 노래를 하나 지어도 누구나 다 부를수 있는 노래를 짓도록 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이 혁명가극 《피바다》를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극은 아주 통속적입니다.

문학도 역시 문학을 위한 문학이 되여서는 안되며 인민을 교양하기 위한 문학으로 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통속적이고 알기 쉽고 교양적가치가 있는 작품을 써야 합니다.

지난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하여 남이 리해하기 힘든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남이 리해하기 어려운 글을 써야 유식하고 고상한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며 또 그런 글은 고상하다고 볼수도 없는것입니다. 누구나 다 리해할수 있게 쓴 글이라야 잘된 글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수록 인민들이 리해하기 헐한 글을 많이 쓸것을 늘 강조하고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도 주체를 세우고 자기 나라의 자원을 잘 리용하는 문제부터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일군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에 풍부한 무연탄을 더잘 리용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석회석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후풍토에 맞는 종자들을 만들어내겠는가 하는것과 같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고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모든 자원을 잘 리용할줄 아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주체가 선 참다운 과학자, 기술자라고 인정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운 결과 오늘 우리의 공업은 기본적으로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자립적인 공업으로 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공업은 아주 견고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은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탐구에 열중하도록 하며 늘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교육하고있습니다.

친우들사이기때문에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날 우리 사람들이 주체적인 교육을 받기전에는 키가 큰 구라파사람들과 배구나 축구 경기를 해서는 이길수 없다고 하면서 신심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주체적인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키가 큰 사람들과 대전하여도 얼마든지 이길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들한테 이길수 있는 전술을 짤수 있게 되였습니다. 체육경기에서 이기는가 지는가 하는것은 누가 전술을 잘 짜는가 못짜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도 전술을 잘 짜면 체육경기에서 얼마든지 이길수 있는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학생들에게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교양한 결과 지금 여러 부문들에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학교교육에서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시킬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우고있습니다.

학교들에서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시켜야 선진 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능력있는 일군들을 많이 키워낼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만 시키고 생산로동을 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현실과 떨어지게 되며 《글뒤주》로 밖에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들에서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학생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생산로동에 적극 참가하여 배운지식을 공고히 할뿐아니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기계설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도 잘하고있습니다. 광산금속대학 학생들은 광산에 나가 생산로동에 직접 참가하면서 우리 나라 광산의 실정에 맞는 광산기계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농업대학 학생들은 농촌에 나가 농민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나라의 조건에 맞는 농기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농기계들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벼모내는 기계를 일본에서도 사다 써보았고 이딸리아와 프랑스에서도 사다 써보았는데 다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대학 학생들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좋은 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하기 위하여 머리를 많이 쓰고있습니다.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시키는것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는데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많은 학생들을 다른 나라에 류학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 기계적으로 그 나라의 식대로 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생산로동에 직접 참가하는 과정에 다른 나라 책들에 씌여있는것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것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다른 나라의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로동에 직접 참가하면서 공부한 대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류학하고 온 학생들보다 훨씬 쓸모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시키는것은 청소년들속에서 주체를 세우는데서도 큰 의의가 있고 자기 인민을 위하여 더잘 복무하도록 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들에서는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시키는것과 함께 학생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육교양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재부는 로동에 의하여 창조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로동을 사랑하도록 교양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술혁명을 다그쳐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면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는 문제는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때든지 로동 그자체는 없어질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들속에서 로동하기를 싫어하는 사상이 조장된다면 사회의 재부를 늘일수 없으며 결국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우리는 학교들에서 학생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의 청소년학생들은 로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며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는것을 가장 영예롭게 여기고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교양하는데도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교양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산과 건설을 많이 하여놓는다 하여도 그것을 되는대로 거두고 못쓰게 만들며 랑비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새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버릇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들에서 《위생근위대》와 《록화근위대》 같은것을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와 사회에 보탬을 주는 《좋은일하기운동》을 널리 벌리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학생들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책상과 걸상이 못쓰게 되면 그것을 인차 자기 손으로 고치며 교실을 알뜰히 거두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자가 그 중학교에 가서 교실을 구경하다 글을 좀 쓰려고 연필을 깎았는데 그것을 본 한 학생이 그에

게 달려가 두 손바닥으로 떨어지는것을 받았습니다. 무심히 연필을 깎던 기자는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옳바로 교육교양하려면 교원들자신부터 선진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합니다.

교원은 그저 학생들에게 글이나 가르치는 월급쟁이가 아니라 앞날의 사회주의 건설자들을 키워내는 혁명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원들속에서 선진과학과 기술을 소유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이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과 일본인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는가고 문의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은 일본인민들과 단결하여 공동투쟁을 잘하고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여야 할 분야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일본땅에서 살고있는것만큼 일본인민들과 공동투쟁을 하지 않고서는 투쟁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일조선공민들이 일본인민들과의 공동투쟁을 잘 전개하여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그들의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을것을 바랍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미제국주의에 추종하는 반동들을 반대하며 일본군국주의재생을 반대하는 인민들과 진보적민주인사들의 투쟁이 더욱 높아지고있습니다. 일본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은 곧 조선인민에 대한 지지로 되며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에 대한 지지로 됩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조선인민에 대하여 친선적이며 우호적으로 대하는 진보적민주인사들과 우리를 동정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매우 기쁘게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일본에서는 조선인민과의 친선을 위한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이 조직되였으며 우리 나라와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운동이 널리 벌어지고있습니다. 이것은 재일조선공민들의 투쟁에 대한 커다란 지지와 고무로 됩니다.

일본인민들과 일본의 광범한 민주세력이 더욱더 장성하고 그 힘이 날을 따라 강화되고있는것만큼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의 투쟁은 결코 고립되여있지 않습니다. 재일조선공민들의 투쟁은 제국주의와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일본인민들의 정당한 투쟁과 결합되여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본반동세력이 재일조선공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여러가지 방해책동을 하고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은 앞으로도 일본인민들과 공동투쟁을 잘하여나감으로써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민족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될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공민들과 일본의 광범한 민주세력이 힘을 합쳐 공동투쟁을 잘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사이의 국가관계도 개선될수 있으며 두 나라 사이의 선린관계가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면하게 두 나라 사이에 인사래왕만 실현되여도 우리 인민들과 일본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는 더욱 발전될것입니다.

이번에 아스까다 이찌오선생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혁신시장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것은 우리 인민들과 일본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가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좋은 징조로 된다고 봅니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외무성에서는 조선에서 예술단을 보낼 용의가 있다면 그것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좋은 징조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리계백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조국을 방문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것도 역시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발전에서 큰 전진으로 됩니다.

조선속담에 《시작이 절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조일 두 나라 사이에 인사래왕이 시작된것만큼 앞으로 호상 래왕과 접촉은 더 많아질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리해는 더 깊어질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발전전도는 매우 명랑하지 조금도 비관할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돌아가면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총련의 여러 간부들과 전체 재일조선공민들에게 우리의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리다위원장과 아까마쯔부위원장을 비롯한 일본사회당 간부들과 구노쥬지선생, 미노베선생, 조선에 대하여 동정을 가지고있는 모든 학자들과 진보적인사들, 전체 일본인민들에게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보내는 나의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에 왔던 《아사히신붕》 편집국장 고또선생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 대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있는 일본언론계의 진보적인사들에게도 나의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의 도시들과 일본의 도시들 특히 혁신시장들이 사업하고 있는 도시들사이에 형제도시의 관계를 맺자고 하였는데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도시들과 일본도시들사이에 형제도시의 관계를 맺으면 조일 두 나라 인민들은 서로 더잘 리해할수 있으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도시들과 일본의 도시들사이에 형제도시의 관계를 맺자는 당신들의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어느 도시와 어느 도시사이에 형제관계를 맺겠는가 하는것은 대외문화련락협회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 나라와 일본의 지역들사이에 경제교류, 문화교류, 기술교류를 하자고 제기하였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는 철광석이 없어 오스트랄리아와 남미주에까지 가서 사온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는 철광석이 무진장합니다. 최근 우리 나라 탐사부문일군들은 서부지구와 북부내륙지구에서 수십억톤의 매장량을 가진 철광석산지들을 새로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이르는곳마다에 철광석이 많이 매장되여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나라에 풍부한 철광석을 얼마든지 일본에 팔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사와야 할것도 많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목화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갈, 나무, 석회석을 가지고 섬유를 생산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원유를 가지고 화학섬유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러한 화학섬유

공장설비를 자체로 생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설비를 일본에서 사오면 좋겠지만 아직 일본과 무역관계가 없기때문에 우리는 할수없이 프랑스나 영국같은 먼곳에 가서 사오고있습니다.

당신들이 수산업분야에서도 교류를 할수 있지 않겠는가고 하였는데 그것도 할수 있다고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한해에 수산물을 거의 100만톤씩 생산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인구에 비해보면 적지않은 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산물가공을 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과 수산물가공분야에서도 기술교류를 하는것이 좋으리라고봅니다.

당신들이 두 나라 사이에 농업경험을 서로 나눌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제의하였는데 그것은 아주 흥미있는 문제입니다. 농업분야에서도 우리 두 나라는 서로 배워야 할 문제들이 적지않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농업경험을 교환하면서 서로 배우는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의 학교들과 일본의 학교들사이에도 교류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학교들과 일본의 학교들사이에 친선관계를 맺고 학생들이 서로 편지와 작품같은것도 교환하고 거래도 하면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조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기때문에 내가 그를 대신하여 말할수는 없지만 아마 그도 당신들의 초청에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끼나와의 반환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우리보다 당신들이 더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끼나와가 진실로 일본인민들에게 돌아오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끼나와에 군사기지를 그대로 두고 침략전쟁에 리용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오끼나와가 일본인민들에게 돌아오는것이 아니며 아무런 의의도 없는것입니다.

우리는 미제가 오끼나와를 일본에 돌려준다는것이 일본인민들과 아세아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사또와 닉손사이의 밀담에서 꾸며진 요술이 아닌가고 봅니다. 당신들도 아는바와 같이 지금 닉손은 세계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요술을 많이 피우고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오끼나와반환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닉손과 사또가 무슨 요술을 피우고있는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요술을 피우는가 하는것은 좀더 지내보아야 알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끼나와가 진실로 일본인민의 손에 돌아와야 하며 일본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끼나와가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군사기지로 리용되여서는 절대로 안될것입니다.

일본문제에 대하여서는 일본인민들이 더잘 알기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일본인민들의 립장과 일본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오끼나와반환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우리는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기만적인 오끼나와반환책동을 반대하는 당신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당신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대체로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하신 담화

☆ ☆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5월 26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미국 《뉴욕타임스》지 부주필 해리슨 이. 솔스베리와 그와 함께 온 이 신문사 도꾜지국장 죤 암·리를 만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과 담화하시고 그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담화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미국기자들과 인사를 나누신후 그들이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불편한점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뉴욕타임스》지 부주필 솔스베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자기들을 만나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 나라에 온후 좋은 보살핌을 받고있으며 아무러한 불편도 느끼지 않고있다고 말씀올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 인민이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감정이 매우 높은것을 보고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있다는데 대단히 불쾌한가고 물으시였다.

솔스베리는 조선인민의 반미감정이 높은데 대하여 아무 불만도 없으며 조선에 오기전부터 조선인민의 대미감정에 대하여는 알고있었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러면 좋다고 하시고 담화를 계속하시였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미국에 대한 조선인민의 감정이 어떤가 하는것을 직접 보고 느끼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한 조선인민의 감정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의 반미감정은 매우 높습니다. 조선인민의 반미감정이 높은것을 보고 미국사람인 당신들은 불쾌하였으리라고 봅니다.

조선인민이 미국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있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제는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침략자입니다. 자기 나라를 침략하는 침략자에 대하여 인민들이 좋은 감정을 가질수야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한 조선인민의 감정이 더욱 나빠진것은 특히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이 미제에 의하여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하였기때문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은 미제의 야만적침략행위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조선사람치고 조국해방전쟁에서 피해를 보지 않은 사

람은 한사람도 없을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가족이 피해를 받아도 받고 친척, 친우가 피해를 받아도 받고 어쨌든 조선사람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피해를 받았습니다.

평양시만 놓고보더라도 미제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말미암아 집은 몇채밖에 남지 않고 온 도시가 완전히 재더미로 되였으며 수만명의 인민들이 무참히 죽었습니다. 원산과 함흥을 비롯한 다른 도시들의 형편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의 마지막시기에는 농촌까지도 다 재더미로 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제에 의하여 혹심한 피해를 당한 조선인민이 미국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질수 없는것입니다.

미국은 정전후에도 우리 나라에 대하여 계속 비우호적으로 대하여왔습니다.

정전협정에는 전후 인차 쌍방이 정치회의를 열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지적되여있으나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오늘까지 정전상태가 계속되고있습니다. 아직 어떠한 평화협정도 체결되지 못하였으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은 진척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늘 인민들에게 세대는 바뀌고있으나 우리의 투쟁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있습니다.

미국당국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행위를 계속하여왔습니다. 《푸에블로》호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한 공중정찰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사실상 늘 전쟁상태에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전후에도 사실상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우리는 국방건설을 강화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지난날 국방건설에 많은 자금을 돌리다보니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서 일정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것도 미국때문이라고 인정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에 의하여 큰 피해를 받았기때문에 강한 반미감정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전후에도 미제가 우리 나라에 대하여 비우호적으로 대하며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침략행위를 계속하기때문에 미국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있는것입니다.

정세가 긴장한 조건에서 우리는 전쟁준비를 계속 강화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준비를 한다는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미제가 다시 우리 나라에 달려들지 않으리라는것을 누가 보증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신들도 보증할수 없고 나도 보증할수 없으며 그 누구도 보증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전쟁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준비를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전체 인민이 미제를 미워하도록 교양하는것입니다. 전체 인민을 미제를 미워하는 사상으로 교양하지 않고서는 기술적우세를 자랑하는 미제와 싸워이길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인민들속에서 미제를 미워할데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인민들로 하여금 미제를 미워하도록 교양하는것은 마땅한

일이며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온다고 하여 인민들 속에서 진행하여오던 반미교양을 중지하거나 인민들을 반미사상으로 교양한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야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감정이 나쁜데 대하여 당신들이 리해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당신들이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가 개변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많이 만들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들이 제기한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과의 관계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조선과 미국사이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종식시키려면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는가 하는것을 물었는데 우리 견해에 의하면 그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정부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정책을 개변한다면 우리도 미국에 대한 정책을 바꿀것입니다.

미국정부가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무엇보다먼저 조선의 통일문제를 조선사람들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20년이 가까와오는데 아직까지 미군이 《유엔군》의 간판을 가지고 남조선에 주둔해있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남침》할가봐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군이 남조선에 머물러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남침》할 의도가 없다는것을 이미 여러번 천명하였습니다. 이제는 미군이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경찰의 역할을 놀고있는 사태를 끝장낼 때가 되였습니다.

미국정부가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것은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키고있는데 있을뿐아니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도와주고있는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도와주고있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1969년에 발표된 닉슨과 사또사이의 공동콤뮤니케를 보면 미국이 일본군국주의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조선침략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며 그들이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된후 사또는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겠다는것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정부의 비우호적인 태도입니다.

유엔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미국정부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부당한 태도를 취하고있습니다. 미국정부는 남조선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조건부도 없이 유엔에 초청할것을 주장하면서 우리를 유엔에 초청하는데서는 조건을 붙이고있습니다. 그들은 마치도 우리가 유엔헌장을 존중하지 않는듯이 말하고있는데 우리는 유엔헌장을 위반한 일도 없고 무시한적도 없습니다. 미국은 유엔이 조선문제에 대하여 부당한 결정을 채택한것을 우리가 인정하여야 우리를 유엔총회에 참가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조건부로 어떻게 유엔총회에 참가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미국

은 이른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사촉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허위날조로 가득찬 년례보고를 만들어 우리를 반대하는 비우호적인 선전을 계속하고있습니다.

미국정부가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계속 비우호적인 정책을 쓰기때문에 조선과 미국간의 관계는 개선되지 못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면 조선사람들이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도록 우리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그만두고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미군을 철거하며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민족의 분렬을 조장할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통일을 지지하여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를 분렬시키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미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좋아질수 없습니다. 지금 조선반도가 두 부분으로 갈라져있는데 남조선에서 미군이 나가고 외세의 간섭이 없으면 조선사람끼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공통점을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나가면 조선사람끼리 쉽게 화해할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반미감정도 점차 풀릴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여 만리장성을 돌아보면서 나라들을 갈라놓는 장벽을 허물어야 되겠다고 하였는데 만일 미국정부가 이 말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먼저 조선에서부터 행동에 옮겨야 할것입니다. 지금 닉슨은 중국과도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며 쏘련하고도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남조선에 군사기지를 계속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난날 미국은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하여 남조선에 저들의 군사기지를 둔다고 하여온것만큼 오늘 큰 사회주의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가진다고 하면서 계속 남조선에 군사기지를 둘 조건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모든 군사기지와 침략군을 걷어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또한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도와주며 그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남조선을 침략하도록 하고 또 남조선을 일본의 상품시장으로, 부속물로 만들려는것은 우리 인민을 적대시하는 비우호적인 행위입니다. 미국정부는 우리 나라에 대한 이런 비우호적인 행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만일 미국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비우호적인 행위를 그만두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미국을 적대시할 리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가 하는것을 주시할것입니다.

미국정부는 큰 나라들과만 관계를 개선할것이 아니라 응당 작은 나라들과도 관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큰 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것이 작은 나라들과의 관계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아직까지 작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종전의 태도를 변경시키지 않고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간의 공동콤뮤니케에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상태의 완화와 남조선이 북조선과 접촉하는것을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남조선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앞으로 두고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미국이 조선에서의 긴장상태완화와 남북간의 접촉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압력에 못이겨 빈말을 하였다는것을 의미할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닉슨이 중국에 가서 한 말들을 기억하고있습니다. 닉슨이 중국에 가서 한 말들가운데서 가장 흥미있는것은 어떠한 장벽도 세계의 사람들을 갈라놓지 말아야 한다고 한것입니다. 우리는 닉슨이 자기가 한 말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것을 주시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이 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철거하기전이라도 두 나라 사이에 서로 리해를 도모하며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기자래왕과 문화교류 같은것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고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는 미국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오려고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편에서 우리 사람들이 미국에 간다고 하여도 별로 흥미있는것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문을 닫아매려는것은 아니지만 두 나라 사이에 근본문제가 해결되기전에는 기자래왕이나 문화교류 같은것은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하리라고봅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불쾌한 감을 느끼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다른 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도 다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원쑤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미교양을 강화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정부의 적대시정책이 변하지 않는한 미국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정책도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나라 사이에 근본문제가 해결되기전에는 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좋은 인상을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많은 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왔다가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그러한 래왕은 리로울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개변한다면 우리도 반미감정을 완화시킬수 있을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두 나라 사이에 래왕과 교류를 하여야 그것이 서로 리롭고 재미있는것으로 될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정부의 적대시정책이 개변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지금과 같이 제한된 범위에서 래왕하는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 기자들이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남조선위정자들의 목소리만 듣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인민들에게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하여 우리 나라 기자들이 미국에 가는것도 필요하다고봅니다. 또한 우리는 제한된 범위에서 미국 기자들과 민주인사들이 우리 나라에 오는것도 환영합니다. 이러한 래왕과 교류는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리해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당신들을 맞이한 경험으로 보아 앞으로 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오면 참관을 시작하기전에 먼저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에게 반미교양을 어떻게 하고있는가 하는것을 강의하여주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조선문제를 1954년 제네바회의에서 윁남문제를 다루던것과 같은 식으로 다룰수 있겠는가고 하였는데 우리는 조선문제를 그런 식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봅니다.

조선문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하여 조선사람들자신이 해결하도록 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쏘련과 중국은 우리의 이러한 조국통일방침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쏘련과 중국정부는 우리 나라의 평화적통일방침을 지지하여 여러번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나가야 합니다. 미국군대가 나간다고 하여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것입니다.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나가고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단결한다면 조국의 통일은 빨리 실현될것이며 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도 막을수 있을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힘으로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알고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남북조선 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을 통하여 남조선과 접촉하고있습니다. 물론 이 회담의 전망이 어떻게 되겠는지, 또 이 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지는 더 두고보아야 알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조선사람들끼리 한자리에 마주앉으면 남북간의 불신임과 오해를 제거하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있는 방도를 찾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남북조선사람들이 한자리에 마주앉지 못하였기때문에 서로 랭랭한 감정을 가지고있으며 많은 점에서 서로 불신임하고 오해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조선사람들사이에 몇가지 문제에서 불신임과 오해가 있다고봅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미국과 일본군국주의 세력을 등에 업고 공화국북반부를 침입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우리가 남조선을 내치지 않겠는가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오해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남조선을 《적화》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반공》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임과 오해로 말미암아 조선의 통일문제는 아직 전진을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사람들끼리 마주앉으면 서로 불신임하고 오해하고있는 점들을 제거하고 공통점을 찾으며 이에 기초하여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근 남조선의 위정자들도 말로나마 《자조》요, 《자립》이요, 《자위》요 하면서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하여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좋게 해석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과 어느정도 류사한 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공통점을 하나하나 찾고 그것을 발전시켜나간다면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할수 있을것입니다.

남북간의 제도상 차이는 민족적단결을 도모하며 조국을 통일하는데 장애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일부 다른 나라 기자들은 조선에 상반되는 두개의 국이 있는데 그 하나

는 북조선의 공산주의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남조선의 자본주의제도라고 하면서 이 두 극은 서로 합치될수 없으며 만일 이 두 극이 서로 마주치면 조선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것이라고 쓰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을 완전한 자본주의사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남조선에 대독점자본가들은 없고 있다고 하면 매판자본가들이 좀 있을따름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판자본가들을 반대합니다. 매판자본가들은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장애로 되기때문에 우리가 반대하지만 민족자본가나 중소기업가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조선사회는 자본주의길을 걷기 시작한다고 하겠는지, 자본주의를 동경한다고 하겠는지 아니면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고있거나 자본주의를 신봉한다고 하겠는지 하는 정도의 사회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남북간에 제도상 차이가 없다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남북사이에 리념과 신앙의 차이들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의 단결을 위하여 이러한 차이들을 초월하여야 된다고봅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강요할 의사를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남조선의 현위정자들도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다른 사회제도로 바꾸도록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면 민족적단결을 이룩하지 못할 리유가 없을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자기의 사회제도를 강요하지 않는 원칙을 세운다면 무력으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쌍방이 서로 자기의 정치적신념을 꺾이우지 않는이상 무엇때문에 한민족끼리 싸우겠습니까.

한나라안에 각이한 정치제도가 있을수 있으며 각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나라안에서 같이 살수 있습니다. 남조선에 어떤 정치제도를 세우겠는가 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조선에 남북의 현존 사회제도가 그대로 있을수 있고 이러저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호상 신뢰하고 호상 존중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또한 남북간의 제도상 차이는 있지만 호상 신뢰하고 호상 존중하는 조건에서 전민족적단합을 이룩할것을 주장합니다.

지난해 8월 6일에 한 연설에서 우리는 남조선의 집권당인 민주공화당과도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호상 존중하자는 우리의 의도에서 나온것입니다.

남북이 힘을 합쳐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호상 오해와 불신임을 점차적으로 제거하고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을것입니다. 만일 조선문제에 외세가 간섭한다면 우리 나라의 통일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안에서 생긴 불신임과 오해를 풀어줄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조선문제에 대한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반대합니다.

앞으로 조선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이 없어지고 다른 나라들이 방해책동을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걸릴수는 있겠지만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우리의 주장에 따라 이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취하고있는 실제적인 조치들에 대하여 알고싶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남북사이에 서신거래와 인사래왕을 실현하며 무역과 경제협조도 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인사교류에서 우리의 대의원들과 남조선의 《국회의원》들이 래왕하는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조선의 《국회의원》들이 공화국북반부에 오고 우리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남조선에 가며 이렇게 서로 오고가면서 한자리에 모여앉아 흉금을 털어놓고 의견을 교환한다면 그것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닐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국회의원》들뿐아니라 남조선의 광범한 정계와 사회계 인사들과도 접촉할것을 요구합니다. 다시말하여 우리는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광범히 교환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금 당장 나라를 통일할수 없다면 련방제라도 실시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련방제는 당분간 남북조선에 지금 있는 두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조선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주로 조선의 민족적리익을 위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통일적으로 조절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당면한 리익으로부터 남북사이에 경제교류를 하자는것도 여러번 제의하였습니다. 남북조선이 경제적으로 합작하여 우리에게 많은것은 남조선에 주고 남조선에 많은것은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면 남북조선의 경제는 더욱 빨리 발전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남북사이에 문화교류와 과학교류를 실현할것도 제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사이에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쌍방의 군대를 줄이자는것도 주장하고있습니다. 지금 남북간의 군비경쟁은 인민생활에 적지않은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가시고 접촉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물론 남북래왕이 실현되면 공화국북반부에 자본주의적영향이 들어올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에 대하여 조금도 겁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남조선사람들이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올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있습니다. 지금 문을 닫아매고있는것은 우리가 아니라 남조선위정자들입니다. 이제 남조선당국이 문을 열어놓는다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위정자들은 문을 열기를 매우 겁나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라는 구실밑에 이른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별의별 장난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으며 심지어 괴뢰국회안에서 민주공화당소속 《국회의원》들과 신민당소속 《국회의원》들끼리도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은 지금 남조선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반공대회》요, 《승공및방첩대회》요 하면서 《반공》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침할 의사가 없으며 남조선에 사회주의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위정자들이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을 구실로 이른

파《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며 《승공통일》을 해야 한다고 떠벌이는것은 조국통일을 하자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러한 소동은 남북사이의 관계를 접근시키자는것이 아니라 더 멀리하려는것이며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려는 행위입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말하는 《승공통일》이라는것은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다 없애고 통일하겠다는것인데 이것은 결국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영구화하자는것입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이러한 소동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체의 약점을 드러내놓는것이라고봅니다.

앞으로 우리는 남북간의 접촉과 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인내성있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남조선이 일본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데 대하여 매우 우려하고있습니다. 만일 남조선위정자들이 계속 남북사이에 문을 닫아맨다면 남조선에 일본자본이 들어와 남조선은 경제적으로 일본에 완전히 예속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력사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894년에 조선에 있는 일본거류민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조선에 기여들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또다시 조선을 침략하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잡지 《세계주보》에서 일본군국주의우두머리들이 조선이 적어도 4반세기동안은 통일되지 말아야 한다고 한 말이 씌여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또다시 조선을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군국주의자들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들과 새세대들에게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력사를 똑똑히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력사를 잊지 않고 일본군국주의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도록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고 남북으로 갈라져있는것은 남조선위정자들의 반동적인 책동과 함께 외세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있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이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문제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의 관계가 개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문제는 일본정부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일 두 나라 사이에 선린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적대시정책을 써왔기때문입니다. 일본정부는 요시다내각으로부터 기시, 이께다, 사또 내각에 이르기까지 력대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하여 계속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여왔으며 적대시정책을 써왔습니다.

만일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자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하여 계속 적대시정책을 쓰며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조건에서는 구걸외교를 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작은 나라 인민일수록 자존심은 더 있어야 합니다. 작은 나라 인민이 자존심까지 없으면 살아나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이 왼 뺨을 치는데 오른 뺨을 쳐달라고 내대고 《천당》에 가고싶지 않으며 자기의 자존심을 조금도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무엇인가고 하였는데 그것은 조국의 통일입니다.

조선민족은 한피줄을 이은 단일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아직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여 우리 민족은 갈라져살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인공적으로 생긴 장벽으로 하여 적지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 친척들과 오래동안 갈라져살면서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서신거래도 못하며 생사여부조차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빚어내는 인공적인 장벽은 하루빨리 없어지고 우리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통일되면 우리 민족은 남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으며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 기초하여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 다같이 평화롭게 살수 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근면하고 슬기로운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은 고생도 겪어보았고 오래동안 민족적인 멸시와 압박과 착취도 받아보았으며 외래침략자들의 침략도 당하여보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남북조선인민들이 힘을 합쳐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한다면 우리 인민들은 남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으며 우리 나라는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인구도 적지 않으며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우리는 능력있는 민족간부들도 많이 키워놓았습니다. 해방직후에는 우리에게 능력있는 기술자들이 없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사람들에게 기술을 배워주지 않았을뿐아니라 조선사람들이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조선사람들이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하였는지 해방전에 조선사람가운데 기관사가 네명밖에 없었습니다. 놈들은 기관사까지도 다 일본사람들만 시켰고 조선사람은 화부노릇이나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쓰라린 고통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해방후 민족간부양성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50만명에 달하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간부양성사업에서 이미 얻은 성과에 기초하여 6개년계획기간에 그 대렬을 100만명으로 늘일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인구도 많이 가지고있고 풍부한 자원도 가지고있으며 기술자들의 대부대도 가지고있습니다. 그런것만큼 조국이 통일되면 빠른 시일안에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할수 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난날 우리가 하여온 투쟁가운데서 어떤 투쟁이 가장 어려웠는가

하는것을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헤아릴수 없이 많은 어려운 투쟁을 하여왔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 말할수는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하여온 투쟁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투쟁의 하나는 전후 재더미우에서 일떠서기 위한 투쟁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동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은 여지없이 파괴되였으며 공장과 기업소들도 다 재더미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전후 아무것도 없는 빈터우에서 도시와 농촌을 건설하고 공장을 일떠세워야 하였으며 인민생활을 빨리 안정시켜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대중과 굳게 통일단결되여있었기때문에 이러한 난관과 시련을 능히 이겨낼수 있었으며 경제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어려운 고비들을 기본적으로 넘기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도 안정되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그리 높지는 못하지만 우리 나라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으며 일자리가 없어 헤매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다 일하며 무료로 공부하고 무상으로 치료받고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일수 있는 기초를 닦아놓았습니다.

우에서도 말하였지만 우리는 능력있는 민족간부의 대부대를 가지고있으며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의 토대도 마련하여놓았고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도 많이 꾸려놓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나라의 공업을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튼튼한 자립적인 공업으로 발전시켜놓았습니다. 우리는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도 닦아놓았습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를 더욱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한계단 더 높일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됩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의 말을 주의깊게 들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이것으로 당신들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정부의 반동정책은 반대하지만 미국인민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우리의 좋은 친우들이 많아질것을 원하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담화를 끝마치시자 솔스베리는 다음과 같이 말씀올리였다.

《나는 여기에 와서 귀국이 경제와 사회적 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들에서 매우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귀국은 매우 아름답게 건설되였으며 사람마다 건강도 좋고 옷도 잘 입고 교육도 잘 받고있습니다. 공업도 매우 발전하였습니다.

나는 특히 귀국이 중공업발전에서 이룩한 성과에서 가장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중공업의 발전은 귀국에서 이룩한 가장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발전을 이룩한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이 지난날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축하하여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건강할것을 바라며 앞으로 우리 나라에 또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력사는 되풀이될수 없다

1894년 6월 9일,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 78돐에 즈음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농민들의 무장봉기를 계기로 저들의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침략무력을 조선에 대대적으로 출동시킨 때로부터 78년이 지났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우리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은 놈들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가장 류혈적이고 강도적이며 가장 야만적인 죄악의 하나였다.

일본군국주의는 지난 시기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들에게 수많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침략과 전쟁에 미쳐날뛰다가 결국 전쟁으로 망하였다.

그러나 오늘 미제에 의하여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고 어리석게 피하면서 또다시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남조선에 재침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여러 지역에 침투하고있다.

지난날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들에게 감행한 일본군국주의의 천추에 용납못할 그 범죄행위가 오늘 다른 력사적조건에서 되풀이되려 하고있다.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의 새로운 침략과 전쟁 정책을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그의 범죄적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이것은 오늘의 절박한 공통적인 과업이다.

1. 일본군국주의는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흉악한 침략자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것을 짓밟고 략탈하여간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0페지)

일본군국주의는 그가 생겨난 첫날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워왔다.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침략에서 1894년 6월 9일에 시작된 강도적인 무력침공은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는 사변이였다.

19세기중엽이후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악랄하게 벌려온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894년 《왜양을 축멸하자》, 《권귀를 진멸하자》는 등 반침략, 반봉건의 구호밑에 조선농민들의 무장봉기가 일어나고 그것이 조선남부의 넓은 지역을 휩쓸게 되자 《팽창적일본》의 《좋은 팽창기회》가 왔다고 환성을 올리면서 그것을 저들의 무력침공을 개시하는 계기로 리용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일본 《거류민과 공사관의 보호》, 《조선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내정의 개혁》, 《동양평

화》등 허무맹랑한 간판을 들고 조선봉건통치배들을 위하여 농민봉기를 진압한다는 구실밑에 78년전 바로 오늘 저들의 침략무력을 우리 나라 땅에 대대적으로 들이밀고 마침내 봉기군을 무력으로 공격하여 피바다속에 잠그었으며 온갖 침략적만행을 다 저질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 무력간섭으로써 조선과 극동 침략에서 전면적무력침공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고 대규모적인 침략전쟁에서 침략전쟁에로 줄달음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자기의 지배를 확립하였다.

1894년 조선농민전쟁을 계기로 감행한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은 《명치유신》후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데서 자본주의발전의 살길을 찾으려고 하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침략과 전쟁 정책의 로골적인 표현이였다.

포악하고 호전적이며 략탈적인 일본군국주의는 생겨난 첫날부터 저들의 해외침략에서 조선을 첫 대상으로 삼고 우리 나라를 예속화하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을 침략하여 그를 저들의 상품시장, 원료, 식량, 로동력의 원천지로 확보하고 일본자본주의의 탐욕적요구를 채우려고 타산하였으며 여기를 전략적교두보로 하여 점차 아세아의 넓은 지역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려고 노리였다. 바로 이러한 범죄적목적으로부터 일본군국주의자들은《명치유신》으로부터 1894년 우리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에 이르는 기간 조선에 대한 야만적인 경제적략탈과 교활한 정치군사적침투를 감행하고 그것으로 일본자본주의의 《힘》을 배양하는 동시에 조선에 대한 앞으로의 전면적무력침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1875년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악명높은 《운양호》사건의 도발과 이듬해에 있었던 범죄적인 《강화도조약》의 조작은 놈들의 조선에 대한 침략에서 첫 돌파구를 열어놓은 사변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강화도조약》의 체결을 시초로 하여 그후 같은 강도적수법으로 《제물포조약》, 《한성조약》등 예속적불평등조약들을 차례로 조선봉건정부에 강요하였으며 이 조약들을 공간으로 하여 가혹한 경제적략탈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불평등조약들에 의하여 거머쥔 무관세 또는 극히 낮은률의 관세권, 많은 항구들의 강제개방과 개항지대에서의 치외법권, 최혜국대우 등 특권을 행사하면서 갖은 략탈행위를 감행하고 폭리를 얻었다. 놈들은 이와 같은 략탈행위를 점차 조선내륙에 확대하여 조선경제를 깊이 파먹어들어가면서 귀금속, 식량을 비롯한 조선의 풍부한 재부들을 제멋대로 빼앗아갔다.

이와 같이 경제적침략지반을 닦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정치군사적침략지반을 마련하고 그것을 강화하는데 피눈이 되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이러한 경제적략탈과 식민지예속화 과정은 바로 일본자본주의의 급속한 비대과정이였으며 해외팽창을 위한 침략전쟁의 준비과정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다음일정은 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고 조선을 강점하는것이였으며 조선과 극동 침략의 경쟁자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나아가서 온 아세아를 제패하는것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저지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근대조선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의 무력침공은 봉건통치배들의 부패무능과 무방비, 사대주의와 외세의존, 특히는 외래침략세력과 맞서싸울 애국력량에 대한 그들의 파괴행위로 말미암아 저지되지 못하였다.

모든 준비를 갖추고 그 도화선만 찾고있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자 그를 구실로 마침내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함으

로써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에서 새로운 류혈적국면을 열어놓았으며 나아가서 조선에서 경쟁자들을 밀어제끼기 위하여 중일전쟁(당시 중국은 봉건적인 청나라였다.)을 도발하였다.

전쟁의 결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자기의 큰 적수였던 봉건청나라 세력을 조선에서 밀어제끼고 조선에 대한 자기의 지배권을 튼튼히 하였다. 그들은 그후에도 자기의 병력을 계속 조선에 주둔시키고 1904년에는 이미 계획한 로일전쟁을 일으켜 짜리로씨야를 물리친후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를 확립하였다. 일제의 강요에 의하여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은 1894년 농민전쟁당시 일제의 무력침공과 거기에 뒤따른 침략전쟁들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침략적《을사보호조약》의 체결로 일제는 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의 모든 권리를 가로채였으며 조선봉건정부를 가로타고앉아 횡포한 통감정치를 펼쳐놓고 조선인민의 애국적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하였다. 그리고 조선인민의 정치적권리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조선군대를 해산시켰으며 토지와 그밖의 조선의 자원을 무제한하게 강탈하고 조선의 민족자본의 발전을 가로막았으며 조선인민의 민족교육의 권리를 없애버렸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사실상의 식민지강점이였으며 1910년 《합병조약》은 그것을 《법적》으로 확인한것이였다.

지난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여 감행한 야만적인 범죄행위는 현대제국주의의 침략력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페지를 남겨놓았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을 침략함에 있어서 미제와 정치군사적으로 결탁하였으며 그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침략을 지지하고 조종하면서 그들을 군사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미제와의 결탁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에 대하여 감행한 이와 같은 피비린내나는 침략력사는 이미 지나간 기록으로만 남아있는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전쟁을 일삼다가 결국 그것으로 패망한 일본군국주의는 또다시 되살아나 해외침략을 본격적으로 서두르고있다. 이에 있어서 그들은 자기의 선행자들의 침략경험에 신식민주의수법을 배합하고있다.

바로 오늘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신구식민주의의 포악하고 교활한 수법을 다같이 갖춘 보다 위험한 침략세력이다.

그들의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나라에는 심히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오늘 또다시 벌리고있는 침략책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오늘 이러한 사태발전은 19세기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농민들의 무장봉기를 진압한다는 구실밑에 대대적으로 침략무력을 끌고들어와 조선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과 간섭을 감행하기 시작하던 때를 방불케 합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19세기말 놈들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던 당시를 방불케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재침책동에서 《한일조약》의 조작은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였다.

미제의 조종밑에 일본군국주의두목들이 남조선반동통치배들과 맺은 이 《조약》은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의 남조선재침을 《합법화》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반동통치배들과의 사이의 군사적결탁을 이루어놓은 침략과 매국《조약》이다.

1965년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후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이 남조선에 마음대로 쓸어들어 침략지반을 닦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7년이 지났다.

이 7년동안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는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대한 재침목적을 이룩함에 있어서 그들의 선행자들이 19세기후반기 조선침략을 시작한 때로부터 1894년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는데 이르기까지의 약 20년동안에 감행한것을 앞서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식민주의자들이 흔히 그렇게 하였고 또 하고있는것처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난날에도 우리 나라에 대하여 침략의 촉수를 뻗치면서 일찍부터 경제적침투를 서둘렀다.

그러나 시초축적이 미약하였던 일본자본주의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19세기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는 상업적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일본자본은 면직물을 기본품목으로 한 경공업상품을 조선에 끌어들이고 쌀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을 실어가는것을 위주로 하면서 식민지초과리윤을 짜냈다.

조선에서 식민지리권을 거머쥐며 우리 나라에 대한 자본투하를 본격화한것은 1898년 경부선철도부설권의 획득, 1899년 조선연해의 어업권탈취, 1901년 마산에서의 일본거류민지역의 설치 등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대체로 1894년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이후부터였다.

오늘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경제적침투는 19세기후반기 전기간에 걸쳐 그들의 선행자들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감행한 경제적침투보다도 더 악랄하고 침략적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상품과 자본, 기술을 물밀듯이 쓸어넣으면서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예속시키고있다.

이른바 《원조》와 《차관》, 《기술제휴》 등을 통하여 남조선에 튼튼한 경제적지반을 닦아놓은 일본독점자본은 이미 사자본의 대대적인 직접적투자단계에 들어서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 침투한 일본의 국가자본과 사자본은 이미 10억딸라 가까이에 이르고있으며 그것은 비료생산부문에서 총자본의 90%이상을 차지한것을 비롯하여 화학, 건재, 섬유, 철광, 금속, 조선 등 기간산업부문에 깊이 뿌리박고 그 중요명맥을 틀어쥐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상품류통, 무역, 금융부문에서도 그 지위를 급속히 높이고있다.

남조선의 수입총액중에서 일본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에 이르러 이미 41.2%에 이르렀으며 남조선의 대외무역의 적자총액중에서 일본과의 무역에 의한 적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 상반기에 이미 70%를 차지하였다. 결과 남조선에 대한 수출에서 일본은 이미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한일조약》과 기타 《조약》들에 의하여 《공동규제수역》이라는 이름밑에 남조선어장을 탈취하고 이른바 《수출자유지역》이라는 명목으로 마산을 치외법권적인 조계지로 만들어놓은 일본독점자본은 오늘에 와서 남조선을 일본에서 공해가 심한 산업과 낡은 시설을 배출하는 지역으로 만들고있으며 남조선경제를 저들에게 완전히 예속시키기 위한 《수직적인 분업》경제로, 저들의 하나의 《지역경제》로 전환시키고있다. 그들은 남조선공업의 70%이상이 집중되여있는 포항 이남지역을 일본의 관서경제권에 《통합》시키려고까지 책동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경제적침투와 함께 사상문화적침투를 로골화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의 거점인 방대한 규모의 《공보관》의 운영, 해마다 수백만부에 이르는 일본서적과 수많은 일본영화의 보급, 수백개소를 헤아리는 일본말강습소의 설치, 매해 10만명 가까운 일본인들의 《방문》을 비롯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사상문화분야에서 남조선은 말그대로 일제통치시기를 방불

케 하고있다. 그것은 일본사람들자신이 《서울은 일본의 한 도시와 같》으며 《한국은 일본과 같다.》고 말하고있는데서도 알수 있다.

실로 오늘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는 19세기말 당시와는 비교도 안될 방대한 규모로 벌어지고있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이처럼 대대적으로 남조선에 밀어넣으면서 남조선인민들속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반일감정을 누잦히고 친일사상을 불어넣으려 하며 그들의 민족자주의식과 반제투쟁정신을 마비시킴으로써 저들의 재침야망을 손쉽게 이룩하려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문화적침투의 종국적목적이 정치군사적침략을 실현하는데 있다는것은 그들의 모든 침략력사가 잘 보여주고있다.

바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하여 지난날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오늘도 그렇게 하고있다.

지난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강화도조약》을 비롯한 여러가지 《조약》과 《협정》으로 조선침략의 길을 열어놓고 경제적침투를 앞세우면서 그를 발판으로 정치군사적침략을 다그쳤다.

그들은 이미 1880년에 서울에 일본공사관을 개설하고 그를 통하여 조선봉건정부에 각 방면으로 압력을 가하여 조선침략의 문을 넓히는 한편 우리 나라에서 친일세력을 길러내고 조종하였다.

이와 함께 그들은 이른바 무기 《증여》의 방법으로 무능한 조선봉건지배층을 휘어잡으면서 《군사교관》의 파견과 《별기군》의 조작 등으로 조선군대를 지휘통제하려 하였으며 나아가서 저들의 공사관을 경비한다는 명목으로 일정한 침략무력까지 조선에 끌어들였다.

이 모든것은 조선에 대한 전면적무력침공과 완전한 지배권의 확립을 위한 준비과정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침략력사는 오늘 다른 환경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범죄적 《한일조약》과 남조선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문화침투를 배경으로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서울에 방대한 규모의 《주한 일본대사관》과 지방들에 《령사관》을 설치하였으며 《정부》급 및 《민간》급의 침략조직과 단체들을 수많이 꾸며내고 그것들을 침략의 공간으로 리용하고있으며 《차관》과 정치자금을 미끼로 남조선반동들을 뒤에서 조종하고있다.

오늘에 이르러 일본 사또정부는 주제넘게도 미제와 함께 국제무대에서 남조선에 대한 《보호자》, 《대변인》 행세를 하고있다.

지금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로골적인 군사적침략을 감행하는 단계에로 넘어가고있다.

《한일조약》과 미일《한》 군사동맹 등에 의하여 남조선괴뢰들과의 군사적결탁을 이루어놓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저들의 침략무력인 《자위대》와 남조선괴뢰군사이에 반항공조기경보체계, 군사정보교환체계, 군사통신망체계 등 다각적인 공동군사작전체계를 확립하여놓고 남조선괴뢰군에 비행기, 땅크, 함정, 군용차량, 기관총 등 각종 중무기와 군사장비를 대주기까지 하고있다.

오늘의 사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군감축이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무겁게 한다.》느니 일본이 《자체로 한국을 방위하는 방안을 연구하지 않을수 없다.》느니뭐니 하면서 이미 남조선이 군사적으로 자기의 지배밑에 있는듯이 오만하게 행동하며 남조선괴뢰군의 통수권을 완전히 거머쥐려고 꾀하는데까지 이르고있다. 그들이 남조선주재 《방위주재관》의 수를 배로 늘쿠며 이른바 《교류근무》라는 구실밑에 《자위대》의 골간성원들을 남조선에 상주시키려고 책동하고있는것 등이 모두가 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알려져있다.

이 모든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미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침략의 발판을 튼튼히 닦아놓았으며 남조선이 말그대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공동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것은 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변함없는 침략야욕으로 말미암아 78년전 놈들이 조선에 대하여 야만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던 그 피비린내나는 력사가 또다시 되풀이될수 있는 사태가 조성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 있다.

지금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침략을 다그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사또반동정부에 의해서 이 정책은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사또일파는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면서 일본의 각계각층 광범한 인민들과 사회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일 두 나라 사이의 인사래왕과 경제, 문화 교류를 반대하고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계속하고있다.

또한 사또일파는 미제 및 남조선반동들과 공모결탁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각방으로 장애를 조성하고있으며 이른바 《유엔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구실밑에 국제기구들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관한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주장을 반대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조선분렬정책을 적극 도와주고있다.

더우기 사또일파는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음모에 깊이 가담하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와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이미 짜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저들의 작전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선제공격》에 대해서까지 떠들고있다.

그들은 조선을 공격하는데 유리한 지점에 《자위대》를 집중배치하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조선전쟁을 가상한 《자위대》의 《숙지훈련》, 《상륙작전》훈련 등을 거듭하고있으며 조선령해에서 미제침략군 및 남조선괴뢰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련이어 벌리고있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조선전선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투입하기 위하여 과거 조선침략의 통로였던 부산—시모노세끼 사이의 《관부련락선》을 다시 운영하고 그것을 부산으로부터 군사분계선에 이르는 고속도로와 직접 련결시켰으며 일본항공기에 의한 《일본항공화물수송로》를 개통하였다.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조선의 군사분계선까지 짧은 시간내에 침략무력과 군사장비를 대량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작전준비의 한 고리이다.

이와 같은 상서롭지 못한 소동에 무엇이 숨겨져있는가 하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바로 거기에는 전조선에서 옛식민지지배자의 지위를 차지하며 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다시금 아세아대륙에 뻗어나가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불타는 침략야망이 담겨져있는것이다.

남조선이 《일본방위의 제1선》이며 《생명선》이라고 입버릇처럼 되뇌여온 일본수상 사또는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이웃에 불이 나면》 그것을 《끄기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겠다고 여러번 떠벌이였다. 이것은 미제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거나 남조선반동들이 이른바 《승공통일》을 위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킬 때 그리고 지난 농민봉기때에 그러했던것처럼 남조선인민들의 외래침략자들과 반동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앙양될 때 그것을 구실로 삼아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과 무력간섭을 하며 그것을 확대할데 대한 검은 속심을 보여주는것이다.

실제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

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때에는 《자위대》침략무력을 비상출동태세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이 오늘 극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2. 일본군국주의는 아세아에서의 침략과 전쟁의 화근이다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을 반대하는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은 전후 일본에서 독점자본의 팽창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독점자본이 국내에서 팽창하게 되면 해외침략의 길로 나간다는것은 제국주의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입니다. 일본독점자본은 이미 팽창될대로 팽창되였으며 다시 자기 지배권을 확립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팽창정책은 바로 일본독점자본의 이러한 부활과 그 지배체제의 확립에 기초하여 실시되고있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99페지)

일본독점들은 미제의 조선침략전쟁과 웰남침략전쟁 등에서 죽음의 장사군으로서 피묻은 딸라를 그러모으고 국내근로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여 매우 빨리 살쪄왔다. 자본과 생산은 고도로 집적집중되고 여기에 기초하여 거대한 금융자본이 형성되였으며 그것이 일본의 대내외정책을 지배하는데 이르고있다.

비대하여진 일본독점자본은 시장과 원료원천지를 요구하고있다.

일본경제는 독점의 급속한 팽창과 함께 내부모순과 부패가 심하여져 엄중한 위기에 부딪치고있다. 생산과 소비의 날카로운 모순, 과잉상품, 대량생산을 보장할 원료의 극심한 부족 등 일본경제가 직면하고있는 곤난은 매우 크다. 이것으로 하여 과잉상품을 처리하며 원료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일본독점자본의 욕망은 걷잡을수 없는 불길처럼 타오르고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해외팽창에로 나아가게 하고있다.

독점자본이 국내에서 고도로 팽창하게 되면 밖으로 손을 펼치게 되며 그러한 해외진출은 언제나 방대한 군사력이 안받침되여있을것을 요구한다. 독점자본의 략탈적해외진출은 식민지적리권강탈로 발전하기 마련이며 식민지지배는 구경 《힘》에 의한 지배로 되지 않을수 없다.

오늘 일본반동지배층은 지난날 일본군국주의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가 높고 그의 재침책동에 대한 인민들의 경각성이 높은 조건에서 해외팽창에서 신식민주의수법을 쓰면서 교활하게도 자기들의 팽창정책을 《평화》와 《원조》의 간판으로 가리우고 《인민의 벗》으로 가장하고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장술로써는 저들의 흉악한 군국주의적정체를 결코 감출수 없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이 《국력에 상응한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로골적으로 《힘》의 정책에 매여달리고있으며 다른 나라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뿐만아니라 군사적으로 침략하기 위한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몇차례의 군비증강계획을 통하여 《자위대》를 중심으로 이미 《최강시의 황군을 릉가하는 화력과 기동력》을 가진 침략무력을 마련해놓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금 《자주국방》과 《고도의 방위력정비》의 이름밑에 핵무기를 포함한 현대적군사기술에 기초하여 그것을 더욱 확대강화함으로써 아세아에서 《제해권》과 《제공권》을 거머쥐며 언제 어느때든지 《국부전쟁》과 《전면전쟁》을 감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다. 그들이 지금 갖은 교활한 방법으로 이름을 바꾸어가면서 추진시키고있는 《4차방위계획》은 바로 이것을 위한 새로운 군비증강계획이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4차방위계획》가

간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3차방위계획》의 2배이상에 달하는 방대한 군사비를 침략무력증강에 돌리고 아세아의 사회주의나라들과 기타 나라들에 대한 장거리공격능력을 가진 《항공자위대》와 핵추진잠수함과 공격용항공모함 등을 보유하고 《서부태평양제압》능력을 가진 《해상자위대》와 《근대화》되고 고도의 기동력을 가진 《륙상자위대》를 건설할것을 예견하고있다. 동시에 《자위대》의 핵무장화계획을 은밀히 추진시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침략무력으로써 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는 재침략을 감행하고 그들에게 류혈적인 전쟁을 강요하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제국주의적팽창을 위한 군사적준비와 함께 그것을 안받침하기 위한 국내체제의 파쑈화를 다그치고있다.

그들은 침략전쟁의 도발과 때를 같이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통제하고 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파쑈적악법들을 만들어내고있다.

또한 그들은 극단한 군국주의단체들의 활동을 조종하고 지휘하면서 군국주의사조와 복수주의를 고취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이와 같은 광란적인 소동속에서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대국》론, 일본의 《아세아지도》론, 《대동아전쟁긍정》론, 일본제국주의례찬 등 군국주의독소들과 침략사상이 여러가지 선전수단과 심지어 교육망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퍼지고있다.

력사적으로 가장 침략적이고 략탈적이며 호전적이였던 일본군국주의는 패망후 재생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이 극악한 본성을 더욱더 악랄화한 심히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되였다.

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은 일본독점자본의 침략적요구의 산물인 동시에 미제의 아세아진탐과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반동적결탁의 산물이다.

조선과 아세아 인민을 침략하는데 일본명토와 일본군국주의를 리용하는것은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국주의자들의 대일정책과 대아세아정책의 일관한 방침이며 또한 조선 및 아세아 재침에서 미제를 등에 업고 제 안속을 차리는것은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의 기본원칙이다. 아세아침략에서의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종속적동맹관계를 맺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안내자, 대행자, 《돌격대》의 역할을 맡아나서고있다.

자기의 아세아침략정책이 파산에 처하고 대내외적위기가 전례없이 심화된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침략에서 손아래동맹자인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역할을 더욱더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미제는 이른바 《닉슨주의》의 침략적교리밑에 《새로운 아세아정책》을 내걸고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이 지역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는 새로운 침략적전략에 매여달리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미제는 아세아에서 〈닉슨주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일본군국주의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33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의 경제군사력과 풍부한 인적자원 그리고 복수주의야망과 침략경험 등 그들의 침략전쟁잠재력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일본군국주의를 《돌격대》로 하여 저들의 파산에 직면한 아세아침략정책을 추진시키려 하고있다. 미제가 아세아침략에서 일본군국주의를 동원하는데 얼마나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미일의 침략적결탁관계가 《아세아에서 닉슨주의실현의 열쇠》라고 떠들며 일본이 아세아의 《안정》에서 《주도적역할》을 놀아야 한다고

하고있는데서 잘 나타나고있다.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정책》의 본질은 일본군국주의를 침략전쟁에 내몰아 아세아의 혁명력량을 공격함으로써 저들의 아세아침략목적을 이룩하자는데 있다.

약삭바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정책》에 편승하여 《돌격대》로 충실히 복무하고 그 대가로서 저들의 아세아재침을 실현하며 옛식민지세력권을 회복할것을 노리고있다.

1969년 미일《공동성명》은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결탁과 일본군국주의의 본격적인 아세아재침의 흉악한 야망을 드러내놓았으며 1972년 그들의 쌘클레멘테《공동성명》은 이 침략로선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 《공동성명》들에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의 《안전》이 남조선, 대만, 인도지나 등의 《안전》과 련결되여있다고 하면서 이 지역들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군사적《의무》를 제멋대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가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군사적《돌격대》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파렴치한 일본군국주의는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종속적동맹관계를 맺고 그의 침략계획에 충실히 복무하고있는것으로 하여 2중의 침략성과 교활성을 띠고있으며 자신의 팽창주의와 미제의 아세아전략의 2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세아에 대한 새로운 침략에로 줄달음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군국주의적침략의 창끝을 무엇보다도먼저 조선에 돌리고있다.

일본군국주의가 조선을 저들의 해외침략을 위한 첫 대상지로 삼고있는것은 조선의 자연지리적조건이 저들의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함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타산하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지난세기중엽 부르죠아개혁후 일본자본주의가 린접한 나라인 조선을 침략하여 살쪘던것처럼 오늘 되살아나 팽창주의야망에 불타고있는 일본군국주의는 또다시 조선의 자원과 시장에 몹시 탐을 내고있는것이다. 일본경제의 악화와 는 파국의 위기는 이 요구를 더욱 강렬한것으로 만들고있다.

일본군국주의는 독점들의 탐욕적요구를 먼저 남조선에서 실현하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 및 남조선반동들과 결탁하여 남조선에 깊이 침투함으로써 이곳을 저들의 잉여상품의 판매시장으로, 귀중한 원료와 값싼 로동력의 원천지로 확보하고 일본경제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며 저들의 팽창주의적요구를 해결하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특히 대륙의 관문인 조선의 전략적위치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고있다.

대륙과 잇닿아있는 조선을 디디고 올라서지 않고서는 아세아침략의 문을 열수 없다는것은 력대일본반동통치배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이다. 되살아나 해외팽창의 길에 오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적인 군사전략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을 또다시 아세아지배를 위한 군사적교두보로 확보할것을 노리고있으며 이 범죄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남조선에 기여들어 그곳을 미일공동의 침략적군사기지로 만들며 이곳을 발판으로 하여 온 조선과 아세아를 《정복》하려는 야망을 실현하여보려고 타산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다른 어느곳보다 첫번째로 우리 나라에 해외팽창의 창끝을 돌리고있는것은 오늘 남조선에 조성되고있는 사태를 저들의 침략목적을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리용할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는데 또한 그의 중요한 리유가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미제의 아세아전략 특히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에 편승함으로써 저들의 팽창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오늘 공화국의 위력은 날로 장성하고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운동이 발전하고있으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이 더욱더 앙양되고

있는 반면에 미제의 침략정책은 날이 갈수록 파탄되고있다. 이에 따라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심각한 식민지통치위기를 겪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새로운 조선침략전쟁도발정책에서 찾으려 하고있으며 저들의 《새로운 아세아정책》의 주요한 공격방향을 조선에 돌리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닉슨주의의 시험장》으로 삼고 남조선당국에 더 많은 군사장비를 대줌으로써 조선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동시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을 동원하여 조선인민을 공격하게 하여 남조선에서의 저들의 식민지통치위기를 수습하며 나아가서 온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이룩하려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미제는 《새로운 아세아정책》에 의하여 저들이 남조선에서 놀고있는 침략적역할을 앞으로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나누려고 계획하고있다.

조선에 대한 군국주의재침을 당면한 절박한 일정에 올려놓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이와 같은 침략적요구에 편승하여 그들의 새로운 조선침략전쟁도발준비에 적극 가담하고 《닉슨주의》실현에 복무함으로써 저들의 조선재침목적을 일거에 이룩할것을 망상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침략적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남조선이 미제강점하에 있는 현실적조건을 저들에게 최대한으로 유리하게 리용하려고 꾀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을 계기로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그곳을 저들의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켰으며 여기에서 실제적인 주인행세를 하고있다. 조선을 침략함에 있어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절호의 기회로 된다.

지난세기 후반기와 금세기초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지지와 원조 밑에 경쟁자들과 정치, 군사적인 대결을 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조선에서 물리치며 침략하였다면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손우《동맹자》인 미제가 남조선을 직접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펼쳐놓고있는 조건에서 미제와의 직접적인 공모밀에 남조선에 기여들고있다.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적흉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제의 조종밑에 남조선반동들, 친일파들과 결탁하고 그들을 저들의 앞잡이로 리용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남조선을 저들의 상품시장으로, 자본투하지로, 군사기지로 만들며 나아가서 전조선을 침략할것을 노리고있다. 그들이 조선에 대한 저들의 침략무력의 출동의 필요성을 력설하고있는것도 그리고 한편으로 이른바 《일본합중국》론, 무장력에 의한 일본《권익보호》론, 남조선과 일본의 《안전일체》론 등을 퍼뜨리면서 다른편으로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을 유엔헌장과 일본헌법 등으로써 《합법화》하려고 각방으로 서두르고있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사실들은 오늘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에 열이 오른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부추김과 남조선반동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피묻은 칼을 빼들고 그들의 선행자들이 78년전에 그러했던것처럼 허황한 구실을 붙여가지고 어느때나 달려들수 있는 극히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금 이 위험한 길을 따라 분별없이 달려나가고있다.

끝없는 침략야망에 불타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을 다그치고있을뿐만아니라 광대한 아세아 및 기타 지역에 대한 재침책동을 또한 날로 강화하고있다. 그들은 미제의 웰남 및 인도지나 침략전쟁에 더욱 깊이 가담하고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침략행위를 계속하고있다.

그들은 아세아뿐만아니라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 침략의 검은 손을 뻗치고있으며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약탈

과 지배의 후보지들을 찾고있다.

일본군국주의는 이전보다 더욱 교활하고 음흉한 침략자로 등장하고 이전보다 더욱 악랄한 수법으로 죄악에 찬 침략력사를 되풀이하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평화》와 《협조》와 《공동번영》에 대하여 떠들고있으나 그것으로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결코 가리울수 없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력사는 그들이 내걸고있는 《평화》란 곧 강도적인 전쟁의 도발과 무력간섭을 의미하며 그들이 떠들고있는 《협조》와 《공동번영》이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예속을 의미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는 예나 지금이나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의 원쑤이며 모든 진보적, 평화애호적 인민의 원쑤이다.

3.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의 력사는 결코 되풀이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제 또다시 〈횡재〉의 기회를 노리면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남조선에 기여들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책동하고있으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입니다.

오늘의 조선은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며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아세아가 아닙니다. 만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 침략의 길에 뛰여든다면 그들은 자신이 지른 불길속에서 타버리고말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02～403페지)

오늘 우리 시대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승리하고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고있는 보람찬 혁명적변혁의 시대이다.

사회주의와 평화애호력량은 승리하고있으며 제국주의침략세력은 계속 쇠퇴몰락하고있다. 아세아와 세계적범위에서 력량관계는 더욱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제멋대로 활개치며 다른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고 주인행세를 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오늘의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던 19세기말이나 20세기초의 조선인민이 아니며 오늘의 아세아인민들도 지난날의 아세아인민이 아니다.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항일투쟁과 반미투쟁에서 승리한 빛나는 혁명전통을 가지고있는 인민이며 오늘 그 어떤 침략자도 능히 때려눕히고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불패의 힘을 가지고있는 인민이다.

오늘 우리 인민에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건하신 전투적인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이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강력한 자립경제가 있고 불패의 혁명군대와 전인민적무장이 있으며 온 나라가 요새화되여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서 싸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아세아에서 위력한 사회주의나라로, 강대한 반제혁명력량으로 장성강화되였으며 웰남인민을 비롯한 인도지나인민들은 반미구국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타올리고있다.

오늘 남조선과 남부웰남, 라오스, 캄보쟈에서뿐만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마수가 뻗치고있는 아세아의 모든 곳에서 자유와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민족해방투쟁의 거세찬 조류는 전아세아지역을 휩쓸고있다.

그 어떤 제국주의세력도 아세아에서 혁명력량의 장성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이 지역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

말살할수 없다.

날로 더욱더 강력히 앙양되고있는 아세아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은 아세아에서 온갖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완전히 쓸어버리고말것이다.

일본에서의 인민들의 투쟁력량도 빨리 장성강화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저지시키는데서 일본인민들의 투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또다시 침략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일본인민은 가만있지 않을것입니다. 일본인민들은 지금 군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고 민주, 중립, 평화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35페지)

오늘의 일본인민 역시 이전에 반동지배층의 군국주의침략책동의 희생물로 되였던 때의 일본인민이 아니다. 군국주의해외침략의 비참한 후과와 그로 인한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맛본 일본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 결탁하여 침략전쟁의 소용돌이속에 또다시 자기들을 끌고들어가는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지난날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일본인민들은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일간의 공모결탁과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책동이 일본의 독립과 평화와 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할뿐만아니라 일본을 또다시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죄악의 길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일본인민들은 독립, 민주,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오늘 일본인민은 일본을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군사기지로 만들고 군사적 《돌격대》로 내몰기 위하여 조작해낸 미일《안보조약》과 미일《공동성명》을 짓부시고 일본의 재군국화와 핵기지화를 반대하며, 기만적인 《오끼나와반환협정》을 반대하고 오끼나와의 무조건 전면반환을 실현하며, 미제의 윁남침략전쟁과 그에 뛰여들어 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본 사또정부의 범죄적인 정책을 반대하며, 침략전쟁준비를 위한 일본군국주의의 무력증강책동과 《자위대》의 해외파병책동을 저지시키며, 일본독점자본의 착취와 수탈을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하고있다.

일본인민의 이 투쟁은 날로 확대되고있으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망라되여 더욱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특히 요즘 일본인민들과 진보적인 계층들속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대시정책을 반대하며 조일 두 나라 사이에 선린관계를 맺기 위한 움동이 광범히 벌어지고있다.

지난해 일본의 각 당, 각 파 국회의원들로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이 결성된데 뒤이어 지금 일본의 각 지방의회들에서도 이와 같은 조직들이 무어지고있다. 일조우호친선운동은 오늘 일본전국에 커다란 힘으로 번져가고있으며 이 운동에는 정계뿐아니라 언론계와 그리고 로동자, 과학자, 문화인, 녀성 등 각계각층 인민들이 망라되고있다.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대시정책과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반대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며 《한일조약》의 페기를 요구하며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여 투쟁하면서 일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운동을 벌리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일본안에서도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력량이 날로 장성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인민의 날로 강화되고있는 반미반군국주의투쟁은 일본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 평화와 중립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이 투쟁은 미일반동들의 침략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

위업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더우기 일본인민들의 투쟁은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을 내부로부터 공격하며 그들이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들을 반대하여 함부로 날뛸수 없게 하는데서 힘있는 제동기적역할을 놀고있다.

사실상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됨에 따라 일본지배층안에서 동요와 알륵이 커가고있다.

오늘 일본의 지배층안에서도 미제에 의한 일본의 예속과 일본의 군국화와 해외침략이 일본자체에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 울려나오고있다.

오늘 미일제국주의자들이 서로 공모결탁하여 침략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는것은 결코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죽어가는 제국주의의 취약성을 실증하여줄뿐이다.

바로 군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의 부패성과 기생성의 집중적표현이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인민의 의사와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여 횡포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그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될뿐이다.

군국화의 진척에 따르는 군비의 발광적확장과 경제의 군사화는 많은 재부와 로동력을 비생산적소비에 탕진하고 재정적파탄을 가져오며 경제적위기를 더욱 심각화하게 할것이다. 그것은 또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빈궁과 무권리 속에 몰아넣고 그들의 불만과 반항을 증대시켜 나라의 위기를 더욱더 심화시키게 될것이다.

일본이 처한 지리적위치와 자연경제적조건으로 보더라도 해외침략을 위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은 그들에게 매우 위험한 도박으로 된다.

일본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이며 공업원료를 거의나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들의 처지가 매우 어렵게 될것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또다시 추구하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의 결탁에 큰 기대를 걸고있으나 그들이 떠받들고있는 미제국주의도 오늘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특히 아세아에서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녹아나고있으며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다.

이와 같은 형편에서 미제와 결탁하고 그의 아세아전략에 편승하는것으로써 자기의 아세아재침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하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타산은 사실상 이미 가라앉고있는 배에 뛰여올라 바다를 건너보려는것과 같은 무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군국화와 해외침략과 전쟁의 길, 이것은 일본에 파멸을 가져오는 길이다.

지난날의 력사가 이것을 증명하고있으며 오늘의 현실이 또한 이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국제력량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였고 아세아와 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를 비롯한 반제평화애호력량이 비할바없이 장성하였다고 하여 그것은 결코 미제와 더불어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지난날 아세아에서 저질렀던것과 같은 범죄행위를 다시금 저지를수 없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제국주의는 대외침략정책의 파탄과 국내의 정치, 경제적 위기가 심각화된 현단계에서 일본군국주의를 어떻게 리용하는가에 따라 아세아에서 저들의 운명이 좌우된다는것을 공개적으로 실토하고있다.

한편 미제의 부추김을 받으면서 되살아났으며 해외침략과 식민지세력권의 강탈을 열망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이 전략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는 침략적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고 타산하고있다.

미제국주의의 적극적인 부추김과 지지를 받아 과대망상적인 타산을 앞세워 전면적인 군사침략의 길에 나서려고 꾀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분별없는 책동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그들은 또

다시 아세아와 세계 인민들에게 커다란 참화를 끼치게 될것이다.

력사는 일본에서 자라나는 군국주의 침략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아세아와 세계가 결코 평온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만일 미제의 조종밑에 감행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제때에 저지시키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아세아는 새로운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될것이며 여러 나라들의 독립과 안전이 유린당하고 수많은 인민들이 파쑈노예화의 운명을 강요당하게 될것이다.

더우기 남조선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2중의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조선인민들에게는 더욱 큰 불행과 재난이 들씌워질것이며 전체 조선인민이 한결같이 념원하고있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의 앞길에는 새로운 엄중한 장애가 가로놓이게 될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를 꺾어버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오직 견결한 투쟁으로써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림으로써만 일본군국주의에 의한 재난의 력사가 되풀이되는것을 가로막을수 있다.

특히 미제와의 공모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으며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깊이 뻗치고있는 오늘의 엄중한 정세는 전체 조선인민의 피맺힌 원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결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노예로 될수 없으며 1910년의 수치스러운 망국의 력사를 되풀이할수 없습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조국수호와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꺾어버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신년사》, 1972년 1월 1일, 22페지)

우리 인민은 결코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될수 없으며 19세기말과 20세기초의 수치스러운 망국의 력사를 다시는 되풀이할수 없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적력량인 조선인민이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어떻게 강도적으로 조선을 식민지예속화하고 우리 인민을 억압착취해왔는가를 인민들이 똑똑히 알도록 하며 그들로 하여금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증오하며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놈들의 재침책동을 주시하며 그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미제와 결탁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과 전쟁도발흉계에 대처하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치는 한편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의 국방력이 철벽으로 다져지고 주체적혁명력량이 반석같이 꾸려질 때 어떤 원쑤도 감히 덤벼들지 못할것이며 설사 덤벼든다 하더라도 제때에 놈들을 때려눕힐수 있다.

미제와 공모결탁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으로 하여 남조선이 미일제국주의자들의 2중의 식민지로 될 위험에 처하고 남조선인민의 해방위업과 조선인민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에 새로운 장애가 조성되고있는 지금 민족

적랑심을 가진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물론하고 가만히 앉아서 사태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다.

남조선 각계각층 모든 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에 대하여 사소한 환상도 가지지 말고 모두가 다 들고일어나 그의 재침의 마수를 단호히 꺾어버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제의 조종밑에 꾸며진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범죄적 《한일조약》을 분쇄하며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침략자들의 침략기구들과 침략의 척후병들을 모조리 내쫓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주인행세를 하며 활개치고 다닐수 없도록 그들의 모든 활동을 봉쇄하여버려야 한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을 짓부시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새로운 재난의 위협에서 벗어나는가 못하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꺾어버리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우리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나라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애국적량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한짝이 되여 우리 민족을 분렬시키고 침략하려는 악랄한 흉계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교활한 침략책동에 리용당하지 말아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단결하여야 하며 전조선적으로 민족적인 대단결을 이룩하여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분쇄하여야 한다.

민족적단결을 이룩하고 우리 민족의 주체적힘이 강화되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야망을 꺾어버릴수 있으며 나아가서 나라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다 배격할수 있다.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남북사이의 접촉과 협상을 통하여 호상 불신임과 오해를 풀고 공통점을 찾아내여 그에 기초하여 단결하는것이다.

오늘 남북조선사이에는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로 인한 남북의 분렬, 의사소통의 단절로 인하여 일련의 문제들에서 불신임과 오해가 있다.

남북사이에 있는 불신임과 오해를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묻지말고 백지에서 새로 출발하여야 하며 전민족적리익에 복종하는 최대의 원칙에 서서 서로 공통점을 찾아내고 호상 존중하면서 단결을 촉진시켜야 한다.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서로의 제도와 신앙을 초월하여야 하며 그것을 서로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남북조선에는 서로 다른 사회제도와 리념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외세를 배격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민족지상의 과업을 해결하는데서 장애로 될수 없다. 오늘의 사태하에서 누구든지 민족의 장래를 우려한다면 능히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할수 있다.

우리는 이미 여러번에 걸쳐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는다는것을 주장하여왔다. 남조선위정자들도 우리에게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서로 제도와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것을 초월한다면 민족적단합을 이룩할수 있으며 그리하여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꺾어버리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나갈수 있다.

남북사이의 접촉과 협상은 호상 불신임과 오해를 가시고 공통점을 찾아내며 그에 기초하여 민족적단결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길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기간 민주공화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접촉과 협상을 거듭 주장하여왔다.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주장하고있다.

오늘 일본의 광범한 인민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줄기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일본의 독립과 안전을 위한 자신들의 민족적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고있을뿐만아니라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은 반대하지만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과는 단결하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일본인민과 밀접히 련결되여있는 조선인민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용감히 싸우고있는 일본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그 침략야망을 저지파탄시키는것은 조일 두 나라 인민들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이다.

조선인민은 미일반동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일본인민과 굳게 손잡고 서로 긴밀히 지지협조하여나갈것이며 전투적뉴대를 끊임없이 강화하여나갈것이다.

우리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과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대시정책을 반대하는것과 함께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에 선린관계를 맺을것을 념원하는 일본인민들과 진보적계층들의 날로 높아가는 지향과 그들의 투쟁을 계속 변함없이 지지할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에 선린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사촉밑에 일본정부가 남조선괴뢰도당과 결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에 어긋나는것이며 일본의 민족적리익에도 배치된다.

일본정부는 마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하며 남조선반동지배층들과 맺은 범죄적 《한일조약》을 페기하고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즉시 그만두어야 하며 미제의 조종밑에 남조선반동들을 부추겨서 조선사람끼리 싸움을 붙이며 거기에 끼여들어 한몫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선린관계를 맺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는 또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침투는 반대하지만 자주권의 존중에 기초한 나라들사이의 무역 및 통상 교류관계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서로 이웃에 있는 조선과 일본이 이와 같은 원칙에서 선린관계를 맺으며 경제 및 기타의 교류를 진행하는것은 좋은 일이지 결코 나쁜 일로는 되지 않을것이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반대하는것은 지난날 일본군국주의의 야만적침략에 의하여 커다란 재난을 겪었던 모든 아세아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과업이다.

재침야망에 불타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를 등에 업고 더욱 오만하고 횡포하게 날뛰고있는 오늘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그에 단호히 대처해나서야 하며 공동의 강력한 투쟁으로 그를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싸우는 나라 인민들과의 전투적단결과 반제공동전선을 더욱 강화하여나갈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인민은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그 저주로운 침략의 력사가 되풀이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조선인민과 아세아인민들은 원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을 단호히 물리치고 반드시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할것이다.

당정책관철과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

리 근 모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전원회의와 올해 신년사를 비롯한 최근 여러차례에 걸치는 강령적교시들에서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특히 수령님께서는 지난해 6월에 있은 평남도당전원회의 확대회의를 몸소 지도하시면서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과업수행에서 평남도앞에 나서는 구체적과업들을 명시하시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관한 문제는 간부들과 일군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또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본질적내용, 그것을 높이기 위한 방도들과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간부들과 일군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참된 혁명가로 준비할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의 진수를 깊이 파악하고 그를 실천활동에 깊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의 리익,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한 참된 복무자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다할수 있게 하는 중요담보로 된다.

* *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선결조건이며 필수적요구이다.

일군들속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인다는것은 그들이 확고한 혁명적세계관과 높은 계급적자각에 기초하여 수령께 끝없이 충직하며 당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혁명가다운 풍모를 전면적으로 갖춘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려면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2페지)

당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은 일군들의 기본사명이며 의무이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선봉에 선 자각적인 혁명가들이며 당과 인민대중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선출되고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심부름군이다. 그러므로 그 어떤 개인의 리익과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해, 인민대중을 위해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것은 일군들의 신성한 의무로 된다. 따라서 우리 일군들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고 그를 높이 발양할 때 당과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할수 있으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할수 있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며 이것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첫째가는 요구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한 투쟁은 당의 령도적역할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으며 당은 수령의 령도에 의해서만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혁명위업수행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수 있다. 당과 로동계급의 수령은 인민대중에게 옳바른 투쟁강령을 내세워주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옳은 전략과 전술을 세우며 인민대중을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워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간다. 또한 수령의 령도없이는 당이 로동계급의 조직된 전위부대, 정치적참모부로 될수 없으며 인민대중은 나갈 길을 찾을수 없다.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의 유일중심이며 혁명운동의 심장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리익에 대한 충실성은 곧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표현되여야 한다. 따라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우리 간부들과 일군들이 진실로 당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하며 인민대중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자면 무엇보다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여야 한다.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떠나서 우리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일군들의 고상한 품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인민을 다 잘 살게 하고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방침을 규정한것입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곧 혁명투쟁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60폐지)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투쟁을 떠나서 다른 투쟁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우리 나라를 더욱 발전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며 우리 인민들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며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어느것이나 다 우리 혁명의 요구, 우리 인민의 근본리익과 지향이 반영되여있다.

이처럼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집중적으로 구현되여있으므로 그를 옹호하고 관철하는 우리 일군들에게 철두철미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립장과 관점, 태도를 가질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 일군들자신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여야만 당정책을 훌륭히 관철할수 있으며 진정으로 당과 혁명을 위하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참답게 복무할수 있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고 높이 발양하는것은 당정책관철에서 우리 일군들이 자기의 책임과 임무를 다할수 있게 하는 중요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들의 당성과 계급성, 인민성에 달려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61폐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간부들과 일군들은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적극적인 선전자이며 철저한 조직집행자들이다. 전투에서 군대의 승패가 지휘관의 지휘여하에 크게 달려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당정책관철에서도 역시 그 성과여부는 혁명의 매개 초소를 담당하

고있는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어떻게 잘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일군들이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적극적인 선전자로서의 역할을 옳게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있게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모든 활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일군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확고히 무장하여야만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그것을 고수할수 있으며 대중이 당정책의 혁명적진수를 옳게 파악하도록 정확히 해석선전하고 집행할수 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의 관점과 립장, 태도와 방법, 작풍은 철두철미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일군들이 높은 당적책임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당정책관철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있고 해당 단위의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충분히 동원할수 있다. 특히 우리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고 높이 발양할 때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하여 아득바득 애를 쓰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립장에서 모든 일을 실속있게 조직하고 혁명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인민대중의 드높은 혁명적열의가 있으며 이미 마련하여놓은 튼튼한 경제적밑천이 있다. 문제는 우리의 간부들과 일군들이 당과 수령님을 위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어떻게 성심성의로 일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실천적경험은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이악하게 달라붙어 투쟁하는 단위에서는 례외없이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군들속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혁명과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성취하여야 할 성스러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당면하게는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이며 긴장한 투쟁을 요구한다.

우리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바로 이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데서 발휘되여야 한다.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는 예상치 않았던 애로와 난관이 제기될수 있다. 당정책은 우리 일군들이 난관앞에서 굴할줄 모르는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일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기어이 완수하고야 마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할 때 빛나게 관철될수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당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는 교조주의, 사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소극성과 보수주의 등 온갖 그릇된 사상과 부정적현상을 불살라버리고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고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조직동원한다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거

대한 전변이 이룩될것이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전면적으로 더욱 훌륭히 관철될것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지휘성원으로,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 키워주시였으며 우리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특히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평남도가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전국의 다른 모든 지역들과 함께 평남도가 수행해야 할 강령적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남도가 당중앙위원회와 가까이에 있고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둘러싸고있는 도로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을뿐아니라 우리 나라 경제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지역이라고 하시면서 평남도에 대해 끊임없는 지도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에 개선하시여 강선의 로동계급과 첫상봉을 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1,600여차례에 걸치는 현지지도와 전화교시를 주시였으며 도시군당 대표회와 전원회의로부터 세포회의에 이르기까지 친히 참석하시여 우리 일군들의 사업방향과 사업방법을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당의 새 로선을 작성하시고 평남도에서 수많은 모범을 창조하시여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시였다.

오늘 도내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을 비롯한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일하는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은 수령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처음으로 눈을 뜨고 혁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였으며 투쟁의 길에 나서 배우면서 단련된 혁명의 믿음직한 지휘성원들로 자랐다.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오늘 평남도는 현대적인 공업과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전변되였으며 근로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껏 일하고 배우면서 다같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 당 및 정권기관 일군들은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있으며 그이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제일 많이 받고있다는 높은 영예를 간직하고 수령님의 높으신 기대에 적극 보답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야 한다.

오늘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수행에서 도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앞당겨 끝내는것이다. 수령님의 현지교시관철에서와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도앞에 나선 영예롭고도 무거운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기본고리의 하나는 우리 간부들과 일군들속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이다. 그래야 우리 일군들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앞당겨 끝낼수 있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평남도에 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기대에 적극 보답하는것으로 되며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일군들의 충성심의 표현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 실제사업 성과에서 표현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그들의 실지투쟁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을 위한 그들의 실지사업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직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당

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입니다.》(우와 같은 책, 552페지)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자면 우선 우리 일군들이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일군들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촉진시킬수 있는 강유력한 무기를 가질수 있다. 일군들이 이 혁명의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그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확고한 당적이며 혁명적인 주견과 신념을 가지고 당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으며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은 혁명적 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들과 교시를 특히는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관한 수령님의 교시의 혁명적진수와 전반사상, 수행방도 등을 깊이있게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60성상을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바쳐오신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일군들은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였던 혁명선렬들의 고결한 공산주의적품성을 따라배워야 한다.

수령님에 대한 일군들의 충실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있게 연구체득할뿐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관철하는 주인다운 립장과 혁명가적기풍에서 발현되여야 한다. 이것은 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과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일군들의 충실성을 재는 기본척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일군들이 당의 정책으로 무장되였는가 안되였는가 하는것은 곧 당정책을 어떻게 집행하였는가에 따라 나타난다. 일군들의 사상은 당정책집행에서 나타나며 그들의 행동, 집행, 발언에서 나타난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말만 앞서고 실천투쟁과 행동이 이에 따르지 못하며 책임적으로 일하지 않는 현상은 우리 일군들에게 조금도 허용될수 없다.

혁명과 건설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당적책임감을 간직하고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더잘 관철할것인가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사업을 짜고들어 조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분공되고 시작한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집행하고야마는 습관을 붙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 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에 립각하여 자기 사업의 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그와 어긋나거나 미진된것이 없는가를 찾아보고 제때에 바로잡아나가야 하며 어느한 고리도 놓쳐버림이 없이 제기된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일하는것이 우리 일군들의 고유한 일본새이며 혁명가적사업태도이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로동계급적 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데서 나타난다.

로동계급적관점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에서 흘러나오는 높은 계급적자각이며 로동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적립장이다. 일군들이 로동계급적 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견지할 때 모든 사회현상을 옳게 분석하고 평가할수 있으며 일체 비당적이며 비계급적인것과의 타협없는 투쟁을 전개할수 있다.

일군들은 군중과의 사업이나 기업관리 또는 생활양식의 그 어느 분야에서나를 막론하고 계급적리익을 침해하거나 썩어빠진 부르죠아적독소가 침습 또는

발현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건전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 지배하고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할 때 우리 일군들은 당의 혁명위업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더잘 이바지할수 있으며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촉진시킬수 있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인민을 위해 성심성의로 복무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해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원래 인민대중에 대한 열렬한 사랑, 인민의 리익에 대한 충실성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에 충실한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품성이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근본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매개 단위책임자들은 자기가 맡은 로동자들과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온갖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이 로동자들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에 관심을 돌리는것이 자기의 첫째가는 임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 투쟁한다면 반드시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은 해당 단위의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 그러므로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유족하고 문화적으로 꾸리며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투쟁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며 혁명사업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들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증대시킬수 있는 온갖 조건과 가능성이 다 지어지있다. 특히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끊임없는 배려는 그 어디에나 다 미치고있다.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간부들과 일군들의 사상관점에 달려있는것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일군들의 인간성은 항상 인민을 생각하며 자신이 불편하더라도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지말자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것을 말한다.

우리 간부들과 일군들은 항상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걱정하고 책임적으로 돌봐주며 그들이 곤난해하는 문제는 제때에 풀어주는 혁명가적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특히 일군들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다종다양한 인민소비품을 더많이 더좋게 생산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진실로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립장에서 모든 사업을 실속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투쟁하자면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높으신 덕성을 따라배워야 하며 우리 인민을 남부럽지 않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잘 살도록 하시려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방도는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 특히 사상투쟁을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적인 병집을 고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이며 사상단련의 용광로는 당원들과 대중의 강한 비판입니다. 간부들의 당성과 계급성, 인간성은 무엇보다도 당세포회의와 초급당회의들에서 그리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속에서 끊임없이 검열되고 단련되여야 합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208페지)

당조직생활은 간부들과 일군들의 중

요한 정치생활이며 혁명활동이다. 이것은 또한 일군들의 혁명적수양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간부들과 일군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당과 수령님을 위하여 일하는 혁명가의 숭고한 사상과 고결한 혁명정신을 배우게 되며 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을 어김없이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적기풍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은 혁명적조직생활 특히 당세포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며 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을 성실히 집행하고 각종 회의와 학습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혁명적교양을 받아야 한다.

일군들의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비판과 자기비판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비판과 자기 비판은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고 혁명적수양을 높이는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일군들은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온갖 부정적 현상들을 제때에 극복하고 동지호상간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게 되며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혁명가로 준비된다.

따라서 비판과 자기비판, 강한 사상투쟁이 없이 일군들이 혁명화될수 없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간부들과 일군들은 비판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원칙적이며 동지적이며 혁명적인 립장에서 비판과 자기비판, 사상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방도의 다른 하나는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우리 일군들이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그들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고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실태를 정확히 료해하고 아래일군들에게 친절히 가르쳐주고 걸린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는 기풍을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일군들은 낡은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마스고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해야 하며 진실해야한다. 동시에 일군들은 늘 군중속에 들어가 허심하게 배우면서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또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정치실무수준과 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우리는 지금 기술혁명시대에 살고있다. 따라서 우리 지도일군들이 자기사업에 정통하고 기술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도를 따라세울 수도 없으며 당정책관철에서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할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정치실무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부단히강화하여야 한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한 위대한 사상은 우리 일군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키며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당정책관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 발양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당의 숭고한 혁명위업수행에 더욱 보람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지난날 그러했던것처럼 앞으로도 일편단심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 계속 앞장서나감으로써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조직진행된 력사적인 보천보전투

오 백 룡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보고와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인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온 나라가 전투적기백과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조직진행된 보천보전투승리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암흑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비쳐주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였으며 조선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였다.

참으로 보천보전투승리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가일층의 앙양과 그 확대발전을 강력히 추동하고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고무한 위대한 사변이였다.

우리 인민은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 조선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영광스러운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으며 15성상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였으며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마련하여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존경과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으며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 *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주체적인 혁명로선에 기초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조국진군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보천보전투를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당시 조성된 정세는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조국진군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로 이름높은 우리 인민은 지금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여있으며 우리의 조국땅은 민족비운의 암운으로 뒤덮여있다.

이 준엄한 민족수난의 시기에 민족개량주의자, 좌우경기회주의자, 종파사대주의자 등 온갖 혁명의 배신자들은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일제침략자들과 공공연히 결탁하는 길로 나가고있다.

시대는 우리들, 공산주의자들만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질수 있는 혁명의 중추적력량이라는것을 증명하고있으며 우리들에게 더욱 어렵고도 무거운 임무를 부과하고있다.》(《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2페지)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조선을 제놈들의 대륙침략전쟁의 《병참기지》로, 《공고한 후방》으로 만들려고 더욱 광분하였다.

놈들은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강도적인 약탈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는 한편 《내선일체》, 《동조동근》을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 준엄한 민족수난

의 시기에 일제의 주구로 전락된 민족개량주의자들과 온갖 혁명의 배신자들은 일제의 민족말살책동에 발맞추어나섰다. 이리하여 조선은 망국의 비운이 더욱 무겁게 드리운 암흑의 천지로 변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헤매게 되였다.

또한 이 시기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연안에서의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에 질겁한 일제는 《국경경비》를 더욱 강화하면서 인민혁명군의 국내에로의 진출과 그 영향력이 인민대중속에 미치는것을 막아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지어 놈들은 《천황》의 특사까지 보내여 압록강, 두만강 연안일대를 한달이상이나 시찰케하고 《국경》을 《철벽》으로 만들어 어떤 일이 있어도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야단을 쳤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인 1937년 3월에 력사적인 서강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조국진군을 위한 전략적방침을 재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서강회의에서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국내에로 진출해야 한다. 그래야 일제통치하에서 신음하는 국내인민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줄수 있다. 조선인민의 아들딸인 우리 인민혁명군이 건재해있다는것을 알려주는것만으로도 그것은 인민들에게 큰 고무적힘으로 된다.

우리가 조국에 나가는것은 큰 도시를 치고 점령하자는것이 아니다. 조선에 나가 총을 몇방 쏘아도 그것은 인민들에게 큰 힘을 준다.

끌끌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대부대가 련합해서 위풍당당하게 나가면 그것은 일대 시위로 된다.

우리 인민에게 조선은 반드시 광복된다는 확신을 주는 거기에 국내진출의 거대한 의의가 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진군의 새로운 전략적방침은 소부대, 소조들에 의한 일시적인 국내진공이나 한두개의 큰 도시를 치고 점령하기 위한 단순한 공격전이 아니라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조선인민에게 조국해방과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기 위한 웅대한 전략적방침이였다.

그것은 또한 당시 조성된 정세와 항일무장투쟁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930년대 중엽에 이르러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은 급속히 확대발전하였다. 특히 남호두회의이후 조선혁명의 새로운 전략적거지—백두산근거지가 창설되고 이에 의거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당창건준비사업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전국적규모에서 급속히 확대발전되였다. 이리하여 이 시기에 와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조국진군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적인 혁명력량이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또한 백두산근거지를 랑림산맥일대에로 확대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을 계속 국내깊이에까지 진출시켜 무장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림으로써 일제침략자들에게 보다 큰 타격을 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조국진군을 위한 각 부대들의 활동방향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새로운 작전계획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의 각 부대들은 전투행동을 개시하여 안도와 림강 일대에 진출하였다. 이렇게 되자 적들은 《유격대의 주력이 안도에 있느냐? 무송에 있느냐?》고 떠들면서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때에 안도방향에 이동하였던 한 부대는

신속히 무산지구에 진출하여 적들을 족쳤다.

각 방향에서 활동하던 부대들의 전투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산지구에 나간 부대앞에 조성된 난관을 타개하며 적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하여 주력부대의 국내진공시일을 앞당기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5월하순에 장백현 지양개에 이르시여 이곳에서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국진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였으며 조국땅, 보천보에로 진격할 원정대를 편성하시였다. 한편 국경일대와 보천보에 대한 정찰을 조직하시여 적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시고 조국진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시였다.

그리고 대원들에게 조국진군의 목적과 의의를 해설침투시키며 그들을 주체사상과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으로,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전투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강화하시여 모든 대원들을 원쑤격멸을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신후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일제가 《금성철벽》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국경경비진을 돌파하시고 적들의 군사요충지인 보천보를 공격하시였다.

6월 4일 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울리신 한방의 총소리를 신호로 하여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는 개시되였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민활하고 용감무쌍한 전투행동으로 적들을 무리로 쓸어눕혔다. 그리하여 일제의 저주로운 경찰관주재소가 순식간에 녹아나고 면사무소, 산림보호구, 농사시험장, 소방회관, 우편국 등 적통치기관들은 불길속에 휩싸였다. 보천보의 밤하늘에 세차게 타오른 혁명의 횃불은 날강도 일제를 공포에 떨게 하였으며 원한과 고통이 서리였던 조국산천에 민족재생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었다.

보천보의 거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포고문이 살포되였으며 격문과 삐라가 나붙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포고문에서 전체 인민들이 조선인민혁명군에 호응하여 하루속히 일제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진정한 조선인민의 정부를 세울것을 호소하시였다.

수령님의 이 절절한 호소는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에게 끓어넘치는 애국심과 원쑤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골목골목에서 떨쳐나온 인민들은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를 열광적으로 환호하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면서 일제침략자들의 흉악무도한 만행을 폭로규탄하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체 반일애국력량이 굳게 뭉쳐 일제를 반대하여 싸울것을 호소하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오매에도 잊은적이 없고 그렇게도 흠모하여마지않던 전설적영웅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연설에 접한 인민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였다. 그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맞이한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뜨거운 눈물을 금치 못하였으며 그이의 말씀을 심장깊이 아로새겼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은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여 그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횃불로, 불멸의 기치로 되였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를 빛나는 승리로 결속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는 조국

을 완전히 해방할 날을 기약하면서 개선의 길에 올랐다.

보천보전투에서 치명적타격을 받은 일제군경놈들은 《비상회의》를 열고 《긴급대책》을 세우는 등 일대 소동을 일으켰으며 대병력을 동원하여 추격하여왔다. 그러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명철한 전법에 의하여 적들은 6월 5일 구시산전투에서 몰살당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이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또다시 추격해오리라는것을 천재적으로 예견하시고 무산, 림강 방향에서 활동하던 부대들을 회샤즈거우밀영에 모이게 하시였으며 여기에서 련환대회를 여시고 조국진군의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신 다음 전부대를 간삼봉계선으로 신속히 이동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 예견하신대로 적들은 조선주둔군 라남제19사단 소속 함흥74련대의 정규무력을 비롯한 2,500여명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간삼봉계선으로 밀려들었다.

6월 30일 간삼봉에서는 적아간에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수적우세를 믿고 달려든 적들은 포사격의 엄호까지 받으면서 발악하였으나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담무쌍하고 명철한 전술에 걸려들어 섬멸적인 참패를 당하였다. 이 전투에서 인민혁명군은 일제의 정예무력 1,500여명을 살상포로하고 수많은 무기와 군수물자를 로획하였다.

보천보전투의 련속인 간삼봉전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력을 유감없이 시위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더 굳게 하여주었다.

이처럼 보천보전투를 위시한 조국진군작전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출귀몰한 령군술과 탁월한 군사예술에 의하여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국내진공을 계획할 때에 우리보다 비할바없이 많은 적을 병력수로 이기려 한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국심과 전술로 이기려 하였다.

우리는 국경연안에 집중된 적이 제아무리 최신식무기로 장비되고 수적으로 우세하다 하더라도 동격서습한다면 반드시 무찌를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출귀몰하는 명철한 전법으로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조국진군과 보천보전투를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국내 진공작전을 조직진행하는데서 면밀하고 정확한 반복정찰의 조직, 구체적조건에 맞는 기동성있는 전투대오의 편성, 공격개시의 정확한 타산, 은밀하고 명확한 불의의 습격, 군사활동과 정치활동의 능숙한 결합, 부대의 집중과 분산, 이동, 대부대활동과 소부대활동의 능숙한 결합 등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몸소 창조하신 독창적인 군사예술과 유격전술을 훌륭히 구현하시였다.

그리하여 보천보전투를 위시한 대규모적인 국내진공작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항상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을 피동에 빠지게 하였으며 놈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수 있었다. 당시 적들도 인민혁명군의 전법은 그 어느 병서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신출귀몰한 것이라고 비명을 올렸다.

참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작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오직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신 탁월한 군사예술과 유격전술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의 일대 시위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웅대한 구상과 지휘밑에 조직진행된 보천보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전반적조선혁명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 의의는 일본놈을 몇명 죽인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주는 혁명의 서광을 비쳐준데 있습니다. 보천보전투는 조선사람은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다, 내선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놈과 조선사람은 동조동근이 아니다, 조선사람은 일본놈과 함께 중국을 침략하지 않는다, 조선사람은 모국어를 버리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성을 일본놈성으로 바꾸지 않을것이다,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일본놈과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전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보천보전투의 전략적의의입니다. 여기에 보천보전투의 력사적의의가 있는것입니다.》(《김일성선집》, 제5권, 504~50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보천보전투승리의 거대한 력사적의의는 우선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조선인민에게 조국광복에 대한 굳은 신심을 북돋아주고 혁명의 서광을 비쳐준데 있다.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친히 거느리시고 국내에 진출하시여 놈들에게 군사정치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가하심으로써 조선인민의 주체적혁명력량의 불패의 위력과 조선민족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제와 싸워 승리하고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천보의 밤하늘에 높이 올리신 혁명의 홰불은 일제의 모진 억압과 천대 속에서 신음하던 조선인민에게 민족재생의 길을 밝혀주고 그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겨주었다.

그때 놈들은 보천보전투소식을 비밀에 붙이느라고 무진애를 썼으나 어떠한 방법으로써도 조국광복의 서광을 본 인민들의 환희와 감격을 억누를수 없었으며 높아가는 인민대중의 혁명적기세를 막을수 없었다. 조선인민은 보천보의 홰불속에서 조국광복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갔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의 승리로 하여 전설적영웅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조선인민의 존경과 흠모, 신뢰의 정은 더욱더 두터워졌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이께서 령솔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있는 한 조국광복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말리라는 확신을 굳게 가지고 항일무장투쟁에 호응하여 반일투쟁을 전국적범위에서 더욱 세차게 벌리였다.

이처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조직진행된 보천보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운동을 가일층 앙양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놓았다.

보천보전투의 위대한 승리는 또한 일제침략자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고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으며 놈들의 종국적멸망을 더욱 촉진시켰다.

보천보전투에서 떨친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적위력앞에 전률한 일제침략자들은 《…그 행동이 조직적이며 통제적인것은 실로 한 독립국의 정규군대와 다른것이 없다. 대장의 명령일하에 습격방화…등의 분담적행동은 일순간에 진행되고 그동안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대담무적의 행동을 하는 원동력은 어데 있는가, 내부적인 정신적인것에서 이것을 발견해야 한다.》고 비명을 올렸다.

보천보전투에서 혼비백산한 일제는 그후 《국경경비진》을 더욱 강화해야겠다고 떠벌이면서 침략전쟁을 위하여 동원했던 많은 병력까지 압록강, 두만강연안에 끌어들였으며 국경일대의 일제군경들의 사기는 계속 저락되였다.

불안과 공포에 떤것은 일제군경놈들 뿐아니라 보천보를 비롯한 국경지대에 살던 모든 일본놈들이였다. 그들은 겁에 질려 가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도망치기까지 하는 추태를 벌렸다.

참으로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일제침략자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주고 조선인민에게는 조국광복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준 혁명의 홰불이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진행된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또한 제국주의침략자들의 철쇄에 얽매여 일대 시련을 겪고있던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외국의 한 벗은 보천보전투승리의 국제적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보천보의 홰불은 일제식민지통치하의 조선인민은 물론 그 당시 파쑈 독일과 이딸리아, 일본제국주의, 미영제국주의 등 모든 제국주의침략자들의 발굽밑에서 신음하던 전세계의 혁명적피압박인민들에게 투쟁의 신심을 안겨주는 거대한 사변으로 되였다.》

당시 국제파시즘과 제국주의렬강들은 식민지나라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면서 침략전쟁준비에 광분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교형리로, 반쏘반공책동의 돌격대로 날뛰면서 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전아세아를 삼키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진압》을 《국책완수상의 중요문제》라고 떠벌이면서 항일무장투쟁을 말살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친솔하시고 국내에 진출하시여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참패를 안겨줌으로써 놈들의 침략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에게 손에 무장을 들고 싸운다면 그 어떤 간악한 원쑤도 때려없고 승리할수 있다는 유일하게 정당한 진리를 실증하여주시였다. 이것은 민족해방투쟁에 떨쳐나선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에게 혁명적폭력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으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참으로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 찬란한 혁명업적을 남기였을뿐아니라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고무한 위대한 력사적사변이였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미제와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철옹성같이 다지며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숭고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숭고한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지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남반부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끊임없이 장성강화시키고 혁명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켜야 한다. 이에 있어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며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정치사상적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3대기술혁명의 중심고리인 공작기계 생산에서 계속 비약을 일으키자

전 풍 섭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수령님탄생 예순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수행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고 전국의 앞장에 서서 힘차게 달려온 희천의 로동계급은 지난 4월 9일현재 공작기계1만대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였으며 그에 뒤이어 천리마구성공작기계공장과 천리마만경대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기계전선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기들의 결의목표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기계공업부문 로동계급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한해동안에 3만대의 공작기계생산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 한해동안에 3만대의 공작기계생산수준을 돌파함으로써 우리는 6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인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커다란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앞으로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4월에 또다시 희천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그들이 공작기계생산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새로운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혁신하고 계속 비약을 일으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기계공업부문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3대기술혁명수행의 중심고리인 공작기계생산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기대와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 *

6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첫 전투에서 우리의 기계공업부문 로동계급이 이룩한 커다란 성과는 무엇보다도 공작기계생산을 3대기술혁명수행의 중심고리로, 심장으로 규정하시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할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방침이 가져온 위대한 승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작기계생산을 빨리 높이는것은 6개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며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기본고리로 됩니다.＞

수령님께서 공작기계생산을 3대기술혁명수행의 기본고리로 규정하신것은 기술혁명과 전반적인민경제발전에서 공작기계생산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가 노는 역할을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한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기술혁명은 다름아닌 기계혁명이며 기계공업 특히 공작기계공업을 발전시켜야 기술혁명을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다. 또한 기계공업이 발전하여야만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조건에서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으며 모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하고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이후시기 기술혁명의 총적방향과 내용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준것으로서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새로운 혁명적로선이며 새로운 투쟁구호이다. 수령님께서는 3대기술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조건에서 기술혁명의 근본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밝히시였으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뚜렷이 제시하시였다.

3대기술혁명에서 중요한것은 첫째로, 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는것이며 둘째로, 농촌기술혁명을 계속 다그쳐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는것이며 셋째로,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이다.

3대기술혁명의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도 공작기계가 많이 있어야 한다. 공작기계는 기계공업의 모체이며 그 기본토대이다.

탄광, 광산을 비롯하여 채취공업부문의 힘든 작업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고열로동과 유해로동 부문의 자동화를 실현하며 수산부문과 철도운수부문, 기본건설부문의 작업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고 하여도 공작기계가 많이 있어야 한다.

우리 당은 앞으로 가까운 기간내에 농촌기술혁명을 더욱 다그쳐 경지면적 100정보당 뜨락또르는 3～4대, 자동차는 1대씩 차례지도록 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고있다. 이 과업을 수행하자면 뜨락또르,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하는것과 함께 그 수리기지와 부속품생산공장을 새로 꾸며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뜨락또르와 자동차 수리공장을 한개 군에 하나씩만 꾸리려고 하여도 각각 200개의 뜨락또르수리공장과 자동차수리공장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 역시 더 많은 공작기계를 생산보장할 때만이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또한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켜 과일과 남새, 수산물 등 여러가지 식료품을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며 일용필수품생산을 더욱 발전시켜 녀성들을 부엌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하여도 여기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특히는 공작기계를 많이 생산보장해주어야 한다.

실로 공작기계를 빨리 늘이는것은 기계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더욱 튼튼히 장비하며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한 튼튼한 담보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작기계생산을 3대기술혁명수행의 기본고리로, 첫 돌파구로 규정하시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몸소 진두에 서시여 가장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기에 벌써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공업화의 새 시대, 기계화, 자동화의 시대를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현대적이며 자립적인 기계공업의 모체로 될 새로운 공작기계공장의 터전을 하나하나 잡아주시였으며 우리 기계전사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공업화의 어려운 시기에도 내외원쑤들의 파괴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시고 공작기계공업 발전을 위한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우리 나라에는 자립적

이며 현대적인 강력한 기계제작공업 특히는 공작기계공업의 믿음직한 기지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과 3대기술혁명의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2월 또다시 희천의 로동계급을 몸소 찾으시고 새 기술혁신의 위대한 봉화를 지펴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는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기 위한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였으며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과 혁명적기개를 또다시 온 세상에 힘있게 떨치게 한 강력한 고무적기치로 되였다. 새 기술혁신의 봉화는 료원의 불길처럼 전국에 타번져 3대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혁명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희천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전국의 기계공업부문 근로자들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몸소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힘, 자체의 지혜로 전반적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촉진하고 전문화의 원칙에서 생산조직을 혁명적으로 개편하면서 새 기술혁신을 저애하는 온갖 낡은 사상과의 강한 사상투쟁을 벌림으로써 단 한해동안에 3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수령님께서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지펴주신 영광의 땅 희천은 그이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신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령님의 극진한 보살피심속에서 세상에 그 위용을 자랑하는 현대적인 대기계공업기지로, 새 기술혁신의 본보기공장으로 자라나 기술혁명수행의 선봉에 서서 당당히 나아가고있다.

참으로 우리의 기계공업이 오늘과 같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보살피심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며 그이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가 힘있게 타번진 결과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기계공업은 년 3만대의 공작기계생산수준을 돌파함으로써 6개년계획의 첫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공작기계생산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이 부문에서 보다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공작기계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공작기계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공작기계공장들에서 공작기계의 품종을 늘이며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신년사》, 1972년 1월 1일, 9페지)

현시기 공작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무엇보다도 공작기계의 가지수를 더욱 늘이는것이다.

공작기계의 가지수를 늘여야 기종간의 균형을 맞추고 3대기술혁명의 요구에 맞게 기계공업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그 위력을 충분히 나타내게 할수 있다.

공작기계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공작기계의 가지수를 늘이는것은 한두개의 전문공작기계공장의 힘만으로써는 해결할수 없다. 기계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한가지이상의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전문공작기계공장들에서는 비교적 정밀하고 계렬성이 높으며 다량으로 요구되는 현대적인 자동 및 반자동 공작기계, 특수공작기계, 능률적인 단능공작기계들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일반기계공장들에서도 수요가 적은 한두가지의 공작기계를 맡아 생산해야 한다. 모든 기계공장들에서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전문공작기계생산 직장 또는 작업반을 꾸

리고 자체로 공작기계를 생산해냄으로써 가까운 년간에 공작기계의 가지수를 배이상 늘여야 한다.

공작기계의 생산량과 가지수를 늘이기 위하여서는 그와 련관된 모든 고리에서 현대적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공작기계생산과 관련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협동생산규률을 철저히 지켜 그 가지수와 생산량을 늘임으로써 각종 전동기, 전기조작기구 등을 제때에 어김없이 보장해주어야 한다.

공작기계의 가지수를 늘이는 한편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공작기계의 질을 높이는것은 오늘 이 부문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공작기계의 질을 높여야 현대과학과 기술발전수준에 맞게 기계공업전반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다.

공작기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관리를 개선하여 각종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기술공정표를 완성하고 그를 엄격히 준수하며 열처리, 도금, 도장 등 전후처리공정을 완비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사업을 개선하여 설계의 질을 높이고 현대화하며 그를 반드시 생산에 선행시켜야 한다.

우리는 설계에서 공작기계를 더 가볍고 간편하고 성능이 높은것으로 되게 하며 부속품을 규격화하고 매듭을 통일화하여야 한다. 공작기계설계기관들에서는 설계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설계의 심사, 등록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공작기계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공구, 연마석 공업을 결정적으로 발전시켜 그 가지수와 질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은 공작기계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는 선결조건이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기술은 사람에 의하여 발전되며 기계도 사람이 만들며 그것을 움직이는것도 사람이다. 우리는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개선하여 기술자, 기능공 대렬을 늘이며 로동자들의 전반적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려야 한다.

공작기계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천리마희천공작기계공장의 모범을 따라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고 기술혁신의 선봉에 서서 계속 혁신, 계속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우선 생산공정을 적극 자동화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먼저 품이 많이 들고 힘든 부문인 주물작업에서 금형주조법, 진동사탁, 수압 및 수폭 사탁 등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기계화, 자동화를 실현하며 압연, 연신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형단조, 프레스화 비중을 높임으로써 소재생산을 가공에 결정적으로 앞세워야 한다.

가공부문에서는 단능 및 전문 설비들을 많이 만들어 자동선, 흐름선을 형성하며 종합가공반 등을 널리 받아들여 자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자체의 기술수준, 생산되는 제품과 생산공정의 특성에 맞게 생산조직을 부속품형태별 전문화의 원칙에서 혁명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특히 새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온갖 낡은 사상과의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뒤떨어진것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혁신 그 자체가 벌써 뒤떨어진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40페지)

경험은 온갖 침체와 답보, 보수와 소극과의 적극적인 투쟁을 벌릴 때 위대한 기적이 창조된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자연과의 투쟁을 적과 투쟁하는 기세로 혁명적으로 벌리고있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사상사업을 강화하여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앙양된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계

쏙 견지함으로써 공작기계생산에서 그들이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발휘하도록 하며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잔재와의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기술혁신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기계공업부문의 청년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3대기술혁명수행의 앞장에 서서 용감하게 전진하며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자기들의 온갖 정열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일뿐아니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대중적운동이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세가지 중심과업인 사람과의 사업, 설비, 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을 잘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며 천리마작업반, 천리마직장, 천리마공장 대렬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당위원회들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잘함으로써 수령님께서 기계공업부문에 주신 교시들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특히 모든 지도일군들은 언제나 혁명과업수행에 앞장서서 이신작칙하며 로동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후방공급사업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기계공업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와 사회의 모든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원료, 자재를 절약하고 원단위소비기준을 극력 낮춰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와 원료로 더 많은 공작기계를 생산해내야 한다.

공작기계공업부문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동무들이 당의 정책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어떻게 하면 당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애를 쓰고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달라붙어야 합니다.…

기계공업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특히 기계공업부문에 주신 교시들을 깊이 연구하여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기계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배려와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공작기계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한 투쟁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 전반적6개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이다.

기계공업부문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그이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공작기계3만대고지를 점령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수하며 6개년계획의 1973년말 생산수준을 올해안으로 기어이 돌파하기 위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앙양시켜나가야 할것이다.

날로 심각화되고있는 미제의 정치경제적위기

고 송 일

우리 시대에 와서 제국주의의 쇠퇴몰락과정은 급속히 촉진되고있다. 제국주의는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아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어가고있으며 제국주의의 지반은 그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다.

지구상의 온갖 제국주의가 다 그러한것처럼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더욱더 죽어가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취약성과 부패성은 전면적으로 드러나고있으며 놈들이 망할 징조는 이미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국내적으로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를 겪고있으며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여가고있습니다.》(《신년사》, 1972년 1월 1일, 18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고있다. 반전운동과 반정부운동이 날로 확대강화되고있으며 지배층내부의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있다. 그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있다.

닉슨도당의 범죄적인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미국인민들의 반전운동에 의하여 미국지배층들은 안으로부터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다. 반전운동은 개별적지역의 범위에서가 아니라 미국의 거의 모든 도시들과 지역들을 포괄하고있으며 여기에는 로동자, 청년학생, 사무원, 교원 그리고 가정부인들과 침략군병사들을 포함한 광범한 계층들이 망라되고있다. 투쟁에 떨쳐나선 인민들은 시위와 군중집회, 서명운동과 동맹휴학 등 여러가지의 방법과 형태로 지배층의 전쟁정책에 항의하여 나서고있다. 반전운동과정에서 이미 《평화와 정의를 위한 인민련합》, 《전국평화행동련합》, 《전쟁과 파시즘을 반대하는 청년들》을 비롯하여 100여개의 반전단체들이 무어졌고 이 반전단체들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투쟁은 더욱 조직화되여가고있다.

날로 고조되고있는 미국인민들의 반전투쟁에 당황한 미제전쟁우두머리들은 빈번히 긴급모의를 벌려놓고 경찰과 헌병, 《주방위군》과 《련방군》까지 동원하여 《비상경계태세》를 취하는 등 파쑈폭압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지만 전국을 휩쓸고있는 이 투쟁을 막아내지 못하고있다. 미제어용출판물들까지 《웰남전쟁의 불길이 백악관의 창문턱에까지 미쳤다.》고 개탄하고있는것은 바로 이러한 사태의 직접적인 반영이다.

반전운동은 지금 미국에서 막을수 없는 하나의 사회적조류로 되고있다.

미국인민들의 반전운동은 오늘 미제침략군병사들속에서까지 널리 퍼지고있다. 미제침략군병사들은 《웰남전쟁을 반대하여 뭉친 병사들》과 《병사동맹》 등 반전단체를 뭇고 닉슨도당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항거해나서고있다.

특히 웰남침략전쟁마당에 끌려나온 미제침략군병사들속에서의 반전투쟁은 수습할수 없는것으로 되고있다. 미제침략군병사들속에서는 상관의 전투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서며 그에 반발하여 집단적으로 탈주하는 현상이 꼬리를 물고일어나고있다. 이와 함께 미제침략군병사들은 거듭되는 패배로 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에 사로잡혀있으며 염전사상에 물젖어 그들의 전투력은 날이 갈수록 저락되고있다. 웰남침략전쟁마당에 끌려나온 미제침략군병사들속에서 마약중독자가 급속히 늘어나 수많은 병사들이 정신적불구자로 되고있는 사실

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자기 존재의 첫날부터 독점지배층의 침략도구로 리용되여온 미제침략군은 그 병사들의 대부분이 딸라에 목을 매여 강제로 끌려나온 고용병들로서 그들은 지배층이 강요하는 침략전쟁에서 아무것도 얻을것이란 없다.
미제의 전쟁우두머리들이 침략군병사들속에 인간증오사상과 야수성을 불어넣으면서 침략전쟁마당에로 내몰고있으나 그것으로써 결코 제국주의침략군대의 치명적인 약점을 메울수 없으며 그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전기운을 막아낼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미제침략군병사들에게 그 어떤 현대적무기를 쥐여주어도 그것은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그들에 의거하여 감행하는 침략전쟁이 결국 패배를 면할수 없는것이다.
반전운동과 때를 같이 하여 독점지배층의 전횡을 반대하고 생활상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미국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대중적진출이 강화되고있으며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흑인들의 투쟁이 또한 앙양되고있다.
지난해 여름에 있은 미국 태평양연안 부두로동자들의 파업투쟁과 철도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국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대중적투쟁은 더욱 큰 규모로 확대되고있다. 미국로동계급의 대중적투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항구들이 완전히 마비상태에 빠지고 수송이 중단되였으며 석탄, 자동차, 강철 및 농산물을 비롯한 여러 생산분야들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특히 닉슨도당의 인종주의정책을 반대하여 미국 흑인들의 투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의 대중적진출로 말미암아 미국에서의 사회경제생활전반이 혼란상태에 빠지고 있다. 미국지배층들까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대중적진출로 말미암아 제놈들이 《최악의 사태》에 부딪치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모든 사실은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광범한 인민대중의 불만과 항거에 부딪쳐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이로 인하여 미국에서의 사회계급적모순은 날로 격화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침략과 전쟁 정책의 전면적파탄과 그 암담한 전망에 대한 불안, 더욱 심해지고있는 국내외적위기를 둘러싼 미국반동지배층내부의 모순과 대립은 첨예화되고있다. 놈들은 절망적인 위기로부터 벗어나려고 암중모색하면서 옥신각신 론쟁을 벌리고있지만 그것은 결국 저들 내부의 충돌과 분렬을 촉진시키고있을뿐이다.
이렇듯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심각한 정치적위기로 말미암아 엄중한 곤경에 빠져있으며 미제의 통치지반은 전면적으로 뒤흔들리고있다.
정치적위기와 함께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위기는 미제의 쇠퇴몰락과정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미제국주의자들이 겪고있는 경제적위기를 분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는 만성적인 침체상태에 빠지고 국제수지는 끊임없이 악화되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32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미국에서 경제의 침체와 통화팽창은 지속되고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국제수지는 끊임없이 악화되고있다.
1969년 여름부터 시작된 미제의 경제위기는 3년째나 계속되고있으며 그것은 경제생활전반을 혼란에 몰아넣고있다.
만성적인 침체와 답보 상태에 있는 미국의 공업생산은 여전히 하강선을 긋고 있으며 생산의 감퇴와 판매난으로 하여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련이어 페쇄되고있다. 지난해말 미국의 공업생산은 1969년 여름에 비하여 6%나 떨어졌으며 특히 강철생산은 《25년래의 최저수

준》으로 내려갔다. 전반적인 공장들에서의 조업률은 지난해에 평균 75.4%에 지나지 않는 형편이였으며 그것이 강철공업에서는 지난해말에 이르러 50%까지 줄어들었다.

공장조업률의 급격한 저하와 공장, 기업소의 대량적인 파산몰락으로 말미암아 실업자의 대렬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올해 2월 중순에만 하여도 완전실업자수는 무려 560만명에 이르렀으며 거기에 반실업자까지 합하면 그 수는 실로 1천만명을 넘는다.

산업분야에서의 위기는 재정금융분야에서의 위기와 얽혀 미국경제의 전반적위기를 더욱 첨예화시키고있다.

재정금융분야에서의 미제의 위기는 특히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국제수지적자 그리고 딸라위기에 의하여 심화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걸머지고있는 국가채무액은 해마다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고있다. 1969년 6월에 3천 569억딸라였던 국가채무액이 지난해에는 4천 249억딸라로 올라갔고 래년에는 그것이 무려 5천억딸라라는 천문학적수자로 불어날것이라고 한다.

한편 미제의 국제수지적자도 급격히 증대되고있다. 1950～1956년에 국제수지에서 년평균 약 13억딸라의 적자가 났다면 1969년에는 69억딸라, 1970년에는 98억 2천만딸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력사상 최고기록》인 296억딸라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완전히 빚더미우에 올라앉게 되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겪고있는 딸라위기는 놈들의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딸라의 가치가 여지없이 떨어졌으며 딸라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증대되고있다. 미제의 국제수지적자가 계속 늘어나 해외로 많은 금이 흘러나감으로써 미국의 금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놓았으며 딸라는 금의 담보를 받을수 없는 한갖 종이장으로 되고있다.

지금 미제가 걸머지고있는 해외단기채무액은 500억딸라이상으로 늘어났으나 놈들의 금보유량은 겨우 95억 8천 800만딸라로서 그것은 해외에 흘러나간 딸라의 5분의 1도 물어줄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사태하에서 지금 자본주의세계에서는 딸라를 금으로 바꾸는 소동이 계속 벌어지고있다.

닉슨도당은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딸라위기를 막기 위하여 지난해 8월에 딸라와 금과의 교환을 정지시키고 미국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상품에 대한 관세를 10% 더 올리며 자국내에서 임금과 물가를 90일간 동결시키는 《비상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닉슨놈이 《비상대책》으로 들고나온 이른바 이 《신경제정책》(《딸라방위책》)은 결코 제놈들을 엄중한 위기에서 구원하지 못하였으며 전면적으로 파탄되고말았다.

미국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딸라위기를 막아보려던 닉슨도당의 《딸라방위책》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더욱더 엄중한 구렁텅이에 빠뜨려놓는 결과를 빚어내였다.

닉슨도당이 조작해낸 《딸라방위책》은 무엇보다도 미국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을 계속 떨구고 물가를 여전히 앙등시킴으로써 미국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와 함께 미제의 《딸라방위책》은 미제와 다른 자본주의나라들간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자본주의금융세계를 커다란 혼란상태에 몰아넣었다.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자본주의나라 금융시장은 《금과의 교환정지》로 가치가 떨어진 딸라가 들어오는것을 막기 위하여 문을 닫아걸고 거래를 중지하여버렸다. 또한 미제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 더 올린 결과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자본주의나라들은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되였으며 그들이 미제에 반기를 들고나옴으로써 자본주의세계에서의 미제의 고립은 더욱 촉진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딸라방위를 위한 제놈들의 책동이 안팎으로부터 강력한 반격에 부닥치게 되자 지난해 12월에 드디여 《딸라방위책》을 철회하고 금가격의 인상과 딸라의 평가인하에 대한 자본주의나라들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10%의 수입부가세를 철폐하고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의 화폐를 평가인상하도록 하였다. 미제는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이 들고나온 이른바 《자본주의세계의 통화가치조정》에 동의한 대가로 제놈들의 수출을 증대시켜 국제수지의 악화를 방지하며 잃어버린 금을 되찾음으로써 딸라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세계의 통화가치의 조정》을 통하여 딸라의 가치는 더욱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였고 자본주의세계에서 유일한 국제통화로서의 딸라의 지위는 전례없이 폭락되게 되였다.

오늘 심화되고있는 딸라위기는 미제를 대내외적으로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딸라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 지위가 폭락됨으로써 딸라의 힘으로 자본주의나라들을 좌지우지하던 미제의 지배체계가 뒤흔들리게 되였다.

사실상 지난날 자본주의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은 미제에게 딸라가 많은것으로 하여 그것을 좀 얻어먹으려고 놈들에게 추종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금고가 바닥을 드러냄으로써 자본주의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제를 따르지 않고있을뿐아니라 배후로부터 미제에게 타격을 가함으로써 놈들을 커다란 고립상태에 빠뜨려넣고있다.

이와 함께 딸라위기는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2차세계대전이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반동화한 군부상층 및 종족상층부의 대표와 같은 우익계층들을 괴뢰로 내세워 형식상 독립을 부여하고는 주로 돈을 주어 매수하는 방법으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여왔다. 그러나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돈주머니가 말라붙음으로써 딸라의 힘으로 유지해오던 놈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은 전면적으로 파산의 운명에 처하여 있다. 지금까지 미제로부터 《원조》를 받아온 많은 나라들이 오늘에 와서 미제의 지휘봉에 순순히 움직이며 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오히려 그에 등을 돌려댐으로써 놈들을 커다란 곤경에 몰아넣고있다.

실로 지난날 《딸라의 왕국》으로 뽐내면서 서방자본주의나라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중소국가들을 억누르고 예속시켜오던 미제의 힘은 현저히 약화되였으며 그 처지는 심히 어렵게 되여가고있다.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는 이처럼 안으로부터 병들어 썩고있으며 붕괴되여가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는 자본주의제도의 고유한 모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현상이다.

극소수의 대독점들이 국가기구를 장악하고있는 미국에서 실시되고있는 모든 정책은 전적으로 착취와 략탈의 목적에 복종되고있다. 독점지배층들은 높은 리윤을 추구하면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있다. 독점들의 착취의 강화로 인하여 미국로동계급의 절대적 및 상대적 빈궁화는 더욱 촉진되고있다.

미국에서 생산은 더욱더 사회적성격을 띠게 되였으나 생산의 결과는 한줌도 못되는 독점체들의 손아귀에 흘러들어가고있다. 그리하여 생산과 소비간, 로동과 자본간의 적대적모순은 날로 첨예화되고있다.

따라서 미제국주의자들이 겪고있는 정치, 경제적 위기는 그 어떤 우연적인것이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제도자체의 모순에 기초하고있는 합법칙적현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

들은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군비경쟁을 강화하며 새로운 전쟁을 일으켜 멸망하여가는 자기들의 처지에서 벗어날 길을 찾으려 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89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제놈들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해보려 하고있으나 그것은 오히려 놈들을 더욱 엄중한 위기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미국지배층들이 벌리고있는 침략과 전쟁 정책은 미국인민들에게 커다란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주고있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전쟁마당에 끌려나온 침략군병사들뿐아니라 그들의 부모처자들과 친척친우들을 항시적으로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있으며 그들속에서 지배층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키고있다.

또한 침략과 전쟁 정책에 따르는 방대한 군사비는 미국근로자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있으며 미국경제를 더욱더 엄중한 지경에 빠지게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 숱한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방대한 병력과 군수물자를 투입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을 탕진하고있다. 침략과 전쟁을 위한 미제의 군사비는 미련방예산지출의 80%이상에 달하며 웰남침략전쟁마당에 쏟아붓는 전쟁비용만 해도 해마다 근 300억딸라에 달한다.

날로 증대되고있는 군사비지출은 미제의 재정예산적자를 끊임없이 증대시키고있다. 놈들은 늘어나는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화폐를 람발함으로써 통화팽창과 물가의 등귀를 초래케 하고있다.

예산적자의 증대와 국제수지의 악화로 인한 금의 해외류출은 미국의 재정을 고갈시키고 딸라위기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있다.

이와 함께 침략과 전쟁 정책은 경제의 군사화를 촉진함으로써 미국경제를 더욱더 기형적인것으로 만들고있다. 이것은 경제전반의 균형적발전을 파괴하고 미국경제를 항시적인 위기상태에 몰아넣고있다. 사실상 오늘 미국경제는 방대한 군사예산에 의거하는 군수생산의 로대우에서 겨우 유지되고있다.

이렇듯 미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침략과 전쟁 정책은 미국에서의 사회경제적모순을 가일층 심화시켜 놈들을 보다 깊은 위기의 구렁텅이에로 몰아넣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는 바로 놈들이 추진시키고있는 침략과 전쟁 정책이 빚어낸 직접적인 산물이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그 어떤 방법으로써도 제놈들을 위기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할수 없으며 오히려 놈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그 위기는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정치경제적위기로 하여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의 처지는 심히 어렵게 되여가고있다. 그러나 미제의 힘이 약화되고 그 처지가 어려워졌다고 하여 놈들이 결코 력사무대에서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의 본성은 변할수 없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이다. 제국주의는 죽을 때까지 인민들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략탈할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9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옛처지를 꿈꾸며 절정판에 오른 운명을 구원할 출로를 찾으려고 피눈이 되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국내에서 각종 살인적인 악법들을 조작하고 국내체제의 파쑈화를 강화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사소한 민주주의운동과 진보적요소도

마구 탄압하고있다.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극히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고있다. 특히 놈들은 로동시간연장에 의한 절대적잉여가치생산을 계속 추구하면서 주로 상대적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로동자들의 피땀을 짜내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교활한 《량면전술》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이른바 《평화》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놈들은 핵공갈과 《평화적침투》, 탄압과 회유기만을 결합하여 혁명적인 나라들은 무력으로 하나하나 먹어가려 하며 사상적으로 나약한 나라들은 사상문화적침략으로 와해시키려 하고있다.

웰남에서의 미제의 강도적인 침략전쟁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바로 《평화》의 미명밑에 진보적인민들을 반대하는 야만적인 살륙전쟁을 감행하고있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을 강화하고있다. 한편 놈들은 《평화군》, 《아프리카십자로계획》과 같은 간판밑에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아세아, 아프리카의 일련의 나라들을 반제전선에서 떼내기 위한 파괴활동과 전복음모를 감행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은 미제에 대하여 사소한 환상도 가지지 말며 놈들의 최후발악적인 음모책동에 더욱 경각성을 높이고 미제의 온갖 악랄한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지구상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종국적으로 멸망할 때까지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계속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오직 세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내리막길을 걷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이르는곳마다에서 세찬 공격을 들이댈 때 놈들은 세계의 그 어느곳에서도 배겨내지 못할것이며 놈들의 마지막숨통은 끊어지고야말것이다.

지금 국제정세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는 극히 불리하게, 인민들의 혁명투쟁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발악적책동으로써도 제놈들을 서산락일의 운명에서 구원할수 없다.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며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추세이다.

근 로 자 제6호(루계 363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2년 6월 2일 발 행 • 1972년 6월 6일
ㄱ—24118 값 50전